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3호 2024. 3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중국의 고고학 수용과 변용

- 이진옥 | 외국인의 실크로드 탐험과 중국 근대고고학의 성립 7
- 이기성 | 중국 고고학 성립기 일본인의 중국 조사 45
- 이유표 |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고고학 인식과 활동 85
- 김정열 | 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 125

논문

- 이 호 | 김수홍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계보와 저본에 대한 재검토
- 목판본을 중심으로 175
- 오시진 | 19세기 후반 불평등한 국제사회와 주권평등원칙
- 식민주의적 '문명론'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221
- 김현정 | 전시체제기 학생 노무자 양성소, 복선과학박물관 257
- 조정란 | 21세기 '중화민족'·중화주의·'동일성의 제국'
-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을 중심으로 299
- 전인갑 |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Ⅱ)
- '신천하' 패러다임의 생성과 역사학 339
- 홍영미 | 당대(當代) 중국 사상정치 수단으로서의 언어교육과 대학어문(大學語文) 377
- 문상명 |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백두산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411

자료소개

- 위신광 |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중정일기(韓地從征日記)』 449

서평

- 홍성화 | 근세 시기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明末清初中國と東アジア近世』(岸本美緒, 岩波書店, 2021) 471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97

Contents

Special Issue China's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Archaeology

- Lee Jinok | Foreign Expeditions in the Silk Road and the Infancy of Chinese Archaeology 7
- Yi Kisung | Japanese Research in China during the Formation of Chinese Archaeology 45
- Lee Youpyo | A Research on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Early "Archaeologists" 85
- Kim Jungryol | Activities and Orientations of Early Chinese Archaeologists with Western-educated Background 125

Articles

- Li Hao | Reexamination of the Edition, Genealogy and Origin about Kim Su Hong(金壽弘)'s *Cheonha Gogeuam Daechong Pyeollamdo*(天下古今大總便覽圖): Focus on the Block-Printed Edition 175
- Oh Sijin | The Unequal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ocusing on Resistance to Colonialist Civilizational Discourse 221
- Kim Hyunjung |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北鮮), a Training Center for Student Labor Mobilization 257
- Cho Keongran | 'Chinese Nation(s)'·Sinocentrism·'Empire of Sameness' in Xi Jinping's Government—Focus on the 'Chinese Nation Community' and the 'Sense of Chinese Suzerainty(宗主權)' 299
- Jeon Ingap | The Changes in the Nation Building Strategy and Historical Studies in 20th China (II) 339
- Hong Youngmi | Mandarin Education and the Colleg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 a Means of Ideology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377
- Mun Sangmyeong | Promotion of UNESCO World Heritage Listing and Sinicization of China's Mount Baekdusan Narrative 411

Introduction to Documents

- Wei Chenguang |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Joseon Recorded by a Japanese Military Logistics Commander: Takenouchi Seisaku(竹内正策)'s *Diary of Conscript on the Korean Peninsula*(『韓地從征日記』) 449

Book Review

- Hong Sunghwa | Kishimoto Mio, China during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y and East Asia in the Early Modern. 471

특집

중국의 고고학 수용과 변용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외국인의 실크로드 탐험과 중국 근대고고학의 성립

이진옥 | 서울대학교 박물관 객원연구원

I. 머리말

II. 탐험의 시대, 접촉의 공간: 청말~중화민국 초기

III. 학계의 각성과 중·외 공동연구: 1920년대

IV. 반외세 담론의 확산과 탐험의 종말: 5·30 사건 이후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서안에서 감숙성을 지나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이어지는 중국령 중앙아시아의 타림분지 일대, 일명 실크로드는 고대에 중국과 인도, 로마를 잇는 동서 문명 교류의 중심이었다.¹ 19세기 말엽~20세기 전반에 실크로드는 오아시스 도시 유적에서 유물을 수집하려는 제국주의 열강의 탐험가들이 몰려들며 다시 한번 서양과 중국이 만나는 교차로로 부상했다. 중국 고고학의 역사에서 실크로드는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학문인 고고학이 중국에 도입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서구의 탐험가/학자들이 중국령 중앙아시아에서 유적 발굴과 조사, 유물 수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의 이론과 기법이 중국에 소개되었고 제국주의 열강의 유물 반출은 중국 학술계에 민족주의와 문화주권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실크로드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유럽과 미국에서 돈황학이 크게 발전했다. 말하자면 20세기 벽두 실크로드는 중국과 서양, 전통적 금석학과 서양 학문인 고고학,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만나는 접촉의 공간이었다.

* 투고: 2024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19)로 수행된 연구임.

1 실크로드라는 말은 1877년 스벤 헤딘의 스승이기도 한 독일의 지리학자 페르디난드 폰 리히트호펜(1833~1905)이 처음으로 명명했다. 넓은 의미에서 동서를 잇는 교역로로서의 실크로드는 북방의 초원길과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지나는 바닷길도 포함된다. 좁은 의미로는 전한시대 장건(張騫)이 개척한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를 가리킨다. 실크로드라는 명칭에는 과거부터 중국이 서방과 관계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서구 패권주의가 담겨 있을 뿐더러 중앙아시아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들을 고유한 역사적 실체가 아닌 문화적 존재이자 모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피터 홉커크 저, 김영종 역, 2000, 『실크로드의 악마들』, 사계절, 4~11쪽).

실크로드 탐험사에 대한 논의는 잘 알려진 피터 홉커크의 『실크로드의 악마들』과 같이 탐험 그 자체에 집중하는 저술과 유물 반출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쟁론, 서구의 충격에 직면하여 중국이 근대화로 나아간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서구 제국주의와 중국의 민족주의라는 이원적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 제국주의 서구의 충격에 직면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대응이라는 대비 구도는 중국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오래된 패러다임이기도 하다.² 그러나 실크로드를 둘러싼 서양의 탐험가와 중국인 학자, 관리, 청과 중화민국 정부와 학계의 추이를 미시적으로 추적해보면 서양-중국, 제국주의-민족주의, 유물 약탈-문화주권 등의 이분법으로 나누기 어려운 다층적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다양한 정치적·학문적 구상이 공존하던 청말~중화민국 초기 중국 각계가 실크로드와 외국인 탐험가의 활동을 인식하는 방식은 학문적·정치적 지향에 따라 상이했으며 국가 건설(state-building)의 방향이 정립되면서 급격히 변화했다. 중국의 지식인과 정치 엘리트 사회에서는 국체와 국가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갈래의 구상이 공존하고 있었고 새로운 국가의 영토 및 국민의 범위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 실크로드가 위치한 중국 서북지역은 18세기 이래 청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청 제국의 강역이 곧 중국의 영토는 아니었다.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수립, 군벌 시기와 전쟁을 거치며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동안 서북 지방지역의 역사적·정치적 위상은 끊임없이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식사회가 실크로드의 외국인 탐험가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실크로드에서 활동한 서양인 탐험가들과 이들과 교류했던 다양한 중국인 주체들의 여정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스벤 헤딘, 오렐 스타인과 같이 잘 알려진 탐험가뿐 아니라 이들의 탐험에

2 John K. Fairbank, 1968,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J. R. Levenson, 196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A Tri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동행한 중국인 학자, 탐험을 중재한 관리, 청말~민국 초기 학자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탐험을 둘러싼 중국 지식사회의 정치적·학문적 경관의 변화 추이에 대한 추적을 목표로 한다.

II. 탐험의 시대, 접촉의 공간: 청말~중화민국 초기

1. 탐험의 시대

19세기 후반, 고대 실크로드가 지나던 중앙아시아의 타림 분지 일대는 지구상 남아 있는 마지막 오지로 불리며 서구 열강의 탐험가들을 끌어들이었다. 부동항을 찾아 남하정책을 펴던 러시아와 인도 이북으로 진출하려던 영국이 19세기 동안 패권다툼을 벌이던 일명 “그레이트 게임”³은 중앙아시아 내륙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서 시작해 문화재 수집 경쟁으로 확장되었다. 1856~1932년의 기간 동안 러시아와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은 중앙아시아와 중국 서북지역에 총 66차례 탐험대를 파견하며 각축을 벌였다. 이 탐험가/학자들은 타림분지 일대의 오아시스 유적들을 발굴하고 둔황 장경동에서 나온 고문서 등 수많은 유물을 보존과 연구라는 명목으로 본국으로 반출했다.

최초로 타클라마칸 사막 횡단에 성공한 탐험가는 스웨덴 출신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스벤 헤딘(Sven Hedin, 1865~1952)이다. 그는 1865년 스톡홀름에서 태어나 옘살라 대학과 스톡홀름 대학에서 지리학과 지질학을 공부했고 베를린 대학에 진학하여 아시아 지질학 및 지리학의 권위자인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 1833~1905) 밑에서 공부했다. 리히트호펜의 권유로 1893년부터 1933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3 19~20세기 초에 중앙아시아 내륙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패권싸움을 일컫는 말로 영국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동명소설로 유명해졌다.

신강 등지를 탐험했다. 탐험의 일차적 목표는 측량과 지도 제작, 항로 개척이었으나 1899년 우연히 오아시스 도시인 누란(樓蘭) 유적을 발견하면서 고고학 유적 탐사가 점차 중요한 목표로 자리 잡았다. 그는 1895년 4월 최초로 중앙아시아 횡단여행에 성공했고⁴ 1927~1933년에는 몽골, 고비 사막, 신강의 지질, 광물 및 고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국-스웨덴 서북과학고사단의 공동 단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당 장제스가 후원한 이 탐험에서 고사단은 철, 망간, 석유, 석탄, 금 광산을 발견하며 중국이 신강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

스벤 헤딘의 탐험은 유럽 지리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헤딘은 스웨덴을 비롯해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 학문적·정치적 명성을 얻었다. 그는 중국 서북지역에서 고고학 조사를 실시한 초기 탐험가 중 한 명으로 중요한 유적을 다수 발견했고 방대한 양의 지도와 기록을 남겨 이후 전개된 실�크로드 탐험에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는 고고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적에 대한 체계적 발굴이나 심층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열렬한 나치 찬양자로서 중앙아시아 탐험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학문 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기도 하다.

지리학자였던 스벤 헤딘과 달리 헝가리 출신의 영국인 오렐 스타인(Marc Aurel Stein, 1862~1943)은 언어와 역사를 공부한 동양학자로서 굵직한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한 스타인은 빈과 라이프치히 등에서 고고학과 측량학, 언어학을 전공하며 산스크리트어와 페르시아어, 돌궐어 등 8개 언어를 습득했다. 1883년 튀빙겐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884년 영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동양학 연구를 시작했다. 1887년 인도로 건너가 라호르(Lahore, 현재는 파키스탄에 속함)의 동양학부(Oriental College)에서 근무하

4 스벤 헤딘의 1차 타클라마칸 사막 횡단은 성공이라고 하기 어려운 참사에 가까웠다. 제대로 된 사전조사 없이 무리하게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고자 했고 그 결과 함께한 사람들과 동물, 장비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혼자 살아 돌아온 스벤 헤딘은 회고록에서 모든 과오를 원주민 안내인에게 돌렸으나 이후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던 중 1898년 헤딘의 저서를 읽고 자극받아 중앙아시아 탐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1900년부터 4차에 걸쳐 타클라마칸 사막 일대를 탐사하며 미란, 누란, 단단위리크 등과 같은 유적을 발굴해 불경과 목간, 회화, 고문서, 불교 벽화 등을 수집했다. 특히 인도 정부와 영국 박물관의 지원을 받아 떠난 1907년 2차 탐사에서는 탐험가 중 최초로 돈황 장경동 석굴에서 고문서 6,500여 점, 서화 500여 점, 직물 약 150점을 입수했다. 이 컬렉션은 영국박물관에 전시되었고 그가 발간한 『고대 호탄(Ancient Khotan)』, 『세린디아(Serindia)』, 『이너모스트 아시아(Innermost Asia)』 등의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유럽의 동양학자들이 실크로드 탐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스타인은 돈황 장경동 탐사의 성공으로 1913년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스타인에 이어 돈황 장경동에서의 유물 수집 경쟁에 뛰어든 이는 프랑스인 중국 학자 폴 펠리오(Paul Eugène Pelliot, 1878~1945)이다. 그는 하노이 극동 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06년 프랑스 탐험대의 대장을 맡아 1908년까지 중국 서북부를 조사했다. 특히 1908년 2월부터 5월까지 장경동에서 많은 양의 고문서와 유물을 수집했다. 펠리오는 훈련된 고고학자가 아니었지만 중국어를 포함해 13개 언어에 능통한 덕에 스타인보다 뒤늦게 돈황에 도착했음에도 선별된 7,000여 점의 고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펠리오의 탐험대가 촬영한 돈황의 벽화와 조상(彫像)의 흑백 사진은 6권의 사진집[『돈황 벽화(Les Grottes de Touen-Huang)』]으로 출판되어 훗날 막고굴 복원에 귀중한 원자료를 제공했다. 펠리오는 1909년 북경에서 20여 명의 청 관리 및 학자를 만나 장경동에서 입수한 유물을 소개했고 이후 뤼진위(羅振玉, 1866~1940), 왕귀웨이(王國維, 1877~1927) 등과 교류함으로써 중국 학계에서 돈황학이 시작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실크로드 탐험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고고학·미술사학 교수인 랭던 워너(Langdon Warner, 1881~1955)이다. 미국은 유럽 각국보다 수십 년 늦은 1920년대 들어서야 실크로드 탐험 경쟁에 나섰다. 1922년 하버드 대학 부설 포그 미술관(Fogg Museum)은 아시아 컬렉션을 보강하기 위

한 목적으로 랭던 워너를 5개년의 중국 원정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랭던 워너는 이전에도 보스턴 미술 박물관, 프리어 미술관과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미술사학자로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수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학문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포그 미술관의 제안에 펜실베이니아 미술관 관장직을 내려놓고 실크로드 원정에 나섰다. 그러나 둔황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진 유물 수집 경쟁으로 고문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에 미술사학자인 워너는 지난 탐험가들이 비교적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불교 벽화 수집에 집중했다. 1924년 1차 탐험에서 그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 막고굴의 벽화 26점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벽화를 크게 훼손시켰다.⁵ 이어진 2차 탐험에는 북경대학교의 천완리(陳萬里)가 중국인 학자로서 처음으로 조사에 동행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탐험이 실패로 끝났다.⁶

랭던 워너가 2차 탐험을 떠날 무렵 중국 사회와 학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1925년 상해에서 일어난 5.30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극심해졌고 학계에서도 1928년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를 중심으로 중국인을 주축으로 하는 고고학 조사 방침이 수립되었다. 포그 미술관은 1931년 오렐 스타인의 세 번째 탐험을 후원했는데 이 시도는 중국 정부와 학계의 새로운 방침에 가로막혀 성사되지 못했다. 이렇게 랭던 워너의 2차 탐험을 끝으로 외국인에 의한 탐험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5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의 미술계에서는 유럽 프레스코화 수집 열풍이 불었고 벽에서 프레스코화를 분리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집 열기에 미술사학자로서 워너 자신의功名심이 더해져 무리하게 벽화를 입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S. Balachandran, 2007, "Object Lessons: the politics of preservation and museum building in Western Chin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14/1, pp. 1~32).

6 T. Bowie, Ed., 1966, *Langdon Warner through his letters*, Bloomington, IN: Indiana Univ. Pr.

실크로드 탐험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개척과 군사적 정보 수집을 일차적 목적으로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서구의 박물관이나 연구소로 옮겨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한때 중국과 인도, 페르시아를 잇는 교역로였으나 이제는 발굴되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황무지 모래땅”⁷에서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을 구출한다는 것이 탐험대와 박물관의 공통적인 명분이었다. 서구 학계는 유물이 속한 국가에서보다 서양의 박물관과 관람객이 유물의 본질적인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서양 관객에게 아시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인이 사악한 야만인이 아니라 지혜와 문화를 가진 인종이라는 사실”⁸을 일깨워준다는 점도 경쟁적 유물 반출의 주요 명분이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탐험가/학자들은 실크로드의 고대 도시에서 방대한 양의 유물을 반출했고 벽화나 조상을 해체,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적과 유물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부분적으로 파괴된 유적에서만 유물을 수습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지만 박물관 사이의 유물 수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스타인과 펠리오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탐험가들의功名심이 더해지면서 유물 수집은 더욱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입수된 유물은 런던의 영국박물관, 파리의 프랑스 극동학원, 베를린 민족학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아시아박물관 등으로 보내졌고 그 과정에서 유출된 유물이 유럽과 미국의 골동품 시장에서 거래되었다.⁹

한편, 타림 분지 일대에서 외국인 탐험가들이 확보하는 동안 중국의 학계와 정부는 외국인들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의

7 Forbes의 편지, Harvard University Art Museums Archives, Folder: Warner, Landon, China Expedition, 1922년 9월.

8 B. March, 1929, *China and Japan in our museums*, New York: American Council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9 S. Balachandran, 2007, 앞의 글, pp. 4~8.

혼란으로 인해 중국에는 외국인의 유물 반출을 감시할 정부 기관이나 법이 미비했다. 동부 해안의 도시에서는 초보적인 문화유산 관리, 보존 개념이 등장했지만 소수민족이 사는 서북 변경 지역은 중앙 지식사회의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2. 초기의 반응

실크로드의 고대 도시에서 흘러나온 조각과 회화, 고대 사본 등 유물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역의 상인과 관리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둔황의 석굴 사원들을 지키던 도교 승려 왕위안루(王圓籙, 1851~1931)는 사원의 수리에 필요한 재정을 모금하기 위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에게 장경동의 유물들을 팔거나 선물하고 있었는데¹⁰ 이렇게 흘러나온 서화들이 지역 엘리트들의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청말~민국 초기의 엘리트들은 호고주의적 관심에서 서화와 고문서들을 수집하고 사회적·정치적 명망을 쌓는 수단으로서 귀한 유물을 사교 모임에서 자랑스럽게 선보이고는 했다.

1910년 청에서 파견한 자오웨이시(趙惟熙)라는 관리는 감숙성에서 우루무치로 가는 여행에서 얻은 『열반경』의 마지막 장에 수비대 사령관 차이홍산(柴洪山)이 소집한 연회에서 두루마리를 선물 받았다는 발문(跋文)을 남겼다.¹¹ 1911년 또 다른 『열반경』의 발문¹²에는 “주인이 북주 건덕(建德) 2년부터 수집한 둔황 석굴 필사본을 모두 꺼내 보여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 필사본에

10 J. M. Jacobs, 2019, “An analysis of modern Chinese colophons on the Dunhuang manuscripts”, *The Silk Road* 17, pp. 74~89.

11 北京大學圖書館·上海古籍出版社, 1995, 『北京大學圖書館藏敦煌文獻』 第1券, 124쪽.

12 서화권이나 칩책에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기록을 적은 것이다. 본래는 앞에 쓰는 것을 題 또는 제사라고 하고 뒤에 쓰는 것을 跋 또는 발문이라고 하며 제발이라 통칭하기도 한다.

사용된 종이는 1340년 된 것이다”라는 사실과 함께 필사본을 감상한 12인의 이름을 적어놓았다. 이 필사본에는 1928년까지 6편의 발문이 추가되었다.¹³ 이렇게 작성된 발문에는 일반적으로 감상자의 이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고서의 내용과 서체에 대한 미학적 감상 등이 포함되었다. “종이와 먹은 새 것 같고 서체는 생동감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근육질이다”, “구조가 단단하고 질서정연하다. 잠재된 활력이 넘치고 형태에서 우아함과 견고한 품격이 조화를 이룬다.”

돈황 문서에 추가된 발문은 20세기 초 고증학·금석학 전통에서 유물이 수집, 유통 및 감상된 방식을 보여준다. 청대의 고증학 전통에서 유물의 수집은 문인과 부유층 사이에서 수집가의 지적 취향을 과시하고 사적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하며 사회적·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다. 때로는 여러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 권의 서적을 여러 부분으로 해체하기도 했다. “원본에서 일부를 얻음”이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에 남아있는 돈황 사본들은 보존 상태가 대부분 불량하다.¹⁴

자오웨이시가 『대열반경』에 남긴 기록에는 사본의 입수 경위에 대한 언급도 있다.

돈황 지역에 있는 천불동 석굴에 보관된 사본은 광서(光緒) 22년(1896)에 발견되었다. 이 사원의 한 승려가 석고를 바르던 중 벽에 균열이 생겨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을 발견했다. ... 부처의 도상과 기타 의례용품과 당나라 이후 사람들이 쓴 수 천 점의 필사본이 쌓여 있었다. 이 발견은 해당 지역의 관리에게 보고되었지만 그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은과 보물을 챙겼을 뿐이다. 사본은 사원에 보관되어 있었고, 사원은 멀리 서쪽 사막의 황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독일인이 곤륜산맥을 넘어 케리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옛

13 上海古籍出版社·上海博物館, 1993, 『上海博物館藏敦煌吐魯番文獻』 第1卷, 93쪽.

14 Rong Xinjiang, 2013, *Eighteen lectures on Dunhuang*, Leiden: Brill.

옥문 고개를 거쳐 돈황에 도착했다. 그가 사원을 지날 때 가장 좋은 필사본을 골라 여러 개의 큰 상자에 담아 가져갔다.¹⁵

1910년에 작성된 이 발문을 보면 돈황에서 유물을 꺼내 간 독일인(스타인을 잘못 지칭한 것)에 대한 도덕적 판단보다는 청나라 관료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같은 사본의 또 다른 발문에서 자오웨이시는 펠리오가 “가장 빼어난 것을 가로채버렸고(攫其菁莪) 사본을 프랑스로 가져가 버린 것이 우리 민족의 큰 수치(吾人之大恥)”라고 기록했다. 같은 해 금석학자 왕런쥘(王仁俊)은 『대열반경』에 3년 전 “프랑스인 박사 펠리오가 돈황에서 5권의 사본을 가져와 열람했다”¹⁶라고 적었다. 많은 양의 원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석해하지만 원고를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1911년과 1914년 사이 어느 시점에 대 『열반경』에 첨부된 한 발문에서 익명의 저자는 “그 사본들이 의례에서 불태워지거나 강에 버쳐지지는 않았지만 외국 상인(賈胡)에 의해 통째로 서양으로 옮겨졌다”라고 애도하며, 교육부 관리들이 낙타 몇 마리를 모아 나머지 원고를 북경으로 운반했지만 그 목적으로 할당된 자금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썼다고 지적한다. 이 발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맺는다. “언덕에 사는 승려가 그것들을 모두 외국인에게 팔아넘겼다(賣與賈胡去). 언제 돌아오겠는가?(何日歸)”

요컨대 돈황에서의 유물 반출이 알려진 뒤 첫 10여 년 동안 중국의 학자와 관리들은 유물을 반출한 서양인 탐험가들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외국인 탐험가들이 철저히 범죄화된 것을 고려하면 초기 약 10년 동안 중국 엘리트 사회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반응은 주목할 만하다. 이 초기 시기에 스타인과 펠리오의 활동은 일관되게 “얻다(獲取)”, “옮기다(運送)”, “운반해 가다(攜帶)”, “돌려보내다(寄回)” 와 같

15 北京大學圖書館·上海古籍出版社, 1995, 앞의 책, 124쪽.

16 上海古籍出版社·上海博物館, 1995, 위의 책, 92쪽.

은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표현되었다.¹⁷

특히 가까이에서 탐험가들의 여행을 중재한 관리들은 서양인들의 활동을 승인하고 격려했다. 1899년 스타인이 신강에서 첫 번째 탐험을 시작했을 때 스타인을 만난 신강의 한 관리는 “내가 보기에 이 여행자는 매우 친절하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며 세련된 사람이다. 사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상찬하며 스타인과 나눈 많은 대화가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고 “기쁨으로 빛났다”라고 회고했다.¹⁸ 1908년 10월 30일 신강의 한 현령은 스타인에게 보낸 서한에서 “눈 덮인 산봉우리와 겨울 강풍이 피부를 뚫고 손과 발을 심하게 갈라놓을 정도로 매서운 날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산 절벽을 오르고, 물길을 건너고, 온갖 험난한 장애물을 견뎌내는 … 강인한 인내와 강인한 마음”을 존경한다고 썼다. 편안한 생활에 익숙한 청나라의 관리들의 눈에 사막에서의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험가들의 모습은 “고비의 사막 모래에 영광을 부여하고 곤륜의 산봉우리에 윤기를 더하는 것”이었다.¹⁹

3. 돈황학과 문화유산 보존 담론의 개시

청말 중앙 학계가 실크로드 탐험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1909년 펠리오가 북경의 학자들을 만나 장경동에서 입수한 고문서들을 선보인 다음부터이다. 펠리오는 1908년 돈황에서 돌아온 후 1909년 남경에서 외무대신으로 부임할 예정이던 된팡(端方, 1861~1911)을 만나 그를 통해 북경의 저명한 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튀전위, 왕귀웨이, 동캉(董康, 1867~1947) 등이 펠리오가 가지고 있

17 J. M. Jacobs, 2010, “Confronting Indiana Jones: Chinese nationalism, historical imperialism, and the criminalization of Aurel Stein and the raiders of Dunhuang, 1899 - 1944”, *China on the Margi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 70~71.

18 J. M. Jacobs, 2019, 앞의 글에서 재인용.

19 J. M. Jacobs, 2019, 위의 글에서 재인용.

던 원고를 필사해 갔고, 특히 9월 4일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연회에는 교육부 관리들과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펠리오를 맞이했다. 연회 이후 뤼진위는 1909년 11월 『동방잡지(東方雜誌)』에 장경동에서 발견된 고문서를 소개하는 「돈황석실서목급발견지원시(敦煌石室書目及發見之原始)」를 실어 중국 학계에서 돈황학의 시작을 알린다.²⁰

경사대학당 농학부 학장이던 뤼진위는 장경동에 남아 있는 8,000여 점의 고대문서를 북경으로 옮겨왔으며, 펠리오를 통해 에두아르 사반(Édouard Chavannes, 1865~1918)²¹과 스타인 등 유럽의 중국 학자 및 고고학자들과 교류를 시작하고 왕귀웨이와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탐험대의 강연과 보고서를 번역 출판했다. 특히 1910년 출간된 『유사방고기(流沙訪古記)』는 중앙아시아에서의 외국인 탐험가들의 활동을 중국과 일본 학계에 소개하는 안내서 역할을 했다. 뤼진위는 펠리오로부터 고문서들의 사진을 입수해 『일적충잔초편(佚籍叢殘初編)』, 『명사석실일서(鳴沙石室佚書)』, 『명사석실일서속편(鳴沙石室佚書續編)』 등을 잇달아 출판하여 돈황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나는 [사본]에 대해 들었을 때 감격해 차오마오쉬안(喬茂萱) 차관과 상의하여 현지 고위 장교 마오시진(毛實君)이 그것들을 사서 교육부에 보내도록 요청했다. 그런 다음 전보 초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금액을 미리 지불할 테니 나중에 교육부에서 상환해달라고 요청했다. ... 대학에서 이 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면 내 급여를 포함하여 농무부에서 비용을 절감하여 마련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류 총장은 전보를 보내기로 동의했다. 한 달 후 대학과 농업부 모두 3,000위안의 가격으로

20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돈황 출토품에 대한 글이 잇따라 출판되었다. 田中庆太郎, 1909, 「敦煌石室中の典籍」 등(顔廷亮, 2018, 「敦煌學史上的第一篇論文—敦煌學史隨筆之一」, 『敦煌研究』 5, 121~124쪽).

21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국학자. 1889~1893년 북경 프랑스 공사관원으로 근무했으며, 1893년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로 임용되어 폴 펠리오 등 동양학 대가들을 배출했다. 사마천의 『史記』를 비롯해 서역과 중국 승려의 사적, 불교 설화 등을 번역했다.

8,000권을 구입했다는 답장이 왔다.²²

금석학자, 농학자이자 청말의 대표적인 개혁 옹호자였던 뤼전위는 1909년부터 1925년까지 실크로드에서 유출된 서화를 포함해 방대한 양과 범위의 서책과 유물을 수집, 출판하는 데 투신한 인물이다. 청의 학부(學部) 관료를 역임한 뤼전위는 신해혁명 후에는 새 정권에 복무하기를 거부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19년까지 망명 생활을 했다. 이 기간 동안 교토에 대운서고(大雲書庫)를 짓고 명·청의 서적과 수천 점의 탁본 및 유물을 수집, 출판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뤼전위는 생전 30만 권에 이르는 서화와 서적을 수집하고 당시 새로운 인쇄 기술이었던 콜로타입 기법으로 유물의 사실적인 이미지를 촬영하여 출판했다.²³

청말 뤼전위의 수집과 출판 활동은 금석학 전통의 호고주의적 수집문화가 근대적 유물 보존 담론으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1900년대 초반부터 특권층만 접근, 감상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에 공공성의 성격이 부여되고 수집과 관리의 주체로 국가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나라 안팎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이어지고 만주에서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관리들을 중심으로 청나라 황실의 소장품을 국가가 운영하는 박물관을 통해 관리, 전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²⁴ 일본에서 1년 동안

22 Cheng-hua Wang, 2010, “The Qing Imperial Collection, Circa 1905~1925: National Humiliation, Heritage Preservation, and Exhibition Culture”, *Reinventing the Past: Archaism and Antiquarianism in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Chicago: The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pp. 320~341.

23 Cheng-hua Wang, 2012, “New printing technology and heritage preservation: colotype reproduction of antiquities in modern China, circa 1908 - 1917”, *The Role of Japan in Modern Chinese 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73~308.

24 20세기 초엽 대다수의 근대 국가들은 박물관에서 왕실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립 박물관의 설립은 투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여겨졌고 박물관은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장소였다. 한때 소수 특권층만 향

체류하고 돌아온 장궈(張謇, 1853~1926)은 1905년 학부(學部)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황실이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과 서적을 박물관-도서관을 통해 전시함으로써 황실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라의 학문(國學)”을 보존할 수 있다고 썼다. 또한 관리이자 화가였던 진청(金城, 1878~1926)은 황실의 보물들이 서구의 박물관에서처럼 유리 진열장에 전시된다면 국수(國粹)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²⁵

일본에서 들어와 20세기 초에 널리 사용된 국학과 국수라는 단어는 민족주의 맥락에서 중국 역사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 요소를 의미했다. 정치적·군사적 위기에서 비롯한 “국수” 담론, 즉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만주족 관리들과 배만 혁명을 모색하는 진영 모두에게서 대두되었다. 이 새로운 사고의 흐름 속에서 청말 지식인들은 중국 문화와 역사의 여러 측면을 재검토하고 저마다 현대 정치 및 사회문화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다.²⁶

그러나 청말 싹트기 시작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논의는 청나라가 멸망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된다. 청의 유민으로서 자진 망명을 떠났던 뤼전위는 자신이 신봉했던 구시대의 가치관과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유물보존 개념을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뤼전위는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금석학의 토대에서 물질성에 대한 천착 및 교육과 보존을 위한 기록과 출판의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구상하기도 했다.²⁷ 기물학은 20세기 초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곳에서

유하던 보물을 국가가 관리, 개방하는 것은 근대 세계의 트렌드였다(Cheng-hua Wang, 2010, 앞의 글, pp. 320~326).

25 Cheng-hua Wang, 2010, 위의 글, p. 322.

26 L. A. Schneider, 1976, “National essence and the new intelligentsia”, *The Limits of Change: Essays on Conservative Alternatives in Republica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57~89.

27 1918년 북경대학 학장이던 차이위안페이(蔡元培, 1868~1940)가 뤼전위를 교수로 초빙하고자 했는데, 뤼전위가 교수직 제안을 거절하며 보낸 편지에서 기물학에

대규모의 고고학적 발견의 증가와 청말부터 이어진 문화유산 보존 담론에서 비롯된 과도기적 학문이었다. 이후 과학사학을 지향한 신사학파를 중심으로 서구의 근대 학문 체계인 고고학이 도입되면서 기물학은 학문 분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고고학은 금석학 전통과 단절되었다. 그러나 뒤전위의 기물학 구상은 전통 학문의 틀 안에서 유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물을 분류하는 체계를 고안하고자 했던 실험적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III. 학계의 각성과 중·외 공동연구: 1920년대

1. 중화민국의 민족국가 구상과 문화주권 인식

전술했듯이 유물 보존의 필요성과 문화주권에 대한 각성은 신해혁명 이전부터 정치적 진영을 뛰어넘어 청말민초 지배층이 공유한 담론이었다. 역사와 문화가 국가 성립에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외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청의 지배층과 배만혁명을 주창하는 한인 지식계층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멀리 서북 변경 지역의 유물도 국가의 문화유산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다. 서북 국경지대는 18세기 중엽 이래 청의 느슨한 지배하에 있었지만 신앙을 비롯한 소수민족 지역은 중국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실체로 한인 관료와 지식인에게 “절역(絶域)”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²⁸ 즉, 청 제국의 강역이 곧 중국인 것은 아니었다.

주지하듯이 중국의 의미는 다양하고 그 인식적 경계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대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羅振玉, 2005, 「古器物學研究議」, 『雲窗幔稿』).

28 김승욱, 2022, 「근현대 중국에서 민족 담론의 전개-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 『동북아역사논총』 78, 399쪽; 유용태, 2009,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 37~71쪽.

왔다. 청말~민초 시기 황제지배체제가 와해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 사상계에서는 서구에서 수입된 민족 개념을 중국식으로 수용하고 민족국가(또는 국민국가)의 성격과 경계를 설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²⁹ 논의의 중심에는 만주족을 비롯해 몽만회장묘로 대표되는 소수민족을 민족국가의 구상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1905년부터 청말의 민족국가 형태에 대한 구상은 반청복명(反淸復明)을 기치로 내건 혁명파와, 청의 판도와 인구 집단을 유지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개혁파(입헌파)의 대립 구도로 설명된다.

장빙린(章炳麟, 1868~1936)과 쑨원(孫文, 1866~1925)이 주축이 된 혁명파는 한족이 주체가 되는 공화국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³⁰ 장빙린은 만주족에 대한 타도를 ‘중화(곧 중국)의 광복을 위한 필수적 전제로 간주하면서, 청말 대청제국의 일원인 만, 몽, 회, 티베트 등을 배제한 한족의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청말의 다수파였던 혁명파가 구상한 민족국가에서 중국인이란 곧 한족을 뜻했다. 혁명파는 신강 위구르족의 한족에 대한 반감을 한족의 만주족에 대한 반감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독립 요구를 인정하기도 했다.³¹

이와 반대로 개혁파의 량치차오(梁啓超)는 혁명파의 민족 구상을 ‘소민족주의’로 비판하며 제국 정책에 의한 대민족의 형성이라는 건국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내 타족(他族)에 대한 한족(漢族)의 소민족주의(小民族主義) 외에 국내 본부(本部)와 속부(屬部)의 제족(諸族)을 합하여 국외의 제족에 대항하는 대민족주의(大民族主義)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

29 김승욱, 2020,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 『동북아 역사논총』 67.

30 朴章培, 1992, 「『中華民族』概念의 形成에 대한 小考 - 清末民國前期(1899~1928)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1 朴尙洙, 2005, 「중국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의 창조와 邊疆 문제 - 청말~민국시기 邊疆 인식의 변천」, 『中國學報』 52.

터 “제국정책(帝國政策)을 취하여 한만몽회묘장(漢滿蒙回苗藏)을 합하여 하나의 대민족(大民族)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² 이러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량치차오는 “본부(18행정)와 “속부(만주, 몽골, 회부, 서장)”로 구성되는 영토를 구상했다.³³

결과적으로 량치차오가 제시한 대민족주의는 중화민국의 기본 틀이 되었다. 1912년 1월 남경에서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에 취임한 쑨원은 취임연설문에서 “한만몽회장의 제 지역을 하나로 합하여 일국을 이루고 한만몽회장의 제 종족을 합해서 한 사람과 같이 한다. 이것을 민족의 통일이라고 한다”³⁴고 선언하여 ‘오족공화’의 민족국가 구상을 천명했다. 그러나 청 제국하에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던 종족, 언어, 종교, 풍속이 다른 여러 인구 집단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일거에 “한 사람과 같이” 융합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다.³⁵

무엇보다 오족공화론에서 상정한 민족통일은 모든 종족집단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 다원적 통일론이 아니라 한족이 소수민족을 동화하는 민족제국주의의 구상이었다. 1924년 민족주의 강연에서 쑨원은 한족의 문화적 동화력이 몽만회장묘인(蒙滿回藏苗人)을 제외한 4억의 한인(漢人)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켰다고 하면서 중국은 민족이 곧 국족인 예외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³⁶ 즉,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민족, 곧 국족은 한민족(漢民族)이며 나머지 민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다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민족통일의 주체는 한민족이었고 기타 소수민족은 한민족으로 동화되어야 비로소 중화민족이 될 수 있었다.³⁷

32 梁啓超, 1903,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梁啓超全集』, 1069~1070쪽.

33 梁啓超, 1902, 「中國地理大勢論」, 『飲冰室文集』 10, 77~78쪽.

34 孫文, 1912. 1, 「臨時大總統就任宣言」, 『孫中山全集』 第2卷, 北京: 中華書局, 2쪽.

35 김승욱, 2022, 앞의 글, 403~412쪽.

36 孫文, 1924. 1, 「三民主義: 民族主義」, 『孫中山全集』 第9卷, 北京: 中華書局, 186~188쪽.

이처럼 신해혁명 준비 시기 동안 민족 국가 담론이 격화되고 중화민국 수립 이후 혁명파와 개혁파의 논쟁이 한족을 중심으로 제국을 동화시킨다는 민족제 국주의로 귀결되면서, 한때 절역의 공간이었던 신강, 감숙 지역은 중앙 지식인들의 인식체계와 국가 지배 담론의 중심에 제국주의적 확장과 동화의 대상으로 뚜렷이 자리 잡게 되었다.

2. 학계의 각성과 공동연구

1920년대 들어 중국 학술계는 1919년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민주와 과학’이 지배하는 신문화운동이 전개되며 고고학을 포함한 서구 근대학문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고고학은 새로운 중국 통사를 구축하여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과 역사적 자긍심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문체계로 환영 받았다. 구제강(顧頡剛, 1893~1980)과 푸쓰넨(傅斯年, 1896~1962) 등은 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을 강조하며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으로 중국 고대사를 실증적·과학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³⁸

한편, 돈황 문서의 발견과 함께 안데르손(J. G. Andersson, 1874~1960)에 의한 양사오촌 유적 발굴 등 외국인이 이끈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은 중국 고고학의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외국인들의 활약은 야외고고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소개 및 입증하는 계기로서 중국 지성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양사오촌 신석기시대 유적, 저우커우옌(周口店) 구석기시대 유적의 발견은 중국 선사시대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적으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동시에 이러한 발견들이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중국 학계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고 학문적 조바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중국 학계는

37 千聖林, 2005. 12, 「내셔널아이덴티티를찾아서: 20세기 중국의 ‘黃帝’와 中華民族 만들기」, 『大邱史學』 81輯.

38 전인갑, 2022,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I)」 『歷史學報』 256.

북경대학교 국가과학과 고고학연구소, 칭화대학 연구소 국가과학부 고고학연구과, 중국 농업상무부 중국지질조사연구소 등 고고학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미국과 유럽,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 전문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서북지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왕귀웨이는 1926년 「최근이삼십년중국신발견지학문(最近二三十年中國新發見之學問)」에서 둔황 천불동 및 서역 각 지역에서 나온 목간과 서책이 공자의 집에서 나온 책이나 『죽서기년(竹書紀年)』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다고 언급하며 실크로드 일대의 고고학적 가치를 천명했다.³⁹ 1922년 루쉰(魯迅, 1881~1936)이 쓴 “가짜 국학자들이 술이나 마시면서 노름을 하고 진짜 국학자들이 서재에서 열심히 고서적을 읽는 사이에 셰익스피어의 고향 사람 스타인 박사는 이미 간쑤, 신장 사막에서 한진(漢晉)시기 고서를 발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책까지 출판했다”⁴⁰라는 글은 서북지역에서 외국인 탐험이 중국 학계에 충격에 가까운 학문적 자극을 선사했음을 보여준다.

학계는 외국 기관과의 합작연구 형식으로 유럽과 미국 탐험대에 중국인 학자를 파견해 서양의 현장조사 기법을 배우도록 하는 한편 유물의 무분별한 유출을 견제했다. 중국이 참여한 최초의 합작연구 프로젝트는 스벤 헤딘과 북경대학교무처장 쉬빙창(徐炳昶, 1888~1976)을 공동 단장으로 한 중국-스웨덴 서북과 학교사단(西北科學考查團, The Scientific Mission to North-Western China)이다. 헤딘은 애초에 루프트한자사(社)와 계약을 맺고 항로 조사를 포함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탐험을 계획했으나 북경 학계는 이를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1927년 4월 북경대학교는 10개 이상의 학술 단체를 소집해 ‘중국학술단체협회’를 설립하고 스벤 헤딘과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스벤 헤딘과 북경대학교무처장 쉬빙창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중국, 스웨덴, 독일, 덴마크 학자들로 구

39 王國維, 1983, 「最近二三十年中國新發見之學問」, 『王國維遺書』第五冊, 上海古籍書店, 65~69쪽.

40 魯迅, 1981, 「所謂“國學”」, 『魯迅全集』第1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388~389쪽.

성된 서북과학고사단이 조직되었다. 서북과학고사단은 1927년부터 33년까지 서북지역에서 지리학, 지질학, 고생물학, 고고학, 민족지학, 동물학 및 식물학 등의 연구를 수행했다.

중국-스웨덴 합작 서북과학고사단은 중국과 해외 고고학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실시한 최초의 대규모 서북지역 탐험으로서 중국 근대고고학의 역사에서 획기기로 평가된다. 서북과학고사단은 중국 학자 및 기관이 외국 학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서양 고고학의 야외조사 기법을 습득한 신진 학자들을 배출했다. 서북과학고사단의 연구 성과는 학계뿐 아니라 정부와 언론의 커다란 관심을 받으며 책과 논문, 전시회, 강연, 신문기사의 형태로 출판되어 이제 막 성립된 고고학이라는 근대학문이 널리 알려지는 데 기여했다.⁴¹

서북과학고사단에 고고학 조사관으로 참여한 인물은 북경대학의 황원비(黃文弼, 1893~1966)이다. 그는 북경대학 고고학회 소속으로 고사단에 파견되어 1927~1930년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투르판, 쿠차를 시작으로 일생 동안 네 차례 서북지역을 탐험하며 투르판과 타림 분지 일대에서 유물과 사본을 수집했다. 이후 서북연합대학과 사천대학 교수를 거쳐 북경연구원과 중국과학원 고고연구소에 재직했다. 또한 왕귀웨이의 이중고증법에 영향을 받아 현장조사와 고고학적 발굴을 결합한 삼중고증법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원비는 문화혁명 중에 일찍 사망했고 은허 유적과 같은 상징적 유적 발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북경대학 철학과에서 송, 명 철학을 공부한 황원비는 신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역사학의 길에 들어섰다. 황원비는 북경대학교 연구소 산하 유물유적조사학회 설립 초기인 1923년부터 고고학자로 활약했으나 북경대학교 연구소가 재정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적인 발굴을 수행하지 못한 까닭에 리지(李濟, 1896~1979)나 량쓰용(梁思永, 1904~1954) 등 유학과와 달리 서양의 고고학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북과학고사단이 조직되

41 王新春, 2012, 「中國西北科學考查團考古學史研究」, 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있을 때 중국 학계의 초기 계획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리지를 파견하는 것이었지만 리지가 시인촌(西陰村) 유적 발굴을 선택함에 따라 북경대학교 고고학회의 젊은 학자 황원비가 파견되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황원비는 고증 가치가 있는 문서에 관심을 가졌으나 탐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외 조사 기법을 터득하며 고고학자로 성장했다.

황원비의 일기에는 중앙아시아 탐험에 익숙해진 외국인 탐험가들과 그들을 대체하려는 중국인 신진 고고학자 사이의 긴장과 불화가 생생하게 드러난다. 황원비의 야심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헤딘이 ‘제2의 누란’을 찾는 단원에게 5,000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의 일이다.

수 선생은 웃으며 내가(황원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내가 두 개의 도시를 찾아내서 1만 달러를 받아낼 것이라며 아무도 나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헤딘 역시 내가 절대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수 선생은 마음을 바꿔 나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나는 코웃음 치며 도시 하나를 찾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신장에 도착하기만 하면 나는 왕국 하나를 통째로 찾아낼 것이다.⁴²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 황원비는 스벤 헤딘을 모델로 삼기보다는 자신이 바로 그 모델이 되고자 했다.⁴³ 단적으로 조사단의 중국 단장이었던 수빙창이 언제나 헤딘을 ‘헤딘 선생’, ‘헤딘 박사’로 지칭한 것과 달리⁴⁴ 황원비는 시종 거리

42 黃文弼, 1990, 『黃文弼考察日記』, 北京: 文物出版社, 112쪽.

43 J. M. Jacobs, 2014, “Huang Wenbi: pioneer of Chinese archaeology in Xinjiang”, *The Silk Road* 12, pp. 125~126.

44 북경대학 철학과 교수이자 교무처장이던 수빙창은 현장에서 발굴작업을 하기보다는 중국 측 단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단 내의 지위와 직업에서 黃文弼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단원들에 대해 대체로 온건하고 동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우리 중국인들은 지금 저들을 보고 비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는 외국인들의 판단력과 인내심이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를 두며 ‘헤딘’이라고만 지칭한다. 공동 조사단장이던 수빙창이 스웨덴 단원들에 대한 비판을 기록에 남기면서도 헤딘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현한 것과 달리 황원비는 일기에서 헤딘에 대해서도 신랄하고 무차별적인 비판을 가했다.⁴⁵ 스스로 중국인 오렐 스타인이 되고자 했던 황원비는 헤딘과 여러 지점에서 불화하며 헤딘이 유물을 해외로 밀반출하려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스벤 헤딘 역시 저서에서 황을 모사꾼이자 방해꾼이라고 반복적으로 폄하했다.

이러한 둘의 적대 관계, 특히 황원비의 일기에 드러나는 날것의 불화는 서북 과학고사단의 활동을 외국 탐험가와와의 최초의 학술 협력이라는 민족주의적 서사 안에 위치시키고자 했던 중국 고고학계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중국 고고학사에서 이 탐험이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차 탐험에 참가한 황원비가 남긴 565쪽에 달하는 일기⁴⁶는 그가 사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1990년에야 출간되었는데, 이는 둘 사이의 불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스벤 헤딘이 많은 외국인 탐험가 중에서도 중국 고고학계가 높이 평가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탐험대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있던 황원비의 업적이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⁴⁷

중국인 학자로서 최초로 감숙성 돈황에서 고고학 조사를 실시한 인물은 북경대학 의과대학 출신으로 훗날 도자사의 대가가 된 천완리(陳萬里, 1892~1969)이다. 연경대학 역사학과 학장 홍예(洪業, 1893~1980)는 1925년 랭던 워너가 이끄는 미국 탐험단의 돈황 장경동 조사에 당시 33세이던 천완리를 중국측 대표로 파견했다. 그러나 탐험단은 감숙성에 도착하자마자 오랜 기근으로 분노한 주민들이 벌인 두 차례의 감금, 약탈 사건으로 인해 황급히 철수할 수밖에 없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徐旭生, 2000, 『徐旭生西游日記』, 銀川: 宁夏人民出版社, 94쪽.)

45 스벤 헤딘과 黃文弼 사이의 불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들은 J. M. Jacobs, 2014, 앞의 글 참조.

46 黃文弼, 1990, 앞의 책.

47 J. M. Jacobs, 2014, 앞의 글, p. 126.

었다. 이후 랭던 워너는 탐험 실패가 중국 측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천완리를 스파이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완리의 탐험일지⁴⁸를 보면 오히려 그가 미국인 동료들의 고고학적 임무에 깊이 동조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한 마을에서 사찰의 비석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고는 “이 마을의 주민들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비석을 지역의 공묘로 옮길 때 지역 관리들이 비석을 두 동강 낸 것에 분노하며 “대학의 고고학 부서에서 연구하기 위해 비석의 나머지 부분을 북경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석의 운명은 결국 파괴되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⁴⁹ 무지한 현지인에 의한 파괴를 예방하고 유물을 과학적으로 연구·보존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은 오렐 스타인을 비롯한 제국주의 탐험가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주장한 문화유산 보존 사명과 구분되지 않는다. 북경에 토대를 둔 엘리트로서 천완리가 유물 수집에 대한 외국인 탐험가들의 도덕적·방법론적 틀을 모방 내지 내면화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⁵⁰

또 다른 대목에서는 실제 랭던 워너의 조사단이 불교 사원에서 조각상을 떼어내는 과정이 자세히 묘사된다.

24일 오전 9시 동문을 나와 경천(涇川)을 건너 남석굴사(南石窟寺)에 다다랐다. ... 서쪽 굴은 동쪽 굴 크기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동서벽에는 높이가 1척 2촌가량 되는 조상이 위층에 각 4점, 아래층에 각 8점씩 있고 북벽에는 커다란 조상이 세 점, 굴 바깥에는 양쪽으로 등신 크기의 역사상이 한 점씩 놓여 있다. 먼저 석굴의 각 벽을 원상태로 두고 조각 열 몇 점을 수집한 다음, 동벽의 조상들을 떼어내

48 陳萬里, 2002, 『西行日記』,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49 陳萬里, 2002, 위의 책, 44~45쪽.

50 胡同慶, 2011, 「陳萬裏監視, 阻止華爾納盜竊敦煌壁畫一事之質疑」, 『敦煌研究』 2011(02).

기 시작했다. ... 상부에 묻은 흙을 제거하고 나면 중요한 장식 문양이나 조각품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작업을 도왔다. 박애륜(薄愛倫)이 동쪽과 서쪽 벽의 조각상을 분리한 다음 거대한 도끼를 이용해 점토로 된 조각상의 몸체를 잘랐는데 불행히도 조각상의 머리 부분은 소실된 상태였다. ... 수집한 조각상을 한 점씩 촬영하고 측량했다. ...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동굴 바깥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조각상과 조각품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⁵¹

위의 일화에서 보듯 그는 미국인들이 남석굴사에서 불상을 파괴하는 데 협조하고 그들의 방식을 충실히 학습했다. 지역 주민 무리가 탐험단을 구금했을 때에도 랭던 워너에 동조하며 주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언급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 일기 어디에서도 천완리가 랭던 워너의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거나 탐험단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⁵² 민족주의 자이자 민족제국주의를 내면화한 한족 엘리트였던 천완리는 감숙성 벽지의 소수민족 농민보다 제국주의 미국의 탐험단 동료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으로 보인다.

IV. 반외세 담론의 확산과 탐험의 종말: 5·30 사건 이후

1925년 랭던 워너가 두 번째 탐험에 실패하고 돌아올 무렵 상해의 조계지에서 영국인 경부(警部)의 명령으로 경찰이 노동자 시위대에 발포를 해 13명이 사망하는 5·30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불붙은 반외세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 고고

51 陳萬里, 2002, 앞의 책, 42쪽.

52 胡同庆, 2011, 앞의 글, 88쪽.

학계는 외국인을 고고학 조사에서 배제하고 중국인 주도의 조사 방침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이에 학계는 외국인들의 유물 약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중국인이 주도하지 않는 탐험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5·30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26년에 발간된 천완리의 탐험 일지를 통해 중국 학계의 바뀐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서행일기(西行日記)』에는 구제강, 마형(馬衡, 1881~1955) 등 학계의 거물들이 쓴 세 편의 서문이 더해졌는데, 이 서문에서 구제강은 외국인들의 행위를 “범죄”로, 동시에 천완리가 비석을 수집한 행위는 “보존”으로 표현했다. 지역 농민들이 서양인들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약탈 사건을 일으킨 것이 커다란 유감이라고 하면서 천완리가 외국인들로부터 유물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을 무지한 농민들이 오해해서 생긴 일이었다고 운색했다.

급격히 변화된 중국 학계의 방향성에 발맞춰 천완리 본인 역시 탐험의 성격을 재정의하기 시작한다. 『서행일기』가 출간되는 시점에 덧붙인 부록에서 그는 자신이 탐험단에 합류한 목적이 미국인들의 유물 약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랭던 워너가 1차 탐험에서 돈황의 벽화를 파괴한 것이 1920~1921년 수백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가한 대규모 파괴행위와 맞먹는다고 비난했다.⁵³ 사후에 더해진 부록에 적힌 내용은 일기 본문에서 보이는 그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본문 어디에서도 랭던 워너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적이 없고 미국인 탐험단에 시종 호의적이고 동조적인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1928년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와 유물보존위원회의 설립은 중국인이 주체가 된 고고학 조사 방침을 공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푸쓰넨은 역사어언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중국 국경 내에서 역사 자료에 접근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준수해야 할 정치적 태도와 문화적 행동 강령을 정의했다. 외국인(특히 중국 측과 합작하지 않은) 탐험가의 활동은 범죄로 규정되었다. 특히 오렐 스타인은 중국-

53 陳萬里, 2002, 앞의 책; 胡同庆, 2011, 위의 글; J. M. Jacobs, 2010, 앞의 글.

스웨덴 서북과학고사단을 이끈 스벤 헤딘이나 중국어에 능통해 중국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한 폴 펠리오에 비해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1930년, 68세의 나이에 네 번째 신강 탐험을 떠난 스타인은 변화한 중국의 지정학을 읽지 못하고 중국 고고학계의 새로운 연구 방침을 따르지 않은 탓에 처참한 실패를 겪게 된다. 탐험을 준비하던 중 스타인은 북경의 학계에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남경 정부에 비밀리에 비자를 요청했다. 처음에 남경의 외무부는 스타인에게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2년짜리 여권을 발급하며 신강 군벌 진수런(金樹仁, 1879~1941)에게 “모든 국경 관리에게 그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라”고 지시했다.⁵⁴ 그러나 스타인이 중국인 학자의 동행 없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북경의 유물보존위원회가 공장 스타인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다. 중앙연구원 원장 차이위안페이는 “우리나라의 국경 지대는 광대하여 그가 일상적인 여행을 가장하여 유물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 스타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우리 영토에서 유물이나 유적을 반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⁵⁵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진수런에게 보내 스타인의 비자 발급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1930년 12월 27일 『천진대공보(天津大公報, L'Impartial)』의 기사는 “여행이라는 명목 하에 스타인이 신강의 고대 유물들을 약탈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친인공노할 강연에서 중국을 모욕하다; 즉각 추방 명령”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인이 저지른 많은 범죄 중에는 “북서부 신강이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지도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중국 민족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범죄는 돈황의

54 中國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館·日本佛教大學尼雅遺址學術研究機構 編, 2007, 『斯坦因第四次新疆探險 檔案史料』, 新疆: 新疆美術攝影出版社, 1~2쪽.

55 中國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館·日本佛教大學尼雅遺址學術研究機構 編, 위의 책, 2~6쪽.

보물을 훔쳐내 외국 땅으로 영구히 옮긴 것이다. 이 행위만으로도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다.⁵⁶

푸쓰넨은 이어 1935년 『천진대공보』의 기사에서 “중국 학자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전파하는 서양인은 칭찬할 가치가 있지만 스타인은 확실히 아니었다. 스타인은 펠리오와 달리 자신의 발견을 중국 학자들과 공유하는 데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런던의 박물관에 중앙아시아 유물들을 가득 쌓아두었기 때문에 … 스타인과 펠리오의 이름을 혼용하지 말라”라고 훈계했다.⁵⁷

1930년대에 접어들어 1931년 9월 만주사변, 1932년 1월 상해사변, 2월 만주국 수립 등 일본에 의해 영토가 침탈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남경의 국민당 정부와 고고학계의 민족주의적 위기감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는 한층 격화되었다. 국가 수립 초기 민족 국가의 범위를 두고 대립했던 개혁파와 혁명파는 민국 수립 이후, 특히 만주사변 이후로는 한목소리로 청 제국의 강역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토화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소수 민족을 흡수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특히 1937년 일본이 남경을 점령하며 서쪽에 위치한 중경이 임시수도가 되자 서북지역은 전시(戰時) 중국 지식인의 인식 범주에서 한층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학계는 제국의 영토가 서쪽으로 확장되었던 한·당 왕조의 유물을 소환해 전쟁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중국의 자부심을 되살리고자 했다.⁵⁸ 1944년 2월, 중경의 국민당 정부는 둔황예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둔황을 비롯한 실크로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보호를 천명했다. 한때 서양의 극동 변방이었던 중앙아시아의 모래사막은 40여 년이 지난 후 중국의 서북 변방으로 제국성을 내면화한 민족주의 역사학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다.

56 1930년 12월 27~28일자 『天津大公報』 기사(J. M. Jacobs, 2010, 앞의 글에서 재인용).

57 傅斯年, 1935. 2. 21, 「論伯希和教授」, 『天津大公報』 기사(J. M. Jacobs, 2010, 앞의 글에서 재인용).

58 J. M. Jacobs, 2010, 앞의 글, pp. 81~83.

V. 맺음말

20세기 중앙아시아 탐험사에 관한 논의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유물 약탈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민족주의적 문화주권 각성이라는 틀로 설명되어왔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말~민국 초기 실�크로드를 둘러싼 학문적·정치적 경관은 뚜렷한 실선이 그어진 지도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모래사막에 가까웠다.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성립, 그 후 이어진 군벌 시기와 1930년대 일본에 의한 영토 침탈을 거치며 분열과 통합이 반복되는 동안 근대 중국의 다양한 주체들은 각자의 정치적 지향과 실용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양인의 탐험과 유물 수집을 범죄시하거나 중재 또는 이용했으며 때로는 동경하고 모방하기도 했다. 중국 지식사회가 유물의 해외 반출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스벤 헤딘이 누란 유적을 발견한 지 30년이 지난 후였다. 이는 중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주권 개념이 성숙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소수민족의 땅인 서북 변경 지역이 오랫동안 중앙 엘리트의 국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가 외국인의 실�크로드 탐험을 제국주의적 유물 약탈 행위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부와 지식사회가 중앙아시아의 소수민족을 제국주의적 확장과 동화의 대상으로 규정한 다음부터였다. 새로 부상한 신문화 운동 계통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제국주의적 동기와 방법론을 이어받아 청 제국의 강역을 영토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실�크로드의 역사는 한, 당나라 시기 한족의 찬란한 활약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쇠락해진 중국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유용한 도구였다. 이에 고고학계는 외국인 탐험가의 활동을 범죄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들의 인식과 방법론적 틀을 그대로 답습하여 서북 변경에 대한 역사 주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학사 측면에서 20세기 초 실�크로드는 서양 근대학문인 고고학이 중국에 도입되는 통로였다. 많은 젊은 돈황학자가 자료를 찾아 서구로 유학을 떠났고 외

국민과의 공동조사를 통해 서구 학계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반대로 구미 학계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많은 중국학 전문가가 양성되었다. 실크로드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중국 학자들에게 삼차원적 기물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현장조사라는 새로운 역사연구 방식이 소개되어 금석학 중심이던 역사 연구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근대 학문의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 1927~1930년 중국-스웨덴 서북과학고사단의 활동을 계기로 중국인 학자가 주축이 된 고고학 조사의 기본 방침이 수립되었고, 1928년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와 유물보존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근대고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참고문헌

자료

- 羅振玉, 2005, 「古器物學研究議」, 『雲窗幔稿』.
- 魯迅, 1981, 「所謂“國學”」, 『魯迅全集』第1券,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 北京大學圖書館·上海古籍出版社, 1995, 『北京大學圖書館藏敦煌文獻』第1券.
- 上海古籍出版社·上海博物館, 1993, 『上海博物館藏敦煌吐魯番文獻』第1券.
- 徐旭生, 2000, 『徐旭生西游日記』,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 孫文, 1912. 1, 「臨時大總統就任宣言」, 『孫中山全集』第2券, 北京: 中華書局.
- _____, 1924. 1, 「三民主義: 民族主義」, 『孫中山全集』第9券, 北京: 中華書局.
- 梁啓超, 1902, 「中國地理大勢論」, 『飲冰室文集』10.
- _____, 1903, 「政治學大家伯倫知理之學說」, 『梁啓超全集』.
- 王國維, 1983, 「最近二三十年中國新發見之學問」, 『王國維遺書』第五冊, 上海: 上海古籍書店.
- 中國新疆維吾爾自治區檔案館·日本佛教大學尼雅遺址學術研究機構 編, 2007, 『斯坦因第四次新疆探險檔案史料』, 新疆: 新疆美術攝影出版社.
- 陳萬里, 2002, 『西行日記』, 蘭州: 甘肅人民出版社.
- Forbes의 편지, Harvard University Art Museums Archives, Folder: Warner, Langdon, China Expedition, 1922년 9월.

단행본

- 피터 홉커크 저, 김영중 역, 2000, 『실�크로드의 악마들』, 세계절.
- Bowie, T., 1966, *Langdon Warner through his letter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Levenson, J. R., 1968, *Confucian China and Its Modern Fate: A Trilog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ch, B., 1929, *China and Japan in our museums*, New York: American Council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 Rong Xinjiang, 2013, *Eighteen lectures on Dunhuang*, Leiden: Brill,
- Schneider, L. A., 1976, *The Limits of Change: Essays on Conservative Alternatives in Republican Chin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ang, Cheng-hua, 2010, “The Qing Imperial Collection, Circa 1905–1925: National Humiliation, Heritage Preservation, and Exhibition Culture”, *Reinventing the Past: Archaism and Antiquarianism in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Chicago: The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 _____, 2012, “New printing technology and heritage preservation: collotype reproduction of antiquities in modern China, circa 1908–1917”, *The Role of Japan in Modern Chinese Ar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논문

- 김승욱, 2020, 「중국 근대 초기 역사학에서 민족 개념의 수용과 과학관」, 『동북아역사논총』 67.
- _____, 2022, 「근현대 중국에서 민족 담론의 전개-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 『동북아역사논총』 78.
-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중국 중시주의 고고학의 성립-」, 『崇實史學』 45.
- 朴尙洙, 2005, 「중국 근대 ‘민족국가’(nation-state)의 창조와 邊疆 문제-청말~민국 시기 邊疆 인식의 변천」, 『中國學報』 52.
- 유용태, 2009, 「근대 중국의 민족제국주의와 단일민족론」, 『동북아역사논총』 23.
- 전인갑, 2022,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1)」, 『歷史學報』 256.
- 千聖林, 2005. 12, 「내셔널아이덴티티를찾아서: 20세기 중국의 ‘黃帝’와 中華民族 만들기」, 『大邱史學』 81.
- 顏廷亮, 2018, 「敦煌學史上的第一篇論文—敦煌學史隨筆之一」, 『敦煌研究』 (5).
- 王新春, 2012, 「中國西北科學考查團考古學史研究」, 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胡同慶, 2011, 「陳萬裏監視、阻止華爾納盜竊敦煌壁畫一事之質疑」, 『敦煌研究』
2011(2).

Balachandran, S., 2007, “Object Lessons: the politics of preservation and
museum building in Western Chin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14/1.

Jacobs, J. M., 2010, “Confronting Indiana Jones: Chinese nationalism, historical
imperialism, and the criminalization of Aurel Stein and the raiders of
Dunhuang, 1899–1944”, *China on the Margin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_____, 2014, “Huang Wenbi: pioneer of Chinese archaeology in Xinjiang”, *The
Silk Road* 12.

_____, 2019, “An analysis of modern Chinese colophons on the Dunhuang
manuscripts”, *The Silk Road* 17.

외국인의 실크로드 탐험과 중국 근대고고학의 성립

이진옥

19세기 말, 고대 실크로드가 지났던 중앙아시아 타림분지 일대는 지구상 마지막 오지로 불리며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영토 확장을 위한 지리조사와 첩보전에서 시작한 탐험은 실크로드 지역의 유물을 차지하기 위한 문화재 수집 경쟁으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둔황 장경동을 비롯해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번성했던 오아시스 도시들이 발견되었고 많은 양의 유물이 서구로 반출되었다. 중국 고고학사의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말~20세기 초 실크로드는 서양과 중국, 호고주의 전통 안에 있던 금석학과 서양 학문인 고고학, 북경 출신의 한족 엘리트와 소수민족이 만나는 다층적인 접촉의 공간이었다. 20세기 초 외국인의 실크로드 탐험은 중국 고고학에 새로운 연구 자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중국 학자들로 하여금 지리적 인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젊은 둔황학자가 자료를 찾아 서구로 유학을 떠났고 현장조사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 고고학의 연구 방식이 자리 잡았다. 중국-스웨덴 서북과학 고찰단의 활동을 시작으로 중국인 학자가 주축이 된 고고학 조사의 기본 방침이 수립되었고, 1928년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와 유물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근대고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중국 고고학계는 외국인들의

탐험을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비난하면서도 외국인 탐험가들의 제국주의적 동기와 방법을 깊이 내면화하고 모방했다.

주제어: 중국고고학사, 실크로드, 중국령 중앙아시아, 오렐 스타인, 스벤 헤딘, 폴 펠리오, 황원비, 민족주의와 고고학

ABSTRACT

Foreign Expeditions in the Silk Road and the Infancy of Chinese Archaeology

Lee Jinok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Tarim Basin of Central Asia, where the ancient Silk Road passed through, had become the center of attention for imperialist powers as the last frontier on Earth. What began as geographical surveys and espionage for territorial expansion expanded into a race to collect artifacts from the Silk Road region. In the process, oasis cities that flourished along the ancient Silk Road, including the Dunhuang library caves, were discovered and large amounts of artifacts were brought to the West. In terms of Chinese archaeological history, the Silk Road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as a multilayered space of contact between the West and China, between the antiquarian Jinxi studies and the Western archaeology, and between Peking's Han elites and ethnic minorities. The expedition of the Silk Road by foreigners in the early 20th century not only provided new research material for Chinese archaeology, but also encouraged Chinese scholars to expand their geographical awareness.

Many young scholars traveled to the West in search of materials. The research methods of field archaeology were established, too. In 1928,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Language as well as the Committee for the Preservation of Antiquities ushered in the era of modern archaeology in China. While the Chinese archaeological community condemned foreign exploration as a criminal act perpetrated by imperialists, they deeply internalized and imitated the imperialist motives and methods of foreign explorers.

Keywords: History of Chinese archaeology, the Silk Road, Chinese Central Asia, Aurel Stein, Sven Hedin, Paul Pelliot, Huang Wenbi, Archaeology and Nationalism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고고학 성립기 일본인의 중국 조사

이기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융합고고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 고고학 성립기 학사적 시기 구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시각차
- III. 일본인의 중국 지역 고고학 조사
- IV. 동야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와 중국 고고학
- V. 일본인의 중국 지역 고고학 조사에 대한 평가
- VI.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 패전까지 일본은 동아시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고고학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된 고고학 조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초의 고고학 조사였으며, 이러한 조사 경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당 지역 고고학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그뿐 아니라 당시 천황제로 인해 일본 내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어려웠던 일본 고고학자에 있어 식민지 조선을 비롯한 만주, 중국 등에서의 고고학 조사는 학문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고고학 조사의 경험과 연구 결과는 일본 고고학의 학문적 성립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당시 고고학 조사에 종사했던 다수의 일본 고고학 연구자는 패전 이후 일본 고고학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지금의 일본 고고학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일본 고고학 연구자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의 조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식민지 조선과 대만, 중국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¹ 중국의 경우, 일본 고고학자의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및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한 조사 활동이 중국 고고학 성립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다.² 일본 고고학자의 중국 지역 내 발굴조사는 대부분 만주와 요동지방 등 일본의

* 투고: 2024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8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19)로 수행된 연구임.

1 이기성, 2018, 「일본 제국주의 시기 고고학 조사의 다양성과 평가」, 『한국상고사학보』 100.

2 천싱찬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중국 사전고고학사 연구 1895~1949』, 고고; 진홍파 저, 이영남 옮김, 2015, 『중국 과학 고고학의 흥기 1928년~1949년 역사언어연구소 고고학사』, 국학자료원; 이기성, 2018, 위의 글.

점령지에 한정되었으며, 중국 고고학 성립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적, 예를 들어 인취유적(殷墟遺蹟) 등의 발굴 자체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여, 당시 일본 고고학자의 활동이 중국 선사, 역사시대를 구명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고고학 조사 방법론이 중국의 발굴조사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당시 일본 고고학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성, 즉 당시 서구의 고고학자의 계속되는 중국 지역 발굴에 대해 동아시아 고고학에서 패권을 잡고자 했던 일본 고고학계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초기 중국 고고학에서 일본 고고학자의 활동이 전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일본 고고학의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조사가 불가능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국 고고학 성립기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실시된 일본 고고학자의 중국 지역 고고학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그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영향 관계를 검토해본다.

II. 중국 고고학 성립기 학사적 시기 구분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시각차

중국 고고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근대적인 학문으로 성장하였는지를 바라보는 중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는 매우 크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고고학 성립기의 시기 구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중국 고고학사 연구의 대부분이 근대적인 중국 ‘고고학’의 시작을 양사오 유적(仰韶遺蹟)의 발굴 조사로 보고 있는 것은 유사하다. 『중국사전고고학연구 1895~1946(中国史前考古学研究 1895~1946)』³에서는 중국 고고학의 성립을 (1) 중국 사전고고학의 맹아(1895~1921), (2) 중국 사전고고학의 탄생

3 천싱찬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위의 책.

(1921~1931), (3) 중국 사전고고학의 발전(1931~1937), (4) 중국 사전고고학의 계승·발전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간된 『중국고고학백년사(中国考古学百年史)』⁴에서는 중국 고고학의 성립기를 크게 (1) 중국 고고학의 시초-금석학[송대(宋代)~근대], (2) 중국 고고학의 시작(1921~1949)의 두 단계로 나누고, 1921년부터 ① 중국 최초의 고고학적 발굴(1921~1927): 1921년 양사오유적의 발굴을 시작으로 1926년 리지(李济)의 시인춘유적(西阴村遺蹟) 발굴, ② 중국 고고학의 시작(1928~1949)으로 구분하였다. 중국 고고학의 개설서로 저명한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Fourth Edition)⁵에서도 양사오유적의 발굴을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성립에서 중요한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듯 중국 고고학자가 바라보는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성립은 대부분 1921년의 양사오유적의 발굴을 그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학술적 의미 외에도 중국인에 의한 최초의 발굴 조사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고고학자가 바라보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고고학’에서는 그 이전 시기, 즉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일본 고고학자의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 고고학 조사 성과를 정리한 『동아고고학의 발달(東亞考古学の発達)』⁶에서는 일본인의 중국 지역(일부 조선도 포함) 조사를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1) 메이지(明治) 말년, (2) 다이쇼(大正) 연간, (3) 쇼와(昭和) 초년, (4) 쇼와 중기, (5) 쇼와 12년(1937)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1)과 (2)에 해당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가 일본 연구자가 최초로 중국에서 활동한 시기로, ‘중국 고고학에서의 최초의 조사’⁷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연구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평가

4 王巍 編, 2021, 『中国考古学百年史 第一卷(上册)』, 中國社会科学出版社.

5 Chang, Kwang-chic,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Fourth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6 水野清一, 1948, 『東亞考古学の発達』, 大八洲出版.

7 水野清一, 1948, 위의 책, 6쪽.

이기 때문에 일본 고고학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단 중국 고고학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 대만 등 다른 지역에서의 일본인 고고학자의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앞의 중국 고고학자들의 시기 구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고고학 연구자들에게 일본 연구자들의 활동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하다. 많은 경우, 일본 연구자들의 조사 활동은 단편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에 불과하며, 일본인의 활동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⁸

이렇듯 일본 연구자의 시각과는 달리 중국 고고학자는 중국 고고학 성립기에 일본 고고학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일본 고고학자의 활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조사 활동 또는 조사 결과물이 중국 고고학에 학술적 내용 또는 방법론에 끼친 영향은 매우 적었거나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Ⅲ장에서는 중국 고고학 성립기 일본인의 중국 지역 조사 활동을 살펴본다.

Ⅲ. 일본인의 중국 지역 고고학 조사

1. ‘고고학(考古學)’ 용어의 소개

중국에서 ‘고고학(考古學)’이라는 용어는 1902년 왕영보(汪榮寶)가 곤포(袁袍)라는 필명으로 『역서회편(譯書匯編)』이라는 잡지에 「사학개론(史學概論)」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글은 일본 역사학자 쓰보이 구메조(坪井九馬三)의 『사학방법론(史學方法論)』을 기초로 여러 일본 역사학자의 저작을 참고하여 편역한 글이라고 한다.⁹ ‘고고학’이라는 학문 명칭이 일본에서 중국에 소개

8 Kwang-chic Chang, 1986, 앞의 책.

9 천싱찬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20쪽.

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중반, 일본 정부는 구미의 학문을 일본에 소개하기 위해 당시 유럽에서 출간된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¹⁰을 번역하여 일련의 『백과전서(百科全書)』를 발간하였는데, 그중 ‘archaeology’ 항목은 독일에서 화학, 의학으로 유학한 시바타 쇼케이(柴田承桂)가 ‘고물학(古物學)’으로 번역하였다.¹¹ 이 글을 통해 일본에 최초로 삼시기법이 소개되고,¹² 역사학 또는 고고학자가 아닌 자연과학자의 엄밀한 번역이 학문 소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¹³ 이 책 자체는 매우 개론적인 내용으로 일반인에게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소개한다는 의미 외에 실제 일본 고고학 형성에 학문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¹⁴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백과전서(百科全書)』가 간행되고 2년 후인 1879년으로, 오스트리아인으로 일본에서 활동한 외교관이자 고고학자인 하인리히 폰 시볼트(Heinrich von Siebold, 1852~1908)가 저술한 『고고설략(考古說略)』¹⁵에서부터였다(그림 1). 이후 ‘고물학’과 ‘고고학’이 병용되다 1882년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¹⁶에 공식적인 용어로 ‘고고학’이 사용되고,¹⁷

10 William and Robert Chambers, 1849,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 Edinburgh.

11 文部省, 1877, 『百科全書 古物学』, 丸善.

12 勅使河原章, 1995, 『日本考古学の歩み』, 名著出版, 33쪽.

13 齋藤忠, 1974, 『日本考古学史』, 吉川弘文館, 88쪽.

14 이기성, 2020, 「일본 고고학 형성기의 식민지 고고학」, 『백산학보』 118, 464쪽.

15 헨리- 폰 시볼트, 1879, 『考古說略』. 하인리히 폰 시볼트는 일본어가 매우 능숙하였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의견만으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외교관이었던 요시다 마사하루(吉田正春)가 『考古說略』의 서문을 써주는 등, 아마 당시 학계 또는 주변 인물들로부터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6 [大政官第五十八號布達] 文部省所轄東京大學二於テ考古學研究ノ爲メ教員學生等ヲ各地ヘ派遣シ介墟洞穴ヲ檢出シ地方廳又ハ所有主ヘ協議ノ上ヘ埋没ノ古物ヲ採集スルトキハ直ニ同學ニ貯藏爲致候條爲心得此旨相達候事 明治

이후에도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고물학을 완전히 대체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고고학이란 용어가 학술 서적 등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에 정착된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이후 중국으로 전파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중국사전고고학연구(中国史前考古学研究)』에서는 쓰보이 구메조의 『사학방법론(史學方法論)』을 중심으로 여러 역사학자의 저작을 참고로 편역한 「사학개론(史學概論)」에서 ‘고고학’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고 하였는데, 쓰보이 구메조의 단행본 제목은 『사학연구법(史學研究法)』¹⁸이며 출판연대도 1903년으로, 왕영보의 「사학개론(1902)」보다 1년 늦어 오류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학연구법』 자체가 당시의 강의 노트를 단행본으로 엮은 ‘구술(講述)’이며, 「사학개론」의 필자인 왕영보(汪榮寶)는 19세기 후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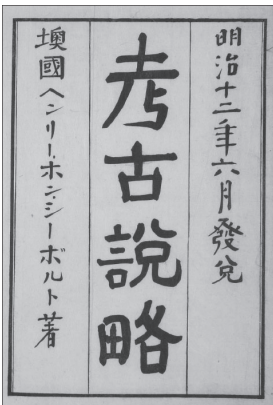


그림 1 『고고설략(考古説略)』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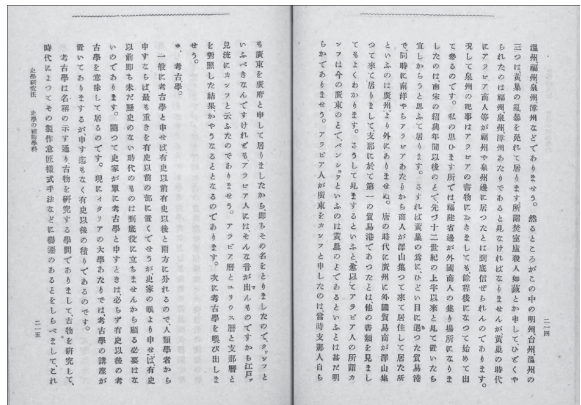


그림 2 『사학연구법(史學研究法)』의 고고학 부분

十五年十月二日,

- 17 和田千吉, 1932, 「本邦考古學界の回顧」, 『ドルメン』 1-1; 平田健, 2008, 「H.v.シーボルト著『考古説略』と明治期の日本考古学」, 『明治大学図書館紀要』 12.
- 18 坪井九馬三, 1903, 『史學研究法』, 早稲田大学出版部.

본 와세다대학과 게이오대학에서 유학한 인물로, 당시 도쿄제국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쓰보이 구메조의 『사학연구법』 역시 와세다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되었기에 왕영보가 당시 쓰보이 구메조의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쓰보이 구메조의 『사학연구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고학이 아닌 ‘사학(史學)’ 개론서이며, 그 내용 중 사학의 보조과학으로서 언어학, 고문서학, 지리학, 연대학, 계보학, 고천학(古泉學)과 함께 고고학을 들고 있다. 하지만 쓰보이 구메조가 이야기하는 고고학은 지금의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고고학과는 의미가 다르다(그림 2).

‘일반적으로 고고학이라고 하면 유사 이전, 유사 이후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인류학자가 말한다면 가장 중점을 유사 이전 부분에 둘 것이지만, 사가(史家)의 눈으로 말한다면 유사 이전, 즉 아직 역사가 없는 시대의 것은 도저히 도움이 안 되기에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가가 단순히 고고학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유사 이후의 고고학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대학 등에서는 고고학의 강좌가 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유사 이후의 내용이다.’ ‘고고학(考古學)은 명칭이 나타내듯이 고물(古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고물을 연구해서 시대에 따라 그 제작, 의장, 양식, 수법 등에 변천이 있는지를 찾고 그것으로 어느 시대의 사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다음 시대에는 어떤 풍으로 바뀌어왔는지 등을 연구해서 사가에게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¹⁹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고고학의 소개로, 고고학의 방법론 등에 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왕영보가 「사학개론」에서 고고학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²⁰이 쓰보이 구메조의 『사학연구법』과 동일하

19 坪井九馬三, 1903, 위의 책, 215쪽.

20 천상찬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20쪽.

기에 그가 『사학연구법』을 기초로 하여 고고학을 설명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일본의 영향에서 처음 소개되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고고학이 아닌 역사학의 보조과학, 특히 선사시대가 아닌 역사시대의 구명을 위한 보조과학으로서의 고고학 개념이 소개되었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중국 대륙에서의 일본인 연구자의 조사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비록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당시 알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인 연구자의 조사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재 조사’였으며, 유적과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와 같은 의미로서의 고고학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고건축물에 대한 조사, 인류학적인 조사가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여러 분야의 연구자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성립 과정과 관련되어 일본 연구자의 조사 활동을 검토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한 유물,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2. 조사 또는 탐험의 시작 - 1890년대~1910년대까지

학문적 용어로서 고고학이 소개되는 것과는 별개로, 일본인 연구자의 중국 지역 조사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고고학, 인류학 조사로 저명한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1870~1952)는 1895년 도쿄인류학회(東京人類學會)의 의뢰로 남만주 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다. 20대의 도리이 류조의 첫 해외 조사였으며, 중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일본인 연구자가 실시한 최초의 조사였다. 러일전쟁 이후 만주의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도쿄제국대학은 건축조사, 역사 조사, 인류학 조사팀을 파견하였는데, 이 중 도리이는 인류학 조사를 담당하였다. 도리이는 그 이후인 1905년, 1909년에도 남만주 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다. 1895년의 조사는 도쿄인류학회로부터의 파견, 1905년의 조사는 도쿄제국대학의 인류학 조사로, 1909년은 도쿄제국대

학의 명을 받아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의 촉탁으로 남만주 지역 각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남만주조사보고(南滿州調査報告)』²¹로 발간되었다. 도쿄제국대학의 건축학과 교수 세키노 다다시(関野貞) 역시 도쿄제국대학의 명으로 1907년 산둥성(山東省)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지나산 동성에서의 한대분묘의 표식(支那山東省に於ける漢代墳墓の標飾)』²²으로 간행되었다.

후에 교토제국대학 고고학교실의 주임교수가 되는 하마다 고사쿠(浜田耕作, 1881~1938) 역시 남만주 지역을 조사하였다. 당시 교토제국대학에 막 임용된 하마다 고사쿠는 1910년, 1912년 2회에 걸쳐 남만주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그의 조사 결과는 「남만주에서의 고고학적 조사(南滿州における考古学的調査)」²³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고고학 조사 외에도 도쿄제국대학 건축학 교수였던 이토 주타(伊東忠太)의 『청국 북경 자금성 전문의 건축(淸國北京紫禁城殿門の建築)』²⁴(1903) 역시 도쿄제국대학 건축학 교수였던 쓰카모토 야스시(塚本靖), 교토제국대학의 동양사학 교수였던 구와하라 지쓰조(桑原隲藏) 등의 건축 및 지리 조사 등도 실시되었다.

1910년대까지 일본인에 의한 조사는 발굴조사가 수반되는 정식적인 ‘고고학 조사’라기보다는 유물 수습, 답사, 탐험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 역시 유사하였다. 일본 연구자들의 해외 조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연구자에 따라 중국 또는 식민지 조선 등이 첫 번째 해외 조사의 대상지였다. 해외 조사의 대상 지역은 다양했는데, 도리이 류조는 만주 지역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선사시대 유적과 인류학 조사를 담당하였고, 세키노 다다시는 식민지 조선의 고건축 조사를 경험한 후 만주 지역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각 지역에서의 조사가 학술적 내용, 조

21 鳥居龍藏, 1910, 『南滿州調査報告』, 三友社.

22 関野貞, 1916, 『支那山東省に於ける漢代墳墓の標飾』, 東京帝國大學.

23 浜田耕作, 1930, 「南滿州における考古学的調査」, 『東亞考古学研究』, 岡書院.

24 伊東忠太, 1930, 『淸國北京紫禁城殿門の建築』,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사 방법론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와 같은 초기의 조사는 순수한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일본이 진출한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의 성격으로, 일본 정부의 명령으로 제국대학 교수가 실시하였으며 중국 연구자와의 공동 조사 또는 연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양한 조직의 조사-1920년대 이후

1920년대부터는 다양한 조직이 중국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조직이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1926년 설립된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로, 동아고고학회는 일본의 중국 지역 고고학 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그 외의 조직 또는 기관들의 조사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조사부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철도와 부속지 경영을 목적으로 1906년 설립된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이하 만철)는 반관반민의 국책회사로, 일본의 만주 지역 식민지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만철은 단순히 만주 지역의 철도 경영뿐 아니라 만주 경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였으며, 설립 초기부터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부를 설치하였다. 만철 조사부가 설치된 것은 1907년으로, 만철 창립 당시부터 총무부, 운수부, 광업부, 지방부 등과 함께 중심적인 부서였으며, 조사부 내의 기구로는 조사부, 중앙시험소, 지질연구소 등이 있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1908년 1월에는 도쿄지사 내에 만선역사지리조사부(滿鮮歷史地理調查部)가 설치된다. 만선역사지리조사부는 도쿄제국대학의 교수를 중심으로 주로 고대, 중세사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일본 동양사학의 인재 양성소로 일컬어지게 된다.²⁵ 고고유적에 대한 조사는 1920년대 본격화되었는데, 야기 소자부로(八

木契三郎)가 만철 조사과의 촉탁으로 1922년, 1928년 만주지역 유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 결과는 『만주구적지 상(滿洲舊蹟志 上)』, 『만주구적지 하(滿洲舊蹟志 下)』, 『속만주구적지(續滿洲舊蹟志)』²⁶ 등으로 간행되었다.

2) 만몽학술조사연구단(滿蒙學術調查研究團)

만몽학술조사연구단은 만주국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 육군 정무차관 자작(子爵) 도키 아키라(土岐章)의 주선으로 결성되었다.²⁷ 외무성 문화사업국,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學術振興會),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등의 조성금과 기부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学)의 지질학자인 도쿠나가 시게야스(徳永重康)를 중심으로 조직된 학술단체로, 조사 분야는 지질학, 고생물학, 암석학, 광물학, 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등 자연과학 분야가 중심이었으며, 그중 인류학이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단의 구성원은 와세다대학,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 소속의 교수나 강사 등으로, 고고학과 관련되어서는 인류학 분야 조사 담당으로 당시 도쿄제국대학 촉탁이었던 야와타 이치로(八幡一郎)가 참가하였다.²⁸ 제1차 만몽학술조사연구단의 조사보고서는 총 26책으로 간행되었으며, 그중 고고학 조사는 『열하성 남부의 선사시대 유적 및 유물(熱河省南部ノ先史時代遺跡及び遺物)』²⁹ 등이 있다.

25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사회평론아카데미, 119쪽.

26 八木契三郎, 1923, 『滿洲舊蹟志 上』, 南滿州鐵道株式會社; 八木契三郎, 1926, 『滿洲舊蹟志 下』, 南滿州鐵道株式會社; 八木契三郎, 1929, 『續滿洲舊蹟志(1929)』, 南滿州鐵道株式會社.

27 徳永重康, 1934, 『第一次滿蒙學術調查研究團ノ自然科學調査』, 第一次滿蒙學術調查研究團.

28 松浦誠, 2019, 「多田文男フィールドノートの記述内容 —第一次滿蒙學術調查研究團を事例に一」, 『駒澤大學禪文化歴史博物館紀要』第3号, 23쪽.

3)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

동방문화학원은 ‘대지문화사업(對支文化事業)’의 일환으로 1929년 설립된 동양학 연구기관으로, 설립 당시 도쿄, 교토 두 곳에 각각 연구소를 두었다. 이곳에서 활동한 30여 명의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모두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 출신의 제국대학 교수들로 일본의 동양학 연구를 이끈 인물들이었다.³⁰ 이 중 동방문화학원 교토연구소에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미즈노 세이이치(水野清一) 등을 중심으로 7차에 걸쳐 원강석굴(雲岡石窟)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는 『운강석굴 전16권 32책(雲岡石窟 全16卷32冊)』³¹으로 발간되었다.

4) 만주국 정부의 고적조사

1932년 일본의 괴뢰정부로 세워진 만주국에서도 고적조사가 실시되었다. 건국 다음 해인 1933년 「고적보존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유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기에 따라 담당 부서는 국무원 문교부, 민생부, 민정부 등으로 변하기는 하였지만, 조사 보고서는 총 80편에 달하였다고 하며, 주요한 간행물은 총 5권의 『만주국고적고물조사보고(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³²이다.³³

29 八幡一郎·道野鶴松, 1935, 『熱河省南部ノ先史時代遺跡及び遺物』, 第一次滿蒙學術調査研究團.

30 이태진, 2022, 『일본제국의 대외 침략과 동방학 변천』, 사회평론아카데미, 23쪽.

31 水野清一·長廣敏雄, 1951~1956, 『雲岡石窟』 全16卷32冊.

32 滿洲國國務院文教部, 1936, 『錦州省之古蹟』,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1編; 滿洲帝國民生部, 1940, 『考古學上より見たる熱河』,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2編; 滿洲帝國民政部, 1942a, 『間島省古蹟調査報告』,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3編; 滿洲帝國民政部, 1942b, 『吉林·濱江兩省に於ける金代の史蹟』,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4編; 滿洲國文教部, 1943, 『延吉小營子遺蹟調査報告』,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5編.

33 사카즈메 히데이치 저, 이기성 옮김, 2021, 『태평양전쟁과 고고학』, 생각과 종이.

5) 일만(만일)문화협회[日滿(滿日)文化協會]

1932년 만주국이 성립되고 만주국 문화사업의 하나로써 『대청력조실록(大清歷朝實錄)』의 간행이 계획되었다. 이 대규모의 계획은 중국의 고고학자 뤼전위(羅振玉)의 희망과 교토제국대학의 동양사학자 나이토 코난(內藤湖南)의 지지로 성사되었으며, 이 사업을 포함해 동방 문화의 보존과 만주국의 학술진흥, 박물관 설립, 문서자료의 보존·정리 등을 위해 일본과 만주 학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1933년 일만(만일)문화협회가 창설되었다.³⁴ 협회의 구성원은 실제로는 동방문화학원 도쿄연구소와 교토연구소의 연구자들과 중복되는데, 일본 측 중심 인물은 나이토 코난,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이었으며 중국 측 중심 인물은 뤼전위 등이었다. 『명대만몽사료 이조실록초(明代滿蒙史料 李朝實錄抄)』, 『명대만몽사료 명대실록초(明代滿蒙史料 明代實錄抄)』 간행과 같은 학술적 사업 외에 「제일회방일선조기념미술전람회(第一回訪日宣詔記念美術展覽會)」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³⁵ 고고학 조사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통구 권상, 권하(通溝 卷上, 卷下)』³⁶ 등을 간행하였다.

6) 일본학술진흥회(日本學術振興會)의 요동지역 조사

1932년 설립된 일본학술진흥회는 1941년부터 중국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뒤에서 설명할 동아고고학회의 연구자들이 중국 지역의 발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일전쟁 이후 의무성으로부터의 조성금 지원이 없어지는 대신 일본학술진흥회가 중국 조사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등의 교토제국대학 연구자들은 주로 상마스패총(上馬石貝塚), 쓰핑산적석총(四平山積石塚), 라오즈산적석총(老鉄山

34 岡村敬二, 2008a, 「滿洲国の文化政策と京都の学者たち」, 『みやこの近代』, 思文閣出版; 岡村敬二, 2008b, 「日滿文化協會の創設」, 『みやこの近代』, 思文閣出版.

35 岡村敬二, 2008a, 위의 글; 岡村敬二, 2008b, 위의 글.

36 池内宏·梅原末治, 1938~1940, 『通溝 卷上, 卷下』, 日滿文化協會.

積石塚), 원자툰패총(文家屯貝塚) 등의 유적을,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 등의 도쿄제국대학 연구자들은 라오양한묘(遼陽漢墓) 등의 유적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보고서는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발간되었다.³⁷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년대부터 패전으로 일본인이 중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일본인의 중국 지역 조사는 계속되었다. 조사 방식 역시 다양하여, 만철 조사부와 만몽학술조사연구단, 동방문화학원, 만주국의 고적조사는 직접 조사단을 구성하여 발굴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면, 일만문화협회나 일본학술진흥회 등은 조사 비용만 지원한 기구들이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굴 조사 등은 만주와 요동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조사를 담당한 인물들 역시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의 연구자들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연구자가 일만문화협회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사례는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고고학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오로지 일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조사였으며, 또한 일본이 점령한 지역에 대한 조사였기에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조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중국 고고학자가 전혀 관여하지 못한 고고학 조사가 중국 고고학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실패로 끝나기는 하지만 중국 중원 지역에서 중국과의 공동 조사를 시도한 것은 다음에서 설명할 동아고고학회였다.

37 宮本一夫, 2017, 「日本人研究者による遼東半島先史調査と現在 - 東亜考古学会調査と日本学術振興会調査 -」, 『中国考古学』 17, 10~11쪽.

IV. 동아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와 중국 고고학

1. ‘대지문화사업(對支文化事業)’

1899년 시작된 의화단의 난이 실패로 끝난 후, 청나라는 1901년 베이징 의정서에 따라 연합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연간 200~300만 엔의 배상금을 1923년 3월 제정된 「대지문화사업특별회계법(對支文化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해 외무성 주관으로 중국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 즉 ‘대지문화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한다.³⁸ 대지문화사업의 주된 목적은 ①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비 보조 및 교육, ② 북경인문과학연구소(北京人文科學研究所), 상해자연과학연구소(上海自然科學研究所) 및 도쿄와 교토에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 등의 연구기관 설립, ③ 중국 내 교육·의료사업, ④ 일중 양국 간의 인물 교류 등이었다.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학술·교육·문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일본 단독의 사업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공동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대지문화사업’은 이후 ‘동방문화사업(東方文化事業)’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³⁹ 이 동방문화사업의 하나로 동방문화학원(東方文化學院) 도쿄연구소(東京研究所)와 교토연구소(京都研究所)가 설립되며, 두 연구소는 일본 동양학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다.⁴⁰ 이렇듯 동방문화사업은 역사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였지만, 당시로서는 새로운 학문이었던 고고학도 동방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38 이태진, 2022, 앞의 책, 55쪽.

39 山根幸夫, 2005, 『東方文化事業の歴史-昭和前期における日中文化交流』, 汲古書院, 10쪽.

40 ‘對支文化事業’ 또는 ‘東方文化事業’에 대해서는 阿部洋, 2004, 『「對支文化事業」の研究—戰前期日中教育文化交流の展開と挫折』, 汲古書院과 山根幸夫, 2005, 위의 책에 자세한 검토가 있다.

2. 일본의 중국 지역 조사에 대한 관심의 시작

실제 일본이 중국 지역의 고고학 조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10년대부터였다. 그 이전의 만주 지역 조사는 일본이 진출하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일종의 탐험, 답사, 유적의 분포 조사였으며,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고고학자가 중국의 중원 지역의 유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인쉬유적에서 출토된 갑골(甲骨)이 계기가 되었다.

중국 고고학과 역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인쉬유적 출토 갑골은 19세기 후반부터 관심 대상이었지만, 실제 인쉬유적의 발굴 조사는 1928년이 되어서야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지속적으로 인쉬유적 발굴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20세기 초반 인쉬유적에서 출토된 갑골이 일본에 전해진 이래, 일본의 한학자(漢學者)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의 연구와 청말의 혼란을 피해 교토로 온 튀전위, 왕귀웨이(王國維)의 영향으로 일본 학계에 갑골 연구의 붐이 일어난다. 도쿄제국대학의 시라토리 구라키치, 교토제국대학의 나이토 고난 등에 의한 갑골 연구가 시도되면서 일본에서는 갑골의 출토지인 인쉬유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미술 컬렉터였던 호소가와 모리타쓰(細川護立) 후작의 후원으로 인쉬유적 발굴 조사를 계획하게 된다. 그러나 호소가와 후작의 지원으로 계획된 인쉬유적의 발굴은 현지 정세의 불안과 1922년 하야시가 사망하면서 발굴 계획은 좌절된다.⁴¹ 그리고 인쉬유적을 포함한 중국 지역의 유적에 대한 관심과 발굴 조사 계획은 동아고고학회가 이어받게 된다.

41 吉開将人, 2012, 「殷墟をめぐる日中関係: 近代日本と民国学術史(一)」,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紀要』, 23쪽; 吉開将人, 2020, 「20世紀日中関係と中国考古学研究」, トヨタ財団研究会「日本の中国研究の軌跡と現在」第10回公開研究会資料.

3. 동아고고학회와 북경대학(北京大學), 동방고고학협회(東方考古學協會)

1920년대 들어와 중국 고고학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난다. 북경대학 고고학 연구실 개설(1922)과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28)의 설립 등이 그것으로, 이 중 일본 고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경대학에는 신젠스(沈兼士)를 주임으로 북경대학 연구소 국학문(國學門)이 개설되고, 그 아래의 고고학 연구실은 마형(馬衡)이 주임을 맡게 된다.⁴² 당시의 북경대학에는 일본 유학파가 다수 있어, 일본과 밀접한 교류를 맺고 있었으며 고고학 연구실 개설 과정에서도 하마다 고사쿠가 조언을 해주거나 이미니시 류(今西龍)를 통신원으로 초빙하는 등, 설립 초기부터 일본 고고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⁴³ 북경대학 고고학 연구실은 1923년 마형을 회장으로 고적고물조사회[古蹟古物調査會, 1924년 고고학회(考古學會)로 개칭]를 설립하며, 초기부터 인쉬유적의 발굴을 계획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부터 인쉬유적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측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 지역을 고고학 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동아고고학’을 표방하며 1924년부터 중국과의 공동 조사 조직 설립을 준비한다. 그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1925년 당시 도쿄제국대학이 실시하고 있었던 낙랑 왕우묘(王町墓) 발굴조사 현장에 마형을 초빙하기도 한다.⁴⁴ 이러한 목적으로 1926년 하마다 고사쿠와 시마무라 고사부로(島村孝三郎)가 일본과 중국의 공동 조사 조직 설립을 추진하면서 북경대학 고고학 연구실과 결성한 것이 동방고고학협회(東

42 阿川修三, 1993, 「国学研究序説(1) 北京大学研究所国学門について」, 『文学部紀要』 6.

43 진홍파 저, 이영남 옮김, 2015, 앞의 책, 97쪽.

44 吉開将人, 2006, 「東亞考古學と近代中国」, 『帝国の学知 第3卷 東洋学の磁場』, 岩波書店, 153쪽.



東大山上會議所における東亜考古学会発会・東方考古学協会第二回総会(昭2・3・26) 3列左より4番目が博士

그림 3 동아고고학회 발회·동방고고학협회 제2회 총회 사진(吉開將人 2020, 8쪽 전제)

方考古學協會)이며, 일본 측 조사 조직이 바로 동아고고학회였던 것이다.⁴⁵ 즉, 도쿄제국대학과 교토제국대학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동아고고학회를 설립하고, 이 동아고고학회가 북경대학과 함께 만든 조직이 동방고고학협회이다. 1926년 북경에서 동방고고학협회 제1회 총회, 1927년 도쿄제국대학에서 동방고고학협회 제2회 총회와 동아고고학회 발회식이 열리면서 일본의 중국 지역 조사 시도는 본격화된다(그림 3).⁴⁶

동아고고학회와 동방고고학협회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하마다 고사쿠는 “학술연구에 국경이 없고 멋대로 발견의 공명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만약 중국 학자 자신, 또는 중국 문화와

45 일본 제국주의 시기 중국 내 동아고고학회의 조사 활동 자체는 발굴보고서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 설립의 경위, 조직 등은 그리 명확하지 않았다. 동아고고학회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 대지문화사업과 관련된 일본 외무성 공문서가 공개되면서부터로, 동아고고학회에 관해서는 吉開將人, 2006, 앞의 책; 酒寄雅志, 2007, 「東亜考古学会と近代日本の東アジア史研究」,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등에 자세한 검토가 있다.

46 吉開將人, 2006, 위의 책, 153쪽.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일본) 학자의 손에 의해 그 학술적 탐험조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에는 또한 특수한 수집품과 또 다른 관찰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동아(東亞)에 나라를 세운 중국 및 우리(일본) 학자의 학술적 의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학술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동아고고학회와 동방고고학협회⁴⁷라고 말하고 있다. 즉, 동아고고학회는 크게는 동아시아, 당장은 중국의 유적 발굴을 중국과 중국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담당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서구의 고고학자들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의도는 동아고고학회 회칙에도 분명히 확인된다.⁴⁸

동아고고학회 회칙

제1조 본회는 동아고고학회라고 한다.

제2조 본회는 동아 제 지방에서의 고고학적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회는 동종의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과 협동 연맹할 수 있다.

제4조 새롭게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회원의 추천을 받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일금 오백 원을 기부하는 자를 찬조 회원으로 한다.

제5조 본회는 적당한 장소에 연구실을 두고 회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를 제공한다. 다만 회원 외의 사람이더라도 회원의 소개가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47 浜田耕作, 1927, 「東方考古學協會と東亞考古學會」, 『民族』第2卷4号, 130쪽.

48 外務省 外交史料 B05015893700.bh0044.h-0683.00000431(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제6조 본회는 연구 조사의 결과를 일본어와 중국어, 구문(歐文)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널리 학회에서 발표한다.

본회의 조사로 얻은 자료는 그 조사지가 속한 나라에 둔다.

제7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위원 약간, 간사 약간, 다만 위원 중 몇 명을 상무위원으로 삼는다.

제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은 본회의 연구 조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간사는 서무 회계를 처리한다.

제9조 회원 총회는 매년 1회, 편리한 지역을 정해 열고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제10조 본회의 경비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부칙

1. 창립 시의 위원은 발기인으로 삼는다.
2. 본회와의 연락은 당분간 도쿄시외 이케부쿠로(池袋) 501번지 본회(가)사무소로 한다.
3. 본회 연구실은 우선 중화민국 북평(北平)에 둔다.

제2조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고고학회의 조사 대상 지역은 ‘동아 제 지방’이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제3조에는 ‘동종의 목적을 가진 다른 기관과 협동 연맹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동방고고학협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동아고고학회는 외무성의 문화사업비 조성이 주된 재원이었다.⁴⁹ 동아고고학회는 북경대학과 연계하여 처음부터 인취유적 발굴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허난성(河南省)의 반대 등 중국 측의 사정으로 인취유적의 발굴은 성사되지 못하

49 外務省 外交史料, 위의 사료.

고, 관동주의 피쯔위유적(貔子窩遺蹟)을 동아고고학회의 첫 발굴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동아고고학회의 첫 발굴인 피쯔위유적의 조사는 1927년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2주간이었으며,⁵⁰ 외무성 문화사업부의 조성 금액은 1만 엔이었다.⁵¹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朝鮮古蹟研究會)의 첫해 예산이 이와사키 고야타(岩崎小弥太) 남작이 기부한 6,000엔에 불과하였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중국 지역의 발굴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알 수 있다.⁵²

동아고고학회가 단순히 일본과 중국의 공동 조사뿐 아니라 동아시아 고고학에서 주도권을 잡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여러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고고학회의 ‘국제학계에서의 지위(國際學界に於ける地位)’라는 제목의 외무성 공문서⁵³에는 “① 중국에서 북경대학 고고학회와 공동으로 동방고고학협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는 중국 교육계의 원로 차이위 안페이(蔡元培) 씨를 추천, 고문으로는 예궁취(葉恭綽) 씨를 추천, 간사장(幹事長)은 동아고고학회의 간사가 담당하여 동아고고학의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② 최근 국제연맹 내 학예협력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고고학연구 기관의 중심 조직 설립에 관해 솔선 찬동하고 극동(極東) 유일의 고고학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1회의 보고에는 학회의 현상에 관해 상세히 보고 소개하였다”⁵⁴고 되어 있다. 즉, 중국과의 공동 조사임을 강조하고 ‘극동 유일의 고고학 연구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다. 또한 동일한 문서에서 향후의 사업 방침에 대해서도 “만주, 몽골에서 탐험 및 발굴을 계속하는 것 외에 장래에는 중(中)아시아에도 현지 답사를 실시하여 동서문화 교통의 경로를 탐구하여 고대문화의 천명에 공헌할 것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다.

50 東亞考古學會, 1929, 『貔子窩-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跡一』 東方考古學叢刊 甲種 第1冊.

51 사카즈메 히데이치 저, 이기성 옮김, 2021, 『태평양전쟁과 고고학』, 생각과 종이.

52 이기성, 2018, 앞의 논문, 197쪽.

53 外務省 外交史料, 앞의 사료.

54 外務省 外交史料, 위의 사료.

이렇듯 동아고고학회는 중국 지역을 포함해 동아시아 전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었으며, 1926년 피쯔위유적을 시작으로, 중일전쟁으로 동방 문화사업에 의한 조성이 불가능해지는 194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일련의 『동방고고학총간(東方考古學叢刊)』으로 발간되었다. <표 1>은 동아고고학회의 발굴 조사 목록이다.⁵⁵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아고고학회의 조사는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만주, 요동반도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중국 연구자와의 공동조사는 매우 적다. 대부분은 도쿄제국대학, 교토제국대학의 인물이 발굴 조사를 주도했으며, 간혹 관동청박물관, 만철, 조선총독부, 경성제국대학 등에 소속되어 있는 일본인 연구자의 참가가 확인될 뿐이다.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동아고고학회가 실시한 조사 중에 중국 측 연구자의 참가가 확인되는 사례는 피쯔위유적, 무양청유적(牧羊城遺蹟) 등에 불과하며, 북경대학이 주관하였다는 연사더우유적(燕下都遺蹟)의 발굴은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다.

피쯔위유적의 보고서에는 조사에 참가한 인물들이 기재되어 있다. 피쯔위유적은 “동아고고학회와 관동청박물관 양 기관의 이름으로 실시되었는데, 동아고고학회 측에서는 도쿄제국대학 조교수 하라다 요시토, 동 문화부 고고학 교실 직원 다자와 긴고(田澤金吾), 고마이 가즈치카(駒井和愛), 이학부 인류학교실 직원 미야사가 고지(宮坂光次)의 4명, 교토제국대학에서는 교수 하마다 고사쿠, 문화부 강사 고마키 사네시게(小牧實繁), 동 조수 시마다 사다히코(島田貞彦)의 3명, 그 외에 동아고고학회의 간사 시마무라 고사부로(島村孝三郎), 고바야시 야스오(小林胖生)의 두 사람도 서무 및 기타 사무를 위해 발굴대에 동행하였다. 또 관동청박물관에서는 주사(主事) 나이토 간(内藤寬) 및 관원 모리 슈(森修)는 소사 1명을 대동해서 참가했을 뿐 아니라,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는 고이

55 조사 목록은 宮本一夫, 2017, 앞의 글, 9쪽, <표 1>을 바탕으로 필자가 내용을 추가, 편집하였다.

〈표 1〉 동아고고학회의 발굴 조사(조사보고서로 『東方考古學叢刊』甲種 6冊, 乙種 8冊 발간, 참가자 중 밑줄 부분은 중국 기관)

연도	조사명	참가자	보고서
1927 (昭和 2)	-關東州 貔子窩 石器時代遺蹟 발굴	東大, 京大, 朝鮮·關東州兩地博物館員, 北京大學, 歷史博物館, 露國學者 등	『貔子窩-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跡-(1929)』(『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1冊)
1928 (昭和 3)	-關東州 牧羊城 漢代遺蹟 발굴	東大, 京大, 北京大學, 關東廳博物館員 등	『牧羊城-南滿州老鉄山麓漢及漢以前遺蹟(1931)』(『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2冊)
1929 (昭和 4)	-關東州 老鐵山麓 官屯子(南山裡) 漢代遺蹟 및 河南省 洛陽城址 발굴	京大, 關東廳博物館員 등	『南山裡-南滿州老鉄山麓の漢代軛墓(1933)』(『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3冊)
1930 (昭和 5)	-河北省 易縣 故燕國都址 발굴	北京大學(主催), 東大, 京大	* 북경대학이 발굴, 原田淑人, 駒井和愛, 水野清一, 江上波夫가 초청을 받아서 견학(水野清一, 1948, 31쪽)
1931 (昭和 6)	-차하르(察哈爾) 蒙古 탐험	東大, 京大	江上波夫, 1932, 『石器時代の東南蒙古』, 『考古學雜誌』第二卷四, 五號
1932 (昭和 7)	-旅順 羊頭灣 貝塚遺蹟 발굴(1933년도 실시)	京大	『羊頭灣-關東州旅順鳩灣内における先史遺蹟-(1943)』(『東方考古學叢刊』乙種第3冊)
1933~ 1934 (昭和 8~9)	-吉林省 寧安縣 東京城 발굴	滿洲國, 東大, 京大, 京城大學, 陸軍, 滿鐵 등	『東京城-渤海国上京龍泉府址の発掘調査(1939)』(『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5冊)
1935 (昭和 10)	-滿洲國 熱河省 赤峯縣 紅山遺蹟 발굴	- 東大, 京大, 關東廳博物館, 文教部員	『赤峰紅山後-熱河省赤峯紅山後先史遺蹟(1938)』(『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6冊)
	-綏遠省 탐험	- 東大	불명
1936 (昭和 11)	-元上都 조사	- 東大, 京大	『上都-蒙古ドロンノールに於ける元代都址の調査(1941)』(『東方考古學叢刊』乙種第2冊)
1939 (昭和 14)	-綏遠省 大同府 平城址 조사	- 東大	岡村秀典·向井佑介, 2007, 『北魏方山永固陵の研究-東亜考古學會1939年収集品を中心として-』(『東方學報』第80冊)
1940 (昭和 15)	-河北省 邯鄲趙王城 조사	- 東大, 北京大學	『邯鄲 戰國時代趙都城址の発掘(1957)』(『東方考古學叢刊』乙種第7冊)
1940 (昭和 15)	-河北省 懷安漢墓		『萬安北沙城-蒙疆萬安縣北沙城及び懷安漢墓-(1946)』(『東方考古學叢刊』乙種第5冊)
1941 (昭和 16)	-河北省 萬安北沙城		『萬安北沙城-蒙疆萬安縣北沙城及び懷安漢墓-(1946)』(『東方考古學叢刊』乙種第5冊)

즈미 아키오(小泉巖夫) 씨가 도와주었다. 남만주철도회사에서도 특히 이 유적의 최초 연구자인 야기 소자부로(八木契三郎) 군이 보러(來觀) 왔다 … 그 사이에 북경고고학회에서 북경대학 교수 마형, 천위안(陳垣) 및 북경역사박물관원 뤼융(羅庸), 동광중(董光忠) 두 사람은 스기무라 유조(杉村勇造)와 발굴의 상황을 보러 와서 그 한 지점을 친히 발굴했을 뿐 아니라 …⁵⁶이라고 되어 있어, 발굴 조사 자체는 오로지 일본인 연구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고, 중국 연구자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잠시 참가하는 등의 ‘외부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발굴도 유사하였다. 동아고고학회의 두 번째 발굴인 무양청유적에는 ‘중화민국 국립북경대학 조교 장옌(莊嚴)군도 멀리서 와서 일행과 함께 하였다’⁵⁷고 되어 있다. 이 외에도 1940년의 허베이성(河北省) 한단자오왕성(邯鄲趙王城) 조사에 북경대학의 야오젠(姚鑒), 자후이딩(賈惠定)이 참가했다고 한다.⁵⁸

그 외 중국 연구자가 발굴을 주관한 것은 엔사더우유적(燕下都遺蹟)으로, 북평연구원(北平研究院)이 발굴을 주관하였으며, 북경대학의 마형 외에 장옌, 창후이(常惠), 원진룬(袁振倫)이 참가했다고 한다. 엔사더우유적은 외무성으로부터의 지원금으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북경대학 고고학회의 요청으로 동아고고학회가 신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라다 요시토를 비롯해 고마 이 가즈치카, 미즈노 세이이치,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가 초빙되어 발굴 현장을 참관한 것이다.⁵⁹ 엔사더우유적은 조사 결과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발굴 조사의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동아고고학회가 발굴 조사한 유적들은, 1940년대 발굴되어 일본 패전 이후 유물 정리와 보고서 작업이 불가능했던 일부 유적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4, 5년 내에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러나 상대적

56 東亞考古學會, 1929, 앞의 책, 1~2쪽.

57 東亞考古學會, 1931, 『牧羊城-南滿州老鉄山麓漢及漢以前遺蹟』東方考古學叢刊甲種第2冊, 1쪽.

58 水野清一 1948, 앞의 책, 69쪽.

59 水野清一 1948, 위의 책, 31쪽; 사카즈메 히데이치 저, 이기성 옮김, 2021, 앞의 책,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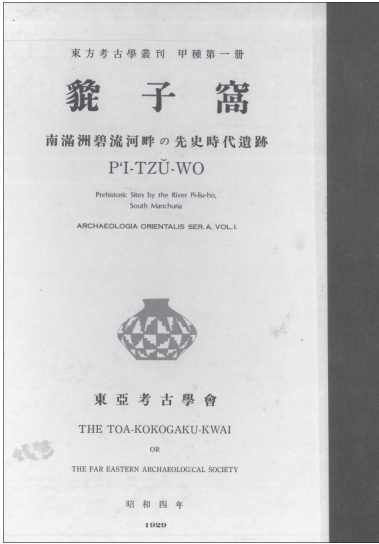


그림 4 『貔子窩』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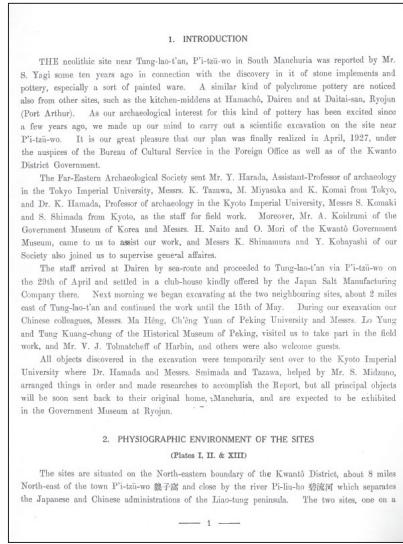


그림 5 『貔子窩』 영문 요약

으로 동야고고학회의 초기인 1930년에 발굴 조사된 엔사터우유적의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못한 것은 동야고고학회가 아닌 중국 측의 조사였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야고고학회는 그 목적과는 달리 조사 결과를 중국 고고학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그다지 기울이지 않았다. 동야고고학회 회칙 제6조에는 조사 결과를 일본어, 중국어, 구문(歐文)으로도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발간된 보고서는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고, 20여 쪽에 달하는 영어 요약문과 독일어 보고서 정도로 중국어로 쓰인 보고 내용은 없다(그림 4, 5).

이렇듯 ‘중국 및 일본 학자의 학술적 의무’⁶⁰였던 중국 지역의 발굴 조사는 결국 일본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중국 연구자는 잠시 발굴 현장을 방문하

60 浜田耕作, 1927, 앞의 글, 130쪽.

는 정도에 불과했었다. 또한 발굴 조사 후 유물 정리 및 보고서 작업 역시 일본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고고학회의 발굴 조사가 중국 고고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당초 동아고고학회는 인쉬유적을 비롯해 중국 중원지역에 대한 고고학 조사의 열망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이었으며, 이를 위해 북경대학의 고고학 연구실을 상대로 지속적인 시도를 펼쳤지만, 결국 중원 지역에서의 발굴 조사는 불가능해졌다. 물론 그 이후에도 만주와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굴 조사는 계속되었다.⁶¹ 그러나 요동 지역은 중국 고고학 성립기 중국 고고학자들의 관심 지역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도 일본 연구자만의 독자적인 조사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연구자의 중국 지역 내 발굴 조사는 중국 고고학과는 별개로 일본 고고학의 한 분야로 한정되었으며, 결국 일본 고고학이 의도했던 진정한 의미의 ‘동아고고학’은 성립되지 못한 것이다.

V. 일본인의 중국 지역 고고학 조사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지역에 대한 일본 연구자의 고고학 조사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일본 패전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연구자의 조사는 일본의 세력권인 만주와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주체는 오로지 일본인이었다. 1910년대부터 일본 학계에서 갑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쉬유적에 대한 발굴 계획이 시도되는 등, 중국 중원 지역 발굴에 대한 일본 고고학계의 열망은 당시 시작되었던 ‘대지문화사업’과 연계되어 동아고고학회를 만들게 된다. 동아고고학회는 북경대학 고고학회와 연계하여 동방고고학협회를 설립하고 중국 중원 지역 발굴 조사를 시도했지만, 중국 내부적인 문제와 반일감정 등으로 결국 중원 지

61 宮本一夫, 2017, 앞의 글.

역에서의 발굴 조사는 불가능해지고 대신 만주와 요동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이후의 발굴조사는 동아고고학회의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인 고고학자와는 무관하게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당시의 조사에 대해 중국 고고학에서는 ‘오로지 중국에서 발굴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이것은 일본의 대륙정책과 일치한 것으로 일본의 정부 지지하에 이루어진 것’⁶² 또는 ‘관동주 및 만주 등의 중국에서는 당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서양 연구자들로부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시도 또한 문화 공작의 일환’⁶³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 중국 내 일본인의 조사는 제국주의 활동의 일환이었다. 19세기 후반 도리이 류조 등의 조사는 점령지에 대한 기초 조사의 하나로 실시되었으며, 1920년대 이후 동아고고학회의 조사는 동아시아에서 고고학의 학술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시도였다.

문제는 조사의 목적과는 별개로, 중국 내 일본 고고학자의 조사 활동이 중국 고고학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일본이 실시한 고고학 조사는 대부분 그 지역 최초의 고고학 조사였으며, 이러한 조사 경험은 일본 고고학의 학문적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고고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부정적이다. 식민지기 일본인의 조사를 ‘대만 고고학의 기초 확립에 공헌’⁶⁴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식민지 조선과 중국에서 일본인의 조사 활동이 그 지역 고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 일찍 고고학이 소개되고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62 진홍파 저, 이영남 옮김, 2015, 앞의 책, 100쪽.

63 吉開将人, 2006, 앞의 글.

64 劉益昌, 2013, 「日本学者の台湾考古学研究」, 『宮崎県西都原考古博物館 研究紀要』第9号, 14쪽.

고고학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당시까지 발굴 조사의 방법론 등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지질학 등의 조사 방법론을 사용한 유럽인들의 고고학 조사⁶⁵에 비해 발굴 조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법론이 수립되지 않았던 당시의 일본의 고고학⁶⁶은 중국 고고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중국 고고학에 방법론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공동 발굴조사 또는 보고서 발간 등의 기회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1920년대 이후 중국 고고학을 주도했던 중앙연구원과의 공동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직 중국의 동북지방과 만몽 등 새북(塞北) 지역의 유적 조사만 가능했을 뿐이다. 그러나 요동 지역의 조사는 “주변 지역으로서 중앙사관(中央史觀)으로부터 원격지라는 점에서도 국가적 또는 국민적으로도 이 지역 유적에 대한 관심이 적고, 한족(漢族) 자신의 역사 복원의 본류에 들어가지 않기에”⁶⁷ 중국 고고학 초기의 주된 목적이었던 역사 구명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또한 식민지 조선의 고적조사위원회와 같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고학 조사를 담당하는 관제 조직이 만주국 문교부나 만철 조사부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으며, 대표적인 조직이었던 동아고고학회 역시 조사 당시에만 연구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물론 하마다 고사쿠의 『통론고고학(通論考古學)』⁶⁸이나 『동아문명의 여명(東亞文明の黎明)』⁶⁹ 등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등 일본 고고학이 중국 고고학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며,⁷⁰ 일본 연구자의 동북지역 조사에 대해 중국 고고학의

65 Kwang-chic Chang, 1986, 앞의 책, 10쪽.

66 예를 들면 하마다 고사쿠의 김해패총 발굴 방식은 잘못된 발굴 방식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이기성, 2014, 「일제강점기 김해패총 조사의 학사적 검토」, 『김해 회현리패총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9집』, 국립김해박물관, 107쪽).

67 宮本一夫, 2017, 앞의 글, 15쪽.

68 浜田耕作, 1922, 『通論考古學』, 大鏡閣.

69 浜田清陵, 1935, 『東亞文明の黎明』, 刀江書院.

70 사카즈메 히데이치 저, 이기성 옮김, 2021, 앞의 책, 13쪽.

“일정한 기초를 다졌고 학술상 가치가 있다”⁷¹고 평가하기도 하는 등, 일본인 고고학자의 조사 성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일본 고고학자의 조사 결과가 이후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⁷²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중국 고고학의 성립에 어떠한 식으로든 기여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시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고고학의 패권을 잡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중국 고고학자와의 공동 연구, 중원 지역에서의 발굴 등이 모두 불가능해지면서 일본 고고학은 점령지의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굴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고고학은 중국 고고학 성립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본 고고학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북경대학이 내부적인 문제와 중국 내의 반일 감정 등으로 인해 중국 고고학 성립기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일본 고고학계의 중국 측 상대 기관이었던 북경대학이 중국 고고학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서 일본 고고학이 중국 고고학 성립기의 주류적인 흐름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71 천상찬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66쪽.

72 일본인의 조사가 당시 중국의 변방이었던 요동, 만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중국 고고학 성립기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의 고고학적 조사 성과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문화요소가 한반도, 일본으로 확산되는 경로의 중심지로서, 요동지방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까지도 한국의 신석기, 청동기문화 연구에서 요동지방의 고고 자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의 기초 자료의 많은 부분이 식민지기 일본인이 요동 지역에서 실시한 조사 성과이다. 이렇듯 식민지기 일본인의 만주, 요동 지역의 조사 성과가 중국 고고학 성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고고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I. 맺음말

중국 지역에 대한 일본 연구자의 고고학 조사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940년대 일본 패전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유적 발굴 등,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공통되는 모습이었다.

식민지 지배의 기초 조사로서 고고학 조사가 실시된 대만이나 일본의 선사, 고대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고고학 조사⁷³ 등은 서로 목적은 달랐으나 일본 연구자의 단독 조사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과는 달리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 연구자들의 조사 외에도 유럽인들에 의한 조사와 중앙연구원 등의 중국 독자적인 학술 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고고학의 패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북경대학과의 공동 조사 등을 시도하였지만, 중국 고고학계의 내부적인 문제, 반일 감정 등으로 중원 지역에서의 조사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결국 일본의 점령지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의 조사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조사는 일본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근대적인 학문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중국 고고학은 유럽 고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고고학으로부터의 영향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고고학 내에서 중국 지역의 조사 성과는 매우 중요했으며, ‘동아고고학’이라는 일본 고고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었다. 이렇듯 일본 제국주의 시기 동아시아 지역의 조사 성과가 해당 지역의 학문적 발전과는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것, 예를 들어 일본인의 중국 동북지역 조사 성과가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고고학 발전의 기초가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 고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73 이기성, 2018, 앞의 글, 201쪽.

참고문헌

단행본

- 박준형, 2022,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공간 재편과 만철조사부』, 사회평론아카데미.
- 사카즈메 히데이치(이기성 옮김), 2021, 『태평양전쟁과 고고학』, 생각과 종이.
- 이태진, 2022, 『일본제국의 대외 침략과 동방학 변천』, 사회평론아카데미.
- 진홍파 저, 이영남 옮김, 2015, 『중국 과학 고고학의 흥기 1928년~1949년 역사언어언
구소 고고학사』, 국학자료원.
- 천싱찬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중국 사진고고학사 연구 1895~1949』, 고고.
- 關野貞, 1916, 『支那山東省に於ける漢代墳墓の標飾』, 東京帝國大學.
- 東亞考古學會, 1929, 『貔子窩-南滿洲碧流河畔の先史時代遺跡—(1929)』, 東方考
古學叢刊 甲種 第1冊.
- _____, 1931, 『牧羊城-南滿州老鉄山麓漢及漢以前遺蹟』, 東方考古學叢刊
甲種 第2冊.
- 徳永重康 1934, 『第一次滿蒙學術調査研究團ノ自然科學調査』, 第一次滿蒙學術調
査研究團.
- 滿洲國國務院文教部, 1936, 『錦州省之古蹟』,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1編.
- 滿洲國文教部, 1943, 『延吉小營子遺蹟調査報告』,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
5編.
- 滿洲帝國民生部, 1940, 『考古學上より見たる熱河』,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2編.
- 滿洲帝國民政部, 1942a, 『間島省古蹟調査報告』,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書 第3編.
_____, 1942b, 『吉林·濱江兩省に於ける金代の史蹟』, 滿洲國古蹟古物調
査報告書 第4編.
- 文部省, 1877, 『百科全書 古物學』, 丸善.
- 浜田耕作, 1922, 『通論考古學』, 大鏡閣.
- 浜田清陵, 1935, 『東亞文明の黎明』, 刀江書院.

- 山根幸夫, 2005, 『東方文化事業の歴史-昭和前期における日中文化交流』, 汲古書院.
- 水野清一, 1948, 『東亞考古学の発達』, 大八洲出版.
- 水野清一・長廣敏雄, 1951~1956, 『雲岡石窟』全16卷32冊.
- 阿部洋, 2004, 『「対支文化事業」の研究-戦前期日中教育文化交流の展開と挫折』, 汲古書院.
- 王巍 編, 2021, 『中国考古学百年史 第一卷(上册)』, 中國社会科学出版社.
- 伊東忠太, 1930, 『清國北京紫禁城殿門の建築』, 東京帝國大學工科大学.
- 齋藤忠, 1974, 『日本考古学史』, 吉川弘文館.
- 鳥居龍藏, 1910, 『南滿州調査報告』, 三友社.
- 池内宏・梅原末治, 1938~1940, 『通溝 卷上, 卷下』, 日滿文化協會.
- 勅使河原章, 1995, 『日本考古学の歩み』, 名著出版.
- 坂詰秀一, 1997, 『太平洋戦争と考古学』, 吉川弘文館.
- 八木契三郎, 1923, 『滿洲舊蹟志 上』, 南滿州鐵道株式会社.
- _____, 1926, 『滿洲舊蹟志 下』, 南滿州鐵道株式会社.
- _____, 1929, 『續滿洲舊蹟志』, 南滿州鐵道株式会社.
- 八幡一郎・道野鶴松, 1935, 『熱河省南部ノ先史時代遺跡及び遺物』 第一次滿蒙學術調査研究團.
- 坪井九馬三, 1903, 『史學研究法』, 早稻田大学出版部.

Chang, Kwang-chic, 1986,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 Fourth Edition, Yale University Press.

William and Robert Chambers, 1849, *Chambers's Information for the People*, Edinburgh.

논문

- 이기성, 2014, 「일제강점기 김해패총 조사의 학사적 검토」, 『김해 회현리패총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9집』, 국립김해박물관.
- _____, 2018, 「일본 제국주의 시기 고고학 조사의 다양성과 평가」, 『한국상고사학보』 100.
- _____, 2020, 「일본 고고학 형성기의 식민지 고고학: 초기 대만 고고학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118.

- 岡村敬二, 2008a, 「満洲国の文化政策と京都の学者たち」, 『みやこの近代』, 思文閣出版.
- _____, 2008b, 「日満文化協会の創設」, 『みやこの近代』, 思文閣出版.
- 宮本一夫, 2017, 「日本人研究者による遼東半島先史調査と現在—東亜考古学会調査と日本学術振興会調査—」, 『中国考古学』 17.
- 吉開将人, 2006, 「東亜考古学と近代中国」, 『帝国の学知 第3巻 東洋学の磁場』, 岩波書店.
- _____, 2012, 「殷墟をめぐる日中関係—近代日本と民国学術史(一)」, 『北海道大学文学研究科紀要』 137.
- _____, 2020, 「20世紀日中関係と中国考古学研究」, トヨタ財団研究会「日本の中国研究の軌跡と現在」第10回公開研究会資料.
- 浜田耕作, 1927, 「東方考古学協会と東亜考古学会」, 『民族』 第2巻4号.
- _____, 1930, 「南満州における考古学的調査」, 『東亜考古学研究』, 岡書院.
- 松浦誠, 2019, 「多田文男フィールドノートの記述内容—第一次満蒙学術調査研究団を事例に—」, 『駒澤大学禅文化歴史博物館紀要』 第3号.
- 阿川修三, 1993, 「国学研究序説(1) 北京大学研究所国学門について」, 『文学部紀要』 6.
- 劉益昌, 2013, 「日本学者の台湾考古学研究」, 『宮崎県西都原考古博物館 研究紀要』 第9号.
- 酒寄雅志, 2007, 「東亜考古学会と近代日本の東アジア史研究」, 平成16年度~平成18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研究成果報告書.
- 平田健, 2008, 「H.v.シーボルト著『考古説略』と明治期の日本考古学」, 『明治大学図書館紀要』 12.
- ヘンリー ポン シーボルト, 1879, 『考古説略』.
- 和田千吉, 1932, 「本邦考古學界の回顧」, 『ドルメン』 1-1.

기타 자료

日本外務省公文書 (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https://www.jacar.go.jp/>

중국 고고학 성립기 일본인의 중국 조사

이기성

중국 지역에 대한 일본 연구자의 고고학 조사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1940년대 일본 패전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많은 수의 유적 발굴 등,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상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공통되는 모습이었다.

식민지 지배의 기초 조사로서 고고학 조사가 실시된 대만이나, 일본의 선사·고대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서의 식민지 조선의 고고학 조사 등은 서로 목적은 달랐으나 일본 연구자의 단독 조사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이나 대만과는 달리 중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 연구자들의 조사 외에도 유럽인들에 의한 조사와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등의 중국 독자적인 학술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고고학의 패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동아고고학회’를 조직해 북경대학과의 공동 조사 등을 시도하였지만, 중국 고고학계의 내부적인 문제, 반일 감정 등으로 중원 지역에서의 조사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결국 일본의 점령지였던 만주와 요동 지역의 조사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조사는 오로지 일본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근대적인 학문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중국 고고학은 유럽 고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일본 고고학으로부터의 영향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고고학 내에서 중국 지역의 조사 성과는 매우 중요했으며, ‘동아고고학’은 일본 고고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었다.

이렇듯 일본 제국주의 시기 일본인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의 조사 성과가 해당 지역의 학문적 발전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의 중국 동북지역 조사 성과가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성립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고고학 발전의 기초가 된 것은 일본 제국주의 고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 고고학, 일본 고고학, 식민지기, 제국주의, 동아고고학

ABSTRACT

Japanese Research in China during the Formation of Chinese Archaeology

Yi Kisung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by Japanese researchers into the Chinese region began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continued until shortly before Japan's defeat in the 1940s. During this period,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including the excavation of many ruins were conducted. This aspect was common in many regions of East Asi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 were different purposes between Japan's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in Taiwan as a basic survey for Japan's colonial rule and Japan's archaeological investigations in colonial Joseon as the source of supplemental data for explaining Japan's prehistoric and ancient times. However, both were possible because they were conducted as exclusive investigations by Japanese researchers. However, unlike colonial Joseon or Taiwan, China was not a colony of Japan, and in addition to the surveys by Japanese researchers, other investigations were underway by Europeans or China's independent academic institutions such as the

Central Research Institute. In this process, Japan attempted a joint investigation with Peking University as a means to seize hegemony in East Asian archaeology, but investigations in the Jungwon Region did not materialize for reasons such as internal problems in the Chinese archaeological community and anti-Japanese sentiments. Eventually, they were inevitably confined to investigations into Manchuria and the Liaodong region that had been occupied by Japan, and these investigations was conducted only by Japanese people.

In this process, Chinese archaeology, which was growing into modern studies of the time, was greatly influenced by European archeology, whereas the influence of Japanese archaeology was not very pronounced.

However, within Japanese archaeology, the results of investigations into the Chinese region were highly important and became an ultimate target of Japanese archaeology named “East Asian archeology.” As this shows, the results of surveys on the East Asian region by Japanese people during the age of Japanese imperialism were not necessarily connected to this region’s academic development. For example, although the results of Japanese people’s research on northeastern China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academic establishment of Chinese archaeology, the fact that this research became 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Japanese archaeology is likely a characteristic of Japanese imperialism-oriented archaeology.

Keywords: Chinese archaeology, Japanese archaeology, colonial period, imperialism, East Asian archeology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고고학 인식과 활동

이유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고고학' 개념의 중국 전래
- II. 청말 민초, 중국 학자들의 고고학 인식
- III.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지향과 활동
- IV. 맺음말: '고고학자'에서 고고학자로



I. 머리말: ‘고고학’ 개념의 중국 전래

2021년 10월 17일, 중국 허난성(河南省) 산먼샤시(三門峽市)에서 ‘양사오문화 발견 및 중국 현대고고학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¹ 이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중국 현대 고고학의 시작을 바로 허난성 뎬츠현(澠池縣) 양사오 유적(仰韶遺蹟)의 발견으로 공인한 것이다. 이 밖에도 1899년 갑골문(甲骨文)의 발견, 1926년 중국인이 최초로 발굴을 주도한 산시성(山西省) 샤현(夏縣) 시인촌(西陰村) 발굴, 그리고 1928년 시작된 허난성 안양시(安陽市) 인취(殷墟) 발굴도 중국 현대 고고학의 기점으로 종종 거론되기도 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안데르손(Johan Gunnar Andersson, 安特生, 1874~1960)이 주도한 양사오 유적 발견을 중국고고학의 기점으로 삼은 것은 이 발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었고, 위안푸리(袁復禮, 1893~1987) 등의 중국 학자들도 대거 참여하여, 현대적인 고고학 방법론에 의해 발굴되었기 때문에 중국 현대 고고학의 기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취지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³

* 투고: 2024년 1월 13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 -2023-기획연구-19)로 수행된 연구임.

- 1 시진핑은 축전을 보내, 실사구시와 헌신이라는 우수한 전통을 드날리며, 중국특색, 중국풍격, 중국기백이 갖는 고고학 건설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習近平致信祝賀仰韶文化發現和中國現代考古學誕生100週年」, 『新華社』, 2021-10-17, <https://mp.weixin.qq.com/s/33mk3P3cCg4Ez9vuSki4mw>).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약 917만 자에 달하는 『중국고고학백년사(中國考古學百年史)』를 12책으로 출간하였다(王巍 主編, 2021, 『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2 賀雲翱, 2020, 「中國近代考古學的起點在哪裏?」, 『大眾考古』 2020-5.
- 3 李木元·周佳佳, 2021, 「爲什麼說說中國現代考古學從仰韶文化開始?」, 『人

그렇다면 현대적 고고학 지식은 언제 중국에 전래되었을까? 이에 대해 천싱찬(陳星燦)은 『중국사전고고학사연구(1895~1945)』에서 청말(清末) ‘사전사(史前史, prehistory)’, 곧 ‘선사(先史)’ 개념의 도입에 주목하였다. 그 사례로, 1901년 량치차오(梁啟超, 1873~1929)가 『중국사서론(中國史敍論)』에서 중국사의 이론 사상 체계와 분기 등을 설명할 때, ‘유사(有史) 이전의 시대’라는 장절에서 ‘선사 3기설’을 소개한 것을 들었다.⁴ 이는 덴마크의 고고학자인 톰센(Christian Jürgensen Thomsen, 1788~1865)이 선사 시기 인류의 ‘역사’를 당시 사용했던 도구를 기준으로, ‘석기시대’, ‘동기시대’, ‘철기시대’로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문자 사료가 아닌 물질 자료로만 연구가 가능한 시대, 곧 ‘선사’ 개념의 도입을 현대적 고고학 지식의 도입으로 본 것은 타당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자샤오잉(查曉英)은 ‘선사’ 개념의 전래와 관련, 19세기 중반부터 번역 출간된 지질학 서적에 주목하였다. 그는 1873년 번역 출간된 『지학천석(地學淺釋)』,⁵ 1881년 번역 출간된 『지학지략(地學指略)』,⁶ 1886년 번역 출간된 『지학계몽(地學啓蒙)』,⁷ 1891년 출간된 「지학계고론(地學稽古論)」,⁸ 1897년 출간된

民政協報』, 2021-10-22, 제3판.

- 4 陳星燦 著, 趙炯正 譯, 2011,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1895~1949)』, 고고, 18쪽.
- 5 『지학천석』은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Charles Lyell, 1797~1875)의 *Principle of Geology*의 제4편을 미국 선교사인 다니엘 제롬 맥고완(瑪高濶, Daniel Jerome MacGowan, 1815~1893)이 구역(口譯)한 것을 화형방(華衡芳, 1833~1902)이 받아적어 상해의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에서 출간한 책이다.
- 6 『지학지략』은 영국 선교사인 문교치(文教治, George Sydney Owen, 1843~1914)가 구역한 것을 이경현(李慶軒)이 받아적어 상해익지서회(上海益智書會)에서 1881년에 출간한 책이다.
- 7 『지학계몽』은 영국 선교사인 조셉 에드킨스(Joseph Edkins, 艾約瑟, 1823~1905)가 편찬한 『西學啓蒙』 시리즈 중 하나로, 조지 그로브(George Grove, 格羅夫)의 *Elementary Geography*를 번역하여 상해 총세무사서(總稅務司署)에서 1886년에 출간한 책이다.
- 8 「지학계고론」은 영국 선교사 존 프라이어(傅蘭雅, John Fryer, 1839~1928)가 『격치휘편(格致彙編)』 ‘제6년 동(冬)권’(1891)에 게재한 글이다.

『서학격치대전(西學格致大全)』의 「지학수지(地學須知)」,⁹ 『속서학대성(續西學大成)』의 「지질전지(地質全志)」¹⁰ 등에 이미 고고학적인 층위론, 곧 석기·동기·철기의 ‘3기론’ 등이 소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¹¹ 이는 중국 현대 고고학의 연원을 다룰 때, 량치차오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사학(新史學)’과의 관련성에만 주목하면서, 역사학과 관련이 없는 기타 학문에 대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지질학 도서의 번역을 통해 고고학적 지식이 전래되었다 하더라도, 이 지식이 중국 현대 고고학과 어떠한 계승관계를 갖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장타이엔(章太炎, 1869~1936)과 kang유웨이(康有爲, 1858~1927), 그리고 량치차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장타이엔은 「고란실찰기(膏蘭室札記)」에서 『지학천석』을 인용한 바 있고,¹² kang유웨이와 량치차오는 『지학천석』을 소장하고 있었다.¹³ kang유웨이는 「만목초당강의강요(萬木草堂講義綱要)」에서 ‘3기설’을 언급하였고,¹⁴ 량치차오는 『변법통의(變法通議)』 등에서 ‘3기설’을 인용하

9 『지학수지』는 영국 선교사 존 프라이어가 구역한 것을 화형방이 받아적어 상해의 격치서실(格致書室)에서 1883년에 출간한 책으로, 1897년 『서학격치대전』에 포함되었다.

10 「地質全志」, 孫家鼎 序, 1897, 『續西學大成』 6, 上海飛鴻閣書林印. 이상 여러 지질학 논저의 소개는 艾素珍(1998)의 「清代出版的地質學譯著及特點」(『中國科技史料』 1998-1), 查曉英(2006)의 「地質學與現代考古學知識在中國的傳播」(『歷史研究』 2006-4) 등 참고.

11 查曉英, 2006, 위의 글, 92~94쪽.

12 章太炎 著, 王仲榮等 整理, 1982, 『章太炎全集』 1,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59~260쪽.

13 kang유웨이는 『지학천석』을 『계학답문(桂學答問)』 ‘서학(西學) 편’의 첫 머리에 두었고, 량치차오는 1895년 번역된 서양 서적을 구득하고 『서학서목표(西學書目表)』를 지었는데, 『지학천석』이 그 가운데 있었다(李孝遷, 2011, 「西方考古學“三期論”傳入考」, 『學術研究』 2011-2, 113쪽).

14 康有爲 著, 上海市文物保管委員會 編, 1986, 『康有爲遺稿·戊戌變法前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35쪽.

였다.¹⁵ 이는 자신들의 변법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진화론을 입증할 필요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장타이엔은 『중국통사약례(中國通史略例)』(1900)에서 서양의 고고학을 통한 선사시대 연구를 중국에 소개했고, 량치차오는 전통 역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중국통사를 집필하려는 구상에서 『중국사서론』을 편찬했는데, 바로 여기서 현대 고고학적인 맥락에서 ‘선사 3기설’을 언급한 것이다.¹⁶ 이러한 학문적 궤적은 전통 학문에 당시 다양하게 섭렵한 서방 사학 사상의 영향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량치차오의 『중국사서론』이 1901년에 출간되었으니, 중국이 공인한 ‘중국 현대 고고학’의 출발선(1921)까지 가는 데 약 20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류학으로 학위를 받고 귀국한 리지(李濟, 1896~1979)가 추진한 시인촌 발굴(1926)까지는 약 25년, 그리고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가 주관한 인쉬 발굴(1928)까지는 약 27년이 걸렸다. 이 사이 중국 고고학은 ‘인쉬 발굴’이라는 대형 발굴을 추진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 글은 바로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시기 중국 학자들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고고학’을 인식했고, 또 현대 고고학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은 어떠한 공헌을 하였는지, 또 어떠한 한계를 내비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5 梁啓超, 「變法通議·論譯書」, 林志鈞 序, 1989년판, 『飲水室合集』文集 1, 北京: 中華書局. 량치차오는 여기서 만물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세계는 대초(大草), 대목(大木), 대조(大鳥), 대수(大獸)의 세계에서 인류의 세계로 변화하였고, 석도(石刀), 동도(銅刀), 철도(鐵刀)의 세계에서 지금의 세계로 변화한 것을 언급하며 변법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16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중국 증사주의적 고고학의 성립-」, 『송실사학』, 369~371쪽. 이러한 맥락에서 천성찬의 인식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7 천성찬은 량치차오에 대해, 당시 선사 시기에 대한 유럽의 최신 연구성과의 영향을 받았고, 또 ‘3기설’을 중국에 적용하여 중국에도 석기시대가 있었다는 인식 또한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라 평가하였다(陳星燦 著,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19쪽).

II. 청말 민초, 중국 학자들의 고고학 인식

1. 고고학 개념과 용어의 수용

1874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적(美國籍) 선교사 윌리엄 마틴(丁韞良, William Alexander Parsons Martin, 1827~1916)은 『중서문견록(中西聞見錄)』¹⁸이라는 잡지에 「고국유적(古國遺蹟)」이라는 글을 발표, 미국적 독일인 하인리히 쉐리만(Heinrich Schlieman, 1822~1890)의 트로이 고성 발굴 이야기를 소개하였다.¹⁹ 이 발굴이 1870년에서 1873년까지 추진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발굴 소식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에 소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구의 고대 유적 발굴 소식은 서양 선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에 소개되었다. 윌리엄 마틴은 1883년 『서학고략(西學考略)』에서 이집트, 프랑스 등 서구 각지의 고고에 대해 언급하였고,²⁰ 영국 선교사 조셉 에드킨스는 1886년 『서학약술(西學畧述)』에서 이집트와 바빌론 고적 등의 내용을 소개하였으며,²¹ 1897년 『집성보(集成報)』에 서양의 새로운 고적 발견에 대한 보도를 연속적으로 발표하였다.²²

그렇다면 당시 서구의 현대적 고고학 개념, 곧 ‘Archaeology’라는 말은 어

18 윌리엄 마틴과 조셉 에드킨스 등이 1871년 9월에 설립한 ‘중국 실용 지식 전파회(在華實用知識傳播會, The 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가 1872년 8월에 창간한 잡지로, 매달 한 기씩 출간하다가 1875년 8월에 정간되었다(金淑蘭·段海龍, 2014, 『『中西聞見錄』編者與作者述略』, 『內蒙古師範大學學報(自然科學漢文版)』 2014-6.

19 『中西聞見錄』 23, 同治17年(1874), 18~19葉.

20 丁韞良, 1883, 『西學考略』 권1 「法國」, ‘取古跡以證古俗’ 總理衙門, 光緒癸未, 21葉.

21 艾約瑟, 1886, 『西學畧述』 권6 「史學」, ‘泰西諸國推埃及最古’, 總稅務司署, 光緒丙戌, 56~57葉.

22 李孝遷, 2011, 앞의 글, 112쪽.

떻게 번역되었을까? 1866~1869년 빌헬름 롭샤이트(羅存德, Wilhelm Lobscheid, 1822~1893)가 편찬한 『영화사전(英華字典)』에 ‘Archaeology’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learning pertaining to antiquity(古學)’, 다른 하나는 ‘a discourse on antiquity(論古)’였다.²³ 그러나 이는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또 1886년 영국 선교사 조셉 에드킨스는 『서학약술』을 편찬하면서 ‘Archaeology’의 번역어로 ‘계고(稽古)’를 썼다.²⁴ 조셉 에드킨스가 창안한 번역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1891년 영국 선교사 존 프라이어가 『격치휘편(格致彙編)』에 「지학계고론(地學稽古論)」을 게재한 것을 보면 최소한 선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던 용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²⁵ 그러나 ‘계고’ 또한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고고’라는 용어다.

중국 송대(宋代) 금석학(金石學) 저서 중 『고고도(考古圖)』라는 책이 있지만, 이는 고기물 탁본 등을 수록한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고고’ 혹은 ‘고고학’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현존하는 기록 가운데, 현대적 의미의 ‘고고’가 가장 먼저 보이는 책이 바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독일인 하인리히 폰 시볼트(Heinrich von Siebold)가 저술한 『고고설략(考古說略)』(1879)이다. 이후 ‘고물학(古物學)’과 ‘고고학’이 병용되다가 대략 1882년부터 일본에서는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⁶

이후 일본의 관련 저작이 재일 유학생을 통해 중국에 전래되면서 ‘Archaeology’

23 <https://mhdb.mh.sinica.edu.tw/dictionary/image.php?book=1866&page=79> (검색일: 2023.8.17.).

24 Iwo Amelung, 2004, “Naming Physics. The Strife to Delineate a Field of Modern Science in Late Imperial China”, in Lackner, Michael, Vittinghoff, Natascha(eds.), *Mapping Meanings: Translating Western Knowledge into Late Imperial China*, Leiden: Brill, pp. 381~422.

25 李孝遷은 1894년 1월 24일, 에드킨스가 上海亞細亞文會에서 ‘史前考古’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중국에서 ‘고고’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 된다(李孝遷, 2011, 앞의 글, 112쪽).

26 李孝遷, 2011, 위의 글, 112쪽; 이기성, 2024, 「중국 고고학 성립기 일본인의 중국 조사」, 『동북아역사논총』 83 참고.

의 번역어로 ‘고고’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1889년 일본 동경인류학회(東京人類學會) 회원인 도리이 구니타로(鳥居邦太郎)가 『일본고고 제요(日本考古提要)』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1896년 Kangyuei(康有爲)가 편찬한 『일본서목지(日本書目志)』에 보인다.²⁷ Kangyuei는 이 책을 지리와 역사서목을 모은 「도사문(圖史門)」에 두었다. 이는 그가 ‘사학’이라는 측면에서 ‘고고’를 이해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⁸

현대적 의미로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자리 잡은 것은 일본에서 유 학했던 Wanglungbao(汪榮寶, 1878~1933)가 『독서취편(譯書彙編)』에 발표한 「사학 개론(史學概論)」에서 ‘고고학’을 언급한 이후로 볼 수 있다.²⁹ 「사학개론」은 그 가 일본의 여러 저작을 참고해서 편찬한 것으로,³⁰ Wanglungbao는 여기서 “일반적 으로 소위 고고학이라는 것은 문자 이전과 문자 이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고 지적하면서 고고학의 정의와 목적, 연구범위 등을 소개하였다.³¹ 바로 이때부터 중국에서 ‘고고’라는 용어가 현대적 의미의 ‘고고학’을 지칭하는 개념 으로 자리 잡게 된다.

2. 학자들의 ‘고고학’ 이해

전술한 대로 Wanglungbao는 고고학을 문자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서, 그 목적에 대 해 “고물을 연구하며 그 시대에 따라 그 제작 의도와 장식의 모양 및 기법의 변 천을 조사하고, 그것이 어떤 시기의 사회인지 어떤 물건이 먼저인지를 밝히고 그다음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두 증명하여 역사학의 참고를 구비하는

27 康有爲, 『日本書目志』 2冊, 33葉上.

28 어찌면 Kangyuei는 ‘고고’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접한 중국인일지도 모른다.

29 陳星燦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20쪽.

30 이기성, 2024, 앞의 글 참고.

31 陳星燦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50~51쪽.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 “건축·도로·교량과 같은 토목 공사에서 기물·병기·장식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의례 예식의 변천까지도 모두 고고학의 범위에 속한다. 즉, 자세히 말하면 다시 고토목학(古土木學), 고기학(古器學) 및 전례학(典禮學)으로 나눌 수 있다”³²고 밝혔다. 이는 고고학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정의를 내린 것이지만, 왕룽바오가 이 글을 집필하면서, 일본의 쓰보이 구마미(坪井九馬三, 1858~1936)의 『사학연구법(史學研究法)』(早稻田大學出版社, 1903)을 참고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³³ 이 정의는 일본 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장지유(蔣智由, 1865~1929)는 『신민총보(新民叢報)』에 연재한 「중국 인종고(中國人種考)」에서, ‘고고’는 인류학, 언어학, 화석학 등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 학과의 학술이 흥기한 이후에야 고고학이 진보하여 만물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여겼다. 이는 고고학과 인류학, 언어학, 화석학 등 주변 학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지만, 결국 ‘만물을 눈으로 식별’하는, 다소 ‘고물학(古物學, Antiquary)’의 개념에 가까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³⁴ 이는 1907년 국수파(國粹派) 학자들이 설립한 ‘국수학당(國粹學堂)’에 ‘고고학’을 전공으로 설치하고, 그 커리큘럼에 ‘종정학(鐘鼎學)’, ‘석각자(石刻字)’, ‘금석학사(金石學史)’, ‘미술사(美術史)’ 등을 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陳星燦 저, 조현정 외 옮김, 2011, 위의 책, 50~51쪽에서 재인용.

33 왕룽바오가 「사학개론」을 발표한 것은 1902년이고, 쓰보이 구마미가 『사학연구법』을 출간한 것은 1903년으로, 오히려 「사학개론」이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왕룽바오가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쓰보이 구마미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성, 2024, 앞의 글 참고.

34 1913년판 『상무서관영화사전』에 ‘antiquary’를 ‘好古者’, ‘博古者’, ‘好古家’, ‘古物學家’로 해석했으나, ‘Fellow of the Aniquarian Society of Edinburgh’, ‘Fellow of the Society of Antiquaries’, ‘Fellow of the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등을 각각 ‘愛丁堡考古會友’, ‘攷古會友’, ‘蘇格蘭考古會友’ 등으로 번역하여 ‘antiquary’를 ‘고고’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https://mhdb.mh.sinica.edu.tw/dictionary/search.php?searchStr=%E8%80%83%E5%8F%A4&titleOnlyBtn=true>(검색일: 2023.8.17.).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국학문(國學門)의 주임이었던 선젠스(沈兼士, 1887~1947)는 1922년 「정리국고의 몇 가지 제목(整理國故的幾個題目)」에서, 고고학자가 근거로 삼는 무(無)문자 시대 혹은 문헌에 없는 사적의 자료로, ‘지질’, ‘고기물(古器物)’, ‘언어’를 열거한 후, 고대 민족의 ‘언어’를 고고학에서 가장 ‘보귀한 연구 자료로 여겼다.³⁵ 이는 현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 고고학이라기보다는 문화인류학에 가까운 이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젠스는 고고학을 다소 넓은 개념으로 이해했으나, 이와 반대로 고고학이라는 학문 범위를 비교적 좁게 설정한 학자도 있었다. 예컨대, 주시주(朱希祖, 1879~1944)는 역사 연구를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누어, 첫 번째는 문자로 기록된 역사, 두 번째는 역사에 보이지 않는 언어 문자, 세 번째는 문자 이전의 기물로, 첫 번째는 보통 역사학에 속하고, 두 번째는 언어학, 세 번째는 고고학에 속한다고 여겼다.³⁶ 이는 고고학의 범위를 선사 시기로 국한 시킨 것이다.

다음으로, 고문자와 고기물 등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고고학’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았다. 전술했듯이 중국에서 ‘고고’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바로 북송 시기 여대림(呂大臨, 1044~1091)이 저술한 『고고도』(1092)다. 이 책은 당시 궁정과 수장가들이 소장한 고대 청동기·옥기 등의 기물 및 명문을 수록한 도록이다. 당시에는 이처럼 궁정 및 개인이 소장한 기물을 모아서 종종 도록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고도』를 비롯하여 구양수(歐陽修, 1007~1072)의 『집고록(集古錄)』(1061), 왕불(王黼, 1079~1126)의 『선화박고도(宣和博古圖)』(1107), 왕구(王俅, ?~?)의 『소당집고록(嘯堂集古錄)』(12세기 초중반), 조명성(趙明誠, 1081~1129)과 이청조(李清照, 1084~1155)의 『금석록(金石錄)』(12세기 중반), 설상공(薛尚功, ?~?)의 『역대종鼎鼎器款識法帖』(1144) 등이다.³⁷ 이들은 고기물은 물론 청동기와

35 沈兼士, 1922.2.18, 「整理國故的幾個題目」, 『北京大學日刊』 961.

36 朱希祖, 1923, 「文字學上之中國人種觀察」, 俞大維 題, 1979, 『朱希祖先生文集』, 臺北: 九思出版有限公社.

석각 자료 등에 남아 있는 문자 자료를 기록하고 연구하였는데, 이러한 학문을 ‘금석학(金石學)’이라고 일컬었다.

송대에 흥기한 금석학은 청대에 이르러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청말에 이르러 갑골문 등 출토문헌이 계속 보고되면서 금석학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갔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중국에 수용된 고고학은 옛 유적과 유물을 자료로 삼는 학문적 특성 속에서, 청말민초(清末民初)의 학자들이 금석학을 떠올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과 금석학의 관계를 규정지으려 노력하였다.

예컨대, 왕귀웨이(王國維, 1877~1927)는 ‘근대 학술’은 송대에서 많이 시작되었는데, 금석학 또한 송나라 사람들이 개창한 학문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물론 여기서 ‘고고’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근대 학술’이 곧 고고학을 가리키는 것으로,³⁸ 중국 고고학의 기원이 금석학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량치차오는 중국 전통적인 학문 가운데 이미 고고학적 요소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바로 북송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고고학과 금석학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국 고고학이 발전하려면 구미의 과학기술과 방법을 흡수해야 한다고 여겼다.³⁹

중국 최초의 고고학 전문 서적인 『중국고고소사(中國考古小史)』를 편찬한 웨이취셴(衛聚賢, 1898~1990)은 이 책에서 ‘중국의 고고’를 ‘보귀기(寶貴期, 춘추전국 시기)’, ‘상서기(祥瑞期, 당대)’, ‘연구기(研究期, 송대~근대)’, 현재는 ‘발굴기(發掘期)’로 구분하면서, 중국의 전통적 금석학과 현대 고고학은 연구방법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여겼다.⁴⁰

37 史正浩, 2013, 「宋代金石圖譜的興起·演進與藝術影響」, 南京藝術學院博士學位論文.

38 王國維, 1926, 「宋代之金石學」, 傅傑 編校, 1997, 『王國維論學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쪽.

39 梁啓超, 1931, 「中國考古學之過去及將來」, 衛聚賢, 1933, 『中國考古小史』, 上海: 商務印書館, 5~25쪽.

미국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리지는 송대의 고기물 수집을 기초로 청대(清代)에 소학(小學) 연구와 고문자학이 흥기했는데, 이후 갑골문을 연구하면서 중국 학자들이 비로소 발굴 및 비문자 고고자료로 주의가 전환되었다고 여겼다. 이는 ‘당연한 추세(應有的趨勢)’로, 현대적 고고학은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 서방의 자연과학이 더해진 것이라 여긴 것이다.⁴¹

이를 종합해보면, 당시 학자들은 대체로 전통 금석학과 현대 고고학의 차이는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고기물’이라는 공통 요소에 주목하여, 물론 ‘발굴’ 여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공통 요소를 근거로 금석학을 ‘중국 고고학’ 혹은 ‘고고학의 두터운 기반’ 등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당시 고고학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통 금석학과 현대 고고학의 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지금도 당시와 유사한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보면,⁴² 단순히 고고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왕귀웨이는 고고학을 ‘근대 학술’로 여겼다. 또 량치차오는 고고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미의 과학기술과 방법을 흡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5·4운동과 신문화운동의 ‘민주’와 ‘과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연상케 한다. 곧, 고고학은 전통학문과 다른 새로운 ‘근대 학술’이고, 또 ‘과학’적인 것으로, 어쩌면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근대 학술’과 ‘과학’의 기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심리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왕귀웨이 같은 경우, 서양학문과 중국학문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 그 성질은 같고,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상호 보충할 부분이 있다고 여겼다.⁴³ 이는 현재도 중국 고고학의 원류를 전통 금석학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심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0 衛聚賢, 1933, 「自序」, 『中國考古小史』, 上海: 商務印書館, 1~6쪽.

41 李濟, 1931, 「李序」, 衛聚賢, 1933, 『中國考古小史』, 上海: 商務印書館, 1쪽.

42 김정열, 2020, 앞의 글, 375~378쪽.

43 지관순, 2014, 「辛亥革命期 王國維의 史學研究」, 『중국근현대사연구』 61, 19쪽.

3. 고고학의 학문적 정위(定位)와 교육

장타이옌은 1900년 『중국통사약례』에서 “오늘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국내의 서적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무릇 황고(皇古)의 이문(異聞)이나 인류의 실제 발자취가 홍적세층(洪積世層)에 보이는 것은 옛 사적이 미치지 못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하여, 역사연구법으로서의 고고 자료의 활용을 언급하였다. 이는 「치오군수서(致吳君遂書)」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상세(上世)의 혼돈시기에 중고제왕(中古帝王)의 일들은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적고, 문자와 언어만 그 흔적을 남겼는데, 이는 땅속의 화석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큰 역사다”⁴⁴라고 하였다. 바로 출토 물질자료를 활용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량치차오는 1902년 『신사학(新史學)』에서 “역사를 인류 진화의 현상을 서술하여, 그 공식을 얻는 학문이며, 인류 진화의 진상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류전체와 비교해야 하고 고금을 통하여 문명과 야만세계를 통달한 후 관찰해야 한다. 안으로 시골의 행정기관에서 밖으로 세계 각지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석기시대에서부터 아래로는 어제의 신문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하나의 것과 비(非)객관적인 것이라도 마땅히 자료로 취해야 한다”⁴⁵고 하였다. 바로 전 인류의 진화와 역사에서 선사시대의 유물이 가진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이다.⁴⁶

이렇게 시작된 역사 연구를 위한 고고학의 활용은 현재의 ‘역사적 콘텍스트 하에서의 고고학 연구(歷史語境下的考古學研究)’⁴⁷라는 방법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천싱찬은 중국에 유구한 역사가 있기 때문으로

44 陳星燦 著,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48쪽에서 재인용.

45 梁啓超, 1902, 『新史學』, 林志鈞 序, 1989년판, 『飲氷室合集』 文集9, 北京: 中華書局.

46 陳星燦 著,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49~50쪽.

47 孫慶偉, 2018, 『鼎宅禹蹟: 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 北京: 三聯書店.

해석하였다.⁴⁸ 타이완의 두정성(杜正勝)이 지적한 대로 중국에서 고고 발굴을 할 때 역사시대의 두터운 지층이 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역사 문제를 이해하지 않기로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⁴⁹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봐야 할 것이 바로 1900년대를 전후한 중국의 정치사회적 배경이다. 이른바 ‘무술변법(戊戌變法)’의 실패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장타이엔과 량치차오 등은 중국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위해 국민 계몽에 힘써야 한다고 자각하고, 서구와 일본의 학문을 중국에 소개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고학의 정위 문제를 볼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당시 중국에 소개된 번역서의 내용이다.

전술한 왕룽바오는 「사학개론」에서 역사의 자료는 반드시 서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여기서 지적, 지리, 고건축(古建築), 화상(畫像), 골동(骨董), 가요(歌謠), 구설(口說), 유참(遺蹟), 일언(逸諺) 등을 역사학의 증거물로 열거하고, 고고학, 언어학, 고문서학, 지리학, 연대학, 계보학, 고천학 등을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 병론하였다.⁵⁰ 또 일본에서 유학한 리하오성(李浩生)은 우키다 가즈타미(浮田和民, 1860~1946)의 『사학원론(史學原論)』을 『사학통론(史學通論)』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하였는데, 이 책의 제8장 ‘역사연구구법(歷史研究法)’에서, 고고학의 진보는 역사학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밝혔다.⁵¹ 또 같은 해, 남양공학역서원(南洋公學譯書院)에서는 영국 역사학자 헨리 버클(Henry Thomas Buckle, 1821~1862)의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의 일부를 『영국문화사(英國文化史)』로 번역·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역사연구 방법에 대해, 사료는 물론 고고 발굴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⁵² 「사

48 陳星燦 著, 조현정 외 옮김, 2011, 앞의 책, 50쪽.

49 杜正勝, 1998, 「新史學與中國考古學的發展」, 『文物季刊』 1998-1, 37쪽.

50 李孝遷, 2011, 앞의 글, 114쪽에서 재인용.

51 浮田和民 著, 李浩生 譯, 1903, 『史學通論』, 杭州: 合衆書局.

52 李孝遷, 2004, 「巴克爾及其『英國文化史』在中國的傳播和影響」, 『史學月刊』 2004-8.

학개론」이 일본 학자들의 저작을 참고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또 우키다 가즈타미와 버클의 인식을 참고하면, 당시 일본은 물론 서구에서도 역사 연구에 고고학을 활용하는 방법론, 곧 역사학을 위한 고고학이라는, 고고학에 대한 정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³

당시 고고학의 위상과 관련,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당시 학교 교육에서 고고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이다.

청말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의 교육 커리큘럼을 기록한 『주정학당장정(奏定學堂章程)』의 「대학당장정(大學堂章程)」에 보면, 문과대학(文科大學)에 ‘중국사학문(中國史學門)’과 ‘만국사학문(萬國史學門)’을 두었는데,⁵⁴ ‘중국사학문’의 3학년 커리큘럼에 ‘금석문자학(金石文字學)’과 ‘고생물학(古生物學)’이 설치되었다. ‘만국사학문’의 커리큘럼에는 ‘금석문자학’이 포함되었다. ‘고생물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곧 땅속에서 발굴되어 얻어진 물품, 예컨대 인골, 수골, 도검(刀劍), 전자(甄瓷) 및 화석 따위로, 역사가가 고증할 수 있는 자료다.”⁵⁵ 비록 과목 이름은 ‘고생물학’이지만, 발굴된 유물 전체를 아우르는 수업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에 대해, ‘역사가가 고증할 수 있는 자료’라

53 물론 이러한 인식은 일본과 서구의 일부 ‘역사서’의 내용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던 『日本考古提要』에서는 구미권에서 고고학을 ‘사전(史前)’, ‘원사(原史)’, ‘유사(有史)’의 세 과로 분류한 것의 영향을 받아, 일본 고고학 또한 ‘사전’, ‘원사’, ‘유사’의 세 과로 분류하였다. 그 학문적 범주에 대해, ‘사전’과 ‘원사’ 고고학은 인류학의 범주에 속하고, ‘유사’ 고고학은 역사학에 범주에 속한다고 여겼다(鳥居邦太郎, 1889, 『日本考古提要』, 東京: 秀英舎, 1~5쪽).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본문에서 언급한 왕릉바오, 우키다 가즈타미, 버클의 인식은 바로 ‘유사’ 고고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4 이 밖에 중외지리학문(中外地理學門), 중국문학문(中國文學門), 영국문학문(英國文學門), 법국문학문(法國文學門), 아국문학문(俄國文學門), 덕국문학문(德國文學門), 일본국문학문(日本國文學門) 등 총 9개의 전공이 설치되었다(張百熙·榮慶·張之洞, 1903, 「大學堂章程」, 『奏定學堂章程』 2, 濟南: 山東官印書局, 光緒29年, 15~27葉).

55 “卽考究發掘地中所得之物品, 如人骨獸骨刀劍甄瓷以及化石之類, 可以爲史家考證之資者.”

한 것을 통해, 고고학을 역사학의 하위 분야로 정위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장타이엔, 류스페이(劉師培, 1884~1919), 황지에(黃節, 1873~1935), 덩싱(鄧實, 1877~1951) 등이 중심이 된 ‘국학보존회(國學保存會)’가 설립한 ‘국수학당(國粹學堂)’의 커리큘럼은 조금 다르다. ‘국수학당’에는 총 21개의 학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중 ‘고고학’이 ‘역사학’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설립된 것이 눈에 띈다. 그 과목으로는 ‘중정학(鐘鼎學)’, ‘석각자(石刻字)’, ‘금석학사(金石學史)’, ‘미술사(美術史)’, ‘연구법(研究法)’ 등이었다.⁵⁶ 고고학을 역사학에서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과목 내용만 놓고 보면 현대적 의미의 고고학이라기보다는 ‘금석학’ 혹은 ‘호고학(好古學)’에 가까운 것이었다.

비록 경사대학당과 국수학당의 커리큘럼에 고고학(혹은 고고학과 관련된) 과목이 설치되었지만, 정말 수많은 학당, 학교의 커리큘럼에 고고학 관련 과목 설치하는 이 두 사례 외에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고, 고고학 전공 설치하는 국수학당이 유일했다. 따라서 경사대학당과 국수학당의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 이후, 사정은 달라졌을까? 1913년 1월 12일, 교육부(教育部)가 반포한 『대학규정(大學規定)』에 ‘역사학문(歷史學門)’을 ‘중국사(中國史) 및 동양사학류(東洋史學類)’와 ‘서양사학류(西洋史學類)’로 구분한 후, 각각에 ‘고고학’ 과목 설치를 규정하였다.⁵⁷ 1913년 2월, 교육부가 공포한 「고등사범학교규정(高等師範學校規定)」에 ‘고고학’ 과목이 역사지리학부(歷史地理學部)에 설치되었고,⁵⁸ 같은 해 3월, 교육부는 또 「고등사범학교과정표준(高等師範學校課程標準)」을 발표하면서 역사지리학부에 ‘고고학개요(考古學概要)’ 과목을 3학년 1학기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고고학 과목의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였다.⁵⁹

56 王凱, 2016, 「清末國粹運動研究」,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61~62쪽.

57 朱有獻 編, 1992, 『中國近代學制史料』 3-下,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5쪽.

58 朱有獻 編, 1992, 위의 책, 465쪽.

59 朱有獻 編, 1992, 위의 책, 475쪽.

〈표 1〉 민국 시기 중국 대학 개설 고고학 과정 일람표

학교	학년	주당 시수	성격	배정학과
베이징고등사범학교 (北京高等師範學校)	4	2	선수	역사지리부
난징고등사범학교 (南京高等師範學校)	3	3	선수	역사계
베이징대학(北京大學)	2	3	선수	사학문
칭화대학(清華大學)	4	3	선수	역사계
옌징대학(燕京大學)	4	2	선수	역사계
중산대학(中山大學)	2	2	선수	사학계
중앙대학(中央大學)	2	2	선수	역사계
츠즈학원(持志學院)	4	2	필수	국학계
지난대학(濟南大學)	4	3	선수	국학계
쓰촨대학(四川大學)	3	2	선수	역사계
화시셰허대학 (華西協和大學)	?	2	선수	역사계
치루대학(齊魯大學)	?	3	필수	국학계

* 20세기 초에서 1930~1940년대까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⁶⁰

그리고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 옌징대학, 중산대학, 중앙대학, 츠즈학원, 지난대학, 쓰촨대학, 화시셰허대학(West China Union University), 치루대학 등에서 고고학 과정이 개설되었다. 칭화대학에서는 왕귀웨이와 리지가 고고학을 담당했고, 옌징대학은 페이원중(裴文中, 1904~1982), 국립중앙대학은 마오펑린(繆鳳林, 1899~1959)이, 웨이취셴과 장펑(張鳳, 1887~1966)은 츠즈학원과 지난대학에서 고고학을 담당했고, 쓰촨대학은 평한지(馮漢驥, 1899~1977)와 쉬중수(徐中舒, 1898~1991)가 담당하였다. 이 밖에 화시셰허대학과 치루대학

60 徐玲, 2009, 『儒學生與中國考古學』,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陳彩彩, 2017, 「中國近現代考古教育史初步研究」,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15쪽.

은 각각 미국인 데이비드 크로켓 그레이엄(葛維漢, David Crockett Graham, 1884~1961)과 캐나다 선교사인 제임스 멜론 멘지스(明義士, James Mellon Menzies, 1885~1957)가 고고학을 강의하였다. 한편, 베이징대학은 ‘국학문’에 ‘고고학연구실(考古學研究室)’을 설립하여 마형(馬衡, 1881~1955)을 주임으로 앉히고, 중국 보통 교육기관 중 가장 먼저 고고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다.⁶¹

그렇지만 고고학 과정은 대체로 역사와 관련된 학과에 설치되었다. 또 1930년 이전에 고고학을 교학했던 교원으로는 왕귀웨이, 리지, 마형 등을 들 수 있는데, 리지는 인류학을, 왕귀웨이와 마형은 중국 전통학문인 문학과 금석학을 기반으로 하였다. 1930년대 초반까지 시간 범위를 확대하면, 웨이취셴과 장평, 그리고 마오펑린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또한 고고학을 전공한 교원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고고학 교학이 역사학이라는 틀 속에서 수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다만, 1923년부터 리지와 마형 등이 고고조사를 수행한 점, 그리고 왕귀웨이와 리지가 재직하던 칭화대학을 졸업한 웨이취셴이 졸업하자마자 고고조사와 발굴을 수행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⁶² 고고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교학도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고학 교재가 출간 되는 1930년대부터는 고고학 교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⁶³ 여전히 역사학이라는 학과를 구성하는 하나의 과목에 불과할 뿐이었다.

61 陳彩彩, 2017, 앞의 글, 8~16쪽.

62 웨이취셴은 1927년 칭화대학을 졸업한 후, 난징정부(南京政府)의 대학원(大學院)에 임직하면서 난징고물보존소(南京古物保存所)의 소장을 겸직하였다. 그는 이때 명고궁(明故宮, 1929), 간샤진(甘夏鎮, 1930) 등의 발굴을 추진하였고, 사직 후 고향인 산시 완취안(萬泉)으로 돌아가 허우투츠(后土祠)와 징촌(荊村) 유적의 발굴을 추진하기도 하였다(衛聚賢, 1933, 앞의 책, 55~61, 71~73, 81~84쪽).

63 츠즈학원과 지난대학에서 강의하던 웨이취셴과 장평은 각각 『중국고고조사』와 『고고학』이라는 교재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가 쓴 『通論考古學』(1922, 東京: 大鏡閣)의 번역본인 『考古學通論』(劉劍華 譯, 1931, 上海: 商務印書館)도 교재로 종종 쓰였다고 한다.

Ⅲ.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지향과 활동

1. ‘금석학’에서 ‘고고학’으로

청말 민초, 인쉬의 갑골문, 쥐옌(居延) 지역의 한진(漢晉) 간독(簡牘), 그리고 둔황문서(敦煌文書) 등 신자료의 발견은 전통 금석학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서구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이 소개되자, 중국 전통 학문에 출토문헌과 고고학 자식을 활용하여 학문적 수준을 끌어올렸다.⁶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뤼전위(羅振玉, 1866~1940), 왕귀웨이, 마형 등이다.

뤼전위는 갑골학은 물론 청동기 금문학, 간독학, 둔황문서, 한당석각(漢唐石刻), 고기물학(古器物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석학을 발전시켰다.⁶⁵ 그는 갑골학에서 『철운장귀(鐵雲藏龜)』의 서문부터 시작하여 『은허서계(殷墟書契)』 시리즈⁶⁶와 『철운장귀지여(鐵雲藏龜之餘)』(1915) 등을 편찬하였고, 청동기 금문 분야에서는 『삼대길금문존(三代吉金文存)』, 간독 분야에서는 친분이 있던 샤반느(Édouard Émmanuel Chavannes, 1865~1918)로부터 니아(尼雅), 누란(樓蘭) 등지에서 발견된 간독의 필사본을 얻어 왕귀웨이와 함께 『유사추간(流沙墜簡)』을 편찬하였고, 고기물학에서는 『고기물학연구의(古器物學研究議)』(1918) 등을 편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기틀을 닦았다.

신해혁명기 뤼전위의 권유로 문학에서 사학으로 학문적 전향을 한 왕귀웨이⁶⁷

64 沈頌金, 2000, 「傳統金石學向近代考古學的轉變—以馬衡爲中心的考察」, 『學習與探索』 2000-4, 121쪽; 房鑫亮, 2015, 「馬衡·王國維對金石學的卓越貢獻」, 『探索與爭鳴』 2015-12, 120쪽.

65 다만, 뤼전위는 ‘금석학’이라는 용어가 당시 새롭게 발견된 갑골과 간독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고기물학’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66 『은허서계』 시리즈로는 『前編』(1913), 『後編』(1916), 『續編』(1933), 그리고 『菁華』(1914) 등이 있다.

67 물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지만, 뤼전위의 권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관련 연구사는 지관순(2014)의 「辛亥革命期 王國維의 史學研究」 참조.

는 뒤전위와 마찬가지로 갑골학과 간독학 등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갑골문에 보이는 은왕의 계보를 탐구한 「은복사에 보이는 선공선왕고(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와 그 「속고(續考)」, 그리고 갑골문과 금문을 기초로 전래문헌을 결합시켜 은나라와 주나라의 제도를 논한 「은주제도론(殷周制度論)」 등은 그의 고문자 연구의 결정체였다. 이 밖에 나진옥과 함께 편찬한 『유사추간』의 「둔수총간고석(屯守叢殘考釋)」에서는 간독의 출토 위치에 주의하여 ‘봉수도표(烽臺圖表)’를 일일이 정리했는데, 이는 그가 고고학적 의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⁶⁸

그리고 마형은 이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금석학을 고고학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⁶⁹ 마형은 1917년 ‘국사편찬처(國史編纂處)’의 수집원 신분으로 베이징대학에 들어왔다. 이후 1920년부터 사학계(史學系)에서 금석학을 강의하였다.⁷⁰ 원래 서예와 고기물에 조예가 깊었던 마형은 국사편찬처 수집원으로 일할 때 「통사재료집의(通史材料徵集議)」를 저술하고 통사 집필에 필요한 사료를 ‘서적’, ‘금석’(갑골 포함), ‘기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⁷¹

마형은 금석학에 대해 ‘금석’은 ‘옛 인류가 남긴 문자’ 혹은 ‘의식적으로 남긴 모든 작품’으로 여겼다. 이는 ‘금석’ 혹은 ‘다른 물질’을 매개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사학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금석학이라 이른다고 정의하였다. 또 당시 금석학이라 이르는 것은 고기물학과 금석문자학을 겸하여 확장된 것으로, 결코 좁은 의미의 물질 명칭, 곧 ‘금(金)’과 ‘석(石)’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의미로 학과 명칭을 삼을 수 있다고 여겼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남긴 모든 작품’이라는 것은 곧 글자는 없지만 우리에

68 房鑫亮, 2015, 앞의 글, 120쪽.

69 郭沫若(郭沫若)은 마형의 유저(遺著)인 『범장재금석총고(凡將齋金石叢稿)』 서언(序言)에서 마형을 ‘중국 근대고고학의 선구’로 평가한 바 있다(郭沫若, 1963, 「序」, 馬衡 遺著, 1977, 『凡將齋金石叢稿』, 北京: 中華書局).

70 베이징대학은 원래 왕귀웨이와 뒤전위에게 먼저 자리를 제안했으나, 이들이 모두 거절하자 마형에게 기회가 왔다고 한다(查曉英, 2017, 앞의 글, 113쪽).

71 馬衡, 1919.1.11, 1919.1.13, 「通史材料徵集議」, 『北京大學日刊』 284·285.

게 정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예컨대 직접 그리거나 조각한 도안(圖案), 명기(明器) 중의 인물 모형 및 모든 형체를 갖춘 기물이라 인식하였다.⁷² 그는 금석학 강의를 위해 『중국금석학개요(中國金石學概要)』라는 교재를 편찬하기도 하였다.⁷³

그러던 중 지질조사소(地質調查所)가 여러 선사 유적을 조사·발굴하면서, 1921년 양사오 유적이 발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22년 베이징대학에서는 고고학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고학연구실’을 설립한다. 이는 중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초로 설립된 고고학 전문 연구소로, 최초의 고고학 전문 인력 양성소였다.⁷⁴ 다만, 고고학이 필요하고, 또 연구해야 한다는 ‘지향’은 뚜렷했지만 문제는 인력이었다. 당시 중국에서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연구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베이징대학 국학문 주임이었던 선젠스는 일본에서 유학했던 장평을 통해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1881~1938)에게 조언을 구하였다. 하마다 고사쿠는 만약 역사학만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에게 고고학 연구를 시킨다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중 하나로 고고학을 역사학 연구의 보조 자료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의 현실 속에서 고고학과 미학 연구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였다.⁷⁵ 따라서 베이징대학은 ‘고고학연구실’의 주임으로 마형을 선임했고, 휘전위와 왕귀웨이, 그리고 폴 펠리오를 ‘통신도사(通信導師)’로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고고학 연구를 위한 출발을 알렸다.⁷⁶

72 馬衡, 1931, 「中國金石學概要上」, 馬衡 遺著, 1977, 『凡將齋金石叢稿』, 北京: 中華書局, 1쪽.

73 房鑫亮, 2015, 앞의 글, 120쪽

74 베이징대학은 ‘고고학연구실’을 베이징대학 고고학의 원년으로 인식하고 있다(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22, 『北京大學考古百年(1922~2022)』, 北京: 文物出版社).

75 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 1922.3.6, 「張鳳先生與沈兼士先生書」, 『北京大學日刊』 974.

76 「歷史沿革」,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22-4, <https://archaeology.pku.edu.cn/xygk1/lsg.htm>(검색일: 2024.1.10.).

그리고 베이징대학 연구소 국학문은 1923년 5월 고고학연구실 산하에 ‘고적고물조사회(古跡古物調査會)’를 설립하고 마형이 그 회장을 맡았다. 설립宗旨(宗旨)는 바로 고고학적 방법으로 중국 과거 인류의 물질 유적 및 유물을 조사 연구하는 것으로, 인류가 남긴 모든 의식적 제작물과 무의식적 유적, 유물, 그리고 인류가 간접적으로 남긴 가축 혹은 식용 동물의 유골, 배설물 등이 조사 연구 범위에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에는 보통 조사, 탐험, 발굴이 포함되는데, 이 중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⁷⁷

이와 동시에 베이징대학은 러시아의 알렉산더 폰 스탈-홀스타인(鋼和泰, Alexander von Stael-Holstein, 1877~1937), 일본의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등을 초청하여 고고학과 관련된 강연을 들었고, 미국의 고고학자 칼 비숍(畢士博, Carl Whiting Bishop, 1881~1942), 베르톨드 라우퍼(勞佛, Berthold Laufer, 1874~1934) 등도 베이징대학을 찾았다.⁷⁸ 이는 베이징대학이 고고학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준다. 이러한 목적에서 베이징대학은 1923년부터 1924년까지, 허난성 신정(新鄭), 명진(孟津), 뤼양(洛陽) 등지에서 고고조사를 펼쳤다.⁷⁹

그리고 1924년 5월 19일, 마형은 고적고물조사회를 ‘고고학회(考古學會)’로 개명하고, 그 주석을 맡았다. 고고학회는 중국 과거 인류의 물질 유적 및 유물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보존, 연구하는 것을 중지로, 고고학 외에도 반드시 ‘지질학’, ‘인류학’, ‘금석학’, ‘문자학’, ‘미술사’, ‘종교사’, ‘문명사’, ‘토속학’, ‘동물학’, ‘화학’ 등 각 방면 전문가로 회원을 조직한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탐험, 발굴, 감정, 수리, 보호, 기록, 출판 등 7가지를 제시하였고, 조사 범위는 크게 고적과 고기물, 고미술품으로 나누고, 조사 방법은 크게

77 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 1923, 『國立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重要紀事』, 『國學季刊』 1-3.

78 查曉英, 2017, 앞의 글, 116쪽.

79 查曉英, 2017, 위의 글, 115~116쪽.

기록, 도화(圖畵), 사진, 조형, 모탁(摹拓)을 제시하였다.⁸⁰

1922년 ‘고고학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1923년 고고학연구소 산하에 고적 고물조사소를 설치하고, 1924년 고고학회로 개명하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베이징대학은 고고학을 연차록시키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베이징대학의 고고학에 대한 지향을 엿볼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던 마형의 노력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고고학에 대한 지향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야기했지만, 기존의 중국 전통 학문에서 현대적 의미의 고고학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필드 고고 활동

초창기 중국에서의 고고조사와 발굴은 외국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질조사소(地質調查所)의 활동이었다. 1913년 설립된 지질조사소는 인재양성 및 현지조사를 위해 스웨덴의 안데르손을 광정고문(鑛政顧問)으로 초빙하였다. 그러나 중국 내부의 불안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안데르손은 스웨덴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화석 채집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고,⁸¹ 당시 지질조사소의 소장이었던 덩원장(丁文江, 1887~1936)은 이를 받아들여 고고조사

80 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 1924, 「研究所國學門考古學會開會紀事」, 『北京大學日刊』 1924-6-12. 학회 창립 회원은 모두 12명으로, 마형, 선젠스, 씨에한(葉瀚, 1861~1936), 리중둥(李宗侗, 1895~1974), 쉬빙창(徐炳熙, 1888~1976), 룡경(容庚, 1894~1983), 동취빈(董作賓, 1895~1963), 리위잉(李煜瀛, 1881~1973), 천위안(陳垣, 1880~1971), 천완리(陳萬里, 1892~1969), 웨이편잉(韋奮鷹), 앙드레 도르몽(鐸爾孟, André d'Hormon, 1881~1965) 등이다. 창립회원 가운데 고고학을 전공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훗날 쉬빙창, 룡경, 동취빈 등이 중국을 대표하는 고고학자로 성장한다.

81 곧 스웨덴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당시에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훗날 스벤 헤딘(斯文·赫定, Sven Anders Hedin, 1865~1952)이 ‘서북과학고찰단(西北科學考察團)’을 조직할 때, 중국 내부적으로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王新春, 2008, 「中國西北科學考察團考古學史研究」, 蘭州大學博士學位論文, 27~51쪽).

및 발굴로 사업이 확장된다.⁸²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사업이 바로 사귀툰(沙鍋屯) 유적 발굴, 양사오 유적 발굴, 이어서 추진된 간쑤(甘肅)·칭하이(青海) 일대 고고조사 및 발굴, 그리고 저우커우톈(周口店) 발굴이다. 이 발굴에 참여한 주요 중국 인사로는 류창산(劉長山), 위안푸리(袁復禮, 1893~1987), 바이완위(白萬玉, 1900~?), 리지에(李捷, 1894~1977), 양중젠(楊鍾健, 1897~1979), 페이원중(裴文中, 1904~1982) 등이다.

이들 중 리지에는 1913년부터 지질조사소에서 훈련을 받은 인재였고, 류창산과 바이완위는 지질조사소 채집원으로 발굴에 참여하였다. 위안푸리⁸³와 양

〈표 2〉 지질연구소의 주요 고고 발굴

연도	유적	시대	발굴기관	주요 참여 인력
1921	사귀툰	신석기	지질조사소	안텔슨, 바이완위
1921	양사오	신석기	지질조사소	안텔슨, 츠단스키, 류창산, 위안푸리
1923~1924	간쑤·칭하이 일대 ⁸⁴	신석기	지질조사소	안텔슨, 바이완위, 위안푸리
1921~1926	저우커우톈	구석기	지질조사소	안텔슨, 그레인저, 츠단스키 등
1927	저우커우톈	구석기	지질조사소	리지에, B, 보린
1928	저우커우톈	구석기	지질조사소	B, 보린, 양중젠, 페이원중
1929	저우커우톈	구석기	지질조사소	페이원중
1930	저우커우톈	구석기	지질조사소	페이원중

82 劉強, 2022, 「百年中國考古始自地質學家-中國地質調查所與仰韶文化發現的關係」, 『鑛物巖石地區化學通報』2022-2, 454쪽.

83 위안푸리는 1913~1915년 칭화학당(淸華學堂)에서 공부한 후, 1915년 미국으로 건너가 브라운대학에서 세계사와 생물학, 식물학 등의 커리큘럼을 이수했고, 1917년 컬럼비아대학 지질과에 입학하여 1920년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듬해 중국으로 돌아와 지질조사소에서 근무하였다.

84 주요 조사 지점으로는 간쑤 구이더현(貴德縣), 다오허현(導河縣), 닝딩현(寧定縣), 진판현(鎭番縣) 등, 칭하이(青海) 연안 등이다(安特生 著, 樂森瑋 譯, 1925, 『甘肅考古記』, 北平: 農商部地質調查所).

중젠,⁸⁵ 그리고 페이원중⁸⁶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지질조사소 재직 중 발굴에 참여하면서 고고학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들은 안셀손, 오토 츠단스키(師丹斯基, Otto Karl Josef Zdansky, 1894~1988), 월터. W. 그레인저(葛蘭階, Walter Willis Granger, 1872~1941), B. 보린(步林, Birger Bohlin, 1898~1951) 등이 주도한 발굴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조사대(혹은 발굴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페이원중으로, 1928년에는 B. 보린을 따라 저우커우덴 발굴에 나섰지만, 1929년부터는 발굴을 주도하면서, 이른바 ‘북경원인(北京猿人)’ 두개골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⁸⁷

한편, 1922년 중국 최초의 고고학 연구기구를 설립한 베이징 대학은 어떠한가? 1923년 고적고물조사회를 설치한 베이징대학은 같은 해, 실제로 고고조사와 발굴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23년 8월, 허난성 신정(新鄭) 등지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이징대학은 당시 국학문 소속이었던 구제강(顧頡剛, 1893~1980)과 천완리를 보내 장쑤교육청(江蘇教育廳)의 위임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였다.⁸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베이징대학의 마형과 당시 난카이대학(南開大學)에 재직 중이던 리지가 각각 현장조사와 ‘발굴’을 진행하였다.⁸⁹ 마형은 9월 22일부터 현장을 참

85 양중젠은 1922년 베이징대학 지질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 1927년 뮌헨대학에서 중국 북부지역 설치류 화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듬해 중국으로 돌아와 지질조사소에서 근무하였다.

86 페이원중은 1927년 베이징대학 지질과를 졸업하고, 지질조사소에서 근무하다가 1935년 파리로 건너가 파리대학에서 1937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질조사소로 돌아왔다.

87 裴文中, 1930, 「中國猿人化石之發見」, 『科學』 14-8, 北京: 中國科學社, 1127~1133쪽.

88 查曉英, 2017, 앞의 글, 115~116쪽.

89 리지는 10월 11일부터 24일까지, 원래 유물이 발견되었던 지점에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 몇 개의 시험갱(試驗坑)을 파서 인골 등을 수집하고 돌아갔다(李濟著, 趙敏生譯, 1994, 「新鄭的骨」, 『李濟與清華』,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4쪽; 李濟, 1961,

관하고 「신정고물출토조사기(新鄭古物出土調查記)」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⁹⁰ 보고서에 의하면, 리루이(李銳)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다 발견한 청동기를 쉬창(許昌)에 내다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현지사(縣知事) 야오옌진(姚延鎰), 제14사단장 러윈어(勒雲鶚)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리루이를 감시하게 하는 한편, 중요한 문물이 계속 발견되자 러윈어는 그 주변도 발굴하게 하여 많은 유물을 수습했다고 한다.⁹¹ 마형은 구제발굴을 통해 발견된 유물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수량과 크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발굴 범위 및 유물의 위치까지 표시하고 ‘기물의 제작’, ‘기물의 시대’, ‘기물이 매장된 원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출토 유물 사진도 6페이지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⁹²

어떻게 보면 초보적 성격의 발굴보고서라 할 수 있지만, 조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다.⁹³ 일설에 의하면, 마형은 22일 현장 조사를 마친 후 24일 뤼양 등지로 가서 골동품을 수집하는 데 모든 경비를 소진했다고 한다.⁹⁴ 이는 처음 고고조사를 실시한 데서 비롯된 불가피한 시행착오라 할 수 있는데,⁹⁵ 유사한 사례로, 1924년 3월 비원사를 조사하러 간 구제강과 룡정 등도 사람을 고용하여 발굴을 지시하고 주변을 유람하다 오는 등⁹⁶ 발굴 프로세스에는

「我與中國的考古工作」, 『李濟與清華』,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4 162쪽).

- 90 이 보고서는 「馬衡教授調查河南新出古物報告書」라는 제목으로 『北京大學日刊』(1312, 1923.10.12.)에 게재되었다가, 보완을 거쳐 본 제목으로 『東方雜誌』(20-2, 1924)에 게재되었다.
- 91 馬衡, 1924a, 「新鄭古物出土調查記」, 『東方雜誌』 20-2, 28~29쪽.
- 92 이 밖에 같은해 명진(孟津)을 조사하고 「調查河南孟津縣出土古器物報告書」(『北京大學日刊』 1312, 1923.10.12.)를, 이듬해 뤼양(洛陽)을 조사하고 「洛陽訪古日記」(1924b, 『國立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報告』, 北京: 國立北京大學研究所)를 남겼다.
- 93 馬衡, 1924a, 앞의 글, 28~36쪽.
- 94 查曉英, 2017, 앞의 글, 116쪽.
- 95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인이 주도한 최초의 고고 발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 96 顧頡剛·容庚, 1924, 3.25, 「研究所國學門調查西山陸謨克學院發見建築物報

〈표 3〉 베이징대학 고고 대사기(大事記)

연도	내용
1922.2.	국학문 산하에 고고학연구실 설립 (주임: 마형)
1923	고고학연구실 산하에 '고적고물연구소' 설립 (소장: 마형)
1923.9~10.	신정, 명진 고고조사 (마형, 쉬빙창 등)
1924.3.	다뤄사(大覺寺), 다궁산(大宮山), 비원사(碧雲寺) 조사 (구제강, 룡경) 등
1924.5.	'고적고물연구소', '고고학회'로 개명 (주석: 마형)
1924.8.	뤄양 베이망산 조사 (마형 등)
1924.8.	고고학회, 「연구소 국학문 고고학회의 대궁산 고적 보호 선언(研究所國學門考古學會保存大宮山古跡宣言)」 발표
1925. 봄	고고학회 천완리, 미국 하버드대학 둔황고고 조사 참여
1925.7~8.	뤄양 베이망산 재조사 (마형 등)
1925.10.	마형, 평양 낙랑군 한묘 발굴 참관
1925.12.	고고학진열실, 둔황문서 등 유물 입수
1927	고고학회 쉬빙창, 황원비 등 10명, '서북과학고찰단' 참가
1927	고고학회, 일본동아고고학회(日本東亞考古學會)와 연합으로 '동방고고학협회(東方考古學協會)' 설립
1928.9.	고고학회, 동방고고학협회의 무양청(牧羊城) 발굴에 장옌(莊嚴) 파견
1928.10.	고고학회 등취빈, 인쉬 발굴 책임자로 참여
1929.10.	고고학회, 베이핑 중국대학원(中國大學院) 내 '당천흙묘(唐仟欽墓)' 발굴
1929.11.	마형, 푸전륜(傅振倫), 허베이 이현(易縣), 옌사두(濱下都) 고적 조사 고고학회, 베이핑연구원, 고물보관위원회 연합, '연하도고고단' 설립
1930.4~5.	연하도고고단, 라오무타이(老姆臺) 발굴
1932	고고학회, 뤼양 한위고성(漢魏古城) 조사
1932	베이징대학, '연구소'는 '연구원'으로, '국학문'은 '문사부'로 재편
1934	연구원 문사부를 '문과연구소'로 개칭, 산하에 '고고학실(考古學室)' 설치 실장: 마형 → 후스(胡適)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⁹⁷ 1928년 제1차 인취 발굴을 주도했던 등취빈 또한 마찬가지로 발굴 프로세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⁹⁸ 금석학에 조예가 깊었던 마형, 그리고 청동기에 관심을 가졌던 룡경과 갑골문에 관심을 보인 등취빈, 모두 고고적 마인드보다는 ‘호고적(好古的)’ 마인드의 발현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929년에 이르러 마형은 푸진룬(傅振倫, 1906~1999)과 함께 옌사두(燕下都)를 조사하기 위해 허베이(河北) 이현(易縣)으로 갔다. 이번에는 단독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닌, 베이핑연구원(北平研究院), ‘고물보관위원회(古物保管委員會)’와 연합으로 ‘연하도고고단(燕下都考古團)’을 꾸렸다. 바로 발굴 시작부터 발견된 유구와 유물의 보호 보관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물보관위원회’는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고고조사와 중국 국내에 횡행하는 문물 절도와 도굴을 저지하여 고적(古跡)과 유물의 파괴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1928년 설립된 기구다. 정부는 여기에 강제력을 더하기 위해 『고물보존법(古物保存法)』과 『고물보존법시행세칙(古物保存法施行細則)』을 제정하였다.⁹⁹

이번 발굴의 계획서¹⁰⁰와 결과보고서¹⁰¹를 보면, 이번 발굴이 비교적 신경

告」, 『北京大學日刊』 1428.

97 查曉英, 2017, 앞의 글, 116쪽.

98 인취의 발굴은 허버드대학에서 고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량쓰용(梁思永)이 참여한 제4차 발굴에 이르러서야 현대 고고학적 성격을 띤 발굴이 진행되었다(김정열, 2020, 앞의 글, 379~380쪽).

99 羅桂環, 「2006, 試論20世紀前期“中央古物保管委員會”的成立及意義」, 『中國科技史雜誌』 2006-2; 鮮喬瑩, 2010, 「中國文物法制化管理的開端—簡析南京國民政府的『古物保存法』」, 『中華文化論壇』 2010-2; 霍雲峰, 2014, 「『古物保存法』立法始末探析」, 『檔案』 2014-4; 張琨, 2023, 「試論民國時期古物保存法規產生之背景」, 『博物院』 2023-4.

100 馬衡, 1930.4.16, 「燕下都考古調查及發掘計劃」, 『北京大學日刊』 2385.

101 常惠, 1930a, 「易縣燕下都故址調查報告」, 『國立北平研究院院務彙報』 1-1, 13~26쪽; 常惠, 1930b, 「易縣燕下都考古團發掘報告」, 『國立北平研究院院務

〈표 4〉 기타 중국 내 주요 발굴 (~1928)

연도	유적	시대	발굴기관	주요 학자
1921	송거록성	송대	베이핑역사박물관	추산위안
1926	시인촌	신석기	칭화대학연구원	리지, 위안푸리

써서 준비된 발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하도고고단’에서 마형은 단장으로, 푸전론과 창후이(常惠), 쑹옌, 멩구이량(孟桂良), 왕칭창(王慶昌), 왕셴장(王憲章) 등이 참여하였다. 발굴에 착수하기 전, 발굴지점인 라오무타이(老姆臺)의 지형을 파악한 후 발굴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발굴을 진행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발굴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유구의 모습은 물론,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출토된 유물은 모두 베이핑 베이하이 단성(北平北海團城)으로 옮겨 보관하였다. 이를 통해 베이징대학교 고고학회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현대적 고고 발굴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중국 내 주요 소규모 발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921년 베이핑역사박물관 추산위안(裘善元, 1890~1944)의 송거록성 발굴은 허베이 쥬루현(鉅鹿縣)에서 발견된 유물이 베이핑시 골동품상점에 등장한 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다. 비록 「거록송대고성발굴기략(鉅鹿宋代古城發掘記略)」¹⁰²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내용이 간략하여 어떠한 프로세스로 발굴을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록 양사오 유적과 같은 해에 발굴이 진행되고 중국인이 주도한 발굴이지만, 중국 고고 발굴의 기점으로 인지되지 못했고, 중국인이 주도한 최초의 고고 발굴로도 기록되지 못하였다.

彙報』1-3, 1~4쪽.

102 「鉅鹿宋代古城發掘記略」, 『國立歷史博物館叢刊』1-1, 1926.

중국인이 주도한 최초의 고고 발굴로 공인되는 것은 바로 1926년 리지가 주도한 산시 사현(夏縣) 시인촌 발굴이다. 1925년부터 1926년 초까지 리지는 산시 일대에 대한 기초 고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반년을 지체하다가 미국 프리어 미술관(Freer Gallery of Art)과 칭화대학의 지원으로¹⁰³ 1926년 10월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추진하게 되었다. 1927년 리지는 칭화대학에 제출한 보고서에¹⁰⁴ 발굴을 하게 된 계기, 발굴 프로세스, 지층, 유구, 유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선명한 도판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체계는 현대 발굴 보고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따라서 이 발굴이 중국인이 주도한 최초의 고고 발굴로 공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리지는 왜 하필 산시 사현 시인촌 발굴을 추진한 것일까? 이에 대해 리지는 산시 서남 편허(汾河) 유역에서 고고조사를 추진한 것은 역사상의 유적을 발견하고자 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로 순릉(舜陵)과 하릉(夏陵)을 발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고 밝혔다.¹⁰⁵ 리지는 필드 고고작업이 일종의 진정한 학술이라 여겼다. 이 ‘진정한 학술’은 철학적 기초와 역사적 근거, 그리고 과학적 훈련과 실제적 설비를 필요로 하는데, 필드 고고학자는 자연과학적 수단을 응용하여 인류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103 1930년, 프리어 미술관은 베이핑여자사범학원(北平女子師範學院), 산시공립도서관(山西公立圖書館)과 연합으로 고고발굴단을 꾸려 산시 완취안(萬泉)의 허우투츠(后土祠)와 징촌(荊村)에서 유적을 발굴하였는데, 당시 발굴 책임자는 웨이취셴이었다. 허우투츠를 발굴하고 증문과 영문으로 편찬한 보고서는 한때 중국 국내의 인사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董光忠 等, 1932, 『山西萬泉縣閻子疙瘡(即漢汾陰后土祠遺址)之發掘』, 太原山西公立圖書館·美國華盛頓福利爾藝術陳列館合刊; 吳鵬程, 2017.9.22, 『記衛聚賢在山西萬泉西杜村漢代遺址的發掘』, 『中國文物報』).

104 이 발굴이 미국 프리어 미술관의 지원을 받은 까닭에 영문과 증문으로 각각 작성되어 영문판은 프리어 미술관에, 증문판은 칭화대학에 제출되었다.

105 李濟 著, 李光謨 譯, 1983, 『山西南部汾河流域考古調查』, 『考古』1983-8, 762~763쪽.

하여 ‘역사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¹⁰⁶ 비록 리지가 미국에서 인류학을 전공하면서 고고학적 지식도 습득했지만, 고고학을 역사학의 부속 학문으로 인식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¹⁰⁷

IV. 맺음말: ‘고고학자’에서 고고학자로

이상으로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중국에 전래된 후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5·4 운동과 신문화운동 이후, ‘민주’와 ‘과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파구립신(破舊立新)’이라는 중국 역사학의 과제를 일신시켜줄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대 속에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말 일부 학교에서 ‘고고학’을 과목 혹은 학과로 설정하기도 했고, 신해혁명 이후에는 ‘고고학’ 과목을 역사학(혹은 국학, 역사지리학) 속에 설치하기도 했으며 베이징대학의 경우 ‘고고학연구실’을 설립하는 등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여러 대학에서 ‘고고학’을 강의한 교원들 가운데, 또 베이징 대학 ‘고고학연구실’에 소속된 여러 ‘고고학자’들 가운데 실제로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정통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이고,

106 李濟, 1936, 『『田野考古報告』編輯大旨』, 『田野考古報告』1,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十三; 張光直 主編, 2006, 『李濟文集』1,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332~333쪽에 수록.

107 이는 중국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1920년대 후반, 구미고고학에서 유행하던 사조가 문화역사 고고학(Culture-historical archaeology)이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고고학을 방대한 역사학에 정합시킨다는 점에서 어쩌면 리지의 이러한 인식이 당시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방법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杜正勝, 1998, 「新史學與中國考古學的發展」, 『文物季刊』1998-1, 40~41쪽).

또 어떤 방법론을 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고 활동을 기록하고, 유적과 유물은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하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질조사소의 ‘고고학자’들은 서구 학자들과 협업하면서 선사고고학을 중국에 연착륙시켰고, 베이징대학 고고학연구소의 ‘고고학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고 발굴 프로세스를 익혀갔다. 미국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리지는 1926년 산시 샹현 시인촌을 발굴하며, 현대적인 고고학 방법론을 응용하여 중국인이 주도한 최초의 고고 발굴로 공인받기는 했지만 고고학을 단독 학문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역사학을 위한 학문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당시 고고학이라는 학문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질학이나 금석학을 전공한 ‘고고학자’들은 부족한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질조사소의 ‘고고학자’였던 위안푸리와페이원중은 서북과학교찰단과 저우커우덴 발굴을 거치면서 중국의 대표적인 선사고고학자가 되었고, 마형은 신징 등지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고고학자’에서, 옌샤두 발굴에서는 현대 고고학을 응용하면서 본격적인 고고학자로의 출발을 알렸으며, 쉬빙창과 룡경, 둥취빈 같은 경우도 현재 중국고고학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고고학자로 성장하였다. 비록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단독 학문으로 인지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당시 고고학에 대학 ‘고고학자’들의 지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中西聞見錄』 23, 同治17年(1874).

『地質全志』, 孫家鼎 序, 1897, 『續西學大成』 6, 上海: 上海飛鴻閣書林印.

康有爲, 『日本書目志』 2冊.

艾約瑟, 1886, 『西學畧述』 권6 「史學」, ‘泰西諸國推埃及最古’, 總稅務司署, 光緒丙戌年.

丁韞良, 1883, 『西學考略』 권上 「法國」, ‘取古跡以證古俗’ 總理衙門, 光緒癸未年.

鳥居邦太郎, 1889, 『日本考古提要』, 東京: 秀英舍.

단행본

陳星燦 著, 조현정 외 옮김, 2011,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1895~1949)』, 고고.

康有爲 著, 上海市文物保管委員會 編, 1986, 『康有爲遺稿·戊戌變法前後』,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董光忠 等, 1932, 『山西萬泉縣閻子疙瘩(即漢汾陰后土祠遺址)之發掘』, 太原山西
公立圖書館·美國華盛頓福利爾藝術陳列館合刊.

浮田和民 著, 李浩生 譯, 1903, 『史學通論』, 杭州: 合衆書局.

濱田耕作 著, 劉劍華 譯, 1931, 『考古學通論』, 上海: 商務印書館.

徐玲, 2009, 『儒學生與中國考古學』,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孫慶偉, 2018, 『鼎宅禹蹟: 夏代信史的考古學重建』, 北京: 三聯書店.

安特生 著, 樂森瑋 譯, 1925, 『甘肅考古記』, 北平: 農商部地質調查所.

梁啓超, 1902, 『新史學』, 林志鈞 序, 1989년판, 『飲冰室合集』 文集9, 北京: 中華書局.

王巍 主編, 2021, 『中國考古學百年史(1921~2021)』,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衛聚賢, 1933, 『中國考古小史』, 上海: 商務印書館.

張光直 主編, 2006, 『李濟文集』 1,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章太炎 著, 王仲榮 等 整理, 1982, 『章太炎全集』 1,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朱有瓛 編, 1992, 『中國近代學制史料』 3-下,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濱田耕作, 1922, 『通論考古學』, 東京: 大鐙閣.

논문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중국 증사주의적 고고학의 성립-」, 『승실사학』.

심재훈, 2023, 「중국 고대문명 연구 100년: 쟁점과 전망」, 『승실사학』 50.

이기성, 2024, 「중국 고고학 성립기 일본인의 중국 조사」, 『동북아역사논총』 83.

지관순, 2014, 「辛亥革命期 王國維의 史學研究」, 『중국근현대사연구』 61.

「鉅鹿宋代古城發掘記略」, 『國立歷史博物館叢刊』 1-1, 1926.

顧頡剛·容庚, 1924.3.25, 「研究所國學門調查西山陸謨克學院發見建築物報告」, 『北京大學日刊』 1428.

郭沫若, 1963, 「序」, 馬衡 遺著, 1977, 『凡將齋金石叢稿』, 北京: 中華書局.

霍雲峰, 2014, 「『古物保存法』立法始末探析」, 『檔案』 2014-4.

金淑蘭·段海龍, 2014, 「『中西聞見錄』編者與作者述略」, 『內蒙古師範大學學報(自然科學漢文版)』 2014-6.

羅桂環, 2006, 「試論20世紀前期“中央古物保管委員會”的成立及意義」, 『中國科技史雜誌』 2006-2.

杜正勝, 1998, 「新史學與中國考古學的發展」, 『文物季刊』 1998-1.

馬衡, 1919.1.11., 1919.1.13., 「通史材料徵集議」, 『北京大學日刊』 284·285.

_____, 1923.10.12, 「馬衡教授調查河南新出古物報告書」, 『北京大學日刊』 1312.

_____, 1923.10.12, 「調查河南孟津縣出土古器物報告書」, 『北京大學日刊』 1312.

_____, 1924a, 「新鄭古物出土調查記」, 『東方雜誌』 20-2.

_____, 1924b, 「洛陽訪古日記」, 『國立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報告』, 北京: 國立北京大學研究所.

_____, 1930.4.16, 「燕下都考古調查及發掘計劃」, 『北京大學日刊』 2385.

_____, 1931, 「中國金石學概要上」, 馬衡 遺著, 1977, 『凡將齋金石叢稿』, 北京: 中華書局.

-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22, 『北京大學考古百年(1922~2022)』, 北京: 文物出版社.
- 房鑫亮, 2015, 「馬衡·王國維對金石學的卓越貢獻」, 『探索與爭鳴』2015-12.
- 裴文中, 1930, 「中國猿人化石之發見」, 『科學』14-8, 南京: 中國科學社.
- 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 1922.3.6, 「張鳳先生與沈兼士先生書」, 『北京大學日刊』974.
- _____, 1923, 「國立北京大學研究所國學門重要紀事」, 『國學季刊』1-3.
- _____, 1924.6.12, 「研究所國學門考古學會開會紀事」, 『北京大學日刊』1482.
- 史正浩, 2013, 「宋代金石圖譜的興起·演進與藝術影響」, 南京藝術學院博士學位論文.
- 查曉英, 2006, 「地質學與現代考古學知識在中國的傳播」, 『歷史研究』2006-4.
- 常惠, 1930a, 「易縣燕下都故址調查報告」, 『國立北平研究院院務彙報』1-1, 1930.
- _____, 1930b, 「易縣燕下都考古團發掘報告」, 『國立北平研究院院務彙報』1-3, 1930.
- 鮮喬蓋, 2010, 「中國文物法制化管理的開端—簡析南京國民政府的『古物保存法』」, 『中華文化論壇』2010-2.
- 沈兼士, 1922, 「整理國故的幾個題目」, 『北京大學日刊』961, 1922-2-18.
- 沈頌金, 2000, 「傳統金石學向近代考古學的轉變—以馬衡為中心的考察」, 『學習與探索』2000-4.
- 艾素珍, 1998, 「清代出版的地質學譯著及特點」, 『中國科技史料』1998-1.
- 梁啟超, 1897, 「變法通議·論譯書」, 林志鈞 序, 1989년판, 『飲冰室合集』文集1, 北京: 中華書局.
- _____, 1931, 「中國考古學之過去及將來」, 衛聚賢, 1933, 『中國考古小史』, 上海: 商務印書館, 1933.
- 吳鵬程, 2017.9.22, 「記衛聚賢在山西萬泉西杜村漢代遺址的發掘」, 『中國文物報』.
- 王凱, 2016, 「清末國粹運動研究」,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王國維, 1926, 「宋代之金石學」, 傅傑 編校, 1997, 『王國維論學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新春, 2008, 「中國西北科學考察團考古學史研究」, 蘭州大學博士學位論文.
- 劉強, 2022, 「百年中國考古始自地質學家—中國地質調查所與仰韶文化發現的關

- 係], 『鑛物巖石地區化學通報』 2022-2.
- 李木元·周佳佳, 2021.10.22, 「爲什麼說說中國現代考古學從仰韶文化開始?」, 『人民政協報』.
- 李濟, 1931, 「李序」, 衛聚賢, 1933, 『中國考古小史』, 上海: 商務印書館.
- _____, 1936, 「『田野考古報告』編輯大旨」, 『田野考古報告』 1,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十三.
- _____, 1961, 「我與中國的考古工作」, 『李濟與清華』,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1994.
- 李濟 著, 李光謨 譯, 1983, 「山西南部汾河流域考古調查」, 『考古』 1983-8.
- 李濟 著, 趙敏生 譯, 1994, 「新鄭的骨」, 『李濟與清華』,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李孝遷, 2011, 「西方考古學“三期論”傳入考」, 『學術研究』 2011-2.
- _____, 2004, 「巴克爾及其『英國文化史』在中國的傳播和影響」, 『史學月刊』 2004-8.
- 張琨, 2023, 「試論民國時期古物保存法規產生之背景」, 『博物院』 2023-4.
- 朱希祖, 1923, 「文字學上之中國人種觀察」, 俞大維 題, 1979, 『朱希祖先生文集』, 臺北: 九思出版有限公司, 1979년판.
- 陳彩彩, 2017, 「中國近現代考古教育史初步研究」, 河南大學碩士學位論文.
- 賀雲翱, 2020, 「中國近代考古學的起點在哪裏?」, 『大眾考古』 2020-5.

Amelung, Iwo, 2004, “Naming Physics, The Strife to Delineate a Field of Modern Science in Late Imperial China,” in: Lackner, Michael, Vittinghoff, Natascha (eds.), *Mapping Meanings: Translating Western Knowledge into Late Imperial China*, Leiden: Brill.

기타 자료

- 『商務書館英華字典』, 1913년판, <https://mhdb.mh.sinica.edu.tw/dictionary/search.php?searchStr=%E8%80%83%E5%8F%A4&titleOnlyBtn=true>(검색일: 2023.8.17.)
- <https://mhdb.mh.sinica.edu.tw/dictionary/image.php?book=1866&page=79>(검색일: 2023.8.17.)
- 「习近平致信祝贺仰韶文化发现和中国现代考古学诞生100周年」, 『新華社』, 2021-

10-17, <https://mp.weixin.qq.com/s/33mk3P3cCg4Ez9vuSki4mw>(검색일: 2023.8.17.)

「歷史沿革」,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22-4, <https://archaeology.pku.edu.cn/xygk1/lsyg.htm>(검색일: 2024.1.10.)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고고학 인식과 활동

이유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중국에 전래된 후, 많은 사람들이 고고학에 관심을 보였다. 청말 일부 학교에서 ‘고고학’을 과목 혹은 학과로 설치하기도 했고, 신해혁명 이후에는 ‘고고학’ 과목을 역사학 전공(혹은 관련 전공) 속에 설치하였으며, 베이징대학 같은 경우 ‘고고학연구실’을 설립하는 등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1920년대 중후반, 리지와 량쓰용이 서양에서 귀국하기 전까지 활동하던 ‘고고학자’들은 대부분 금석학이나 지질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학에서 ‘고고학’을 강의하고, 고고조사(심지어 발굴까지)를 추진하였다. 이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적 필요성을 인지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비록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었지만, 고고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본격적인 인쉬 발굴로 이어졌고, 중국 고고학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주제어: 고고학, 금석학, 지질학, 마형, 나진옥, 왕국유, 배문중, 원복례

ABSTRACT

A Research on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Early “Archaeologists”

Lee Youpyo

After the discipline of archaeology was introduced to China, many people were interested in archaeology. In the late Qing Dynasty, some schools established “archaeology” as a subject or department, and after the Xinhai Revolution, “archaeology” was included in history majors (or related majors), and some universities, such as Peking University, established “The Archaeology Research Department” to promote archaeology as a discipline in earnest.

However, in the mid-to-late 1920s, before Li Ji and Liang Si-yong returned from the West, the active “archaeologists” were mostly people who had studied epigraphy or geology. They taught “archaeology” at universities and conducted archaeological surveys (and even excavations). This was the best option for a country that recognized the need for archaeology as a discipline, but lacked specialized personnel. Although trial and error was inevitable, their interest and efforts in archaeology led to the full-scale excavation of YinXu and laid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nese archaeology.

Keywords: Archaeology, Epigraphy, Geology, Maheng, Luozhenyu, Wangguowei, Peiwenzhong, Yuan Fuli



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

김정열 | 송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고고학 수용 전야
- III. 학문적 성장과 그 배경
- IV. 학술활동의 전개
- V. 학문적 지향
- VI.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고고학에는 독특한 지향성이 있다. 고고학을 역사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취급하며, 그 학문적 목적을 실물자료를 통해 역사의 복원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 유물과 유적의 형식학적 연구와 편년을 중시하는 강력한 실증주의 전통을 견지하는 한편 이론적 모색은 보기 드물다는 것, 중국문명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세계사적 시야에 위치시키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런 경향성 가운데 어떤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관찰되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중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의 고고학은 그 발전 과정에서 물질문화를 통해 인류 문명의 발전 맥락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중국의 고고학은 유물과 유적 자체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면서도, 강력한 역사지향성과 함께 자국 문명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선양하는 데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은 사실 고고학이 중국에 이식되었을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배태되었다. 새로운 자국사, 즉 국사(國史)의 구축과 중국문명의 기원 해명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그들에게 특히 중요한 문제였다.¹ 이 과제를 짊어지게 된 주역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인물들은 대개 외국 유학생을 통해 고고학을 직·간접적으로 전공한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전통체제하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으며 서구에서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접촉하고 그것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 투고: 2024년 1월 6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 -2023-기획연구-19)로 수행된 연구임.

1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중국 증사주의 고고학의 성립-」, 『崇實史學』 45, 367~387쪽.

중국 내의 고고학 연구 기구를 정비하고 교육체제를 수립하였으며 고고학의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설정하여 향후 중국 고고학의 발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²

이 글은 바로 중국에 고고학이 도입되었던 초기기에, 유학 생활을 통해 서구의 근대고고학을 학습하고 중국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학문외적으로 고고학 연구를 선도하여 그 학문적 전통과 위상을 정립한 대표적인 연구자요 행정가였던 리지(李濟, 1896~1979), 량쓰용(梁思永, 1904~1954), 샤나이(夏鼐, 1910~1985) 등의 연구·조사 성과와 그 배경에 자리한 연구목표 및 지향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이 함께 재직했던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 이하 '사어소')의 명칭을 따서 구축한 중국 고고학의 전통, 즉 '사어소전통'³은, 쑤빙치(蘇秉琦)를 대표로 하는 이론지향적 마르크스주의 고고학, 즉 '중국학파'의 영향력이 점차 퇴조하는 지금 다시 중국 고고학의 주류로 회귀하고 있다.⁴ 따라서 리지 등을 비롯한 서구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을 살펴보는 이 글은 최근 중국 고고학의 지향점과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역사적 안위를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2 徐玲, 2009, 『留學生與中國考古學』, 南開大學出版社.

3 陳洪波, 2011, 『中國科學考古學的興起-1928-1949年歷史語言研究所考古史』,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18쪽.

4 張麗梅·吳鴻保, 2015, 「“疑古時代”“李濟時代”與中國考古學的學派問題-以顧頡剛, 李濟和蘇秉琦爲中心的討論」, 『社會科學論壇』 2015(5), 179~189쪽; 湯惠生, 2017, 「夏鼐, 蘇秉琦考古學不同取向辨析」, 『中國社會科學』 2017(6), 165~186쪽.

II. 고고학 수용 전야

중국 고고학의 발전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경향성은 무엇보다 중국에서 고고학이 수용되기 시작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고학은 19세기 이래 서양에서 출현한 근대학문의 한 분과이다. 그것이 중국에 처음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엽부터의 일이며, 1920년경부터 빠른 속도로 중국에 정착되기 시작했다.⁵ 이 시기는 전통체제가 급속하게 붕괴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 급속하게 성장한 때였다.

1919년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의 과거가 철저히 부정되고 민주주의와 과학에 바탕을 둔 사회개혁운동, 즉 신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학술은 몰락하고, 고고학을 포함한 서양 근대학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⁶ 신문화운동은 중국학계에 ‘파구립신(破舊立新)’의 풍조를 불러일으켰다. 구제강(顧頡剛, 1893~1980)은 1923년 『독서잡지(讀書雜誌)』에 「첸쉬안통 선생에게 드리는 고사를 논의하는 편지(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를 발표하여 이른바 ‘누층적으로 만들어진 고사설(累層造成古史說)’을 제기했다. 구제강은 문헌 기록 속의 수많은 고사는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전통적인 고사체계를 흔들었다.⁷ 즉 구제강을 대표로 하는 의고파(疑古派)는 전통 지식체계 속 고사(古史)의 진실성을 의심하고, 고적(古籍)과 고사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고증을 통해,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이 신뢰해온 유가의 경전과 공자의 학설을 비판하고, 나아가 삼황오제(三皇五帝)와 우탕문무(禹湯文武)를 축선으로 하는 전통적인 상고사 체계를 파괴했다.⁸

그렇다고 해도 이 의고변위(疑古辨僞)를 통한 ‘파괴’는 전통적 상고사 체제

5 陳星燦, 1997,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 1895~1949』, 三聯書店, 29~75쪽; 陳洪波, 2011, 앞의 책, 47~85쪽.

6 夏鼐, 1979, 「五四運動和中國近代考古學的興起」, 『考古』 1979(3), 193~196쪽.

7 顧湖, 1993, 「顧頡剛與傅斯年在青年時代的交往」, 『文史哲』 1993(2), 15쪽.

8 張書學, 1994, 「顧頡剛與傅斯年治學異同論」, 『東嶽論叢』 1994(1), 80~81쪽.

를 부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구제강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이 설사 위사(僞史)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진사(眞史)를 건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전통적 상고사 체계를 파괴한 것은 결국 “파괴 후에 새로운 건설을 할 수 있도록”⁹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중국 고대사의 체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고 했을 때, 고고학은 실물자료를 중시하는 자료의 동시성과 실증주의 그리고 현장에서 자료를 획득하는 진보적 연구방식을 통해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리쉬안보(李玄伯)의 다음 언설에서 그와 같은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록이 우리에게 원만한 해답을 줄 수 없는 마당에, 우리는 두 번째의 자료, 즉 고인이 직접 남겨놓은 작품(作品)에 물을 수밖에 없다. 직접 남겨놓은 작품은 고인(古人)에게서 직접 나온 것이다. 고인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결손되거나 파괴된 것 이외에는 우리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의 가치는 잘못 베끼거나 위작난진(僞作亂眞)한 기록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고사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고고학이다.¹⁰

구제강은 이것을 “나의 일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고고학자를 대신하여 청소하기를 바라는 것으로서 그들의 새로운 체계가 옛 체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¹¹이라 말했다. 의고파에 대해 자못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리지조차도 의고파가 중국 고고학의 탄생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¹²

9 顧頡剛, 1982(1926), 「自序」, 『古史辨』第1冊, 上海古籍出版社, 50쪽.

10 李玄伯, 1982(1926), 「古史問題的唯一解決方法」, 『古史辨』第1冊, 上海古籍出版社, 269~270쪽.

11 顧頡剛, 1982(1926), 「自序」, 『古史辨』第2冊, 上海古籍出版社, 4쪽.

12 李銳, 2009, 「疑古與重建的糾葛—從顧頡剛, 傅斯年等對三代以前古史的態度

20세기 초기에 출현한 민족주의는 중국 고고학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촉진 요인이다. 유사 이래 중국이 광범위한 하나의 정체(整體)임을 강조하는 민족시대의 정치적 분위기 아래에서 중국의 많은 지식인은 민족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량치차오는 신사학(新史學)을 제창하여 새로운 중국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인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¹³ 이에 따라 공동체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중국문명’의 기원을 찾는 일은 그들의 지식이 추구하는 하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기 시작했다.

이때에 중국에는 일본과 서양의 학자들에 의해 야외고고학이 도입되었다. 일찍이 1895년 도리어 류조(鳥居龍藏)는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서 선사시대와 한대(漢代)의 유적을 조사했다. 서양의 학자로는 닝샤(寧夏)와 내몽골, 산시성(山西省) 북부 등지에서 구석기시대 유적을 조사한 리상(E. Licent, 1876~1952)과 샤르탱(Pierre Teilhard de Chardin, 1881~1955), 베이징 저우커우톈(周口店) 호모에릭투스 유적을 조사한 츠단스키, 블랙, 바이덴라이히, 1921년 허난성 양사오촌의 신석기시대 유적을 발굴한 안데르손(J. G. Andersson, 1874~1960)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안데르손의 발굴은 이제 막 중국인의 시야에 포착되기 시작한 중국의 선사시대라는 영역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크게 주목되었다. 안데르손의 활약은 신문화운동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국 지성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그의 발굴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낳았다. 안데르손은 양사오촌의 물질문화는 한족(漢族)의 것이라 하면서도, 그곳에서 발견된 토기(彩陶)는 서방에서 전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중국 선사문명의 기원지가 ‘서방’이었다는 논리로 이어졌고, 중국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크게 손상시켰다.

看上古史重建」, 『清華大學學報』 2009(1), 102쪽.

13 허중, 2005, 「梁啓超의 ‘新史學’과 近代國家論」, 『역사와 경계』 54, 71~102쪽; 喬志航, 2007, 「中國における「新史學」の形成と近代」,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52, 173~192쪽.

Ⅲ. 학문적 성장과 그 배경

중국의 근대고고학은 서양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1920년대에 중국과 외국 연구자들이 공동 조사하는 단계를 거쳐 193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중국 연구자들이 독자적으로 야외발굴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이와 같은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일군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¹⁴ 이들은 중국에서 학문적 기초를 닦았고 외국에 유학하는 과정에서 가정·사회 환경은 물론 주변 인물 또는 그들의 교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향후 이들이 전개할 학술활동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

리지는 1896년 후베이성(湖北省) 중상현(鐘祥縣)의 문인가(文人)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임관(任官)함에 따라 베이징으로 이주했다. 1911년 칭화학당(淸華學堂) 유미예비반(留美豫備班)에 진학하여 1918년 졸업했다. 졸업 후 미국 메사추세츠에 위치한 클라크대학에 진학하여 심리학과 인류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나중에는 인류학에 흥미를 느껴 1920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 진학하여 체질인류학을 전공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아직 인류학이 성행하지 않았다. 하버드대학조차 인류학 전공이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체질인류학과 문화인류학 등의 세부전공도 아직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던 때였다. 당시 하버드대학 인류학과에서 정식으로 강좌를 개설한 것은 어네스트 후턴(E. Hooton, 1887~1954)과 롤랜드 디슨(R. Dixon, 1875~1934) 등 2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리지는 오히려 인류학 이외에도 언어학과 고고학 등 다양한 과목을 섭렵할 수 있었다. 리지의 수강 과목 목록을 보면 선사고고학, 이집트고고학 또는 그리스고고학 등 다양한 고고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리지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이때부터 고고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디슨의 지도하에서 연구를 이어간 리지는

14 徐玲, 2009, 앞의 책, 73쪽.

1923년 『중국민족의 형성(中國民族的形成, *The Formation of Chinese people: an Anthropological Inquiry*)』으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¹⁵

이 논문은 1928년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리지의 구상은 중국인의 두뇌를 측정해서 세계 각지 인류의 두뇌와 비교함으로써 중국인이 속한 인종이 자연진화상에 처한 위치를 찾는 것이었다.¹⁶ 그의 말에 의하면, 이 논문은 시작 단계에서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인류 체질 측량 방법을 이용해서 케임브리지 보스턴 등지의 중국 학생과 화교(華僑)의 체질을 측량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었다.¹⁷ 111명의 체질측량을 진행하고 그때까지 있었던 중국인의 체질을 측량한 다른 자료를 분석한 후, 리지는 중국인은 줄곧 순일한 종족이라고 여겨져왔지만 현대 중국인의 체질 특징은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리지는 이와 같은 복잡성의 형성과정을 탐구해보기 위해 다른 자료들도 찾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성곽 축조에 관한 역사기록으로, 이것은 중국 역사상 인구 규모 변화의 지수로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족보에 기록된 중국인 성씨의 기원인데, 이것은 북방 부락이 점차 중국에 융화된 것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1500년 동안 중국의 인구자료와 각종 역사기록에 대한 연구를 참조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얻은 그의 결론은 현대 중국인을 구성하는 것은 5개의 대민족 단위와 4개의 소민족 단위라는 것이었다.¹⁸

량쓰용은 유학을 통해 정식으로 고고학 훈련을 받은 최초의 중국인이다. 그는 1904년 마카오에서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의 둘째 아들로 태어

15 徐玲, 2009, 위의 책, 78~81쪽.

16 李光謨, 2004, 「從一份自撰簡曆說起」, 『從清華院到史語所-李濟治學生涯瑣記』, 清華大學出版社, 14쪽.

17 李濟, 2006, 「我在美國的大學生活」, 『李濟文集』 5, 上海人民出版社, 193~204쪽.

18 원래 영문으로 쓰여진 논문으로 *Harvard Graduates Magazine*, 31, 1923, pp. 346~351에 게재되었다. 본문에서는 증문본을 참고했다. 李濟, 1990, 「中國의若干人類學問題」, 張光直·李光謨 편, 『李濟考古學論文選集』, 文物出版社, 5~8쪽.

났다.¹⁹ 어린 시절에는 망명 중인 아버지를 따라 일본에 머물렀으며, 1912년이 되어서야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엄격한 국학(國學) 기초교육을 받았다.²⁰ 그가 고고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 또한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량치차오는 고고학 발굴이 중국에서 시작될 무렵 중국 내의 모든 발굴이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이 중국인으로서 고고학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했다.²¹ 량쓰용은 1915년 칭화학당 유미예비반(留美豫備班)에 입학하여 1923년 졸업한 후 바로 그해에 하버드대학에 입학하여 고고학과 인류학을 전공한 뒤 1930년에 석사학위를 받았다.²²

유학 기간 량쓰용의 지도교수는 공교롭게도 리지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던 덕슨이었다. 그러나 그의 전공은 리지와는 달리 고고학이었기 때문에 고고학에 관해 보다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량쓰용은 하버드에 재학할 때 야외 고고학 세미나를 이수했고, 1927년에는 미국의 서남부로 가서 마야고고학의 신성(新星) 키더(Alfred V. Kidder, 1885~1963)가 주관하는 페코스(Pecos) 인디언 고대 유적 발굴에 참가하기도 했다.²³ 키더는 당시까지 학계의 주류를 점하고 있던 수평층위발굴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층의 자연변화에 입각한 발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자였다. 1931년 량쓰용이 은허(殷墟) 제5차 발굴에서 허우강(後崗) 유적의 자연층위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저 유명한 ‘후강삼첩

19 량쓰용의 생애와 주요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黃增章, 1998, 「我國考古學先驅梁思永」, 『廣東史志』 1998(4), 49~52쪽; 安志敏, 2000, 「中國近代考古學的先驅-梁思永先生」, 『考古』 2000(7), 91~94쪽; 王世民, 2017, 「梁思永的生平及其學術貢獻」, 『考古學史與商周銅器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19~121쪽 등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20 黃增章, 1998, 위의 글, 49~52쪽.

21 莊向陽, 2011, 「梁思永: 多有開創的“天才考古學家”」, 『雲南教育(視界綜合版)』 2011(4), 36쪽.

22 徐玲, 2009, 앞의 책, 81쪽.

23 陳洪波, 2011, 앞의 책, 166쪽.

층(後岡三疊層)', 즉 중복된 3개의 문화층 퇴적을 식별해낼 수 있었던 것이나, 다양한 유적의 발굴 과정에서 토기편(片) 수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토기를 가장 중요한 편년기준으로 활용한 것은 미국 고고학, 특히 그의 스승인 키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²⁴

1927년 잠시 유학생생활을 중지하고 귀국한 량쓰용은 부친 량치차오의 주선으로 금석학(金石學)에 관한 훈련을 받았으며, 1926년에 리지가 발굴했던 시인촌(西陰村) 유적 제4탐방(探方, 그리드)에서 출토된 토기편(片)을 정리했다. 1928년 하버드로 돌아간 량쓰용은 이 시인촌의 출토자료로 『산시 시민촌 선사 유적의 신석기시대 토기(山西西陰村史前遺址的新石器時代的陶器)』를 완성하고, 이 논문으로 1930년 석사학위를 받았다.²⁵ 이 논문은 중국의 연구자가 처음으로 양사오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글이다. 량쓰용은 고고학으로 학위를 받은 최초의 중국 유학생이었다. 1926년 리지가 한 강연에서 자신은 고고학 전공 출신이 아니며(半路出家) 량쓰용이야말로 중국 고고학의 첫 번째 사람(第一人)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²⁶

량쓰용이 미국에서 선사고고학을 전공했다면 샤나이는 영국에서 역사고고학을 수학했다. 샤나이는 1910년 저장성(浙江省) 원저우(溫州)에서 부유한 비단상인 집안에서 출생했다. 네 살이 되던 때부터 가족(家塾)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1930년 상하이 광화대학(光華大學) 고중부(高中部)를 졸업한 후 베이징에 위치한 연징대학(燕京大學) 사회학계에 진학했다. 그러나 연징대학의 사회학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사회복지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둔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샤나이는 이에 실망하였다고 한다. 샤나이는 이로 인해 이듬해 칭화대학 역사학계로 적을 옮겼다. 칭화대학 재학 시절에는 다방면에 재능을 보였지만 특히

24 陳星燦, 1997, 앞의 책, 238쪽.

25 1954년 사망한 이후 편집된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1959, 『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1~49쪽에서 中文本을 볼 수 있다.

26 徐玲, 2009, 앞의 책, 81~82쪽.

중국 근현대사에 큰 관심을 가졌고 『태평천국 전후 장강 유역의 토지세 문제(太平天國前後之長江流域田賦問題)』를 학부 졸업논문으로 제출했다.²⁷

1934년 졸업과 함께 유학을 결심한 샤나이는 바로 그해에 칭화대학 제2기 공비류미생(公費留美生) 모집에 고고학 분야로 응시하여 선발되었다. 본래는 중국 근대경제사를 공부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연도에는 경제사 분야의 유학생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고고학 분야에 응시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샤나이는 인생행로에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학생으로 선발된 샤나이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출발 이전에 현장실습을 마쳐야 했다. 칭화대학은 푸쓰넨과 리지를 샤나이의 지도교수로 지정하고 샤나이의 유학준비를 지도하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샤나이는 1935년 안양(安陽)에 가서 은허 제11차 발굴에 잠시 참여하였는데, 리지는 그때 은허에서 발굴을 주관하고 있던 량쓰용에게 샤나이의 현장실습을 지도하게 했다.

샤나이는 현장실습을 마친 다음, 같은 해 9월 영국 런던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랐다.²⁸ 그가 런던대학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예술연구소의 예츠(W. P. Yetts, 1878~1957)를 지도교수로 하여 중국고고학을 수학하려 했다. 그러나 샤나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츠가 중국에 대해 가진 지식이 생각만큼 많지 않고 발굴 실무에도 밝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의 문하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샤나이는 에딘버러대학으로 학적을 옮겨 고든 차일드(V. G. Childe, 1892~1957)에게 근동고고

27 샤나이의 생애, 수학 과정 및 학문적 성장에 대해서는 王仲殊·王世民, 2000, 「夏鼐先生的治學之路-紀念夏鼐先生誕生90周年」, 『考古』 2000(3), 81~93쪽; 王世民, 2017, 「爲中國考古學發展引航掌舵」, 『考古學史與商周銅器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55~189쪽; 項隆元, 2021, 「夏鼐的考古學成就」, 『浙江學人與中國近代考古學』, 浙江大學出版社, 214~257쪽이 비교적 상세하다. 이 밖에 2011년 출판된 『夏鼐日記』(10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는 1931년 1월 1일부터 1985년 6월 17일까지 샤나이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중국 고고학사 나아가서는 중국 현대 학술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일기를 주요 자료로 하여 샤나이의 학문적 경력을 정리한 宋廣波, 2011, 「從《日記》看夏鼐的學術人生」, 『中國文化』 34, 147~164쪽도 유용하다.

28 徐玲, 2009, 앞의 책, 83~88쪽; 陳洪波, 2011, 앞의 책, 254쪽.

학을 수학하거나 런던대학에 그대로 남아 이집트고고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 이 가운데서 그가 최종 선택한 것은 후자였다. 그것은 사나이가 유학을 떠날 때 푸스넨과 리지가 그에게 역사고고학을 수학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²⁹ 당시 중국 고고학계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현장경험과 발굴 실무이며, 이 분야에서 최고 수준인 것은 역시 런던대학, 특히 그중에서도 이집트고고학이라는 사나이의 판단 때문이었다.³⁰

사나이는 당시 칭화대학의 교장인 메이이치(梅貽琦)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래의 중국고고학은 반드시 이집트고고학의 규모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고고학계에 반드시 이집트고고학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야만 그 발굴기술과 연구방법을 풍부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³¹ 뿐만 아니라 당시 런던대학에는 예츠 이외에도 페트리(W. F. Petrie, 1853~1942), 휠러(M. Wheeler, 1890~1976), 글랜빌(S. Glanville, 1890~1977), 가에디너(A. H. Gaediner, 1879~1963) 등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운집해 있었고, 이곳에서 진행된 교육과 연구는 당시 고고학이 다루었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³² 사나이가 유학 첫해에 수강한 강좌만 해도, 중국 청동기, 도자(Pottery and Porcelain), 고고유적 발굴과 실내정리(Field and Laboratory Treatment of Archaeological Remains), 측량학, 체질인류학, 광물학, 박물관고고학, 발굴의 목적과 방법(Aims and Methods of Archaeological Field Work), 고고작도(Archaeological Draftsmanship), 청동기 주조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다.³³

실제로 재학기간 중 사나이는 풍부한 발굴조사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는 1936년 휠러가 주관한 맨체스터 메이든 성(Maiden Castle) 발굴에 6주 동안 참

29 王世民, 2017, 「傅斯年與夏鼐」, 『考古學史與商周銅器研究』, 190~198쪽.

30 宋廣波, 2011, 앞의 글, 149~150쪽.

31 王世民, 2002, 「夏鼐陳請梅貽琦校長准予延長留學年限的信函」,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쪽.

32 徐玲, 2009, 앞의 책, 85~86쪽.

33 王世民, 2002, 앞의 글, 1~5쪽.

여하였으며, 1937년 말에는 이집트로 가서 4개월에 걸쳐 알만트(Armant) 유적과 두웰(Tell Duweir) 유적 발굴에 참가했다. 1936년 그의 지도교수인 그랜빌이 런던대학 고고학원 원장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가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서 쌓은 경력을 보았을 때, 나는 그가 다양한 유형의 유적에 대한 발굴기술에 두루 능통하며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일단 중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곧 저명한 고고학자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 나는 그가 훌륭한, 근면한 그리고 믿을 만한 학생이라 생각합니다.³⁴

발굴을 마치고 런던으로 되돌아 온 샤나이는 이집트 발굴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랜빌의 지도하에 이집트 고대의 각종 구슬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더 이상 런던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없었던 샤나이는 영국을 떠나 이집트로 갔다. 그는 카이로박물관에서 약 1년 동안 연구를 이어가면서 학위논문의 초고를 완성했다. 1940년 12월 귀국한 샤나이는 1943년 그의 학위논문 「고대 이집트 구슬(古代埃及串珠)」을 최종 완성하고, 1946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비로소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³⁵

34 Edward Field & Wang Tao, 1997, "Xia Nai: the London connection", *Orientations*, 28(6). 徐玲, 2009, 앞의 책, 87쪽에서 재인용.

35 宋廣波, 2011, 앞의 글, 150쪽.

IV. 학술활동의 전개

1. 푸쓰넨(傅斯年)과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

푸쓰넨은 1896년 산둥성 랴오청현(聊城縣)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중국의 고전을 학습하여 한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 1913년 베이징대학의 예과(豫科) 을부(乙部)에 입학하였고, 1916년에는 같은 대학의 본과(本科) 국학문(國學門)에 진학하여 1919년에 졸업했다. 재학 시절 그는 베이징대학 학생들의 정신적 영수(領袖)였으며, 신문화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오사운동 직후 푸쓰넨은 산둥성 관비(官費)유학생으로 선발되어 1920년 1월 영국의 런던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그는 실험심리학과 물리, 화학, 고등수학 등의 자연과학 교과를 두루 수강했다. 푸쓰넨은 3년간 영국에 체류한 다음 독일 베를린대학으로 적을 옮겨 비교언어학, 상대성이론 등을 학습했다.

그렇지만 푸쓰넨은 두 대학 어느 곳에서도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다. 문과 출신이었음에도 자연과학에 심취하는 특이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본래 가지고 있었던 탄탄한 한학의 기초에, 다년에 걸친 해외 유학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서방의 문화에 두루 밝았으며 서방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서도 익숙했다. 1926년 유학을 마친 그는 1927년 난징정부(南京政府) 수립 이후 국가학술기구인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이 설치되자 즉각 원장 차이위안페이(蔡元培)에게 그 산하에 역사학, 언어학, 고고학 등을 다루는 기구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 제의가 수용되어 1928년 10월에 광저우(廣州)에서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어언연구소(이하 '사어소')가 창설되었다. 푸쓰넨은 개소(開所)를 준비하던 1928년 5월부터 이미 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연구소의 창설 작업을 지휘하고, 1929년에는 정식으로 사어소 소장에 임명되었다.³⁶

푸쓰넨이 사어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과업은 창설에 즈음하여 발표한 「역

36 陳洪波, 2011, 앞의 책, 94~95쪽.

사어언연구소 사업의 취지(歷史語言研究所工作之旨趣)」에서 이렇게 천명되었다.

역사학과 언어학은 유럽에서 근래에 발전했다. 역사학은 역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대·중세적인 의미를 가지며, 윤리가의 수단을 취하거나 문장가의 수완이 필요하다. 근대의 역사학은 단지 사료학(史料學)일 뿐이다.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일체(一切)의 도구를 이용하여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사학이 도달하는 범위는 지질학에서부터 눈앞의 신문지(紙)까지 이르며, 사학 이외의 다윈 진화론은 바로 역사 방법의 집대성(大成)이다. … 우리는 조화로운 해석(疏通)에 반대한다. 우리가 자료를 잘 정리하기만 하면 사실(史實)은 자연스럽게 분명해진다. 재료 하나에 물건 하나, 재료 옆에 물건 옆, 재료가 없으면 물건도 없다. 두 가지의 사실 사이에 큰 간극(間隙)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간극을) 연결시키려는 모든 생각은 당연히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만, 추론은 위험한 일이며 가설은 아마도 성실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 요컨대, 우리는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다. 위로는 하늘까지 아래로는 황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물건(자료)을 찾는다.³⁷

이 선언을 보면 푸쓰넨이 관심을 가진 것은 사료의 수집이요, 역사를 저술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푸쓰넨은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역사를 중건하기 위한 급선무라고 생각했으며, 이 자체가 그의 사론(史論)이기도 했다.³⁸

대개 푸쓰넨의 학술사상의 연원은 독일 실증주의 역사학에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위 인용문에 보이는 것처럼 “역사학은 단지 사료학일 뿐”이라거나

37 傅斯年, 2000, 「歷史語言研究所工作之旨趣」,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3, 湖南教育出版社, 3~12쪽.

38 杜正勝, 1995, 「從疑古到重建」, 『中國文化』 12, 232~234쪽.

“우리가 자료를 잘 정리하기만 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분명해진다”는 말에는 랑케의 그림자가 보인다.³⁹ 그렇지만 프랑스 파리학파⁴⁰나 그를 포괄하는 유럽 동방어문학(Oriental Philology)의 영향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문헌의 진위 및 그 고증에 대한 의의에서 출발하여 여러 학문과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고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⁴¹ 실제 푸쓰넨은 당시 페리오(Paul Pelliot, 1878~1945)를 영수로 하는 파리학파⁴²를 연구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도 있다.

오늘날 학술의 진보는 국제간 협력의 영향과 경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모든 학문이 그렇다. 한학(漢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사학(文史學)의 커다란 발전을 원한다면 외국인에게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서 따라잡아야 하며, 서방 한학의 장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절대로 자평(自貶)이 아니며 자광(自廣)이다. 근 20여 년 동안 일본의 동방학이 진보한 것은 대체로 파리학파를 배웠기 때문이다.⁴³

그러나 푸쓰넨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데에는 후스(胡適)나 구제강(顧頡剛)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후스는 푸쓰넨의 대학 재학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스승이다. 후스는 서양의 과학만이 중국의 정치, 도덕, 학술, 사상에 만연한 암흑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면서도, 신문화운동 이래 이른바 ‘전통’으로 추상화되어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된 중국의 역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가 제창한 중국 과거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재정리하

39 張書學, 1994, 앞의 글, 76~77쪽.

40 桑兵, 2001, 『晚清民國的國學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75쪽.

41 오병수, 2018, 「民國時期 傅斯年 史學의 興衰: 과학주의와 민족주의의 연쇄」, 『歷史學報』 240, 575~582쪽.

42 桑兵, 1997, 「伯希和與近代中國學術界」, 『歷史研究』 1997(5), 115~138쪽

43 傅斯年, 2000, 「論伯希和教授」,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5, 467~470쪽.

자는 ‘정리국고(整理國故)’ 운동은 중국 전통문화의 발생, 경과, 현상을 구체적인 역사적 과정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아직도 생명력이 있는 부분을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는 주장이었다. 여기에서 중국의 역사는 그 현상 그대로 파악되어야 했고, 부정적인 선입관은 일체 배제되어야 했다.⁴⁴

푸쓰넨은 대학 시절 구제강과 막역한 친구였으며, 그 자신이 본래 의고파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그러나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점차 구제강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의고파에는 원래의 사실보다는 그 전승(傳承)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전승을 논하고 사실은 논하지 않는 태도는 사실을 공동화(空洞化)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의고’하는 것이 결국 중국 역사를 진공상태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의식한⁴⁵ 푸쓰넨은, 있는 사료로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이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인린(張蔭麟)은 일찍이 구제강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의 언설은 사료가 없으므로 사실 또한 없다고 판단하는 누(累)를 범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는 푸쓰넨과 궈를 같이하는 생각이었다.⁴⁶

푸쓰넨은 마침내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 또한 (그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⁴⁷고 결론짓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논하는 자의 지극한 죄악(罪惡)이다”⁴⁸라고 구제강의 의고설에 부정적 가치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사실에 대해 선입관 없는 태도, 가능한 많은 사료 수집을 통한 지식의 확충, 그리고 사료의 수집과 정리를 중시하는 서양 역사학의 흐름은 신문화

44 喬志航, 2007, 앞의 글, 193~205쪽.

45 黃海烈·蔣剛, 2009, 「考古學與中國上古史重建」, 『古代文明』 3(3), 12쪽.

46 杜正勝, 1995, 앞의 글, 227~228쪽.

47 傅斯年, 2000, 「評秦漢統一之由來和戰國人對於世界的像想」,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4, 434쪽.

48 傅斯年, 2000, 「戰國子家敍論」,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2, 103쪽.

운동 이후 중국을 풍미한 과학에 대한 동경과 어우러져 푸쓰넨에게 독특한 역사관을 부여했다. 이제 푸쓰넨 앞에 놓인 문제는 어떻게 사료를 확충할 것이냐였으며 고고학은 그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현대의 역사학 연구는 이미 각종 과학적 방법의 회집(匯集)이다. 지질, 지리, 고고, 생물, 기상, 천문학 등은 어느 하나 역사 문제를 연구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도구가 아닌 것이 없다.”⁴⁹ 사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해졌다. 고고학은 그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첨단의 무기가 되었다.

푸쓰넨에 의해 창설된 사어소는 국가 학술기구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의 고고학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리지는 물론 량쓰용과 사냐이는 모두 유학을 마친 후 사어소로 초빙되어 이곳을 무대로 학술활동을 전개했다. 푸쓰넨과 사어소라는 기반은 그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가장 먼저 푸쓰넨에게 초빙된 것은 바로 리지이다. 리지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처음 푸쓰넨과 만나게 된 것은 그가 유럽 여행을 마치고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길이었다. 리지는 이렇게 회고했다.

이때 그(푸쓰넨)가 나에게 말하려 한 일은 중앙연구원에 역사어언연구소를 만드는 그 일이었다.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나에게 야외고고의 일(발굴)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 그가 말하기를, 그는 신식의 야외고고 사업을 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 그때부터 나는 줄곧 푸(쓰넨) 선생이 만든 역사어언연구소에서 일했다.⁵⁰

이전까지 푸쓰넨은 리지와 특별한 인연이 없었지만, 푸쓰넨은 일찍부터 리

49 傅斯年, 2000, 「歷史語言研究所工作之旨趣」,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3, 3~12쪽.

50 李濟, 2006, 「傅所長創辦史語所與支持安陽考古工作的貢獻」, 李濟, 『李濟文集』 5, 234~237쪽.

지의 학문적 성취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⁵¹ 당시로서는 발굴 경험이 있는 중국인으로 리지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리지는 푸쓰넨과 호흡을 맞추어 사어소의 발굴 사업을 주관했다. 천홍보(陳洪波)의 평가에 의하면, 푸쓰넨이 신사학과 고고학의 기획자였고, 리지는 푸쓰넨의 생각을 현장으로 옮겨놓은 실천자였다.⁵²

량쓰용은 미국 유학시절 리지와 연을 맺었다. 부친인 량치차오는 마침 시인촌 유적에서 발굴 중이던 리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아들이 발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편지를 썼다.⁵³ 이 부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1927년 량치차오가 부친의 뜻에 따라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귀국한 이듬해에 칭화대학 국학연구원의 조교로 임직하면서, 리지가 시인촌에서 발굴한 자료의 일부를 정리했다. 량쓰용은 1930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사어소로 초빙되었다.

샤나이는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푸쓰넨은 물론 리지, 량쓰용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가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그의 지도교수로 지명된 것이 바로 푸쓰넨과 리지였다. 샤나이는 유학을 떠나기 이전 규정에 따라 1년간 현장실습에 참여해야 했는데, 푸쓰넨은 그가 은허에서 발굴실습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고, 영국에서 진로를 고민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런던대학에 남아 역사고고학을 전공하도록 권유했다.⁵⁴ 푸쓰넨의 권고는 일찍부터 사어소에 그를 영입하려는 계획으로 인한 것이었다. 샤나이가 유학길에 올랐을 때 이미 사어소에는 리지와 량쓰용이 재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선사고고학 전문가였다. 은허 실습기간에 그를 실제 지도한 것은 량쓰용이었는데, 그는 샤나이의 진학과 학업계획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량쓰용은 샤나이에게 고고학의 이론적 기초로서 인류학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했고, 샤나이는 유학기간 인류학과 체질인

51 羅家倫, 1976, 『羅家倫先生文存附編』, 國史館, 524쪽, 陳洪波, 2011, 앞의 책, 98쪽에서 재인용.

52 陳洪波, 2011, 앞의 책, 2쪽.

53 莊向陽, 2011, 앞의 글, 36쪽.

54 王世民, 2017, 「傅斯年和夏鼐」, 『考古學史與商周銅器研究』, 190~198쪽.

류학 등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다.⁵⁵

2. 주요 조사·연구 활동

리지는 1923년 여름 난카이대학(南開大學)의 교수로 부임하여 인류학과 사회학을 가르쳤다. 1926년에는 칭화대학 국학연구원(國學研究院)에서 인류학과 고고학을 강의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고고학 조사와 연구에 참여한 것도 이때부터의 일이다. 리지는 1927년 미국 프리어미술관(Freer Gallery of Art)의 지원을 받아 산시성(山西省) 샤현(夏縣)의 시인촌 발굴을 주관했다. 이 발굴은 중국 고고학사상 중국인이 주관한 최초의 근대적 발굴로 공인되어 있다.

1928년 사어소를 창설한 직후 푸스넨은 리지를 고고조(考古組) 주임으로 초빙했다. 이때부터 리지는 중국 국민정부 시기 고고학 행정과 연구의 주요 조직자와 집행자로 활동했다. 우선 리지는 1928년부터 1937년까지 15차례 시행된 허난성 안양시의 은허 발굴 가운데 제2차 발굴 이후의 모든 발굴을 주관하였으며, 그 가운데 제2, 3, 4, 6차 발굴은 현장에서 직접 지휘했다. 제7차 발굴 이후에는 고고조의 책임자로서 번잡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또 학술계와 문화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면서 점차 현장에서 손을 떼게 되었지만⁵⁶ 은허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다. 1933년 제8차 발굴 때 리지는 현장에 편지를 보내 “모든 작업을 샤오툰(小屯)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향토(尙土, 흙다짐) 문제와 판축유적을 분명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 문제는 상황을 봐서 진행하라”⁵⁷고

55 王興, 2022, 「夏鼐與梁思永：兩代考古學人的交往與傳承」, 『考古』 2022(7), 109~120쪽.

56 리지는 1934년부터 1947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中央博物院 籌備處의 주임을 맡았으며, 1938년에는 푸스넨이 질병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잠시 사어소의 소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 밖의 겸직도 많았는데, 1939년에는 雲南民族學會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陳洪波, 2011, 앞의 책, 274~275쪽.

57 陳洪波, 2011, 위의 책, 2쪽.

지시했다. 은허 발굴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력이 되었다.

은허 발굴이 한창 진행되던 1930년 내전으로 말미암아 잠시 은허 발굴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리지는 우진딩(吳金鼎)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산둥성 룡산진(龍山鎭) 청즈야(城子崖)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이 발굴은 1930년 11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때의 발견을 바탕으로 1931년 이 유적은 량쓰용의 주관하에 대규모로 발굴되기에 이르렀다. 청즈야 유적 발굴을 통해 신석기시대 후기의 성지(城址)와 함께 흑도(黑陶), 복골(卜骨) 등의 표지적 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룡산문화(龍山文化)가 설정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마침내 중국문명서래설(中國文明西來說)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리지는 은허 제7차 발굴 이후 현장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은허에 대한 연구에 더욱 많은 정력을 기울였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된 은허 출토 유물에 대한 형식학적 연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33년 발표된 「은허 동기 오종과 관련 문제 연구」⁵⁸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어 중일전쟁 시기(1937~1945) 사어소가 쿤밍(昆明)과 리좡(李莊)으로 피난해 있을 때 편집한 「은허기물갑편(殷墟器物甲片): 도기(陶器) 상집(上輯)」에 포함된 「은허도기도록(殷墟陶器圖錄)」⁵⁹은 총 15차에 걸쳐 진행된 은허 발굴에서 얻은 1,500여 점의 완정기(完整器) 및 복원기(復原器)를 계통(系統)과 형(型)·식(式)으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유물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은허 토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⁶⁰ 사어소가 난징(南京)으로 돌아온 후 1948년과

58 李濟, 1933, 「殷墟銅器五種及其相關之問題」,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張光直·李光謨 編, 1990, 『李濟考古學論文選集』, 文物出版社, 522~546쪽 참조.

59 이 논문은 1956년 臺灣에서 발표되었다. 李濟, 2006, 「殷墟器物甲編: 陶器(上輯)」, 『李濟文集』 1, 上海人民出版社, 49~72쪽 참조.

60 陳洪波, 2011, 앞의 책, 275~284쪽.

1949년 각각 발표한 「기소둔출토지청동기」⁶¹와 「기소둔출토지청동기(중편-봉인기)」⁶²는 은허 출토 청동기를 대상으로 하여 그 분류에 관한 이론적 탐색과 형식학적 분류 및 변화와 발전을 다룬 것이다.⁶³ 리지의 형식학적 연구는 후대의 연구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⁶⁴ 리지는 평생에 걸쳐 약 10종의 저서와 15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절반은 은허와 관련된 것이다. 리지의 저작 대부분은 그가 타이완(臺灣)으로 건너간 이후의 것이지만, 그의 일생은 은허의 발굴과 그 연구로 점철되었다.⁶⁵

1930년 여름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량쓰용은 이때부터 사어소에 임직하면서 고고조(考古組)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해 가을부터 이어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양양시(昂昂溪) 유적 발굴⁶⁶과 열하(熱河) 일대 유적 조사⁶⁷를 필두로, 1931년부터는 은허 발굴에 참가했으며, 그해 가을에는 청쯔야 유적 제2차 발굴을 주관했다. 이어 1936년에는 산둥성 르자오(日照) 량청진(兩城鎮) 부근의 와우촌(瓦屋村), 다구두이(大孤堆) 유적의 발굴을 주관했다. 산둥성에서 계속 진행된 일련의 발굴은 모두 룡산문화 유적에 대한 조사였으며, 1937년에 저장성(浙江省) 항현(杭縣)의 량주(良渚) 유적 발굴을 참관한 것도 룡산문화와 관련된 조사활동의 일환이었다. 왕성하게 이어지던 량쓰용의 발굴조

61 李濟, 1948, 「記小屯出土之青銅器」, 『中國考古學報』 3, 1~100쪽.

62 李濟, 1949, 「記小屯出土之青銅器(中篇 鋒刃器)」, 『中國考古學報』 4, 1~69쪽.

63 陳洪波, 2011, 앞의 책, 284~300쪽.

64 陳星燦, 1997, 앞의 책, 317~320쪽.

65 李光謨, 1989, 「李濟與殷墟考古」, 『殷都學刊』 1989(3), 11~14, 70쪽.

66 발굴보고는 1932년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4(1)에 발간되었다. 梁思永, 1959, 「昂昂溪史前遺址」,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梁思永考古論文集』, 58~90쪽 참조.

67 조사보고는 1936년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田野考古報告』 제1책(1~67쪽)을 통해 발표되었다. 梁思永, 1959, 「熱河查不干廟林西雙井赤峯等處所采集之新石器時代石器與陶片」,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梁思永考古論文集』, 107~144쪽 참조.

사는 1940년대에 들어서는 모두 중지되고 말았다. 그는 이때부터 1954년 사망할 때까지 긴 와병생활에 들어갔다.

량쓰용이 1931년 제4차 은허 발굴에 참여하면서부터 이 발굴이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고 평가된다. 샤나이의 회상에 의하면, 은허가 처음 발굴되기 시작한 후 수년간, 발굴단에는 정식으로 고고학 훈련을 받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발굴 작업이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량쓰용이 참가한 이후 발굴은 물론 정리, 기록 등이 모두 정상화되었다.⁶⁸ 리지도 이렇게 썼다.

량 군(량쓰용)은 야외작업(발굴) 훈련을 받은 고고학자이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고고학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했었다. (그가 사어소에 온 때부터) 2년 동안 그는 고고조의 조직과 방법에 모두 극히 중요한 공헌을 했다.⁶⁹

사실 중국인으로 충분한 발굴훈련을 받은 고고학자는 량쓰용이 첫 번째 주자였다. 그가 현장에서 보여준 활약은 대단했다. 이를테면 이전까지의 은허 발굴에는 인공층위로 문화퇴적을 구분하고 또 층위와는 무관한 직관적 형식학의 기초 위에서 유물과 유적에 대한 편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층에 속한 유물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퇴적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분석이 결여되어, 건축유구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퇴적을 어적(淤積)의 결과로 오판함으로써, 은허가 홍수로 인해 몰락했다는 견해가 발굴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⁷⁰ 량쓰용이 발굴에 참여한 이후에 비로소 판축과 구덩이 등의 유구가 정확하게 식별됨으로써 비로소 이른바 ‘은허표몰설(殷墟漂沒說)’이 사라졌다.⁷¹

68 夏鼐, 1954, 「追悼考古學家梁思永先生」, 『新建設』 1954(6), 46쪽.

69 李濟, 1933, 「安陽最近發掘報告及六次工作之總估計」, 『安陽發掘報告』 4, 李濟, 2006, 『李濟文集』 2, 280~292쪽.

70 陳洪波, 2011, 앞의 책, 170~172쪽.

71 郭旭東, 2003, 「“殷墟漂沒說”與中國考古學的科學化進程」, 『考古與文物』

그의 역량이 더욱 선명하게 발휘된 것은 이해 1931년 가을 진행된 은허 제 5차 발굴 때였다. 량쓰용은 이때 후강 유적에서 이른바 ‘후강삼첩층’을 식별해 냈다. 그는 발굴을 통해 자연층위의 퇴적 상황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먼저 출토 유물을 자연층위에 따라 분류했다. 이어 유물의 특징과 층위의 상황을 결합하여 몇 개의 자연층위를 하나의 문화층으로 병합하고, 최종적으로 하층, 중층, 상층 등 3개의 문화층을 설정했다.⁷² 그것이 바로 앙사오문화층, 룡산문화층, 샤오툰(상)문화층이다.⁷³

량쓰용의 허우강 발굴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중원지역의 신석기-청동기 시대 제 문화의 상대연대 서열이 분명하게 수립됐다. 이 자연층위 발굴법은 하버드 재학 시절 그의 스승인 키더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1920~1930년대까지 미국에서조차 소수의 연구자만 채택한 것이었다. 이 밖에도 량쓰용은 1934년 가을부터 1935년까지 은허 제10~12차 발굴을 주관하면서 안양 허우자왕 시베이강의 상대 왕릉(王陵) 발굴을 주관했다. 이곳에서는 왕릉을 포함한 대형묘 10기와 소형묘 1,000기가량이 발굴되었는데, 이 발굴은 당시까지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발굴 가운데 최대 규모로 기록되어 있다.⁷⁴ 대개 이 발굴을 전환점으로 하여 중국의 고고학이 과학적 학문의 범주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1931년에 그가 주관한 청쯔야의 룡산문화 유적 제2차 발굴 역시 중요하다. 이 유적은 중국인의 손으로 발굴되고 이어 발굴조사보고서까지 출판된 최초의 유적이다. 청쯔야 유적은 1928년부터 1929년까지 우진당이 지난(濟南) 이동 지역에서 행한 유적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정식 유적 발굴은 1930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은 많지 않았지만 앙사오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2003(3), 63~68쪽.

- 72 梁思永, 1933, 「後岡發掘小記」,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安陽發掘報告』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 1959, 『梁思永考古論文集』, 99~106쪽 참조.
- 73 陳星燦, 1997, 앞의 책, 232~236쪽.
- 74 陳洪波, 2011, 앞의 책, 200~211쪽.

신석기문화가 확인됨으로써 일약 학계의 이슈가 되었다. 특히 이곳에서 출토된 흑도(黑陶)가 은허 허우강에서 식별된 중층(통산문화층)에서도 발견되었으므로 1931년 가을, 이에 흥미를 느낀 량쓰용은 이 유적의 제2차 발굴에 착수했다. 이 유적 발굴을 통해 ‘통산문화’가 최초로 식별되었고, 이것은 중국문명서래설이 그 영향력을 상실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1941년 샤나이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는 이미 중일전쟁(1937~1945)이 시작된 후여서 사어소가 쓰촨성 난시(南溪)에 피난해 있었다. 귀국 후 샤나이는 사어소 내부 사정으로 잠시 리지가 주임을 맡은 중앙박물관 주비처에 근무하다가, 1943년 사어소의 부연구원으로 임용되었다.⁷⁵ 샤나이는 중앙박물관 주비처에 근무하면서 우진당이 이끄는 환강고적고찰단(川康古跡考察團)에 참가하여 쓰촨성 평산현(彭山縣) 더우아팡(豆芽房), 자이쯔산(砦子山) 등지에서 한대(漢代) 예묘(崖墓) 유적 발굴에 참여했다. 1943년 사어소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1944년 4월부터 서북과학고찰단(西北科學考察團) 고고조를 인솔하여 간쑤(甘肅)와 신장(新疆) 일대에서 조사와 발굴을 진행했다. 1949년 이전으로 제한하면 샤나이의 활동은 대개 이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의 조사는 한대의 옥문관(玉門關)과 봉수유적, 위진(魏晉) 및 수당(隋唐) 시대의 묘지와 석굴유적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⁷⁶ 샤나이는 이때 둔황(敦煌)의 샤오팡판성(小方盤城) 유적에서 출토된 한간(漢簡)에 입각하여 한대 옥문관(玉門關)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개가를 올렸다.⁷⁷ 그렇지만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ningdingxian(寧定縣) 양와만(陽窪灣), 린자오현(臨洮縣) 쓰와산(寺窪山) 등의 치자문화(齊家文化) 유적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이다. 이 발굴을 통해 샤나이는 양사오문화 채도 서래설을 입증하는 유력한 가설이었던 안데르손의 양사오

75 陳洪波, 2011, 위의 책, 2쪽.

76 陳洪波, 2011, 위의 책, 254~263쪽.

77 夏鼐, 1948, 「新獲之燉煌漢簡」,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19, 235~265쪽.

문화 6기설을 뒤집었다. 샤나이의 이 발굴은 발굴기술이나 중국 선사고고학의 이론 연구를 막론하고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샤나이가 영국과 이집트에서 쌓은 풍부한 발굴 경험과 기술이 이와 같은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⁷⁸.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사어소는 1946년 난징으로 되돌아왔다. 이때부터 잠시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이전의 조사·발굴 자료 정리에 매진한다는 푸쓰넨의 방침에 따라 샤나이라도 서북과학고찰단의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논저를 발표했다. 이 무렵 그가 발표한 「제가기 무덤의 새로운 발견과 연대의 개정」⁷⁹ 및 「린자오쓰와산발굴기」⁸⁰ 등 두 편의 논문은 간쑤(甘肅) 지역 신석기 제(諸) 문화의 문화사적 위치와 편년에 대한 그때까지의 오류를 수정했다.

V. 학문적 지향

1. 새로운 민족사의 건립

중국고고학은 도입 초기부터 민족사(國史) 재건이라는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실물자료의 기반 위에서 중국의 문화사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문헌기록이 모호한 상고의 역사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민족사 재건은 일찍부터 의고파의 거두 구제강의 구상에 들어 있었다. 그가 “책에 실려 있는 고사(古史)의 재료는 이미 다 정리되었다. 그때(미래)의 역사학자는 이들 결론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고고학상의 많은 발견이 더해지면, 정확한 『중국상고사』를 쓸 수 있다”⁸¹라고 한 것은 고고학을 통해 중국

78 陳星燦, 1997, 앞의 책, 310~314쪽.

79 夏鼐, 1948, 「齊家期墓葬的新發現及其年代的改訂」, 『考古學報』 3, 101~117쪽.

80 夏鼐, 1949, 「臨洮寺窪山發掘記」, 『考古學報』 4, 71~137쪽.

81 顧頡剛, 「自序」, 『古史辨』 제3책, 5쪽.

상고사를 증진할 수 있다는 생각의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구제강의 이런 생각은 민국 시기의 여러 학자에게 공유된 것이었다⁸²

후쓰는 1921년 구제강에게 보낸 편지에서 “대체로 나의 고사관은 다음과 같다. 지금 우선 고사를 이삼천 년 줄이는데, 이것은 『시경(詩經)』 300편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래에 금석학, 고고학이 발달하여 궤도에 오른 다음 지하에서 발굴된 새로운 사료를 이용하여 동주(東周) 이전의 고사를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⁸³고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서양 학문의 세례를 받은 초기의 고고학자들도 이런 입장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사실 문명과 초기국가의 독립적인 기원을 추적하여 민족사의 구체적인 궤적을 그리고자 하는 고고학적 시도는 20세기 초 국제학술계를 풍미했다.⁸⁴ 리지가 1926년 미국 프리어미술관과 함께 진행한 자신의 첫 번째 발굴에서 시인촌 유적을 그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이 유적이 위치한 샤현(夏縣)의 ‘샤(夏)’ 때문이었다. 『사기』에는 “요(堯)는 평양(平陽)에 도읍했고, 순(舜)은 포판(蒲坂)에 도읍했으며 우(禹)는 안읍(安邑)에 도읍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지명은 모두 산시(山西) 남부에 위치해 있다. 샤현은 바로 산시 남부에 있는 데다가, 샤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이곳이 하 왕조와 무엇인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는 이곳에서 중국의 전래문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 왕조의 유적을 찾기를 기대했다.⁸⁵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국 신석기문화(양사오문화)와 하문화의 계기적 발전을 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다. 그 결과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민족사 구축이 될 것이었다.⁸⁶

82 黃海烈·蔣剛, 2009, 앞의 글, 12~14쪽.

83 胡適, 1982, 「自述古史觀書」, 『古史辯』 제1책, 上海古籍出版社, 22~23쪽.

84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고고학사』 개정 2판, 사회평론아카데미, 235~259쪽.

85 李濟, 2006, 「西陰村史前遺址的發掘」, 『李濟文集』 1, 185~186쪽.

86 張立東, 2003, 「李濟與西陰村和夏文化」, 『華夏考古』 2003(1), 95~99쪽.

중국고고학의 출발점에서 부여된 민족사 재건이라는 태생적 속성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고고학적 연구·조사가 시작된 이후 유학생활동을 시작한 샤나이에게서 보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샤나이가 1936년 7월 5일에 작성한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내 생각에 고고학을 하려면 인류학의 기초가 없어서는 안 된다. 문화의 기원, 변천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규모가 큰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고학 자료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 그런 다음 다시 실증에 치중해서 중국의 상고사를 건립해야 한다. 학술계에서 고고학의 지위는 아직 크게 높지 않다. 그러나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 고고학은 중심적 지위에 있다. 특히 현재 중국 상고사 학계의 상황을 보면 옛 전설은 점차 뒤집히고 새로운 전설이 점차 출현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옛 전설과 다를 바 없다. 모두 서재에 있는 서생들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의 정치와 사회가 조금 안정되면 고고학 작업은 실로 전도가 유망하다.⁸⁷

1928년부터 사어소에 의해 시작된 허난 안양시의 은허 발굴을 통해 이 유적이 상 왕조 후기의 도성임이 입증되었다. 이 발굴은 통해 이전까지 그 실재 여부조차 미심쩍던 문헌기록상의 상(商) 왕조가 과거에 거기에 실제로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중국 전래문헌의 신뢰성이 급격히 제고됨에 따라 중국 초기문명사에 위치한 삼대(三代)가 신화에서 현실로 귀환했다.

은허의 발굴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물질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상과 양사오 문화 사이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 양사오문화가 신석기시대 후기의 문화라고 믿고 있던 당시 학계에서 양사오문화와 상문화 사이의 변화는 매우 돌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선사문화가 양사오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에 불만을 품었던 연구자들에게 극적인 돌파구를 제공한 것이 바로 리지와 량쓰용이 조사한 청쯔야 유적이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흑도는 상문화에 더욱 가까웠으

87 宋廣波, 2011, 앞의 글, 150쪽에서 재인용.

며, 복골은 청쯔야와 상문화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여했다. 청쯔야의 발굴을 통해 중국 삼대의 문화가 신석기문화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제 신석기문화에서 삼대로 그리고 다시 진한으로 이어지는 중국사의 뼈대가 마련되었다. 고고학을 통해 국사를 재건하겠다는 꿈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2. 과학적 고고학의 수립

량치차오는 1926년 발표한 「중국 고고학의 과거와 장래(中國考古學之過去及將來)」라는 글에서 고고학을 중국 전통학문인 금석학의 확대와 연속으로 보았다.⁸⁸ 이 글을 본 본 리지의 심경은 참담했다. 이때 리지의 학생이었던 다이자상(戴家祥)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대략 이해(1926) 스웨덴 황태자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학술계는 (이를) 매우 중요시했다. 양런공(梁任公, 량치차오)이 보고서 한 편을 작성하고 천인커(陳寅恪)가 그것을 영역했다. 이 보고서의 중문본(中文本)은 모든 동학(同學)에게 전해졌다. 리 선생님(리지)은 이 보고서를 수업 시간에 우리를 향해 늘어놓고 “이것이 중국인이 말하는 고고학이다”라고 하셨다. 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고학과 우리들이 과거에 말한 고고학, 혹은 골동품을 파내거나 그것을 수장하는 고고학은 사실 십만 팔천 리 동떨어진 것이다.⁸⁹

금석학은 서양의 고물학(古物學)과 유사한 중국 고유의 전통학문으로 송대에 형성되었다. 금석학은 주로 비석이나 청동기 등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대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역사를 연구했으며, 그 최종 목표는 증명

88 陳洪波, 2011, 앞의 책, 64쪽.

89 戴家祥, 1994, 「致李光謨」, 『李濟與清華』, 清華大學出版社, 171~172쪽. 陳洪波, 2011, 위의 책, 65쪽에서 재인용.

보사(證經補史)에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석학의 연구방법은 저록(著錄)과 문자학적 고증(考證)에 치우쳤으며 유물의 제작이나 형태, 문양 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소홀했다.⁹⁰

서양의 고고학은 인류가 남긴 유존을 과학적으로 조사 또는 발굴하는 것을 기본방법으로 하고, 층위학과 형식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기초와 다양한 자연 과학적 방법을 응용한 해석을 통해 과거 인류 및 그 사회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석학이 과거의 물질유존을 다루는 학문이라 해도 그것은 고고학과는 전혀 다른 학문이었다. 리지가 “전통적 고고학자(금석학자)가 중시하는 것은 예술성이다. 수집 작업에 종사한 것은 골동상인이었는데, 그것은 소인(小人)이 하는 일로 여겼다. 오늘날의 고고는 반드시 스스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 지질학자와 같다”⁹¹라고 한 것은 고고학과 금석학이 전혀 다른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간요(簡要)하게 설명한 것이다.

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고고학의 핵심은 과학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서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지하의 고고학적 자료를 찾아, 이것으로 상고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하는 데 있었다. 1934년 리지는 안데르손의 공헌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10여 년 전 다소 낡은 역사학자들은 삼황오제의 전설을 믿었으며, 다소 새로운 역사학자들은 이런 전설을 의심할 따름이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동일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고사전적(古史典籍)에 대한 태도였다. 고고학자의 호미(鋤)가 지하의 실물을 발굴해내게 되자 역사학계의 기풍에 비로소 변화가 생겼다. 이번의 발견이 있고 나서 중국의 역사학계는 점차 전적의 진위에 대한 변론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중국의 사승(史乘)이 완전히 그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90 徐玲, 2009, 앞의 책, 33쪽.

91 李濟, 2006, 「中國地質學對現代中國社會人類科學的影響」, 『李濟文集』 5, 111~112쪽.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고사 변론의 방향으로 보건대 중국의 사적에 실린 약간의 사실은 고고학적 발견으로 인해 더욱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가 날마다 증가하면서 이전에 고사에 관련된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변론(辯論)할 만한 자료는 지하에서 출토된 약간의 신자료이다. 이를테면 안데르손이 발견한 중국 석기시대 문화, 이것은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주의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전까지 이른바 알 수 없다고 했던 홍황(洪荒)이 하루아침에 실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건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구(舊)사학자들은 당연히 할 말이 없고 신사학자들은 이 때문에 사료 수집을 시작하게 되었다.⁹²

그가 상고사를 재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리지의 생각은 이 글에 명료하게 나타나 있다. 그것은 발굴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자료를 통해 중국의 '문명사'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다. 선사에서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중국문명사의 구축은 전통시대의 역사에서 가정한 시공간 그리고 역사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과학적 차원의 것이었다.

3. 중국문명의 자생성 입증

양사오문화가 발견된 후 서양의 고고학자들은 중국문화 서방기원설을 견지했다. 예컨대 비숍(C. W. Bishop, 1881~1942)은 1933년과 1940년에 각각 발표한 「중국의 신석기시대」와 「원동 문화의 시원(始原)」 등 두 편의 논문에서 중국과 유럽의 신석기문화를 비교하고 중국 경내의 신석기문화의 어떤 성분도 중국인 자신이 발명하거나 발전시킨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⁹³ 물론 이것은 안데르손

92 李濟, 1934, 「中國考古學的過去與將來」, 『東方雜誌』 31(7). 張光直·李光謨 편, 1990, 『李濟考古學論文選集』, 46~47쪽.

93 徐玲, 2009, 앞의 책, 219쪽.

의 양사오문화 채도 서래설 이래 서양의 연구자들에게 널리 공유된 견해였다. 초기 유학생들의 연구활동은 이와 같은 ‘중국문명서래설’에서 중국 고대문화를 해방시키는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리지와 량쓰융은 일찍부터 양사오문화 채도 서래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

리지는 1926년 진행된 시인촌 발굴에서 일찍이 안테르손이 중국 북부에서 처음 발견한 신석기시대 후기 문화(양사오문화)에 속하는 유존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는 이 유적의 발굴보고에서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이 문화의 내원(來源) 그리고 그것과 역사시대 중국문화와의 관계”이며, “중앙아시아, 근동(近東), 간쑤와 시인촌 출토 토기를 비교하면 ... 시인촌 토기의 제작기술이 더욱 고명(高明)하므로 채도가 꼭 서방에서 왔다고 것은 입증할 수 없다”고 썼다.⁹⁴ 시인촌의 채도가 서방에서 전래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자생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룡산문화가 발견되기 이전, 중국의 연구자들은 서양학계의 보편적 견해에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해 명쾌하게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청쯔야 유적의 발굴이 시작되자 이와 같은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⁹⁵ 1930년의 조사를 통해 이 유적에서 출토된 흑도가 은허의 허우강에서 식별된 중층(룡산문화층)에서도 발견된 것을 계기로, 1931년 가을, 청쯔야 유적은 재차 발굴에 들어갔다. 이 발굴을 통해 ‘룡산문화’가 최초로 식별되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흑도와 복골 등의 특징적 유물이 은허의 상문화와 더욱 친연성(親緣性)을 보였다. 이 때문에 양사오문화가 아닌 룡산문화가 은허 상문화(商文化)의 직접적 선행문화라는 인식이 널리 확장되기 시작했다.

1930년 청쯔야 유적 발굴이 본격화되었을 때, 리지는 이 유적의 발굴에 착수하게 된 원인을 중국 신석기시대 문화와 역사 시기 문화의 상관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리지는 먼저, 허난, 간쑤 일대의 신석기시대

94 李濟, 2006, 「西陰村史前的遺存」, 『李濟文集』 2, 111~199쪽.

95 陳洪波, 2011, 앞의 책, 162~163쪽.

유적에서 출토된 채도가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그리고 동유럽에서 출토된 채도와 약간의 유사성이 있어 중국문화가 서방에서 기원했다는 학설이 제기되었다고 전제된 뒤, 중국 동·북부의 대평원에서는 이와 같은 채도가 발견된 적이 없고, 청쓰야에서 출토된 룡산문화의 석기와 흑토, 복골 등의 유물은 은허에서 발견되는 것과 더욱 유사하므로 룡산문화야말로 상주(商周)시대 문화와 더욱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⁹⁶ 중국문화의 기원은 동방에 있으며 중국의 서부지역에서 발견된 채도문화는 역사시대로 이어지는 중국문화의 주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이다.

이것은 양사오문화가 채도가 서방에서 기원하였다는 안데르손의 주장에서 파생된 중국문화 서방기원론을 대신해, 중국문화의 직접적인 기원지는 동방(룡산문화)이라거나,⁹⁷ 상문화는 양사오문화, 룡산문화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하에 수립되었다는 주장⁹⁸으로 이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문화 서방기원론은 상당한 정도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샤나이가 1945년 5월에 진행된 양와만 제2호 묘 발굴은 중국문화서래설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샤나이는 이 유적에서 확인된 치자문화묘의 교란되지 않은 복토에서 채토 편 2점을 발견했다. 이 2점의 채토 편은 그 도질(陶質)과 채색 문양으로 보아 양사오문화기의 마자야오문화(馬家窯文化)에

96 李濟, 1931, 「發掘龍山城子崖的理由及成績」, 『山東省立圖書館季刊』 1(1), 李濟, 2006, 『李濟文集』 1, 203~205쪽.

97 傅斯年, 2000, 「夷夏東西說」, 歐陽哲生 主編, 『傅斯年全集』 3, 湖南教育出版社, 181~232쪽. 이 논문은 1933년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에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역본이 발간된 바 있다. 정재서 역주, 2011, 『이하동서설』, 우리역사연구재단.

98 李濟, 1934, 「中國考古學之過去與將來」, 『東方雜誌』 31(7), 張光直·李光謨 편, 1990, 『李濟考古學論文選集』, 46~52쪽 참조. 李濟의 이와 같은 구상은 제자인 張光直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中國考古學論文集』, 三聯書店, 1999, 151~189쪽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은 1968년 영문으로 발표된 저서 *The Archaeology of Ancient China*(Yale University Press)의 제5장에 해당한다.

속하는 것이 분명했다. 샤나이는 이로써 치자문화가 양사오문화보다 늦은 시기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충위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샤나이는 이전 안테르손이 양사오문화 6기설을 제시하면서 마자야오문화가 치자문화보다 늦다고 주장한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입증했다. 양사오문화 6기설은 중국 채도가 서방에서 기원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유력한 가설이었으므로, 샤나이의 이 발견은 당시 채도의 서방기원설을 부정하는 결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⁹⁹

량쓰용이나 샤나이의 발굴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연구 속에는 중국문화서래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집요한 노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유적 발굴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중국인의 자존을 크게 훼손했던 문화적 종속성의 굴레가 하나하나 벗겨져가고 있었다.

4. 세계사 속의 중국문명 정위(定位)

리지의 초기 연구 지향은 “인류학의 방법을 통해 중국문화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장광즈(張光直)가 보기에 그의 스승인 리지가 중국 고고학에 미친 ‘심원한’ 영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 문제에 대한 연구의 시야를 중국의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은 것”이었다.¹⁰⁰ 리지는 학술연구에서 중국 문제의 연구 시야를 중국의 범위 내로 국한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문화를 세계문화의 차원에서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중국문화를 선형적으로 어떤 고정적 위치에 두는 것에 반대하였으며,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만 평가의 표준으로 삼았다.¹⁰¹

1928년 말, 리지가 광저우(廣州) 중산대학(中山大學)에서 ‘중국에서 최근 발견된 새로운 사료(中國最近發現之新史料)’라는 제목의 강연을 행했을 때, 그는

99 陳星燦, 1997, 앞의 책, 276~309쪽.

100 張光直, 1999, 「考古學和中國歷史學」, 『中國考古學論文集』, 10~30쪽.

101 徐玲, 2009, 앞의 책, 216쪽.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역사는 종전과는 다른 것이다. 종전의 역사는 국부(局部)적인 것이며 협애(狹隘)한 것으로서 한 나라의 역사를 단위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정체(整體)로 간주했다. —수천 년 동안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각 민족의 역사, 각 나라의 역사는 전체 세계사의 전부가 아니며 단지 인류사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런 기본 관념의 변화가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하다”¹⁰²고 말했다.

리지는 ‘고고학’이 전통 사학의 저 ‘국부’와 ‘협애’를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안데르손의 발견은, 물론 그 결론은 믿을 수 없지만, 기원전 3000년 중국의 역사를 서방 각 지역과 연결했으며, 북경(원)인의 발견은 아시아 인종 기원 학설에 저울추를 추가했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¹⁰³ 그러므로 리지는 중국 학술사상에서 고고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었다.

(중)국인이 국고(國故, 역사)의 정리로 소란을 피운 다음, 일반인들의 논조는 “먼저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그다음에 타인을 묻자”는 것이다. 중국인은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역사를 열심히 연구하여 세계 학술계에 공헌하는 바가 있기를 기약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된다. 첫째, 국고는 원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인가? 둘째, 중국 전대(前代)에 사용한 ‘돈(錢)’은 중국에 원래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다른 곳에서 온 것인가. 셋째, 중국 인민은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인가 또는 다른 곳에서 이주한 것인가.¹⁰⁴

이제의 발언은 기존의 연구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전통적인 연

102 李濟, 2006, 「中國最近發現之新史料」, 『李濟文集』 1, 322쪽.

103 李濟, 2006, 위의 글, 322~324쪽.

104 李濟, 1994, 「考古學」, 『李濟與清華』, 清華大學出版社, 89쪽. 陳洪波, 2011, 앞의 책, 74쪽에서 재인용.

구자들은 중국 내의 일에만 관심을 가졌으며 중국과 외국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리지는 늘 ‘세계’의 시야에서 중국의 학술 문제를 보았으며, 세계적 시각에서 자신과 세계를 알자는 입장을 견지했다.¹⁰⁵

이제의 말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은허 출토 청동도(刀)의 연구¹⁰⁶에서 그것이 시베리아의 이르티시(Irtysh)강, 예니세이(Yenisei)강, 레나(Lena)강 주변에 살던 민족의 이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중국 고사학을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구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장성으로 스스로를 경계짓는(自封) 중국문화관을 타도하고, 장성이북으로 가서 우리들의 눈과 다리로 중국 고대사 자료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는 우리들의 더욱 오래된 고향이 있다”고 했다.¹⁰⁷ 리지는 「소둔촌 은대 및 선은 시대 토기의 연구」¹⁰⁸와 「중국문명의 시작」¹⁰⁹에서도 여러 차례 상과 중앙아시아·서아시아의 동시대 문화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지적했다. 리지가 시인촌을 발굴한 이후 은허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집중했을 때에도 그의 주요한 관심은 상문화를 전체 태평양 지역의 문화권 가운데서 포착하는 데 있었다.¹¹⁰

이와 같은 리지의 견해는 일견 중국문화 서방기원설에 대해 반대해 온 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듯이 보인다. 민족주의 정서가 한껏 고양되어 있는民国 시기의 중국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리지는 일생의 정력을 중국문화의 본토 기원을 입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리지는 “정당한 역사관은 전체 인류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각 민족은 전체의 한 단면에

105 陳洪波, 2011, 앞의 책, 74쪽에서 재인용.

106 李濟, 1933, 앞의 글, 522~546쪽.

107 李濟, 2006, 「記小屯出土之青銅器(中篇)後記」, 『李濟文集』 5, 133~134쪽.

108 李濟, 2006, 「小屯殷代與先殷時代陶器的研究」, 『李濟文集』 3, 14~24쪽.

109 李濟, 2006, 「中國文明之開始」, 『李濟文集』 1, 361~400쪽.

110 張光直, 1988, 「人類學派的古史學家李濟先生」, 『歷史月刊』 1988(9).

지나지 않는다”¹¹¹는 생각을 견지했다.

세계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 몇몇 사람들은 지역적 편견, 국가 관념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바의 문제에 대해 일부러 치우친 논의를 한다. 이런 치우친 방식은 국가와 민족 간 편견과 멸시의 심화와 함께 인류 역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정확하고 믿을 만한 세계 인류의 역사를 쓰려면 각국의 역사학자들이 국가, 지역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고, 사실상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역사학자는 시야를 더욱 넓은 곳에, 더욱 긴 데에 두어야 한다.¹¹²

리지의 생각에 따르면, 결국에는 편견의 극복을 통해 인류 전체 역사 속에서 중국을 보아야만 중국의 역사는 더욱 빛날 것이었다.

중국의 역사는 인류 전체 역사의 가장 빛나는 한 부분이다. 그것을 전체 인류 역사의 배경에서 보기만 하면 그것의 광휘(光輝)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이다. 그것을 낡은 집 안에 두고 혼자서 감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¹¹³

여기에서 인류의 보편적 역사발전과 자민족의 역사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자민족 중심적인 시각은 전체 인류의 역사를 분명히 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보편적 인류발전의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립하지 해소된다.¹¹⁴ 이처럼 중국문명을 전 세계적 시야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입

111 李濟, 1990, 「中國考古學的過去與將來」, 『東方雜誌』 31(7). 張光直·李光謨 편, 1990, 『李濟考古學論文選集』, 46~47쪽.

112 李濟, 2006, 「從中國遠古史的幾個問題談起」, 『中央日報(臺灣)』 1954.4.23. 李濟 2006, 『李濟文集』, 26~29쪽.

113 李濟, 2006, 「再談中國上古史的重建問題」, 앞의 책 1, 406~416쪽.

114 查曉英, 2012, 「“正當的歷史觀”: 論李濟的考古學研究與民族主義」, 『考古』

장은 전통적인 사고와는 다분히 결이 다른 것인데, 이와 같은 개방성은 아마도 리지가 전통적 교육과 정서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양 유학생활을 경험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한 경력을 가진 량쓰용에게서도 중국문명을 전 세계적인 시야에서 포착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1929년 12월 량쓰용이 미국에서 완성한 「원동 고고학상의 약간 문제(遠東考古學上的若干問題)」¹¹⁵는 아시아 동부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을 남시베리아군, 화북군과 인도군으로 구분하고, 신석기문화 유적은 중국과 몽골을 포괄하는 북방군, 인도차이나의 남방군, 한국과 일본의 외위군(外圍群)으로 나누어 그들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것은 중국의 연구자가 전 세계적 시야를 바탕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한 최초의 논문이다.¹¹⁶ 그뿐만 아니라 량쓰용이 토기의 층위적 분포 상황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신석기시대 유적의 유물을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작성한 「산시 시인촌 선사유적 신석기시대 토기(山西西陰村史前遺址新石器時代的陶器)」는, 귀국 초기인 1930년 겨울에 이루어진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일련의 조사 활동을 통해 이 지역의 신석기문화를 유라시아대륙 북부와 남부의 문명접촉으로 이해하고, 이 지역의 문명사적 의의를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을 배경으로 하는 거시적 시각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었다.¹¹⁷

2012(6).

115 梁思永, 1959, 「遠東考古學上的若干問題」,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梁思永考古論文集』, 50~57쪽.

116 黃增章, 1998, 앞의 글, 49쪽.

117 원래 영문으로 발표되었으나 梁思永, 1959, 「遠東考古學上的若干問題」,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 『梁思永考古論文集』, 1~49쪽에서 중문원고를 볼 수 있다.

VI. 맺음말

중국의 20세기 초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1919년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의 과거는 부정되고 신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전통적 학술은 몰락하고, 서양 근대 학문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신문화운동은 중국의 전통적 역사체계마저 흔들었다. 구제강을 비롯한 이른바 의고파는 전통적인 상고사 체계를 거침없이 파괴해갔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파괴된 고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구축할 수 있기를 열렬히 희망했다. 그것으로 민족의 일체성을 확인하여 열강의 침략에 맞설 동력을 확보하고,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재확인함으로써 현실의 암울함을 대신하려 했다. 이 무렵 중국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의 고고학은 근대과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학문적 방법론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듯이 보였다.

해외로 나가 고고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부한 유학생들은 이런 환경에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리지를 비롯한 량쓰용, 샤나이 등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미국 또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리지는 본래 인류학을 전공하였지만 고고학적 소양을 충실히 쌓았으며, 량쓰용과 샤나이는 당대 최고 수준의 스승에게 고고학을 배우고 발굴경험도 쌓았다. 이것은 이들이 귀국한 후 중국에 고고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중국에서 근대고고학이 그토록 신속하게 정착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일은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귀국 후 이들이 활약한 무대는 사어소였다. 사어소의 창설자 푸쓰넨은 그들을 사어소로 모았다. 그 자신 역시 서양 학문에 익숙한 유학생 출신의 학자이며 행정가였던 푸쓰넨이 사어소를 통해 정력적으로 추진한 일은 사료 수집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료 수집 활동이 아니었다. 푸쓰넨은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역사를 증진하기 위한 급선무라고 생각했으며, 이 자체가 그의 사론(史論)이기도 했다. 푸쓰넨은 신문화운동 이래 이른바 ‘전통’으로 추상화되어 타도의 대상으로 인지된 중국의 전통적 역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자 했다. 사실에

대해 선입관 없는 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료 수집을 통한 지식의 확충, 그리고 사료의 수집과 정리를 중시하는 그에게 고고학은 훌륭한 수단이요 최선의 선택이었다. 사어소는 국가 레벨의 학술기구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의 고고학이 신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리지 등의 활동에 일정한 지향성을 부여했다.

리지는 사어소에서 은허의 발굴을 지휘하고, 정력적인 저술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1926년 시인촌의 발굴부터 소망했던 출토자료를 통한 상고사의 복원은 은허에서 실현될 수 있었다. 은허는 전통적 지식체계 속의 역사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나아가서는 중국인에게 고고학의 쓸모를 각인시킬 수 있는 최선의 장소였다. 리지에게 부족했던 현장 발굴의 기술적 수단은 뒤이어 귀국한 량쓰용에 의해서 해결됐다. 처음부터 고고학을 전공하였으며 미국에서 풍부한 발굴 경험을 쌓고 귀국한 량쓰용은 허우강 발굴을 통해 황허강 유역 선사문화와 역사문화의 시간적 뼈대를 구축하였으며, 청쯔야 발굴을 통해 안데르손 이래 국제학계를 뒤흔들었던 중국문화서래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샤나이는 중일전쟁의 여파로 중원 지역의 발굴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북지역의 치자문화 유적에서 안데르손이 주창한 양사오문화 6기설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것은 중국문화서래설을 잠재울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개가가 되었다.

혼란과 고난의 시대에 경이로운 활약을 보여준 이들에게는 공통의 시대적 환경과 공통의 활동무대가 있었다. 이것은 이들의 연구활동에 일련의 지향성을 부여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고고학을 통해 새로운 민족사를 건설하려 했다. 전통 역사체계 속의 삼대는 물론 그 이상까지 소급되는 현대적 민족사의 수립은 그들의 공통된 목표였다. 그러나 그것은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했다. 그것은 고고학적 수단으로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했지, 선형적인 상상에 의지한 막연한 것이어서는 곤란했다. 또한 중국문화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한 것이어야 했으며 외부에서 수입된 아류(亞流)여서도 안 됐다. 중국인의 문화적 자부심은 그들에게 자신의 문화가 이차적이며 파생된 것이라는 서양인의 주장에 본능적 거부감을 부여

했다. 그들은 중국문화가 자생적이며, 그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것이 국수주의적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의 토양에서 자생한 중국의 문화와 역사가 세계적인 시야에서 취급되었을 때 비로소 더 빛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서양 유학생들을 통해 이미 ‘세계’를 경험했으며, 그 무대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올바르게 평가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고고학은 고유한 학문적 정의와 지향을 수립했다. 물론 그 전통은 중국의 고고학에 깊게 잠재되어 있고, 지금 다시 본래의 모습을 조금씩 다시 드러내고 있다. 중국에서 고고학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그 독특한 지향을 형성해왔다. 그것은 원래 그들의 선배들이 자신이 살아가던 역사 속에서 현실과 부닥치면서 조각해낸 것이다. 그 뿌리를 아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중국의 현대고고학 배후에 내면화된 동인(動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지금도 고고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쏟아내는 현재적(現在的) 신호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브루스 트리거 지음, 성춘택 옮김, 2019, 『고고학사』 개정 2판, 사회평론아카데미.
- 歐陽哲生 主編, 2000, 『傅斯年全集』 1~7, 湖南教育出版社.
- 桑兵, 2001, 『晚清民國的國學研究』, 上海古籍出版社.
- 徐玲, 2009, 『留學生與中國考古學』, 南開大學出版社.
- 王世民, 2017, 『考古學史與商周銅器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李濟, 2006, 『李濟文集』 1~5, 上海古籍出版社.
- 張光直·李光謨 編, 1990, 『李濟考古學論文選集』, 文物出版社.
-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編, 1959, 『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 陳星燦, 1997, 『中國史前考古學史研究 1895-1949』, 三聯書店.
- 陳洪波, 2011, 『中國科學考古學的興起-1928-1949年歷史語言研究所考古史』, 廣西師範大學出版社.

논문

- 김정열, 2020, 「근대 서양 학문의 도입과 메타모포시스 - 중국 증시주의 고고학의 성립 -」, 『崇實史學』 45.
- 오병수, 2018, 「民國時期 傅斯年 史學的 興衰: 과학주의와 민족주의의 연쇄」, 『歷史學報』 240.
- 허중, 2005, 「梁啓超의 ‘新史學’과 近代國家論」, 『역사와 경계』 54.
- 顧湖, 1993, 「顧頡剛與傅斯年在青年時代的交往」, 『文史哲』 1993(2).
- 郭旭東, 2003, 「“殷墟漂沒說”與中國考古學的科學化進程」, 『考古與文物』 2003(3).
- 杜正勝, 1995, 「從疑古到重建」, 『中國文化』 12.
- 桑兵, 1997, 「伯希和與近代中國學術界」, 『歷史研究』 1997(5).
- 宋廣波, 2011, 「從《日記》看夏鼐的學術人生」, 『中國文化』 34.

- 安志敏, 2000, 「中國近代考古學的先驅-梁思永先生」, 『考古』 2000(7).
- 王世民, 2002, 「夏鼐陳請梅貽琦校長准予延長留學年限的信函」, 『清華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2(6).
- 王興, 2022, 「夏鼐與梁思永: 兩代考古學人的交往與傳承」, 『考古』 2022(7).
- 李光謨, 1989, 「李濟與殷墟考古」, 『殷都學刊』 1989(3).
- _____, 2004, 「從一份自撰簡曆說起」, 『從清華院到史語所-李濟治學生涯瑣記』, 清華大學出版社.
- 李銳, 2009, 「疑古與重建的糾葛-從顧頡剛, 傅斯年等對三代以前古史的態度看上古史重建」, 『清華大學學報』 2009(1).
- 張光直, 1988, 「人類學派的古史學家李濟先生」, 『歷史月刊』 1988(9).
- _____, 1999,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中國考古學論文集』, 三聯書店.
- 張麗梅·吳鴻保, 2015, 「“疑古時代”“李濟時代”與中國考古學的學派問題-以顧頡剛, 李濟和蘇秉琦為中心的討論」, 『社會科學論壇』 2015(5).
- 張立東, 2003, 「李濟與西陰村和夏文化」, 『華夏考古』 2003(1).
- 張書學, 1994, 「顧頡剛與傅斯年治學異同論」, 『東嶽論叢』 1994(1).
- 莊向陽, 2011, 「梁思永: 多有開創的“天才考古學家”」, 『雲南教育(視界綜合版)』 2011(4).
- 湯惠生, 2017, 「夏鼐, 蘇秉琦考古學不同取向辨析」, 『中國社會科學』 2017(6).
- 夏鼐, 1948a, 「新獲之燉煌漢簡」,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19.
- _____, 1948b, 「齊家期墓葬的新發現及其年代的改訂」, 『考古學報』 3.
- _____, 1949, 「臨洮寺窪山發掘記」, 『考古學報』 4.
- _____, 1954, 「追悼考古學家梁思永先生」, 『新建設』 1954(6).
- _____, 1979, 「五四運動和中國近代考古學的興起」, 『考古』 1979(3).
- 黃增章, 1998, 「我國考古學先驅梁思永」, 『廣東史志』 1998(4).
- 黃海烈·蔣剛, 2009, 「考古學與中國上古史重建」, 『古代文明』 3(3).
- 喬志航, 2007, 「中國における「新史學」の形成と近代」,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52.

서구 유학생 출신 중국 초기 고고학자들의 활동과 그 지향

김정열

중국 고고학에는 독특한 지향성이 있다. 고고학을 역사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취급하며, 그 학문적 목적을 실물자료를 통해 역사의 복원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 유물과 유적의 형식학적 연구와 편년을 중시하는 강력한 실증주의 전통을 견지하는 반면 이론적 모색은 보기 드물다는 것, 중국문명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세계사적 시야에 위치시키려는 문화진화론적 지향 등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고고학은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면서도 강력한 역사지향성과 함께 자국 문명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선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고고학의 전통은 고고학이 중국에 이식되었을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배태되었다. 1919년에 시작된 오사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의 전통적 학술체계는 몰락하고, 중국의 전통적 역사체계를 흔들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파괴된 고사 위에 새로운 역사를 구축할 수 있기를 열렬히 희망했다. 그것으로 민족의 일체성을 확인하여 열강의 침략에 맞설 동력을 확보하고,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재확인함으로써 현실의 암울함을 대신하려 했다. 이 무렵 중국인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의 근대고고학은 그 육

구를 충족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듯했다.

이 과제를 깊어지게 된 주역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인물들은 대개 외국 유학생활동을 통해 고고학을 직·간접적으로 전공한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접촉하고 그것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중국 고고학의 발전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글은 중국에 고고학이 도입된 초기에, 유학생활동을 통해 서양의 근대 고고학을 학습하고 귀국 후에는 중국의 고고학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전통과 위상을 정립한 대표적인 연구자요 행정가였던 리지, 량쓰용, 샤나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활동과 학문적 지향을 살펴본 것이다.

혼란과 고난의 시대에 경이로운 활약을 보여준 이들에게는 제국주의의 침탈이라는 공통의 시대적 환경과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라는 공통의 활동무대가 있었다. 이것은 이들의 연구활동에 일련의 지향성을 부여했다. 그들은 고고학을 통해 새로운 민족사를 건설하려 했다. 전통 역사체계 속의 삼대는 물론 그 이상까지 소급되는 현대적 민족사의 수립은 그들의 공통된 목표였다. 그러나 그것은 현대과학의 세례를 받은 고고학적 수단으로 획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수립된 역사는 중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한 것이어야 했다. 중국인의 문화적 자부심은 그들에게 자신의 문화가 이차적이며 파생된 것이라는 서양인의 주장에 본능적 거부감을 부여했다. 다만 그것이 국수주의적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중국의 토양에서 자생한 중국의 문화와 역사가 세계적인 시야에서 취급되었을 때 비로소 더 빛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서양 유학생활동을 통해 이미 세계를 경험했으며, 그 무대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올바르게 평가받기를 희망했다.

주제어: 리지, 량쓰용, 샤나이, 고고학자, 유학생, 푸쓰넨, 역사어언연구소, 중국고고학

ABSTRACT

Activities and Orientations of Early Chinese Archaeologists with Western-educated Background

Kim Jungryol

Chinese archaeology exhibits a unique orientation. It treats archaeology as a subdiscipline of history, understanding its scholarly purpose as contributing to restoring history through material evidence. While emphasizing strong empirical traditions in the typological study and dating of artifacts and sites, theoretical exploration is relatively rare. This orientation includes a cultural-evolutionary emphasis on highlighting the distinctiveness of Chinese civilization while positioning it within a global historical perspective. Overall, Chinese archaeology, while focusing on the study of material culture, notably concentrates on affirming the uniqueness and excellence of its civilization, coupled with a robust historical orientation.

The social environment shaped the tradition of Chinese archaeology during the transplantation of archaeology to China. Influenced by the May Fourth Movement in 1919, China's traditional academic system collapsed, shaking the established historical framework. In such an

environment, Chinese intellectuals fervently hoped to construct a new history on the ruins of the old, seeking to reaffirm national unity, resist imperialist aggression, and alleviate the darkness of reality by reaffirming their rich cultural heritage. Western modern archaeology, entering the Chinese perspective around this time, seemed to be a powerful tool to fulfill these aspi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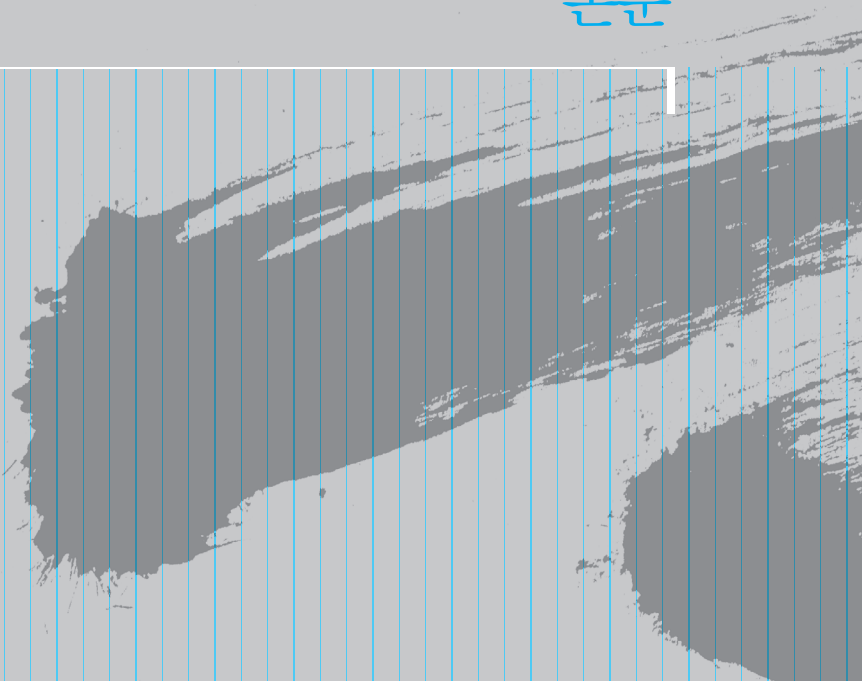
The key figures who took on this task and held a central position were generally researchers who had specialized in archaeology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studying abroad. They came into contact with the new discipline of archaeology in the West, introduced it to China in earnest, and subsequently exerted a decisive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Chinese archaeology's develop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ivities and scholarly orientations of prominent figures and administrators such as Li Ji (李濟, 1896~1979), Liang Shiyong (梁思永, 1904~1954), and Xia Nai (夏鼐, 1910~1985), who, during the early introduction of archaeology to China, studied Western modern archaeology during their overseas studies, then led research in Chinese archaeology upon returning home, thereby establishing the academic tradition and status of Chinese archaeology.

In a tumultuous and challenging era, those who demonstrated remarkable activities shared a historical context of imperialist aggression and a stage—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within the Academia Sinica. This provided a common direction to their research endeavors. They sought to construct a new national history through archaeology. The establishment of modern national histories, reaching back not only to the Three Dynasties within the traditional historical framework but even further, was a shared goal among them. However, it had to be

based on data obtained through archaeological means sanctified by modern science. The history thus established had to be crafted and developed by the hands of the Chinese. A deep-seated cultural pride among the Chinese countered Western assertions that their culture was derivative and secondary, though this did not imply a nationalist exclusivity. They believed that China's culture and history, rooted in its soil, could shine even brighter when considered on a global scale. Having already experienced the world through Western education, they hoped for a fair evaluation of China's history and culture on the international stage.

Keywords: Li Ji, Liang Shiyong, Xia Nai, Archaeologist, Western-educated Student, Fu Sinian,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Chinese Archaeology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수홍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계보와 저본에 대한 재검토

— 목판본을 중심으로

이호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수료

- I. 머리말
- II.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과 계보 관계
- III.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저본 자료
- IV. 맺음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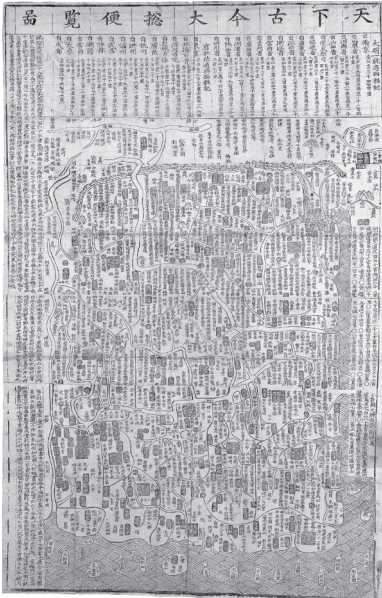


그림 1 『천하고금대총대람도』, 병오본-2

김수홍(金壽弘)이 1666년(현종 7)에 제작·간행한 『천하고금대총대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는 조선 후기에 가장 유명한 직방세계(職方世界) 중심의 전통적인 세계지도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그림 1). 해당 지도의 초판이 나온 이후, 재판본이나 손으로 전사된 필사본이 대량으로 등장했고 널리 유통되었다. 고지도 연구 영역을 놓고 볼 때 목판본과 필사본을 조사·수집하고 그 계보(系譜) 관계를 검토하여 저본 자료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천하고금대총대람도』의 판본(板本)과 계보, 그리고

저본(底本) 자료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전개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도의 판본과 계보에 대해 중국 학자 양위레이(楊雨蕾)¹는 한국 국내외에

* 투고: 2024년 1월 8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2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楊雨蕾, 2011, 「金壽弘의 <天下古今大總便覽圖> 板本 研究」, 『한국고지도연구』 3. 또한 2021년 11월 중국 중산대학 역사학과에서 주최한 “역사지도와 동아시아 이미지”로 주제로 한 제3회 아시아사 연구 워크숍에서 楊雨蕾가 『朝鮮金壽弘

소장된 5개의 판본을 발굴하여 판본별의 차이와 계보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저본 지도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찬²은 송나라의 「십오국풍지리지도(十五國風地理之圖)」, 게리 레드야드(Gari Ledyard)³는 명나라 양주(梁輞)의 『진곤만국전도고금인물사적(乾坤萬國全圖古今人物事跡)』, 배우성과 임종태는 명나라 유시(喻時)의 『고금형승지도(古今形勝之圖)』,⁴ 오상학⁵은 조군의(曹君義)의 『천하구변분야인적로정전도(天下九邊分野人跡路程全圖)』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위레이⁶는 명대 당시의 지도가 저본임을 판단하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채본이 저본 지도를 모사한 조선 지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저본 지도는 중국에서 유입된 ‘화이도(華夷圖)’ 계통, 특히 ‘형승도(形勝圖)’ 계통의 직방세계 중심의 전통적 세계 지도⁷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다.

〈天下古今大總便覽圖〉考論』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필자가 해당 발표문을 읽지 않았으므로 2011년 논문과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없다.

- 2 李燦, 1977, 「韓國古地圖의 發達」, 韓國圖書館學研究會,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203~204쪽;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342~343쪽.
- 3 Gari Ledyard, 1990, *Cartography in Korea*,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 pp. 267~269.
- 4 배우성, 2014,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66~90쪽; 임종태, 2012,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화』, 창비, 134~136쪽. 배우성과 임종태의 책에는 유시의 『고금형승지도』가 『천하고금형승지도』로 잘못 적혔다.
- 5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297~304쪽.
- 6 楊雨蕾, 2011, 앞의 글.
- 7 최근 국내외에서는 ‘형승도’가 많이 공개되면서 해당 계통의 지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주요 관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형승도’ 계통 지도는 宋代의 『화이도』와 계승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둘째, 명나라 유시의 『고금형승지도』는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형승도’이다. 셋째, ‘형승도’ 계통 지도의 특징은 중국을 지도의 중앙부에 크게 묘사하여 주변 국가를 증원대륙의 바깥에 작게 소략하게 나열한 것이다. 또한 ‘형승도’에서는 행정구역, 자연 산천뿐만 아니라 역사 사건, 인물, 경치 등 많은 정보가 포함되었다. 넷째, 16세기 말의 서구 근대 세계지도와 지리 지식의 중국 전래로 인해서 전통적 ‘형승도’ 계통 지도가 그의

기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 계보와 저본 자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해당 지도의 소장 현황과 계보 관계에 관한 발굴 및 정리 작업이 부족하다. 양위레이의 2011년 논문 이후에도, 다른 기관에서 소장된 다양한 판본의 목판본과 필사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가 추가로 발굴되었다. 필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10여 종 이상의 다른 판본 지도가 존재하지만 이들 판본에 대한 연구가 아직 전개되지 않았다.

또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저본 자료에 관한 연구는 재고찰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해당 지도가 중국 ‘형승도’ 계통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설에는 두 가지 보완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 ‘형승도’ 계통의 지도 사이에 차이가 있다. 16세기 후반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승도’ 계통의 지도는 서구식 세계지도의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 세부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형승도’ 계통의 지도를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저본으로 가정한 통설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형승도’ 이외의 다른 유형의 지도와 지리서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서 표현된 중원대륙과 주변 지역은 일견 중국의 ‘형승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상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해당 지도의 저본 자료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에 전해진 다양한 중국 지도와 지리서 자료를 자세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향을 받아 크게 변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서구 세계 지리 지식의 수용 정도에 따라 ‘형승도’ 계통 지도는 몇 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형승도’ 계통 지도는 조선, 일본, 서구에 일찍 유입되어 이들 지역의 세계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저술을 참조할 수 있다. Timothy Brook, 2020, *Completing the Map of the World: Cartographic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Europe*; 成一農, 2020 「“古今形勝之圖”系列地圖研究: 從知識史角度的解讀」, 『形象史學』 1; 劉亞惟, 2022, 「以夏變夷: 晚明“天下全圖”的域外知識來源與製圖觀」, 『嶺南學報』 16; 龔纓晏, 2023, 「中國古代單幅“天下圖”演變譜系」, 『中國社會科學』 2; 이호, 2023, 「金壽弘〈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배경 연구」, 『한국학』 46.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소장된 여러 판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최대한 수집·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판본, 특히 목판본 지도 사이의 계보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당 지도의 내용을 중국에서 유입된 다양한 지도와 지리서 자료를 비교하여,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했을 때 활용한 저본 자료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김수홍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과 계보 관계

1.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 소장 현황

양위레이는 제작연대가 1666년으로 명기된 목판본 2종과 제작연대가 불명한 필사본 3종을 포함하여, 총 5개 판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⁸ 그러나 필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한 12개 판본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에는 목판본 4종이 있으며, 지도 좌측 발문 말미에 쓰여 있는 연대 표기에 따라 제작연대를 병오(丙午, 1666)로 표시한 판본 3종, 갑자(甲子, 1684년 추정)로 표시한 판본 1종이 있다. 그리고 제작연대를 확정하기 어려운 필사본 8종이 있다.⁹ 이러한 지도의 소장 현황과 서지 정보를 정

8 楊雨蕾, 2011, 앞의 글.

9 현재까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원작자가 김수홍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판본의 제작 여대를 대체로 지도 발문의 말미에 기록된 연대에 의해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도의 제작자가 지도 원본을 그린 시점과 각공(刻工)이 해당 원도를 목판으로 제작한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경우, 다른 목판본 4종이 존재했으므로 실제의 제작 연대가 지도 발문에 표기된 연대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들 목판본 중에서 ‘병오중춘(丙午仲春)’과 ‘갑자계동(甲子季冬)’ 두 가지 다른 연대를 분명히 표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 목판본 지도를 병오본 계열과 갑자본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 동시에 판본별 내용 비교를 통해 이들 목판본의 계보 관계를 가급적 추정하겠다. 더불어 목판본과의 공통점

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국내외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 소장 현황 정리

版種	番號	地圖名	所藏處	制作時期	制作地	크기 (cm)	소장 기호
木 版 本	병오본-1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666년	미상	142.8×89.5	IA4472
	병오본-2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서울역사박물관	1666년(丙午)	미상	139.3×89.9	서울역사 013124
	병오본-3	『천하고금대총편람도』	日本 天理大學附屬 天理圖書館	1666년	미상	127×95	292.2-타 147
	갑자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甲子(1684년, 推定)	청도 선암	145×110	구입111
筆 寫 本	필사본-5	제목 없음 ("中國總圖")	국립중앙박물관	미상	미상	144×79.5	본관10050
	필사본-6	『... □□便覽輿地圖』	미상 (Mackay의 글에 수록됨)	미상	미상	132×84	미상
	필사본-7	제목 없음	서울역사박물관	미상	미상	110×77.5	서울역사 013125
	필사본-8	제목 없음 ("中國古地圖")	국립중앙도서관	미상	미상	142.5×82.3	古2812-1-43
	필사본-9	제목 없음 ('輿圖' 冊7 "大明一統志路程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미상	미상	151×94	고서(귀) 412 0-7
	필사본-10	제목 없음 ("天下輿地圖")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미상	미상	148×90	IA6613
	필사본-11	제목 없음 ("天下輿地圖")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미상	미상	123.6×87.1	IA6618
	필사본-12	『천하고금대총편람도』	국립중앙박물관	甲子	미상	100.1×73.6	건희3951

과 차이점에 따라 필사본과 목판본 사이의 관계를 함께 탐색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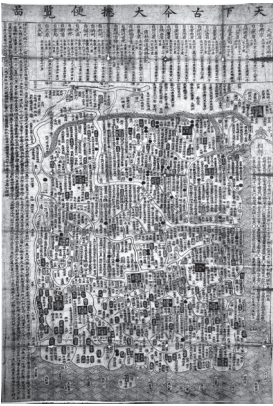


그림 2 병오본-1



그림 3 병오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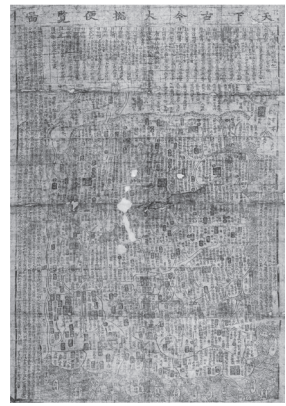


그림 4 갑자본

목판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중에서 제작연대가 병오(1666)로 표기된 것은 3종이 있으나, 실제로 지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들을 같은 판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표 1>에 있는 번호에 따라 이들 지도 중 제작연대가 병오년으로 표기된 판본을 병오본(丙午本)-1(그림 2), 병오본-2(그림 1), 병오본-3(그림 3)으로 구분하고, 제작연대가 갑자년으로 표기된 판본을 갑자본(甲子本)(그림 4)으로 명명하려 한다. 또한 필사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사본-5부터 필사본-12까지의 순서로 명명한다.

2. 판본별의 내용 비교와 특징

필사본보다 각 목판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 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도에 사용된 글자체, 산천과 만리장성의 묘사 방식, 부호의 사용, 그리고 주기(注記)의 내용 등을 통해 각 판본의 특징이 드러난다. 글씨체의 차이를 통해 목판본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4부 지도의 표제인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있는 ‘금(今)’자 부분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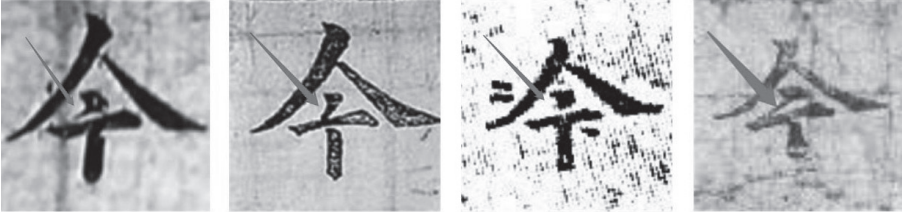


그림 5 네 가지 목판본 지도 표제에 있는 ‘금’자의 글자체 비교(왼쪽부터 병오본-1, 병오본-2, 병오본-3, 갑자본)

‘금’자의 사례를 통해 지도의 글씨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글자 모양의 측면에서 병오본-1과 병오본-2는 둘 다 반듯하고 붓끝이 날카로워 양자 간의 유사성이 높다. 그러나 병오본-3과 갑자본은 비교적 조잡하고 판각의 수준이 전자에 비해 낮다. 둘째, 병오본-1과 병오본-2를 비교

해보면, 병오본-1은 필기체에 더 가까워 글씨가 유창하며, 병오본-2는 보다 생경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느낌이 든다. 종합해보면, 4개의 지도에서는 서로 모방한 흔적이 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각각 다른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병오본-1의 판각 수준이 가장 높다.

목판본 지도의 글자체 차이는 <그림 6>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왼쪽 그림에서는 4종 지도의 주기 부분에 있는 ‘대명일통지도정기(大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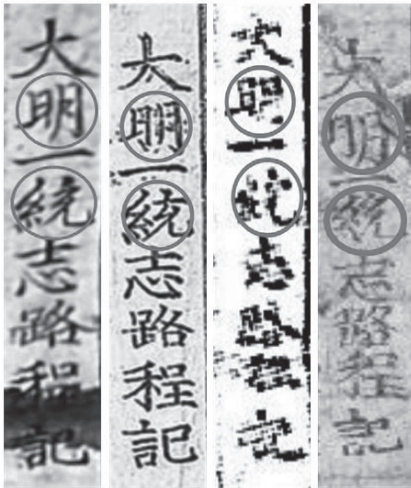


그림 6 네 가지 목판본 지도에 있는 ‘대명일통지도정기’의 글자체 비교(왼쪽부터 병오본-1, 병오본-2, 병오본-3, 갑자본)

一統志路程記)가 한데 정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기할 만한 글자는 ‘명(明)’자와 ‘통(統)’자이다.

첫째, ‘명’자의 경우, 병오본-1에 사용된 글자체는 역시 다른 판본에 비해 가장 유창한 편이다. 다른 판본에서는 ‘명’자의 오른쪽 ‘월(月)’자 안에 있는 2개의 가로획이 또박또박 쓰여 있는 반면, 병오본-1은 글자를 흘려 써서 가로획이 서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통’자의 경우, 병오본-2는 다시 한번 매우 딱딱한 느낌을 주며 글씨가 상대적으로 굵다. 셋째, 글씨의 완결성 면에서 병오본-3과 갑자본은 전자보다 상당히 떨어진다. 병오본-1은 가장 높은 판각 수준으로 인정된다. 넷째, 글자의 전체 구성과 배치 측면에서도 병오본-1과 병오본-2가 다른 판본보다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다.

다음에는 지도 도면상 산천 등 지물(地物)에 대한 묘사와 부호 사용의 차이를 통해 이들 목판본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 그리고 백두산에 대한 산천의 묘사와 지명 표시의 방식은 각각 다르다(그림 7).

〈그림 7〉을 통해 4부의 지도에 나타난 백두산의 묘사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병오본-1에 있는 백두산은 두 겹의 산봉우리로 그려져 있지만, 다른 판본의 지도에는 백두산이 단 하나의 산봉우리로 묘사되어 있다. 병오본-2와 갑자본의 묘사는 매우 유사하며, 병오본-3은 가장 소략하다. 또한 병오본-1에는 산봉우리가 더욱 곧고 뾰족하게 치솟아 있지만, 다른 판본에는 백두산이 평평하게 그려져 있다. 이 외에도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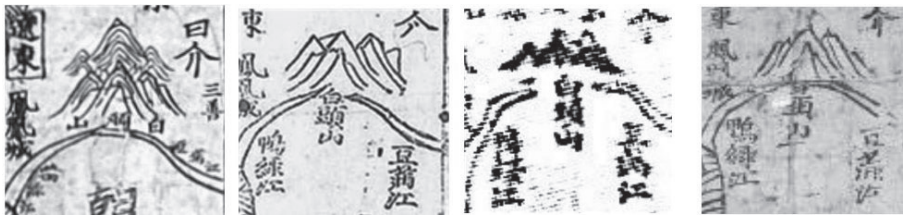


그림 7 압록강·두만강 유역, 그리고 백두산의 묘사 방식 비교(왼쪽부터 병오본-1, 병오본-2, 병오본-3, 갑자본)

세 가지 지명의 표시 방식과 위치도 차이가 있다. 병오본-1에는 해당 지명이 가로로 작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다른 판본에는 세로로 된 큰 글자로 쓰여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해보면, 이들 지도는 병오본-1, 병오본-2와 갑자본, 그리고 병오본-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황하(黃河)의 발원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이들 지도 판본의 차이와 특징이 명확히 드러난다(그림 8). <그림 8>에 묘사의 특징과 차이를 통해 또다시 병오본-1, 병오본-2와 갑자본, 그리고 병오본-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병오본-1, 병오본-2, 그리고 갑자본에서는 황하 발원지가 두 갈래의 지류가 합류한 八 모양의 곳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이들 세 가지 판본에서 모두 ‘황하원출자서역곤륜총령(黃河源出自西域崑崙葱嶺)’이라는 주기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오본-1에는 합류 지점이 산봉우리로 묘사되어 있고, 병오본-2와 갑자본에는 곤륜산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병오본-1, 병오본-2와 갑자본 두 가지 유형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보면 병오본-3에 있는 황하의 발원지는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다. 두 갈래의 지류 대신 병오본-3에는 단 하나의 강이 있으며, 발원지로 기재된 것은 곤륜산



그림 8 황하 발원지 지역의 묘사 방식 비교(왼쪽부터 병오본-1, 병오본-2, 병오본-3, 갑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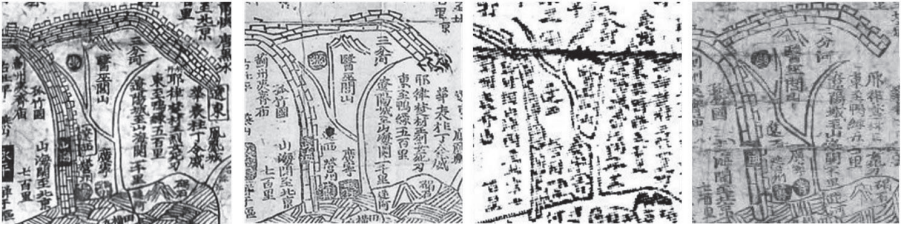


그림 9 만리장성의 동쪽 구간의 묘사 방식 비교(왼쪽부터 병오본-1, 병오본-2, 병오본-3, 갑자본)

이 아니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표현된 성수해이다. 게다가 곤륜산은 성수해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병오본-3에 있는 주기도 비교적 큰 차이를 나타낸다. 해당 판본에서는 곤륜산의 거리, 별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요약하면, 병오본-1에는 발원지인 곤륜산이 산봉우리의 형태로 강조되고, 병오본-2와 갑자본에는 곤륜산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생략되었으며, 병오본-3에는 성수해가 황하의 발원지로 표기되어 곤륜산은 별도로 묘사된다.

셋째, 만리장성의 묘사 방식도 각 판본마다 차이를 보인다. <그림 9>는 4개 판본의 지도에서 만리장성 동쪽 구간을 보여준다.

<그림 9>를 보면 병오본-3은 다른 판본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오본-3에는 산해관(山海關) 일대의 장성만 그려져 있으며, 요동 지역의 장성은 묘사되지 않았다. 다른 3개 판본에는 동일한 구간의 장성이 그려져 있지만, 성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각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병오본-1에는 성벽이 자세히 그려져 있으며 성벽돌과 성가퀴가 명확히 보인다. 이에 비해 병오본-2와 갑자본은 성벽 묘사가 간단하다. 그러므로 병오본-1, 병오본-2와 갑자본, 그리고 병오본-3과 같은 분류는 장성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판본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지도에 사용된 부호이다. <그림 10>은 몽골고원에 있는 일부 주기 부호의 비교이다.

<그림 10>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병오본-1에 있는 ○형과 □형 부호의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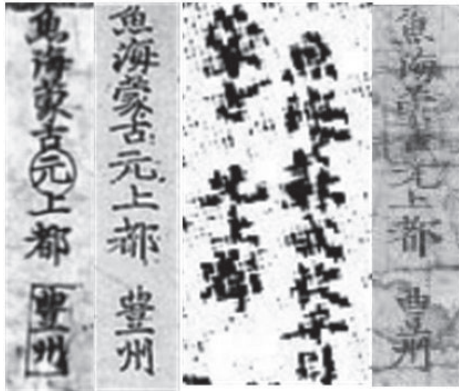


그림 10 몽골고원에 있는 일부 주기 부호의 비교(왼쪽부터 병오본-1, 병오본-2, 병오본-3, 갑자본)

용이다.¹⁰ 이들 부호를 통해 원(元)나라와 옛 지명인 풍주(豐州)가 강조되었다. 또한 연(燕), 송(宋), 월(越), 초(楚), 진(秦), 주(周) 등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 등은 ○형 부호로 표시되었으며, 무평(武平), 건주(建州), 심양(瀋陽), 요동(遼東), 요서(遼西), 양관(陽關), 흉노(匈奴) 등은 □형 부호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부호의 사용은 다른 판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병오본-3은 부호 사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기 문자상의 차이도 있다. 이 판본에는 풍주라는 지명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소무목양(蘇武牧羊)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 있다.

지도 도면상 묘사 방식을 검토한 후, 각 판본에 있는 주기를 비교함으로써 판본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각 판본 간의 오탈자를 비교해보겠다. <표 2>는 4종의 목판본 지도에 나타난 일부 오탈자를 비교한 것이다.

<표 2>를 통해 판본별로 주기의 정확도를 비교하면 병오본-1이 가장 높다. 반면, 병오본-2는 판각과 인쇄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오류가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병오본-3과 갑자본은 정확도 면에서 거의 비슷하며, 병오본-1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4개의 목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이를 가지며, 병오본-1, 병오

10 병오본-1에 나타난 ○형과 □형 부호의 필적에 의하면, 이들 부호는 지도 원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열람자가 추가로 기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2〉 목판본 지도 판본별 오타자 비교

순번	알맞은 글자	丙午本-1	丙午本-2	丙午本-3	甲子本
1	西洋國	西洋國	西淨國	西洋國	西洋國
2	武侯廟	武侯廟	武侯廟	武侯廟	武侯廟
3	山東 九百里	山東 九百里	山東 北百里	山東 九百里	山東 北百里
4	王十朋	王十明	王明	王十朋	王十朋
5	樊噲	樊噲	□噲	樊噲	樊噲
6	羽山	羽山	羽□	羽山	羽山
7	日本國	日本國	□□國	日本國	日本國
8	白雲樓	白雲樓	白白雲樓	白雲樓	白雲樓
9	漢口	漢口	漢△	漢口	漢口
10	王昭君村	王昭君村	□昭君村	王昭君村	王昭君村
11	宋玉	宋玉	朱王	宋玉	宋玉
12	先主廟	先廟	先三廟	先主廟	先主廟
13	金上京	金北京	金上京	金上京	金上京
14	烏桓	烏桓	鳩桓	烏桓	烏桓
15	玉河橋	玉河橋	王河搞	玉河橋	玉河橋
16	樓桑村	樓無村	樓棄村	樓棄村	樓棄村
17	劉先帝	劉先帝	劉光帝	劉先帝	劉先帝
18	汀州	汀州	河州	河州	河州
19	孝女	孝女	孝文	孝女	孝女
20	若耶溪	若耶溪	右耶溪	若耶溪	若耶溪
21	雲門	雲門	雲明	雲門	雲門
22	蕪湖	蕪湖	燕湖	蕪湖	蕪湖
23	田州	田州	雷州	田州	田州
24	卜商	卜商	上固	卜商	卜商
25	蔡邕	奈邑	奈邑	奈邑	奈邑
26	桃林	桃林	掩林	桃林	桃林
27	成皋	成泉	成泉	成泉	成泉

28	賈復	賈復	□復	賈復	賈復
29	滁州	滁州	徐州	徐州	滁州
30	鍾离昧	鍾离昧	钟离□	鍾离昧	鍾离昧
31	葛洪	葛洪	葛州	葛洪	葛洪
32	姑孰	姑□	□□	姑孰	姑孰
33	郴州	彬州	彬州	彬州	彬州
34	潯州	潯州	臨州	潯州	潯州
35	田州	田州	雷州	田州	田州
36	鼻天子墓	鼻天子墓	□天子墓	鼻天子墓	鼻天子墓
37	商於六里	商於六里	商州六里	商於六里	商於六里
38	丈人山	交人山	交人山	丈人山	交人山
39	楚雄	定雄	定雄	定雄	定雄
40		朝鮮	箕尾	없음	없음
정확률		81.63%	28.2%	79.48%	79.48%

본-2와 갑자본, 그리고 병오본-3 등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병오본-1은 판각과 인쇄의 질이 뛰어나며, 다른 판본에 비해 더 많은 부호를 이용하여 주기상의 오류도 가장 적다. 병오본-2와 갑자본은 지도 도면상의 묘사와 부호의 사용이 거의 일치하지만, 갑자본은 주기의 정확성이 전자보다 더 높은 편이다. 병오본-3은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글자체와 지역 묘사에서 다른 판본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병오본-3은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높고 오탈자가 적은 편이다.

위와 같이 각 목판본의 특징을 비교한 후, 각 세부 유형 사이의 차이를 통해 각 필자본을 제작했을 때의 기본 모델을 추측할 수 있다. <표 3>은 필자가 각 필자본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 지도 사이의 차이는 황하 발원지의 묘사 방식, 한반도의 분야인 기미(箕尾)의 표시, 서양국(西洋國)/서정국(西淨國)과 같은 오탈자 등의 특징에 따라 나타난다.

〈표 3〉에 따르면, 필사본-10에는 황하의 발원지인 곤륜산이 산봉우리의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어 병오본-1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필사본-5에 나타난 서정국과 필사본-6에 있는 일본국의 오타자는 모두 병오본-2의 판본 특징과 유사하여 이들 판본 간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필사본-7¹¹과 필사본-11은 거의 일치하며 일본국이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병오본-2와 비슷하지만, 서양국의 주기와 음산(陰山)에 대한 산봉우리 모양의 묘사가 있어 병오본-1과 같은 다른 목판본을 참조하고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필사본-12의 발문에서 “갑자계동중간우도주상엄(甲子季冬重刊于道州上嚴)”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갑자본에 의해 복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필사본-8과 필사본-9는 병오본-2와 갑자본 두 가지 판본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후자 사이의 혼합형(混合型)에 속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3〉 필사본 세부 내용 차이 비교

판본별	세부 특징	황하 발원지의 묘사	한반도의 분야 주기	西洋國/ 西淨國	陰山의 묘사	압록강- 두만강	日本國의 주기
筆寫本-5		∧형 합류지	箕尾	西淨國	없음	없음	日本國
筆寫本-6		∧형 합류지	箕尾	西洋國	산봉우리	세로쓰기	□□國
筆寫本-7		∧형 합류지	箕尾	西洋國	산봉우리	세로쓰기	없음
筆寫本-8		∧형 합류지	□□	없음	없음	세로쓰기	日本國
筆寫本-9		∧형 합류지	箕尾	없음	없음	세로쓰기	日本國
筆寫本-10		산봉우리	없음	西洋國	산봉우리	가로쓰기	日本國
筆寫本-11		∧형 합류지	箕尾	西洋國	산봉우리	세로쓰기	없음
筆寫本-12		∧형 합류지	없음	西洋國	산봉우리	세로쓰기	日本國

11 楊雨蕾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7은 김수홍의 작품이 아니라 참조한 중국 지도의 저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중국에서 제작된 ‘형승도’ 계통의 지도와 계보상의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꽤 존재

3. 각 판본의 계보 관계

고지도의 각 판본 사이의 선후관계와 계보에 관해서 일본인 지도학자 운노 가즈타카(海野一隆)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현상과 규칙을 발견·정리하였다. 첫째, 정밀의 대형 지도가 항상 없어지지만, 오히려 조잡한 소형 지도가 보존되어 왔다는 ‘정망조잔(精亡粗殘)’이라는 현상이 있다. 둘째, 매번의 묘사와 전사에 의해 지도의 오탈자와 퇴화가 증가하고 지도의 계보 관계를 보면 제작연대가 늦을수록 이러한 상황이 더욱 뚜렷하다는 ‘동계후열(同系后劣)’이라는 현상이 있다. 셋째, 지도의 내용이 단방향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서 같은 시기, 같은 사회에서 다른 정보와 묘사 방식에 의해 나타난 지도의 계보가 많다는 ‘다계병존(多系併存)’이라는 현상이 있다. 넷째, 거의 모든 지도가 그전의 옛 지도를 참고하고 새로운 지도에서 옛 지도의 흔적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구태잔유(舊態殘留)’라는 현상이 있다.¹²

운노 가즈타카의 이들 관점은 조선 후기 직방세계 중심의 전통적 세계지도에도 적용된다. 같은 지도의 여러 목판본과 필사본의 계보 관계를 판단할 때 그가 제기한 ‘동계후열’의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초기의 판본은 후기보다 더욱 정확하고 판각과 인쇄의 품질이 높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 법칙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구체적인 판본과 계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필사는 일단 운노 가즈타카의 ‘동계퇴화’ 이론에 따라 김수홍 지도 각 판본의 계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4개의 목판본 지도를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한다. 김수홍의 지도는 여러 가지 유형의 중국 지도를 참조하여 새롭게 창조된 것이며, 단 하나의 중국 지도 저본 자료로 귀결될 수 없다. 따라서 필사본-7은 목판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기반으로 복제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저본 자료와 지리 정보 출처에 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楊雨菴, 2011, 앞의 글.

12 海野一隆, 1996, 『地圖の文化史: 世界と日本』, 東京: 八坂書房,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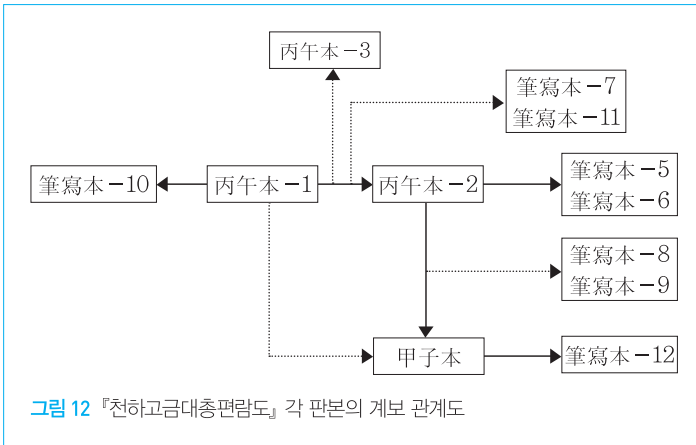
사이의 관계는 판본별의 특징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가장 초기에 제작된 판본 또는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초판과 가까운 판본은 병오본-1이다. 목판본의 원간, 재간, 번각 등 판본 간의 차이를 식별한 방법에 따르면, 초간본은 재간본 등 다른 번각본보다 도면이 더욱 선명하며 글자도 더 정확하다. 반면, 번각한 목판본에서는 오탈자가 원판보다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목판본 지도에서는 오류가 가장 적고 도면도 명료한 것은 바로 병오본-1이다. 따라서 병오본-1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원본이거나 그들 중에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판본으로 인식될 수 있다.

둘째, 병오본-2와 갑자본은 모두 병오본-1에 기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서로 판본상의 친연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김수홍 발문 부분의 문자 배치 방식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병오본-2는 병오본-1과 완전히 일치하며, 갑자본은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그림 1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병오본-2는 병오본-1에 의해 직접 번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갑자본은 병오본-2를 바탕으로 번각되었지만, 후자 지도에 존재하는 오류를 많이 바로잡아 병오본-1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병오본-3은 다른 3개의 판본과는 모두 다르며, 판본 간의 계보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 판본 지도에 있는 곤륜산을 강조하고 압록강·두만강·백두산의 지명을 세로로 쓴 것 등이 있으므로, 다른 두 가지 판



그림 11 병오본-1, 병오본-2와 갑자본 발문 상단 부분 비교



본 지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 새롭게 나타난 판본으로 인식할 수 있다. ‘중간’이라는 표현이 발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병오본-2와 갑자본 사이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각 필사본과 목판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하였다. 각 판본의 계보 관계는 <그림 1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III.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저본 자료

1. 중국 ‘형승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김수홍의 지도와 ‘형승도’ 계통 지도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어떤 판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어떤 ‘형승도’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필자는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하버드 옌칭 도서관에 보관된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을 선정하였다(그

림 13).¹³ 전자는 해당 지도 중에서 가장 초기에 제작된 판본으로 추정되며, 후자는 전통형 ‘형승도’로서 서구 지리 지식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비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송실대 판본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 다른 판본을 참고할 것이다.



그림 13 『황명분야어도고금인물사적』, 1643

1) 두 가지 지도 사이의 공통점

두 지도의 전반적 세계의 윤곽과 수록된 역사 및 지리 정보를 비교해보면, 다음 세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들 지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직방 세계 중심의 세계 인식이 일치한다. 두 지도에서 중원대륙은 중심부에 자리하고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국과 주변 세력은 주로 간략한 주기의 방식으로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다. 물론 김수홍 지도에서 중원대륙의 모양은 직사각형이며, 이는 『황명분야어도고금인물사적』에 나타난 보다 사실적 표현과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들 지도에 반영된 중국을 중심으로 한

13 해당 지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韋胤宗, 2016, 「加拿大英屬哥倫比亞大學亞洲圖書館藏〈九州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明代研究』 27; Timothy Brook, 2020, 앞의 책.

세계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독사용(讀史用) 지도의 특징, 즉 역사지도의 성격은 일치한다. 두 지도에 수록된 다양한 주기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표 4>를 작성할 수 있다.

<표 4>에 따르면, 두 지도에 수록된 정보의 종류는 거의 똑같다. 지리적 정보의 측면에서는 명나라의 행정구역, 군현, 산천, 노정 데이터, 그리고 주변국과 주변 세력의 국명과 위치가 두 지도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 정보

<표 4>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 수록 정보 비교

정보 유형 \ 지도명	『천하고금대총편람도』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
국가명	○	○
古國名	○	○
산천명	○	○
군현명	○	○
민족명	○	○
九州名	○	○
分野	○	○
노정	○	○
만리장성	○	○
전고	○	○
역사 인물(명나라 이전)	○	○
명승고적	○	○
무덤	○	○
歐羅巴國·利瑪竇	○	
중원 十三省 행정구역, 특산, 호구, 부세 등의 소개		○
주변국·주변 민족의 소개		○
조선 팔도 행정구역, 명산, 노정 등의 소개	○	

로는 고대의 구주와 별자리, 춘추전국 시대 제후국, 역사 전고, 인물, 명승고적, 무덤 등이 두 지도에 수록되어 있다. 물론 두 지도 사이에는 일부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구라파국(歐羅巴國)·이마두(利瑪竇, 마테오 리치) 등 서구에서 전해진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만, 전통형 ‘형승도’에는 서구와 관련된 지리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제작자 출신국의 차이로 인해 김수홍의 지도에는 조선에 관한 정보가 상세한 설명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중국의 ‘형승도’에는 조선을 다른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소략하게 언급하였다. 아무튼 두 지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수록된 정보의 종류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도 사용 목적의 관점에서 두 가지 지도는 동일한 역사지도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동남쪽 바다에서 『산해경』에 언급된 신화·전설 나라의 이름을 기록한 방식도 일치한다. 주지했듯이 ‘형승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전통적 ‘화이도’에서도 『산해경』에 나타난 ‘여인(女人)’, ‘소인(小人)’, ‘장인(長人)’, ‘모인(毛人)’, ‘천심(川心)’, ‘삼수(三首)’, ‘이신(二身)’ 등 나라의 이름을 동남쪽 바다에 나열하였다. 이러한 괴이한 나라를 해당 지역에 배치한 것은 당시 지도 제작자들이 알 수 없는 먼 곳의 지리적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을 반영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김수홍 지도의 동남쪽 바다에도 ‘소인’, ‘여인’과 같은 나라가 등장하였다. 일부 차이가 있는데, 첫째,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대인국’이 새롭게 나타난 점이다. 둘째, ‘형승도’보다 김수홍 지도에서 동남쪽 바다에 있는 이들 나라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다. 셋째, 김수홍 지도의 서남쪽 바다와 대륙의 서북쪽과 동북쪽에서 『산해경』에 있는 이들 불가사의의 나라의 이름이 대거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신화·전설에 나온 나라를 통해 알 수 없는 지역을 채우는 사고와 묘사의 방식은 유사하다.

2) 두 가지 지도 사이의 차이점

두 지도의 유사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들 간의 차이 또한 명확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도의

크기와 이로 인한 역사 및 지리 정보에 관한 주기의 양, 그리고 그를 표시한 방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먼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전통형 ‘형승도’의 크기와 넓이 차이를 정리한 결과를 <표 5>에 나타낸다.

<표 5>에 따르면 넓이의 측면에서 김수홍의 지도는 초기 ‘형승도’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 10% 정도 크다. 그러나 명말청초 시기에 유행한 『항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과 같은 지도와 비교하면 대략 1/5에서 1/3 정도 작게 나타난다. 가로세로비의 측면에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세로 길이는 가장 길며, 가로 길이보다 거의 60% 정도 길다. 반면, 전통형 ‘형승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차이가 있지만, 비율은 1:1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김수홍 지도는 5:3의 직사각형과 유사하며, ‘형승도’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두 지도는 같은 대상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직방세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크기 차이는 각각 지도에 포함된 정보의 양과 주기의 방식에 자연스럽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크기의 제한 때문에 김수홍의 지도에는 역사 전고, 인물, 명승고적 등의 정보를 주로 관련 지역의 명칭 주변에 단순한 이름으로만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통형 ‘형승도’에는 인물, 역사 사건, 명승지의 명칭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문장으로 부가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명나라의 수도인 부경(北京)·순천부(順天府)의 경우 김수홍은 북경 주변에 ‘우북평(右北平)’, ‘연산(燕山)’, ‘범양(范陽)’, ‘장화(張華)’, ‘조적(祖逖)’, ‘이하(二

<표 5>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전통형 ‘형승도’ 크기, 넓이 비교

지도명	크기(cm)	넓이(cm ²)	넓이 비교(%)
『古今形勝之圖』	115×100	11500	-9.83
『備志皇明一統形勢分野人物出處全覽』	127×102	12954	+1.57
『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134×119	15946	+25.03
『歷代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136×124	16864	+32.23
『九州分野輿圖古今人物事蹟』	131.5×116.5	15319.75	+20.12
『천하고금대총편람도』	142.5×89.5	12753.75	

河), ‘유주(幽州), ‘어양(漁陽), ‘통주(通州), ‘천수산(天壽山), ‘황금대(黃金臺), ‘대흥(大興), ‘옥하교(玉河橋) 등 다양한 옛 지명, 인명 및 산천명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보는 단순한 이름만 나열되어 있다. 반면,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은 북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고칭은 범양, 유도, 연산, 석진(析津)이며 지세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금나라와 원나라는 이어서 (북경을) 수도로 정하여 우리 태종(太宗)은 이곳으로 도성을 옮겼다”와 같은 긴 해설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국초에는 북평포정사(北平布政司)라고 한다”¹⁴라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그림 14).

주변국·주변 세력에 대한 주기의 방식도 비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랍국(眞臘國)의 경우, 김수홍의 지도에는 “둘레가 7,000리나 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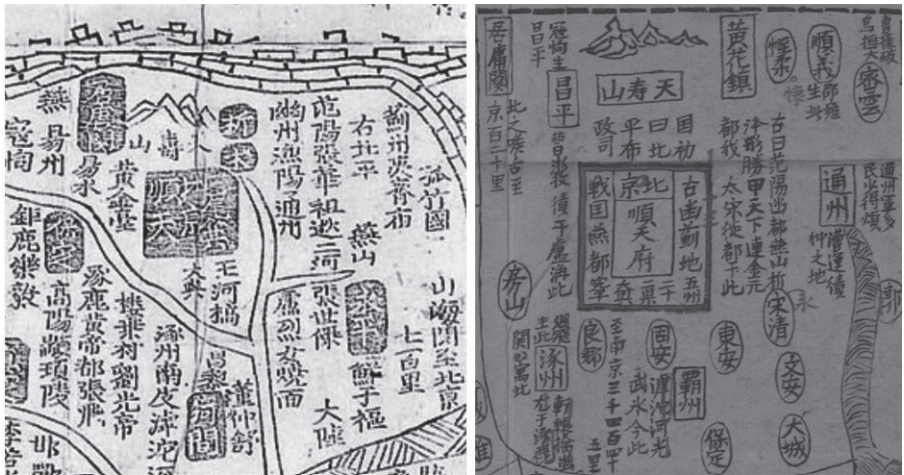


그림 14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 북경 일대의 세부 특징 비교

14 『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古曰, 范陽·幽都·燕山·析津, 形勝甲天下, 連金元都. 我太宗徙都于此.”, “國初曰, 北平布政司.”

15 『天下古今大總便覽圖』, “方七千里.”

라는 짧은 소개가 있지만, 전통형 ‘형승도’에는 “둘레가 7,000여 리나 된다. 점성(占城) 이남에 위치하며 촌락은 상당히 많다. 불교에 믿고 사치에 숭상한다. 홍무 초에는 공물을 바치며 현재는 오지 않는다”¹⁶와 같은 더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유구’와 ‘일본’, 서남쪽에 있는 ‘점성’, ‘섬라(暹羅)’, 서쪽 및 서북쪽에 있는 ‘서번(西蕃)’, ‘우전(于闐)’, ‘음산’, 북쪽과 동북쪽에 있는 ‘달단(韃靼)’, ‘홍노’, ‘여직(女直)’ 등 국가와 이민족 세력의 경우,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역시 이름만 나열했으나,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에는 그들의 역사와 지리 상황을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긴 주기의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두 지도 내에서 부호의 사용 방식과 명나라의 각급 행정구역인 부·주·현 등에 대한 수록과 표기, 경계선의 묘사는 각각 다르다. 우선,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의 발문에서는 명나라 각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부호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설명문에 따르면, “양경(兩京)과 성도(省都)는 모두 2개의 테두리가 있는 큰 정사각형으로, 이 외의 다른 속부(屬府)는 2개의 테두리가 있는 일반적 정사각형으로, 직례주(直隸州)는 2개의 테두리가 있는 작은 정사각형으로, 속부주(屬部州)는 1개의 테두리가 있는 정사각형으로, 현은 작은 동그라미로, 행도사(行都司)는 속부와 같은 2개의 테두리가 있는 일반적 정사각형으로, 부·주에 위치하지 않는 위는 마름모로 표시되었다. 마름모에 ‘소’자가 있는 곳은 수집소(守集所)이며, 선위사(宣慰司), 선무사(宣撫司), 군민소(軍民所)는 모두 2개의 테두리가 있는 직사각형으로, 안무사(安撫司)는 2개의 테두리가 있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장관사(長官司)는 1개의 테두리가 있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었다.”¹⁷ 그 밖에 주변국과 주변 세력은 모

16 『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地方七千餘里, 在占城南, 聚落頗多. 奉佛尚華侈, 洪武初奉貢, 今不至.”

17 『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京省城郭, 俱以大圍重方, 之外其餘各屬府分俱重圍方圖, 直隸州小重圍方圖, 屬府州單方圖, 縣小員圖. 在省都司不錄, 而在外行都司, 俱重圍方圖, 在府州衛不錄, 而在外衛分俱係斜角, 其小斜角有所

두 1개의 테두리가 있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었다.

이와 비교해보면 김수홍의 지도에는 세 종류의 부호¹⁸가 사용되었지만 서로 모순되고 혼재된 부분이 많아서, 지도의 부호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사용된 부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각된 큰 직사각형으로 명나라의 양경과 십삼성의 성도 및 만주에 있는 오국성(五國城)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난 오국성의 성격은 다른 지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는 명나라의 제1급인 성급(省級) 행정구역이 아니라, 만주에 존재했던 요·금대의 역사 지명이다. 그다음으로, 음각된 작은 직사각형으로 주로 명나라의 부·직례주 등을 가리켰다. 그러나 이 부호를 사용한 다른 성격의 지명도 상당수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산해관’, ‘거용관(居庸關)’, ‘선부(宣府)와 같은 명나라 구변 방어 체계에 있는 관성(關城)과 진성(鎭城), ‘섬주(陝州)’, ‘화주(華州)’, ‘한주(漢州)와 같은 부에 속한 산주인 속주, ‘여강(麗江)’, ‘영창(永昌)’, ‘진강(鎭康) 등 명나라가 원남성(元南省)에 설치한 군민부(軍民府)와 어이부(禦夷府), 심지어 ‘안남’, ‘달단’과 같은 주변국, 주변 세력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각된 동그라미로 분야설에 나타난 별자리와 12주의 주명을 표시하였다. <표 6>에 김수홍의 지도와 전통형 ‘형승도’에 있는 부호의 모양과 사용상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또한 지도에 수록된 행정구역의 지명과 경계선의 묘사 방식도 각각 다르다. 전술한 대로 전통형 ‘형승도’에서는 현부터 수도와 성도까지의 군현제의 지명 뿐만 아니라 도사, 행도사, 위와 소 등 위소제의 지명까지 체계화된 부호로 표시

字者，爲守集所。宣慰司·宣撫司·軍民府，重圍長方圖，安撫司重圍短方圖，長官司單圍長方圖。”

- 18 이 세 가지 부호 이외에도 송실대 소장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을 표시한 직사각형과 주변국과 주변 세력을 나타내는 동그라미 등 2개의 부호를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부호가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할 때 만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판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비슷한 부호를 찾을 수 없다. 둘째, 이러한 부호의 모양과 세부 특징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필사된 흔적이 많아서 후대의 열람자가 스스로 그린 것으로 추측된다.

〈표 6〉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의 부호 체계 비교

내용	지도명	『천하고금대총편람도』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
兩京과 省都			
屬府			
直隸州			
屬州	해당 없음		
縣	해당 없음		
行都司	해당 없음		
衛	해당 없음		
所	해당 없음		
宣慰司, 宣撫司와 軍民府	해당 없음		
安撫司	해당 없음		
長官司	해당 없음		
分野와 九州			해당 없음
주변국과 주변 세력	해당 없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통형 ‘형승도’에 수록된 각급 행정구역의 지명은 매우 자세하고 명확하다. 그 반면, 김수홍의 지도에는 부와 직례주 이상의 행정구역만이 대응하는 부호로 표시되며 대부분 속주와 현이 다른 일반적 주기와 함께 뒤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다. 게다가 명나라의 위소제 지명의 경우, 체계화된 부호가 채용되지 않으므로 누락된 지명은 더욱 많다. 경계선의 묘사에도 차이가 있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단지 각성의 경계선만 그려져 있지만, 전통형 ‘형승도’에는 성계뿐만 아니라, 같은 성 내에서 각 속부와 직례주 사이의 경계선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셋째, 중원대륙의 산천에 대한 묘사와 역사 및 지리 정보를 수록한 내용과 경향에서 명백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지도 모두 중원대륙을 묘사하지만, 산천에 대한 묘사의 방식과 특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황하의 발원지에 대한 묘사에서 김수홍의 지도에는 곤륜산이 표시되었지만 ‘형승도’에는 황하가 성수해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려졌다. 다음, 중화문명과 미개화된 대륙의 서쪽 지역을 구분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김수홍은 흑수(黑水)를 사용했으며 ‘형승도’의 제작자는 황하를 이용하여 화(華)와 이(夷)를 나누었다. 또한 같은 산천은 두 지도 중 하나에만 나타나거나 매우 소략하게 묘사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김수홍의 지도에는 화북평야에서 상고시대 옛 황하의 하도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만, ‘형승도’에는 이러한 하천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는 대운하(大運河)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승도’에는 이들의 유로가 매우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김수홍의 지도에는 대운하가 찾아보기 어렵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장강(長江) 유역에 있는 마호(馬湖), 동정호(洞庭湖), 파양호(鄱陽湖) 등 3개 큰 호수의 모양 묘사도 큰 차이가 보인다. 예를 들면, 김수홍의 지도에는 동정호로 흘러 들어간 몇 가지 지류가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어 그 호수도 오각별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에는 동정호가 장강의 일반적 하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그림 15).

넷째, 주변국·주변 세력에 대한 묘사와 인식은 두 지도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수홍의 지도에서 중원대륙 이외의 지역에 관한

해설은 전통형 ‘형승도’보다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만주 지역에 대한 묘사도 두 지도에서 판이하다. ‘형승도’에는 만주에서 활동한 여러 세력을 해설문의 형식으로 소개하며 다른 산천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 그러나 김수홍은 만주 지역의 자연 산천과 지명, 명승지 등을 다수 수록하였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지도의 서북쪽, 서남쪽과 동북쪽 가장자리에서 ‘무신국(無腎國)’,¹⁹ ‘장비국(長臂國)’, ‘장각국(長脚國)’ 등 『산해경』의 나라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형승도’에는 이들 기이한 나라가 주로 동남쪽 바다에만 나타났지만, 반면에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네 모서리에 이러한 나라의 지명이 뜻밖에도 나열되었다.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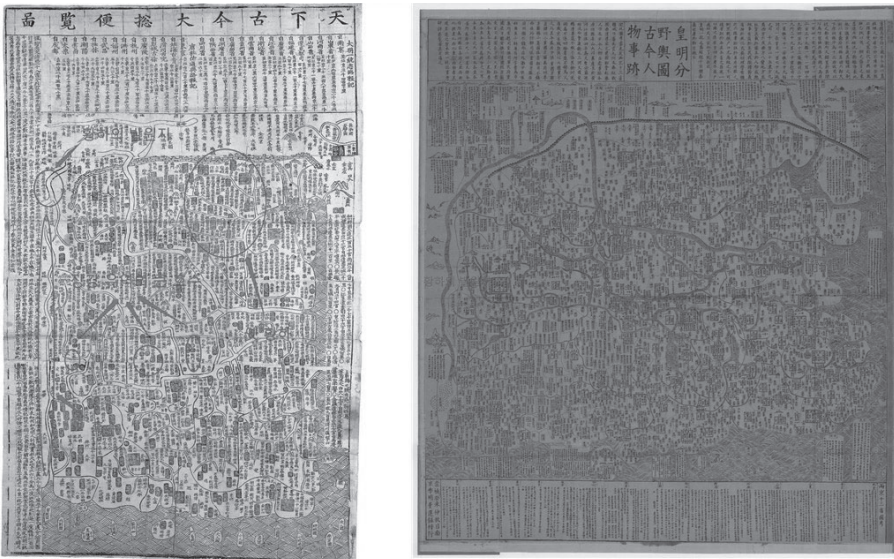


그림 15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 중원대륙의 묘사 차이 비교

19 오상학의 연구에서는 ‘무신국(無腎國)’이 ‘무계국(無臂國)’으로 해독되었다. ‘무계국’이 『산해경』에 존재한 나라의 이름이지만 이 글자의 전반부를 꼼꼼히 변별하면 ‘신(腎)’자로 확인할 수 있다. 오상학, 2011, 앞의 책, 300쪽.

으로 김수홍의 지도에는 ‘구라과국·이마두’라는 새로운 서구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었지만, 전통형 ‘형승도’에는 이러한 지식에 관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나타난 다양한 저본 자료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지도 내용과 제작자인 김수홍의 개인 상황을 분석해 보면, 해당 지도는 『황명분야여도고금인물사적』과 같은 전통의 중국 ‘형승도’ 이외에도 풍부한 지도와 지리서 자료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저본 자료는 ‘형승도’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지도와 지리서로 추론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가능한 저본 지도와 지리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만주와 몽골에 대한 주기와 묘사를 통해 김수홍이 나홍선 『광여도』 중 「삭막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광여도』가 조선에 전해진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해당 계통의 지도가 조선에 일찍 유입되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7세기 전반기에 조선에 전래된 중국 유서인 『삼재도회』, 『도서편』 등은 대량으로 『광여도』 속의 지도를 복제·인용하였다. 또한 ‘광여도’ 계통에 속한 『광여기』와 같은 지도책은 17세기 전반부터 조선 지식인들의 중국 지리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김수홍이 ‘광여도’ 계통의 지도를 접할 가능성은 타당한 추측이다.

김수홍이 ‘광여도’를 참조할 흔적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만주와 몽골 지역에 포함된 지명, 주기, 그리고 산천에 대한 묘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명의 경우 김수홍의 지도에 수록되고 전통형 ‘형승도’에 나타나지 않는 ‘오국성’, ‘황룡부’, ‘송화강’, ‘흑룡강’, ‘무평’, ‘회녕’, ‘금북경’, ‘금상경’, ‘심양’, ‘상건’, ‘평지’, ‘집녕’, ‘고삭방’, ‘대퇴사’ 등의 지명은 모두 『광여도』 중의 「삭막도」에 존재한다. 「삭막도」에 없고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만 등장한 지명은 의미가 불명한 ‘일개(日介)’라는 단 하나뿐이다.



그림 16 『광여도』 중 「삭막도」에 나타난 김수홍 지도와의 비슷한 묘사

다음으로, 주기의 경우 김수홍의 지도에는 다음 네 가지가, 즉 ‘고흑수말갈거(古黑水靺鞨居)·혼동강출장백산북우동류합송화강(混同江出長白山北又東流合松花江)’, ‘자경주지개평천리송림(自慶州至開平千里松林)’, ‘흑룡강(黑龍江)·입동해(黑龍江)’, ‘위노진(威虜鎮)·명태

종북정(明太宗北征)·남망북두(南望北斗)’ 등이 있다. 이러한 주기는 ‘형승도’에서 찾을 수 없고, 도리어 「삭막도」에서 ‘흑수말갈거(黑水靺鞨舊居)’, ‘자경주서남지개평지개송호왈천리송림(自慶州西南至開平地皆松號曰千里松林)’, ‘남망북두(南望北斗)·성조북정지차(成祖北征至此)·위노진(威虜鎮)’ 등 거의 동일한 표현이 발견된다(그림 16).

마지막으로, 산천에 대한 묘사의 경우 ‘형승도’에는 만주 지역의 하천을 전혀 그리지 않는 반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장백산에서 발원한 혼동강을 그려내며 동근 모양의 수도 내에서 송화강·황룡부의 지명을 표시하였다. 「삭막도」와 비교해보면 만주 지역 하천에 대한 묘사 방식도 비슷하다. 이 외에는 장강의 상류에 큰 호수의 모양으로 마호를 묘사한 것은 ‘광여도’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를 통해 김수홍 지도와 ‘광여도’ 계통 지도 사이의 친연성을 한층 더 입증할 수 있다.

둘째, 분야의 별자리와 구주에 대한 묘사와 부호의 특징을 통해 명말 일용유서인 『만보전서』에 실려 있는 「이십팔수분야항명각성지여총도(二十八宿分野皇

明各省地輿總圖)」 부류의 지도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김수홍 지도의 발문에서는 이미 명백하게 『만보전서』에 있는 노정 기록을 참조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그림 17). 또한 『만보전서』에는 일반적으로 명나라 각성(各省)의 행정구역과 분야를 묘사한 지도



그림 17 『만보전서』에 실려 있는 「이십팔수분야황명각성지여총도」

한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책 중 노정기를 인용한 김수홍이 같은 책에 있는 이들 지도를 참조하여 자신의 지도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두 지도의 별자리와 구주에 대한 묘사 방식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각 지역과 대응하는 28수와 구주의 이름이 해당 행정구역 지명의 앞에서 표시되며, 이와 함께 이러한 별자리와 구주의 정보는 음각된 동그라미 모양의 부호로 강조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만보전서』에 실려 있는 지도와 비교해보면 똑같은 묘사와 부호 양식이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2개 지도의 양경과 십삼성의 성도에 관한 묘사도 매우 일치한다. 이들 지도에서는 모두 음각된 큰 정사각형 부호를 사용하며, 부호 안에

20 명명 중국 일용유서에 실려 있는 지도의 판본과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 저술을 참조할 수 있다. 陳宗仁, 2022, 『Selden Map與東西洋唐人：地理知識與世界景象的探索(1500-1620)』, 臺北：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53~82쪽.

는 경·성의 명칭, 양경과 성도 소재의 속부, 그리고 해당 성역(省域)이 속한 분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김수홍의 지도에는 28수뿐만 아니라 12차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두 지도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도에 표시된 28수의 구체적인 위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분야를 나열한 방식과 부호 체계의 공통점을 통해 이들 사이의 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이십팔수분야황명각성지여총도」의 경·성을 표시한 직사각형 부호 내에 수록된 분야 정보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셋째, 지도의 네 모퉁이에 나타난 『산해경』 속의 신화·전설의 국명과 중화(西夷)를 구분한 ‘혹수’를 통해, 『도서편』에 수록된 불교지도인 「사해화이총도(四海華夷總圖)」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우선, 이 지도의 네 모퉁이에 있는 이들 불가사의의 나라는 주목을 요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원대륙 동남쪽 바다에서 몇 개의 『산해경』 중의 국가명을 표시한 것은 중국에서 제작한 전통적 화지도와 공유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심지어 명말 시기에 제작된 『황명여지지도(皇明輿地之圖)』에는 동북쪽 바다인 한반도 동편에서 ‘장비국’과 ‘장각국’ 두 국가명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김수홍의 지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이들 중국 지도 간의 차이점은 김수홍이 지도의 동남쪽과 동북쪽뿐만 아니라 서남쪽 바다에서 ‘천흉국(穿胸國)’, 그리고 서북쪽에서 ‘무신국’ 등을 표시한 것이다.

<표 7>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이십팔수분야황명각성지여총도」 경·성 분야 기록 차이 비교

성별 \ 지도명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이십팔수분야황명각성지여총도」
山西	畢·參	昴·畢
貴州	井·鬼	參·井·鬼
浙江	斗·牛	斗
山東	虛·危	危

흥미로운 점은 「사해화이총도」의 세 모서리에서 거의 동일한 국명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지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사해화이총도」의 서남쪽 바다에 나타난 국명인 ‘천홍국’이 아니라 ‘천심국’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매우 특기할 만한 것은 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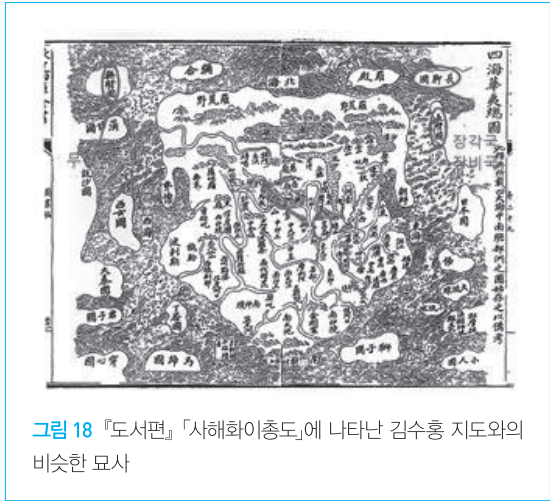


그림 18 『도서편』 「사해화이총도」에 나타난 김수홍 지도와의 비슷한 묘사

쪽에 위치한 ‘무신국’이다. 이 국명은 『산해경』에서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사해화이총도」의 제작자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김수홍의 지도에는 ‘무신국’이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 전자를 모방한 결과로 보이며 우연히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해화이총도」에도 중국과 서편의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혹수’를 이용한 묘사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묘사 방식은 ‘형승도’와는 다르며, 『천하고금대총편람도』와 일치한다(그림 18).

넷째, 혹수와 옛황하의 하도, 그리고 우임금 치수 사업과 관련된 산천, 고적 등 지명을 강조하는 묘사 방식을 통해 ‘우공도(禹貢圖)’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우공도’는 『상서』 「우공」편에 등장한 산천·행적구역·교통로 등 여러 유형의 지리 정보를 해설하고 묘사한 역사지도이다. ‘우공도’의 제작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공도’는 송대에 제작된 것이다. 당시에는 「우공소재수산준천지도(禹貢所載隨山濬川之圖)」, 「구주산천실증지도(九州山川實證地圖)」, 「우공구주산천지도(禹貢九州山川之圖)」, 「우공산천총회지도(禹貢山川總會之圖)」 등 다양한 지도가 등장

하였다. 송대 이후, 이러한 지도들은 중국 내에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김수홍의 시대에는 중국 지식인뿐만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에게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도로, 동시에 경전 학습을 보조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상서』 「우공」편 중의 상고시대 중국의 지리적 상황을 복원한 ‘우공도’에서는 당연히 우임금 치수 사업과 관련된 지명을 중점적으로 수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수홍 지도에서 강조된 흑수, 옛 황하, 상고시대의 구주, 그리고 「우공」편에서 나타난 정보 등은 ‘우공도’의 특징과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공도’에서 중원대륙과 서쪽 나라 사이의 자연적 분계선은 ‘형승도’ 중의 황하와는 달리 「우공」편에 나타난 흑수로 표현된다. 뿐만 아니라 옛 황하는 우임금이 친히 다스렸던 하도이기 때문에 ‘우공도’에서 매우 뚜렷하게 그려지는데, 이러한 묘사 방식은 역시 일반 ‘형승도’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도리어 김수홍의 지도에만 나타난 것이다(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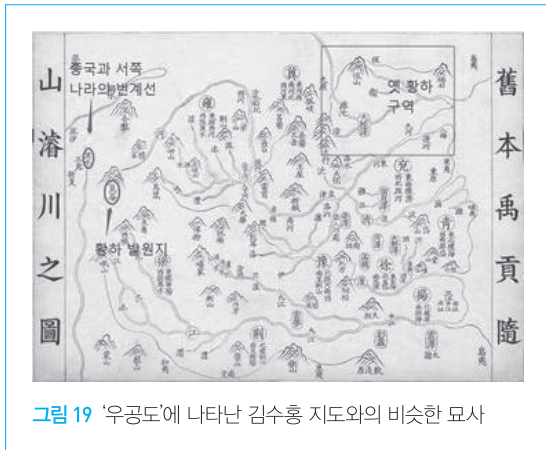


그림 19 '우공도'에 나타난 김수홍 지도와의 비슷한 묘사

다섯째, 이 지도의 발문과 주기는 『만보전서』, 『명일통지』 등 명나라의 지리서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먼저,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발문에서는 『만보전서』와 『명일통지』에 수록된 노정기를 직접 언급하며,

그중의 거리 정보를 대수 인용하였다. 또한 만주 지역의 혼동강에 관한 기술로는 “혼동강출장백산북우동류합송화강(混同江出長白山北又東流合松花江)”이라는 주기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문구는 『명일통지(明一統志)』에서도 나타나며, 구체적으로는 “혼동강원출장백산북유경오국성우북합송화강동주우해(混同江源出長白山北流经五国城又北合松花江东注于海)”²¹이다. 김수홍 지도에는 안남

국의 행정구역에 관한 “칠십부오주일백오십현(七十府五州一百五十縣)”과 같은 기록이 『명일통지』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안남국 부의 수를 17개로, 현의 수를 157개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김수홍이 『명일통지』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는 잘못하여 부수의 숫자 위치를 바꾸고, 동시에 현수의 일의 자리 숫자를 생략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김수홍 지도의 발문과 주기에 나타난 마테오 리치의 측천법(測天法) 및 “구라파국·이마두”라는 기록을 통해, 서구의 천문 지리 지식과 세계지도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다시피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는 서구 지리 지식을 명백히 언급한 것은 발문에 수록된 “명인이마두측천지법운, 이육십분위일도, 이지준지, 칙매일도, 경득이백오십리(明人利瑪竇測天之法云, 以六十分爲一度, 以地準之, 則每一度, 徑得二百五十里)”라는 기록 및 몽골고원 음산 서쪽에 표시된 “구라파국·이마두”라는 주기 두 가지밖에 없다.²² 기존 연구에 따르면, 김수홍은 마테오 리치라는 인물의 존재와 서구식 세계지도의 동아시아 전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서구식 세계지도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재고가 필요하다.

김수홍 지도 발문 중의 마테오 리치의 측천법에 관한 기록은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와 『양의현람도(兩儀玄覽圖)』에 나타난 “이육십분위일도, 육십초위일분, 이지준지, 칙매도경득이백오십리(以六十分爲一度, 六十秒爲一分, 以地準之, 則每度徑得二百五十里)”라는 문구가 거의 똑같다. 마테오 리치나 중국·조선 지식인의 저술에서 지구의 경위도와 1도의 길이를 다

21 『明一統志』 권25.

22 일부 학자들은 김수홍의 지도에 등장한 ‘서양국’을 새로운 서구 근대 세계 지리 지식 중의 서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형승도’에는 중원대륙의 서남쪽에 ‘서양국’을 표시한 것이 드물지 않다. 후자에 나타난 ‘서양국’은 명나라 초기 정화의 대원정 때에 북중시킨 인도양 일대의 여러 조공국인 ‘서양공헌제국(西洋貢獻諸國)’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수홍의 지도 역시 ‘서양국’이 중원대륙의 서남쪽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멸 선구 선교사 관념 중의 대서양 연안의 나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를 때 비슷한 기록이 자주 나타났지만, 김수홍이 인용한 것과 일치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면, 마테오 리치의 『건곤체의(乾坤體義)』에서 “천분삼백육십도, 지역동지 … 매일도광이백오십리(天分三百六十度, 地亦同之 … 每一度廣二百五十里)”²³라는 비슷한 기록이 있지만, 마테오 리치의 지도나 『천하고금대총편람도』에 나타난 문구가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른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즉, 김수홍이 마테오 리치 지도의 원본을 열람하지 않으며 다만 전사된 해설문 부분만 읽고 측천법에 관한 문구를 간접적으로 인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김수홍이 서구식 세계지도를 열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지만, 당시 이들 서구식 세계지도의 소장 상황과 김수홍이 접할 수 있는 서적의 범위를 고려해보면 그가 이러한 지도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조선 조정에서 지도의 제작·모사·보관 등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중앙 정부 기관이 없고, 주로 지도의 용도에 따라 병조, 비변사, 홍문관, 관상감 등은 지도 관련 사무를 처리하였다. 그중에서 서구식 세계지도를 일찍 입수하고 가장 많이 보관한 기관은 아마 예조 소속의 속아문인 홍문관인 것 같다. 1603년에 이광정과 권희가 북경에서 입수한 『구라파국여지도(歐羅巴國輿地圖)』 1권 6부를 홍문관에게 맡겨두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지도를 읽은 이수광은 지도의 제작자를 풍보보(馮寶寶)로 잘못 판별하지만, 홍문관에서 마테오 리치의 대형 지도를 보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²⁴ 그 후에는 홍문관도 많은 서구식 세계지도의 제작·모사·보관 등에 관여하였다. 김수홍의 시대에 홍문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서구식 세계지도를 접할 가능성은 다른 지식인보다 많다.

흥미로운 것은 김수홍은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 속한다. 김씨 본인은 예조나 홍문관의 관직에 임명된 경험이 없지만, 그의 가문과 친구 등 인적 관계가

23 『乾坤體義』卷上「天地渾儀說」.

24 『芝峯類說』卷2「地理部·外國」.

매우 밀접한 사람 중에서 예조나 홍문관의 매우 높은 관직을 지냈던 자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김수홍의 조항 중에서 조부인 김상용이 예조판서를, 종조부 김상현이 예조판서와 홍문관 부제학을, 김수홍의 아버지 때 중에서 종숙인 김광현이 홍문관 부제학을, 그리고 김수홍의 호를 지어준 장유가 예조판서와 홍문관 대제학으로 제수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김수홍의 주위에는 예조와 홍문관의 요직을 담당한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김수홍이 홍문관에서 서구식 세계지도를 접했다는 확증을 잡을 수 없지만, 홍문관에서 마테오 리치의 지도가 소장되어 있는 사실과 김수홍이 예조와 홍문관의 으뜸 벼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김수홍이 이러한 친우를 통해 홍문관에 소장된 서구식 세계지도를 직접 열람했다는 추론은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일곱째, 명나라의 풍수지도(風水地圖)도 김수홍이 참고 가능한 자료 중 하나이다. 『삼재도회』에 실려 있는 「중국삼대간도(中國三大幹圖)」는 명나라에서 매우 유행한 풍수지도로, 지도에 있는 여러 산천의 묘사 방식에서 김수홍의 지도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해당 지도에서는 흑수를 중원대륙의 서쪽에 표현하고, 다음으로 옛 황하의 수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동정호의 모양을 오각별 모양으로 그렸다. 이러한 특징들은 김수홍의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중국삼대간도」에서는 황하의 발원지가 성수해에 표시되고, 파양호가 과장하게 묘사된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김수홍이 지도를 제작할 때 명나라의 다양한 지도와 지리서를



그림 20 『삼재도회』 「중국삼대간도」

광범위하게 참고하고 활용했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그림 20).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김수홍이 제작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다양한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그들 사이의 계보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김수홍의 지도를 17세기 중후반에 중국에서 조선에 유입된 다른 지도·지리서와 비교하여 가능한 다른 저본 자료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목판본 4종, 필사본 8종으로 총 12개 다른 판본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 병오본-1이 원본이거나 원본과 가장 유사하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병오본-2는 전자에 의해 직접 번각된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소장 갑자본은 병오본-2를 바탕으로 번각되었지만, 후자 지도 중의 오류를 많이 바로잡아 병오본-1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 소장 병오본-3은 병오본-2와 갑자본 사이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중국의 ‘형승도’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지도이다. 비록 김수홍의 지도와 ‘형승도’가 표면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를 보여주지만,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지도의 크기와 이로 인한 역사 및 지리 정보에 관한 주기의 양, 그리고 그를 표시한 방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이어서 부호의 사용 방식, 명나라의 각급 행정구역에 대한 수록과 표기, 그리고 경계선의 묘사는 서로 다르다. 또한 중원대륙의 산천에 대한 묘사, 그리고 역사와 지리 정보를 수록한 내용과 경향에서 명백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주변 세력에 대한 묘사와 인식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김수홍이 해당 지도를 제작했을 때 다른 지도와 지리서 자료를 활용했음을 입증하였다. 내용 비교와 김수홍의 생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가능한 저본 자료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나홍선 『광여도』 중 「삭막

도」이다. 둘째, 명말 일용유서인 『만보전서』에 수록된 「이십팔수분야황명각성 지여충도」 부류의 지도이다. 셋째, 『도서편』에 수록된 불교지도인 「사해화이충도」이다. 넷째, 송대 이래의 ‘우공도’이다. 다섯째, 『만보전서』, 『명일통지』 등 명나라의 지리서이다. 여섯째, 서구식 세계지도이다. 일곱째, 『삼재도회』에 실려 있는 「중국삼대간도」이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많은 판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조사하고 수집하려 노력했으나, 필자가 발굴하지 않은 판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로 목판본을 중심으로 그들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계보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필사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저본 자료 이외에도 더 많은 참고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이러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및 고지도

- 『乾坤體義』,
『廣輿圖』 「朔漠圖」,
『圖書編』 「四海華夷總圖」,
『萬寶全書』 「二十八宿分野皇明各省地輿總圖」,
『明一統志』,
『三才圖會』 「中國三代幹圖」,
『芝峯類說』,
『天下古今大總便覽圖』,
『皇明分野輿圖古今人物事蹟』,
『欽定書經傳說彙纂』 「禹貢所載隨山濬川之圖」.

단행본

- 배우성, 2014, 『조선과 중화: 조선이 꿈꾸고 상상한 세계와 문명』, 돌베개.
오상학, 2011, 『조선시대 세계지도와 세계인식』, 창비.
李燦, 1977, 「韓國古地圖의 發達」, 韓國圖書館學研究會,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_____,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임종태, 2012, 『17,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서구 지리학 이해: 지구와 다섯 대륙의 우회』, 창비.
陳宗仁, 2022, 『Selden Map與東西洋唐人: 地理知識與世界景象의 探索(1500 - 1620)』, 臺北: 中央研究院臺灣史研究所.
海野一隆, 1996, 『地図の文化史: 世界と日本』, 東京: 八坂書房.

Brook, Timothy, 2020, *Completing the Map of the World: Cartographic Interaction between China and Europe*.

Ledyard, Gari, 1990, *Cartography in Korea*, J. B. Harley and David Woodward, *The History of Cartography*, vol. 2, Book. 2.

논문

楊雨蕾, 2011, 「金壽弘의 <天下古今大摠便覽圖> 板本 研究」, 『한국고지도연구』 3.

이호, 2023, 「金壽弘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배경 연구」, 『한국학』 46.

龔纓晏, 2023, 「中國古代單幅“天下圖”演變譜系」, 『中國社會科學』 2.

成一農, 2020, 「“古今形勝之圖”系列地圖研究：從知識史角度的解讀」, 『形象史學』 1.

韋胤宗, 2016, 「加拿大英屬哥倫比亞大學亞洲圖書館藏<九州分野輿圖古今人物事跡>」, 『明代研究』 27.

劉亞惟, 2022, 「以夏變夷：晚明“天下全圖”的域外知識來源與製圖觀」, 『嶺南學報』 16.

김수홍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판본·계보와 저본에 대한 재검토

— 목판본을 중심으로 —

이호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김수홍이 제작한 『천하고금대총편람도』의 다양한 판본을 조사·수집하여 그들 간의 계보 관계를 검토하였다. 또한 김수홍의 지도를 17세기 중후반에 중국에서 조선에 유입된 다른 지도·지리서와 비교하여 가능한 저본 자료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목판본 4종, 필사본 8종으로 총 12개 다른 판본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병오본-1이 원본이거나 원본과 가장 유사하며,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병오본-2는 전자에 의해 직접 번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소장 갑자본은 병오본-2를 바탕으로 번각되었지만, 후자 지도 중의 오류를 많이 바로잡아 병오본-1을 참조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 소장 병오본-3은 병오본-2와 갑자본 사이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천하고금대총편람도』는 중국의 ‘형승도’를 저본으로 하여 제작된 지도이다. 비록 김수홍의 지도와 ‘형승도’가 표면적으로는 매우 유

사한 직방세계 중심의 세계지도를 보여주지만, 두 가지 내용을 검토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우선, 지도의 크기와 이로 인한 역사 및 지리 정보에 관한 주기의 양, 그리고 이를 표시한 방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이어서 부호의 사용 방식, 명나라의 각급 행정구역에 대한 수록과 표기, 그리고 경계선의 묘사는 서로 다르다. 또한 중원대륙의 산천에 대한 묘사, 그리고 역사와 지리 정보를 수록한 내용과 경향에서 명백한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주변 세력에 대한 묘사와 인식은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김수홍이 해당 지도를 제작했을 때 다른 지도와 지리서 자료를 활용했음을 입증하였다. 내용 비교와 김수홍의 생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가능한 저본 자료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 나홍선 『광여도』 중 「삭막도」이다. 둘째, 명말 일용유서인 『만보전서』에 수록된 「이십팔수분야황명각성지여충도」 부류의 지도이다. 셋째, 『도서편』에 수록된 불교지도인 「사해화이충도」이다. 넷째, 송대 이래의 ‘우공도’이다. 다섯째, 『만보전서』, 『명일통지』 등 명나라의 지리서이다. 여섯째, 서구식 세계지도이다. 일곱째, 『삼재대회』에 실려 있는 「중국삼대간도」이다.

이 글에서는 최대한 많은 판본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를 조사하고 수집하려 노력했으나, 필자가 발굴하지 않은 판본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주로 목판본을 중심으로 그들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계보 관계를 검토하였으며 필사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저본 자료 이외에도 더 많은 참고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이러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을 것이다.

주제어: 김수홍(金壽弘),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 판본(板本), 계보(系譜), 저본(底本), ‘형승도(形勝圖)’, 목판본(木版本)

ABSTRACT

Reexamination of the Edition, Genealogy and Origin about Kim Su Hong(金壽弘)'s *Cheonha Gogeu Daechong Pyeollamdo*(天下古今 大總便覽圖): Focus on the Block-Printed Edition

Li Hao

This study investigated and collected various editions of *Cheonha Gogeu Daechong Pyeollamdo*, created by Kim Su Hong in the late Joseon period, to organize their genealogical relationships. Additionally, we compared Kim Su-hong's map with other maps and geographical works produced during the same period to examine possible prototype map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a total of 12 different editions remain, comprising 4 woodblock prints and 8 hand-copied prints. Among them, the woodblock print "Byeong-U(丙午) Edition-1," kept in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appears to be the original edition or the closest to the original edition, while "Byeong-U Edition-2," kept in Seoul Museum of History, is a direct reproduction of the former. The woodblock print "Gap-Ja(甲子) Edition," held at NGII's

National Map Museum of Korea, is likely based on “yeong-U Edition-2” but may have referred to “Byeong-U Edition-1” to correct errors. Lastly, “Byeong-U Edition-3,” collected in Tenri central library, Tenri University, Japan, is presumed to have been created between “Byeong-U Edition-2” and “Gap-Ja Edition.”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Cheonha Gogeum Daechong Pyeollamdo*, is a map produced using China’s “Hyeongseung Do(形勝圖)” as a prototype. Although Kim Su-hong’s map and “Hyeongseung Do” superficially exhibit a highly similar Sinocentric world map with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 meticulous examination reveal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irstly, there is a distinct contrast in the size of the maps, leading to variations in the volume of historical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and their representation methods. Furthermore, differences are evident in the usage of symbols, the inclusion and notation of administrative divisions in the Ming Dynasty, and the portrayal of boundary lines. Additionally, there are notable disparities in the depiction of topography in the central region, as well as in the content and trends related to historical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Lastly,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portrayal and percep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powers.

These differences have demonstrated that Kim Su Hong utilized various maps and geographical resources when creating the map. Through content comparisons and an examination of Kim Su-hong’s life, we can infer the existence of seven possible prototype materials. Firstly, the map of *Shuomo TU*(朔漠圖) from Luo Hongxian(羅洪先)’s *Guangyu TU*(廣輿圖). Secondly, maps similar to *Ershibaxiufenyehuang minggeshengdiyu ZongTu*(二十八宿分野皇明各省地輿總圖) included in

the Ming Dynasty's practical guidebook *Wanbaoquanshu*(萬寶全書). Thirdly, the Buddhist map *Sihaihuayi ZongTu*(四海華夷總圖) found in the *Tushubian*(圖書編). Fourthly, the “Yugong Tu(禹貢圖)” maps from the Song Dynasty onwards. Fifthly, geographical works from the Ming Dynasty such as *Wanbaoquanshu*(萬寶全書) and *Mingyitongzhi*(明一統志). Sixthly, Western-style world maps. Lastly, *Zhongguosandagan Tu*(中國三代幹圖) included in *Sancaituhui*(三才圖會).

In this study, efforts were made to investigate and collect as many editions of the *Cheonha Gogeu Daechong Pyeollamdo* as possible, but it is acknowledged that editions not uncovered by the author may still exist. Additionally, the study primarily focused on woodblock editions, examining their content, characteristics, and lineage, while recognizing the need for a more in-depth analysis of manuscript editions. Furthermore,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may be additional reference materials beyond the aforementioned original sources. These shortcomings and challenges will remain as task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Kim Su Hong, *Cheonha Gogeu Daechong Pyeollamdo*, edition, genealogy, origin, “Hyeongseungdo”, Block-Printed Edition

19세기 후반 불평등한 국제사회와 주권평등원칙

– 식민주의적 ‘문명론’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오시진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I. 머리말
- II. 19세기 국제법 체계상 주권평등 개념에 대한 이견
- III. 국제법상 문명론과 이에 대한 비유럽권 국가들의 대응
- I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에 국제법이 차별적인 식민주의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¹ 물론, 최근 국제법학의 저서나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사로 취급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국제법 체계는 이와 무관하고 과거에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체계는 이를 극복하여 보편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체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국제법 체계가 확립된 시기가 19세 말 이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² 바로 이 시기에 당시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이 비유럽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즉, 국제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면서 동시에 식민지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국제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비판법학이나 ‘제3세계 국제법학(TWAIL)’의 견해가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는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국제법이 주권평등원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이 질문이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이고 평등하다고 보았다면, 식민지배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투고: 2024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4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근대 국제법상 문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였음을 밝힌다.

1 Antony Anghie, 1999, “Finding the peripheries: sovereignty and colonialism in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0, No. 1, pp. 1~71.

2 Antony Anghie, 1999, 위의 글, p. 1.

일반적으로 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 시점을 주권평등원칙의 기원으로 잡는다. 그러나 형식주의적 주권평등원칙이 정립된 시점이 생각보다 늦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불간섭원칙(principle of non-interference)이 법원칙으로 등장한 것은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주권평등원칙이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문명론의 영향으로 주권평등원칙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문명론이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문명화 담론을 일컫는데, 소위 미개, 야만 민족을 문명화할 책무 차원에서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지 않았고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국제법이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식민주의적 논리를 극복하여 주권평등원칙을 확립할 수 있었을까?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9세기 초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국제사회가 급변하였고 주권 법리도 변화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이 완성된 시점이 생각보다 늦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웨스트팔리아체계에 의해서 주권평등원칙이 시작되었다는 ‘신화’는 이미 최근 국내외 연구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³ 웨스트팔리아 조약체계의 신화를 우호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이론적으로 이때를 주권평등원칙의 기원이라 할 만한 요소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가 주권평등체제의 시작점을 1815년 빈체제로 보기도 하는데, 20세기 초로 기점을 잡기도 한다.⁴ 왜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오늘날의 형식적 주권평등원칙이 확립되었을까?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의미는 국가라 인정되면 그 실질적인 평등성을 판단하지 않고 법인격상 형식적으로 평

3 Andreas Osiander, 2001, “Sovereignt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Westphalian myth”,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5, No. 2, pp. 251~287; 김성원, 2016, 「창조된 역사, 웨스트팔리아조약의 합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평론』 제44호, 1~40쪽.

4 Luke Glanville, 2013, “The Myth of “Tradi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7, pp. 79~90.

등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글은 바로 이 부분, 즉 주권평등원칙이 확립된 배경에 방점을 두고 있다.

19세기는 주권국가에 영토 개념이 결합되는 시기이고 유럽 국가 내의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 파괴되는 시기였다. 즉, 프랑스혁명으로 인해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과거 봉건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본다. 그러나 빈체제가 평등한 체제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빈체제는 강대국에 의한 체계모니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나아가 당시 국제법 저서 등을 검토해보았을 때, 국제사회의 활동자들은 주권국가만이 아니었다. 반주권국가, 주권자 개인, 회사 등이 국제법 저서에서 같이 논의되었다. 즉, 국가만 법인격을 갖는 오늘날의 국제법 체계와 다른 양상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국제법 체계는 문명론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범위 차원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한 부분도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서양 국가들 간의 문화적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가족(Family of Nations)’을 국제사회의 범위로 보았다.⁵ 국가들의 가족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당시에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국가들의 가족이라 여겼고 이들 간에만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⁶ 따라서 이에 속할 경우 범주체성을 제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가들의 가족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국제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런 국가들과 조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불평등 법리의 배경에는 ‘문명 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이 있었고, 이 기준이 불평등 담론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⁷ 이에 따라 유럽을 배경으로

5 Harald Kleinschmidt, 2016, “The Family of Nations as an Element of the Ideology of Coloni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8, pp. 278~316.

6 James Sloan, “Civilized Nations”, *Max Planck Encyclopedia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Article last updated: April 2011), para. 7.

7 Gerrit W. Gong,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하는 기독교 문명권에 포섭되지 않는 소위 비문명국은 주권 자체를 향유하지 못하거나 문명국에 비하여 열등하게 취급되며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⁸ 나아가 사회진화론의 전개로 문명론이 국제사회에 적용되면서 국제사회의 국가들은 문명, 미개(반개), 야만으로 구분지어졌다. 따라서 주권국가라 할지라도 등급이 나누어져 하등하게 취급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도 독립을 선언한 직후 유럽국가들에 의해 열등하게 취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문명 간의 접촉은 국제법 체계의 지각변동을 촉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위 비문명국은 ‘국가들의 가족’에 입회하고자 시도했다. 동시에 이들 중 문명론적 법리를 부정하여 평등한 국제사회를 구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1899년 및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등에서 이러한 차별에 반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불평등한 요소를 배제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평등한 주권국가체계가 구성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유럽의 국제법 체계가 비유럽국을 타자화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타자화에 비유럽국이 대항한 문제로 문명 간의 접촉 사안이 해석될 부분도 있다.⁹ 달리 보면, 국제법 체계 내에서의 담론 형성과 그 대항 과정으로 법리가 형성되는 사안은 국제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이다.¹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에도 함의하는 바가 있다. 약소국일지라도 국제법의 법리로 자국의 법적 지위와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사실은 함의하는 바가 크다. 약소국일수록 국제법 법리 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pp. 3~5.

8 Gerrit W. Gong, 1984, 위의 책, pp. 5~6.

9 한국의 영토분쟁에 대하여 유럽 법실증주의 국제법에 대한 대항을 시도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 등을 참고할 수 있다(이석우, 2010, “한국의 영토분쟁의 해결에 이써 역사비평적 접근의 시도”,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47~63쪽).

10 제3세계의 반동정신이 미국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문화상대주의적 제3세계론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도 있다(옥창준, 2015, 「미국으로 간 “반동 정신” -체스터 보울즈의 제3세계」, 『사회와 역사』 제108권, 263~303쪽).

II. 19세기 국제법 체계상 주권평등 개념에 대한 이견

이 장에서는 19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주권평등 개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권평등 개념을 당시에는 다르게 해석하여 불평등한 주권국가론이 전개된 바 있다.

1. 법실증주의 체계와 주권평등원칙 개념 변화

오늘날 주권평등원칙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가 19세기에도 동일했을까? 주권평등은 국가 간의 권력, 무력, 경제 등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인격에 따른 평등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이 글에서는 ‘형식적’ 주권평등원칙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의미가 불간섭원칙, 국가면제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의미 구분이 필요하다.¹¹

비엔나회의(1815)에서부터 현대 국제법 체계까지 주권평등의 문제를 연구한 게리 심슨(Gerry Simpson)에 따르면 법적 측면에서 주권평등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¹² 심슨이 제시하는 주권평등의 의미는 형식적(Formal) 평등, 입법적(Legislative) 평등, 존재론적(Existential) 평등이다. 첫째, ‘형식적’ 평등이란 형식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우루(Nauru) 사건의 샤하부딘(Shahabuddeen) 재판관은 개별의견으로 ‘국가 평등 개념’은 ICJ 사건 당사자 국가에게 적용되는 근본 원칙이며 ICJ 앞에는 큰 국가나 작은 국가가 없고 모든 국

11 James Crawford, 2012,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449.

12 Gerry Simpson, 2004, *Great Powers and Outlaw States: Unequal Sovereign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2ff.

기는 완벽한 평등에 기초하여 ICJ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¹³ 즉, 사법적 평등으로 이해되는 평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입법적’ 평등이란 마치 국내 사회에서 모든 시민 개개인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향유하듯이,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을 만드는 다양한 입법과정과 활동에서 그 구성원인 주권국가는 모두 동등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심슨이 말하는 존재론적 평등이란 사실 위의 사법적 평등과 입법적 평등 이외의 국가로서 존재할 때 필요한 모든 평등을 말한다. 주권평등원칙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불간섭원칙, 국가면제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를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행정적 차원이라 단정하기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주권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안이 이에 다 포섭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등 개념들이 19세기 당시에 받아들여졌을까? 문제는 주권평등원칙을 달리 해석하여 부정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주권평등원칙이 어떠한 의미를 함의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오펜하임(Oppenheim)이 지적했듯이, 18세기 국제법학을 대표하는 학자는 바텔(Vattel)인데,¹⁴ 19세기 국제법학계는 법실증주의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자연법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던 바텔의 일부 이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중 하나가 주권평등원칙이다.¹⁵ 바텔은 주권평등원칙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자연으로부터의 동등함이 연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이 만연(prevail)하므로,

13 *Certain Phosphate Lands in Nauru (Nauru v. Austral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1992*, p. 270.

14 Lassa Oppenheim, 1912,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2nd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p. 132.

15 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32.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는 자연상태에서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자유인으로 간주되며, 자연으로부터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상속받는다. 이 점에서 힘이나 약점은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난쟁이는 거인만큼이나 사람이고, 작은 공화국은 가장 강력한 왕국보다 부족한 주권 국가가 아니다.¹⁶

바텔의 주권평등원칙은 자연 상태의 평등한 사람들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바텔의 주권평등원칙은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19세기는 법실증주의 체계로의 전환이 주권평등원칙의 근간인 자연적 평등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이론적 여건을 형성해주었다.

한편, 1815년 이후 나폴레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대국들이 만든 유럽협조 체제는 기존 주권평등원칙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었다.¹⁸ 비엔나회의(1815)에서 강대국(Great Powers)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였으며, 영국,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 4강이 스스로 유럽의 평화를 보장하는 특별한 지위를 향유한다고 정했다.¹⁹ 1815년 이전에 강대국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정치적 측면에서 강대국의 의의가 있었을 뿐, 이를 빈협약과 같은 조약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엔나회의부터는 합법적인 체계하에서 국가 간

16 Emer de Vattel, 2008, *The Law of Nations*,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Fund, p. 75.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men are naturally equal, and a perfect equality prevails in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as equally proceeding from nature,—nations composed of men, and considered as so many free persons living together in the state of nature, are naturally equal, and inherit from nature the same obligations and rights, Power or weakness does not in this respect produce any difference. A dwarf is as much a man as a giant; a small republic is no less a sovereign state than the most powerful kingdom.”

17 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32.

18 Gerry Simpson, 2004, 위의 책, p. 91.

19 Gerry Simpson, 2004, 위의 책, pp. 96~97.

에 계층 혹은 서열이 만들었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²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자연법을 부정하고 과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실증주의 국제법학자들 중 주권평등원칙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견해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사고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²¹ 즉, 이상적으로 국가 간에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법실증주의 방법론은 어떤 초월적인 형이상학 원칙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국가 행위에 그 근거를 둔다. 따라서 국가들의 실제 관행에 더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당시 국제법학자들은 불평등한 국제사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19세기 국제법학자들의 주권평등원칙에 대한 견해 차이

그렇다면 법실증주의적 사고에서 보았을 때 어떠한 근거에서 국가들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고 볼 수 있다.

1) 형식적 주권평등 견해: 법인격상 평등

먼저, 형식적 주권평등 견해를 살펴보겠다. 여기서 형식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어떠한 경제적·정치적·무력적 차이가 있든지 간에 법인격의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평등을 향유한다는 의미이다. 19세기에 법실증주의로의 체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주권평등원칙 개념을 고수하는 견해가 이러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주권평등원칙을 법 앞의 평등으로 해석하는 견해로서 형식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견해이다. 즉, 법 앞에 평등이란 해당 구성원 모두가 동

20 Gerry Simpson, 2004, 위의 책, pp. 102~103.

21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The Equality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 132.

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다.²² 이들에게 주권평등원칙은 법적 개념으로 정치적·무력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²³ 19세기 말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국제법학자 카를로스 칼보(Carlos Calvo)는 평등이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호적으로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²⁴ 20세기 초 미국의 아모스 허시(Amos S. Hershey)도 독립국가라면 ‘동일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고 설명했다.²⁵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제법상 법인격을 향유하는 주권국가는 여타 국가들과 동등하며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동등한 권리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큰지, 국력이 얼마나 강한지 등과 관계가 없다.²⁶ 또한 국력, 영토, 국민 등은 해당 국가의 법적 평등성과 무관하기에 이와 같은 비법적 요소들은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변화를 줄 수 없다고 보았다.²⁷ 이와 같은 사고는 당시에도 일반적인 사고였다고 볼 부분이 상당하다. 1894년 앤트워프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회의(Universal Peace Congress)에서도 국제법상 원칙 3개를 제시하며 그중 주권평등원칙을 확인해주었다.²⁸ 또한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도 프랑스 대표의 연설에서 국가는 주권적 인격체라고 하며 모든 주권국가는 동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²⁹ 이 첫째 견해는 법실증주의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권평등원칙이 실정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라 본다. 이는 법적 평등이기에 그 내용이 과거 자연법주의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22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위의 책, p. 4.

23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위의 책.

24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위의 책, p. 105.

25 Amos S. Hershey, 1912, *The Essentials of International Public Law*, New York: Macmillan, p. 155.

26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위의 책, p. 108.

27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위의 책.

28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위의 책, p. 153.

29 James Kent, 1873, *Commentaries on American Law*, 12th ed., Boston: Little, Brown & Co., p. 21.

2) 주권 불평등 견해들

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인 견해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19세기 당시에는 주권평등원칙을 달리 해석하거나 결과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했다.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 주권평등원칙이 잠재적 평등에 불과하다는 견해

주권평등원칙은 현실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잠재성의 평등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즉, 평등이란 권리를 향유할 잠재적 능력의 평등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현실에서는 주권국가가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적 결과를 유도한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에 에드윈 드 윌트 디킨슨(Edwin de Witt Dickinson)은 모든 국가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할 능력이 동일하고 국제관계에 들어갈 능력이 동등할 뿐이라고 주장했다.³⁰ 따라서 주권평등원칙이란 모든 주권국가가 잠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국가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당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 국제정치를 고려해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권평등원칙을 주장하여 향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법리라고는 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주권평등원칙은 법인격 차원에서 이해되었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주권국가가 평등한지 여부는 무관했다. 즉, 형식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는 평등을 의미한 것일 뿐,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였다. 이와 같은 견해가 받아들여진다면, 약소국은 주권평등원칙의 법리상 평등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 즉, 국력에 따른 차별 대우가 당연시된다. 이 이론은 강대국에게 유리한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주권평등원칙을 왜곡하여 부정하

30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앞의 책, p. 148.

였다고 할 수 있다.

(2) 주권평등원칙을 부정하는 견해

주권평등원칙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다. 19세기 말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회원으로 저명했던 로렌스(T. J. Lawrence)는 최근 국제사회의 현상과 그 발전과정을 고려해보았을 때 평등원칙(the doctrine of Equality)은 더 이상 효용성이 없고, 오늘날에는 강대국들의 우위가 인정되어 국제사회의 주요 사안을 수행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³¹ 1907년 미국 국제법학회에서 전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리처드 올니(Richard Olney)는 주권평등원칙이 이론상으로는 맞는 원칙이지만, 최근 100년간 일어난 사실을 고려하면 시대착오라 주장한 사례도 있다.³² 19세기 말 영국 에딘버러 대학 교수 제임스 로리머(James Lorimer)는 국가로 인정받는 것과 동등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구분했다. 즉, 국가가 국가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동등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는 예시로 제시한 국가가 러시아와 루마니아였다.³³ 이는 국제사회가 19세기에 이르러서 완전히 바뀌었고 더 이상 주권평등원칙이 현실을 반영하는 타당한 법원칙이 아니라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국제법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견해, 즉 법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현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법리를 부정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법규범의 존재와 실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에 차별대우금지법이 존재한다고 하였을 때, 현실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1 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306.

32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앞의 책, pp. 134~135.

33 Edwin de Witt Dickinson, 1920, 위의 책, pp. 327~328.

(3) ‘국가들의 가족’ 간의 평등

주권평등원칙을 유럽 문명국 간의 평등으로만 제한하여 이해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는 당시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주류적 견해라 할 수 있었다. 20세기 초 국제법을 대표하는 오펜하임에 따르면, 국제법은 주권국가들이 공동으로 동의한 공동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 즉 ‘국가들의 가족(Family of Nations)’의 구성원인 주권국가들은 동등한 국제법상 주체이다.³⁴ 오펜하임은 국가 간 평등이란 근대 국제사회, 즉 ‘국가들의 가족’ 간의 평등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한 특이점은 아래에서 더 검토하겠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국제사회 내에서의 주권평등원칙은 유럽 문명국 간에만 허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위 문명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권평등원칙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견해의 문제는 소위 ‘국가들의 가족’ 밖에 주권국가 존재하게 될 때이다. 즉, 문명국들 간의 국제공동체 밖에 주권국가가 존재하게 될 때에 이론적 문제가 발생한다. 오펜하임의 저서에서는 모로코와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의 경우 완전한 주권국가이지만, 국가들의 가족에 포섭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³⁵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모순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주권국가이지만 문명국이 아니면 국가들의 가족이 될 수 없고 국가들의 가족이 될 수 없다면 평등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3) 소결

따라서 당시 주권국가 간의 관계가 오늘날 통용되는 주권평등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주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된 측면이

34 Lassa Oppenheim, 1912, 앞의 책, p. 20. 원문은 다음과 같다. “Since the Law of Nations is based on the common consent of States as sovereign communities, the member States of the Family of Nations are equal to each other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35 Lassa Oppenheim, 1912, 위의 책, p. 164.

없지 않다.³⁶ 국제법학자들 간에도 주권과 주권평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이 발생해왔다.³⁷ 결국 무엇이 평등인가 하는 것은 불평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국제법상 문명론과 이에 대한 비유럽권 국가들의 대응

그렇다면 왜 위와 같은 불평등주의가 존재했을까? 위와 같은 법실증주의체계로의 변화와 맞물려 문명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문명론적 배경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 장에서는 당시 국제법학자들이 문명론적 국제법 개념과 체계를 구성하여 비유럽권 국가를 차별하였고, 비유럽권 국가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시도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

1. 국제법의 적용범위 제한

19세기 이전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의 개념이 보편적이고 중립적이었다. 즉, 국제법은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18세기를 대표하는 국제법학자 에머 드 바텔(Emer de Vattel)의 저서 *Law of Nations*에서도 ‘국가들의 법’, 즉 오늘날 국제법의 개념을 민족(nations) 혹은 국가(states) 간에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의무를 알려주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³⁸ 바텔의 이러한 국가들의 법,

36 Jens Bartelson, 2006, “The Concept of Sovereignty Revisited”,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 2, pp. 463~474.

37 Samantha Besson, “Sovereign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xford: Last updated: April 2011), para. 3.

38 Emer de Vattel, 2008, 앞의 책, p. 67.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finition of the law of nations. The law of nations is the science which teaches the rights subsisting between nations or states, and the obligations correspondent to those rights.”

즉 국제법 개념은 추상적인 국가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실의 구체적인 국가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국가를 상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서면 상황이 바뀐다. 19세기 국제법 체계의 특징은 그 국제법 개념에 문명국을 삽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초중반을 대표하는 국제법학자인 헨리 휘튼(Henry Wheaton)의 『만국공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서는 국제법의 개념을 제시할 때 “문명국 간에 이해되는 국제법”이라고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특정화된 대상을 명시했다.³⁹ 즉, 휘튼이 제시하는 국제법은 구체적인 유럽 문명 국가들 간의 공법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당연히 적용되는 그 무엇이 아니었다.⁴⁰

국제법의 개념에 문명국 단어를 삽입하는 것은 휘튼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국제법학자들이 국제법의 개념을 논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로렌스(Lawrence)도 국제법의 개념에 문명국으로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였다. 로렌스는 국제법은 문명국들이 상호관계(mutual dealing)를 할 때 그 행위를 결정할 법규칙 총체로 정의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⁴¹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픈하임 또한 국제법 개념에 문명국 개념을 넣어 국제법의 범위를 제한했다. 오픈하임은 국제법을 문명국 간에 교류할 때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관습법 및 조약의 총체라 보았다.⁴² 19세기 말에 케임브리지 대

39 Henry Wheaton, 1866,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8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p. 20.

40 휘튼(Wheaton)은 바인케르스훅(Cornelius van Bynkershoek)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 the law of nations is that which is observed, in accordance with the light of reason, between nations, if not among all, at least certainly among the greater part, and those the most civilised.”(Henry Wheaton, 1866, 위의 책, p. 15).

41 Thomas Joseph Lawrence, 1895, 1910,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New York, Chicago: D. C. Heath & Co., Publishers, p. 1.

42 Lassa Oppenheim, 1912, 앞의 책, p. 3.

학 국제법 교수로 재직했던 존 웨스트레이크(John Westlake)도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구분했다. 웨스트레이크는 국제사회가 유럽, 아메리카, 그 이외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았다. 첫째 영역은 유럽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법이 이 영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했다.⁴³ 이어서 둘째 영역인 아메리카 대륙도 국제법이 규율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 기독교 국가들에게만 국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⁴⁴ 이에 따르면 비기독교 국가는 국제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다.⁴⁵ 나아가 같은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이질적 문명으로 취급받아 국가들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비시니아(에티오피아)도 배제된다.⁴⁶ 이와 같이 국제법의 개념 자체에서 국제법의 적용 대상을 문명국으로 한정하면, 그 이외의 지역에 속하거나 기독교 문명 혹은 유럽 문명을 공유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국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분법적 사고에 의하여 문명과 비문명을 구분하는 국제법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비문명국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1844년 독일의 법학자 빌헬름 헤프터(Wilhelm Heffter)의 국제법 교과서에서 여타 문명권의 국가들을 대우할 때의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럽 국가법은 그 역사적 뿌리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에만 구속력이 있으며, ... 그러나 비기독교 국가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상호주의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신중하게 적용될 수 있다 ...⁴⁷

43 John Westlake, 1894,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81.

44 John Westlake, 1894, 위의 책, pp. 81~82.

45 John Westlake, 1894, 위의 책, p. 103.

46 John Westlake, 1894, 위의 책, p. 82.

47 Wilhelm G. Grewe, 2000,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Michael Byers (trans.), New York: Walter de Gruyter, p. 464.

헤프터 또한 국제법의 적용범위를 이분화했다. 국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하는 사회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사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문명국가는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지만, 그 이외의 국가는 그렇지 않다. 다만 이들은 예상되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부분적으로 국제법이 적용될 뿐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영역을 발생시킨다. 비유럽권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주의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어떤 국제법 원칙과 규칙은 적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국제법학자들도 쉽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 1897년 국제법학회(Institut de Droit International)에서 동양(the Orient)에 국제관습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⁴⁸ 그 전제는 문명론에 따라 유럽 국제법이 그 이외의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동양에 국제법 적용이 가능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위 학회의 연구 초기에는 동양의 국가들이 문명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나 다양한 종류의 문화와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후 위 학회는 그 연구의 방향을 역외관할권이라는 기술적 문제로 재구성했다. 즉, 역외관할권을 철폐하기 위하여 사법제도 개혁과 같은 사안이 필요한지 등으로 연구의 방향이 수정되었다.⁴⁹

위 학회는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19세기 당시 유럽 국가들은 소위 비문명국에게 국제법을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둘째, 그 법적 기준이나 판단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최고의 학자

48 Martti Koskenniemi, 2002,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2ff.

49 Martti Koskenniemi, 2002, 위의 책, p. 133.

들도 법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⁵⁰ 이러한 논리를 현실에서 적용하자면 유럽의 문명국에게 국제법 적용과 관련하여 큰 재량이 있는 것이고, 국제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비유럽권 국가들은 문명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법의 울타리 밖에 놓여서 법적으로 자국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⁵¹

2. 비유럽권 국가들의 법적 대응

일반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의 국제사회는 신제국주의의 시대라 불리며 서양 문명권의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침탈을 강행했던 시대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양 제국에 대응을 하던 국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어느 정도 주권국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완전히 문명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국가들이다. 이들이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주권평등원칙의 재확립 측면에서 보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르눌프 베커 로르카(Arnulf Becker Lorca)는 위와 같은 애매모호한 위치에 존재하는 국가들을 준주변부(semi-periphery) 국가라 칭하며 이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한다.⁵² 이들은 완전히 주변부에 위치하여 식민지배의 일방적 피해국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유럽 문명국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가족(Family of Nations)’의 범위에 제대로 입회했다고 할 수 없는 국가들이었다. 이들 또한 차별을 받았기

50 A. Watson, 1984, “New States in the Americas”, in: H. Bull and A. Watson(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p. 138.

51 Gerrit W. Gong, 1984, 앞의 책, p. 6.

52 Arnulf Becker Lorca, 2010, “Universal International Law: Nineteenth-century Histories of Imposition and Appropriation”, 51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75, pp. 482ff.

때문에 주변부에 준하여 취급받은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³ 사실 이 준주변부 국가들을 비주류 국가들이라 칭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그리스, 오토만 정부(튀르키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국가들의 가족’에 속한 국가들의 식민주의 정책에 수동적이지만은 않았다. 물론, 주변부에 있던 약소국들도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저항행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논의하는 준주변부의 국가들은 유럽 문명국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쟁취한 국가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볼 의의가 있다.

국제법의 발전과정에 대한 기존 시각은 유럽 중심주의적이다. 즉, 국제법 이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과정은 사실 서양의 문명국들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식민주의를 개척하면서 비유럽권 국가와 지역을 무력이나 ‘자발적 순응’ 등으로 제압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준주변부 또는 비주류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국제법적 법리를 주장하여 국제법이 보편화되었다는 시각이다.⁵⁴ 이 비주류 국가들은 앞에서 언급한 주류 국가들의 국제법과 그들의 문명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자국의 지위 보장을 확보받기 위하여 자국의 주권국가성 및 문명국가성에 기반하여 주권평등원칙을 주장하

53 로르카(Lorca)가 구성하는 당시 국제사회는 중심부에 있는 문명국가, 준주변부 국가, 그리고 주변부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주변부에 놓여서 착취를 당하기만 한 국가들이 아니라, 중심부 국가들에 대응하며 나름의 생존전략을 실행에 옮긴 적극적인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준주변부’라고 번역하면 ‘주변부’에 준하는 국가로 오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문명국에 준한다는 의미로 ‘준문명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무리가 있다. ‘semi-civilized’라는 표현은 19세기에 이미 사용되던 표현이다. 당시 사례를 보면 ‘부족국가’를 semi-civilized라 하여 미개를 칭하는 것인지 야만을 칭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또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Oliver C. Miller, 1901, “The Semi-Civilized Tribes of the Philippine Island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18, pp. 43~63).

54 Arnulf Becker Lorca, 2010, 앞의 글, pp. 480ff.

였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주장은 이분법적 문명론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비주류 국가는 법실증주의적 시각에서 주권국가체계를 더 강조하는 법리 구성을 하여 주장하였다.⁵⁵ 즉, 당시 주류 법철학자이자 법체계의 근간인 법실증주의를 취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논리 구성을 한 국제법에 대한 도구적 발상이었다. 이들의 논리는 아래와 같이 실용주의적 또는 도구적 법실증주의, 주권 절대주의, 문명론 기준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⁵⁶ 물론, 이러한 논리 전개가 일관성이 있는 법실증주의 이론에 따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리적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고 할 부분이 있음에도 그들의 법리는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1) 실용주의적 법실증주의: 비주류 국가들이 실용주의적 또는 도구적 법실증주의를 취한 이유는 이 또한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첫째, 19세기는 자연법적 사고를 벗어나서 법실증주의 체계가 주류 법학관념이 된 시대였다. 따라서 주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둘째, 자연법론 중에서도 문명론에 기초한 로리머(Lorimer)와 같은 견해가 있었다. 즉, 자연법에 기초한 문명론을 취하여 미개 및 야만을 자연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접근도 있었다.⁵⁷ 셋째, 기존 자연법론에 따르면 정당전쟁론(Just War Theory)에 따라 비유럽권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간섭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⁵⁸ 넷째, 기존 자연법은 기독교 신학과 문화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지 않는 비유럽권 국가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⁵⁹ 국제법학회의 회원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칼보는 이러

55 Arnulf Becker Lorca, 2011, "Sovereignty beyond the West: The End of Classical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3, pp. 7~73.

56 Arnulf Becker Lorca, 2010, 앞의 글, pp. 487ff.

57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89.

58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90.

59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89.

한 관점에서 도덕이나 실천이성에 기초한 국제법보다는 국가들의 약속에 기초한 조약과 관습법에서 그 법의 연원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⁶⁰ 일본과 중국도 처음에 자연법론을 취할지 여부를 고민하였지만, 법실증주의가 현실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실증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자료가 있다.⁶¹

(2) 주권 절대주의: 비주류 국가의 국제법학자들은 주권을 절대화하는 노선을 취했다. 즉,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절대화하여 그 독립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주권론의 기본원칙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 이유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였다. 즉, 주권을 절대화하는 노선을 취할 경우, 형식적 평등을 확보하고 개별 주권국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불간섭원칙, 주권면제 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⁶² 특히, 불간섭원칙은 비주류 국가들에게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³ 19세기에 오토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그리스의 국제법학자 미셸 케비지(Michel S. Kebedgy)는 원론적인 주권 개념을 강조하여 주권국가의 자율성과 동등성을 주장하였고, 모든 주권국가는 형식적으로 평등하기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⁴ 법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형식주의와 실증주의는 구분이 된다. 실증주의적 시각이 반드시 형식주의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비주류 국가들은 이와 같은 이론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적었다.⁶⁵ 그들에게는 국제법이 자국에 이익이 되는 이론적 도구써만 의미가 있

60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90.

61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89.

62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92.

63 카를로스 칼보(Carlos Calvo)는 고대시대부터 19세기까지 역사적으로 개입 혹은 간섭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본 이후, 이는 정치적 동기에 의하거나 본심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라 하며 개인의 금전적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간섭이 행해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p. 493~494).

64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91.

65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었다고 볼 수 있다.⁶⁶

(3) 문명론 기준주의: 당시 비주류 국가들은 문명기준에 부합하여야 문명국으로 대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비주류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 기준에 부합한 국가로 변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국가 ‘문명화’가 될수록 국제법의 적용 범위 내에 포섭될 수 있었고, 자국의 주권을 더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문명화가 될수록 자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기 때문에 문명 기준에 부합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⁶⁷ 당시 일본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비주류 국가의 국제법학자들이 자국의 문명 국가성을 승인받기 위하여 여러 국제법적 논리를 제시하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대표적으로 칼보 독트린은 카를로스 칼보가 1863년 출판한 『국제법(*Le Droit International*)』에서 외국인과의 투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절차를 소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이와 같은 경제와 관련된 사안에서 기준에 인정되었던 군사력 차원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를 부정했다. 칼보는 강대국들이 자

66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67 Arnulf Becker Lorca, 2010, 위의 글, p. 496.

68 한편, 문명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1897년 쓰루타로 센가(鶴太郎千賀)는 주권체계를 제한하는 문명기준을 ‘비과학적이고 기만적’이라 하며, ‘근대 국제법 저술가들이 문명과 같은 비과학적인 표현을 자신의 저서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센가의 저서는 1897년에 독일어로 출간되었다. 원서는 다음과 같다. Tsurutaro Senga, 1897, *Gestaltung und kritik der heutigen konsulargerichtsbarkeit in Japan*, Berlin: R. I. Prager. 센가는 특히 당시 ‘문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마틴(Marten)과 폰 홀첸도르프(von Holtzendorff)와 같은 서구 국제법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며 ‘문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센가는 이러한 주관적 성향이 강한 문명기준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 체제로 규율되는 국제법 관계상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Tsurutaro Senga, 1897, 위의 책, pp. 496~502).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의 문명기준주의와 상치되는 주장이다. 앞에서 일본사례를 검토할 때 언급했듯이 일본은 문명기준에 맞추어 문명국으로 대접받자 노력했다. 그러나 센가의 주장도 그 본질은 일본 정부를 위협하기 때문에 자국 이익이라는 목적으로 보았을 때 비록 일관성은 없지만 다양한 방법론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투자 손해 사안에 외교적 보호권을 원용하는 것은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⁶⁹ 칼보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식민지배 전통이 있다고 보았다.⁷⁰ 그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전통 국제법에 따른 법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⁷¹ 그는 유럽국가 간에는 채권 추심을 원인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군사 개입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칼보는 이와 같은 전통 국제법 원칙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적용되지 않아야 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⁷² 칼보의 주장은 당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외정책으로 이해되어 칼보 독트린이라 불리게 된다. 이후 외국인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간에는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를 칼보 조항이라고도 한다.⁷³ 전통적인 불간섭원칙을 발전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주권평등원칙을 강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유럽 권국가에게도 주권국가 간에는 불간섭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시각이 반영된 법리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중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69 Patrick Juillard, 2013, “Calvo Doctrine/Calvo Claus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last updated: March, 2013), para. 2.

70 Amos S. Hershey, 1907, “The Calvo and Drago Doctrines”, 1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 p. 27.

71 Amos S. Hershey, 1907, 위의 글. 칼보의 저서 영문은 다음과 같다. “According to strict international right, the recovery of debts and the pursuit of private claims does not justify de plano the armed intervention of governments, and, since European states invariably follow this rule in their reciprocal relations...”

72 Amos S. Hershey, 1907, 위의 글. 칼보의 저서 영문은 다음과 같다. “... and, since European states invariably follow this rule in their reciprocal relations, there is no reason why they should not also impose it upon themselves in their relations with nations in the new world.”

73 Patrick Juillard, 2013, 위의 글, para. 5.

Arbitration) 재정비 안과 관련하여 주권평등원칙이 주장된 사례가 있다.⁷⁴ 당시 주요 국가들은 1899년 제1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를 재정비하고자 하였고, 이때 상설기구의 특성상 중재재판관을 미리 구성해야 하는 사안이 문제로 제기되었다.⁷⁵ 개별 국가들은 철차적으로 구성원 비율에 따라 대표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견해가 나뉘게 되었다.⁷⁶ 당시 미국의 대표 제임스 브라운 스콧(James Brown Scott)은 본 사안이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안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주장할 정도로 본 사안에 주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었다.⁷⁷ 1907년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미국의 입장에서 스콧은 강대국들에게 ‘특별한’ 대표성이 있다고 보았다.⁷⁸ 스콧은 모든 국가가 대표를 파견하여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회(panel)와 다름없기 때문에,⁷⁹ 국력의 차이와 별개로 국가의 실질적 이해관계(material interest)를 기준으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⁰ 서구 국가들은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더 크다고 하면서 이들은 영구적으로 재판관석을 맡고, 그 이외의 국가들은 임기제로 운영되는 형태를 주장했다.⁸¹ 이런 주장은 영국과

74 당시에 이 중재재판소의 명칭을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이라고도 하고 Permanent Court of Arbitral Justice라고도 했다. 전자 명칭을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Denys P. Myers, 1914, “Representation in Public International Orga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8, p. 81. 후자 명칭을 사용한 예는 다음과 같다. Cullen Dennis, 1911, “Compromise—The Great Defect of Arbitration”, *Columbia Law Review*, Vol. 11, p. 501. 심슨(Simpson)도 후자의 명칭을 사용했다(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133).

75 Gerry Simpson, 2004, 위의 책, p. 133.

76 Gerry Simpson, 2004, 위의 책, p. 138.

77 제임스 브라운 스콧(James Brown Scott)은 당대 미국 국제법학자 중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명이었다. 미 국제법학회 회장, 미 법무부 장관,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의 편집인을 역임했다.

78 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138.

79 Arnulf Becker Lorca, 2011, 앞의 글, p. 28.

80 Arnulf Becker Lorca, 2011, 위의 글.

81 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141.

독일 등 서구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⁸² 한편, 브라질의 대표 루이 바르보사(Rui Barbosa)는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하여 국가의 평등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⁸³ 이러한 주장은 당시 강대국에 속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었다.⁸⁴ 바르보사는 주권이 개별 국가의 기초가 되는 첫째 권리라 하며, 주권이라는 개념은 평등을 내포하고 있고, 주권은 절대적이고 계급이 없다고 하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동등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⁸⁵ 결과적으로 상설중재재판소 설립 협약 초안 작성에는 합의가 있었지만, 구성원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⁸⁶

일본이 주권평등을 주장하여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다.⁸⁷ 19세기 중후반 일

82 Arnulf Becker Lorca, 2011, 앞의 글, p. 29.

83 루이 바르보사(Rui Barbosa)는 브라질의 공화주의 헌법 초안을 작성한 이력이 있고, 당시 브라질 재정부장관이었으며, 이후 1922년 상설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판사를 역임한다. 서구 강대국들에 맞서서 약소국들의 주권을 강력하게 옹호한 바르보사는 “헤이그의 독수리”라는 별명을 얻었다(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133).

84 Gerry Simpson, 2004, 위의 책 p. 133.

85 Arnulf Becker Lorca, 2011, 앞의 글, p. 25. 원문은 다음과 같다. “[S]overeignty is the prime and elemental right of constituted and independent states. Therefore sovereignty signifies equality. In theory, as in practice sovereignty is absolute. It knows no grades. The juridical administration of law is a branch of sovereignty. If there must be among States a common organ of justice, all the States must have a necessity an equivalent representation.”

86 Gerry Simpson, 2004, 앞의 책, p. 145. 웨스트레이크(Westlake)는 1914년 출판된 국제법 저서에서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주권평등원칙이 문제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John Westlake, 1914, “The Hague Conferences”, in L. Oppenheim, ed., *The Collected Papers of John Westlake on Public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537). 웨스트레이크는 투표권이 동등하다는 것이 약소국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강대국들이 진정한 평등(real equality)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였을 때 약소국들의 즐거움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평했다(John Westlake, 1914, 위의 글).

87 Lorca, 2011, 앞의 글, pp. 35~38.

본 또한 다수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여 역외관할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1894년 영국과 불평등조약을 개정하여 아오키-김벌리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⁸⁸ 개정된 조약에 따라 역외관할권을 포함한 무관세 정책을 부정하게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역외관할권 지역에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어 그 지역 거주민에게 세금을 과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역외관할권 설정은 비문명국의 상징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철폐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자율적으로 역외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부동산에 세금을 과금할 수 있었다. 개정된 조약에 따라 면세 대상이 토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 과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⁸⁹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은 모두 건물과 토지에 대한 면세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1902년 상설 중재재판소(PCA)에 본 사안을 중재 요청하게 되었다. 일본의 법리는 면세는 과거 불평등조약에 근거한 것이고, 조약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면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는 명확한 법리를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또한 모두 면세된다고 중재 결정을 내렸다.⁹⁰ 이와 같은 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자국을 평

88 Aoki-Kimberley Treaty of 1894 제18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everal foreign Settlements in Japan shall be incorporated with the respective Japanese Commune, and shall thenceforth form part of the general municipal system of Japan.”

89 Arnulf Becker Lorca, 2011, 앞의 글, p. 39.

90 *Japan House Tax, Germany, France and Great Britain v. Japan*, Award of the Tribunal, The Hague, 22 May 1905(www.pca-cpa.org/upload/files/Japanese%20House%20Tax%20English%20Sentence.pdf).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provisions of the Treaties … exempt not only the land held in virtue of the leases in perpetuity granted by or i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Japan, but they exempt the land and buildings of every description constructed or which may hereafter be constructed or which may hereafter be constructed on such land, from all imposts, taxes, charges, contributions, or conditions whatsoever, other than tho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leases in question.”

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한다.⁹¹ 그러나 비록 실패한 시도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주권평등원칙을 전제로 한 법리를 주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⁹² 일본도 주권국가로 서구 국가들과 평등하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주권평등원칙도 하나의 법원칙으로 확립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역사적 배경은 오늘날에도 함의하는 바가 있다. 19세기 말에는 형식적 주권평등원칙에 이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즉, 국가들 간에 실질적인 차이, 경제적·무력적·사회적 차이를 고려하여 국가 간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었고, 이러한 불평등론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이러한 담론 과정 속에서 주권평등원칙 법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 절대적이라 생각되는 주권평등원칙에 이견이 있었고 이를 법적 담론을 통해 극복한 부분이 없지 않다. 즉, 법리 주장 과정에서 국제법의 법리가 형성되었다고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참여할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시기에는 자연법론적 체계에

91 Hisashi Owada, 1999, "Japan,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d. Nisuke Ando, *Japan and International Law: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national Symposium to Mark the Centennial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p. 356.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first is that the award rekindled the suspicion, which had already been latent in the mind of some in Japan, that the West after all was not really interested in treating Japan on a fair and equal footing."

92 Arnulf Becker Lorca, 2011, 앞의 글, pp. 38ff.

서 법실증주의 체계로 변화하는 시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권평등의 의미도 다양하게 이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견지에서 ‘법 앞의 형식적 평등’과 법인격상 평등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었지만, 주권평등원칙을 다르게 해석하여 사실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론도 있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문명론적 사고가 있었다. 즉, 유럽 문명국들로 이루어진 선진 유럽 국가들의 가족이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미개국 그리고 야만인류가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인들은 문명화 사명에 따라 이들을 문명화시켜야 한다는 식민주의적 사고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유럽국가들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가족’에게만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이 범위 밖의 국가들은 국제법인격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식민지배를 할 때 국제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없게 된다. 즉,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없는 상황과 유사해진다.

이러한 문명론적 사고에 대항하여 소위 준주변부에 있던 비주류 국가들이 법실증주의를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도구화하여 주권평등을 절대화하였고, 동시에 자국은 문명기준에 부합하다고 이질적인 주장을 전개했다. 칼보독트린 등은 이러한 주장에 따라 실제로 국제법원칙으로 받아들여졌고, 오늘날에도 유의미한 법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국제법 원칙 발전에 기여한 사례도 있지만,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와 같이 서양의 불평등주의를 저지하는데 주권평등원칙이 활용된 사례도 있다. 이들 비주류 국가들이 19세기에 국제법을 보편화하는 데 중요 역할을 했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국제법이 다양한 환경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연구는 오늘날에도 함의하는 바가 있다. 물론, 오늘날 국제법 체계상 주권평등원칙은 확립된 법규범이고 이에 대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현실에서 평등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국제사회는 국가들이 자발적인 동의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한다고만 하기 어렵다. 아직도 강대국의 횡포와 약소국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

항 속에서 약소국일수록 국제법의 법리를 발전시키며 담론을 형성해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Crawford, James, 2012, *Brownlie's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ickinson, Edwin de Witt, 1920, *The Equality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ng, Gerrit W.,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 Grewe, Wilhelm G., 2000, *The Epochs of International Law*, Michael Byers
(trans.), New York: Walter de Gruyter.
- Hershey, Amos S. 1912, *The Essentials of International Public Law*, New York,
Macmillan.
- Kent, James, 1873, *Commentaries on American Law*, 12th ed. Boston. Little,
Brown & Co.
- Koskenniemi, Martti, 2002,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wrence, Thomas Joseph, 1895·1910,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Boston, New York, Chicago: D. C. Heath & Co., Publishers.
- Oppenheim, Lassa, 1912,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1, 2nd ed.,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
- Senga, Tsurutar, 1897, *Gestaltung und kritik der heutigen konsulargerichtsbarkeit
in Japan*, Berlin: R. I. Prager.
- Simpson, Gerry, 2004, *Great Powers and Outlaw States: Unequal Sovereigns in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ttel, Emer de, 2008, *The Law of Nations*,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Fund.
- Wheaton, Henry, 1866,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8th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논문

- 김성원, 2016, 「창조된 역사, 웨스트팔리아조약의 함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 평론』 제44호.
- 소병천, 2013, 「국제법상 주권담론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4호.
- 옥창준, 2015, 「미국으로 간 “반둥 정신” -체스터 보울즈의 제3세계」, 『사회와 역사』 제108권.
- 이근관, 2007, 「주권평등 원칙의 현대적 의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법평론』 제26호.
- 이석우, 2010, 「한국의 영토분쟁의 해결에 이써 역사비평적 접근의 시도」, 『서울국제법 연구』 제17권 제1호.
- Anghie, Antony, 1999, “Finding the peripheries: sovereignty and colonialism in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40, No. 1.
- Bartelson, Jens, 2006, “The Concept of Sovereignty Revisited”,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 No. 2.
- Besson, Samantha, 2011, “Sovereign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Law*, Oxford: Last updated: April 2011).
- Glanville, Luke, 2013, “The Myth of “Tradi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7.
- Hershey, Amos S., 1907, “The Calvo and Drago Doctrines”, 1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
- Juillard, Patrick, 2013, “Calvo Doctrine/Calvo Claus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last updated: March, 2013).
- Kleinschmidt, Harald, 2016, “The Family of Nations as an Element of the Ideology of Colonial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8.
- Lorca, Arnulf Becker, 2010, “Universal International Law: Nineteenth-century Histories of Imposition and Appropriation”, 51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75.
- _____, 2011, “Sovereignty beyond the West: The End of Classical

-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 13.
- Miller, Oliver C., 1901, “The Semi-Civilized Tribes of the Philippine Islands”,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18.
- Owada, Hisashi, 1999, “Japan, international law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ed. Nisuke Ando, *Japan and International Law: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national Symposium to Mark the Centennial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 Watson, A. 1984, “New States in the Americas”, in H. Bull and A. Watson (eds.),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 Westlake, John, 1894, *Chapters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14, “The Hague Conferences”, in *The Collected Papers of John Westlake on Public International Law*, L. Oppenheim,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세기 후반 불평등한 국제사회와 주권평등원칙

— 식민주의적 ‘문명론’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

오시진

19세기에 국제법이 차별적인 식민주의에 봉사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권평등원칙이 확립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19세기 초반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주권 법리 또한 변화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웨스트팔리아체제에 의해서 주권평등원칙이 시작되었다는 “신화”는 이미 최근 국내외 연구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주권평등체제의 시작점을 1815년 빈체제로 보기도 하는데, 20세기 초로 기점을 잡기도 한다. 이 글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주권평등원칙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당시 국가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했고 식민주의적 시각에서 국제법이 적용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국제법 체계는 문명론에 기하여 국제법의 적용범위 차원에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한 부분도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서양 국가들 간의 문화적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국가들의 가족(Family of Nations)’을 국제사회의 범위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문명 간의 접촉은 국제법 체계의 지각변동을 촉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위 비문명국은 ‘국가들의 가족’에 입회하고자 시도했다. 동시에 이들 중 문명론

적 법리를 부정하여 평등한 국제사회를 구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불평등한 요소를 배제하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평등한 주권국가체계가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약소국이 국제법 법리 발전에 참여하는 것의 함의를 고찰해볼 수 있다.

주제어: 주권, 주권평등원칙, 문명, 식민주의, 19세기

ABSTRACT

The Unequal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Focusing on Resistance to Colonialist Civilizational Discourse

Oh Sijin

It is well established that international law served discriminatory and exploitative colonialism in the 19th century, but how did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come to be established and overcome it?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vereignty jurisprudence changed from the early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Historically, the “myth” that the doctrine of sovereign equality was initiated by the Westphalian system has already been debunked by recent studies. Some scholars date the beginning of the sovereign equality system to the Vienna regime of 1815, while others date it to the early 20th century. This is the focus of this study.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was disputed. At that time, states were not treated equally and international law was

applied from a colonialist perspective.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of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was based on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which in part led to structural inequalities in the scope of international law. At that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ewed the “Family of Nations,” a community of Western nations, as the scope of the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contact between civilizations triggered a tectonic shift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Under these circumstances, so-called non-civilized states attempted to join the Family of Nations. At the same time, some of them tried to implement an equal international community by rejecting the civilizationalist jurisprudence. As a result, it was not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that unequal elements began to be eliminated and a system of formally equal sovereign states began to be constructed. Therefore, the implications of the need for weaker state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egal jurisprudence can be examined.

Keywords: sovereignty, sovereign equality principle, civilization, colonialism, 19th century

전시체제기 학생 노무자 양성소, 북선과학박물관

김현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 I. 머리말
- II. 북선과학박물관 개요
- III. 북선과학박물관의 기획자, 오노 켄이치
- IV. 전시체제기 북선과학박물관의 역할
- V. 맺음말

I. 머리말

태평양전쟁 발발로 긴장감이 증폭되던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 학생들의 이과 교육을 명분으로 한 북선과학박물관(北鮮科學博物館)이 등장했다.¹ 조선에서 과학관은 1927년에 개관한 은사기념과학관이 유일하던 시절, 군수공업 도시에서 과학박물관이 탄생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박물관은 주로 역사계박물관이고, 대부분 경성과 각 지역의 고도(古都)에 위치했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체신박물관, 경찰참고관, 철도박물관과 같은 비역사계 전문 박물관은 식민통치의 중심지인 광화문 혹은 용산역 주변에 세워졌다.² 이런 박물관 현황으로 볼 때, 학교 교육조차 형해화되어가던 전시체제기에 군수공업 도시 청진에 중등학생의 학교 교육을 대신하는 과학박물관의 등장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북선과학박물관은 조직 구성과 운영 및 활용도 매우 특이하다. 박물관 각 조직의 운영 주체가 학교장, 기업체 사장, 도(道) 행정관리 등 외부 인력이고, 그 정점에 함경북도지사가 관장으로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청진 인근 여러 학교에서 차출된 이과계 교사가 박물관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여러 유형의 공장이 박물관 부설기구로 설치되었다. 1942년 10월 개관하고 이듬해 1943년 5월에는 소위 일본 ‘천황’으로부터 내탕금을 받

* 투고: 2024년 1월 15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4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2023년 5월 20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한국과학사학회가 공동개최한 “역사 속 과학기술과 공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朝鮮教育會, 1941, 「北鮮科學博物館設立趣意書」, 『文教の朝鮮』 191號 7月號, 29쪽; 威鏡北道科學教育財團, 1942, 『北鮮科學博物館概要』.

2 김현정, 2020, 「1930년대 전문박물관 등장과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 『민족문화연구』 제8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을 정도로 북선과학박물관은 주목받았다.³ 1944년에는 약 3,000명의 학생이 연성 훈련을 받은 연성(鍊成)시설로 활용되기도 했다.⁴ 이렇듯 북선과학박물관은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던 총력전 시기에 설치되어 일제 패망 때까지 존속했다.⁵

하지만 이 독특한 북선과학박물관에 관한 자료는 많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고 자세한 자료는 함경북도과학교육재단이 발간한 『북선과학박물관개요(北鮮科學博物館概要)』 정도이다.⁶ 이 외에 당시 몇몇 신문과 잡지에 과학박물관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으나,⁷ 이마저도 『북선과학박물관개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자료적 한계로 인해 북선과학박물관의 활동이나 성격에 관한 연구

3 「北鮮科學館의光榮」, 『每日新報』, 1943.5.12.

4 朝鮮教育會, 1944, 「各道紹介(咸鏡北道)」, 『文教の朝鮮』 220號 3月號, 56쪽.

5 일제 패망 이후 북한은 북선과학박물관에 현대사 전시실을 신설하여 종합역사박물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수산관, 농민관 교육문화관도 추가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博物館事業」, 『조선중앙일보』, 1947.8.15.

6 북선과학박물관을 언급한 논문이나 보고서가 있지만 『북선과학박물관개요』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간단한 소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경수, 1998,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향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이데올로기 지배와 문화표상의 정치인류학」,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서울대학교 인류학연구회, 집문당, 680~682쪽; 정인경, 2005,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과 식민지 과학기술」, 『과학기술학연구』 제5권 2호, 한국과학기술학회, 89쪽; 국성하, 2007,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해안, 255~256쪽;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1909~2009 본문편』, 사회평론, 219~220쪽; 홍대길, 2021, 『과학관의 탄생』, 지식의 날개, 315~316쪽.

7 朝鮮教育會, 1941, 「北鮮科學博物館設立趣意書」, 『文教の朝鮮』 191號 7月號; 日本博物館協會, 1941, 「科學博物館建設の準備」, 『博物館研究』 第14卷 第1號; 日本博物館協會, 1942, 「北鮮科學博物館新設」, 『博物館研究』 第15卷 第10號; 成田不二生, 1942, 「北鮮科學博物館を訪ねて」, 『綠旗』 第7卷 第12号, 綠旗連盟 綠旗聯盟; 日本博物館協會, 1943, 「北鮮科學博物館」, 『博物館研究』 第16卷 第2號; 「榮養科學部開設 北鮮科學館의異彩」, 『每日新報』, 1943.9.17; 「小磯總督謹話 小磯國昭 총독근화」, 『每日新報』, 1943.10.12; 日本博物館協會, 1944, 「朝鮮, 北鮮科學博物館, 岡崎正氏發言」, 『博物館研究』 第17卷 第1號.

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박물관 연구가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대표로 하는 역사계박물관의 식민성 규명에 편중되어 있어 비역사계박물관인 북선과학박물관이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조선의 박물관은 역사계박물관만 존재했고, 일제 35년 내내 그 역할이나 성격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오인되어왔다.

실제로는 1930년대 후반부터 기존의 역사계박물관과는 결이 다른 비역사계 전문박물관들이 등장했다.⁸ 그리고 1940년대에는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운 북선과학박물관이 청진에 등장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비역사계박물관 등장에 둔감했고, 시기별 박물관의 특성 변화에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전시체제가 청진에 등장한 ‘과학박물관’에 주목하여 그 역할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전시체제기라는 등장 시점, 함경북도 청진의 군수공업지대라는 장소성 그리고 학교를 대신한 중등학생의 이과계 교육공간이라는 목적성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북선과학박물관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

북선과학박물관이 설립되던 전후한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는 ‘학생근로보국대’가 조직되어 학생근로동원이 본격화되었고, 1941년 이후 학교 수업이 축소되는 등 학생들은 총력전체제에 완전히 편입되었다.⁹ 또한 전쟁에 따른 심각한 물자난으로 방공(防空) 시설이 아니면 기본적인 건축 자재 수급도 여의치 않았다.¹⁰ 이렇게 전쟁과 경제난으로 허덕이던 시대에 식민지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위해 공장지대 한가운데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북선과학박물관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1940년대는 일제가 다양한 구호를 외치며 학생 노동력 수탈을 강

8 김현정, 2020, 「1930년대 전문박물관 등장과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91~394쪽.

9 최규진, 2013, 「학교를 달친 ‘전시체제’, 동원되는 학생」, 『내일을 여는 역사』 통권 50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88~289쪽.

10 「大野知事談」, 『毎日新報』, 1941.4.22.

화해가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북선과학박물관의 ‘과학교육’도 이런 시대적 상황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전시체제가 북선과학박물관이 학생들에게 어떤 시설이었는지를 다각도로 규명하겠다.

이에 앞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북선과학박물관의 기획자 오노 켄이치(大野謙一)이다.¹¹ 오노는 1933년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식민지 교육정책의 실무를 담당했고, 1940년 함북도지사가 되어서는 자신의 일생일대 사업으로서 북선과학박물관을 설립했다. 북선과학박물관 개관 직후 1942년 10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 영전하여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 등 전쟁 동원을 위한 식민지 조선교육정책을 진두지휘했다. 학무국장으로 오노는 ‘근로즉교육(勤勞卽教育)’, ‘학교즉병영(學校卽兵營)’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노동 현장과 전쟁에 학생들을 강제동원하는 데 주력했다.¹² 학무국장 오노는 근로동원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학생을 공장과 광산으로 보냈으며, 여학교를 공장화했다. 군수산업에 일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법문학계 학교는 폐지 혹은 축소하고, 이공계는 확충하는 등 학교를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과 병력 동원 기구로 변질시켰다.¹³ 이러한 전시체제가 학생근로동원에 주력한 오노의 이력은 함경북도 도지사로서 설립한 북선과학박물관이 어떠한 공간인지 혹

11 오노 켄이치(大野謙一, 1897~1968)는 일본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1917년 보통문관시험에 합격한 후 1921년에 다시 고등문관시험을 통과하여 1922년 조선총독부 관료가 되었다. 여러 보직을 거쳐 조선총독부 학무과장(1933.1.~1936.10.), 함북도지사(1940.3.~1942.10.), 그리고 총독부 학무국장(1942.10.~1944.8.)을 역임했다. 그는 1930년대 이후 특히 전시체제가 식민지 조선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이다.

12 김태완, 2005, 『일제강점기의 배움과 가르침』,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한국문화사 2권, 국사편찬위원회, 319~320쪽.

13 「學校는 卽兵營이다 朝鮮서도 近近修鍊教授要目制定」, 『每日新報』, 1943.4.10; 「“學校卽兵營”의 態勢整備 全半島學徒總蹶起 待望의 戰時學徒動員體制要綱發表」, 『每日新報』, 1943.7.27; 「이제야말로 學校는 兵營化」, 『每日新報』, 1943.10.14; 강명숙, 2018, 「일제말기 학생근로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0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14~15쪽.

은 역할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북선과학박물관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북선과학박물관 설립 취지와 조직구성, 박물관 기획자 오노 켄이치 그리고 전시체제가 학생근로동원을 위한 식민지 교육정책은 북선과학박물관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북선과학박물관의 시대적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겠다.

II. 북선과학박물관 개요

1. 북선과학박물관 입지적 특징

북선과학박물관은 전시체제기에 ‘과학’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중등학교 학생의 이과계 교육을 명분으로 청진에 세워진 특수시설이다. 1942년 10월 북선과학박물관 개관 이전까지 식민지 조선에 과학박물관은 1927년에 개관한 경성의 은사기념과학관이 유일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으로 긴장감이 높아가던 시기, 중공업 도시 청진에 ‘과학’을 내세운 박물관이 설치되었다. ‘북선(北鮮)¹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선과학박물관은 청진이 아니라 함경도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에서 보기 힘든 과학박물관이 한반도 동북쪽 항구도시 청진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전시체제기에 함경북도와 청진의 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함경도는 일제강점기 다른 지역과 달리 ‘군(郡)’의 숫자가 늘어났고, 부(府)

14 자연환경적으로 추가령지구대의 북쪽이 북선(北鮮)이다. 하지만 ‘북선’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함경남북도를 지칭했다. 고태우, 2020, 「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 인식과 정책의 추이」, 『한국문화』 제89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67쪽.

와 지명면·읍도 많이 증가했다.¹⁵ 이런 배경에는 1931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가 북선 중심으로 펼친 조선공업화정책이 있다. 우가키 총독은 총력전체제 구축을 위한 자급자족적 경제권으로서 ‘일선만블록론’을 구상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조선을 대륙침략 교두보로 설정하는 것이다.¹⁶ 이에 조선총독부는 북선 중심으로 철도, 도로, 교량, 항만 등을 재정비하며 만주로 이어지는 북선 개발을 본격화했다. 만주사변 직후에는 일본 관동군 수송문제와 만주의 교통망 장악으로 청진, 나진, 옹기 등 ‘북선 3항’이 부상했고, 대륙침략의 루트로서 함경도 경유의 ‘북선루트’가 주목받으면서 함경도의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했다.¹⁷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국토개발계획의 논리로 조선을 강조하는 ‘대륙전진 병참기지론’을 펼치면서,¹⁸ 함경북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또한 ‘북선루트’의 무역량이 급증하자 조선총독부는 북선 3항 개발과 확장에 더욱 주력했다.¹⁹ 일본 재벌기업이 북선에 진출하면서 북선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총독부는 조선과 만주의 중간지대이자 북선 루트의 관문인 나진에 특별도제(特別都制) 나진청(羅津廳)²⁰을 설치하여 대륙전진 병참기지로서

15 정병욱, 2014, 「일제강점기 함경도의 행정구역 변화와 인구변동」, 『한국지도학회지』 제14권 3호, 한국지도학회, 15쪽.

16 안유림, 1994,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북선수탈 정책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제27,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43~149쪽.

17 「茂山鐵鑛을背景 삼아 三菱財閥北鮮進出」, 『조선일보』, 1931.11.25; 「朝鮮으로 빼치는 大財閥의『손』」, 『조선일보』, 1934.5.13; 정병욱, 2014, 앞의 글, 15쪽.

18 전상숙, 2017, 「전시 일본 국토계획과 대동아공영권 그리고 조선국토계획」, 『사회이론』 제51호, 한국사회이론학회, 298~299쪽.

19 송규진, 2013, 「일제의 대륙침략기 ‘북선루트’·‘북선3항」, 『한국사연구』 제163호, 한국사연구회, 398~404쪽.

20 조선총독부는 나진을 함경북도에서 분리하여 총독부 직할의 나진청을 설치하려고 1938년부터 준비하였다. 나진청의 청사 건축 설계까지 완료하는 등 조선총독부가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일본 내각은 조선과 만주가 경쟁하는 구도를 원하지 않아 1940년 8월 무산되었다. 「“時代的產物” 羅津廳 實現性漸漸稀薄化」, 『조선일보』, 194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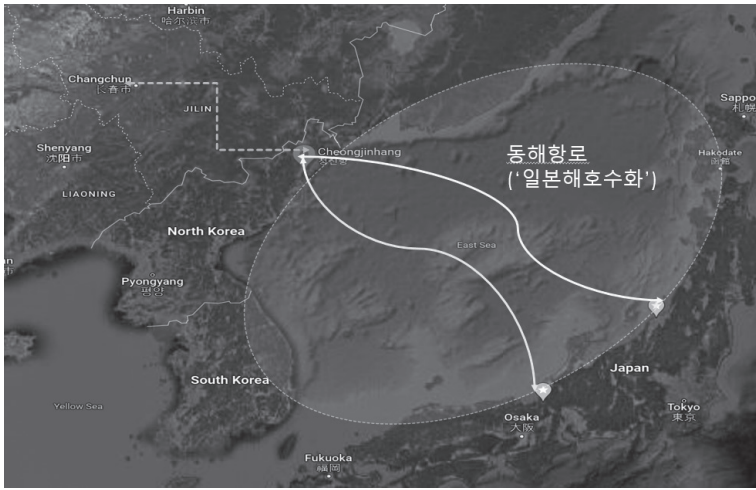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총독부의 동해항로(소위 '일본해호수화') 구상도(필자 작성)

조선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했다.²¹ 그래서 나진청의 개설에 앞서 조선의 동해안 항만도시와 쓰루가(敦賀, 니가타(新潟) 등 일본 서해안 도시 간에 교역을 활성화하여 동해를 하나의 호수처럼 만들겠다는 소위 '일본해호수화' 계획을 세웠다.²² 당시 북선의 위상은 '북선을 보지 않고는 조선을 말하지 말라'라는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의 발언만으로도 가늠이 된다. 미나미 총독은 북선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해상자원 그리고 동력자원이 일제 전쟁 수행에 큰 역할을 한다며 북선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했다.²³

21 「兵站基地朝鮮의 現地報告北進루트의關門인 北鮮三港의重要性 咸北篇」, 『조선일보』, 1939.8.16.

22 「日本海湖水化促進」, 『조선일보』, 1939.4.28; 「南總督渡東途中清, 羅津을視察」, 『조선일보』, 1939.5.1.

23 「豊富な 資源開發로 北鮮의 將來는 極有望 聯盟愛國班과 其他 諸團體와의 連繫強化가 一層必要-南總督의 北鮮視察感想談」, 『每日新報』, 1939.10.29.

특히 북선과학박물관이 위치한 청진은 함경북도의 대표 공업도시였다. 1929년까지만 해도 작은 어항이던 청진은 1940년 인근 지역을 통합하여 ‘대청진부’가 되면서, 전국 인구 4위의 거대한 ‘식민도시’가 되었다.²⁴ 청진은 원래 상업 중심 도시였으나, 1930년대 들어 배후지 무산철산이 개발되면서 공업도시가 되었다. 이후 수성평야 일대에 일본 3대 제철기업을 비롯하여 방직, 기계, 화학공업, 인건, 수산가공업, 유지 등 다양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며 청진은 공업도시로 급성장했다.²⁵

청진의 비약적 성장은 조선총독부의 ‘대륙전진 병참기지론’ 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이 일본과 만주를 잇는 단순한 연륙교가 아닌 대륙전진의 교두보로 삼기를 원했다. 이 구상을 위해서는 조선 각지를 군수공업도시로 만들어야 했고, 거대한 공업용지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²⁶ 이런 조선총독부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청진의 수성평야였다. 사실 만주사변 직후부터 수성평야는 북선 개발에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고, 대규모 공장지대조성 계획이 이미 1934년부터 준비됐다.²⁷ 1939년에는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수성평야를 청진에 통합하였고, 이곳을 대규모 공업지대로 만들어 인구 100만의 거대 공업도시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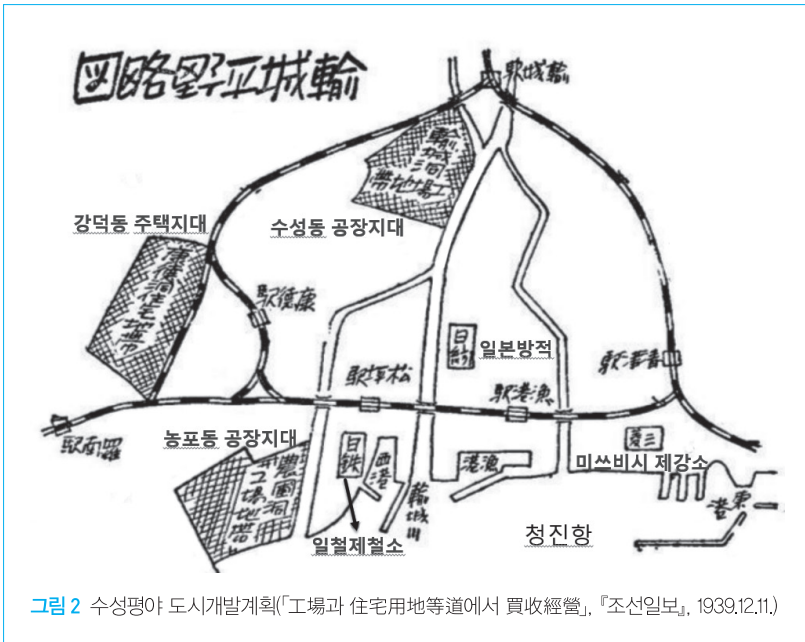
24 「淸·羅合併과 大淸津府의 設計-輸城平野中心으로 大工場地區出現」, 『每日新報』, 1940.2.6; 박찬승, 2010, 「식민지 조선의 일상생활」, 『일제 강점 지배사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110~111쪽.

25 加藤圭木, 2015, 「朝鮮東北部の社會變容と植民地支配: 淸津港の建設をめぐって」, 『日韓相互認識』第6號, 日韓相互認識研究会, 5쪽.

26 오진석, 2010, 「도시계획(都市計劃)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國家記錄院) 日帝文書解題: 土木篇』, 국가기록원, 158~193쪽.

27 「輸城平野를 中心으로 北朝鮮大都市計劃?」, 『조선일보』, 1931.11.26; 「輸城平野工場地帶化」, 『조선일보』, 1934.2.9; 「大淸津區域 輸城平野總編入」, 『조선일보』, 1937.4.12.

28 「十一平方里, 人口百萬- 輸城平野에 大都市- 淸津 羅南을 한 덩어리로 行政機構一體化」, 『每日新報』, 1939.12.9.



2. 함경북도의 과학박물관 구상

1941년 4월, 함경북도는 청진의 신흥공업지대인 수성평야에 과학박물관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함경북도 도지사 오노 켄이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오노는 북선과학박물관을 ‘과학조선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설 청년학도를 위한 과학의 집’이라고 하며, 물리나 화학을 학문으로 배우지 않고 실제 응용과 실험을 통해 재미를 붙이게 하여 “과학하는 마음을 기르고, 과학하는 기술을 기르게 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더해서 민중의 ‘과학 대중화와 생활화’로 북선을 과학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²⁹ 고도국방건설, 국민과학, 과학조선의 진흥, 과학교육의 진보 등 다양한 구호로 북선과학박물관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29 「民衆의 “科學의 집」 清, 羅間에 北鮮科學博物館訂畫, 『每日新報』, 1941.4.18.

함경북도는 북선과학박물관의 사명을 5개로 규정했다. 전시체제기에 함경북도가 왜 박물관을 설립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5개의 사명은 첫째, ‘각 중등학교 이과 교육의 종합도장’이었다. 청진 일대 중등학교의 실험 도구와 기자재뿐만 아니라 이과계 교사를 박물관에 집결시키고 학생들을 1주일에 2~3번 박물관에 불러서 이과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약진하는 북선 자원과 공업박물관’으로서 역할이다. 함경북도의 다양한 자원이 공장에서 제품으로 나오는 생산과정과 관련 중공업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셋째, ‘일선 산업 전사와 일반 대중의 과학기술상식보급’을 내세웠다. 평일에는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통속과학기술대학’의 역할로서 함북의 다양한 산업기술자를 초청하여 특별강좌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궤도, 모형, 표본, 기계, 사진, 영화 등으로 구성된 교구재 상자를 북선과학박물관이 만들어 초·중·고교육용으로 학교에 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5개를 정리하면, 북선과학박물관의 사명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함경북도의 자원과 이와 관련된 중공업에 대한 이해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북선과학박물관 계획은 1940년 3월에 오노가 도지사로서 부임 직후부터 시작되어,³⁰ 1941년 4월에 기본 구상이 완성되었다.³¹ 함경북도가 주도한 사업이지만, 도(道)의 예산이 아닌 민간자금으로 추진되었다. 함경북도는 지역 광산업자와 수산업자에게 기부금을 받아 먼저 ‘함경북도 과학교육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했다. 이 교육재단이 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³² 그런데 재단

30 1940년 함경북도 내무부가 박물관 설립에 관한 참고자료 수집을 일본박물관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1941년 1월에 함경북도에 보냈다. 日本博物館協會, 1941, 『科學博物館建設の準備』, 『博物館研究』第14卷 第1號, 6쪽.

31 「民衆의 “科學의 집” 淸, 羅閩에 北鮮科學博物館訂畫」, 『每日新報』, 1941, 4, 18.

32 ‘함경북도 내에 있어 학교와 그 외 과학교육의 진보발전을 도모에 기여 할 목적으로 북선과학박물관의 유지’가 교육재단 설립목적이다. 자본금은 광업계의 이와무라 나가이치(岩村長市), 수산업자 미야모토 테루오(宮本照雄) 등이 오노 켄이치의 구상

구성원은 교육 관계자가 아니라 지역 기업체 그리고 산업과 밀접하다. 이사장은 당연직으로서 함경북도지사가 맡고, 이사는 지역의 기업 대표들, 이외 주요 공장과 광산대표가 평의원으로 위촉되었다.³³ 즉, 지역 기업과 밀접한 재단이 북선과학박물관을 운영하되, 함경북도가 재단을 지배한 구조이다.

1941년 4월 교육재단 설립 인가를 받자, 함경북도는 7월에 실제 공사에 착수했다.³⁴ 하지만 물자 수급이 여의치 않아 박물관 전체 공사를 한 번에 할 수 없었다.³⁵ 그래서 본관과 관사를 짓는 1기 공사를 먼저 하고, 이후에 건축 자재가 확보되면 의학관 신축과 광업시험소 이전 등 2기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었다.³⁶ 물자 수급 곤란으로 지연되었지만, 1942년 10월에 개관한 북선과학박물관의 규모는 원래 1기 계획보다 훨씬 커졌다. 본관과 관사뿐만 아니라 계획에도 없던 여러 개의 부설 공작부와 영양과학부, 광산과학부가 추가로 설치되었다.³⁷ 함경북도의 북선과학박물관 설립 의지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관은 북선과학박물관 설립 취지를 대변하는 공간이다. 청진 인근 학교에서 차출된 교사가 이 본관에서 학생들의 이과계 교육을 담당했다. 지하 1층, 지

에 크게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기부한 보통재산 60만 원, 기본재산 50만 원의 총 110만 원이다. 이중 보통재산 60만 원으로 박물관부지 10만 원, 건설비 35만 원, 관사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이화학 관련 설비구입에 사용을 계획했다. 「財團法人 咸鏡北道科學教育財團이認」, 『每日新報』, 1941.4.22; 조선총독부, 『官報』 제4329호 11쪽, 1941.6.30; 「本邦最初の“北鮮科學博物館”, 科學振興へ華華しくデビュー」, 『京城日報』, 1941.5.5; 『每日新報』, 「北鮮科學博物館-十八日 地鎮祭 盛大」, 1941.7.21.

33 교육재단 설립 당시 이사는 大野謙一, 松村基弘, 水野薰, 森浩, 岩村長市, 宮本照雄, 飯澤清이다. 『朝鮮總督府官報』 제4329호, 11쪽, 1941.6.30.

34 「北鮮科學博物館-十八日 地鎮祭 盛大」, 『每日新報』, 1941.7.21.

35 시멘트와 페인트 등의 건축자재 수급이 어려워 1기 공사도 난항이었는데, 박물관이 방공시설로 분류되어 겨우 자재배급을 받았다. 「大野知事談」, 『每日新報』, 1941.4.22.

36 「北鮮科學博物館-十八日 地鎮祭 盛大」, 『每日新報』, 1941.7.21.

37 1942년 개관 때 공사 중이었으나, 1944년에도 여전히 완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日本博物館協會, 1944, 「朝鮮, 北鮮科學博物館, 岡崎正氏發言」, 『博物館研究』 第17卷 第1號.

상 3층의 약 1,500평 규모 건물에 물리, 화학, 철강, 발전(發電), 생물, 지질, 광물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실험실과 전시실이 갖추졌다. 전시실에는 발전기와 같은 실물 디오라마와 기계, 표본 등이 진열되었다.³⁸ 이 전시실에 필요한 장비나 전시품은 새로 장만한 것이 아니라, 청진과 주변 일대 중등학교가 보유한 박물관과 표본, 물리·화학 관련 기계, 실험 기구 등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함경북도 기업체로부터 지원받아 각종 공장의 생산 공정을 전시하고, 박물관 건축비 잔액으로 나머지 필요한 전시품을 보충하는 수준이었다.

부설기구는 원래 계획에 없었다. 본관 공사 중 여유자금이 생기자 공작부, 광산과학부, 영양과학부가 뒤늦게 추가되었다. 광산과학부에는 각종 광산기계 모형과 발파, 파쇄 및 제련 관련한 자료 전시를 계획했으며,³⁹ 건물 지하 전체에 실제 크기의 광산 갱도 모형 설치도 포함되었다.⁴⁰ 본관 마무리 단계에 추가된 영양과학부는 함북 내 의사와 약사, 약재상 등이 출자하여 만들었다.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 그리고 영양결핍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활 주변에서 식량자원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⁴¹

북선과학박물관은 1942년 10월 3일 개관하여,⁴² 일제의 패망 때까지 운영되었다. 학생들에게 이과 교육을 했지만, 항공기, 자동차, 기타 무기 등 전력증강에 관련된 기술 교육과 실습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 부속 공장에서는 학생들이 자동차 수리 및 조립, 운전 연습, 글라이더 제작과 조정 등을 실습하고 훈

38 「輸城平野에 偉觀 北鮮科學博物館落成」, 『每日新報』, 1942.10.4.

39 「この頃の知識: 世界一の内容清津に博物館」, 『皇民日報』, 1942.8.30.

40 咸鏡北道科學教育財團, 1942, 앞의 책, 1쪽.

41 「栄養科学科部特設の趣旨について」, 『北鮮科學博物館概要』 1942.10. 단체합숙으로 인한 영양부족 문제는 1938년부터 계속 제기된 사안이었다. 「勞働奉仕普專朴重華」, 『每日新報』, 1938.7.24; 「勤勞報國際日誌金浦의 十日間世專金周成」, 『每日新報』, 1938.8.7.

42 조선총독부의 주요 행사는 주로 10월 1일 소위 '시정기념일'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북선과학박물관도 원래는 10월 1일에 개관하려고 했으나 며칠 연기되었다(「清津府의 北鮮科學博物館十月一日の始政記念日から開く」, 『皇民日報』, 1942.8.22.).

련했다.⁴³ 개관한 다음 해인 1943년 5월에 일본의 소위 ‘천왕’이 북선과학박물관의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격려하는 의미로 함경북도과학교육재단에 내탕금을 보냈다. 명분은 생산력을 증강하여 일본군을 지원해야 하는 시대에 조선의 ‘유일한 과학연구기관’인 북선과학박물관이 과학기술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⁴ 총력전 체제 속 북선과학박물관은 일제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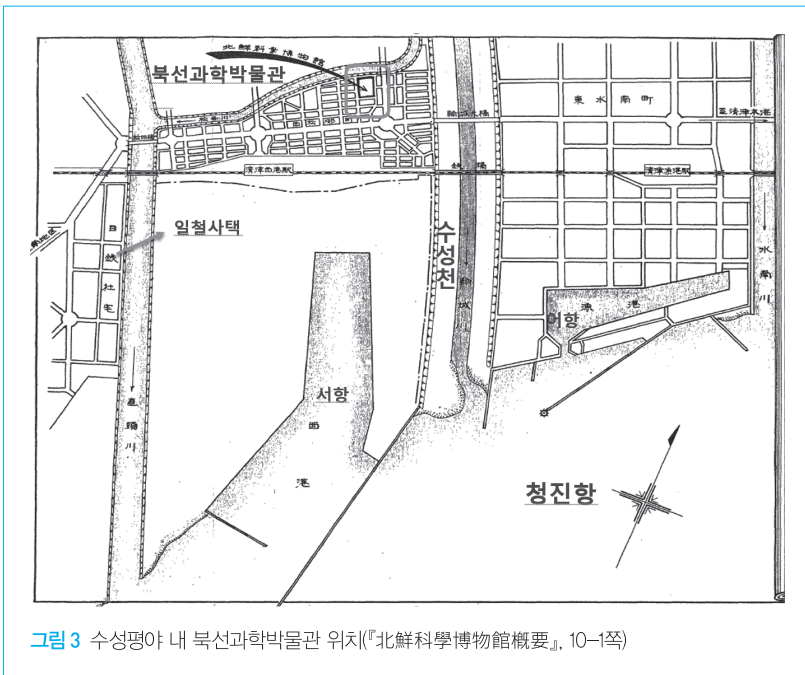


그림 3 수성평야 내 북선과학박물관 위치(『北鮮科學博物館概要』, 10-1쪽)

43 日本博物館協會, 1944, 「朝鮮, 北鮮科學博物館, 岡崎正氏發言」, 『博物館研究』第17卷 第1號, 1쪽.

44 「北鮮科學館의光榮」, 「小磯總督謹話」, 『每日新報』, 1943.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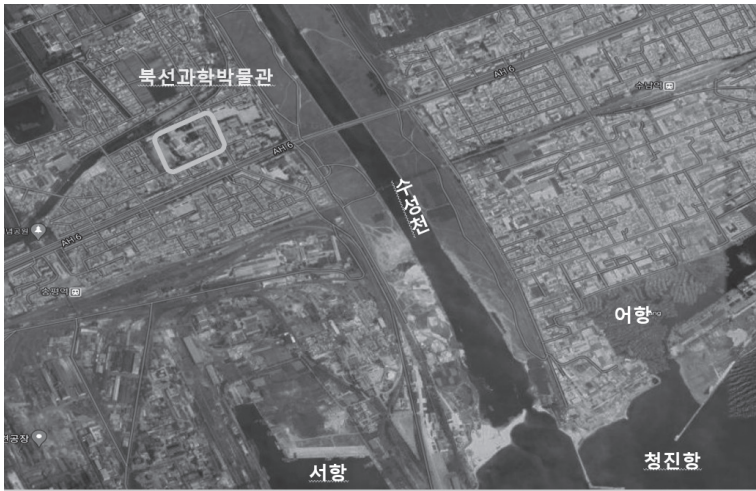


그림 4 북선과학박물관 위치(구급지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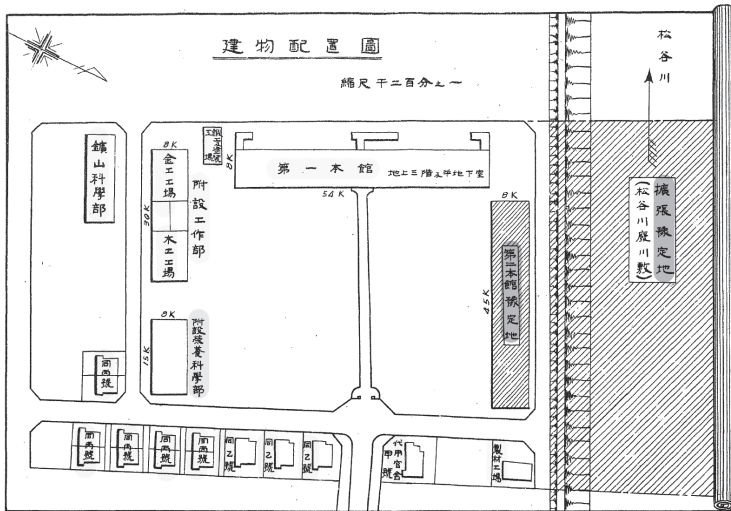


그림 5 북선과학박물관 건물 배치도(『北鮮科學博物館概要』, 10-2쪽)



그림 6 현재 남아 있는 북선과학박물관 부지(구글지도 검색)

3. 북선과학박물관의 운영

북선과학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조직구성이나 운영방식이 일반적 박물관과 매우 다르다. 또한 함경북도가 내세운 ‘이과교육’이라는 박물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특징을 보인다.

먼저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본관과 부설기구로 나뉜다. 본관은 9개 부서로 구성되며 물상부, 생물부, 수산과학부 등 학교 이과 교육 관련은 학교 차출된 교사가 운영했다. 이외 공업 생산과 관련되는 발전 및 전기, 철강, 화학공업부는 도내의 민간기업이 위탁 운영하고, 방공(防空)과학부는 도(道)방호과장이 담당했다. 부설기구는 공작부, 광산과학부, 영양과학부 그리고 국민학교 교재대여부의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국민학교 교재 대여부는 사범학교장이, 부

〈표 1〉 북선과학박물관 조직 구성

관장	재단 이사장(함북도지사)													
구성	제1 본관									부설				
										국민학교 교편물 대여부	공작부		영양 과학 부	광산 과학 부
분류	물상 1부	물상 2부	생물부 (동식물 생태생리)	수산 과학 부	지질 및 광물 부	발전 및 전기 화학 공업부	철강 부	화학 공업 부	방공 과학 부		목공 공장	금공 공장		
운영	중등학교 주입 기관				민간 위탁				도 방호 과장	사범학교 장	永岡航 研會社 대표자	북선 자동차 대표자	도 위생 과장	미정

설 공작부는 해당 산업체 대표가, 영양과학부는 도(道)위생과장이 담당했다.⁴⁵

이상과 같이 북선과학박물관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 보유하지 않고 학교 교사, 도청 직원, 민간기업체 인력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이는 북선과학박물관이 독자적 조직을 갖춘 기관이 아니며, 그 역할이 일반적 박물관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박물관이 학교를 대신한 교육공간이라고 했으나, 학교 교육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다.

북선과학박물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다양한 공장의 존재이다. 부설 공작부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공장이 설치되었다. 활공기를 제작하는 목공공장, 자동차를 수리하는 금공공장, 도장(塗裝) 및 단공(鍛工) 공장 그리고 각종 톱이 즐비한 제재(製材)공장 그야말로 여러 유형의 공장들이 박물관 구역 내에 넓게 자리 잡았다. 이 점이 일반적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매우 이질적 부분이다. 부설 공작부는 박물관이 정식 개관하기도 전에 이미 완공되었고, 목공공장에서

45 威鏡北道科學教育財團, 1942, 앞의 책, 5쪽.

는 활공기 제작이 개시되기도 했다.⁴⁶ 학생들은 이 공작부에서 자동차 수리와 조립, 부품 제조, 활공기 제작 등을 배웠고, 자동차 운전 실습을 하기도 했다.⁴⁷ ‘박물관’이라는 시설에서 학생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군수물자가 생산되고 있었다.

게다가 북선과학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전시’가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적인 과학관에서 볼 수 있는 고가의 표본이나 장비, 특수한 진열장도 없었다. 본관은 청진 일대 학교에서 가져온 실험 도구, 장비, 표본 등으로 채워졌다. 이 외에 전시는 함경북도의 천연자원과 관련 군수 공장의 생산 관련이었다. 이것은 일철(日鐵), 삼릉(三菱), 일본고주파(日本高周波) 등에서 지원받았다. 원자재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 완성된 제품과 기계의 나열 등을 전시라고 표현했다. 광산과학부 건물 지하 전체를 실제 크기의 갱도 모형은 전시용이 아니라 숙련공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훈련용이었다. 영양과 학부도 기존 전람회에서 사용된 영양 도표 등을 벽에 붙여두었으나, 전시시설이 아니라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북선과학박물관은 학교를 대신한 ‘이과’ 교육공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학교를 대신한 이과 교육을 설립 취지로 내세웠지만, 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⁴⁸ 게다가 청진과 경성군(鏡城郡) 일대 12개 중등학교⁴⁹ 학생의 이과 교육을 명분으로 했으나, 다양한 공장이나 실습 공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즉, 북선과학박물관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이과 교육이 아니라 함경북도의 자원이 공장에서 제품화되는 생산되는 공정 이해, 즉 실업교육을 교육의 주된 목표로 삼았다. 북선과학박물관에 공장 기계와 설비를 설치하여 작동

46 威鏡北道科學教育財團, 1942, 위의 책, 1쪽.

47 日本博物館協會, 1944, 앞의 글, 1쪽.

48 「科學する威北, 北鮮科學博物館淸津に建設」, 『京城日報』, 1941.4.20.

49 『北鮮科學博物館概要』에 따르면, 나남, 경성, 청진, 어랑 4개의 중학교와 경성농업, 청진상업, 청진수산, 청진공업의 4개 실업학교에 나진, 동나남, 청진, 청진여자 실업 4개의 여학교가 포함되었다.

원리와 생산과정을 보여주며 이를 이과, 즉 과학교육이라고 주장했다.

III. 북선과학박물관의 기획자, 오노 켄이치

1930년대 후반 ‘생활의 과학화’와 ‘이과교육 강화’는 시대적 구호가 되어 유행했다.⁵⁰ 이러한 구호가 실제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는 달리 적용되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공포되고, 「학생근로보국대 실시요항」 이후 많은 조치가 시행되면서 교육정책과 교육 현장은 전쟁에 직접 연결되었다.⁵¹ 이로써 학생근로동원은 본격화되었고, 학교 교육은 계속 축소되는 형국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시체제기에 ‘과학’은 교육정책의 중요한 화두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이 단축되고 학생들의 근로동원은 상시화되는 추세였다. 이런 시국과 어울리지 않게 식민지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명분으로 한 시설인 ‘북선과학박물관’이 청진에 등장했다.

북선과학박물관의 기획자는 함경북도 도지사 오노 켄이치(大野謙一)이다.⁵² 오노는 1922년부터 조선에서 근무했다. 강원도 학무과장을 시작으로 총독부 식산국 수리과장(1926), 황해도 재무부장(1927), 충북 경찰부장(1929), 경북 경찰부장(1929)을 거쳐 1933년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이 되었다. 이후 경남 내무부

50 「生活의科學化에對하여」, 『동아일보』, 1935.4.19; 「現代와自然科學 科學의精神의高調」, 『동아일보』, 1936.4.19; 「技術工養成目標로鑛,工教育을擴充」, 『동아일보』, 1937.10.28; 「舊慣陋習打破」, 『동아일보』, 1938.1.1; 「理科教授를綜合化 釜山科學館建設」, 『동아일보』, 1938.6.19; 「理科講習會서戰時使命을強調宣言決議를可決」, 『조선일보』, 1938.7.26; 「生活의科學化」, 『동아일보』, 1940.4.21; 「科學教育과入試制度」, 『동아일보』, 1940.5.15; 「理科教育施設擴充 技術員大量養成」, 『동아일보』, 1940.7.26.

51 강명숙, 2018, 앞의 글, 2쪽.

52 「科學의大衆化 大野咸北知事談」, 『每日新報』, 1941.4.18; 「世界一の科學展堂 北鮮科學博物館誕生 百十萬圓財團을確立」, 『每日新報』, 1941.4.22.

장(1937), 조선총독관방 외무부장과 북경주재 수석과견원(1939)을 거쳐 1940년 함북도지사로서 북선과학박물관을 개관한 직후인 1942년 10월에 총독부 학무국장이 되었다. 그는 1930년대 이후 특히 전시체제가 식민지 조선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핵심 인물이다. 학생근로동원의 확대와 학교 수업의 축소라는 교육정책 기조 속에서도 ‘학생 교육’을 명분으로 한 과학박물관이 오노에 의해 기획되었다.

오노에 따르면, 1936년 유럽 시찰에서 과학관의 필요성을 느꼈고, 1938년 유럽 시찰 이후 과학관 설립을 구상했다고 한다.⁵³ 그래서 1940년 3월 그가 함북도지사로서 부임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하여 1941년 4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었다. 이때 그가 강조한 것은 고도국방국가체제 완성과 생산력 확충을 위한 국민 과학의 필요성과 시급성이었다. 북선과학박물관은 그야말로 오노에서 시작된 오노의 작품이다. 따라서 북선과학박물관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획자인 오노 켄이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총독부 관료로서 오노의 핵심 경력은 식민지교육 전반을 담당한 학무분야이다.⁵⁴ 역대 학무관료 중 유일하게 학무과장과 학무국장을 다 거친 인물이 바로 오노였다. 조선총독부의 학무국장과 과장은 대부분 도쿄제대 법학부 출신으로 고등문관 시험을 통해 등용된 엘리트 관료였다.⁵⁵ 이와 달리 오노는 소학

53 「科學의 大衆化 大野咸北知事談」, 『每日新報』, 1941.4.18.

54 조선총독부의 ‘학무’는 교육을 넘어 ‘치안’과 연결된다. 그래서 1929년 이후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을 역임한 6명 중 5명(神尾弑春, 大野謙一, 高尾甚造, 八木信雄, 倉島至)이 경찰계 출신이다. 오노 역시 경북 경찰부장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과장으로 발탁되었다. 임이랑, 2013b, 「전시체제기 鹽原時三郎의 황민화정책 구상과 추진(1937~1941)」, 『역사문제연구』 제29호, 역사문제연구소, 282쪽.

55 학무국장 14명 중 12명이 일본인이다. 이 중 오노를 제외한 11명이 도쿄제대 법학부 출신이다. 학무과장도 대부분 일본인에 도쿄제대 법학과 출신에 고등문관 합격자가 다수였다. 강명숙, 2020,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의 특징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1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337~339쪽. 오노는 소학교를 나와서 조선총독부 학무과장, 함북도지사, 학무국장을 거치면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았다. 「李王職長官更迭 後任엔李恒九男」, 『조선일보』, 1940.3.10.

교를 졸업한 후 보통문관시험으로 공직에 들어와 재무, 경찰 등 여러 부서를 돌며 경험과 경력을 쌓은 후 총독부의 요직으로 분류되는 학무과장에 발탁되면서 이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1942년 북선과학박물관 개관 직후에는 바로 총독부 학무국장이 되어 전쟁 수행을 뒷받침하는 식민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북선과학박물관 설립이 식민지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학무국장으로 영전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노는 단순히 학무업무를 담당한 관료가 아니다. 식민지교육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가진 인물이다. 1936년 총독부 학무과장 때, 일제의 식민사관에 입각한 조선 교육에 대한 오노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조선교육문제관견(朝鮮教育問題管見)』⁵⁶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오노는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교육행정의 중심에 있던 학무과장 유케 고타로(弓削幸太郎)⁵⁷와는 다른 오노 자신만의 식민지교육 목적과 동화론을 피력하기도 했다.⁵⁸ 철저한 직업교육과 사상통제를 위한 간이학교 창설(1934), 평양과 대구 의학강습소를 의전으로 승격(1933)⁵⁹ 그리고 황민화교육체제 확립 등 조선총독부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며

56 조선교육회의 『文教の朝鮮』에 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조선교육을 통감부 시기부터 시기별로 서술하고 있으며, 부록에 조선의 인구 증가와 교육, 내선공학 등에 대한 사견도 실려 있다. 일본 지배를 통해서 조선의 부가 축적되고, 교육도 향상되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大野謙一, 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57 유케 고타로(弓削幸太郎)는 조선총독부의 제2대 학무과장에 취임한 후 조선교육령 입안을 담당하였고, 이후 식민지교육의 기초를 만들었다. 권오현, 1996, 「三一運動直後 韓國史教育의 實施와 그 意味」, 『歷史教育論集』 第21輯 1號, 역사교육학회, 67~70쪽.

58 유케는 조선교육의 역할이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없애서 독립의지를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오노는 조선을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에 새로 편입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조선교육을 '동포'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동포'로서 교육하여 일본 국민으로서 각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조선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며, 조선인의 정체성을 갖고 일본인으로 동화를 강조했다. 長沢雅春, 2007, 「日韓併合下における朝鮮教育の同化思想について」 『佐賀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 第41號, 佐賀女子短期大学.

59 이현일, 2012, 「일제하 公立醫學專門學校의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

오노는 학무관료로서 입지를 다져갔다.⁶⁰

조선총독부 학무관료들은 대체로 ‘실업교육·직업교육 강화’와 ‘보통학교의 보급’을 중시했다.⁶¹ 식민지교육에 대한 이런 방향성은 오노 또한 마찬가지였고, 일관되고 명확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영어와 수학 수업은 축소하고, 실업교육에 치중하도록 했다.⁶² 심지어 입학시험 문제는 교과서에서만 출제하도록 지시하며 응용문제 출제를 단속하기도 했다.⁶³ 그는 ‘교육의 형식화, 획일화 타파’라는 구실로 직업교육의 충실과 개선을 강조했다.⁶⁴ 중등학교 교육은 생산 관련 내용으로 바꾸고, 기술 교육과 직업 지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⁵ 오노에게 식민지 학생 교육은 직업교육이나 기술 훈련과 다름없었다.

오노는 북선과학박물관 개관 직후 바로 총독부의 학무국장으로 임명되면서 학무관료로서 정점을 찍었다.⁶⁶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国昭) 총독이 부임한 이후 1942년 10월 학무국장이 된 오노는 전쟁 동원을 위한 식민지 조선 교육정책 전반을 주관했다. 그는 징병제를 위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준비, 의무교육제 실시 이전 조치로서 「조선청년특별연성(1942.11.)」, 「보국정신대 조직(1943.1.)」,

구」 제42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326~327쪽.

60 「獨學으로 今日 大野學務局長」, 『每日新報』, 1942.10.25.

61 임이랑, 2013a, 「일제시기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 나타난 조선총독부 학무관료의 조선교육론」 『한국민족문화』 제49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73~374쪽.

62 「學術中心보다는 人物養成을目標」, 『조선일보』, 1934.5.9.

63 「入學試驗에는 應用問題내지말라」, 『동아일보』, 1935.2.8.

64 「教育の形式化畫一化の打破, 今日齊しく要望さる, 大野學務課長談」, 『朝鮮新聞』, 1939.7.9.

65 「根本을 軍敎一體에 두고 學校를 鍊成道場化-朝鮮 戰時敎育 非常措置단」, 『每日新報』, 1944.2.17; 「たっかふ半島敎育-學校は鍊成道場である-大野學務局長放送」, 『每日新報』, 1944.2.21.

66 오노 케이치는 1944년 8월 갑자기 학무국장에서 물러났다. 새 학무국장이 된 다케나가 가즈키(武永憲樹, 본명 엄창섭) 본인도 출장 중에 임명 소식을 들었을 정도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발령이었다. 「싸우는 敎學陣確立-出張中에 喜報 듣고 武永究長抱負披瀝」, 『每日新報』, 1944.8.18.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1943.3.)」, 「전시학도동원체제확립요강(1943.6.)」, 「학도동원본부(1944.4.)」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여러 학생동원 조치를 단행했다. 학무국장으로서 오노는 학교를 공장화하고, 학생을 전쟁에 필요한 노동자와 병사로 양성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⁶⁷

제3차 조선교육령기 일제는 ‘근로가 교육이다(勤勞即教育)’라며 근로동원을 그나마 ‘교육’으로 포장이라도 했다. 하지만 오노가 학무국장이 되어 제4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한 이후 학생근로동원에 ‘교육’이라는 외피조차 무의미해졌다. 오노는 제4차 조선교육령을 ‘학행일체(學行一體)’ 교육으로 표현했다.⁶⁸ 그리고 ‘공장이 학교다(工場即學校)’ 또는 ‘학교의 공장화(學校工場化)’, ‘학교의 병영화(學校兵營化)’ 등 각종 구호를 노골적으로 외치며 교육 형해화 정책을 계속 펼쳤다.⁶⁹ 오노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지배 방향에 따라서 식민지 교육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학무관료이다.

북선과학박물관은 이상과 같은 학무관료 오노가 함북도지사로서 함경북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다. 전시체제가 대륙진진 병참기지로서 함경북도에 시급한 과제는 생산력 증강을 위한 노동력 확보였다. 함경북도는 탄광, 대규모 건설 공사장, 공장이 많아 인력난이 특히 심각하였고, 신규 대형 건설 공사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⁷⁰ 이에 조선총독부가 직접 나서서 각지 노동자

67 「國土防衛, 戰力增強 學行日體로挺身 半島서는動員體制整備-大野學務局長談」, 『每日新報』, 1943.6.27.

68 「學行一體綜合教育 朝鮮新學校規程의 要領」, 『每日新報』, 1943.4.3; 「朝鮮學徒動員校別基準-學行一體徹底具顯-勤勞即教授의 理念強調」, 『每日新報』, 1944.4.28.

69 「싸우는 半島女工, 東京麻絲○○工場訪問記, 여기서는『工場即學校』沈着하게 精進(完), 至今은 舍監老女工이 陣頭에」, 『每日新報』, 1944.3.17; 「たっかふ半島教育-學校は鍊成道場である-大野學務局長放送」, 『每日新報』, 1944.2.21; 「學校는 即兵營이다 朝鮮서도 近近修鍊教授要目制定」, 『每日新報』, 1943.4.10.

70 「人夫難漸次深刻 増産計畫 주도水泡」, 『조선일보』, 1938.8.10; 「三萬名 韓旋要求에 供給은 僅三千名」, 『동아일보』, 1939.3.27; 「今年度國策工事의 所要勞働者四萬名」, 『조선일보』, 1939.1.10.

를 모집하여 복선에 노동력을 공급했으나, 이런 조치도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⁷¹ 1938년 청진만 보더라도, 일본방적, 삼릉제철, 일본제철 공사에 매일 4,300명의 인부가 필요하고, 이 공장들이 완공되면 3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⁷² 그러나 그만한 인력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함경북도 내에서도 공장 간 노동자 확보에 갈등을 빚어 함경북도 경찰부, 내무부, 산업부가 직접 나서 노동력을 관리하는 형편이었다.⁷³ 복선과학박물관은 이렇듯 생산력 확충과 전력증강을 위한 노동력 확보가 절실한 함경북도의 사회적 상황에서 탄생했다.

함북도지사 오노는 함북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학생 노동력에 주목했고, 그 실행 방안으로서 ‘박물관’을 구상했다. 전시체제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집단이 학생이었다.⁷⁴ 학생동원의 한 방안으로 ‘과학박물관’을 구상한 것은 오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오노는 과학관이 포함된 ‘조선종합박물관’ 건립사업을 직접 추진해 본 경험이 있다. 1935년 조선총독부는 고고미술관, 과학관 그리고 조선자원관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조선종합박물관 건설을 ‘시정25주년’기념사업으로 선정했다.⁷⁵ 당시 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던 총독부 학무과장이 바로 오노였다. 이때 오노는 종합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민 지배에 대한 박물관의 유용성을 이미 인식했다. 그리고 1936년 총독부 학무과장으로, 1938년 경남 내무부장으로 유럽 시찰 경

71 「北朝鮮行勞働者 五千五百募集 全北道에서各郡에配定」, 『동아일보』, 1938.3.29; 「咸北에勞力飢饉」, 『조선일보』, 1939.2.9; 「勞働調整目標로 連絡機關을設置」, 『조선일보』, 1939.4.25.

72 「二工場地淸津에 三大工場이鼎立」, 『동아일보』, 1938.5.25.

73 「勞働者離散防止코저 勞務調整案을樹立」, 『조선일보』, 1939.7.22.

74 신주백, 2001, 「日帝의 教育政策과 學生의 勤勞動員(1943~1945)」, 『歷史教育』 제78호, 역사교육연구회, 75~76쪽.

75 김현정, 2016, 「조선총독부 ‘종합박물관’ 구상의 식민성」, 『서울과 역사』 제94호, 서울역사편찬원.

힘에서 오노는 식민 통치에 있어 박물관의 활용과 필요성을 인식했다.⁷⁶

게다가 오노는 1938년 경남 내부부장 시절에 이미 북선과학박물관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과학관 설립을 추진했었다. 오노는 부산을 일본에서 만주로 들어가는 대륙의 관문이자 향후 크게 성장할 도시로 보았다. 그래서 중등학교 이과 교육의 일체를 한 곳에 집중시켜 물리, 화학, 박물 등의 각 교과를 조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종합적 과학관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직공양성소도 함께 설치하고자 했다. 그래서 은사동경과학관, 해군참고관, 농업박물관, 스미토모 직공양성소(住友私立職工養成所) 등을 견학했다.⁷⁷ 공업도시, 학교를 대신한 이과 교육, 직업인 양성이라는 부산 과학관의 세 가지 특징은 이후 추진된 북선과학박물관에 그대로 도입되었다. 오노는 경남 내부부장일 때 대륙 관문인 부산에서 설치하지 못한 과학관을 함경북도지사가 되어 대륙진진 병참기지 도시인 청진에서 실현한 것이다.

이렇듯 오노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지배정책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조응하는 교육정책을 빠르게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한 대표적인 총독부 관료이다. 그래서 함북도지사로 부임한 오노는 함경북도가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고, 그중의 하나가 북선과학박물관이었다.

IV. 전시체제가 북선과학박물관의 역할

전시체제기에 그간 조선에 없던 ‘과학’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청진에 등장한 것은 낯선 풍경이다. 하지만 ‘과학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는 1930년대 들어

76 「科學의 大衆化 大野咸北知事談」, 『每日新報』, 1941.4.18.

77 오노가 1938년 11월에 관방 외무부로 가면서 부산 과학관 설립 계획은 진척되지 못했다. 「職工養成所設置 慶北道具體案研究中」, 『조선일보』, 1938.11.26; 「의資源을培養職工養成機關設立과綜合科學館建設計劃慶南道서銳意活動」, 『동아일보』, 1938.10.27;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제3548호』, 1938.11.9.

이미 시작되었고, 특히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자원정책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날이 커졌다. 그 영향으로 박물관 영역에서도 ‘과학성’이 도입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박물관계의 과학화’가 본격화되었다.⁷⁸ 총력전 체제에 대비할 수 있는 과학정책이 시급해지자, 박물관계는 일상에서 과학진흥을 강조하며 ‘생활 속 모든 것을 박물관화하여 과학교육을 실시하자’라는 주장을 했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박물관도 총력전에 대비하는 과학교육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⁷⁹

전시체제기에 ‘과학’의 강조는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만주국과 조선을 포함한 일제 전반에 걸친 보편적 현상이다.⁸⁰ 이러한 조류는 관동군이 지배한 만주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주국은 1939년에 국립박물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체제로 전환했다. 역사계박물관인 기존 국립박물관을 봉천분관으로 격하하고, 자연과학계박물관을 신설하여 신경본관으로 삼았다. 신경본관에 동물, 지리, 광물, 지질, 물리 등 자연과학 분야를 전시했다. 그리고 만철과학연구소와 함께 만주국 내 여러 민족의 생활상을 조사하고, 이를 전시하는 민속전시장 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⁸¹ 중일전쟁 이후 과학성이 중시된 시대적 분위기가 만주국 박물관에도 나타났다.

박물관 성격이 역사계에서 과학계로의 전환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총독부가 소위 ‘시정25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던 조선종합박물관 건설은 1937년 중일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역사를 주제로 한 고고미술관이 사업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물자난으로 사업이 곤란했을 때도 고고미술관만은

78 가네코 아쓰시, 2009, 『박물관의 정치학』, 논형, 103~111쪽.

79 가네코 아쓰시, 2009, 위의 책, 113~116쪽.

80 만주와 조선에서는 역사계박물관에서 자연과학계박물관으로 중심이 이동했으나, 대만은 처음부터 식민지 자원을 전시하는 자연계박물관이었다. 1908년 개관한 대만총독부박물관은 지질학, 식물, 동물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각종 산업을 전시하였다. 國立臺灣博物館, https://www.ntm.gov.tw/content_142.html(검색일: 2024.1.5.)

81 大出尚子, 2014, 『「満洲国」博物館事業の研究』, 汲古叢書.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했다.⁸² 하지만 1938년에 중단되었던 공사가⁸³ 1939년에 재개되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⁸⁴ 사업의 핵심이었던 고고미술관 건축은 중단되고, 오히려 과학관은 이전보다 규모와 예산이 확대되었다. 전시 대상도 농수산, 광산 등 조선의 특수산업과 신병기 그리고 군수공업 생산품으로 확대되었다. 대규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던 전시체제기에 조선총독부가 과학관 건설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과학’을 중시한 시대적 조류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⁸⁵

따라서 북선과학박물관의 등장 그 자체는 ‘과학성’을 강조하는 전시체제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북선, 즉 함경북도는 지하자원, 삼림자원, 어업자원 등이 풍부하고, 이 자원을 가공하는 일철청진제철소, 삼릉청진제련소, 성진고주파 등 중공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북선과학박물관을 지역의 상공장려관 또는 산업장려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 강조의 시대적 분위기와 더불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자연적 환경 그리고 군수공장이 밀집한 산업적 환경이 맞물리면서 청진에 북선과학박물관이 등장할 수 있는 외부적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 환경만으로는 함경북도가 밝힌 북선과학박물관의 설립 취지와 그에 따른 역할이 설명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북선과학박물관을 학생들의 ‘이과’ 교육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본관 전시실에는 청진과 인접한 중등학교에서 가지고 온

82 「設計의完成이까운東洋第一의“博物館”施政二十五周年의紀念事業」, 『每日新報』, 1937.4.27.

83 「總督府살림도 大緊縮 探勝施設과 建築中止」, 『每日新報』, 1938.7.15.

84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을 보면, 중단되었던 종합박물관 공사가 1939년 재개되면서 ‘시정25주년기념’이라는 수식어가 빠지고 ‘조선총독부박물관신영공사’로 명명되었다. 1939년부터 종합박물관의 성격이 처음 계획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5 「學術의 大殿堂 一般科學部門과 함께 參考品展列 誕生될 科學館의 輪廓」, 『每日新報』, 1939.7.30; 「科學半島의 殿堂大博物館着工-工費 龍大·二百四十萬圓」, 『每日新報』, 1940.6.17.

물적 자원으로 광물 표본 등을 전시했으나, 전시의 핵심은 철강, 유연탄, 석유화학, 정어리 등 함경북도의 대표적인 자원과 이 자원을 가공하는 군수공장의 생산 기계와 최종 생산품이었다. 대형 기계의 절단 단면과 생산 공정을 보여주면서 기계의 작동원리를 보여주려고 했다. 이를 기계 가동을 ‘동적 전시’라고 표현하며, 런던 어린이박물관의 체험전시에 비유하기도 했다.⁸⁶ 공장 기계 전시가 과학교육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북선과학박물관을 ‘과학’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공장부, 즉 공장의 존재이다.

실제로 박물관 공장부에서 군수 물품이 생산되었다. 학교를 대신해 이과 수업을 한다는 공간에서 자동차 수리공장과 항공기 글라이더 제작공장이 운영되었고, 개관 당시 이미 조업을 시작했다.⁸⁷ 과학관이 아니라 군수공장 일부를 옮겨놓은 것에 가깝다. 이는 북선과학박물관이 중등학생을 위한 ‘과학’ 교육기관이 아니라 라공장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혹은 훈련 공간이었다. 특히 실물 크기의 갯도는 그야말로 광산 노동을 위한 훈련 공간이었다. 1944년에 발간된 『박물관연구(博物館研究)』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북선과학박물관은 개관 이후 학생들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공장노동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⁸ 즉, 북선과학박물관은 학생을 위한 이과교육 기관이 아니라, 전력증강이 절실한 전시체제기에 학생을 공장노동자로 양성하기 위한 단순 기술 훈련의 공간이었다.

또한 북선과학박물관의 설립 취지가 학교를 대신한 과학교육 강화라고 했으나, 이는 당시 교육정책이나 학교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명분이었다. 1938년

86 북선과학박물관에는 서구 과학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열장이나 전시품이 없었다. 그렇지만 함경북도는 서구 과학관을 교육적 효과가 약한 ‘정적 전시’라고 다소 폄하하며, 북선과학박물관이 독일 뮌헨이나 미국의 시카고 과학관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87 「翰城平野에 偉觀 北鮮科學博物館落成」, 『每日新報』, 1942.10.4.

88 日本博物館協會, 1944, 「朝鮮, 北鮮科學博物館, 岡崎正氏發言」, 『博物館研究』第17卷 第1號.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 이후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은 본격화되었고, 박물관 계획이 발표되던 1941년 학교에서는 이미 수업이 단축되고 있었다.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과 「학도전시동원체제 확립요강」을 계기로 학생들의 근로동원은 단순 육체노동에서 군수물자 생산으로 확대되었다.⁸⁹ 1944년 「학교별동원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는 학도동원본부가 공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학생을 배치하는 등 학생근로동원이 본격화되었다.⁹⁰ 이렇듯 학교 수업이 축소되고 학생들의 근로동원을 확대하는 전시체제가 북선과학박물관을 단순히 학교를 대신한 ‘과학’ 교육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북선과학박물관은 학교 교육을 형해화하는 일제 교육정책의 한 단면이다. 학교에서 교사와 교육 자재를 북선과학박물관으로 빼낸 것 자체가 학교 기능을 축소한 것이다. 게다가 공장 기계로 가득 찬 박물관에 학생들을 일주일에 2~3번이나 집합시키는 것은 그만큼의 학교 수업 시간 축소를 의미한다. 사실 박물관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선과학박물관이 학교를 대신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제였다. 박물관이 학교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노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 과학박물관과의 관계는 아직 상당히 연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서는 이후 자세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본부 당국의 지시를 받아서’라며 여지를 두었다.⁹¹ 학생들이 박물관에 오는 것은 과학교육 강화가 아니라 학교 교육의 축소 혹은 폐지를 의미했다. 게다가 북선과학박물관에서 실시된 교육은 군수공장의 생산 기술이었다. 그러므로 북선과학박물관에 청진 인근 학교의 중등학생들을 모아서 실시한 단체 교육은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 근로동원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북선과학박물관을 교동이 발달한 공장지대 한가운데

89 강명숙, 2018, 앞의 글, 14~15쪽.

90 전성현, 2015, 「전시체제기 학교 隊조직의 변화와 집단 노동력 동원」, 『석당논총』 제6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79~285쪽.

91 「大野知事談」, 『毎日新報』, 1941, 4, 22.

세운 것도 청진과 인근 지역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데 편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⁹²

이상과 같이 북선과학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도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시설로 보기도 어렵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군수공업 기계가 펼쳐진 특수한 시설이었다. 기획자 오노가 이런 시설을 ‘과학박물관’이라고 한 것은 당시 ‘과학’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한 결과이다. ‘과학하는 마음’⁹³이라는 당대의 구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리 밝히기도 했다.⁹⁴ 오노는 서양의 과학관이 주는 근대적인 이미지와 특히 ‘동적’ 전시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군수공업 시설이 준비한 북선과학박물관을 서양 과학관의 체험전시와 같다고 호도를 했다. 실재는 학생들이 군수공장의 생산 공정을 견학하고 관련 기술을 실습 혹은 훈련하는 시설이었다. 학생들을 공장노동자로 양성하기 위한 기술 교육을 ‘박물관’에서의 ‘과학’ 교육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오노가 ‘과학’과 ‘박물관’을 통해 얻고자 한 바는 식민지 학생의 과학 교육이 아니라 생산력 확충을 위한 노동력 확보였다.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으로 물자동원 및 생산력 확충계획이 수립되고, 병참기지화를 위한 군수공업은 국책 사업이 되었다. 그래서 병참기지의 중심 공업지대인 청진의 중요성도 부상했다. 하지만 생산력 확충이 절실한 전시체제기에 중화학공업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았다. 오노는 대중의 과학적 상식 결여와 기계 취급

92 威鏡北道科學教育財團, 1942, 앞의 책, 22쪽.

93 ‘과학하는 마음(科學する心)’은 전시체제기 문부대신을 역임했고, 종전 이후 A급 전범으로 지명된 하시다 구니히코(橋田邦彦)가 1940년 주창한 구호이다. 일본에서는 초등교육에서 이과 계열과 산수의 연관성 강화를 강조하며 사용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기계화 교육 또는 실습에 이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과학하는 마음에 박차; 기계화 국방 思想의 보급에 힘써; 경성의 학생 자동차 훈련 시업식’, 『부산일보』, 1941.5.18; 「中等校마다 國防部 “科學하는 마음”을 기르라」, 『每日新報』, 1941.5.23; 「銀翼에 青春의 꿈 科學하는 마음, 滑空으로 訓練」, 『每日新報』, 1942.6.17.

94 「科學する威北, 北鮮科學博物館清津に建設」, 『京城日報』, 1941.04.20.

경험 결핍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⁹⁵ 과학과 기술 교육 강화로 산업 전사를 육성하겠다고 했다.⁹⁶ 하지만 학교 증설과 같은 조치는 고려하지도 않았다. 오노의 방안은 학교 수업을 축소하고 그 시간에 북선과학박물관과 같은 시설에서 공장에 필요한 단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즉, 북선과학박물관은 전시체제기 학생근로동원의 새로운 형태였다.

북선과학박물관의 학생근로동원 양상은 조선총독부 학생근로동원정책의 축소판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총독부의 교육정책과 속도를 같이하기도 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다소 앞서나갔다. 북선과학박물관이 교육 대상을 중등학생 이상으로 설정하고, 기술 교육을 ‘이과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근로동원을 정규교과에 편입시키려는 것 등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 범주 내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학생근로동원은 그나마 학교 그리고 교육이라는 명분 안에서 작동하려고 했다. 그래서 북선과학박물관도 실제로는 공장의 기계를 설치하여 생산 공정을 익히고, 항공기 날개를 제작하고 자동차를 수리하면서도 이과 교육의 공간을 표방했다. ‘교육’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학생들에게 노동자 양성을 위한 기술 훈련을 시켰다.

한편, 북선과학박물관이 학교 현장이나 총독부 교육정책보다 앞서가기도 했다. 근로동원 양상을 보면, 1940년 전후한 시점 학생들의 근로동원은 단순 육체노동이었으나, 1943년 이후 군수공장으로도 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선과학박물관은 1941년 계획 발표 당시부터 이미 학생들의 군수공장 동원을 염두에 뒀다. 그래서 청진 일대 군수공장의 생산과정 이해와 실습이 북선과학박물관의 주된 교육 내용이었다. 또한 1944년 10월 「학도근로령 시행세칙」 이후 근로동원의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로 확대했다.⁹⁷ 이에 비해 북선과학박

95 조선에서는 무기 파손율이 높는데, 그 원인도 대중의 과학기술 지식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日本博物館協會, 1944, 「朝鮮, 北鮮科學博物館, 岡崎正氏發言」, 『博物館研究』第17卷 第1號.

96 威鏡北道科學教育財團, 1942, 앞의 책.

97 강명숙, 2018, 앞의 글, 15쪽.

물관은 계획 수립 때부터 이미 초등학생을 잠재적 노동자로 염두에 두고, 초등 학생용 교구재 상자 대여방식을 고안했다. 무엇보다도 ‘학교의 공장화’의 구호가⁹⁸ 등장하기도 전에 북선과학박물관에는 이미 실제 공장 기계가 전시되고 여러 유형의 공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교육시설의 공장화, 공장의 교실화, 군수공업에 학생동원, 초등 고학년으로 근로동원 확대 등과 같은 제4차 조선교육령 이후 실시된 조선총독부의 학생근로동원정책을 북선과학박물관이 한 발짝 먼저 실시하는 형국이었다. 북선과학박물관 본관 조직 중 ‘물상부’도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보다 선행하는 북선과학박물관의 면모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물상’은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학교 수업 시수를 축소하고 교과목을 통폐합하면서 ‘생물’에 상대적 개념으로 중등학교 과학 교과에 도입된 과목이다. 그런데 조선교육령이 개정되기도 전인 1942년에 이미 ‘물상’이라는 용어를 북선과학박물관이 먼저 사용했다.⁹⁹ 이는 북선과학박물관이 식민지 교육정책과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4차 조선교육령기에 등장한 정책이 북선과학박물관에서 미리 실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41년 계획이 수립된 북선과학박물관의 학생근로동원 양상은 1943년의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 이후 전개된 학생근로동원과 상당히 겹친다. 그 연결고리는 바로 북선과학박물관의 기획자이자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오노라고 할 수 있다. 오노는 제3차 교육령 시기 학생근로동원 정책에 따라서 북선과학박물관을 기획했지만,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에서야 시행된 학생근로동원 양상도 이미 담겨 있다. 이는 오노가 북선과학박물관에서 실시한 학생근로동원

98 「學校の工場化-教練と勤勞できたへる 戰時教育を語る 大野學務局長」, 『毎日新報』, 1944.5.24.

99 ‘물상’이라는 용어는 1942년 일본 중학교 교수요목에 등장하여 1943년 정식 교과 명칭이 된 이후 조선에도 도입되었다. 이면우, 2012, 「일제강점기 중등과학으로서의 ‘물상’ 교과서의 성립: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6호-2, 63~66쪽.

을 학무국장이 된 이후 교육정책 차원에서 전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자면, 오노가 기획한 북선과학박물관은 전시체제기 생산력 확충에 필요한 공장 노동자 양성 지원시설이었다. 학교를 대신하여 중등학생들의 이과 교육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다. 대륙병참기지 함경북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력 확보 방안이었다. 함북도지사 오노는 학생 노동력에 주목했고,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을 동원할 수 있는 시설로서 ‘박물관’을 구상했고, 이렇게 북선과학박물관이 탄생한 것이다. 북선과학박물관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군수공업 관련된 기술을 훈련시켜 중공업도시 함경북도에 필요한 ‘식민지 공장 노동자’를 양성한 시설이며, 1940년대 학생근로동원정책 전반이 녹아 있는 시대의 산물이다.

V. 맺음말

1930년대 들어 식민지 조선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다양한 박물관이 등장하고, 전시공간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을 박물관의 대중화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1942년에는 그간 조선에 거의 없던 ‘과학’을 주제로 한 북선과학박물관의 등장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단순히 박물관의 수가 증가만으로 박물관의 대중화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 박물관은 당시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북선과학박물관은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고, 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한반도가 병참기지가 된 암울하고 급박한 시대에 핵심 군수공업 도시인 청진에 세워졌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1940년대 갑자기 등장한 북선과학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실 북선과학박물관은 실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많지 않아, 이를 기획하고 운영한 식민통치자가 남긴 기록인 『북선과학박물관개요』을 보면 대중의 과학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한 일반적 과학박물관을 연상할 수도 있다. 하지

만 필자가 북선과학박물관을 그 시대적 상황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북선과학박물관의 실제 기능과 목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북선과학박물관을 비롯한 일제 기관에서 사용한 ‘과학’이라는 용어와 근대적 시설로서 ‘박물관’은 사실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노동 현장으로 빼내기 위해 사용한 기만적 용어에 불과했다. 즉, 조선에서 ‘과학’과 ‘박물관’은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였고, 북선과학박물관이 바로 그러한 시설이었다.

일제의 조선 수탈은 인적·물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과학’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근대화과 문명을 상징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이 은사기념과학관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북선과학박물관은 학생 노동력의 수탈에 ‘과학’과 ‘박물관’이라는 근대적 용어를 동원한 새로운 유형의 수탈 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제의 조선 수탈은 다방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외피를 두른 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자료

『京城日報』, 『綠旗』, 『동아일보』, 『每日新報』, 『博物館研究』, 『朝鮮新聞』,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文教の朝鮮』, 『鮮總督府官報』, 『皇民日報』.

단행본

가네코 아쓰시, 2009, 『박물관의 정치학』, 논형.

국성하, 2007,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해안.

한국박물관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1909-2009. 본문편』, 사회평론.

홍대길, 2021, 『과학관의 탄생』, 지식의 날개.

大出尚子, 2014, 『「滿洲国」博物館事業の研究』, 汲古叢書.

大野謙一, 1936, 『朝鮮教育問題管見』, 朝鮮教育會.

咸鏡北道科學教育財團, 1942, 『北鮮科學博物館概要』.

논문

강명숙, 2018, 「일제말기 학생근로동원의 실태와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0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_____, 2020,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학무국 관료의 특징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제21권 1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고태우, 2020, 「식민지기 '북선개발(北鮮開發)' 인식과 정책의 추이」, 『한국문화』 제89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권오현, 1996, 「三一運動直後 韓國史教育의 實施와 그 意味」, 『歷史教育論集』 제21輯 1號, 역사교육학회.

- 김현정, 2016, 「조선총독부 ‘종합박물관’ 구상의 식민성», 『서울과 역사』 제94호, 서울
역사편찬원.
- _____, 2020, 「1930년대 전문박물관 등장과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 『민족문화연구』
제89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태완, 2005, 「일제강점기의 배움과 가르침», 『배움과 가르침의 끝없는 열정』 한국문
화사 2권, 국사편찬위원회.
- 박찬승, 2010, 「식민지 조선의 일상생활», 『일제 강점 지배사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
단.
- 송규진, 2013a, 「일제강점기 ‘식민도시’ 청진 발전의 실상», 『사학연구』 제110호, 한국
사학회
- _____, 2013b, 「일제의 대륙침략기 ‘북선루트’·‘북선3항」, 『한국사연구』 제163호, 한
국사연구회.
- 신주백, 2001, 「日帝의 教育政策과 學生의 勤勞動員(1943~1945)」, 『歷史教育』 제
78호, 역사교육연구회.
- 안유림, 1994,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북선수탈 정책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제27,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 오진석, 2010, 「도시계획(都市計劃)관련 기록물의 개설과 해제」, 『(國家記錄院)日帝
文書解題: 土木篇』, 국가기록원.
- 이면우, 2012, 「일제강점기 중등과학으로서의 ‘물상’교과의 성립: 제4차 조선교육령 시
기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6호-2.
- 이현일, 2012, 「일제하 公立醫學專門學校의 설립과 운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42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 임이랑, 2013a, 「일제시기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 나타난 조선총독부 학무관료
의 조선교육론」, 『한국민족문화』 제49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_____, 2013b, 「전시체제가 鹽原時三郎의 황민화정책 구상과 추진(1937~1941)」,
『역사문제연구』 제29호, 역사문제연구소.
- 전경수, 1998,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
망-이데올로기 지배와 문화표상의 정치인류학」, 『한국 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송
현이광규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집문당.
- 전상숙, 2017, 「전시 일본 국토계획과 대동아공영권 그리고 조선국토계획」, 『사회이론』

제51호, 한국사회이론학회.

전성현, 2015, 「전시체제기 학교 隊조직의 변화와 집단 노동력 동원」, 『석당논총』 제6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정병욱, 2014, 「일제강점기 함경도의 행정구역 변화와 인구변동」, 『한국지도학회지』 제14권 3호, 한국지도학회.

정인경, 2005,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과 식민지 과학기술」, 『과학기술학연구』 제5권 2호, 한국과학기술학회.

최규진, 2013, 「학교를 덮친 '전시체제', 동원되는 학생」, 『내일을 여는 역사』 통권 50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加藤圭木, 2015, 「朝鮮東北部の社会変容と植民地支配: 清津港の建設をめぐって」, 『日韓相互認識』 第6號, 日韓相互認識研究会.

長沢雅春, 2007, 「日韓併合下における朝鮮教育の同化思想について」, 『佐賀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 第41號, 佐賀女子短期大学.

기타 자료

國立臺灣博物館, https://www.ntm.gov.tw/content_142.html(검색일: 2024.1.5.)

전시체제기 학생 노무자 양성소, 북선과학박물관

김현정

태평양전쟁으로 긴장감이 높아가던 1942년 함경북도 청진에 중등학교 학생들이 이과 교육공간을 표방한 ‘북선과학박물관’이 등장했다. 청진 일대 학교에서 교사를 차출하고, 학교의 기자재를 북선과학박물관에 가져와서 학교를 대신하여 이과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박물관에는 함경북도 자원과 이를 가공하는 각종 군수공장의 생산기계 그리고 최종 생산품이 주로 전시되었다. 과학 박물관이 아니라 군수공장 일부를 옮겨놓은 것과 같았다. 실제 다양한 유형의 공장이 북선과학박물관 부지 내 박물관의 부설기구로 설치되었다.

이 박물관을 기획한 것은 함북도지사 오노 켄이치(大野謙一)였다. 그는 조선 총독부 학무과장을 거쳐 1942년 학무국장이 되어 전시체제기 학생근로동원정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함북도지사로 부임한 오노가 북선과학박물관을 설립한 것은 함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대륙병참기지 함북에는 각종 군수공업시설이 밀집해 있었으나, 노동력 수급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에 도지사로서 오노는 학생 노동력에 주목했고, 이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단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과학박물관을 구상했다. 즉, 오노가 구상한 북선과학박물관의 실체는 군수공장의 생산과정을 체험하고 실습하는 근로동원

을 위한 공간이었다.

북선과학박물관에서 이뤄진 학생근로동원 양상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보조를 맞추거나 앞서나가기도 했다. 1941년 수립된 북선과학박물관 계획에는 1943년 이후 실행된 학생근로동원의 양상이 이미 담겨 있다. 이것의 연결고리는 북선과학박물관 기획자이자 함북도지사 그리고 학무국장을 한 오노 켄이치이다. 오노가 학무국장이 된 이후 교육정책 차원으로 전개된 학생근로동원의 양상은 함북도지사 시절의 북선과학박물관에서 이미 실행되었다. 오노가 기획한 북선과학박물관은 학생들에게 함경북도 일대 군수공업 관련된 기술을 훈련시켜 중공업도시 함경북도에 필요한 ‘식민지 공장 노동자’를 양성하는 시설이며, 1940년대 학생근로동원정책 전반이 녹아 있는 시대의 산물이다.

주제어: 과학박물관, 오노 켄이치(大野謙一), 학생근로동원, 청진, 북선, 학무관료, 전시체제기, 대륙전진 병참기지

ABSTRACT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北鮮), a Training Center for Student Labor Mobilization

Kim Hyunjung

In 1942, amidst the escalating tensions caused by the Pacific War,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Hokusen, literally means Hamgyong Province), located in Cheongjin(then known as Ceisin) in North Hamgyong Province(also referred to as Kankyohokudo), aimed to serve as a science education venue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The museum recruited teachers from schools in Cheongjin and the surrounding area, while the educational equipment was sourced from other schools. However, the museum's exhibits predominantly featured resources, production machinery, and final products from North Hamgyong Province. This suggests that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 may have functioned more as a munitions factory rather than a genuine science museum or an educational space for students.

The brainchild behind the museum was Kenichi Ono, the governor of North Hamgyong Province. Previously serving as the director of the

Academic Affairs Divis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also known as Chosen), Ono had actively implemented measures to mobilize student labor. Although North Hamgyong-do housed various military industrial facilities as the site of the continental army base, labor supply posed significant challenges. Governor Ono, drawing on his academic bureaucratic background, recognized the potential of student labor and envisioned the science museum as a means to utilize it. However, in reality, the museum became a space for labor mobilization, serving as a practical training ground for the munitions production process.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 can thus be viewed as a novel form of student labor mobilization during times of war.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s approach to student labor mobilization both aligned with and preceded the education policy of the Governor-General of Chosun. As early as 1941, during the planning phase of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 there were indications of student labor mobilization, which later materialized after 1943. Governor Ono played a pivotal role in this mobilization effort. The primary motivation behind Ono's plan to establish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 was to experiment with an educational setting conducive to the implementation of student work mobilization.

Keywords: The Science Museum of Bukseon, Kenich Ono[大野謙一], Student Labor Mobilization, Chenojin[=Ceisin], Academic bureaucrats, Wartime, Logistical Deployment of the Korean Peninsula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세기 ‘중화민족’·중화주의· ‘동일성의 제국’

–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을 중심으로

조경란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 I.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
- II. ‘중화민족’의 히스토리와 중화내셔널리즘의 탄생
- III. ‘중화민족공동체’와 제국모델(대일통): 21세기 ‘동일성의 제국’
- IV. ‘중화민족공동체’와 국제사회 모델: 다원의 열린 공동체
- V.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



I.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인류운명공동체’(2012), ‘아시아운명공동체’(亞洲命運共同體, 2015), ‘중화민족공동체’(2017)를 차례로 제시했다. 이로써 미국과 개발도상국을 겨냥한 글로벌 차원, 주변국가를 포함한 아시아 차원, 중국 내부의 한족과 소수민족의 통합을 위한 민족·국가 차원 등 세 층위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체적 구상이 드러난 셈이다.

중화민족공동체는 시진핑 주석이 2017년 19대 당대회에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한다(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를 보고한 후 <중국 공산당 당장(中國共產黨黨章)>에 포함되어 새로운 민족이론으로 확정되었다. 중화민족공동체는 유기적인 운명공동체를 목표로 한다.¹ 사실상 이 구상의 실제 목표는 소수민족, 홍콩, 타이완을 포함한 중국 내부의 국민적, 민족적 통합에 있다. 즉 한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에스닉(ethnic)이 유기적 실체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유기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특수성보다는 ‘동일성의 제국’을 지향한다는 의미로 읽어야 한다. 시진핑 정부가 등장하면서 내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 투고: 2024년 1월 14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NAHF-2023-기획연구-30)로 수행된 연구임.

이 글은 21세기 「중화민족·중화주의·동일성의 디지털 제국」-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을 중심으로(『근현대 중국 역사학과 중화민족주의』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2023년 10월 27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심도 있는 코멘트를 해주신 세 분 심사위원과 김승욱 선생님께서 깊이 감사드린다.

1 이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楊福忠, 2021.8.30, 「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 『光明日報』, 김인희, 2022.7.20, 「중국이 새로 내건 중화민족공동체」, 『중앙일보』 참조.

슬로건에서 이미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화민족’이라는 단어는 의인화되고 있다.²

필자는 여기에 pax sinica 지향의 대일통(大一統) 사상과 레닌주의적 정치 시스템의 당 영도 원칙이라는 정체성의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전자는 “최고지도자는 천하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유교의 전통이다. 후자는 ‘시진핑 사상’을 21세기 마르크스주의로 규정하는³ 현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의 ‘중화민족공동체’ 주장에서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것은 그 타깃이 소수민족이나 타이완의 복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안에는 전통 시대 주변의 사이(四夷)에 대한 역사 전략이 숨어 있고 이 과정에서 역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 고대사 속의 한중 관계를 ‘속국’(심지어 현재까지도) 또는 ‘중변관계’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중국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⁴ 이는 어떤 면에서는 중국에서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⁵ 이런 종류의 역사왜곡이 지속된다면 한중 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⁶ 이러한 현상들은 세계가 ‘근대적 주권개념’으로 전환했음에도 중국은 아직도 중세적인 ‘중화적 종주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 鈴木隆, 2022, 「『中華民族の父』を目指す習近平、あるいは『第二のプレジデント』が『第二のプーチン』か」, 川島眞・小嶋華津子 編, 『習近平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95쪽.

3 *The Fundamentals of Xi Jinping Thought on Chinese Socialism in a New Era*[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基本問題], Beijing: CCP Central Committee Central Party School Press, 2020, 1쪽.

4 이개석·이희옥·박장배·임상선·유용태,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연구재단; 박장배 외, 2014,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5 우성민, 2022, 「한중 수교 30주년 시점에서 살펴 본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현황과 시사점」, 『中國古中世史研究』 65집, 316쪽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임동욱·박정수·박영환·윤경우·신종원·권혁희 공저, 김인희 엮음, 2022, 『문화의 시대 한중 문화충돌』,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⁷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와 시진핑 체제는 왜 중화민족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일까. 대내적으로 글로벌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원심력의 가속화를 견제할 내부통합을 위한 프로파간다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위상이 달라진 ‘세계 최대의 행위자’인 ‘G2 중국’이 갖는 가치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기본적으로는 청의 판도를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 시진핑 정부가 중화민족공동체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의 ‘상상의 공동체’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법가사상(마르크스주의적 관리통제)에 기초한 톱다운 방식에 익숙한 공산당의 시각으로는 에스닉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 티베트 ‘해방’ 전쟁을 위시하여 이후에도 폭력적 방식으로 소수민족의 국민화 정책을 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 내에서 내부 정체성의 ‘단일화’의 정도가 훨씬 더 견결한 ‘동일성의 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이 나왔을 법하다. 그래야 인류문명 공동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만들려는 중화민족공동체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열린 공동체가 아니라 동일성에 근거한 닫힌 공동체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소수민족과 홍콩의 시민에게는 AI를 활용한 감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일반 인민들의 일상에서도 자기검열의 내면화가 이전보다 훨씬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이 연구는 시진핑 체제에서 민과 관의 ‘총동원체제’가 가동되어 펼쳐지는 주류 담론의 감론을박이 21세기라는 시대에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 한다. 역설적이지만 다원성은 국가가 위기를 맞았거나 분열

7 이런 우려를 보여주는 글로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중화민족」, 『역사연구』 132(오병수, 2021,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제국’적 서술의 지속: 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오병수 편, 『한중 역사 교과서 대화: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되었을 때 보장된다. 소프트파워는 다원성이 보장되었을 때만 발전을 허락한다. 세계패권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같이 이웃나라에서 발신하는 중국 밖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자신들의 목표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글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II장에서는 ‘중화민족’과 중화내셔널리즘에 의한 한족 중심의 국가 통합구상은 소수민족에게는 억압과 예속을 의미했다는 것을 밝힌다.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소수민족의 국민화 작업은 ‘다원’을 삭제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III장에서는 ‘동일성의 제국’을 추구하는 제국 모델의 사상적 원천인 대일통 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중화민족공동체는 바로 이에 근거한 정책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대일통의 전통은 ‘사상통일’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며 결국은 ‘동일성의 디지털 제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IV장에서는 대일통에 기초한 제국모델에 대항하여 국제사회 모델도 정당한 역사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다원성이 존중된다는 의미에서 평화와 공존의 모델이기도 하다. 이 모델 아래서 중국은 오히려 보편을 내장한 사상, 즉 소프트파워가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V장 맺음말에서는 중국의 ‘현상변경’ 태세에 대응하여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초보적 수준에서 생각해본다. 단, 이 글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7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독자적 체제’를 갖춘 ‘당 문화’와 그 속에서 형성된 “중국적 특색을 지닌 당대의 중국 지식분자”⁸를 의식하면서 전개한다.

II. ‘중화민족’의 히스토리와 중화내셔널리즘의 탄생

중국 근대사에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어는 ‘국민’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자각과 함께 등장한다. 다시 말해 다민족구조의 중국이 새로운 근대국가로 이행해가

8 첸리천 저, 이복희 역, 2022, 『1948 천지현황』, 한울, 5~16쪽.

는 국면에서 복수의 국민국가로 분열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려는 욕구가 관철된 용어라 할 수 있다. 중화민족의 히스토리는 중화내셔널리즘의 탄생의 과정과도 겹치지만 이는 소수민족의 희생과 억압이라는 복잡한 사정 위에서 만들어진다.

중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가와 국민의식이 담론화되고 일반화된 계기는 1895년 청일전쟁의 패배였다. 청일전쟁의 패배는 중국의 지식인들을 집단적 충격에 빠트렸다. 옌푸(嚴復)가 사회진화론(天演論)을 소개한 것은 청일전쟁의 패배가 계기였다. 중국의 지식인들을 향해 세상이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그는 경전체제, 즉 도덕이 아닌 부와 강의 논리로 세상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사회진화론이 소개되면서 국가와 국민의식이 강조되었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천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중화주의는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대신 근대적 형태의 중화주의, 즉 중화내셔널리즘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한족 중심의 새로운 중화내셔널리즘은 사회진화론적 세계 인식 이후에야 가능했던 것이다.⁹ 옌푸가 “금일(정치)당파에서는 비록 신구의 차이가 있지만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모두 단결해야 한다”¹⁰고 주장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글로벌한 세계 체제 속에서 중국은 서양처럼 국민국가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압박을 느꼈고 이것은 민족주의와 국민의식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면 속에서 기존의 중화주의는 (자각적으로) 해체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근대적 형태의 내셔널리즘이 합쳐져 더 강한 중화주의인 중화내셔널리즘이 만들어졌다. 예컨대 쑨원(孫文)이 “국족주의

9 한족 지식인들은 이전과는 다른 다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초월적인 정치적 통일체인 청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민족국가의 올바른 기초는 민족적 조국이라 주장하면서 새로 탄생한 중화민국은 한족만 독점하는 영역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옮김, 2014, 『하버드 중국사 청-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박스, 504쪽.

10 E. Jenks 著, 嚴復 譯, 1981, 『社會通詮』, 商務印書館, 115쪽.

가 중화세계적 틀 속에서 국민국가적 레벨에서의 응집력으로서 현상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당시 독서인들은 중화세계를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파악하려 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중화내셔널리즘이다. 신해혁명 시기만이 아니라 20세기 전반기까지 서구와 일본의 지속된 침략행위는 저항적 형태의 중화내셔널리즘이 점점 더 강고하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중화의 정체성을 갖지 않은 에스닉에게는 억압과 예측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세기 말 민족담론이 생성될 당시 중국 내부의 타자이며 또 다른 의미의 ‘식민지’라고도 할 수 있는 소수민족의 입장에서는 주류적 민족 담론이 매우 낮설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소수민족의 자결과 독립의 요구에 대해 민족 담론 유포를 통한 ‘국민화’ 작업에 몰두했던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지적되어야 한다. 배경한에 의하면 신해혁명으로 만주족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족은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 요구는 묵살했고 이 점에서 오히려 저항적 민족주의와는 상반되는 팽창적 민족주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¹¹

민족주의 담론이 19세기 후반 중국에 들어와 20세기 초까지의 학술계를 장악하게 된 주요원인은 서구세력의 침략과 이에 따른 국민국가 창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게 근대는 서구제국주의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식민화되는 과정이었다. 18세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수민족의 반란을 겪으면서 청조는 행정적 지배와 교육을 통해 이들을 한화(漢化)시켜나갔으며 따라서 소수민족에게 근대는 한족에게 동화 또는 식민지화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적 근대는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청제국의 팽창이 극도에 달한 18세기 중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¹² 또 근대시기 민족주의 역시 서구열강의 침입에 대응한 중국적 형태 이전에 중국의 팽

11 배경한, 2000,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화체제의 위기와 중국 민족주의」, 『역사비평』(여름호), 247쪽 참조.

12 Joshep Fletcher, 1978, “Ch’ing Inner Asia C.1800”,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35.

창에 대한 소수민족의 저항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바로 이 점에서 근대중국은 조공국과 소수민족의 희생 위에서 발전한 측면이 있다.¹³

대청제국은 이전의 중국왕조나 이방인들의 정복왕조와는 달랐다. 내향적이고 ‘폐쇄된’ 중국왕조가 아니었다.¹⁴ 다민족의 세계적 제국으로서 청제국은 ‘중국’의 지리적 범위를 확장했고 몽골족, 여진족, 티베트족, 내륙 아시아의 이슬람 교도 등 한족이 아닌 민족을 새로운 형태의 초월적인 정치적 통일체로 아우르는 놀랄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¹⁵ 정복왕조는 태생적으로 포용적 태도를 취해야 제국의 운영이 가능했다. 청조 입장에서는 팽창적 포용이고,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타협적 희생이라 할 수 있다.

중화민족이라는 단어가 중국에서 가장 최초로 사용된 예는 1903년 4월 발행한 잡지 『호북학생계』 제4기에 수록한 ‘중화민족론’이다.¹⁶ 다음 해에 량치차오(梁啟超)가 ‘중국의 신민’이라는 필명으로 ‘역사적인 중화민족의 관찰’이라는 글을 『신민총보』에 게재했다.¹⁷ 이 점에서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의 오리지널 저작권은 청말 정치가이자 사상가 량치차오에게 있다. 그가 이 개념을 창안한 것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통치구역으로는 역사상 최대였던 청나라라는 강역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시 국민국가나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국제적 추세다. 물론 당시에는 혁명가 쑨원(孫文)의 ‘오족공화(五族共和)’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컸을 것이다.¹⁸ 그러니까 왕조가 무너지고 근대국가체제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국’의 영역은 그대로 둔 채 국민국가의 형태를 취

13 유장근, 2002, 「동아시아 근대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 혜안, 47쪽.

14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옮김, 2014, 앞의 책, 509쪽.

15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옮김, 2014, 위의 책, 504쪽.

16 중화민족 개념의 복잡성에 대해서는 김승욱, 2022, 「근현대 중국에서 민족 담론의 전개-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 『동북아역사논총』 78호, 385~389쪽 참조.

17 大崎雄二, 1995, 「中華人民共和國における國民統合と民族政策—「中華民族」の概念を中心として—」, 『法政大學教養部紀要』 94, 29쪽.

18 오족공화의 한계에 대해서는 김승욱, 2022, 앞의 글, 403~404쪽 참조.

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로 변환되어야 하지만 청나라가 남긴 넓은 강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중의 과제를 량치차오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에 그는 중국이 ‘현대국가’라는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명-국가(civilization-state)’로서의 광대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성(國性)’을 발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투르키예처럼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성은 문명성을 의미한다.¹⁹ 결국 량치차오는 단기적으로는 국민국가를, 장기적으로는 ‘천하’질서의 재구성을 꿈꾸었던 것이다.²⁰

그렇다면 쑨원은 어땠을까. 당시 정치 지도자의 지위에 있었던 쑨원도 ‘천하’에 대한 과제를 더욱더 무겁게 느꼈을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쑨원의 말바꾸기가 있다. 쑨원은 처음에 오족공화를 주장하고 선창했었다. 청나라 판도내의 소수민족, 또는 비한족의 정치적 자격을 한족과 똑같이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소수민족에게는 그 소리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민들이 일손의 민족자결론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한족 중심의 국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쑨원은 끝까지 그 입장을 견지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중화민족론이라는 용어로 바뀐다. 한(漢), 만(滿), 몽(蒙), 회(回), 장족(藏族)의 평등한 일체를 주장하는 오족공화론을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중국에는 오족 이상의 소수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족 또한 혈통 및 역사의 자존자대한 민족의 명칭을 희생하고 만, 몽, 회, 장의 인민과 합쳐 하나의 새로운 중화민족의 개념을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족 독서인들은 소수민족을 포용한 ‘제국성’을 유덕함 또는 정당성으로 인식했다.²¹

19 甘陽, 2012, 『文明 國家 大學』, 三聯書店, 3쪽.

20 전인갑은 천하 패러다임의 해체와 재구성을 20세기 100년의 시야를 가지고 설명한다. 전인갑, 2022,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1)-천하 패러다임의 해체와 근대 역사학」, 『역사학보』 256호, 3쪽의 <표 1> 참조.

21 조경란, 2016, 「21세기 손문과 삼민주의는 어떤 의미인가-‘제국성’과 국민국가의 이중성」, 『성균차이나프린프』 4권 2호.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의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1922년 7월 제2회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자유연방제의 ‘중화연방공화국’의 수립을 결의하여 당초 코민테른 노선에 충실한 민족자결의 원칙을 내걸었다. 하지만 1937년 항일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당원 교과서용으로 집필한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1939)에서 ‘불가분일체의 다민족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족 개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후부터 소수민족의 자결(自決)은 환상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²²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체제를 성립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는 ‘민족’보다는 ‘계급’을 우선시했으나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를 병합할 때는 대가족(大家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²³

‘중화민족’을 말할 때 인류학자 페이샤오통(費孝通, 1910~2005)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중앙민족대학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페이샤오통은 1989년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론’(이하 다원일체론)을 발표했다. 이 글은 홍콩 중문대학의 Tanner 강좌에서 행한 학술강연을 통해 “중화민족다원일체격국(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²⁴ 다원일체론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긴장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통합과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나온 이론이다. 하지만 이 다원일체론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제민족의 평등, 민족자치정책, 각 민족 상층 리더와의 통일전선 구축이라는 기존의 민족정책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한족과 소수민족 사이에 문화적 단위와 정치적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교육지책의 결과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에 대한 한층 강화된 국민화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주

22 大崎雄二, 1995, 앞의 글, 27쪽

23 마오쩌둥 시기의 중화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손장훈, 2023,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동북아역사리포트』 제37호의 3장 참조.

24 費孝通, 2003, 「民族研究-簡述我的民族研究經歷與思考」,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修訂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3쪽.

문생산된' 것이 바로 다원일체론이다.

그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중화민족이란 현재 중국의 영역내에서 민족으로서의 공통인식을 갖는 11억 인을 가리킨다. 50여 개의 민족단위를 다원으로, 중화민족을 일체로 한다. 각각을 민족이라 부르지만 그 심급은 다르다. 국가영역을 중화민족의 범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국가와 민족은 다른 개념인 동시에 상호 관계하는 개념이다. 이 분류는 다소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크게 보면 양자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중화민족이란 자각적 민족실체로서는 100년 이래 중국과 서구열강이 대항하는 속에서 출현한 것이며 실체로서 존재하는 민족실체로서는 수천 년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²⁵ 페이샤오통은 자각적 민족실체와 자유로운 민족실체를 구분하면서 다원의 토대 위에서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원성을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하에는 다원(多元)을 삭제하려 한다. 그러나 이 다원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라도 중요했다. 다원이 없으면 역동성은 사라진다.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은 하나의 등급에 속하며 그들은 서로 결합하여 중화민족을 이룬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의 다원으로 형성된 일체이며 높은 단계의 공통체 의식을 갖는 민족실체라고 할 수 있다.”²⁶ 여기서 요점은 중화민족이 민족실체라는 것이다. 이 말 속에서 페이샤오통은 56개 민족이 함께 있는 물리적인 총칭이 아니며 너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가 있는 상호 불가분의 정체이고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여기서 그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대한 다층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다원일체 구조 중에서 56개 민족의 하위(基層) 개념과 중화민족이라는 상위(高層) 개념을 확실히 구분했다. 또 페이샤오통은 다원일체의 구조 속에서 한족은 다만 다원적 하위 개념 중 일원(一元)일 뿐이며 다원이

25 費孝通, 2005,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費孝通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59쪽.

26 費孝通, 2003, 앞의 글, 13~14쪽.

결합하여 일체가 된 이후에는 한족이라고 할 수 없고 중화민족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이 높은 단계의 공동체의식을 갖는 민족이 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일체이기도 하고 다원적 복합체이기도 하다. 중국의 어떤 학자는 다원일체론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대한족’이라는 말의 패권을 깬으며 국가가 창도하는 민족평등과 각 민족공동번영 방침에 대한 역사주석을 달았다²⁷고 평가한 바 있다.

페이샤오통의 다원일체론은 민족 자각을 갖는 민족실체로서 중화민족을 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때만 해도 한족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부동(不同)을 의미하는 다원을 개념어로 설정하여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 글의 주제인 중화민족공동체에서는 아예 다원이라는 말을 삭제했다. 따라서 중화민족공동체는 페이샤오통의 중화민족 다원일체구조론의 폐기를 의미한다. 앞으로 중화민족공동체가 현실화될수록 에스닉의 다원성은 약화되고 일방향적 동화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결국 시진핑체제는 다원성을 부정한 ‘동일성의 제국’을 구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이는 공자가 말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가치를 부정하는 꼴이다. 여기서 부동은 동일성의 부정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지만 이들이 똑같은 필요가 없으며 무리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Ⅲ. ‘중화민족공동체’와 제국모델(대일통): 21세기 ‘동일성의 제국’

중국정부는 2017년에 ‘중화민족공동체’ 구상을 내렸으며 2022년 10월 20차 공산당대회 개회식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구상은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한족을 구심점으로 하여 홍콩의 조기흡수, 타이완의 독

27 張植榮, 2005, 『中國邊疆與民族問題』, 北京大學出版社, 18~19쪽 참조.

립 저지, 소수민족의 분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국모델은 규모는 크지만 닫힌 공동체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역사를 논의할 때 ‘중국’과 ‘천하’와 같은 개념에 비해 ‘대통일’은 한동안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대통일’은 정치와 종교 말고도 영토 거버넌스와의 관련성 때문에 최근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²⁸

그러니까 중화민족공동체는 과거의 언어로 표현하면 중앙집권적 천하일통을 지향하며 ‘대일통’의 21세기 버전이다. 중국의 역사인식에서 ‘대일통’은 천하일통을 의미한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안정’과 ‘질서’ 확보를 위해 ‘대일통’의 실현을 선제조건으로 여겼다.²⁹ 여기서 대일통의 의미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통은 통일과 다르다. 일통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이다. 이럴 때 일통은 목가에서 말하는 상동(上同)의 의미에 가깝다. 위의 지시에 따른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통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이다. 반면, 통일은 다원성을 용인한다. 통일은 다원적이며 다원의 통일로서 ‘공화’(共和)를 이루고자 한다.³⁰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도 지배의 정당성은 바로 ‘대일통’을 주내용으로 하는 제국적 중화(Imperial China)를 달성해야 획득된다는 인식이 있다.³¹ 따라서 중국인이 분열은 악이고 통합은 선이라고 교육받는 것이다. 이는 국민국가 시스템

28 김승욱은 家와 國이 긴밀히 연결되면서 ‘대일통’의 국가 개념이 출현했다고 본다. 김승욱, 2019, 「중국 근대 역사학에서 國家 개념의 재구성」, 『역사와 담론』 89집, 166쪽.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국에서 나온 楊念群的 『“天命”如何转移: 清朝“大一统”观的形成与实践』(上海人民出版社, 2022)도 참고할 만하다. 이 책은 ‘대일통’을 주제로 하여 청대 황권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29 鄧小平이 천안문 사건 직후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穩定压倒一切)”고 말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30 이종텐은 통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아메리카를 가져온다. 13주가 연방헌법의 틀 안에서 통일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우 ‘통일’이지 ‘일통’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종텐 저, 심규호 옮김, 2015, 『국가를 말하다』, 라의논, 97쪽.

31 王柯, 2003, 「帝國と民族-中國における支配正當性の視線」, 山本有造 編, 『帝國の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220쪽.

의 형성을 목표로 했던 중국 근현대 100년을 이해하려 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³² 중화인민공화국도 기본적으로는 청나라의 판도와 에스닉을 승계받았기 때문이다. 신해혁명과 마오쩌둥 혁명으로 시대는 바뀌었으나 국가의 존재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형식은 국민국가지만 내용은 제국인 ‘제국적 국민국가’라는 조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중국정부의 ‘중화민족공동체’ 슬로건도 현시점에서 중국 내부의 통합과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슬로건의 주목적은 베이징과 연결고리가 약했던 신장과 티베트 같은 국경 지방을 더욱 강하게 지배하려는 의도에 있다.³³

이 묘사만으로는 중국의 역대 왕조뿐 아니라 지금 시진핑 체제에서 대일통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다 설명하기 힘들다.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지배의 정당성은 지배자의 민족적 출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일통’을 실현한 왕조야말로 ‘정통’의 중화왕조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리고 ‘정통’의 근원은 ‘천’이라는 ‘중화’적 정치신화에서 유래한다.³⁴

왕커(王柯)의 말을 더 들어보자.

중화왕조와 중화제국의 공간적 구조는 다르지만 그 구별은 ‘외’라고 하는 이문화 집단을 포함하느냐의 여부, 특히 동서남북의 사방을 포섭하느냐 마느냐로 결정된다. 모든 중화왕조가 제국적 구조를 목숨을 걸고 구축하여 중화제국으로 변신하려 노력한 이유는 천하사상의 틀로 자신의 정당성이 찾아지기 때문이다.³⁵

그에 의하면 모든 왕조가 중화왕조로 만족하지 않고 중화제국을 달성하려

32 조경란, 2016, 「중국은 ‘제국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라타니 고진 『제국의 구조』의 비판적 분석」, 『역사비평』(여름호), 336쪽.

33 켄트 콜더 저, 오인석·유인승 옮김, 2013, 『신대륙주의-에너지와 21세기 유라시아 지정학』, 아산정책연구원, 350쪽.

34 王柯, 2003, 앞의 글, 206쪽.

35 王柯, 2003, 위의 글, 219~220쪽.

한 것은 그 자체로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방’의 포섭 여부가 중요하다. 중국인이 보유한 ‘중화적 종주권 의식’을 이해해야만 쑨원 등 중국의 정치인과 지식인이 왜 1920년대까지도 조공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가 납득이 간다. 쑨원은 『삼민주의』의 「민족주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보다 이전에 잃은 땅으로 조선과 대만, 펑호도가 있다. 이들 땅은 청일전쟁에 의해 일본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 이로써 중국이 강대했을 무렵에는 ... 아시아의 서남제국에서 ... 진상품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³⁶ 과거에 조공했던 국가를 자신이 지배했던 지방정권으로 인식하는 사고습관은 쑨원 개인의 한계이기보다는 중국 정치인, 지식인 일반에서 보여주는 중세적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1925년 공화국 시대에도 조공국인 사이(四夷)가 포함되어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례다.

이처럼 중국에서 ‘대일통’에 대한 강박이 강한 이유는 바로 ‘통치의 정당성’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G2의 경제체를 계승한 시진핑 정부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가적 이해관계다. 소수민족 자치 지역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중국 전 국토의 64%가 된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진핑 체제도 소수민족의 이탈방지와 ‘타이완의 수복’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일 터이다. 타이완 문제는 마오쩌둥이 남긴 사후 과제인 만큼 시진핑은 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을 마오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에서는 ‘굴욕의 근대사’를 극복하고 ‘충분히 강한’ 국가를 만들고 ‘중국의 꿈’을 이루는 데서 타이완은 빠질 수 없는 영토라고 생각한다. 중국공산당에게 타이완은 ‘굴욕의 근대사’ 속에서 일본에 ‘빼앗긴’ 땅이고 또 중국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에 철퇴를 허용한 ‘해방’되지 않은 땅이다. 또한 미국의 ‘개입’에 의

36 孫文 著, 손태식 역, 1974, 『孫文全集』 上, 삼성출판사, 45~46쪽.

해 장기적으로 통합이 어렵게 된 땅이다.³⁷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의 서문에도 “타이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는 것은 타이완 동포도 포함한 전 중국 인민의 신성한 책무”라 쓰여 있다. 시진핑은 2017년, 2019년에 ‘타이완 동포에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신시대 타이완 공작’을 내놨다. 여기서 ‘양안 일가친(一家親)’, ‘양안운명공동체’ 등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이념을 제시했다.³⁸

그렇다면 대일통이라는 관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동중서(董仲舒)는 천하사상으로 지배의 정당성의 사이클을 완성하여 중화제국 통치이데올로기 서사를 만들었다. 동중서는 영원불변의 도는 어떤 것이냐는 무제의 질문에 “『춘추』의 천하통일을 중시하는 공자의 도에 집약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진나라가 단명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나라가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을까를 고심했고 그 결과 유교를 기초로 한 방대한 제국의 통치원리를 탄생시켰다. 그 저작이 바로 『춘추번로(春秋繁露)』이다. 이후 유교는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여기서 법가를 편애했던 마오쩌둥과 진시황이 오버랩되고, 유교를 끌어들이며 마르크스주의와 법가사상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집권을 시도했던 시진핑과 한무제가 오버랩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중서가 개조한 유가사상은 공맹의 그것과 다르다. 전자는 천하일통의 사상이며 그것은 인의예지보다 군신의 질서를 중시한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동중서가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를 한족만의 것이 아닌 국가 또는 제국의 것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유교가 한(漢) 민족에 내속(內屬)된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내속’되게 만들었다.³⁹ 만

37 福田円, 2022, 「習近平は臺灣を‘統一’できるのか-對臺灣政策の理念・政策・課題」, 川島眞・小嶋華津子 編, 『習近平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159~160쪽.

38 「習近平: 爲實現民族偉大復興 推進祖國和平統一而共同奮鬥」, 『人民日報』, 2019.1.2.

39 渡邊義浩, 2009, 「儒教の‘國教化’論と‘儒教國家’の成立」, 『中國-社會と文化』,

주족의 청나라도 유교를 이용하여 통치했다. 천명을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은 혈통보다는 유교의 문화에서 말하는 개인적 덕성이었다.⁴⁰ 이는 동중서가 유교를 가지고 종족의 계기를 뛰어넘는 방대하고도 ‘보편적 통치원리’를 만들어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최근 대륙신유가는 도가 무너진 춘추 시기에 주나라 모델을 재건하려 했던 공자의 역할과 한무제 시기 동중서가 한 역할이 비슷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서세동점의 위기 속에서 Kangyuewei가 바로 이 역할을 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다.⁴¹ 이들에 의하면 공자, 동중서, Kangyuewei는 공히 ‘유학의 재구성’이라는 작업을 통해 난세를 구하려 했다.⁴²

현재 시진핑 체제에 들어와 동중서와 Kangyuewei로 이어지는 이른바 ‘대일통’의 춘추공양학 전통이 우세해지면서 대륙신유가에게 박대받는 유파가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주장했던 춘추좌전학 계열이다.⁴³ 계열로 따지면 지금 중국에서 주자학적 화이론(華夷論)이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춘추공양학을 일찌감치 주장한 대륙신유학의 태두격의 인물인 장칭(蔣慶)은 타이완 신유학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대륙의 다른 학자들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⁴⁴ 자오팅양뿐 아니라 장칭도 ‘화’와 ‘이’를 구별하는 것을 ‘춘추’

東京大學出版會, 321쪽.

40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옮김, 2014, 앞의 글, 44쪽.

41 蕭公权, 1997, 『近代中国与新世界: 康有为变法与大同思想研究』, 江苏人民出版社, 107~108; 干春松, 2015, 「康有为与现代儒学思潮的关系辨析」, 『中国人民大学学报』第5期.

42 이에 대해서는 趙京蘭, 2023, 「天下秩序和儒教普遍主義的重組可能性-以大陸新儒家的論述爲主」, 干春松·安樂哲 編, 『重思天下』, 香港城市大學出版社, 206~207쪽 참조.

43 이러한 복잡한 구도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도표로 설명한다.

44 Ming-huei Lee, 2014, “A Critique of Jiang Qing’s “Political Ruism,” *Contemporary Chinese Thought*, Volume 45 Number 1; 거자오광 저, 양일모 역, 2017, 「기상천외: 최근 대륙신유가의 정치적 요구」, 『동양철학』 48집 참조[원문은 葛兆光, 2017, 「異想天開: 近年來大陸新儒學的政治訴求」, 『思想』(台灣) 第33期]

의 잘못된 이해라 비판한다. 굳이 계통으로 따지자면 만주족을 쫓아내고(驅除
獯虜), 중화를 회복하자(恢復中華)는 구호를 내걸고 신해혁명을 이끌었던 쑨원
계열의 부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 글이 존왕양이나 화이론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전통
시대 중화와 이적의 차별을 옹호하는 편벽된 사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론적으로 주자의 화이론에는 도덕의 수용 여부를 기준으로 이가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이가 될 수도 있는 수양론이 들어 있다. 인종론이나 국족론이 기준이
아니라 도덕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분명 천부적인 인권과 평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대의 시각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한 면이 있기는 하다. 다만 여기서는 주자의 화이론이 보여주는
역설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주자의 화이론이 배타주의적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
이지만 도학파의 자주독립과 자존감이라는 춘추학(春秋學)의 기본원리가 바탕
에 있다.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이다. 공양학
에서는 화와 이가 같다고 하지만 여기서 같음이란 동화를 전제로 한 같음이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이의 존재가 갖는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
나 주자학의 화이론에서는 원리적으로라도 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위에서 논
의가 출발한다.

이와 비교하여 중화민족공동체는 한족과 소수민족이 일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화
하와 이적이 일체임”을 새롭게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를 인정한 공동
체(一體)라는 전제조건이 들어 있지 않다. 차이의 인정 없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
동체가 될 수 없다. 강요된 공동체다. 차이를 전제로 한 평등, 이 조건이 지켜지
지 않는 한, 다민족 사회에서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종적 동화와 문화적
동화를 ‘공식적’이고 ‘강제적’인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 공표하는 것과 같다. 설
사 이들이 목표로 한 공동체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위적이고 닫힌 공
동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닫힌 공동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시진핑 정부가 궁극으로 추구하는 것은 ‘동일성의 디지털 제국’일 수도

있다. 기술강국인 중국은 국민통합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한다. 중국사회 전역이 감시의 대상이지만 소수민족 지구는 더 철저하다. 신장 지역에 AI와 얼굴인식 CCTV 설치를 통해 ‘이질분자’를 가려내는 상시적 감시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다.⁴⁵ 이에 대해서는 대런 바일러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⁴⁶ ‘중국의 정실 자본주의’ 연구로 유명한 민신 페이에 의하면 중국 감시 국가의 효율의 원천은 안면 인식 AI나 휴대폰 추적과 같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방대하고 노동 집약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국내 스파이 인프라다. 비밀경찰이 없는 곳이 없다. 이른바 ‘감시 병(sentinel) 국가’인 것이다.⁴⁷ 중국의 이중텐도 현재의 이러한 중국사회주의를 ‘목가사회주의’와 같다고 주장한다. 목가집단에서 최고의 우두머리는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비밀경찰의 존재가 우두머리의 눈과 귀가 되어준다는 의미다.

시진핑 정부의 동일성의 디지털 제국의 면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대중들을 관리하기 위해 모바일 앱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중국만의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인들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기보다는 격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작업이다.⁴⁸ 모바일 앱을 통해 이른바 다른 세계와의 장벽 쌓기가 가능해졌고 국가는 인민들의 대화를 들여다본다. 문제는 중국대중들

-
- 45 Markus Gabriel·中島隆博, 2020, 『全體主義の克服』, 集英社, 52쪽;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저, 박성민 옮김, 2021,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놀와, 74~75쪽.
 - 46 대런 바일러 저, 홍명교 옮김, 2022,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중국의 첨단기술 형벌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착취의 기록』, 생각의힘.
 - 47 Min Xin Pei, 2024, *The Sentinel State: Surveillance and the Survival of Dictatorship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 48 Ian Johnson, 2023, “Xi’s Age of Stagnation: The Great Walling-Off of China.” *Foreign Affairs*, Volume 105 Number 5, Sep/Oct. 사실상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는 중국의 밝은 향해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기에 사람들이 미처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국 문제에서 이는 다른 무엇보다 급박하게 인식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 ‘안전’을 대가로 자신들의 대화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 있다.

인종적 동화와 문화적 동화는 자기우월성에 근거해서 진행된다. 이 우월성은 유교라는 중국문화가 다른 문명권과 달리 그 기원 이래 오늘날까지 중단 없이 지속되어왔다는 데서 오는 자긍심에서 출발한다. 자기의 정치체제, 문화가치를 타자의 그것보다 우선시하는 자기우월성은 ‘중국’을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고 ‘천하’, ‘세계’로 보려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를 주된 골자로 하여 ‘중화사상’이 형성된 것이다. 이 중화사상의 정치적 제도적 표현의 하나가 한 사람의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유사봉건관계, 즉 조공관계였다.⁴⁹ 이러한 발상은 ‘중화적 종주권 의식’에 깊이 터하고 있다. ‘천하’라는 언어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중국식의 ‘질서’가 우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관념이 시대의 전환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청왕조가 무너지고 공화제로 제도적 전환이 되었음에도 중국의 위정자와 지식인은 중화제국체제 시기의 중세적 인식은 해체하지 못하고 온존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인 자신이 보는 중국과 다른 나라 사람들, 즉 타인이 보는 중국의 모습은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모오리 가즈코(毛里和子)는 중국인을 속박해온 3개의 신화를 지적한다. 첫째, 주권이 인권 이상으로 절대적이고 불가침이라는 신화, 둘째, 중국 역사상 대일통이 지배적이었다는 신화, 셋째, 중국문화의 특질은 문이 무보다 상위에 있다(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화다.⁵⁰ 이 세 문제를 본격 서술하기에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기도 하고 지면의 문제도 있다. 여기서는 일단 이 신화가 역사인식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중국 역사상 대일통이 지배적이었다는 것도 역사 인식의 영역인 것이다.⁵¹ 그러니까 주권, 대일통, 호전적이

49 민두기, 1976, 『중국근대사론』, 지식산업사, 90~91쪽.

50 毛里和子, 2021, 『現代中國の内政と外政』, 名古屋大學出版會, 19쪽.

51 劉傑·中村元哉, 2022, 『超大國中國のゆくえ 1-文明觀と歴史認識』, 東京大學

지 않은 것을 중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팩트이기 보다 역사인식의 문제이고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자면 국제정치학자 존스톤(Alastair Iain Johnston)의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이근욱의 도움을 받아 소개하자면 존스톤은 무경칠서(武經七書)⁵²에 근거한 중국의 전략문화가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유교적 해석에서 시사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국가이며 군사력 사용에 매우 적극적이라 진단한다.⁵³ 이런 진단 아래 그는 중국의 전략문화는 물질적 현실에 기초하기보다 군사력 사용과 관련된 문화적 현실주의(cultural realism)라 주장한다.⁵⁴

IV. '중화민족공동체'와 국제사회 모델: 다윈의 열린 공동체

시진핑 체제에서 중화민족공동체와 인류운명공동체는 그 구상과 접근방식 자체가 과거 회귀적이다.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과 쟁점에 따라 구획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과거 통치방식인 내와 외를 구분하고, 어떻게 외를 지배하고 통치할 것인가. 그리하여 영향력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결국 대일통의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국모델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전가의 보도인 왕도वाद도 어긋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맹자에 의하면 이 제국모델이야말로 왕도정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힘으로 다스리되 인(仁)을 가장하는 것은 패도이니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차지하려 한다. 덕(德)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은 왕도이니, 왕도는 (영

出版會, 109쪽.

52 『武經七書』는 「孫子兵法」, 「吳子兵法」, 「司馬法」, 「尉繚子」, 「太公六韜」, 「黃石公三略」, 「唐太宗李衛公問對」로 구성되어 있다.

53 이근욱, 2009, 『알츠 이후』, 한울, 276쪽.

54 이러한 전략문화는 명나라의 안보정책, 특히 몽골계 북방민족에 대한 군사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근욱, 2009, 위의 책, 273쪽.

토가) 큰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孟子』公孫丑上: 以力假仁者覇 覇必有大國 以德行仁者王 王不待大).”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중국은 왕도국가를 목표로 하는가, 패권국가를 목표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국제관계론에서 말하는 패권(hegemon)은 가치중립적 용어이다. 춘추시대에 패(覇)라는 단어에는 네거티브한 뉘앙스가 있었으나 제후들을 리드하는 맹주의 의미에 더 부합한다. 전국 시기 맹자가 왕도와 패도를 대비시키면서 선과 악이라는 요소를 강화했다. 이후 패라는 단어에 횡포, 압박, 통제, 침략이라는 의미가 더해졌다.⁵⁵ 현대중국에서도 패권을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이지만 시진핑 체제에서도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들도 패권국가를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중국이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강권적이고 억압적인 태도이며 초대국이 국제정치를 리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⁵⁶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왕도국가가 되는 것까지는 현실에서 바랄 수 없더라도 강권적 국가라는 오명은 피해야 할 것이다. 가치중립적인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과감하면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제국모델과 국제사회 모델 모두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분열시기인 국제사회 모델에서 소프트파워 탄생의 요소가 생겨났다는 점에 주목하면 더더욱 그렇다. 중국 지식계에 소수지만 이러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즉 거자오광(葛兆光), 왕페이링(王飛凌), 첸리췌(錢理群) 등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 지식계를 좀 ‘자의적’으로 구분한다면 제국모델과 국제사회 모델파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일통’ 담론에 적극 참여해온 자오팅양(趙汀陽), 장칭, 왕후이(汪暉) 등이다. 거, 왕, 첸 세람이 후자에 해당한다. 전자에 속하는 지식인이 ‘신정통’이라면 ‘국제질서 모델’을 주장하거나 현재 중국의 지식 환경

55 山口信治, 2022, 「中國の目指す覇權と國際秩序とはなにか」, 川島眞・小嶋華津子 編, 『習近平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146쪽

56 山口信治, 2022, 위의 글, 146쪽.

이나 조건을 문제삼는 이들 세 지식인은 ‘신이단’에 속한다. 신정통이 춘추공양 학파의 전통을 이었다면⁵⁷ 신이단은 춘추좌전학파의 전통을 계승했다. 전자는 표면적으로는 화이를 따지지 않으면서 21세기의 Pax Sinica를 추구한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왕도국가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추구하는 ‘패권국가’의 전략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은 천하와 ‘정치유학’을 강조한다. 후자는 존왕 양이를 따지며 ‘심성유학’을 주장한다. 결국 주자의 심성유학이 ‘신이단’이 된 아이러니한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시진핑 3기에서 사상통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구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⁵⁸

아래에서는 ‘신이단’에 속하는 세 사상가의 고민을 따라가면서 국제사회 모델에 대해 말하려 한다. 첫째, 거자오광에 의하면 진한 시대 이후 시작된 중화세계의 ‘천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중국인은 ‘무엇이 중국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해왔다. 그에 의하면 중국 역사상 이런 시대가 세 차례 있었다. 북송시대, 20세기 초, 그리고 당대(當代)다.⁵⁹ 북송 시기 ‘전연의 맹(澶淵之盟)’이 성립하고 나서 북송은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대송과 대거란은 공존하게 된다. 이 시기 누가 중국인가, 누가 화이고 이인가, 누가 정통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당시 두 나라 사이에 왕래하는 국서에서 서로 북조와 남조로 칭했다. 거자오광은 결론에서 정권의 합법성, 영토의 신성성, 에스닉 그룹의 통일성 문제를 논의할 때 고대영역과 현대의 영토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⁰ 그에 의하면 중국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근대국가

57 조경란, 2023, 「‘신명전’ 시기, ‘범신좌파’의 ‘20세기 중국’ 재인식-왕후이 ‘단기 20세기’와 국가주의 비판」,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9집, 60~63쪽; Wang Hui, 2017, “From Empire To State: Kang Youwei, Confucian Universalism, and Unity”, *Chinese Vision of World Order*, Duke University Press, p. 58.

58 이 정책은 그 자체로 마오쩌둥 시기 사상통일을 위해 ‘기획된’ ‘반우파 투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 지식인집단에 자발적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59 葛兆光, 2018, 「“何가‘中國か’の思想史」, 『思想』, 6~7쪽.

60 葛兆光, 2018, 위의 글, 20쪽.

이면서 천하의 제국이라는 복잡한 성격을 갖는 현대중국은 당면한 국제질서 속에서 많은 트러블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의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⁶¹

둘째, 왕페이링 또한 거자오광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도 송대의 역사 특히 한족인 송과 거란족인 요 사이에 체결된 1004년의 ‘천연의 맹’에 주목한다. 이것을 ‘베스트팔렌조약의 중화판’이라 말한다. 송은 매년 은을 보내고 요는 불가침을 약속했다. 이로써 양국은 전면적 충돌 대신에 공존을 선택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⁶² 왕페이링에 의하면 중국에는 두 가지 질서 모델이 있다. 하나는 진나라와 한나라 같은 전제적 정치체제의 제국모델이다. 이는 법가의 통치술에 기초하면서 천하의 통일을 구하는 모델이며 현대의 마오쩌둥이나 시진핑까지 이어진다. 다른 하나는 힘의 균형을 중시하는 국제사회 모델이다. 춘추전국시대, 북송시대, 아편전쟁 이후 근대까지(1840~1940년대) 세 시대가 이에 해당한다. 두번째 모델이 중국에서 주류가 되지는 못했지만 왕페이링은 이 모델이 진·한 식의 정치체제와 달리 보다 열린 국제질서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⁶³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중국에서 주자 계열의 가치를 주장하는 쪽이 ‘신이단’이 된다. 사실 주자는 진량(陳亮)과의 논쟁에서 보듯 부강보다는 인의예지를 강조했다.⁶⁴ 바야흐로 현재 중국에서 인의예지를 강조하면 ‘신이단’이 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맹자의 철학과도 통한다. 중국의 전체 철학사를 통시적으로 보면 국가가 강해지면 철학이 죽고, 약해지면 철

61 葛兆光, 2018, 위의 글, 22쪽.

62 이와 관련하여 북송 시기 ‘패자의 콤플렉스로서 중화사상’이 생겨났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몽골족 인류학자 양하이잉은 나중에 국가 교화가 되는 주자학이 북송부터 남송까지 북방민족의 압박이 혹독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양하이잉 저, 우상규 옮김, 2018, 『반중국의 역사』, 살림, 36쪽.

63 王飛凌, 2018, 『中華秩序』, 八旗文化, 125쪽.

64 이상익, 2007, 「朱子와 陳亮의 王霸논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제138집 참조.

학이 다원화되어 질적 성장을 한 사례가 많다.

우선 춘추전국 시기 백가쟁명과 백화제방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주나라가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기에 가능했다. 역설적이지만 다원성은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위기를 맞았을 때 보장된다. 철학은 다원성이 보장되었을 때만 발전을 허락한다. 위진남북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분열되고 혼란스러우며 전체사회가 고통받던 시대가 오히려 사상이 가장 왕성하게 꽃피던 시절이었다. 유아독존의 유학이 곧 무너질 듯 흔들리고 비정통적인 사설(邪說)이 오히려 기승을 부렸다.”⁶⁵ 송대의 신유학(neo-confucian)은 장기적으로는 위진남북조시대의 소위 400년 정도의 분열 시기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 ‘분열의 역설’로 봐야 한다. 동중서에 의해 개조된 유법사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춘추전국의 분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자의 신유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위진남북조의 혼란과 당나라까지의 불교로 인한 위기감의 결과였다. 주자학체계는 불교와 도가에 위기를 느껴 선진시대 유학과는 질적으로 다른 우주적 규모의 정교한 철학체계를 선보인 경우다.

19세기 말에도 서양과 일본이 침략하고 전에 없던 위기를 맞아 서구 사상이 진입했고 이로써 유교의 일원적 경전체제는 상대화될 수 있었다. 20세기 전반기까지 신문화운동 등 사상 논쟁이 풍부했던 것도 청조의 약화와 국가의 위기상황이 초래한 결과였다. ‘신계몽’ 시기로 불리는 1980년대도 30년 동안 막혀있던 절대권력의 마오쩌둥 시기가 약화되면서 열린 시공간이었다. 이 시기도 서양사상이 대거 유입되면서 단절되었던 1940년대의 중간과 지성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열띤 토론의 분위기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으로 반전을 맞았다. 이 시기들의 공통점은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거나 국가가 분열된 시기였다. 중국의 전 역사에서 국가의 분열과 위기는 결과론적으로 다원이 살아날 기회를 만들어주었고 이 기회를 틈타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사상요소들은 통일제국 시기를 버틸만한 이데올로기가 창출되는 사상적 토대

65 이중텐 저, 심규호 옮김, 2015, 앞의 책, 153쪽.

가 되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 모델이 갖는 역설의 철학이라 할만하다.

셋째, 중국에서 ‘살아 있는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첸리췌에 대해 말할 차례다.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당대의 중국 지식분자”에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그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통치 75년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중국 특색의 지식인 집단’도 만들어졌다. 그에 의하면 이 집단은 이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공화국 문화’, ‘마오쩌둥 문화’, ‘당 문화’속에서 창출된 것이다.⁶⁶ 첸리췌은 이 문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 전통문화와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전통적인 유·불·도·법 문화 범주 밖의 ‘신문화’일 뿐 아니라 계획적이고 주도적이고 조직적인 선전과 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주입되어 (중국)대륙에는 이미 민족 집단 무의식 즉 새로운 국민성이 형성되었다. 나는 『1948 친지현황』에서 이것을 그 시 작점에서부터 따져보고자 했다.

따라서 첸리췌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문화, 학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공화국 문화’, ‘마오쩌둥 문화’, ‘당 문화’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⁶⁷ 공산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지식환경과 조건을 메타인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이제 중국에서 중국공산주의 사회를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세대의 빅스피커들이 속속 세상을 떠나고 있고, 곧 떠날 것이다. 1949년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이후 중국사회가 마오쩌둥 시대와 덩샤오핑 시대에 성장한 세대와 시진핑 시대의 키드로만 채워질 것이다. 이미 자신들만의 앱에 갇힌 디지털 제국, 행복한 감시

66 첸리췌 저, 이복희 역, 2022, 앞의 책, 15~16쪽.

67 첸리췌 저, 이복희 역, 2022, 위의 책, 17쪽.

사회가 된 상황에서⁶⁸ 시민 개개인의 저항은 한계가 있으며 ‘중화민족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제국의 동일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가피하다.

이제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여 질서모델 분류표를 만들면 <표 1>과 같다. 다만 이 분류표는 경향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도식적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표 1> 질서모델 분류표

	‘신정통’	‘신인단’
질서모델	진, 한, (몽골), 청제국, 중화인민공화국 - 제국모델(중화민족공동체)	춘추전국, 위진남북조, 북송, 청말민초, 1980년대 - 국제사회 모델
始原	유가(董仲舒), 법가, 묵가(上同), 마르크스주의	공자(和而不同), 맹자(以力假仁者霸 以德行仁者王)
주창자	董仲舒	朱熹
계승자	康有爲 - 保存中國(청의 판도)	孫文, 章炳麟 등 - 驅除韃虜 恢復中華
『춘추』 해석	춘추공양전	춘추좌전학
주장내용	화하와 이적이 일체임 (공산당의 ‘중화민족공동체’의 주장과 일치) - 소수민족에 대한 일방적 동화정책 - 평등을 전제로 한 공동체가 아님 - 대동아공영권의 기만적 슬로건을 떠올리게 함 (政治東亞)	화이론 중화와 이적이 구분(상호 가변성 인정이라는 점에서 보편주의적임)
현대인물	趙汀陽, 蔣慶, 汪暉(주류 지식인) 유가 또는 사회주의 레토릭을 사용하나 실제로는 부국강병의 제국모델을 따라야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정함	葛兆光, 王飛凌, 錢理群(마이너리티 지식인) 북송과 요 사이에 체결된 ‘澶淵의 盟’에 주목 - 베스트팔렌 조약의 중화판

68 Markus Gabriel·中島隆博, 2020, 앞의 책, 52쪽;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저, 박성민 옮김, 2021, 앞의 책.

V. 맺음말을 대신하여: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

시진핑 체제에서 역사, 문화, 언어, 종교에서 말살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소수민족의 다원성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 우선 ‘중화민족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한족을 중심으로 한 인종적, 문화적 동화주의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 때문에 필자는 중화민족공동체를 결국 ‘동일성의 제국’을 만들려는 기획으로 보았다. 그런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들이 구상하는 ‘동일성의 제국’ 구상은 중국 내부에서 발행하는 논문과 다른 미디어의 분위기를 종합해볼 때 조공체제의 기억과 전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소수민족과 홍콩, 타이완만이 아니라 천하로서의 ‘중국’을 구성했던 전통시대에 ‘사이(四夷)’라 부르던 지역에 대한 인식에서 중국의 위정자와 지식인들은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화적 종주권 관념이 아직도 중국의 정치와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중국인이 심리적으로 이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웃국가들과 역사 해석상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이 한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화민족공동체는 국제사회 모델보다는 제국모델에 가깝다. 그 사상적 원천은 대일통이다. 여기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기본적으로는 청대의 강역을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리한 기획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이 AI와 디지털에서 발전한 국가라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친민주주의적이기도 반민주주의적이기도 않다. 테크놀로지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는 ‘선택’에 달려 있다.⁶⁹ 마르스크주의와 공자사상도 이 테크놀로지를 만나면 어떻게 변모할지 모른다. 물론 변모의 주체가 인간친화적인가 아니면 국가권력친화적인가, 자본친화적인가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인가도 중요

69 대런 아세모글루·사이먼 존슨 저, 김승진 옮김, 2023, 『권력과 진보』, 생각의 힘, 503쪽.

하다. 여하튼 중국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인민들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에 도움을 주지만 반면에 ‘동일성의 디지털 제국’을 강화하는 쪽으로도 활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두에서 시진핑 체제에서 ‘중화민족공동체’와 더불어 ‘아시아운명공동체’도 공식화되었다고 말했다. 이 슬로건 중에서 특히 아시아운명공동체에 대해서는 중국정부가 말한 것이 별로 없다. 슬로건만 공허하게 던져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기억 때문에 순수하게 보기 힘들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이 내걸었던 대동아공영권과 오버랩된다.⁷⁰ 대륙신유가의 대표적인 장칭(蔣慶)이라는 인물은 지금은 동아정치문명의 회귀의 시대이며 ‘정치동아’의 재건이 필요하다⁷¹고 말한다. 사실 이 문제는 국가 패러다임의 문제와 연관시켜 장기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⁷²

이런 인식의 저변에는 동아시아 각국이 아무런 저항 없이 유교문화에 기초하여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중국 지식인의 이런 기대는 문명에서는 아직도 동아시아 다른 나라가 중국의 주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21세기가 되고 한세대가 가까워는 지금, 19세기 이전의 전근대적 발상인 ‘중화적 종주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감지된다. 이들 중국의 주류 지식인 담론과 상호 침투하에서 수립한 중국공산당의 정책 또한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70 중국과 일본의 발상들을 보면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떠올리는 것은 단지 민족주의의 과잉의 발로일까. 그는 1910년의 시점에서 한중일 3국 공존공영을 위해 3국이 참여하는 동양평화회 조직, 3국 공동은행 설립과 공용 화폐 발행, 3국 공동 평화유지군 창설 등 구체적 제안을 한다. 삼국 간의 평등과 평화가 대전제다. 발상에서는 마치 현대의 유럽연합을 떠올리게 한다.

71 蔣慶, 2014, 『政治儒學』, 福建教育出版社, 292쪽.

72 이런 문제의식 아래 진행된 대표적 연구로 전인갑, 2020,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민족’과 ‘천하’의 길항」, 『동북아역사논총』 67호 참조. 그는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100년의 시좌를 ‘민족’과 ‘천하’의 길항 관계라는 방대한 체계 속에서 살핀다. 20세기의 국가건설 과정을 지나 21세기에 이루어지는 ‘중국특색’의 국가건설을 문명국가 패러다임의 귀환으로 본다.

동아시아에서 유교문화는 중국을 기점으로 동심원적으로 확산되고 각 나라의 시공간을 거치면서 그 양태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는 동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간 아시아의 유학을 중국의 ‘외전(外傳)’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⁷³ 각국의 논의과정에서 각각의 특성을 가진 유학으로 변모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중국의 유학도 중국의 장소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중국의 유학일 뿐이다.⁷⁴ 예컨대 이탈리아가 로마를 기독교 문화의 원류라고 주장하지 않듯이, 또 중심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말이다. 동아시아 문명은 동아시아인 모두가 주체자로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 중국이 유교문명의 발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자신들이 중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문명이든 사회발전이든 이제는 중심과 주변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명, 문화의 평등이라는 규칙이 전제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주체의식을 갖고 발전시키려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기술만 있고 정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 시대, 미국 민주주의의 철저한 부패로 인한 정치의 실종, 이러한 현실에서 중국의 경우는 자극제는 될 수 있을지라도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현금 인류의 비극이 존재한다. 적어도 ‘당분간’,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중국 최고의 인문지성이라는 이들의 현재 담론 수준만으로도 확인된다. 한 국가가 제일 패권국가 될 수 있는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인문학으로 결정된다. 자국의 정치, 사회, 문화뿐 아니라 세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서술할 수 있는가, 즉 비판적 접근이 가능한가, 더 나아가 이 모두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결정된다.⁷⁵

중국의 위상이 달라졌기에 중국은 우리가 새롭게 질문해야 하는 대상이다.

73 1997년 왕후이(汪暉)와 미조구치의 대담.

74 조경란, 2024, 「대륙신유가 집단의 정치주장과 ‘레드차이나’의 부활-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의 분기와 의미」,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편, 『경학방법론』 연구총서 2, 예문서원 참조.

75 조경란, 2023, 앞의 글, 65~66쪽.

어쩌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를 가능성을 지금으로선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공산당이 내놓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인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월러스타인(Immanuel M. Wallerstein)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유럽적 보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 극복태로 어느 하나를 즉자적으로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단 하나의 위험한 대안은 보편적 가치들에 기초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기존의 세계체제에서보다 심중팔구 더욱 사악하게 우리의 관습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될 새로운 위계적 불평등의 세계다.”⁷⁶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까지 통용되어온 ‘중국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서방의 중국인식과도 차별화되는 한국의 ‘새로운 중국인식 패러다임’ 재구성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이 작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형태의 고민과 설계가 나와야 한다. 우선은 각 분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인문학자들은 팩트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비판해야 하고, 외교와 정치의 책임자들은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을 아는 바탕 위에서 현안에 따라 실리적·포용적·창조적 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은 단일지배 체제이지만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변화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한 외교를 하려면 먼저 공부가 필요하다. 한국의 진보든 보수든 최신 업데이트된 중국(미국도 포함하여)의 전략을 알아야 사안별로 신축적 대응이 가능하다. 학습 없는 정치는 위험하다.

76 이매뉴얼 월러스타인 저, 김재오 옮김, 2008, 『유럽적 보편주의-권력의 레토릭』, 창비, 146쪽.

참고문헌

단행본

-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저, 박성민 옮김, 2021,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놀와.
- 대런 바일러 저, 홍명교 옮김, 2022, 『신장 위구르 디스토피아-중국의 첨단기술 형벌 식민지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착취의 기록』, 생각의힘.
- 민두기, 1976, 『중국근대사론』, 지식산업사.
- 박장배 외, 2014, 『중국의 변경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손문 저, 손태식 역, 1974, 『孫文全集』上, 삼성출판사.
- 양하이잉 저, 이상규 옮김, 2018, 『반중국의 역사』, 살림.
- 윌리엄 T. 로 저, 기세찬 옮김, 2014, 『하버드 중국사 청-중국 회후의 제국』, 너머북스.
- 이개석·이희옥·박장배·임상선·유용태, 2005,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 고구려 연구재단.
- 이근욱, 2009, 『왈츠 이후』, 한울.
- 이매뉴얼 윌러스틴 저, 김재오 옮김, 2008, 『유럽적 보편주의-권력의 레토릭』, 창비.
- 이중텐 저, 심경호 옮김, 2015, 『국가를 말하다』, 라익논.
- 임동욱·박정수·박영환·윤경우·신종원·권혁희 공저, 김인희 엮음, 2022, 『문화의 시대 한중 문화충돌』, 동북아역사재단.
- 켄트 콜더 저, 오인석·유인승 옮김, 2013, 『신대륙주의-에너지와 21세기 유라시아 지정학』, 아산정책연구원.
- 첸리췌 저, 이복희 옮김, 2022, 『1948 천지현황』, 한울.
- 甘陽, 2012, 『文明 國家 大學』, 三聯書店.
- 杨念群, 2022, 『“天命”如何转移: 清朝“大一统”观的形成与实践』, 上海人民出版社.
- 王飛凌, 2018, 『中華秩序』, 八旗文化.
- E. Jenks 著, 嚴復 譯, 1981, 『社會通詮』, 商務印書館.
- 蔣慶, 2014, 『政治儒學』, 福建教育出版社.
- 張植榮, 2005, 『中國邊疆與民族問題』, 北京大學出版社.

Markus Gabriel·中島隆博, 2020, 『全體主義の克服』, 集英社.
 毛里和子, 2021, 『現代中國 内政と外政』, 名古屋大學出版會.
 劉傑·中村元哉, 2022, 『超大國 中國のゆくえ 1-文明觀と歴史認識』, 東京大學出版會.

논문

거자오광 저, 양일모 역, 2017, 「기상천외: 최근 대륙신우가의 정치적 요구」, 『동양철학』 48집.
 김승욱, 2022, 「근현대 중국에서 민족 담론의 전개-다양한 지식 기반과 내적 긴장」, 『동북아역사논총』 78호.
 _____, 2019, 「중국 근대 역사학에서 國家 개념의 재구성」, 『역사와 담론』 89집.
 김인희, 2022.7.20, 「중국이 새로 내건 중화민족공동체」, 『중앙일보』.
 배경한, 2000년 여름호,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화체제의 위기와 중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51호.
 손장훈, 2023,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동북아역사리포트』 제37호.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중화민족」, 『역사연구』 132.
 _____, 2021, 「중국 근대 역사 교과서의 자국사 구축 과정과 ‘제국’적 서술의 지속: 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오병수 편, 『한중 역사 교과서 대화: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우성민, 2022, 「한중 수교 30주년 시점에서 살펴본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현황과 시사점」, 『中國古中世史研究』 65집.
 유정근, 2002, 「동아시아 근대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모』, 혜안.
 이상익, 2007, 「朱子와 陳亮의 王霸논쟁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제138집.
 전인갑, 2020,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민족’과 ‘천하’의 길항」, 『동북아역사논총』 67,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1)-천하 패러다임의 해체와 근대 역사학」, 『역사학보』 256호.
 조정란, 2023.3.15,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동북아역사리

포트』 제36호,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6, 「중국은 ‘제국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라타니 고진 『제국의 구조』의 비판적 분석」, 『역사비평』 116호(여름호).

_____, 2023, 「‘신냉전’ 시기, ‘범신좌파’의 ‘20세기 중국’ 재인식-왕후이 ‘단기 20세기’와 국가주의 비판」,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9집.

_____, 2024, 「대륙신유가 집단의 정치주장과 ‘레드차이나’의 부활-심성유학과 정치유학의 분기와 의미」,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편, 『경학방법론』 연구총서 2, 예문서원.

한종구, 2022.11.1, 「중국, 유엔 50개국 신장 인권탄압 규탄에 ‘100개국 우리 지지」, 『연합뉴스』.

葛兆光, 2015, 「對‘天下’的想像-一個烏托邦想像背後的政治, 思想與學術」, 『思想』(台灣) 第29期.

費孝通, 2003, 「民族研究-簡述我的民族研究經歷與思考」,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修訂本), 中央民族大學出版.

_____, 2003, 「民族研究-簡述我的民族研究經歷與思考」,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修訂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_____, 2005,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費孝通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習近平: 爲實現民族偉大復興 推進祖國和平統一而共同奮鬥」, 『人民日報』, 2019.1.2.

楊福忠, 2021.8.30, 「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 『光明日報』.

趙京蘭, 2023, 「天下秩序和儒教普遍主義的重組可能性-以大陸新儒家的論述爲主」, 干春松·安樂哲 編, 『重思天下』, 香港城市大學出版社.

葛兆光, 2018.6, 「“何が中國か”の思想史」, 『思想』.

大崎雄二, 1995, 「中華人民共和國における國民統合と民族政策」, 『法政大學教養部紀要』 94.

渡邊義浩, 2009, 「儒教の‘國教化’論と‘儒教國家’の成立」, 『中國-社會と文化』, 東京大學出版會.

福田円, 2022, 「習近平は臺灣を‘統一’できるのか-對臺灣政策の理念・政策・課題」, 『習近平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 山口信治, 2022, 「中國の目指す覇權と國際秩序とはなにか」, 川島眞・小嶋華津子編, 『習近平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 鈴木隆, 2022, 「中華民族の父」を指す習近平,あるいは「第二のブレジネフ」か「第二のプーチンか」, 川島眞・小嶋華津子編, 『習近平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 王柯, 2003, 「帝國と民族-中國における支配正當性の視線」, 山本有造編, 『帝國の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 倉田徹・熊倉潤, 2022, 「中國では‘人權’をどのように考えているのか-‘小數派と周邊地域への歸順の強制」, 『習近平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 Fletcher, Joshep, 1978, “Ch’ing Inner Asia C.1800,”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0,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Ian, 2023, “Xi’s Age of Stagnation: The Great Walling-Off of China,” *Foreign Affairs*, Volume 105 Number 5, Sep/Oct.
- Lee, Ming-huei, 2014, “A Critique of Jiang Qing’s “Political Ruism,” *Contemporary Chinese Thought* Volume 45 Number 1.
- Pei, Min Xin, 2024, *The Sentinel State: Surveillance and the Survival of Dictatorship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 Fundamentals of Xi Jinping Thought on Chinese Socialism in a New Era*[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基本問題], CCP Central Committee Central Party School Press, 2020.
- Wang, Hui, 2017, “From Empire To State: Kang Youwei, Confucian Universalism, and Unity,” *Chinese Vision of World Order*, Duke University Press.



21세기 ‘중화민족’·중화주의·‘동일성의 제국’

–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공동체’와 ‘중화적 종주권의식’을 중심으로 –

조경란

이 글은 중국 시진핑 정부가 내건 ‘중화민족공동체’에 관한 비판적 접근이다. 중화민족공동체는 한족과 소수민족이 일체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화하(華夏)와 이적(夷狄)은 다르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화하와 이적이 일체임”을 새롭게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를 인정한 공동체(一體)라는 전제조건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화민족공동체 구상의 실제 목표는 소수민족의 이탈 방지, 홍콩의 조기 반환, 타이완의 수복 등을 통한 중국 내부의 국민적·민족적 통합이라고 봐야 한다. 이로써 중국지도부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에스닉(ethnic)의 유기적 실체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여기에는 pax sinica 지향의 대일통(大一統) 사상과 레닌주의적 정치시스템의 당 영도 원칙이라는 정체성의 정치가 개입되어 있다고 본다. 동시에 조공체제의 사이(四夷)의 기억에서 비롯한 ‘중화적 종주권의식’도 개입되어 있다. 이 글은 중국정부와 파워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에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분열과 통합, 국제사회 모델과 제국모델을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아닌 공히 ‘정당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다원성

은 국가가 위기를 맞았거나 분열되었을 때 보장된다. 소프트파워는 다원성이 보장되었을 때만 발전을 허락한다. 세계패권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같이 이웃나라에서 발신하는 중국 밖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자신들의 목표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가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중화민족’과 중화내셔널리즘에 의한 한족 중심의 국가 통합구상은 소수민족에게는 억압과 예속을 의미했다는 것을 밝힌다.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소수민족의 국민화 작업은 ‘다원’을 삭제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동일성의 제국’을 추구하는 제국모델의 사상적 원천인 대일통 사상에 대해 비판한다. 중화민족공동체는 바로 이에 근거한 정책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대일통은 ‘사상통일’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며 결국은 ‘동일성의 디지털 제국’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셋째, 대일통에 기초한 제국모델에 대항하여 국제사회 모델도 정당한 역사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은 다원성이 존중된다는 의미에서 평화와 공존의 모델이기도 하다. 이 모델 아래서 중국은 오히려 보편을 내장한 사상, 즉 소프트파워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중화민족공동체, 중화내셔널리즘, 제국모델, 대일통, 국제사회 모델

ABSTRACT

‘Chinese Nation(s)’ · Sinocentrism · ‘Empire of Sameness’ in Xi Jinping’s Government – Focus on the ‘Chinese Nation Community’ and the ‘Sense of Chinese Suzerainty(宗主權)’

Cho Keongran

This article is a critical approach to the “Chinese nation community” proposed by the Xi Jinping government in China. In order to prove that Han Chinese and ethnic minorities are united, it denies the conventional “the Chinese and the barbarian are different”. They claim that “the Chinese and the barbarian are one”. However, this does not include the prerequisite of a community that recognises differences. Therefore, the real goal of the Chinese nation community initiative is national and ethnic integration within China, including the prevention of ethnic minorities from leaving, the early return of Hong Kong, and the restoration of Taiwan. In doing so, the Xi Jinpings government wants to emphasise tha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an organic entity of ethnic groups centred on the Han Chinese.

I believe that this involves the politics of identity: the pax sinica-orientated idea of great unity and the Leninist political system's principle of party leadership.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sense of Chinese suzerainty" that stems from the memory of the Si Yi(四夷) of the Tributary system. This article aims to call for a shift in the way the Chinese government and power elites perceive history. The division and integr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del and the imperial model should not be seen as 'bad' and 'good' but as 'legitimate'. Paradoxically, pluralism is best secured when states are in crisis or fragmented. Soft power is only allowed to develop when pluralism is guaranteed. China, which aims to achieve global hegemony, should keep in mind that ignoring narratives outside of China, such as those emanating from neighbour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will only move it further away from its goals.

Based on the above, I would like to make three points. Firstly, I will show that the Han-centred national unity concept of "Chinese nation" and Chinese nationalism has meant oppression and subjugation for ethnic minorities. It also argues that the nationalisation of ethnic minorities afte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a process of erasing 'pluralism'. Second, I will criticise the idea of the Great Unity as the ideological source of an imperial model that seeks an "empire of sameness". The Chinese nation community is a policy based on this idea. I argue that under Xi Jinping's government, the Great Unity will likely boil down to strengthening the "unity of ideas" and eventually lead to a "digital empire of sameness. Third, I argue that against the imperial model based on Great 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del should also be accepted as a legitimate history. This model is

also a model of peace and coexistence in the sense that pluralism is respected. I argue that under this model, China was able to develop an idea of universality, or soft power.

Keywords: Chinese nation community, Chinese nation(s), Sinocentrism, Great Unity, imperial model, international community model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II)

– ‘신천하’ 패러다임의 생성과 역사학

전인갑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계급관점’의 국가건설과 ‘혁명을 위한 역사학’
- III.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재조정과 역사주의 역사학
- IV. 천하 패러다임의 귀환과 ‘신시대’ 역사학
- V. 맺음말



I. 머리말

‘망천하(亡天下)’ 혹은 ‘천하의 와해’는 19세기 후반 이후에 중국이 직면한 문명 사적 위기를 상징하는 말이다. 보편제국·문명제국임을 자타가 공인했던 천하 중국은 이제 국민국가 중국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제국/국가 운영의 근본 사유체계가 천하 패러다임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과 그 역사적 의미는 이미 이 연구의 제1부를 비롯한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소개하였다.¹ 제1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도입 단계(양무운동·변법운동·신해혁명 전후)의 진통을 거쳐 오사 시기에 확립되어 새로운 중국 건설의 원리로 정착하였다.

새로운 중국 건설의 방향은 서구가 창안하고 발전시킨 ‘국민국가’라는 근대의 지배체제를 중국에 정착시킴으로써 강한 중국(強國夢)을 실현하는 방향이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은 6단계를 거쳤다.² 그리고 21세기 1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는 ‘신천하’ 담론이 생산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체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나 시진핑(習近平)이 이끄는 중국의 ‘제국화(帝國化)’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여하튼 현재는 필자가 ‘신천하’ 패러다임이라 정의하고자 하

* 투고: 2024년 1월 8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1062075).

1 전인갑, 2022,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I): 천하 패러다임의 해체와 근대 역사학」, 『歷史學報』 256; 전인갑, 2020,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민족’과 ‘천하’의 길항」, 『동북아역사논총』 67.

2 국가건설 6단계는 전인갑, 2020,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민족’과 ‘천하’의 길항」 제4장에서 상론하였다.

〈표 1〉 국가건설 6단계와 '신시대'³

구분	단계	시기	핵심 의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생성	1단계	1895~1911	천하 패러다임의 해체
	2단계	1912~1927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생성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확립과 중국적 재구성	3단계	1928~1937	중·서 융합형 건설 실험
	4단계	1937~1954	자본주의의 길과 비자본주의의 길 경쟁
	5단계	1954~1982	계급투쟁 지상의 건설 실험
	6단계	1982~2012	중국 특색의 건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천하 패러다임의 귀환	'신시대'	2013~현재	'신천하' 패러다임의 등장

는 새로운 패러다임 생성 단계로서 중국에서는 '신시대'라 부른다. 필자는 '신시대'는 천하 중국의 귀환 그리고 보편국가(중국에서는 문명국가라 부름) 중국의 복원이라는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 연구는 근대학문으로서의 중국 역사학이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를 추적하는 연구이다. 또한 천하 패러다임이 복원되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소위 '신시대'에 역사학이 그러한 문명사적 도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이 연구의 제1부는 청말·민국 시기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의 시대(국가건설 5단계), 덩샤오핑(鄧小平)과 그 계승자들의 시대(국가건설 6단계)를 대상으로 국가건설이라는 시대의 명제에 역사학이 어떻게 개입하고 복무하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신천하' 패러다임이 생성되고 있는 시진핑의 시대에 들어와 역사학이 '신시대'가 부과한 시대적 과제 즉 '신천하' 패러다임의 구축에 복무하고 있는바, 그 실태와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전인갑, 2022, 앞의 글, 3쪽.

아울러 이 연구는 근대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중국의 강고한 경세(經世)사학 전통을 어떻게 계승 혹은 부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량치차오(梁啓超), 장빙린(章炳麟)의 ‘신사학(新史學)’과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확립된 오사 시기 이후 구제강(顧頡剛), 푸스넨(傅斯年) 그리고 류이정(柳詒徵)의 역사연구에서 우리는 강고하게 지속하는 역사학의 경세학적 속성을 확인한 바 있다. 사학의 경세학적 속성은 중국인의 역사 인식에서는 마치 DNA와 같았다.⁴

청말부터 현재까지 중국 역사학의 경세학적 속성은 시대적 과제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이 달랐다.⁵ 큰 줄기로 정리하자면 청말·민국 시기는 민족주의 역사학으로 경세학적 속성이 표상되었는데, 민족주의 역사학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생성·진화하는 과정에서 경세사학의 임무를 도통의 실현에서 민족주의의 실현으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의 제1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전(前) 30년 동안은 ‘계급관점의 역사학’ 혹은 ‘혁명을 위한 역사학’의 모습으로,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후(後) 30년은 사적 유물론을 전제로 하는 유물론적 역사주의 역사학의 모습을 띠었다. 21세기 10년대 이후 오늘날에는 소위 ‘신시대’ 유물론적 역사주의 역사학의 생성과 정립(定立)이라는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전체를 통틀

-
- 4 중국제국의 체제 이념인 유학은 道統·政統·學統의 보존과 지속에 지대한 가치를 둔다. 학통은 경학 전통을, 政統은 문화공동체를 지상에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정치의 전통(권력의 正當性)을, 도통은 經典義理의 핵심 가치인 도를 보존하고 확충하며 전승하는 전통을 의미한다. 삼통 중 최고의 가치는 도통에 있고, 정통(황제로 표상)은 도통을 지상에 구현하는 정치 행위와 제도·질서의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하며, 학통은 경학, 즉 유학이 지향하는 보편가치를 확충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해야 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정통과 도통에의 복무를 위해 현실에 참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행위인 經世를 하는 것은 학문(학통)의 지극히 당연한 역할이라 하겠다. 역사학의 경세학적 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성규, 2014, 「역사서술의 권력, 권력의 서술」, 『역사학보』 224를 참고하라.
 - 5 근대 역사학에서 경세학적 전통이 지속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볼 만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역사학의 철학적 기반과도 관련되는 이 문제는 전문으로 다루어도 좋을 주제이다.

어 오히려 전통 시대 경제 사학 이상으로 ‘자치의 통감’, ‘도덕적 판단기준’ 및 중국제국의 영속을 위한 ‘학(學)의 제공’이라는 과제에 복무하는 역사 연구의 양상을 추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1부 머리말에서 미리 밝힌 바와 같이 “‘신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천하’ 패러다임이 귀환하는 문명사적 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역사학이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⁶ 부연하자면 ‘천하’ 패러다임의 귀환과 함께 중국 역사학이 신시대가 부과한 시대적 과제, 즉 ‘신천하’ 패러다임의 구축 요구에 ‘복무’하고 있다. 이 글은 그 실태를 추적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중국 역사학의 이와 같은 동향은 역사학이 근대학문으로서의 역사학에서 이탈하는 ‘탈근대 학문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므로 작금에 전개되는 중국 역사학의 ‘탈근대 학문화’ 현상의 함의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계급관점’의 국가건설과 ‘혁명을 위한 역사학’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20세기 중국 국가건설 도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20세기 중국의 국민국가 건설 도정은 이를 계기로 제5단계로 이행하였다. 주지하듯이 건설 방향을 둘러싼 두 방향의 경쟁-자본주의적 길과 비자본주의적 길-이 일단락되고 비자본주의적 길이 승리하면 국가건설 제5단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비자본주의적 길은 혼합경제시스템 그리고 권력 구조의 연합성을 2개의 축으로 하는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의 국가건설로 구체화되었다. 신민주주의 건설전략은 신중국의 건국 직후 짧은 시기 동안 시행되었으나 진반(鎭反)·삼반오반(三反五反), 토지개혁, 항미원조를 거치면서 신민주주의 건설전략은 ‘갑작스럽게’ 폐기되고 사회주의 국가건설 전략으로 급속히 전환하였다. 국

6 전인갑, 2022, 앞의 글, 5쪽.

국가건설 제5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건설 제5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공포하여 중국공산당 일당 중심의 국가체제를 확립한 1954년부터 문화대혁명으로 중단된 헌정을 회복하고 개혁개방 시대를 연 1982년(신헌법 공포)까지이다.⁷ 중화인민공화국 전 30년에 해당하는 5단계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대전제를 실현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극단을 오간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이자 급진의 시대였다. 혼돈이란 국가건설 전략상 역사 유물주의적 건설의 길과 계급투쟁적 건설의 길이 혼란스럽게 공존·충돌했다는 의미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현상을 홍(紅)과 전(專)의 충돌이라 말하기도 한다. 급진이란 계급혁명과 경제건설을 빠르게 추진하여 사회주의 사회를 조속히 실현(蹶動)하기 위해 과격한 정치혁명을 추진했다는 의미이다. 여하튼 정치혁명의 급진적 전개가 국가건설 5단계의 주선율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국가건설 5단계에서 계급투쟁을 ‘현 단계(마오쩌둥의 시대) 유일한 역사발전 동력으로 전제한 계급투쟁 지상의 건설 방식이 유물론적 역사주의(마르크스주의적 역사주의)를 전제로 하는 국가건설의 길을 항상 압도하였다. 국가건설의 대전략이 양자로 분화되어 충돌한 셈인데, 계급투쟁 지상의 건설 노선을 홍(紅)의 노선, 역사 유물주의 건설 노선을 전(專)의 노선이라 부르기도 한다. 계급투쟁 지상의 건설 노선은 과도 시기 총노선,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건국 직후의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와 대약진운동 실패 후의 경제조정정책 그리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역사 유물주의 건설 노선에 충실한 건설 방식이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계급투쟁 지상주의(이하 계급관점이라 표현)가 야기한 교조성이다. 문화대혁명에서 극점에 달한 계급관점은 정치, 사회, 경제를 비롯한 국가 운영에 관련된 모든 현안을 처리하는

7 개혁개방 시기를 경계로 중화인민공화국사는 개혁개방정책을 경계로 前 30년과 後 40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건설 5단계는 전자에 해당한다.

이론과 실천을 ‘계급투쟁의 범위’에 묶어두게 됨으로써 신중국이 어떠한 발전단계이고 향후 어떠한 발전전략을 설정해야 하는가, 나아가 신중국이 직면한 객관적 상황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천착하여 검토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계급관점이 초래한 몰역사성(沒歷史性)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한 바 있다.⁸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은 오사신문화 시기에 확립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자양분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마침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최대 수혜자이고 그 충실한 계승자라고 말할 수 있다. 계급관점의 국가건설을 주도한 이들의 사유에서는 오사 주도자들의 사유에서처럼 전통과 현대, 중국제국과 국민국가 중국은 양립 불가능한 명제였고, 오직 ‘오사정신’에 입각한 국가건설만 ‘유일한’ 진리였다.

그리하여 계급투쟁 지상의 국가건설의 길은 원천적으로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화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확충하거나 중화와 서구의 융합으로 신중국의 질서와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지적·문화적 분위기는 역사의 전면에 나올 수 없었다. 말하자면 중화 문화 그 자체 그리고 중화가 내포한 도덕적 가치, 문화적 가치는 봉건으로 낙인찍혀 철저히 부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 30년은 오사 시기보다 훨씬 더 역사성이 위축된 시대”였다.⁹ 문화대혁명은 이러한 몰역사성을 극단으로 이끌었다. 또한 중화의 역사성을 긍정 혹은 활용하려는 어떠한 비판적 성찰도 난망하게 하였고, 그럴만한 지적 역량의 함양 기회도 박탈하였다.

이 단계의 역사학은 철저하게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복무하도록 강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건국 초부터 일관된 흐름이었다. 한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

8 전인갑, 2020, 앞의 글; 전인갑, 2019, 「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 현대중국 문화 담론의 반전」, 『현대중국연구』 제21권 제2호.

9 전인갑, 2019, 위의 글, 132~133쪽.

을 두고 “사회주의 중국의 역사학과 역사 인식의 본질적 속성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 이는 신중국 역사학의 태생적 한계”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⁰ 이 시기 역사학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뒷받침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주문받았고, 학자들은 충실하게 이러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에 직접 참여하였다.

유물론적 역사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사 특히 근대사를 연구하는 것은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중국사회의 성격, 중국혁명의 성질을 밝히고 역사발전의 주선율을 확정하는 작업, 말하자면 혁명사 체계를 확정하는 작업은 혁명과 건설의 전략 수립에 필수 불가결한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미 연안(延安) 시기에 시작되었다. 건국 이후 연안 시기에 시작한 혁명사적 역사해석 체계는 더욱 세련되게 정비되어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근현대사 인식체계가 완비되었다. 근현대사 해석체계 확립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사에 대한 해석체계의 기본 틀은 1954년 후성(胡繩)이 제시하였다.¹¹ 그는 아편전쟁 이후 근대사는 세 차례의 혁명 고조를 겪었고, 이 와중에서 8대 사건이 근대사의 기본내용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3차 혁명 고조·8대 사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반제·봉건 투쟁의 역사가 근대사 서술의 기본 틀로 확립되었다.¹² 현대사 및 공산당사 해석체계는 후차오무(胡喬木)가 정리하여 제시하였다.¹³ 그는 20세기 혁명사를 제1차 국내혁명전쟁(1921~1927), 제2차 국내혁명전쟁(1927~1937), 항일전쟁(1937~1945), 제3차 국내혁명전쟁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1945~1951) 등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¹⁴

10 이개석, 2006, 「역사학과 문화대혁명」, 『동양사학연구』 97, 198쪽.

11 胡繩, 1954, 「中國近代歷史的分期問題」, 『歷史研究』 1954年 第1期.

12 ‘3차혁명고조’는 태평천국운동, 무술유신과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을, ‘8대 사건’은 두 차례의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중법전쟁, 중일전쟁, 무술변법, 의화단운동, 신해혁명을 지칭한다.

13 胡喬木, 1951, 『中國共產黨的三十年』, 人民出版社(2008年 重印).

그런데 위와 같은 근현대사 해석체계를 전제하면서도 역사발전의 주선율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역사학계가 이론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¹⁵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역사학에 직접 개입하고, 역사학이 정치를 향도(嚮導)하는, 마치 사정불분(史政不分)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갈등의 본질은 사회주의 국가건설 전략과 권력 헤게모니 장악 문제였다. 이 갈등은 마오쩌둥과 그 추종 역사학자와 류샤오치(劉少奇)와 그 추종 역사학자의 논쟁으로 전개되는데, 전자는 계급을, 후자는 생산력을 역사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였다.¹⁶

이른바 역사발전동력논쟁이다. 생산력을 역사발전의 근본 동력으로 보는 학자들은 계급투쟁의 존재와 발전을 생산력 발전의 산물로 봄으로써 당시 경제 건설을 주도한 정치 세력에게 유효한 이론적 무기를 제공했다. 반면 계급관점을 중시한 학자들은 계급투쟁을 역사발전의 진정한 동력으로 강조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하여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앞당기려 했던 정치세력으로서는 이 계급투쟁 학설은 자신들의 국가건설 전략을 추진하는 핵심적 무기였다. 이 논쟁은 역사학이 정치에 휘둘린 전형적인 사례임과 동시에 역사학이 직접적으로 정치의 수요에 연구성과를 제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역사학이 전적으로 정치에 종속되어 학문적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수요에 의한 역사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 시기 역사학은 가까운 과거는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편견을 불식하고, 고질적인 후고박금(厚古薄今)을 박고후금(薄古厚今)으로 변화시켰다. 그럼에도

14 참고로 毛澤東은 구민주주의 혁명단계와 신민주주의 혁명단계로 구분하여 근대사와 현대사를 구분하는 시대구분 체계를 제시하였다.

15 역사주의와 계급지상의 계급관점의 충돌은 결국 새로운 중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주요 모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극히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정치적 현안이었다. 이에 대한 요령 있는 분석으로 蔣大椿, 1997, 「重看歷史主義與階級觀點論戰」, 『安徽史學』 1997年 第1期 참고.

16 역사발전동력논쟁에 대해서는 민두기, 1990, 『중공에서의 역사동력논쟁: 계급투쟁인가 생산력인가』, 한울을 참고하라.

이 시기 역사학은 정치의 수요에 수동적으로, 동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계급 투쟁 지상의 국가건설 전략에 복무하게 된다. 그 폐해는 문화대혁명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문혁은 조급한 성공 전략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상주의가 초래한 파괴적 영향으로 ‘동란(動亂)의 10년’, ‘호급(浩劫)의 10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국민국가 건설은 파행적으로 전개되었다.¹⁷

이 시기 역사학은 철저히 문혁에 복무하였다. 문혁에의 복무를 매개로 역사학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선봉에 선 셈이었다. 중국 역사학의 변하지 않은 속성인 이사경세(以史經世)의 치사(治史) 전통이 이때보다 극단으로 치달은 때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시기 역사학은 온전히 “혁명을 위한 역사학”이었다. “혁명을 위한 역사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역사학이 계급투쟁을 선도하고, 계급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첫째, 자본주의 혹은 비자본주의적 국가건설을 주도했던 지배계급을 교체하고,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배계급인 무산계급이 영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시행하여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 목표야말로 문혁 시기 역사학이 담당해야 할 가장 순수한 지고의 목표였다.

1965년 치번위(戚本禹)가 「혁명을 위하여 역사를 연구한다(爲革命而研究歷史)」를 발표한 이후 문혁이 종결될 때까지 역사학은 “혁명을 위한 역사학”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역설적으로 ‘역사학의 부재’ 현상을 연출하였다. 치번위는 역사를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 영도권(지배계급의 교체)을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전략시켰다. 그는 역사는 계급투쟁의 교과서이므로 인민과 혁명적 신세대가 깊이 있는 계급 교육과 혁명 전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학이 계급

17 문혁과 국가건설의 파행에 대한 상론은 전인갑, 2006, 「근현대사 속의 문화대혁명-修史의 당위와 한계」, 『역사비평』 77, 207쪽을 참고하라. 문혁이 비록 동란의 10년이라 평가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혁의 성과로 꼽히는 중앙집권 강화를 위한 권력 기구 개편은 문혁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이 중앙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이 점은 문혁의 순기능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역할마저 과소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투쟁의 역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영도권을 장악하여 강력한 사회주의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말하자면 계급투쟁 사관에 입각한 역사연구와 교육을 매개로 프롤레타리아 영도권을 확립하는 데 역사학과 역사 교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역사연구(歷史研究)』 주편을 역임한 인다(尹達) 역시 프롤레타리아 영도권 회복에 기여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하에 진행되는 국가건설에 복무하기 위해 역사가학이 해야 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적 역사관의 지도하에 모든 역사를 다시 새롭게 연구·서술(改寫)하여 수탈계급의 왜곡과 역사를 위조하는 죄악을 체계적으로 폭로하고, 광대한 노동 인민이 창조한 역사의 진실한 모습을 광대한 노동 인민에게 돌려줘야 한다.”¹⁹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성공과 무산계급의 혁명에 복무하는 것이 역사학의 소명이라는 것이다.

문혁 시기 역사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영사사학(影射史學)이 크게 유행했다는 사실이다. 영사사학이란 역사적 사건, 인물, 현상, 사상 등에 유비(類比)하여 현실의 특정 사건, 인물, 현상, 사상 등을 비평하는 방식의 역사연구이다. 사실 이러한 방식의 역사연구는 문혁 시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널리 활용되는 역사해석법이다. 비림비공운동(批林批孔運動), 비유평법(批儒評法〈儒法鬭爭〉), 수호전비판(水滸傳批判)은 류샤오치, 저우언라이, 덩샤오핑과 그 추종 세력을 겨냥한 영사사학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영사사학이야말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과 정치의 긴장 관계를 몰각하게 하고, 정치가 역사연구에 직접 그것도 악의적으로 개입하는 선례를 남겼다.²⁰

18 戚本禹, 1965, 「爲革命而研究歷史」, 『歷史研究』 1965年 第6期 참고.

19 尹達, 1966, 「必修把史學革命進行到底」, 『紅旗』 1966년 第3期, 1쪽.

20 문혁이 역사학에 미친 파괴적 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원이 신중국 70년을 기념해 중화인민공화국 역사학 70년을 정리하면서 문혁 시기 역사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혁이라는 정치적 동란에도 중국 역사학의 治史傳統의 본령은 유지되고 있었다. '신중국

Ⅲ.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재조정과 역사주의 역사학

20세기 중국의 국가건설 전략은 문화대혁명의 종언과 함께 또 한 번 급격하게 전환하였다. 1954년 전후에 중국공산당은 신민주주의 방식의 국가건설 전략을 ‘조급’하게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도 시기 총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이 노선은 신중국이 사회주의 국민국가, 그것도 계급 지상주의에 뿌리를 둔 국민국가 건설로 급속히 전환했음을 의미하였다. 개혁개방은 그와는 정반대로 계급 지상의 국가건설 전략을 폐기하고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추구했던 혼합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으로 회귀하였다. 이로써 국민국가 건설 제6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제6단계는 전체적으로 개혁개방의 시대로 덩샤오핑 체제가 확립되고 문화대혁명 때 실질적으로 폐지된 헌법을 새로이 제정(신헌법, 중국에서는 ‘전면 개정’이라 한다)·공포한 1982년부터 시작한다. 이 단계는 장쩌민 체제를 거쳐 후진타오 체제가 끝나는 2012년까지이다.

국가건설 6단계는 덩샤오핑과 개혁개방으로 표상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단계는 사실상 중국을 진정으로 ‘혁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술한 중화인민공화국 전 30년은 마오쩌둥으로 표상되는 정치혁명의 시대였고, 덩샤오핑으로 표상되는 중화인민공화국 후 30년은 압축적으로 진행된 사회혁명의 시대였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시대는 세계질서의 편성과 운영, 변경에 개입하는 초대국으로의 성장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마오쩌둥의 정치혁명과 덩샤오핑의 사회혁명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통상적 인식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만든 전통(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은 개혁개방 이후 오늘날까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체제론적으로 서로 배제하기보다는 하나로 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前 30년 사학을 평가할 때, 일면적으로 생각하여 전 17년의 역사연구를 교조주의, 좌경착오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혁 외중에도 사학의 풍모와 연구 陣地를 시종 유지했던 사가들이 존재했음을 평가해야 한다(中國歷史研究院, 2019.9.9, 「新中國70年史學繁榮發展的歷程與思考」, 『光明日報』, 14面).

주목해야 한다.

이 단계의 국가건설 전략은 사회주의 초급단계 건설에서 시작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로 진화하였다. 개혁개방이 시작될 무렵 중국은 전통 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가 발전한 단계도, 그렇다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정착한 상태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회구성체를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라 불렀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주요 모순은 계급 모순이 아니라 생산력 모순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생산력 증대, 즉 경제 발전에 진력하는 것이 시대의 중심적 사명이 된다.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고도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본주의적 경제 수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당의 공식 노선으로 확정되었다.²¹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단계로 도약하였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했음을 선언하였다. 국가건설의 새로운 대전략으로 제시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그 후 장쩌민의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²²과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科學發展觀)²³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는데, 그 핵심은 생산력 발전 말하자

21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신중국 건국 직후 신민주주의 혁명단계론의 1980년대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신민주주의 단계는 혼합경제시스템과 권력 구조·국가체제의 연합적 성격(연합정부)이 국가를 운영하는 2개의 축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혼합경제시스템과 중국공산당 독재를 축으로 한다.

22 삼개 대표는 중국공산당은 선진적 사회 생산력 발전(자본가)의 요구, 선진적 문화 발전(지식인)의 요구,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의미이다. 三個代表論(三個代表重要思想)은 2002년 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黨章에 포함되었고, 2004년 3월 10기 전인대(2차)에서 헌법 전문에 삽입되었다. 이로써 삼개대표론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에 이어 당과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확립되었다.

23 科學的發展觀은 인간을 근본으로 삼아(以人爲本/人本主義) 전면적이고 조화로 우며 지속 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여 경제 사회와 인민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한다는 胡錦濤의 지도 사상이다. 여기서 전면적이란 경제 발전을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생태 환경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조화(和諧) 사회란 도시와 농촌의 발전, 지역 간 발전, 경제와 사회발전, 인간과 자연, 국내 경제 발전과 대외 개방의 조

면 자본주의적 요소의 과감한 수용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세계사적으로도 20세기 국가건설의 중국적 특색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성(타율성)을 결합한 시스템이면서 다종 소유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원리가 융합된 체계라고 할 수 있다.²⁴ 이와 같은 혼합경제체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제반 영역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단계의 전 시기에 걸쳐 사회 영역, 문화 영역, 경제 영역 등 정치권을 제외한 제반 영역에서 민간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개혁개방의 과실을 기반으로 중화에 대한 자부심이 소환되고, 오사 시기에 부정·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중화의 가치와 역사성이 복원되는 현상이 점차 강화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적 현상이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진행된 시기에 중화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례는 20세기 중국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30년대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이다. 이 점은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 상론했는데, 이들 시기에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중국적으로 재구성하거나 ‘문명중국’의 복원을 모색하는 담론이 분출했을 뿐 아니라 중화를 강조하는 문화 담론이 오사

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현재의 발전과 장기적 발전의 관계, 개인의 이익과 전체적인 이익의 관계, 발전의 균형과 불균형의 관계,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과학적 발전관은 2007년 11월 제17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포함되었다. 이 대회에서 전면적 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2020년까지 시장경제체제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료하여 소강사회를 건설한다고 선언하였다. 2018년 3월 13기 전인대에서 과학적 발전관이 헌법 전문에 삽입되었다.

- 24 다종 소유제는 1999년 헌법의 부분 수정 때에 반영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며,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담론을 대신해 주류 문화 담론으로 자리 잡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들 시기의 공통점은 중국의 부상이다. 1930년대는 국민당 주도의 국가건설이 ‘황금 10년’·‘건설 10년’을 성취한 시기이고,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은 개혁 개방으로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한 시기였다. 그 결과 서구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성과 고유의 사유 방식을 기반으로 중국의 가치·경험(중화)과 근대의 가치·경험(서구)을 융합한 국민국가 건설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담론이 유행했고, 권력 엘리트들은 실제로 그러한 실험을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국가건설의 기본 틀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역사연구의 방향도 크게 바뀌었다. 우선 문혁 시기 역사학의 정치적 과화(過火)를 규정(糾正)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요체는 정치와 역사학의 분리 문제였다. 당시 사회과학원 원장 겸 중국공산당 서기처 서기 후차오무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학은 문혁의 유산을 떨쳐내고 유물론적 역사주의를 회복하는 한편 역사학과 정치의 적절한 분리와 협력을 통해 역사학의 존엄과 사회주의 정치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⁵ 후차오무의 이 발언은 1980년대 역사연구의 지침이 되었다.

국가건설 패러다임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엄밀하게 말하자면 건국 초에 실험한 비자본주의적 혼합경제체제 방식(사회주의 초급단계론)으로 전환함에 따라 계급관점의 역사 해석체계는 퇴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동안 억눌렸던 유물론적 역사주의가 회복되고 역사주의적 연구가 분출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계급투쟁 사관이 크게 약화되고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으려는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계급투쟁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없으며, 생산 투쟁·민족투쟁·과기(科技) 발전은 모두 계급사회 발전의 위대한 동력이며, 역사 진전을 추동하는 직접적인 주요 동력은 생산 투쟁”이라는 다이이(戴逸)의 주장은 문혁에 복무한 역사

25 이개석, 「현대중국의 역사학(1949~1999)」, 62쪽.

학의 종언을 상징하였다.²⁶ 그동안 역사발전의 주선율로 평가되었던 민중운동(태평천국운동, 반기독교운동, 의화단 등), 중국번·이홍장 등 소위 반동파, 자본주의 발전(매판, 민족자본)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어, 예컨대 이홍장이나 중국번이 국가건설-자본주의 발전-에 공헌한 측면을 부각하여 그들의 역사적 지위를 복권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문혁식 역사해석체계의 청산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1990년대에는 ‘부강의 부상’ 말하자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사해석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확산하였다. 사회는 복잡한 유기체이고, 유기체를 조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가 독립적 혹은 종합적·체계적으로 작동할 때 사회라는 유기체는 건강하게 발전하는 법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이라는 사회를 하나의 복잡한 유기체로 보고 그 구성 요소의 적극성을 끌어냄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려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학 역시 역사를 관찰하는 시각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변화는 계급과 혁명의 시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중국이라는 유기체의 발전, 즉 ‘부강의 부상’에 기여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과 방법론을 창안하여 제공하는 일이었다.

1990년대 역사학이 비교적 자유로운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화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물론 1978년 진리표준논쟁 이후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자유’로운 연구와 연구 분야의 다양화에 도움을 주었다. 사실 실사구시 추구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 학술 분야에서도 금단의 영역이 점차 제거되고 과학성을 중시하는 학문 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사실 이 시기는 역사학의 각 분과 영역 모두 공전의 발전을 보였다. 각 영역 별로 학술 논문과 저작이 대단히 많이 발표되었다.²⁷ 예컨대 정치사 중 금기의

26 戴逸, 1979, 「關於歷史研究中階級鬭爭理論問題的幾點看法」, 『社會科學研究』1979年 第5期; 王建朗, 2019, 「中國近代史研究70年(1949-2019)」, 『近代史研究』2019年 第4期, 7~8쪽 참고.

27 張海鵬, 2019.6.17, 「守正創新 資政育人: 新中國70年歷史學的繁榮發展」,

영역이었던 반혁명의 역사-남경국민정부, 왕징웨이, 장제스 연구 등-, 국가나 민간의 거버넌스, 양무운동·신정 등 청조나 국민정부의 국가건설 정책 등 연구 주제 면에서도 다양화되었다. 외교사, 사회사, 사상사, 종교사, 문화사, 경제사를 비롯하여 노동사, 상회(商會)사, 생활사, 미시사 등 연구 분야가 매우 다양해졌다. 또한 혁명사적 역사해석 틀과 현대화사(現代化史)적 역사해석 틀, 중국 특색 사회발전 패러다임 등 다양한 연구 패러다임이 실험되었다.²⁸ 정치, 경제, 문화사 등의 통사 역시 다수 발표되고,²⁹ 대규모 국가 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역사학이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외국 역사학계와의 광범위한 교류가 활성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³⁰

이 시기 역사학은 이 단계에 전개된 몇 차례의 문화논쟁에 깊이 개입하였다. 중국에서 문화논쟁은 어떤 국가를, 어떤 문명을 만들 것인가를 쟁론하는 다시 말해 중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문화적·사상적 실험이다. 이 점에서 문화논쟁에는 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 의미를 내포되어 있다. 개혁개방 이후 특이하게도 여러 차례의 문화논쟁이 발생했고 역사학은 이들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하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전개된 여러 문화논쟁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우선 문화열 논쟁(이하 문화열로 약칭)이다. 이 논쟁은 문화대혁명의 긴 굴레를 막 벗어난 시점에서 그것의 유산을 말끔히 청산하고 중국을 새롭게 건설할 전략이 무엇인가를 ‘조급하게’ 고민한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오사 신문화운동이 흡사 재현된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유학부흥론, 유학비판계승론, 중체

『人民日報』.

- 28 사회사 연구가 중국사 연구의 주요 분야로 정착했다는 점이다(王先明, 2004, 「中國近代社會史研究的歷史現象與未來」, 『晉陽學刊』 2004年第1期).
- 29 대표적으로 范文瀾 등의 中國通史 10권, 郭沫若 주편 中國史稿 7권, 白壽彝 총주편 中國通史 12권, 林甘泉 등 주편 中國經濟通史 9권, 龔書鐸 주편 中國社會通史 8권, 鄭師渠 총주편 中國文化通史 10권 등이 있다.
- 30 張海鵬, 2019.6.17, 앞의 글. 대규모 연구비 지원의 사례로는 夏商周斷代工程, 中華文明探源工程, 國家清史編纂工程, 抗日戰爭研究專項工程 등이 있다.

서용론, 서체중용론, 철저재건론 등 다양한 사조가 참여하여 낙후한 중국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문화열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오사정신’으로의 회귀를 추구하였다. 말하자면 전통을 철저히 청산하고, 전통이 있던 자리에 서구라는 새로운 진리를 얹혀 강국의 꿈을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오사와 문화열은 공통의 지향이었다. 이들은 오사의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패러다임, 즉 서구의 개념과 용어, 근대 서구가 창안한 가치와 사유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전제로 자신과 세계를 사유하고 건설할 것을 지향하였다.³¹

1989년 6·4 천안문사건 이후 문화열은 급속히 냉각되었다. 문화열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창조하려 한 문화적 급진주의의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은 문화열과는 정반대의 지향, 즉 문화 보수주의였다. 전통과 역사에서 새로운 전통과 역사를 창조할 자산을 발굴하는 한편 장구한 전통문화와의 연속성 속에서 강한 중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전략을 구상하려 한 흐름이 국학열(國學熱)이다. 국학열은 기본적으로 중화라는 본체(本體=가치)는 단절도 부정도 가능하지 않은, 중국 그 자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오사정신’과 중화를 융합하여 중국다운(중국 특색의) 국가건설 대전략을 기획해야 한다는 문화담론이었다. 이 담론은 중국성과 근대성이 뒤섞인 융합형 문화건설론이자 융합형 국가건설 전략이라 하겠다.

20세기 중국 지성사에서 국학열의 등장은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국학열은 분명 중화 문화는 단절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부정의 실험’을, 중화 문화를 계승하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긍정의 실험’으로 바꾸는” 신호탄이었다.³² ‘오사정신’에서 명확히 나타나듯 “20세기는 중화 문명-전통-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강국몽을 실현하려 한 전통 부정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저류에는 국민

31 문화열과 국학열의 의미와 영향은 전인갑, 「현대중국의 지식구조 변동과 ‘역사공정」(『역사비평』 82, 2008)에서 상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라.

32 전인갑, 2019, 앞의 글, 139쪽.

국가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서구가 생산한 보편가치, 서구의 개념과 사유 방식으로 중국을 건설해야만” 하였다.³³

그런데 국학열은 이러한 사유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였다. 국학열에서는 그동안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한 전통을 다시 불러와 그 가치를 긍정하고 ‘가치로서의 중화’를 재발견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학열에서 시도된 이러한 지적(知的) 반진은 그 후 중국의 개념과 중국의 사유 방식으로 중국과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새로운 지적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게 된다.

국학열과 함께 ‘인문정신논쟁’도 주목할 만하다.³⁴ 이 논쟁은 국학열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다. 이 논쟁에서 논자들은 자유·권리와 평등·정의, 유교적 보편이념을 결합하여 새로운 내용의 인문 정신(논자들의 표현을 빌자면 새로운 道統)을 창안하여 몰가치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사회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새로운 도통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근대성만을 추구했던 20세기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벗어나 새로운 화두로 중화 중심의 지식 패러다임을 기획하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이 논쟁의 큰 역할이라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논쟁은 그동안 부정과 청산의 대상이었던 유교적 보편주의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문명으로서의 중화, 가치로서의 중화가 서구가 창안하고 확산시킨 근대성과 경합하는 국면을 본격적으로 여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학·철학 연구자가 주도한 인문정신논쟁이나 역사학이 깊이 개입한 국학열은 그동안 서구의 개념과 가치, 규범, 제도를 기준으로 세계를 사유했던 20세기의 패러다임-국민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한 문화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중국 특색의 가치와 규범, 중국의 경험과 역사에 뿌리를 둔 국가 대전략 수립 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문화 보수주의 흐름의 마중물 역할

33 전인갑, 2019, 위의 글.

34 인문정신논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인갑, 『현대중국의 제국몽』, 388~389쪽 참고.

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 문화 보수주의는 21세기 벽두부터 중국의 주류 문화 담론으로 부상하였다.

IV. 천하 패러다임의 귀환과 ‘신시대’ 역사학

20세기 중국사에서 국민국가 패러다임 생성과 퇴조의 의미는 글로벌 파워의 극명한 반전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 이 패러다임은 중국 고유의 천하주의 사유체계와는 전혀 다른 사유체계였다.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은 이 패러다임을 생존의 대전제이자 ‘진리’로, ‘우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이 시대를 압도하였다. 양무운동 실패와 청일전쟁을 분기로 중국의 전통적 제국체제는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세기 최후까지 중국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에 따라 강국몽을 실현해갔다. 비록 그 길이 오사 신문화운동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문명으로서의 ‘중화’를 지키려 했던 고통을 수반하기는 했지만 20세기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국가 건설은 성공적이었고, 그 결과는 미국과 경쟁하는 오늘날의 중국이다.

우리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0세기를 압도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상을 목도하게 된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문명담론·세계담론이나 신강유웨이(新康有爲)주의, 자주적 지식체계 수립, ‘백년미유지대변국(百年未有之大變局)’ 풍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이자 질서관인 천하관을 새롭게 소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대신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즉 ‘신천하’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천착해 평가해보면 국민국가의 시대 그리고 민족주의의 시대가 쇠퇴하고 ‘신제국’의 시대(신제국 질서)가 도래하는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시진핑의 ‘신시대’ 선언을 이러한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평가한다. 이는 20세기 중국의 최고 가치였던 국민국가 건설이 완성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시대’ 선언은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완성과 새로운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천명한 선언이었다. 시진핑은 청말 이래 100여 년간 모색한 국가건설의 역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이다. 이 길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것은 개혁개방 30여 년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태동한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60여 년의 계속된 탐색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 길은) 근대 이후 170여 년 동안 중화민족이 추구해온 발전의 역정에 대한 본질적 총결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중화민족이 5,000여 년의 유구한 문명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길”이다.³⁵

그리고 그는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고, ‘신시대’에는 중국의 사유방식과 중국의 방안으로 새로운 사회제도와 이념을 만들어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과업을 중국이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⁶ 19차 당대회를 전후한 시기부터 중국은 이미 서구와의 가치경쟁·규범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초월한 중국의 자주적 패러다임(필자는 이를 ‘신천하’ 패러다임이라 함)을 생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겠다.

시진핑의 ‘신시대’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을 압도했던 국민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조종(弔鐘)이라고 해도 무리한 평가는 아니다. ‘신시대’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념과 용어·사유체계를 활용하여 창안한 새로운 패러다임 말하자면 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전제로 하는 ‘신천하’ 패러다임을

35 習近平, 2013, 「在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講話」(2013.3.1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35쪽.

36 「習近平: 快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7.10.18.)」, 『新華網』, 2017.10.27, 30쪽.

생성하여 미래의 중국과 세계를 이끌겠다는 지향을 내포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시진핑 중국의 이러한 꿈(중국몽)이 현실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³⁷

그러나 중국 스스로 이제 국민국가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안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 패러다임은 중국 특색 혹은 중국 고유의 그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고 보편화할 수 있는 사유체계와 표준·규범·제도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내실을 갖추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점에서 ‘신시대’ 선언은 중국의 미래담론이라 할 수 있다. ‘신시대’는 중국의 가치와 사유 방식-양자는 중화성(中華性)의 정수-을 전제로 재조(再造)된 중국의 시대일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문명의 헤게모니와 패권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재조하려는 꿈-제국몽-을 실현하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자산으로 중국의 가치와 사유 방식의 응결체인 ‘천하’가 소환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³⁸

‘신시대’ 중국이 구상하는 미래는 전통적 천하 패러다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패러다임으로 운영되는 세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지식체계는 이 목표를 향해 조정되고 있는데, 역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과학문과 중국 특색의 학문체계, 담론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은 ‘천하’ 패러다임 재구성을 위한 이론 작업의 일환이라 하겠다. 사실 2008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중국은 서구의 모더니티(modernity)를 지양하고, 대안적 가치를 찾으려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후술 하듯이 2016년부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특색(고유)의 분과학문체계·학술체계·담론체계를 구성하려는 이론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7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분석을 통해 시진핑 실험의 불확실성을 검토한 연구로 이정남, 2023, 「중국 2022: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중국식 근대화-시진핑은 성공적으로 노선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세아연구』 66-1(통권 191)을 참고하라.

38 이 단락을 포함하여 위 세 단락의 서술은 전인갑, 2020,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민족’과 ‘천하’의 길항」, 38~41쪽의 내용을 보완·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천하주의, 천하관 등 중국이 생산한 가치, 중국의 역사와 전통에서 발원하는 개념(道統, 文質, 民本, 均分, 大一統, 經世, 會通 등)과 사유 방식으로 중국과 세계를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대안형 문명담론(대안형 가치경쟁)의 발신이며, 보편성을 내포한 중국 고유의 지식체계 모색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작금의 중국에서 모색하는 대안형 문명담론은 앞으로 중국의 보편주의를 생산·확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이 진행됨으로써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지배한 지난 100년의 국가건설·문화건설·가치건설의 역정은 근본적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시대’ 역사학이라 부를 만한 움직임이 오늘날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가?³⁹ 이 문제를 ‘중국역사연구원’ 설립과 ‘심화중화문명탐원공정(深化中國文明探源工程)’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신시대’를 천명한 중국공산당이 역사학을 비롯한 학술·문화 영역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문의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한다.

시진핑은 중국몽에 복무하는 역사학을 요구하고 있다.⁴⁰ ‘신시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서구/미국과 문명경쟁을 벌이는 시대이다. 가치와 규범을 둘러싼 미중 간의 충돌은 매우 날카롭고 오래 지속될 경쟁이다. 문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발신할 수 있어야 하며, 보편규범과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보편가치와 규

39 시진핑 시기 소위 ‘신시대’ 역사 교육 및 연구 정책의 기초는 첫째, 역사 허무주의의 배격, 둘째, 중국의 독자적인 역사 해석체계와 중국성·중국 정체성의 부각으로 집약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역사 정책에 관한 밀도 있는 논의로 오병수,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 『역사교육』 156이 있다.

40 신시대 중국몽에 복무하는 역사학과 문혁 시기 혁명을 위한 역사학은 모두 역사학의 현실 복무를 본질이라는 점에서는 중국 역사학의 경세 전통상에서 별다른 차이는 없다. 다만 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학의 두 큰 흐름, 즉 유물론적 역사주의와 계급관점의 대립 중 전자는 유물론적 역사주의, 후자는 계급관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다.

범 그리고 제도를 창안하여 세계로 확산하는 소프트파워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제30차 집체학습(주제: 우리나라의 국제적 전파 능력 강화)을 시행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담론권과 사서체계(叙事體系)의 강화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담론권과 중국의 서사체계를 빨리 세우고, 중국 이론으로 중국의 실천을 자세히 설명하고, 중국의 실천으로 중국의 이론을 한층 높은 단계로 이끌어야 하고, 중외(中外)를 융통(融通)하는 신관념, 신범주, 신표술(新表述)를 만들어 중국의 이야기 및 그 배후의 사상적 역량과 정신적 역량을 한층 선명하게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⁴¹ 이 지적은 중국의 개념, 용어, 관념으로 지식체계를 재정비하고 중국의 이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둘째, 중국의 문화와 가치가 보편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신, 중국가치, 중국역량을 중심에 놓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 문명 등을 여러 시각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 전파 업무를 전개하기 위한 학리(學理)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 문화를 외부로 더욱 잘 확산하려면 문(文)으로 도(道)를 구현하고, 문으로 중국의 담론을 전하며, 문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며, 중국 특색을 더 많이 갖춘, 중국 정신을 더 많이 체현한, 중국 지혜를 더 많이 온장(溫藏)한, 우수(전통)문화를 세계를 향해 알려야 한다.”⁴²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가치와 보편규범을 중국문화에서 발굴하는 것도,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도 학계가 감당해야 할 학문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계의 분위기에서 역사학 역시 중국 특색의 보편가치와 규범, 제도를 만드는 일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하겠다.⁴³

41 「習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次集體學習時強調 加強和改進國際傳播工作 展示真實立體全面的中國」, 『人民日報』, 2021.6.2(人民網: <http://cpc.people.com.cn/n1/2021/0602/c64093-32120102.html>).

42 위의 글.

43 오병수는 중국 역사학은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고, ‘문화 제국론에 바탕을 둔 제국사적 서술과 비서방적 대국이라는 이미지로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역사연구원은 2019년 1월 3일 시진핑의 축하를 받으며 출범하였다. 이 연구원에는 6개 연구소(고고연구소, 고대사연구소, 근대사연구소, 세계역사연구소, 중국변강연구소, 역사이론연구소)가 소속되어 있으며, “중국 특색의 역사학 학문체계, 학술체계, 담론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역사학의 융합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지고감금(知古鑑今), 자정육인(資政育人)의 사학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위하여 중국 사학의 지혜와 역량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⁴⁴ 이 목표는 시진핑의 교시이기도 하다.⁴⁵

그렇다면 사학의 지혜와 역량 제공의 귀착지는 어디인가? 2019년 1월 5일 사회과학망(社會科學網)에 발표된 「역사연구의 봄날-중국역사연구원의 성립을 경축한다(歷史研究的春天-慶祝中國歷史研究院的成立)」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⁶ 이 글에서 역사연구원은 “역사 경험을 총결하고, 역사 규율을 계시(揭示)하며, 역사 추세를 파악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고 새로운 운동 에너지를 추가하며, 세계역사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방안이 공헌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역사학이 중국의 길, 중국의 방안을 창안하여 세계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과업, 다시 말해 중국적 표준을 발신하는 역할이 중국 역사학계에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역사학이 국민국가 건설 과업에 역사적 자원을 제공했던 지난 세기의 경험을 반추해볼 때, ‘신시대’ 역사학 역시 그러한 기능에서 한 치의 변화도

자국사를 재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있음과 교과서 등의 역사 서술에서 실제 제국적 통합을 중시하는 서술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오병수, 2020, 앞의 글, 268~269쪽 참고).

44 중국역사연구원 홈페이지 첫 화면(중국역사연구원 소개. <http://cah.cass.cn/zsjg/bygk/#bygk>(검색일: 2022.10.25.).

45 「習近平致中國社會科學院中國歷史研究院成立的賀信」, 新華社, 2019.1.3.

46 中國歷史研究院, 2019.1.5, 「歷史研究的春天-慶祝中國歷史研究院的成立」, 『中國社會科學網』(http://www.cssn.cn/lxs/lishixuezhuanli/bwxcxjism/bwsf/201901/t20190106_4806840.shtml).

없다 하겠다.

중국역사연구원이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출범한 이후 중국 역사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연구원의 과제와 사명에 대한 중국역사연구원 부원장 리궈강(李國強)의 설명은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⁴⁷ 그는 우선 동 연구원의 과제로 전통과 ‘신시대’의 결합 그리고 중화 우수문화 전통의 창신과 계승을 제시하였다.

전통과 ‘신시대’의 결합이라는 과제와 관련해서 다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 문화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결합하여 당대(當代) 정신의 세련화(凝練)·형상화(塑造)·발양(弘揚)과 유기적으로 통일하고, 중화 우수 전통문화에 완전히 새로운 내포(內包)를 부여하는 동시에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창신 전승하기 위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우수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해서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는 민족의 뿌리이고, 민족의 혼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 수호, 발양광대(發揚廣大)해야 하는 보물(瑰寶)이고, 중국 역사학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열며, 진보를 지속하는 원천이다. 우리나라 사학 연구자는 ...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창신·전승하기 위해 대단한(突出) 공헌”을 해야 한다고 하여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신과 전승이 중국역사연구원의 주요한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다.⁴⁸

다소의 논리적 비약을 감수하며 논지를 펴자면 이 연구원에 부과된 학문적·시대적 과제는 중국의 국가권력이 역사학 전반에 요구하는 과제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리궈강이 천명한 역사연구원의 사명을 분석해보면 첫째, 중국몽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⁴⁹ 둘째, 중국 사학의 변하지 않는 기능, 즉 자치의

47 李國強, 2019.5.27, 「辦好中國歷史研究院 傳承創新優秀傳統文化」, 『中國社會科學網』(http://www.cssn.cn/zt/zt_rdzt/zsjhfbsznzt/zsjhfbsznlgq/201905/t20190527_4906329.shtml).

48 李國強, 2019.5.27, 위의 글.

49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새로운 노정(여정 征程)에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推動하여 창조성 轉化和 창조성 發展을 실현하는 것이 어느 시기보다 더

통감으로서의 역할⁵⁰이 ‘신시대’ 역사학에 주어진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을 수준 높게 수행함으로써 오늘날의 역사연구가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연원류변(淵源流變), 본질속성(本質屬性)과 핵심가치(核心價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밝히고(回答), 중화 우수 전통문화에 기반하여 중국도로(中國道路), 중국이론(中國理論), 중국제도(中國制度)의 역사 기점과 역사 논리를 탐구하고 호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신시대’의 구현이라는 문명사적 과제에 복무하는 것, 이것이 중국의 역사학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상일 것이다. 20세기에 줄곧 국가건설에 복무해온 역사학의 관성이 여전한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

중국 역사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현상은 중화문명담원공정의 심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 5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9차 집체학습이 ‘심화중화문명담원공정’을 주제로 열렸다.⁵¹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중화문명담원공정’이 추진되었고,⁵² 2020년 말에 이

간박하고 더 돌출적인 사명이다.” “중화 전통문화의 우수한 基因을 철저히 발굴하여 그것에 ‘신시대’의 가치이념을 부여하고 문화적 자신감의 기초를 부단히 다지며(夯實), 문화적 자신감의 근기를 견고하게 쌓고(築牢), 문화적 자신감의 自覺을 끌어올리고(提昇), 민족 부흥, 인류 발전을 위해 정확한 정신적 안내와 이론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신시대’가 역사 연구자에게 부여한 중요 사명이다.”(李國強, 2019.5.27, 위의 글).

50 “시대의 형세에 입각하고, 고금의 변화에 통하고, 사상의 先聲을 發할 뿐이고, 全方位·多要素·體系의으로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精髓를 歸納·提煉·闡釋하고, 역사 속에서 治國理政의 경험을 흡수해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지혜를 제공할 수 있다.”(李國強, 2019.5.27, 위의 글).

51 王巍(중국사회과학원 역사학부 주임)가 講解를 담당했으며, 중국문명의 역사연구를 심화하여 역사 자각을 높이고 문화 자신감을 확고히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52 ‘中華文明探源工程’(정식명칭: 中華文明起源與早期發展綜合研究)는 ‘하상주단 대공정’에 뒤이어 진행된 연구프로젝트로 2001년에 예비연구가 시작되고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5년까지 진행되었다. 2018년 5월 국무원 신문관공실이 中華文明起源與早期發展綜合研究 성과 발표회를 열어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고고학, 역사학 연대측정, 환경과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질학, 식물학, 동물학, 야금학, 생물학, 인류학 등 10개 이상의 학문 분야가 융합 연구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었다.⁵³ 이 프로젝트는 ‘위대한 고대사’ 만들기의 일환이었다.⁵⁴ 그런데 2022년에 국가 최고지도자의 집단학습에서 이 주제가 다시 다루어지며 중화문명탐원공정 연구를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심화시킬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성과는 현저하지만 ... 반드시 계속해서 추진하고 끊임없이 (중국문명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전당(全黨)·전(全) 사회가 역사적 자각과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가지게 해서 모든 사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⁵⁵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고대사 만들기’가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민을 하나의 문명공동체-중화문명공동체-로 통합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심화 연구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분과학문체계, 학술체계, 담론체계를 건립”⁵⁶하여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유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⁵⁷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를 했으며, 국가문물국과 科技部가 협력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주관했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인갑, 2008, 「현대중국의 지식구조 변동과 ‘역사공정’」, 『역사비평』 82를 참고하라.

- 53 社科院考古所, 2022.6.10, 「中華文明探源工程取得較大進展」, 『京報網』.
- 54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문명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선진적인 문명으로 ‘확정’하고 1만 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문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복원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중국문명은 1만 년 전 기초를 다지고, 8,00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6,000년 전부터는 그 발전이 가속화하여 5,000여 년 전에 이미 문명사회로 진입했으며, 4,300년 전에는 중원에서 굽기하고, 4,000년 전에는 왕조를 건립했고, 3,000년 전에는 왕권이 공고화되었고, 2,200년 전에는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였다는 새로운 고대사 해석 틀이 만들어졌다.
- 55 「習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九次集體學習時強調」, 『人民日報』, 2022. 5.29(<http://cpc.people.com.cn/n1/2022/0529/c64093-32432940.html>).
- 56 譚佳, 2022.8.6, 「從人文學科深耕文明探源的中國性問題」, 『光明日報』 (https://news.gmw.cn/2022-08/06/content_35936538.htm).

는 사실이다. 중국문화 발전에 관한 역사연구의 성과는 ‘중국정신’과 ‘중국가치’, ‘중국역량’ 구축(構築)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역사연구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널리 선양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일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⁸ 결국 중국문화탐원공정 심화 연구는 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 그것도 보편성을 갖춘 지식체계를 만들어 소위 서구와의 가치와 규범 경쟁, 문명경쟁에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이론적 기반 마련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다.⁵⁹

그렇다면 중국문화탐원공정 심화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으로 그 목적에 도달하려 하는가? 그것은 중국문화가 중국성(中國性)과 보편성을 동시에 겸비했음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중국성 속에 보편성이 내재하고, 중국성의 요체는 보편성, 말하자면 중국문화의 근본적 속성은 포용성과 융합성, 공존성이라는 점을 논증하는 방식이다.

중국성 논증 과업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가 던져졌다. 첫째, 중국문화의 연속성과 통일성이다. 이 주제는 중국문화는 현재까지 지속하는 유일한 고대문화

57 「習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九次集體學習時強調」, 『人民日報』, 2022.5.29 (<http://cpc.people.com.cn/n1/2022/0529/c64093-32432940.html>).

58 위의 글.

59 중국학계는 수년 전부터 보편성 있는 중국의 자주적 학문체계, 담론체계를 구축하는 연구 과제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배경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 사회과학원 원장 謝伏瞻은 중국 특색의 분과학문체계, 학술체계, 담론체계를 ‘더 빨리 構建’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중국사회학원의 당면한 책무임을 강조하였다(「加快構建中國特色哲學社會科學學科體系,學術體系,話語體系」, 『中國社會科學』 2019年第5期(http://www.cssn.cn/index/index_focus/201906/t20190603_4912214.shtml)). 학문체계, 담론체계의 자주적 구성은 결국 보편성 있는 중국의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토대이다. 최근 지식 엘리트뿐 아니라 권력 엘리트(시진핑, 2022년 4월 25일 중국인민대학 학생 대표와의 좌담)도 이 문제를 인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궁구하는 ‘시대적 과제(時代之題)’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론은 唐亞林, 2022.7.21, 「積極構建中國自主的知識體系」, 『中國社會科學網-中國社會科學報』(http://www.cssn.cn/index/index_focus/202207/t20220721_5418792.shtml)를 참고하라.

으로 다른 문명과의 계속된 교류와 융합, 갈등을 겪으면서 다원적 문화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연구이다.⁶⁰ 이 주제는 문명 발전의 중국적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인데, 그 중국적 특징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국 중국성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중국문명 연구의 귀착지는 중국성 만들기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중국문명의 융합성과 포용성이다. 중화문명탐원공정 연구를 통해 이미 중국문명의 다원성이 확인되었다. 지역적 다원성, 기원의 다원성, 내용의 다원성이 자연과학 등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문명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타 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했고, 선진적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창신하여 중국문화가 보편성 있는 문화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하겠다.⁶¹

셋째, 문화적 신념의 고유성과 지속성이다. 말하자면 문명의 시원부터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사유체계의 고유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국과 외국의 (역사) 학계에서 논란이 크지 않은 주제이다. 그럼에도 문화공동체로서의 중국을 구성하는 신념체계, 사상, 문화 요소 등의 실체와 그것의 연속성에 대한 연구는 중국성의 다양한 내용과 속성을 심도 있게 규명하는 작업일 것이다.

넷째, 중국문명 발전의 고유성이다. 이 주제는 중국문명의 발전과정은 서구의 학문 패러다임으로 해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주제는 향후 연구는 ‘중국특색(中國特色)·중국풍격(中國風格)·중국기맥(中國氣脈)의 문명연구’가 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으로 중국문명의 발전 과정, 가치, 속성, 중국문명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적성을 띤

60 중화문명탐원공정의 지성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은 譚佳, 2022.8.6, 앞의 글을 참고하라. 이 글에서 중국성 규명이 중국문명 연구의 핵심적 의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61 社科院考古所, 2022.6.10, 앞의 글 참고.

연구 주제라 하겠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중국성 논증의 귀착지는 보편성 문제라는 사실이다. 중국문명탐원공정 심화 연구의 핵심 아젠다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역사연구는 진술한 바와 같이 “인류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데 유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오늘날 권력·지식 엘리트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중국성의 본질 특히 포용성·공존성·융합성·다원성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문명이 보편성에 다가서는 과정이 된다. 중국문명이 내포하고 있는 인류의 공동 가치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중국문명이 문명의 장벽과 충돌, 편견을 초월하여 문명의 교류와 상호학습, 공존을 선도해야 하고, 중국문명사 등 역사연구는 이 같은 학문적 과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역사학계에 부여된 것이다.⁶² 결국 오늘날 역사학은 중국문명이 내장한 인류의 공동 가치를 발굴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는 학문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V. 맺음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은 100년의 국가건설 역정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국가건설 제5단계는 신중국의 건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단계는 신민주주의 혁명시기라는 짧은 과도기를 거쳐 헌법제정과 더불어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가 확립되는 1954년부터 신헌법이 시행(헌법 전면 개정)되는 1982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사회주의적 국가건설에 매진한 시기이다. 이 단계 초기에는 현대화 건설 전략과 계급투쟁 중심의 건설전략이 긴장 관계 속에서 경쟁하다가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에서 계급투쟁 지상의 국가건설 전략으로 급속히 경사되었다. 역사학은 ‘숙명’처럼 사회주의 건설 초기부터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거나 그 역사

62 「習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九次集體學習時強調」, 『人民日報』, 2022.5.29 (<http://cpc.people.com.cn/n1/2022/0529/c64093-32432940.html>).

연구 자체가 정치였다. 현대화론자들은 유물론적 역사주의를, 계급투쟁론자들은 계급투쟁을 지상으로 여기는 계급관점(계급사관)을 무기로 정치와 이념에 개입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사학의 현실 복무 속성은 문화대혁명에서 정점에 달하게 된다. 필자는 이를 역사학의 이념화·정치화-전통적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사학-의 제1차 고조라고 본다. ‘혁명을 위한 역사학’이 ‘진리’로 강제되고, 영사사학이 별다른 수치심도 없이 횡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과학과 객관 그리고 논증(실증)은 사라졌다. 해석과 의론(議論)이 논증(실증)으로 여겨졌고, 화려한 언변과 선명성이 드러나야 진실의 대변자, 사명감에 충실한 순결하고 진정한 학자로 대접받았다. 학술전사(學術戰士)가 뛰어난 전문가 혹은 고명한 학자인 양 칭송받던 시대였다. 이런 ‘학자’들이 대접받는 것이 어찌 이때만이겠는가.

개혁개방의 시대가 열린 후, 중국 역사학은 공전의 학문적 자유를 누렸다.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방법론 등 제반 측면에서 큰 제약이 없었고, 다양한 자유로운 연구가 진행되었다. 계급사관이 퇴조한 것도, 사회사·생활사·경제사·사상사·(반혁명 세력의) 정치사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개혁개방의 과실이였다. 국가건설 제6단계의 역사연구가 이처럼 다양하고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단계의 국가건설 전략이 건국 초에 추진된 비자본주의적 건설전략, 즉 신민주주의 혁명 방식의 전략-다종 계급의 조화, 비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건설전략의 결합-을 채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방식의 전략을 확정된 이후 역사 연구의 다양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과를 배경으로 발전전략을 ‘부강의 부상’에서 ‘문명의 부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미중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은 ‘신시대’를 선언하고 서구와 문명의 경쟁 말하자면 가치와 규범의 경쟁에 돌입하였다. 목하 중국이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보편가치와 규범을 생산하고 발신하려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중국 특색의, 그러면서도 보편성 있는 패러다임을 구성하려는 시대가 곧 중국의 ‘신시대’이다. ‘신시대’는 서구와 패권

경쟁에서도 그러하지만, 문명경쟁·가치경쟁에서도 ‘중국의 방식’과 ‘중국의 정신(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을 수단으로 ‘중국의 길’을 가고자 한다. 이 ‘중국의 길’이란 ‘신천하’ 패러다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가치와 사유 방식 그리고 질서와 제도의 생산일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넘어 ‘신천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려는 것이다.⁶³

철학, 사회과학의 분과학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 역사학은 삼대체계(三大體系)의 창안, 즉 자주적 분과학문 체계·학술체계·담론체계를 생산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이는 역사학이 보편성 있는 중국 특색(고유)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신시대의 ‘담대’한 실험에 동참한 증거라 하겠다. 그러므로 “역사 경험을 총괄하고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신시대 중화민족이 신문명을 창건하는 데 풍부한 역사 자원을 제공”⁶⁴하는 것이 소위 신시대 역사학의 핵심적 사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대혁명에서 역사학이 ‘계급관점’으로 정치와 이념에 깊이 개입했다면 오늘날의 중국 역사학은 문명연구(가치와 이념의 생산과 확산)로 인류공동운명체 건설, 나아가 중국이 창안하고 이끄는 ‘신시대’ 패러다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역사학의 이념화·정치화의 제2차 고조로 진화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63 이 글은 내재적 맥락과 중국공산당의 역사해석 논리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 역사학을 파악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 다만 중국 역사학 연구에서 소위 관방과 비판방 학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방이 역사학 담론의 방향을 결정하고 학계는 이를 수용하는 패턴이 현저하므로 소위 관방 측 논리를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졌음을 부기한다.

64 姜義華, 2018.3.26, 「新時代歷史學的新使命」, 『人民日報』.

참고문헌

자료

- 「習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九次集體學習時強調」, 『人民日報』, 2022.5.29.
- 「習近平在中共中央政治局第三十次集體學習時強調 加強和改進國際傳播工作 展示真實立體全面的中國」, 『人民日報』, 2021.6.2.
- 「習近平致中國社會科學院中國歷史研究院成立的賀信」, 新華社, 2019.1.3.
- 姜義華, 2018.3.26, 「新時代歷史學的新使命」, 『人民日報』.
- 譚佳, 2022.8.6, 「從人文學科深耕文明探源的中國性問題」, 『光明日報』.
- 唐亞林, 2022.7.21, 「積極建構中國自主的知識體系」, 『中國社會科學網-中國社會科學報』.
- 社科院考古所, 2022.6.10, 「中華文明探源工程取得較大進展」, 『京報網』.
- 習近平, 2017.10.27, 「習近平: 快勝全面建成小康社會奪取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勝利-在中國共產黨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2017.10.18.)」, 『新華網』.
- 李國強, 2019.5.27, 「辦好中國歷史研究院 傳承創新優秀傳統文化」, 『中國社會科學網』.
- 張海鵬, 2019.6.17, 「守正創新 資政育人: 新中國70年歷史學的繁榮發展」, 『人民日報』.
- 中國歷史研究院, 2019.9.9, 「新中國70年史學繁榮發展的歷程與思考」, 『光明日報』, 14面.
- _____ , 2019.1.5, 「歷史研究的春天-慶祝中國歷史研究院的成立」, 『中國社會科學網』.

단행본

- 민두기, 1990, 『중공에서의 역사동력논쟁: 계급투쟁인가 생산력인가』, 한울.
- 胡喬木, 1951, 『中國共產黨的三十年』, 人民出版社(2008年 重印).

논문

- 오병수,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 『역사교육』 156.
- 이개석, 2006, 「역사학과 문화대혁명」, 『동양사학연구』 97, 2006.
- 이성규, 2014, 「역사서술의 권력, 권력의 서술」, 『역사학보』 224.
- 이정남, 2023, 「중국 2022: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중국식 근대화-시진핑은 성공적으로 노선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세아연구』 66-1(통권 191).
- 전인갑, 2006, 「근현대사 속의 문화대혁명-修史의 당위와 한계」, 『역사비평』 77.
- _____, 2008, 「현대중국의 지식구조 변동과 ‘역사공정」, 『역사비평』 82.
- _____, 2019, 「오사 100년, 「신화」에서 「역사」로: 현대중국 문화담론의 반전」, 『현대중국연구』 제21권 제2호.
- _____, 2020, 「국가건설 패러다임의 전환과 민족주의-‘민족’과 ‘천하’의 길항」, 『동북아역사논총』 67.
- _____, 2022,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I): 천하 패러다임의 해체와 근대 역사학」, 『歷史學報』 256.
- 戴逸, 1979, 「關於歷史研究中階級鬭爭理論問題的幾點看法」, 『社會科學研究』 1979年 第5期
- 謝伏瞻, 2019, 「加快建構中國特色哲學社會科學學科體系,學術體系,話語體系」, 『中國社會科學』 2019年 第5期.
- 習近平, 2013, 「在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上的講話」(2013.3.17.),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習近平關於實現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論述摘編』, 中央文獻出版社.
- 王建朝, 2019, 「中國近代史研究70年(1949-2019)」, 『近代史研究』 2019年 第4期.
- 王先明, 2004, 「中國近代社會史研究的歷史現象與未來」, 『晉陽學刊』 2004年 第1期.
- 尹達, 1966, 「必修把史學革命進行到底」, 『紅旗』 1966年 第3期.
- 蔣大椿, 1997, 「重看歷史主義與階級觀點論戰」, 『安徽史學』 1997年 第1期.
- 戚本禹, 1965, 「爲革命而研究歷史」, 『歷史研究』 1965年 第6期.
- 胡繩, 1954, 「中國近代歷史的分期問題」, 『歷史研究』 1954年 第1期.

중국 국가건설 100년의 역정과 역사학(II)

- '신천하' 패러다임의 생성과 역사학 -

전인갑

‘신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천하’ 패러다임이 귀환하는 문명사적 전환 과정에서 중국의 역사학이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오늘날의 중국 역사학은 신시대가 부과한 시대적 과제, 즉 ‘신천하’ 패러다임의 구축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신시대’는 서구와 패권 경쟁에서도 그러하지만, 문명경쟁·가치경쟁에서도 ‘중국의 방식’과 ‘중국의 정신(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을 수단으로 ‘중국의 길’을 가고자 한다. 이 ‘중국의 길’이란 ‘신천하’ 패러다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가치와 사유 방식 그리고 질서와 제도의 생산일 것이다. 말하자면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넘어 ‘신천하’ 패러다임으로 진화하려는 것이다. 철학, 사회과학의 분과학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 역사학은 삼대체계(三大體系)의 창안, 즉 자주적 분과학문 체계·학술체계·담론체계를 생산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이는 역사학이 보편성 있는 중국 특색(고유)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신시대의 ‘담대’한 실험에 동참한 증거이다. 그러므로 역사 경험을 총괄하고 역사 자원을 발굴하여 신시대 중화민족이 신문명을 창건하는 데 풍부한 역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소위 신시대 역사학의 핵심적 사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제어: 시진핑, 신시대, 중국적 지식체계, 영사사학(影射史學), 경제사학(經世史學), 중국역사연구원

ABSTRACT

The Changes in the Nation Building Strategy and Historical Studies in 20th China (II)

Jeon Ingap

This paper analyzes how Chinese historiography is shaping its future amidst the civilizational transition marked by the advent of the 'New Era', where the nation-state paradigm is declining and the 'Tianxia' paradigm is resurfacing. Contemporary Chinese historiography is faithfully serving the demands of the 'New Era', specifically in building the 'New Tianxia' paradigm. The 'New Era' aims to follow 'China's way' using 'China's method' and 'China's spirit' (China's autonomous knowledge system), not just in competition with the West and for hegemony, but also in civilizational and value competition. 'China's way' implies a new set of values, ways of thinking, and the production of systems of order and institutions based on the 'New Tianxia' paradigm, signifying an evolution beyond the nation-state paradigm. Like other branches of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modern Chinese historiography is earnestly working to create three major systems: an autonomous disciplinary

system, academic system, and discourse system. This is evidence of its participation in the bold experiment of the 'New Era' to create a universally relevant yet distinctly Chinese autonomous system of knowledge(Chinese Architectonics) in historiography. Therefore, it'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e mission of 'New Era' historiography is to summarize historical experiences and unearth historical resources to provide abundant historical material for the creation of a new civilization by the Chinese nation in the 'New Era'.

Keywords: Xi Jinping, Chinese *New Era*, Chinese Knowledge System(Architectonics), Shadow History, Pragmatic Historiography, Chinese Historical Research Institute

당대(當代) 중국 사상정치 수단으로서의 언어교육과 대학어문(大學語文)

홍영미 | 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언어교육정책의 변천: 보통화 보급 과정
- III. 대학어문과정의 변천과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2019년,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國務院)은 「신시대 학교 사상정치이론과목 혁신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深化新時代學校思想政治理論課改革創新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다.¹ 이 의견은 2018년 1월에 중국 교육부가 공포한 「고등학교 사상정치과정표준(普通高中思想政治課程標準)」에 관한 것이다. 이 과정표준은 학생들에게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원대한 이상을 확고하게 수립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인지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문건은 “각 고등교육기관이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공산당사(黨史), 중화인민공화국사(國史), 개혁개방사(改革開放史), 사회주의 발전사, 헌법·법률, 중화 우수전통문화 등을 중심으로 과정(課程) 모듈을 설정하고, 선택형 필수과정 시리즈를 개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개설한 초·중·고등교육기관의 사상정치 과목 교재는 모두 국가교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편찬·심사하여 통용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에 관한 최신 성과, 중국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킨 최신 경험, 마르크스주의 이론학의 최신 연구성과 등을 교재 중에 녹여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기관은 “강한 정치성, 깊은 감성, 새로운 사유,

* 투고: 2024년 1월 3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6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1 사상정치를 정치사상으로 오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둘은 다른 개념이다. 정치사상은 정치적 실천에 기초하여 형성된, 특정 사회 주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관념형태이다. 반면, 사상정치는 정치사상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사회 주체의 정치적 실천이며 강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갖는다. 劉傳春, 2003, 「政治思想與思想政治辨析」, 『學校黨建與思想教育』4, 湖北長江報刊傳媒有限公司 참고.

넓은 시야, 엄격한 자율성, 바른 인격을 지닌 사상정치과목 교사 대오(隊伍)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에 대학 사상정치교육의 중요성은 전문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²

특히 언어는 대학 사상정치교육이론을 전달하고 관련 지식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사상정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사상정치교육에서 대학어문을 강조하는 논리 구조는 유물론에 기초한 푸코의 담론 전략과 흡사하다. 담론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와 중국특색사회주의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며, 동시에 그 지식을 통해 권력을 생산함으로써 이데올로기에 순응적인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논리이다. 대학어문을 통해 담론 주체로 성장한 대학생은 시대적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담론 객체가 마주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선배로서의 경험을 전달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정치적 선전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담론 객체의 창조력을 제고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담론 주체는 풍부한 감정표현을 사용해 담론 객체와 효과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그들이 주동적으로 주류 가치관을 받아들여 이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므로 언어 활용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³ 이와 같은 전략은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교사-학생이나 선배-후배 사이에 적용될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초·중등교육기관 사이와 초·중등교육기관 내의 교사-학생 사이로 확대될 수 있다. 나아가 대학어문 교재에 수록되는 글들을 통해서도 학교라는 제도권 안에서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학생을 양성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언어가 사상정치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기까지 중국의 언어정책 변천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상 통일을 위한 언어·문자 통일 과정을 보통화 보급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중

2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9, 「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印發《關於深化新時代學校思想政治理論課改革創新的若干意見》(新華社北京2019年8月14日電)」, 『國務院公報』 24.

3 段然, 2023, 「高校思政教育語言體系分析」, 『中學政治教學參考』 25, 85~86쪽.

국이 강력하게 언어·문자 통일을 추진하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국가 통용언어·문자정책(國家通用語言文字政策)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부류, 즉 ① 교육정책의 하나로 파악하여 접근한 연구, ② 소수민족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③ 정책의 경향이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⁴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1949년 이후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적 언어 보급 및 문자개혁 정책의 변천을 분석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언어와 문자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대학어문 과목이 사상정치교육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학어문을 사상정치교육과 연결 짓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⁵ 이 글에서는 보통화의 ‘모국어’

-
- 4 교육정책의 하나로 접근한 연구로는 王均 主編, 1995, 『當代中國的文字改革』, 當代中國出版社; 金星華 主編, 2005, 『中國民族語文工作』, 民族出版社; 楊秀華, 2007, 「事業開創時期的對外漢語教育政策與課程設置研究」, 『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 30(5); 張雨蘭, 2008, 「中國視角下的語言政策和語言規劃」, 『文學語言學研究』 37; 楊秀華, 2012, 「深化時期的對外漢語教育政策與課程設置研究」, 『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 35(6); 임형재·김효신, 2015, 「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 중국어 교수의 도입」, 『국제어문』 65 등이 있다. 그리고 소수민족정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陳章太·謝俊英, 2009, 「語言文字工作穩步發展的60年」, 『語言文字應用』 4; 이종열·범령령, 2009, 「다문화 시대의 언어정책: 중국의 소수민족어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周慶生, 2014, 「國家民族結構與語言政策問題」, 『語言政策與規劃研究』 1(2); 강휘원, 2016, 「중국의 소수언어정책: 정책 의도와 현실의 괴리」, 『국가정책연구』 30(4); 김나래, 2016, 「다문화 사회의 언어정책: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중미래연구』 7 등이 있다. 한편, 정책 경향이나 변천사를 추적한 연구로는 趙傑, 2011, 「雙魚政策平行落實的歷時梳理與共時創新」, 『北方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李玉明, 2013, 「中國語言生活的時代特征」, 『中國語文』 4; 周明朗, 2018, 「中國語言教育政策百年演變及思考」, 『語言戰略研究』 5; 馬永全, 2019, 「新中國70年來通用語言文字教育政策變遷」, 『河北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2; 정준호, 2020, 「중국 통용언어·문자 정책 변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22(3); 민경만·김주아, 2022, 「신중국의 언어정책에 대한 고찰」, 『중국학연구』 100; 韓一·金炫兌, 2023, 「1949年以來中國語言政策下方言的記錄與繼承: 一四川方言為例」, 『中國學』 83 등이 있다.
- 5 선행연구로는 대학어문과 사상정치교육 결합의 의의에 관한 연구로 張雪莉, 2007, 「重視發揮《大學語文》的思想政治教育功能」, 『思想理論教育導刊』 7;

지위 확립의 연장선에서 대학어문 과목을 파악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의 중국 사상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대학어문과의 연관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애국주의교육에 관하여 한국 학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⁶

II. 언어교육정책의 변천: 보통화 보급 과정

1. 국가통용언어·문자정책 실시 이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실시되어온 통일적 언어의 보급과 문자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 구성원들의 인적·영역적 결속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중국의 민족정책은 다문화주의에 기초하여 각 민족의 정체성 보장과 민족자치의 강화를 추진하였기에 언어·문자정책 역시 포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⁷ 이에 따라 1949년 전까지 초등학교에서 사용

趙季秋, 2015, 「談《大學語文》課程對高校思想政治教育的影響」, 『語文建設』 3; 黃小玉, 王鵬輝, 2021, 「大學語文課程思政教學模式建構」, 『中國高等教育』 19 등이 있다. 그리고 대학어문을 사상정치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蘇解姣, 2012, 「《大學語文》課程思想政治教育功能研究初探」, 『現代語文教育研究版』 12; 趙雁, 2016, 「“中國夢”語境下提高《大學語文》課程思想政治教育實踐性的探究」, 『德育課堂』 8; 麗比努爾·色提尼亞孜, 張曉燕, 2019, 「《大學語文》中開展課程思想政治教育的探析」, 『當代教育實踐與教學研究』 21 등이 있다.

- 6 한국 학계에서 중국 사상정치교육을 정책 각도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리문철·안병삼, 2021, 「중국 고등학교 개정 사상정치 교육과정 연구」, 『재외한인연구』 54가 있다. 대학교 사상정치과정에 포함된 역사 관련 교재에 대한 분석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획한 연구성과들을 참고할 수 있다.
- 7 박정수, 2013, 「민족주의와 다문화: 중국식 다문화주의 '다원일체문화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2).

되던 ‘국어’나 중학교에서 사용되던 ‘국문’과 같은 과목명이 폐지되었으며,⁸ 1949년 9월 29일에 개최된 제1기(屆) 전체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과한 「공동강령(共同綱領)」 제6장 민족정책 제53조는 “각 소수민족은 그 언어·문자를 발전시킬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⁹ 1952년 8월 8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비준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 실시강요(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 제16조 “각 민족자치구 자치기관은 각 민족 자신의 언어·문자를 채택함으로써 각 민족의 문화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서도 이 시기의 다문화주의적 언어교육정책 기초를 파악할 수 있다.¹⁰ 임시 헌법의 성격을 지닌 「공동강령」에 기초하여 1954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 역시 제4조, 제121조, 제139조 조항에서 각각 민족 평등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문자 사용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¹¹

제4조 각 민족은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갖는다.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해당 민족자치지방 자치조례 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문자를 사용한다.

제139조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언어·문자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를 갖는다.

한편, 1952년 2월 5일에 개최된 ‘중국문자개혁연구위원회(中國文字改革研

8 中央教育科學研究所, 2009, 「曆數新中國60周年教育關鍵詞」, 『教育情報參考』 11, 25쪽.

9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 編, 2015, 『人民代表大會制度重要文獻選編』 1, 中國民主法制出版社, 75쪽.

10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 編, 2015, 위의 책, 118쪽.

11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 編, 2015, 위의 책, 180쪽.

究委員會) 성립대회에서 귀모뤄(郭沫若)는 “인민들이 경제적·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있으므로 문화학습이 간절히 필요하다. 따라서 도구로서의 문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국가건설에서도 문자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농민과 노동자의 문화 수준 제고를 위하여 문자 장애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한어(漢語) 병음화(拼音化) 방안과 한자 간소화 방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교육부 직속 기구로 성립된 이 위원회는 1954년에 이르러 국무원 직속 기구인 ‘중국어문자개혁위원회’(이하 ‘문개위’로 약칭)로 바뀌었다. 문자개혁이 연구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²

1955년, 문개위는 「한자간화방안(漢字簡化方案)」과 「한어병음방안」의 제정 외에 한족의 공통언어로 여겨지는 보통화(普通話) 교육에 관한 연구와 보급업무까지 도맡게 되었다.¹³ 여기서 ‘보통화’란, 원·명·청대 수백 년 동안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던 베이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온 말을 가리킨다. 동년 10월에 열린 전국문자개혁회의에서 교육부 부장 장시뤄(張奚若)는 귀모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제1차 5개년계획이 실시되면서 경제건설과 문화교육 발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전국 범위의 징병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의 언어를 ‘규범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그 발전을 위하여 중차대한 문제임을 재확인하였다.¹⁴ 그가 제시한 보통화 보급절차 7단계는 다음과 같다.

12 陳永舜 編, 1986, 『漢字改革史綱』, 吉林師範學院, 120, 126쪽.

13 陳永舜 編, 1986, 위의 책, 127쪽.

14 「大力推廣以北京語音為標準音的普通話(1955年10月在全國文字改革會議上的報告)」,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2005, 1~2쪽. 귀모뤄와 장시뤄는 모두 1956년 1월 28일 개최된 국무원 전체회의 제23차 회의에서 중국 문자개혁위원회 내에 성립된 ‘중앙보통화보급공작위원회(中央推廣普通話工作委員會)’의 부주임으로 임명되었다.

- 1) 교원을 훈련시킨다. 교육부는 1955년 가을학기부터 전국 소학교의 어문교사가 보통화 교학을 담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가까운 미래에 교육부는 각 성(省)·시(市)에 중학교와 사범학교 어문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베이징 억양 훈련반을 개설할 것이고, 베이징에는 베이징 억양 연구반을 개설하여 핵심인재를 배양한 후 각지에 파견함으로써 보급 공작을 촉진할 계획이다. 1956년에 졸업할 예정인 고등사범학교 중국어문계열 학생 중 보통화 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졸업 전에 반드시 보충 학습을 해야 한다.
- 2) 베이징 억양 강좌를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제작한다. 각 성·시 행정부와 라디오 방송국이 합작하여 베이징 억양 강좌를 방송한다면 소학교와 중학교 어문교사의 연습과 복습을 돕고 다른 과목 교사와 일반인의 보통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앙 인민라디오 방송국의 러시아어 강습반을 벤치마킹하여 청중을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교학을 진행해야 한다.
- 3) 관련 서적과 교구를 제작한다. 보통화 자전(字典)이나 사전(詞彙) 등을 재빨리 편집하여 학습자들이 지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보조교재로 읽을거리나 레코드 등과 같은 교구도 즉시 제작해야 한다.
- 4) 수업을 시작한다. 1956년 가을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어문 수업과 중학교 1학년 한어 수업에서 베이징 억양을 가르친다. 다른 학년도 어문이나 문학 수업에서 낭독 연습과 결합하여 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5) 중점적으로 시험(試驗)하고 경험을 총괄한다. 일부 학교를 베이징 억양 교육 중점 학교로 선정하여 교수법을 시험하고 경험을 총괄하여 우수한 교수법을 전국에 소개하고 보급한다.
- 6) 장려방법을 정한다. 보통화 보급에 뚜렷한 성과를 낸 자, 보통화를 학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방법을 정하여 각기 장려한다.
- 7) 광범위한 선전을 실시한다. 신문사, 잡지사, 출판사, 방송국이 선전 원고를 기획하여 사투리 억양 차이가 조국 건설에 왜 방해가 되는지와 베이징 억양 보급의 의의를 명확히 설명하고,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보통화 지식을 소개할 것이다. 요컨대, 선전을 통해 대중이 보통화 보급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¹⁵

장시뤄의 보고서가 전국문자개혁회의에서 결의되자마자 교육부는 곧 「초·중학교와 각급 사범학교에서의 보통화 강력 보급에 관한 지시(關於在中小學和各級師範學校大力推廣普通話的指示)」를 내려 그의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을 전달하였다.¹⁶

1956년에 이르러 「한자간화방안초안(草案)」과 「중국어병음방안초안」이 연이어 제정·공포되면서 문자개혁에는 속도가 붙었다.¹⁷ 이후 두 방안은 1959년까지 수정을 거듭하며 보통화 보급을 보조하였다. 국무원은 1956년 2월에 「보통화 보급에 관한 지시(關於推廣普通話的指示)」를 발표하여 보통화 보급 공작은 국무원 산하 ‘중앙 보통화 보급 공작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되, 문개위, 교육부와 고등교육부, 문화부,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와 협업하겠다고

〈표 1〉 보통화 보급 공작 역할분담

기관명	담당 역할
중앙보통화보급공작위원회	• 전체 보통화 보급 공작의 통일적 지도
중국문자개혁위원회	• 전체 공작의 계획·지도(領導)·검사 작업
교육부와 고등교육부	• 각급 정규·비정규 학교의 보통화 수업 지도 • 보통화 교원 훈련과 보통화 교재의 공급
문화부	• 출판물의 언어 규범화 작업 • 보통화와 관련된 출판 및 레코드·영화 등의 생산
중국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 보통화 억양·어휘·어법의 규범에 관한 연구와 선전

15 「大力推廣以北京語音為標準音的普通話(1955年10月在全國文字改革會議上的報告)」,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2005, 8~9쪽. 역자가 원문을 요약 정리하여 의역하였음을 밝힌다.

16 「關於在中小學和各級師範學校大力推廣普通話的指示(1955.11.17. 教育部發佈)」,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2005, 14~19쪽.

17 陳永舜 編, 1986, 『漢字改革史綱』, 吉林師範學院, 134~127쪽.

밝히고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였다.¹⁸

이 문건에서 국무원은 “1956년 가을학기부터 소수민족지구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등교육 기관의 어문 과목에서 일률적으로 보통화를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였으나, “각 소수민족 학교에서의 한어 수업은 응당 보통화를 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소수민족지구 라디오 방송국의 한어 방송도 가능한 한 보통화를 사용해야 한다. 각 자치구 인민위원회는 수요에 따라 보통화 보급 공작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자치구 내에서 한어를 사용하는 인민들을 상대로 보통화 보급 공작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¹⁹ 요컨대, 이 시기 보통화는 한어의 표준이 된 동시에 중화민족의 공용어로 보급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1958년부터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로 추진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뒤이어 1967년부터 시작된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으로 중국의 언어교육정책은 장기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암흑기를 지나 1982년 12월에 개최된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 제1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 인민의 과학·문화 수준을 제고한다. … 국가는 전국에 통용되는 보통화를 널리 보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최초로 보통화의 보급을 국가의 주된 임무로 천명하였다.²⁰ 또 1984년 5월에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 제37조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국에서 통용되는 보통화를 보급하도록 하였다.²¹ 1986년 4월,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18 「關於推廣普通話的指示(1956.2.6 國務院發佈)」,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2005, 23~24쪽.

19 「關於推廣普通話的指示(1956.2.6 國務院發佈)」,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2005, 21, 24쪽.

20 「中華人民共和國憲法(1982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21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1984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대회를 통과하고, 동년 공포·실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6조 역시 학교는 마땅히 전국 통용의 보통화를 보급하고 사용해야 하며, 소수민족 학생을 주로 모집하는 학교는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²² 1995년 3월에 제정된 「교육법」 제12조에서도 소수민족의 이중언어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표준어 및 공용어로서의 보통화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²³ 이 과정에서 보통화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제도를 통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의무’로 변화하였다. 반면, 소수민족 언어의 보호는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조직과 업무분장의 경우, 1985년 12월에 국무원은 문개위를 ‘국가언어·문자업무위원회’(이하 ‘언문위’로 약칭)로 개편하였다. 언문위는 보통화와 한자 관련 업무의 방침 및 정책의 수립, 중장기 언어·문자 계획의 수립, 언어·문자의 규범 및 표준의 제정, 보통화의 보급 업무와 교사 양성 업무에 대한 지도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업무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 중국 당국은 언문위를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국(國家局) 소속으로 전환함으로써 언어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드러냈다. 1998년의 정부 조직개편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 전환됨에 따라 언문위도 교육부 소속이 되었다.²⁴

2. 국가통용언어·문자정책 실시 이후

2000년 10월, 중국은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을 제정한 취지를 국가통용언어

22 「中華人民共和國義務教育法(1986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23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1995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24 정준호, 2020, 「중국 통용언어문자정책 변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 연구』 22(3), 281~283쪽.

어·문자의 규범화와 표준화 그리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각 민족과 지역 사이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표명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통용언어·문자법」에서 정의하는 ‘통용언어·문자’는 제1장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보통화와 규범 한자를 지칭한다. 제2장에서는 국가기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방송 등에서는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8조에서 소수민족의 언어·문자 사용은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등의 법규에 따라 고유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²⁵ 교육부가 2006년에 발표한 「전일제 소수민족 초·중등학교 한어 과정보준 시행[全日制民族中小學漢語課程標準(試行)]」도 한어는 모국어가 한어가 아닌 소수민족 학생의 ‘제2 언어(第二語言)’라고 성질을 규정하고 있다.²⁶ 그렇다면 소수민족의 언어·문자에 대한 포용적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일까?

중국은 ‘민족구성 유형’에서 언어적 소수자를 포함한다. 소수민족의 규모가 한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거나 대수롭지 않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들은 지리·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통제의 대상이 된다.²⁷ 2002년, 중국 정부는 「민족교육의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關於深化改革加快發展民族教育的決定)」을 발표하면서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소수민족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받는 것과 한어 교육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여 소수민족 초·중등학교의 이중언어교육 작업을 분배한다. 소수민족 초·중등학교

25 中國教育部, https://www.gov.cn/ziliao/flfg/2005-08/31/content_27920.htm(검색일: 2023.11.11.)

26 漢語課程標準制定組 編, 2014, 『民族中小學漢語課程標準(義務教育)解讀』, 人民教育出版社 참고.

27 Richard D. Lambert, 2004, “A scaffolding for language policy”, in Bernard Spolsky, *Language Policy: Key Topics in Socio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8~59.

에 이중언어교육 과정 체계를 점진적으로 만들고,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외국어 과목도 개설하도록 한다. 이중언어교육 교재 건설을 현재의 교육 발전계획에 포함해 중점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전일제 소수민족 초·중등학교 한어 교학 대강(全日制民族中小學漢語教學大綱)」에 따라 소수민족 학생이 사용하기 적합한 한어 교재를 편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한어 수업 환경을 만들어서 소수민족어를 사용해 수업을 받는 소수민족 초·중등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점차 한어 수업을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재 개발, 그리고 출판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²⁸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의 제정과 보급은 중국어 언어와 문자의 규범화를 넘어 법제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맥퍼슨(MacPherson)은 중국의 이중언어교육 법제화 논리가 신자유주의적 언어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이중언어교육의 법제화는 소수민족의 언어를 민족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유의 문화로 보지 않고 소수민족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되는 영역으로 만들어 학습할 수도 있고, 학습하지 않을 수도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은 모든 인간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소수민족을 사회적·경제적 이익 추구에 어떤 언어가 더 유리한가를 따져서 자신이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자유’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소수민족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²⁹

「국가통용언어·문자법」과 같은 시기인 2001년에 개정된 「민족구역자치법

28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2/content_61658.htm(검색일: 2023.11.11)

29 Seonagh Macpherson, 2012, “From neo-liberal ideology to critical sustainability theory for language policy studies in the PRC”, *China’s Assimilationist Language Policy: The Impact on Indigenous/Minority Literacy and Social Harmony*, Routledge, pp. 192~193.

(民族區域自治法)」도 표면적으로는 각 소수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언어·종교·풍습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각 소수민족이 역사적으로 거주해온 지역적 연고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중공은 「민족구역자치법」 제2조에서 “각 민족의 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 분”이라고 뜻을 박고, 제3조에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행한다”고 규정해놓았다. 민주집중제란 민주제에 근거하여 고도의 집중 영도체제를 실행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원칙이다. 즉,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각 민족자치지방의 인민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통일적 영도하의 국가행정기관으로서 국무원에 복종”해야 한다.³⁰ 민족구역의 자치 권한은 ‘민주’보다 ‘집중’이 필요하다는 중앙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특히 ‘민주집중’의 대전제하에, 국가와 상급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방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소강(小康)을 실현하도록 돕는다는 명분으로 대량의 교사, 의사, 과학기술자와 경영관리인 등을 파견하여 민족자치지방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69조와 제70조에 마련해놓았다. 이는 민족자치지방 내의 보통화 통용 범위를 대폭 확장함으로써 소수민족 언어에서 지역적 연고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전 중국의 영토를 여러 민족의 잡거 상태로 만들어 어떤 경우에도 특정 민족의 지역적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소수민족의 독립 희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³²

30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2001修正)」, 『北大法寶』(2018.02.11.)

31 Maria Lundberg, 2009,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Minority Language Rights in the PRC”,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16(3), Brill, pp. 399~422. 민주와 집중의 개념에 대해서는 何益忠, 2012, 「民主集中制之“集中”考辨」, 『理論學刊』 3; 2014, 何益忠, 「民主集中制之“民主”辨正」, 『理論學刊』 4를 참고.

32 김영구, 2015, 「중국 소수민족 언어의 위상 하락과 주변화의 추이: 법적 분석을 통해 본 시진핑 시기의 억압적 소수민족 언어정책의 주요 이슈」, 『현대중국연구』

2011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중공 중앙이 문화 체제개혁 심화를 통해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대번영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의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은 훨씬 노골적으로 중공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 결정으로 “국가통용언어·문자의 강력한 보급과 규범적 사용”이라는 지도 사상이 제시되자,³³ 동년 12월에 중공 중앙과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 농촌 빈곤 구제 개발 강요(中國農村扶貧開發綱要)」는 농민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하는 것과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전면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연계하기 시작하였다. 도시와 농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한족 생활권과 소수민족지구 사이에 국가통용언어·문자의 보급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³⁴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부는 2016년 12월에 「국가언어·문자사업 ‘13·5’발전계획(國家語言文字事業“十三五”發展規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통용언어·문자법」에 근거하여 「국가 중장기 교육사업 개혁과 발전계획 강요 2010~2020년(國家中長期教育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 2010~2020年)」이나 「국가 중장기 언어·문자사업 개혁과 발전계획 강요 2012~2020년(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2~2020年)」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13번째 5개년계획 언어·문자정책이 추구해야 할 발전목표, 주요 임무, 중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계획의 요지는 언어·문자정책을 국가의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 특히 빈곤 구제사업과 연계하여 농촌과 소수민족 지역에서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의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³⁵

16(2), 22~24쪽.

33 「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 『人民日報』, 2011.10.26.

34 「中國農村扶貧開發綱要(2011-2020年)」,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 12.).

35 「教育部國家語委關於印發《國家語言文字事業十三五發展規劃》的通知」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마련된 언어·문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국가 중장기 언어·문자사업 개혁과 발전계획 강요」는 중국이 국내 및 국제사회 변화에 따라 마련한 언어·문자 사업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이 계획은 국가 언어·문자 사업의 총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20년까지 보통화를 기본적으로 전국에 보급하고, 한자 사용의 규범화 정도를 더욱 높이며, 한어 병음이 그 역할을 더 잘 해내도록 한다. 언어·문자 규범화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수준도 더욱 향상시킨다. 언어·문자의 사회관리와 서비스 능력을 전면적으로 끌어올리고, 사회관리서비스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한다. 각 민족의 언어·문자에 대한 과학적 보호를 강화한다. 언어·문자의 전승과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선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 언어의 실력을 뚜렷하게 강화하고, 국민 언어능력을 분명하게 향상시키며, 사회·언어·생활이 조화롭게 발전되도록 한다.³⁶

교육부는 상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① 국가통용언어·문자의 강력한 보급과 확산, ② 언어·문자 규범화·표준화·정보화 건설 추진, ③ 언어·문자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서비스 강화, ④ 국민의 언어·문자 사용능력 제고, ⑤ 각 민족의 언어·문자에 대한 과학적 보호, ⑥ 중화의 우수한 문화를 발양·전파, ⑦ 언어·문자의 법제적 건설 강화로 나누어 제시하는 한편, 각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통용언어·문자의 강력한 보급과 확산 임무에 따르면, 2015년까지 보통화를 거의 모든 도시에 보급하고, 농촌에는 교사와 학생, 청장년 인력을 중심으로 보급하며, 2020년까지 보통화를 전 사회에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언어소통에 대체로 장애가 없도록

(2016),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36 「教育部國家語委關於印發《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2-2020年)」,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지구는 2020년까지 국가통용언어·문자 교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소수민족 이중언어 교사를 양성해야 하며, 이들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소수민족 학생들이 국가통용언어·문자를 능숙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³⁷

이상을 통해 「국가 중장기 언어·문자사업 개혁과 발전계획 강요」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국가통용언어·문자와 국가 경제·사회발전을 전면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017년 3월, 언문위는 ‘13·5’ 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통용언어·문자가 보급되고 난제 해결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주도를 견지하며 각급 정부 및 사회 각 방면 간의 협력 체제를 추진한다. 둘째, 해당 지역의 기본적 요인과 조건을 종합하여 문제의 핵심인 경제 취약 지역과 사회집단을 도출하고 문제의 핵심에 역량을 집중한다. 셋째, 지역적 차이 및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방안을 수립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어·문자정책의 추진기반을 구축하며,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³⁸ 요컨대, 각 지역 간 격차와 도농 격차, 그리고 경제 취약 지역과 사회집단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국가통용언어·문자의 강력한 보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실제 경제·사회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로 설정한 반면, 소수민족의 언어·문자는 과학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 즉 생활과 유리된 학문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욱 힘을 잃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전국의 보통화 보급률이 평균 80% 이상에 도달하

37 「教育部國家語委關於印發《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2-2020年)」,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38 정준호, 2020, 「중국 통용언어문자정책 변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22(3), 290~291쪽.

게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와 기한설정도 전에는 볼 수 없던 적극적인 동원 방식이다. 2021년, 국무원은 “여전히 국가통용언어·문자의 균형적이고 충분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어·문자 정보기술의 혁신도 아직 정보화, 특히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2025년까지 보통화의 전국 보급률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³⁹

III. 대학어문과정의 변천과 특징

국무원 관공청(辦公廳)은 2021년 반포한 「신시대 언어·문자공작의 전면적 강화에 관한 의견(關於全面加強新時代語言文字工作的意見)」에서 “언어·문자사업은 기초적, 전면적, 사회적, 그리고 전국민적 특성을 갖기에, 국민 소양의 제고 및 전면적 발전, 역사문화 전승 및 경제사회 발전, 국가통일 및 민족단결에 관계되는 국가 종합실력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당과 국가 공작의 대국(大局)에서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⁴⁰ 2022년 중공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언문위가 제기한 「고등교육기관이 고급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에 봉사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加強高等學校服務國家通用語言文字高質量推廣普及的若干意見)」 역시 대학생의 언어·문자 응용능력 제고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능력과 두 가지 의식”이 대학의 인재양성방안뿐 아니라 졸업요건에도 포함될 예정인데, 곧 “언어·문자 응용능력”, 그리고 “국가통용언어·문자의 자각적 규범화 사용 의식”과 “우수한 중화 언어문화의 자각적 전승 및 선양 의식”이다.⁴¹ 국가통용언어·문자공작의 적극적 추진으로 보통화

39 「國務院辦公廳《關於全面強化新時代語言文字工作的意見(2021)》」,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40 「國務院辦公廳《關於全面強化新時代語言文字工作的意見(2021)》」,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41 「國家語委關於加強高等學校服務國家通用語言文字高質量推廣普及的若干意

의 자각적 규범화 의식을 함양시키는 동시에 언어·문자사업의 유기적인 부분으로서 대학어문과 같은 언어문화 관련 과정(課程)의 중시를 통해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대학어문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 출발점은 신문화운동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해혁명 이후 갑작스러운 사회변혁에 따라 중국 대학교육의 근대화 움직임도 가속화되었다. 고등교육기관은 서구식 분과제(分科制)를 채택하였고 교육과정 편제에서도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분류되는 고전의 강독을 탈피하였다. 지식체계의 개방으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학과들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학문 분류는 점점 다양하게 변해갔다.⁴²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문학적·문화적 지식의 약화를 유발하기도 했기 때문에, 당시 대다수 대학은 국문 수업을 개설하였다.⁴³

1922년, 민국 정부는 새로운 학제인 「임술학제(壬戌學制)」를 공포하고, 백화문운동(白話文運動) 추진 필요성에 따라 ‘국문’ 과목을 ‘국어’로 개정했으며, 교재에서도 문언문(文言文)을 사용하지 않아 언어와 문자의 교학을 통일시켰다. 명칭만 개정되었을 뿐 ‘국어’ 과목은 습자(習字), 언어, 독해, 작문을 포함하였다.⁴⁴ 이후 명칭이 통일되지 않는 혼선이 있었지만, 대학교에서는 국문으로 불리고 있었다. 이 단계에 이르러 대학어문은 고등교육기관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과정의 목적도 계몽이나 과거(科擧) 준비 등 전통적 패턴에서 벗어나 백화문, 곧 보통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1948년, 화북인민정부 교육부 교과서편집·심사위원회가 ‘국어’를 일률적으로 ‘어문’으로 개정하면서 대학교에서 불리던 국문이라는 명칭도 ‘대학어문’으로 변하였다.⁴⁵

見),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42 田正平, 2013, 『中國教育通史: 中華民國卷(上)』, 北京師範大學出版社, 47쪽.

43 潘懋元, 劉海峰, 2007, 『中國近代教育史資料彙編: 高等教育』, 上海教育出版社, 391쪽.

44 喻木伐, 熊賢君, 2005, 『中國教育發展史』, 華中師範大學出版社, 508쪽.

45 徐中玉口述, 張英記錄, 「徐中玉: 大學語文三十年」, 『南方週末』(2007.5.24.).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대학어문은 국가적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아 교육과정으로서의 중요도가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수립 초기만 하더라도 각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어문을 개설하였으나, 1952년부터 소련식 교육방식이 채택되면서 대학어문의 중요성은 점차 약해졌다. 1978년에 이르러서야 남경 일대의 일부 대학에서 먼저 대학어문을 회복시켰고, 뒤이어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잇따라 대학어문 과정을 개설하였다.⁴⁶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설계하고 교재를 편집하기 시작해야 했을 뿐 아니라 문화대혁명 시기 정체를 겪으며 청년 세대의 문화적·언어적 소양과 표현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학어문이 일순간에 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어 경제건설, 체제개혁, 그리고 전통문화의 회귀 등에 대한 국가적 의지에 부응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대학어문의 교육 취지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1990년대였다. 중공 중앙과 국무원이 1999년 6월에 공포한 「교육개혁의 심화와 소양 교육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결정(關於深化教育改革全面推進素質教育的決定)」은 소양 교육을 통해 “중국특색사회주의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로 나라를 흥성하게 하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실한 인재와 지식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요구하였고,⁴⁸ 1998년 4월, 교육부가 반포한 「대학생 문화 소양 교육 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關於加強大學生文化素質教育的若干意見)」에 따르면, 문화 소양 교육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역사·철학·예술 등 인문사회과학 방면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인 동시에, 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연과학 방면의 교육을 강화하여 이로써 전체 대학생의 문화적 품위, 심미적 정서, 인문적·과학적 소양을 제고하는 것이다.”⁴⁹ 이처럼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이 점차 공리적

46 徐中玉口述, 張英記錄, 2007.5.24. 「徐中玉: 大學語文三十年」, 『南方週末』.

47 喬芳 等編, 2020, 『大學語文: 人文思考與寫作實踐』, 江蘇大學出版社, 3쪽.

48 「關於深化教育改革全面推進素質教育的決定」,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49 「關於加強大學生文化素質教育的若干意見」,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이고 실용적인 학문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대학어문은 고등교육기관의 인재양성체계 내에서 점차 주변화되어갔다.

교육부는 2006년에 반포한 「국가 ‘11·5’ 시기 문화발전계획 강요(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문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⁵⁰ 대학어문의 실질적 지위는 하락세를 걸었다. 2007년, 교육부는 “대학어문 과정의 개혁과 건설”을 주문하였고, 이에 착수된 대학어문 과정 개편에서 어문의 인문적 성격보다 도구적 성격이 중시되기 시작하였다. 즉, 대학생의 문화적 소양, 특히 사상·도덕적 소양 교육도 아울러 돌보는 다중 책임이 요구되었다. 21세기에 대학어문이 기사회생할 수 있던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진핑 ‘신시대’의 도구적 사명을 교육부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2014년, 교육부는 「중화 우수전통문화 교육 개선 지도 강요(完善中華優秀傳統文化教育指導綱要)」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중국 고대사상문화의 중요한 전적(典籍)을 심화 학습하고, 중화 우수전통문화의 정수를 이해하며, 학생의 문화 주체의식과 문화 창조의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 우수전통문화는 중국특색사회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핵심을 파악하고, 중화 우수전통문화의 현재적 가치를 변증법적으로 다루며, 중화 우수전통문화와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학생이 인격 수양을 완벽하게 하고, 국가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며, 개인적 이상과 국가적 이상, 개인의 가치와 국가의 발전을 자각적으로 결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위하여 부지런히 분투한다는 이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⁵¹

50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51 「完善中華優秀傳統文化教育指導綱要」,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2017년에 중공 중앙과 국무원 판공청이 반포한 「중화 우수전통문화 전승·발전 공정에 관한 의견(關於實施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的意見)」에도 “고등교육기관이 중화 우수전통문화 필수 과목을 개설하도록 촉진하며, 철학·사회과학 및 관련 학과 전공 과정에 중화 우수전통문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⁵² 이에 따르면, 대학어문은 국가통용언어·문자교육의 고급 과정으로서 학생이 중화 우수전통문화의 미덕·이념·가치와 정신을 함양하도록 돕는 도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보통화 능력의 상승, 민족문화 자신감 형성, 훌륭한 인품과 덕성의 함양, 건강한 인격 형성 등 다방면에서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2018년에 교육부가 밝힌 「중화경전통독공정 실시 방안(中華經典通讀工程實施方案)」은 어문교육이 중화 우수 전통문화와 혁명문화, 그리고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화경전통독공정은 경전을 통독, 필사,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중화 경전문화의 함의와 현실적 의의를 발굴 및 해석해냄으로써 대중,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운문문학 등 경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더 넓고 깊게 중화사상을 이해하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사업이다. 이 공정은 2025년 까지 대중이 상술한 “하나의 능력과 두 가지 의식”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부의 중점적 임무로 경전 통독 과정과 교재 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어문 과목을 개설할 것을 명시하였다.⁵³ 이후 대학어문은 학생들의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보통화의 응용능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인지하고, 애국 정서를 배양하며, 전통문화 관련

52 「關於實施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的意見」,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53 「教育部國家語委關於印發《中華經典通讀工程實施方案》的通知」(2018.9.25.),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4.1.29.).

소양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공공기초과목(公共基礎課)으로 거듭났다. 공공기초과목인 대학어문은 전공과목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학문과 결합할 수 있기에 광범한 사상정치공작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중화 경전 통독의 근본적인 임무는 ‘입덕수인(立德樹人)’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배양이라고 주장한다. 입덕수인이란 ‘덕’을 갖춘 인재를 배양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에 공개된 「고등교육기관 과정으로서의 사상정치건설 지도요강(高等學校課程思政建設指導綱要)」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상정치교육의 본질 역시 ‘덕’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원준은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체제의 사회에서 ‘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 가능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사상정치교육을 통하여 길러내려는 ‘덕’은 단순히 훌륭한 인격이나 인성이 아니라 때로는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사회주의 발전사 등에 대한 소위 ‘올바른’ 이해일 수도 있는 것이다.⁵⁴ 대학어문은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다수의 학생에게 내러티브를 통해 거부감 없이 사상정치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덕수인’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대학생들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근거하여 ‘문화적 자신감(文化自信)’을 강화하도록 인도하는 역할도 대학어문에 요구된다. 직접적으로는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을 묘사한 문장을 읽게 하거나, 고대 중국이 역사·문화·경제·천문 등 여러 분야에서 달성한 눈부신 성과들을 소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조국의 역사·문화와 민족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국가와 민족이 역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창조한 모든 정신적·문화적 지혜의 집결체를 고전으로 파악하면서, 그것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전통과 현대, 선현과 후손 사이의 소통경로가 구축된다면 ‘문화적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고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54 이원준, 「중국 역사교육과 ‘입덕수인(立德樹人)’」, 『인천일보』, 2020.11.18.

1949년 이전에도 존재했다. 대학교육이 근대화된 이래 대학어문의 주된 역할은 고전의 교학이었으며, 서로 다른 교육편제와 이념 속에서도 고전을 전달체로 삼아 애국주의 고취 역할을 담당해왔다.⁵⁵

한편, 중국 공산당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문화적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을 대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공산당의 영도하에 달성한 혁명의 역사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발전사 역시 5,000년 이상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중화 문명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우수한 전통문화를 지닌 중화민족은 앞으로도 역사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만 한다. 이 자신감은 공간적으로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학어문은 중국과 다른 국가의 전통문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경로와 측면에서 우수한 민족문화를 파악하고, 나아가 ‘인류문명공동체’를 선도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⁵⁶

중국 정부는 대학어문이 궁극적으로 애국주의라는 가치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10월 2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를 통과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에 따르면, 애국주의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2. 중국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중화민족 발전사
3.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제도, 중국 공산당이 이끈 인민단결·분투의 중대한 성취
4. 중화 우수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
5. 국기, 국가, 국휘(國徽) 등 국가상징과 표지(標誌)

55 毛麗, 2020, 『大學語文教學與傳統文化研究』, 北京工業大學出版社, 5~7쪽.

56 喬守春, 2023, 「大學語文課程思政建設探析」, 『漢字文化』 10, 35쪽.

6. 조국의 아름다운 강산과 역사문화유산
7. 헌법과 법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 국가안전과 국방 등 방면에 대한 의식과 관념
8. 영웅, 열사, 선진모범인물의 사적 및 제헌된 민족정신, 시대정신
9. 기타 애국주의 정신이 풍부한 내용⁵⁷

애국주의교육의 내용이 되는 각종 사상·이론 또는 제도에 관련된 글을 소개하거나, 애국주의 정서가 충만한 다양한 형식의 고전 문학작품, 예컨대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악비(岳飛)의 「만강홍(滿江紅)」,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 량치차오(梁啟超)의 「소년중국설(少年中國說)」 등을 함께 읽거나,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역사를 기술한 사사(四史: 중국 공산당사,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를 가르치는 활동 등을 통해 애국주의 정신을 함양한 대학생 양성하는 것은 이제 법이 규정하는 대학어문의 주요 임무가 되었다. 애국주의 정신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갈 후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격조건이기에, 대학어문의 사상정치 건설에서도 핵심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맺음말

근대적 민족국가가 수립된 이후, 중국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민족의식을 강화하고 애국주의를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현

57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4.1.15.). ‘세 가지 대표’중요사상(“三個代表”重要思想)이란, 중국 공산당은 언제나 중국 선진생산력의 발전 요구를 대표하고, 중국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을 대표하며, 중국 최대 인민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한다는 사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함께 중공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는 지도 사상이자 행동지침이다.

재 중국 공산당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애국주의교육’에 대한 강조는 1990년대 초 장쩌민(江澤民)의 주도로 시작되어 확대 발전한 것이다. 1994년 8월, 공산당 중앙이 반포한 「애국주의교육 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에 따르면, 애국주의교육의 주요 내용은 전통과 역사, 국정(國情)과 공산당 업적, 민족단결과 국가통합,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⁵⁸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나아가 주입(灌水)하기 위한 주요 매개체로서 언어와 어문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상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중국의 언어교육정책 및 대학어문의 변천사와 특징을 통해 언어가 사상정치교육의 도구로 활용되는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상 통일을 위한 언어·문자통일 과정을 보통화 보급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지역의 청장년 노동력을 대상으로 직업기능과 보통화 능력의 동시 배양을 위한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실질적 기여를 추구하는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의 목적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표면적으로는 소수민족이 고유 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쟁력의 강화, 지역 격차의 축소,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의 이유로 그들이 자발적 혹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고유 언어와 문자를 포기하고 보통화의 사용능력을 향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만성을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언어와 문자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대학어문과정이나 사상정치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점차 주변화되던 대학어문은 국가통용언어·문자 응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아가 중화 우수전통문화의 전승과 그에 따른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목받았다. 중국 정부는 대학어문이 국가통용언어·문자의 권위적 지위를 수호하는 데 유용

58 「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1994.8.23)」, 中國中共黨史學會 編, 2019, 『中國共產黨歷史系列詞典』, 中共黨史出版社.

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상정치과정이 실시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도 기능한다고 파악하였다. 대학어문을 공통으로 이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핵심소양을 양성할 수 있다는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입덕수인’ 배양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대학어문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애국주의교육법」은 보통화의 보급 및 이용의 확대와 대학어문과정의 확립을 통해 중국 정부가 도달하려는 최종 목적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애국의 주체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다원일체 중화민족이기에 애국주의교육법에서 다민족국가의 다양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안에는 통일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중화민족의 전통문화와 공산당의 정치적 업적에 대한 자부심과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만 가득 차 있다. 학생들은 근대 국민국가의 산물인 중화민족이 어떻게 5,000년 넘게 이어진 공통의 ‘전통문화’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겨놓은 채로, 애국하기 위해서는 일치단결하여 국가통용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한족의 전통에 ‘문화적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학습한다.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중국의 애국주의란 중국 공산당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애국정신이 있다면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고 강요받는다. 언어와 어문은 ‘애국’이라는 근대 이래의 보편적인 가치 속에 중국의 사회주의는 특별하다는 신념을 녹여 넣을 수 있는 도구이자, 중화민족이라는 집단의 우월함과 집단이익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사료

- 「大力推廣以北京語音為標準音的普通話(1955年10月在全國文字改革會議上的報告)」, 2005,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 「關於加強大學生文化素質教育的若干意見」(1998.4.10.),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 「關於實施中華優秀傳統文化傳承發展工程的意見」(2017.1.25.),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 「關於在中小學和各級師範學校大力推廣普通話的指示(1955.11.17. 教育部發佈)」, 2005,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 「關於推廣普通話的指示(1956.2.6. 國務院發佈)」, 2005, 『推廣普通話文件資料彙編』, 中國經濟出版社.
- 「教育部國家語委關於印發《國家語言文字事業十三五發展規劃》的通知」(2016.8.25.),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 「教育部國家語委關於印發《國家中長期語言文字事業改革和發展規劃綱要》(2012-2020年)」,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 「教育部國家語委關於印發《中華經典通讀工程實施方案》的通知」(2018.09.25.),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4.1.29.).
-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2006.9.13.),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검색일: 2023.11.20.).
- 「國家語委關於加強高等學校服務國家通用語言文字高質量推廣普及的若干意見」(2022.11.23.),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 「國務院辦公廳關於全面強化新時代語言文字工作的意見」(2021.11.30.),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 「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

決定」, 『人民日報』(2011.10.26.)

「中國農村扶貧開發綱要(2011-2020年)」,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3.12.12.)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1995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1984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2001修正)」, 『北大法寶』(2018.2.11.)

「中華人民共和國愛國主義教育法」(2024.1.1.),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www.gov.cn(검색일: 2024.1.15.)

「中華人民共和國義務教育法(1986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中華人民共和國中央人民政府, 2019, 「中共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印發《關於深化新時代學校思想政治理論課改革創新的若干意見》」, 『國務院公報』 24.

「中華人民共和國憲法(1982年)」, 國家法律法規數據庫, <https://flk.npc.gov.cn>(검색일: 2023.12.12.)

단행본

金星華 主編, 2005, 『中國民族語文工作』, 民族出版社.

毛麗, 2020, 『大學語文教學與傳統文化研究』, 北京工業大學出版社.

潘懋元·劉海峰, 2007, 『中國近代教育史資料彙編: 高等教育』, 上海教育出版社.

王均 主編, 1995, 『當代中國的文字改革』, 當代中國出版社.

喻本伐, 熊賢君, 2005, 『中國教育發展史』, 華中師範大學出版社.

全國人大常委會辦公廳 編, 2015, 『人民代表大會制度重要文獻選編』1, 中國民主法制出版社.

田正平, 2013, 『中國教育通史: 中華民國卷(上)』, 北京師範大學出版社.

中國共產黨史學會 編, 2019, 『中國共產黨歷史系列詞典』, 中共黨史出版社.

陳永舜 編, 1986, 『漢字改革史綱』, 吉林師範學院.

漢語課程標準制定組 編, 2014, 『民族中小學漢語課程標準(義務教育)解讀』, 人民教育出版社.

Spolsky, Bernard, 2004, *Language Policy: Key Topics in Socio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 강희원, 2016, 「중국의 소수언어정책: 정책 의도와 현실의 괴리」, 『국가정책연구』 30(4).
- 김나래, 2016, 「다문화 사회의 언어정책: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한중미래연구』 7.
- 김영구, 2015, 「중국 소수민족 언어의 위상 하락과 주변화의 추이: 법제적 분석을 통해 본 시진핑 시기의 억압적 소수민족 언어정책의 주요 이슈」, 『현대중국연구』 16(2).
- 리문철·안병삼, 2021, 「중국 고등학교 개정 사상정치 교육과정 연구」, 『재외한인연구』 54.
- 민경만·김주아, 2022, 「신중국의 언어정책에 대한 고찰」, 『중국학연구』 100.
- 박정수, 2013, 「민족주의와 다문화: 중국식 다문화주의 '다원일체문화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2).
- 이종열·범령령, 2009, 「다문화 시대의 언어정책: 중국의 소수민족어문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 임형재·김효신, 2015, 「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 중국어 교수의 도입」, 『국제어문』 65.
- 喬守春, 2023, 「大學語文課程思政建設探析」, 『漢字文化』 10.
- 段然, 2023, 「高校思政教育語言體系分析」, 『中學政治教學參考』 25.
- 馬永全, 2019, 「新中國70年來通用語言文字教育政策變遷」, 『河北師範大學學報(教育科學版)』 2.
- 蘇解姣, 2012, 「《大學語文》課程思想政治教育功能研究初探」, 『現代語文教育研究版』 12.
- 楊秀華, 2007, 「事業開創時期的對外漢語教育政策與課程設置研究」, 『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 30(5).
- , 2012, 「深化時期的對外漢語教育政策與課程設置研究」, 『長江大學學報(社會科學版)』 35(6).
- 麗比努爾 色提尼亞孜·張曉燕, 2019, 「《大學語文》中開展課程思想政治教育的探

析」,『當代教育實踐與教學研究』21.

劉傳春, 2003, 「政治思想與思想政治辨析」, 『學校黨建與思想教育』4, 湖北長江報刊傳媒有限公司.

李玉明, 2013, 「中國語言生活的時代特征」, 『中國語文』4.

張雪莉, 2007, 「重視發揮《大學語文》的思想政治教育功能」, 『思想理論教育導刊』.

張雨蘭, 2008, 「中國視角下的語言政策和語言規劃」, 『文學語言學研究』3.

趙傑, 2011, 「雙魚政策平行落實的歷時梳理與共時創新」, 『北方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3.

趙季秋, 2015, 「談《大學語文》課程對高校思想政治教育的影響」, 『語文建設』3.

趙雁, 2016, 「“中國夢”語境下提高《大學語文》課程思想政治教育實踐性的探究」, 『德育課堂』8.

周慶生, 2014, 「國家民族結構與語言政策問題」, 『語言政策與規劃研究』1(2).

周明朗, 2018, 「中國語言教育政策百年演變及思考」, 『語言戰略研究』5.

中央教育科學研究所, 2009, 「曆數新中國60周年教育關鍵詞」, 『教育情報參考』11.

陳章太·謝俊英, 2009, 「語言文字工作穩步發展的60年」, 『語言文字應用』4.

韓一·金炫兌, 2023, 「1949年以來中國語言政策下方言的記錄與繼承: 一四川方言為例」, 『中國學』83.

黃小玉·王鵬輝, 2021, 「大學語文課程思政教學模式建構」, 『中國高等教育』19.

Lundberg, Maria, 2009, “Regional National Autonomy and Minority Language Rights in the PRC”,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16(3).

Macpherson, Seonaigh, 2013, “From neo-liberal ideology to critical sustainability theory for language policy studies in the PRC”, *China’s Assimilationist Language Policy: The Impact on Indigenous/Minority Literacy and Social Harmony*, Routledge.

기타 자료

徐中玉 口述, 張英 記錄, 2007.5.24, 「徐中玉: 大學語文三十年」, 『南方週末』.

이원준, 2020.11.18, 「중국 역사교육과 ‘입덕수인(立德樹人)’」, 『인천일보』.

당대(當代) 중국 사상정치 수단으로서의 언어교육과 대학어문(大學語文)

홍영미

이 글은 중국의 언어교육정책 및 대학어문의 변천사와 특징을 통해 언어가 사상 정치교육의 도구로 활용되는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언어·문자통일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언어교육정책이 표면적으로는 소수민족의 고유 언어·문자사용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쟁력의 강화, 지역 격차의 축소, 교육 수준의 향상 등의 이유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고유 언어와 문자를 포기하고 보통화의 사용능력을 향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목적이 효율적인 사상 통일에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언어와 문자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대학어문과정이 사상정치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학어문이 국가통용언어·문자 응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이자, 나아가 중화전통문화의 전승과 그에 따른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을 밝혔다. 대학어문은 국가통용언어·문자의 권위적 지위를 수호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상정치과정이 실시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통화, 대학어문, 사상정치, 애국주의

ABSTRACT

Mandarin Education and the Colleg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 a Means of Ideology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China

Hong Youngmi

This paper organizes the process by which language is used as a means for ideology and politics education in two parts, through the tran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the evolution of the Colleg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in PRC. First, It reviews the process of language and writing unification in China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is, the following facts were revealed: Mandarin education policy ostensibly guarantees the freedom of ethnic minorities to use their own language and script. However, in reality, for reasons such as strengthening market competitiveness, narrowing regional gaps, and improving education levels, they were pressured to voluntarily or unopposedly give up their native language and script and improve their ability to use Mandarin. The purpose is efficient ideological unification. Next, It examined how

the Colleg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ourse, which are premised on the unification of language and writing, are being used for ideology and politics. It found that the course are viewed not only as a means of improving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and writing system, but also as a means of transmitting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strengthening 'Cultural Confidence'. It is not only useful for safeguarding the authoritative status of the National common language and writing system, but it is also expected to serve as a prerequisite for the implementation of ideology and politics cours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Keywords: PRC, National Common Language and Writing, Mandarin, The College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Ideology and Politics, Patriotism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백두산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문상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코로나19 이후 백두산 관광
- III. 중국 정부의 백두산 교통 인프라 확충
- IV. 백두산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V. 중국의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長白山非物質文化) 육성
- VI. 맺음말

I. 머리말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잠정목록은 모두 186개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신청한 목록은 모두 62개이며, 백두산은 2017년 2월 28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¹으로 신청하였다. 등재의 여부는 현재까지 보합 상태이다. 반면 북한은 2000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모향산·금강산·칠보산 등을 신청했지만, 백두산은 포함하지 않았다.

2017년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백두산을 관리하고 공작한 지 10년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창바이산 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이하 창바이산 관리위)는 ‘창바이산 보호구역 10년 공작 회고(長白山保護區十年工作回顧)’를 발표하기도 했다.² 그런데 중국이 백두산을 세계적 유산으로 인식한 것은 그보다 오래전이었다. 1941년 『매일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만주국은 만주국과 청태조의 발상지인 백두산을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과학자와 역사학자 등 500여 명을 백두산 조사를 위한 등산대로 파견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³ 이후 1960년 4월, 백두산을 ‘지린성 창바이산 자연보호구(吉林省 長白

* 투고: 2024년 1월 3일, 심사 완료: 2024년 2월 4일, 게재 확정: 2024년 2월 19일

1 중국은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 중국에서 부르는 백두산 명칭) 식생(植生) 수직경관 및 화산 지모(地貌) 경관(Vertical Vegetation Landscape and Volcanic Landscape in Changbai Mountain)’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신청하였다.

2 『長白山保護區十年工作回顧』, 〈吉林省商務廳〉, 2017.9.22(http://www.changbaishan.gov.cn/ztlz/sngzpg/sngzhg/201709/t20170922_100179.html).

3 「白頭山 國立公園-肇國의 靈地로-만주國서 施設計劃」, 『매일신보』, 1941.7.3. 백두산, 즉 창바이산은 만주국에서肇國의 영지로서 국립공원으로 하기로 되어 오는 16, 17일 이들 동안 열리는 협화회 통화성 연합협의회에서 구체언을 협의키로 되었다. 즉, 이 산은 만주국 황제 폐하의 시조되는 청태조의 발상지이며 동시에 만

山自然保护区)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1964년 북한과 국경조약인 ‘조중변계조약(朝中邊界條約)’을 발효하기 이전이다. 1979년에는 유네스코의 승인을 받아 ‘인류 및 생물권보전지역의 세계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한편, 1986년 7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국가 삼림 및 야생 동물 자연보호구역으로 승인하였다. 나아가 2006년 지린성 당위원회와 성 정부는 창바이산 관리위를 설립하고서는 백두산의 생태관리 및 보호, 연구, 관광산업 육성 등을 본격화하였다.⁴

이러한 중국의 백두산 관광 개발은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7월 이후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고, 2006년부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는 별개로 북한은 백두산을 1989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Mount Paekdu Biosphere Reserv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 지정받았으며, 2019년 국제적·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선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Mount Paektu’로 신청하였다. 중국은 이보다 1년 후인 2020년에 ‘Mount Changbaishan’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신청하였다. 현재 전 세계 48개국 195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 한국은 5곳(제주도·청송·무등산권·한탄강·부안), 중국은 41곳의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 곳도 없다.

이런 가운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 UGGP)은 2023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 중국 측이 신청한 백두산(Mount Changbaishan)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에 나섰다. 중국은 실사에

주국의 영산으로서 만주국에서는 1940년 여름에도 약 40여 명이 일단으로 된 과학자 및 역사가 등을 보내 촬영까지 하였고, 향기 2,600년의 기념사업으로 5백여 명의 등산대를 보낸 일이 있으며 이번에는 이 영산을 국립공원으로 모든 시설을 하기로 되었다는데 鮮滿一如의 守護와 같은 백두산도 금후 세계적 공원지대로 데뷔하게 된 것이다.

4 문상명, 2022a,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제76호, 150~15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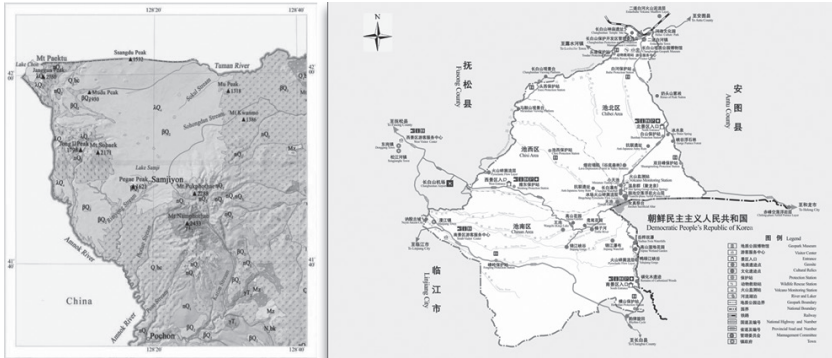


그림 1 북한 측 백두산 세계지질공원 구역(지질도)(좌)와 중국 측 백두산 세계지질공원 구역(관광도)(우)
(출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이트)

대비하여 2023년 초 창바이산자연박물관(長白山自然博物館) 전시 내용을 백두산의 지질공원 가치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 주변의 관광지와 기념관 등도 재정비하였다. 실사단은 창바이산풍경구 답사, 창바이산박물관 견학,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제안신청 피드백 회의 등 현장점검 및 평가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실사 내용은 UGGP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⁵ 이후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모로코(Morocco) 마라케시(Marrakech)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회(UNESCO Global Geopark Council)에서 ‘Mount Changbaishan’은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되어 통과되었다. 2024년 3월 지정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그런데 백두산 현장실사 당시, 우리 전통 한복과 악기, 머리 모양 등이 여러 차례 눈에 띄었다. 한복 차림에 한국식 전통 머리 모양을 한 여성이 양 끝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실사단을 맞이하는가 하면, 만찬 행사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지

5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홈페이지(<https://www.unesco.org/en/igpp/geoparks/council?hub=67817>).

〈표 1〉 북한과 중국의 백두산 세계유산 추진 과정

연도	북한	중국
1979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명칭: Changbaishan
1989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명칭: Mount Paektu	
2017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명칭: Mount Changbaishan
2019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 명칭: Mount Paektu	
2020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 명칭: Mount Changbaishan
202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실사
202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발표



그림 2 유네스코 실사단 환영 플래카드(출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사이트)

역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전통 노래와 가야금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백두산 지역 내의 박물관에 백두산을 만주족만의 성산으로 전시,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외적으로 만주족의 산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를 내세운 것은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다.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은 궁극적으



그림 3 창바이산자연박물관 내 한국(좌)과 만주족(우)의 전통복 및 장신구(2023.8.25. 필자 촬영)

로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는 데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백두산은 단순한 하나의 산체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중국이 백두산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백두산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중국이 단독으로 백두산을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시킬 경우, 중국 동북지역에 미칠 문화·경제적 영향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왜곡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코로나19 이후 백두산 관광

2023년 10월은 코로나19가 끝나고 중국에서 처음 맞는 중추절 및 국경절 연휴였다. 이 기간 동안 백두산을 찾은 관광객은 총 16만 5,800명 가까이 되어 2022년 같은 기간 6만 9,000명이 다녀간 것에 비해 140.29% 증가하였다. 2023년 10월 6일을 기준으로 2023년 총 관광객은 236만 6,800명이었으며, 전년도 관광객 69만 3,600명 대비 241.23% 증가하였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관광객이 227억53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4.02% 증가한 숫자이다. 코로나19 이전의 관광객을 넘어선 숫자이며, 한국 관광객이 전보다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중국 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백두산은 이번 연휴 동안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명승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⁶

광시성 구이린(广西桂林)에서 2023년 10월 13일, 중국-아세안 엑스포 관광박람회가 열렸다. 여기서 백두산 A5급의 관광상품만 모은 섹션에 ‘창바이산 눈세계(長白天下雪)’ 부스를 설치하고 백두산 겨울 빙설 자원과 관광상품을 소개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빙설 관광지 건설을 목표로 겨울 스포츠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⁷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백두산 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이 증가



그림 4 백두산 서파 이용을 위해 셔틀버스를 타는 곳(2023.8.24. 필자 촬영)

- 6 吉林省长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http://cbs.jl.gov.cn/zwgk/zwdt/zbsyw/202310/t20231010_259961.html).
- 7 吉林省长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http://cbs.jl.gov.cn/zwgk/zwdt/zbsyw/202310/t20231018_260081.html).



그림 5 백두산 서파를 오르는 1,442개의 계단(2023.8.24. 필자 촬영)

한 데에는 ‘14·5 계획, 일명 ‘중국 국가문물국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북지역에서 지역개발과 문화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더불어 교통인프라가 확충된 것도 큰 역할을 하였다. 2021년 3월 중국의 국무원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의 정책 대강을 집대성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이하 14·5 계획)’를 발표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지난 100년(1921~2021)의 목표로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을 제시하였는데, 새로운 100년의 시작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14·5 계획’으로 출발하였다. 이 계획은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의 이념을 기반으로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외 상호순환을 촉진한다는 새로운 구상이다. 길림성의 경우 혁신주도 발전, 현대산업체제 구축, 신발전구도 추진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길림성 문화와 관광 발전 14차 5개년 계획’에는 ‘문화강성(文化强省)’, ‘관광강성(旅游强省)’,

‘빙설경제강성(冰雪經濟強省)’ 건설을 목표로 문화와 관광을 통한 경제발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백두산과 관련해서는 동계 빙설 스포츠 육성과 관광, 백두산 관광지의 특화와 리조트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지린시를 ‘겨울스포츠 지역(冰雪大區)’으로 조성하여 ‘지린국가빙설경제고급발전시험지역’과 ‘창바이산 국제생태휴한(빙설온천)관광지역’을 건설한다고 제시하였다. 겨울 빙설 관광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창바이산 국제 생태 관광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관광에 문화를 더하여 ‘항연문화(抗聯文化), 빙설문화, 요금문화(遼金文化), 민족민속문화⁸’를 강조하였다. 이외에 중점 사업으로 ‘창바이산 산신묘유적지 보호 및 전시·이용’과 ‘창바이산 항전유적지 보호와 이용’을 들고 있다. 또한 홍색요소 계승을 위해 각종 홍색교육기지를 건설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 고구려, 발해 대유적지 보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녹색 저탄소발전, 환경의 질적 개선을 지속하고 생태 보호와 복원 강화 및 자연보호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생태문명제도 건설 강화를 제시하였다.⁹

한편, 2021년 4월 창바이산관리위에서는 ‘양산이념(兩山理念: 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 맑은 물과 푸른 산은 금은 산)’¹⁰ 이론에 기반한 시범지역을 건설하여 백산시와 백두산의 일체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백산시는 ‘양산’ 이념의 탄생지인 절강성 호주시 안길현이 우세한 자원을 기반으로 생태·레저관광을 발전시켜 3년 연속 전국 현급에서 레저관광 종합실력 1위를 차지하자 이를 벤치마킹

8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3, 36쪽.

9 吉林省人民政府, 2021.3,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10 ‘양산’이념은 2005년 8월 절강성위(浙江省委) 서기 시진핑이 절강성 호주시(湖州市) 안길현(安吉縣)을 시찰할 때에 “녹수청산은 곧 금산은산이다”라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하고자 노력하였다.¹¹ 2022년 4월에는 백산시와 창바이산관리위가 공동으로 「백산시·창바이산보호개발구의 양산이념시험구 공동 건설을 위한 행동강요(2022~2025)」와 「양산이념시험구를 공동 건설하여 창바이산 3대 생태경제구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한 의견」을 공포하여 양 기구 공동으로 ‘양산이념시험지역’ 건설에 착수하였다.¹² 최근에는 자연생태학, 적색문화, 화산지질학, 화산생물학 등 다양한 학습 과정과 결합하기도 하였다. 향후 3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백두산 답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자연 보호 및 생태 보호에 대한 인식 향상 교육을 시켜서 지속가능한 백두산 생태 개발을 실천하겠다는 취지이다.¹³

현재 중국 측 백두산 등정 루트는 북쪽, 남쪽, 서쪽 모두 3곳이 있으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북쪽 등산로(북파, 北坡)는 가장 많은 등산객이 찾는 곳이다. 얼다오바이허진(二道白河鎮)에서 출발하는데, 2021년 12월 창바이산역이 개통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백두산 북쪽 관광의 배후 기지가 되었다. 백두산 남측 사면(남파, 南坡)은 다른 루트에 비해 가장 늦은 시기인 2009년에 개통한 코스로 북한과의 경계에 있다. 교통이 불편한 데다 이동 거리도 멀어 북파, 서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강풍과 폭우 시 관광객 안전을 위해 입산을 통제하곤 하는데,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는 북한과 가까워 탈북민 문제로 입산을 통제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송장허진(松江河鎮)에서 출발하는 서파(西坡) 루트는 창바이산공항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완다그룹(萬達集團)이 송장허진에 투자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던 중 2023년 7월 디폴트 위기를 맞아 공사가 중단되어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으며, 완다그룹과 같이 투자한 푸쑹현(抚松县) 정부는 백산시 내

11 “生态高地”的突围之路, 『吉林日报』, 2022.8.29.

12 「白山市长白山保护开发区共建“两山”理念试验区协同发展行动纲要(2022—2025年)」: 「关于共建“两山”理念试验区推进长白山三大生态经济区建设的意见」

13 林省长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http://cbs.jl.gov.cn/zwggk/zwdt/zbsyw/202310/t20231014_260034.html).



그림 6 승장허진의 백두산공항(2023.8.23. 필자 촬영)

의 청사를 승장허진으로 옮겼다.

서파의 경우 매표소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올라간 후, 해발 900m 지점에서 다시 소형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30분 정도 더 가야 한다. 그리고 해발 2,200m에 있는 주차장에서 내려 1,442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다른 코스에 비해 도보로 오르는 구간이 가장 길다. 계단 입구에서는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데, 떡볶이와 감자전이 눈에 띈다. 중국 관광지에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K-Food의 인기가 여기까지 미친 것이든 백두산 생활문화권에 속한 조선족의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든, 우리 전통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북파 쪽에는 한복대여소가 있는데 역시 인기가 있다. 중국 동북 3성의 다른 주요 관광지에서도 한복 대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한복은 조선족의 복식도 아닌 현대 한국식 한복이란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림 7 서파 등정로 입구에서 판매하는 우리 전통음식 떡볶이(좌)와 감자전(우)(2023.8.24. 필자 촬영)

Ⅲ. 중국 정부의 백두산 교통 인프라 확충

지린성은 백두산의 겨울 관광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상서로운 큰 그릇(吉大碗)’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색 있는 음식, 백두산의 눈을 주제로 한 ‘장백천하설(长白天下雪)’, ‘설산온천계(雪山温泉季)’, ‘빙설운동계(冰雪运动季)’, ‘중법문화계(中法文化季)’, ‘빙설미식계(冰雪美食季)’ 등의 테마상품을 개발하였다. 특히 기존의 장강삼각주와 북경-천진-하북의 노선뿐 아니라 광둥, 홍콩, 마카오, 청두, 충칭 지역, 중원 평원 지역과 연계하는 노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산시 무송현 등과 지역연계를 하고, 완다(万达)·루능(鲁能) 등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비성수기 백두산 관광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해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2008년 8월 5억 5,000만 위안(830억 원)을 투입하여 백두산 서쪽의 푸쑹현에 창바이산 공항을 개항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백두산과 동북 지방의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특히 10억 위안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24일 지린성 둔화(敦化)와 백두산(창바이산)을 잇는 고속철을 공식 개통하였다. 이로써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안투현과 둔화시를 거쳐



그림 8 엘다바오진의 '창바이산역'(출처: Bai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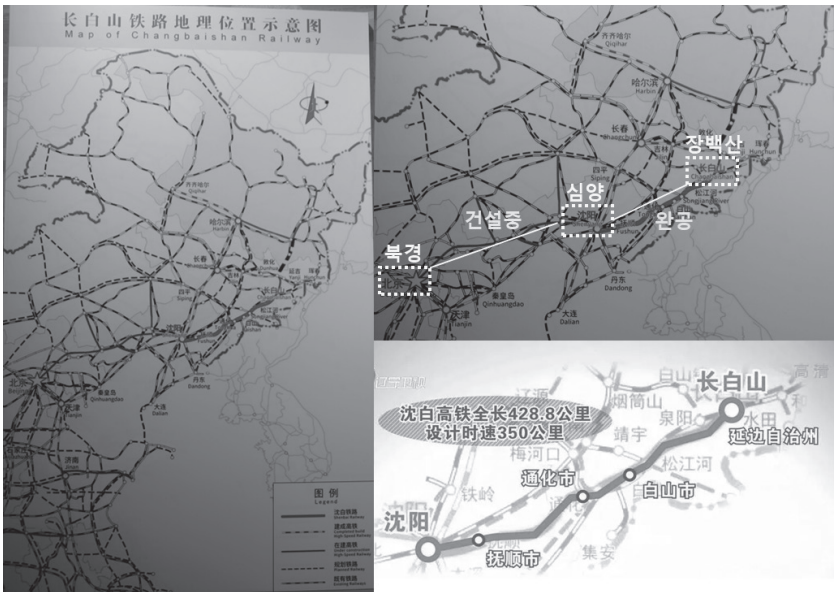


그림 9 백두산 주변 고속철도망 구성도(출처: Baidu, 장백산자연사박물관)

창춘고속철도와 연결되어 예전 지린성의 중심인 창춘에서 백두산까지 10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이 최소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다. 현재 베이징에서 창춘까지 고속철도로 최소 3시간 58분이 걸리므로 베이징에서 6시간이면 백두산에 도달할 수 있다.

중국 관련 부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고속철도 개통 직후인 2021년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불과 1주일 만에 백두산 관광객 수가 1만 2,226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42% 정도인 5,094명이 고속철을 이용했을 정도로 고속철이 백두산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¹⁴ 2023년 7월 20일 기준으로, 중국의 백두산 관광객은 연인원 100만 명을 돌파한 100만 7,7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에 연인원 100만 명을 돌파한 것보다 7일 앞당겨진 것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의 관광객을 넘어섰다.¹⁵

또한 2020년 10월에는 랴오닝성과 지린 구간 연결과 함께 선바이 고속철도(瀋白高速鐵路, Shenyang-Changbaishan High-speed Railway) 교통망을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고속철은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출발하여 푸순시, 지린성 통화시, 바이산시, 옌벤조선족자치주를 거쳐 둔화의 창바이산역까지 이어진다. 고속철도는 총길이는 430.1km,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로 중국 동북부 및 동부 고속철도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이다.¹⁶ 선바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선양에서 창바이산역까지 1시간 30분 내외, 베이징에서 창바이산역까지 4시간이면 충분하다. 지금보다 2시간이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이니셔티브 및 지역 발전과 국가 전략의 효과적인 통합이라는 구상과도 부합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동북 지역의 종합적인 진흥

14 『沈佳高铁白敦段开通 长白山全域旅游一周接待1.22万人』, 〈吉林省长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 2022-12-31(http://www.changbaishan.gov.cn/zjgx/202112/t20211231_176458.html).

15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125817/16013902.html>

16 바이두, https://baike.baidu.com/item/%E6%B2%88%E7%99%BD%E9%AB%98%E9%80%9F%E9%93%81%E8%B7%AF/24226451?fr=ge_al

촉진과 백두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IV. 백두산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중국은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경제건설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북 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 이에 백두산에 주목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 백두산 관련 문헌을 수집,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백두산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지린사범학원고적연구소(吉林師範學院古籍研究所) 리수티엔(李澍田)이 이끄는 연구팀은 75권에 이르는 방대한 『창바이총서(長白總書)』(吉林文史出版社)를 편찬하였다. 이로써 백두산 관련 고고·민족·민속·문화 등의 자료가 집대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왕슈우핑(王秀平)의 『창바이산지(長白山志)』(1989)는 백두산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로 평가받고 있다.

그 뒤 2000년 10월 29일 장춘에서 ‘지린성 창바이산문화연구회(長白山文化硏究會)’가 결성되면서 바이산시(市) 지역 차원에 국한하였던 ‘창바이산 문화’ 개념이 지린성 전체로 확대되었다. 이 단체는 ‘창바이산문화론’을 선전·확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지린성 각지에 조직된 이들 연구회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학회 조직으로 중공지린성위원회 선전부가 조직, 활동을 지원하고 통제, 지도하였다. 창바이산문화연구회는 2003년에 『장백산문화논총』을 발간하였다. 2014년에는 부회장 류허우성(劉厚生)을 주편(主編)으로 『중국 장백산문화』(길림출판사, 2014)를 발간하였다. 그간의 창바이산연구를 종합 정리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한편,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는 1999년부터 『학문(學問)』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였는데, ‘동북공정’ 추진과 함께 2004년부터 동북지역의 역사와 지리 연구를 통하여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발간 목표 아래 『동북사지(東



그림 10 너인고성에 있는 기복신앙의 백두산신(2023.8.25. 필자 촬영)

北史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잡지는 동북공정의 연구 성과, 그리고 창바이산문화론과 관련된 논문을 중점적으로 게재해왔다. 이후 2016년에 원래의 잡지 명칭으로 복귀하였다가 2017년에 폐간되었다.¹⁷

2017년은 중국이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를 신청한 해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중국은 백두산 관광지와 관련 박물관 기념관, 유적지 등을 통해 백두산 내러티브를 만들었다. 창바이산 풍경구, 너인고성, 창바이산 만주족문화박물관, 바오마성 유적지, 류딩산 문화 명승지 등 만주족의 거주지, 만주족의 창바이산 제사처, 만주족 박물관 등을 ‘창바이산문화’ 공간으로 형성한 것이다.¹⁸ 중국이 백두산 관광지화와 지역경제 촉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17 ‘창바이산문화론’ 관련 논문은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박선영, 2022.2, 「근현대 한중변경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과 비판-『백도백과』, 『동북사지』, 『중국변강사지연구』 내용 병론-」, 『중국사연구』 136, 323, 344~346쪽.

18 문상명, 2022a, 앞의 글, 336~348쪽.

이 가운데 너인고성(讷殷古城)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고대 여진족 산림촌락을 관광지로 재현한 민속촌이다. ‘만주족 청조 선조의 발상지(满清先祖发祥之地)’에 백두산을 중심으로 탄생한 여진족의 역사·종교·문화 등을 선진, 홍보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백두산신 형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곳곳에 있어 눈이 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다른 논문(「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2022)에서 밝힌 바 있다. 개장한 이래 시설을 정비하여 현재는 숙박시설까지 갖춰 만주족 민속촌 테마파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조성 목적은 백두산 지역이 만주족의 발상지라는 것을 홍보하고 그 역사와 문화를 부각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도 입구에는 한국식 한복이 전시되어 있고, 이를 체험하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만주족 민속촌에 만주족 복식 체험은 없고 한국의 한복이 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조선족의 삶과 문화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만주족의 역사·문화를 강조하여도 조선족의 그것을 덮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림 11 너인고성의 한복체험 촬영처(2023.8.25. 필자 촬영)

창바이산만주족문화박물관(長白山滿族文化博物館)¹⁹은 만주족을 백두산 내러티브의 중심에 놓기 위해 중국이 가장 먼저 조성한 곳이다.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바이산시(白山市)에 2008년 10월 개관한 이곳은 백두산의 서쪽에 위치하며 너인고성과는 일직선상에 있다.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성급 박물관으로, 창바이산에서 만주족이 탄생하였고 그들의 문화가 발아하였다는 것을 주제로 만주족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의 서언(序言)에, “(창바이산은) 중화(中華) 1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유라시아 대륙 동단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 만주족의 발상지이고 중국 북방 민족이 대대로 번성하고 생식(生息)할 수 있도록 해준 가원(家園)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에 짐작할 수 있듯이 백두산이 만주족의 성산이자 발상지임을 강조하고, 발해도 말갈족이 세운 왕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백두산에서 탄생한 만주족의 문화만 강조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왜곡하고 있어서 한때는 한국인의 출입을 막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현재는 한국인의 출입에 전혀 제한이 없다. 전체적인 전시 내용은 2019년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長白山非物質文化) 전시가 추가된 점이 달라졌다.

그런데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 전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리의 문화를 백두산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소개하여 자연스럽게 중국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된장 문화를 ‘고려 장담그기’로 소개하며 장백현의 음식문화라고 기술하였다. ‘채삼(採參) 문화’는 중화민족의 전통으로, 지금도 북한에서 띄우는 압록강 뗏목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중국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나마 ‘강강수월래 춤’과 ‘한복’은 장백현 조선족의 춤과 복장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조선족의 문화라는 것은 밝히고 있다. 조선족을 통해 우리의 빼어난 문화가 전파되고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쁜 일이다. 그러나 백두산 생활문화권에서 대대로 내려온 우리 민족의 문화를 ‘창바이산’의 무형문화유산으로 포장하여

19 바이산시 눈장대로 152호(白山市渾江大街152号).

중국의 것으로 전유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그 문화의 원류가 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림 12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 중 장담그기(좌), 채삼(중), 압록강 뗏목(우)(2023.8.26. 필자 촬영)



그림 13 민족박물관의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 전시 중 한복(좌)과 전통 한국춤(우)(2023.8.26. 필자 촬영)



그림 14 북한의 압록강 뗏목(2018.8.15. 필자 촬영)



그림 15 압록강 뗏목을 운항하는 북한주민(2018.8.15. 필자 촬영)

V. 중국의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長白山非物質文化) 육성

1. 중국 동북지역 메디컬 벨리(東北葯谷) 통화시(通化市)

백산시 만족박물관에 전시된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은 통화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화시는 2022년 말 기준 약 151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 동북지역에 위치한 길림성 관할의 현급 시(吉林省轄地級市)로 백두산에 속하는 산간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단둥시(丹東市)·지린시(吉林市)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자강도(慈江道)와 마주하고 있어서 백두산 권역 교통의 결절지(結節地)라 할 수 있다.

중국 동북지역 메디컬 벨리(東北葯谷)라고 부를 정도로 통화시는 백두산 인삼과 약초 등을 기반으로 인삼산업과 제약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백산시 만족박물관에서는 ‘창바이산 인삼캐기(採蔘)’ 문화를 만주족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시하고 있다. 통화시 인삼 산업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성이



그림 16 통화시 인삼도매 단지(2023.8.27. 필자 촬영)



그림 17 통화시 제약산업단지 입구(2023.8.27. 필자 촬영)



그림 18 만주족의 채삼 장면(백산시 만족박물관, 2023.8.26. 필자 촬영)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내용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다.

인삼 생산량은 길림성의 약 3분의 1, 전국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백

두산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바탕으로 제약회사 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제약업은 통화시 고용률의 80% 이상, 세금 수입에서는 72% 정도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GDP가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통화시는 도시 종합 신용 지수에서 동북지역에서 3위, 전국 상위 26위를 차지하였다. 나아가 2025년에는 통화 의약헬스산업의 총 경영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규모와 성장이 명확해 보인다.²⁰

2.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長白山非物質文化)의 메카 통화사범대학(通化師範學院)

통화시에 위치한 통화사범대학은 창바이산문화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온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의 하위 대학이다. 2000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해 온 창바이산문화연구회 부회장 류허우성(劉厚生)은 명청사·만족연구, 만족 사민문화 연구자로 동북사범대학의 ‘동북민족여강역연구중심(東北民族與疆域研究中心)’ 주임을 역임하였다. 그가 주편(主編)이 되어 ‘창바이산 문화론’을 종합 정리한 『중국장백산문화(中國長白山文化)』(길림출판사, 2014)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2015년 6월에는 동북사범대학에 창바이산문화건설연구센터(長白山文化建設研究中心)를 설립하였으나 특별히 드러난 활동은 없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통화사범대학은 동북사범대 창바이산문화연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통화시에 자리한 위치적 특징과 사범대라는 대학의 특수한 성격이 백두산 무형문화유산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3년부터 본격화한 중국의 동북공정이 심양 동북아시아 연구소, 통화사범대학 고구려연구소, 류허우 등이 참여한 동북사범대학 동북민족강역(疆域)연구소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 延边广播电视台 2023-07-14 <吉林通化着力打造“东北药谷”>; 吉林日报 2023-03-29 <奋进“参都”——看通化市如何推进人参产业高质量发展>.



그림 19 통화사범대학 정문 오른쪽에 위치한 '창바이산 비물질문화유산관리원'(2023.8.27. 필자 촬영)

통화사범대학은 2019년 10월에 '대학+아카데미'의 융복합적 교육을 목표로 교양대학 성격의 '창바이서원(長白書院)'을 설치하였다. 또한 통화사범대학 내에는 창바이산문화연구소(長白山文化研究院), 고구려문화연구소(高句麗研究院), 궁술연구소 등이 설치되어 백두산,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한편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통화사범대학의 정문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창바이산비물질문화관리원(長白山非物質文化館里院)' 건물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무형문화유산의 육성을 위해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두산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확산을 담당하는 교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2018년 길림성 제13차 5개년 계획의 특징을 지닌 고급 학문으로서 교육부로부터 '신홍 학제 간 학문'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통화사범대학은 최근 2023년 4월 19일~21일까지 통화시 초·중등학교 체육, 음악, 미술 과정 교사 194명을 대상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며

특색学科



中国史

学科简介: 通化师范学院中国史学科2014年被批准为吉林省高校“十二五”优势特色重点学科, 2018年批准为“十三五”省优势特色学科。学科依托长白山区域优势, 逐渐形成了以高句丽与东北民族疆域史、东北古代思想文化史、东北近代史、东北民俗史四个具有鲜明特色和优势的学科方向...



中药学

学科简介: 通化师范学院中药学学科于2018年被吉林省教育厅评为吉林省特色高水平学科。学科立足中药大健康产业, 依托长白山自然资源优势, 面向通化中国医药城, 以长白山资源研究为主线, 突出中药资源开发与利用、中药制药关键技术、中药检验与质量控制和中药产品研发四个研究方向...



教育学

学科简介: 通化师范学院教育学学科2014年被批准为吉林省高校“十二五”优势特色重点学科。学科以吉林省东南部地区基础教育问题为研究主线, 设置了教育基本理论与创新教育研究、区域基础教育课程与教学改革特色研究、学校变革与创业教育研究、区域学前教育发展研究4个研究方向。



生物学

学科简介: 通化师范学院生物学学科2014年被批准为吉林省高校“十二五”优势特色重点学科。学科以长白山生物资源研究为主线, 聚焦长白山生物资源的研究、保护、开发为一体, 形成了生物资源信息采集与保护、生物种质资源应用、生物种质资源创新和分子生物学技术与应用等研究方向。



非物质文化遗产学

学科简介: 通化师范学院非物质文化遗产学于2018年被教育厅评为吉林省十三五特色高水平学科“新兴交叉学科”。学科建设以非遗项目为纽带, 整合传统学科资源, 突破新老学科间的交叉互补, 面向校内外(含社会特殊群体)开展非遗教育传承, 拥有完整的通师非遗课程培养体系。

그림 20 통화사범대학 홈페이지 첫 화면에 특색학과로 소개한 창바이산 중약학·무형문화유산학과

무형문화유산을 캠퍼스에 도입(愛祖國, 愛家乡暨非遺进校园)이라는 주제로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 교과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문화는 어릴 때부터 습득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문화의 경우 지역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결과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의 지원과 지역 사회의 호응으로 매우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다.²¹

지린성의 성급 무형문화유산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총 9개 항목 301개가 지정되었다. 이 중에 백두산 관련 무형문화유산은 총 28개인데 통화사범대학 9개, 통화시 7개, 통화현 3개, 푸송현 3개, 바이산시 6개, 둔화시 1개,

21 「通化市举办“非遗”基础教育师资培训」, 『吉林日报』, 2023.4.25.

창바이조선족자치현 1개, 류허현 1개, 창춘중의약대학 1개의 유산을 관리(중복 관리 있음)하고 있다. 항목의 내용은 전통기술, 무용, 미술, 문학, 민속 등이다. 이 가운데 전통기술(传统技艺) 부분이 6개 항목으로 가장 많은데, 통화사범대학에서는 창바이산 당면 제조기술(長白山粉条漏制技艺), 창바이산 야생벌 사육기술(長白山野山蜂养殖技艺), 창바이산잎으로 감싼 식품생산기술(長白山叶裹食品制作技艺)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창바이산 인삼 이야기(長白山人参故事), 창바이산 만주족의 종이 공예(長白山满族剪纸), 창바이산 만주족의 베개 자수(長白山满族枕头顶刺绣), 창바이산 만주족의 죽마위의 양계 춤(長白山满族高跷大秧歌) 등의 무형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은 학문적 연구에서 ‘창바이산 무형문화유산 육성’으로 변화하였다. 여기에 통화시와 통화사범대학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통화시의 백두산 인삼산업·약재산업 육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2023년 10월 31일에는 통화시의 “한약 가공 기술(인삼 가공 기술)[中药炮制技艺(人参炮制技艺)]”이 ‘국가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보호 단위 목록(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代表性项目保护单位名单)’에 포함되었다.²² 성급에서 국가급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등급이 격상된 것이다. 특히 이 지역 인삼산업의 발달은 국제사회에서 ‘창바이산 인삼’을 각인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두산 인삼’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통화시와 통화사범대학의 백두산 관련 연구와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2 Kangmei Xinkaihe (Jilin) Pharmaceutical Co., Ltd.(康美新开河(吉林)药业有限公司), Tonghua Fu Shenyuan Speciality Products Co., Ltd.(通化福参源特产产品有限公司) 두 기업에서 관리한다.

〈표 2〉 길림성 지정 백두산 관련 무형문화유산

분야[개수]	순번	항목	지역	지정차수
민간문학[2]	1	長白山人參故事	通化師範學院, 抚松县	3
	2	長白山老把头传说	通化市	2
민간미술[2]	3	長白山滿族剪纸	通化師範學院	1
	4	長白山滿族枕头頂刺繡	通化師範學院	1
민간음악[1]	5	長白山森林号子	省民間文艺家協會, 白山市	1
민속[3]	6	長白山老把头节	通化县, 抚松县	5
	7	長白山滿族过年习俗	通化師範學院	3
	8	長白山采伐開山习俗	敦化市	1
전통기술[6]	9	長白山粉条漏制技艺	通化師範學院	3
	10	長白山粉条制作技艺	長白朝鮮族自治州	5
	11	長白山山參栽培技艺	通化市	3
	12	長白山野山蜂养殖技艺	通化師範學院	3
	13	長白山叶囊食品制作技艺	通化師範學院	3
	14	長白山黑木耳栽培加工技艺	白山市	3
전통무용[2]	15	長白山滿族高跷大秧歌	通化師範學院	3
	16	長白山回族龙灯	柳河县	4
전통미술[4]	17	長白山根雕	白山市	3
	18	長白山滿族撕紙	通化县	3
	19	長白山木瓢	白山市	3
	20	長白山紅松根雕	通化師範學院	3
전통체육[1]	21	長白山滿族風情剪纸	白山市	4
전통수공기술[3]	22	長白山滿族豆瓣醬釀造技艺	通化市	2
	23	長白山滿族木屋建造技艺	通化市, 白山市	2
	24	長白山山核桃拼貼工艺	通化市	2
전통의약[3]	25	長白山滿族医药	通化市	2
	26	長白山王氏中草藥炮制技艺	通化市	4
	27	天池傷科療法	長春中醫藥大學	5

VI. 맺음말

중국의 백두산 주변 교통인프라의 확충과 백두산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백두산(창바이산) 무형문화유산 육성 등은 모두 백두산을 세계적인 유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세계지질공원의 목적은 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지오투어리즘을 활성화하여 관광을 통한 교육 및 지속 가능한 보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백두산의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지질공원 관리국과 지질공원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관리해왔다. 백두산 지질공원 관리국은 일반 사무소, 자연 보호, 화재 관리, 검역 관리, 과학 교육 담당, 산림·동물 관리 그리고 보호 관리 부서로 나누어 총 7개의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백두산의 지형·지질 교육 활동으로 정기적으로 지역 및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시작으로 베이징의 상위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진행된 백두산 과학탐방 프로그램이 있으며, 2015년에는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 지식과 예방에 대한 8개의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관광 활동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새로운 수요 창출과 교육 제공을 위한 고용 기회 제공 및 공공분야의 투자로 관광객들을 유인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보여왔다. 이처럼 보전 가치가 있는 백두산의 지형·지질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역사·지역주민의 복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넘어 세계유산을 염두한 움직임이다.

중국 측 백두산 'Mount Changbaishan(창바이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의도치 않게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백두산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중국의 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연유산·문화유산·복합유산) 단독 등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 과 무형문화유산육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북한 측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백두산은 비록 북측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적 공간이자 대한민국 영토이다. 우리의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

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백두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확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현재 초국적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Transnational UNESCO Global Geoparks)은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Austria & Slovenia)의 ‘카라완켄(Karawanken)-카라반케(Karavanke)’, 독일(Germany)과 폴란드의(Poland)의 ‘무스카우어 팔텐보겐(Muskauer Faltenbogen)-우크 무자코와(Łuk Mużakowa)’, 헝가리(Hungary)와 슬로바키아(Slovakia)의 ‘노그라드(Nógrád)-노보흐라드(Novohrad)’, 아일랜드(Ireland)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쿠일카 레이크랜드즈(Cuilcagh Lakelands)’ 총 4곳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자연유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 올해 셸드 델타[Schelde Delta(벨기에/네덜란드)] 한 곳이 더 지정될 전망이다.

북한 측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되도록 돕는 동시에 중국과 함께 백두산을 초국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Trans-national Global Geopark)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초국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동북아 분쟁 해결과 평화,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데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백두산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창바이산문화론’에 포함된 우리 고유 문화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그 원류가 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참고문헌

자료

- 『吉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2021.3.
- 「关于共建“两山”理念试验区推进长白山三大生态经济区建设的意见」, 长白山管理委员会, 2023.8.16.
- 「吉林通化着力打造“东北药谷”」, 『吉林日报』, 2023.7.14.
- 「吉奋进“参都”-看通化市如何推进人参产业高质量发展」, 『吉林日报』, 2023.3.29.
- 「白山市长白山保护开发区共建“两山”理念试验区协同发展行动纲要(2022-2025年)」, 『吉林日报』, 2022.8.29.
- 「奋进“参都”-看通化市如何推进人参产业高质量发展」, 『延边广播电视台吉林日报』, 2023.3.29.
- 「“生态高地”的突围之路」, 『吉林日报』, 2022.8.29.
- 「通化市举办“非遗”基础教育师资培训」, 『吉林日报』, 2023.4.25.

논문

- 문상명, 2021, 「조선후기 <天下圖>에 담긴 白頭山 인식」, 『만주연구』 32.
- _____, 2022a, 「중국의 ‘백두산공정’과 대응」, 『동북아역사논총』 76.
- _____, 2022b, 「중국의 ‘창바이산문화론’과 백두산 전유화(專有化)」, 『동북아역사논총』 78.
- 박선영, 2022, 「근현대 한중변경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시각과 비판-『백도백과』, 『동북사지』, 『중국변강사지연구』 내용 병론-」, 『중국사연구』 136.
- 박정민, 2016, 「창조 발상지 악다리성(鄂多理城) 논의에 대한 재검토-‘둔화설’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동북역사논총』 52.

기타 자료

吉林省长白山保护开发区管理委员会, <http://cbs.jl.gov.cn/>

바이두, <https://baike.baidu.com>

유네스코세계유산, <http://whc.unesco.org/en/tentativelists/6190/>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125817/16013902.html>

중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백두산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문상명

2024년 3월, 유네스코 지질공원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신청한 대로 백두산을 ‘Mount Changbaishan’이란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선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북한은 중국 측보다 한 해 이른 2019년에 ‘Mount Paektu’라는 명칭으로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신청했지만, 코로나 19로 실사가 지연되어 중국 측만 지정되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수순에서 이미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번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중국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백두산 관광객을 유도하는가 하면, ‘창바이산문화론’을 내세워 역사·문화적으로 백두산이 중국의 산이라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통화시(通化市)에 동북지역 메디컬 밸리(東北葯谷)를 만들고 통화사범대학(通化師範學院)을 특화하여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의 중심 센터로 지정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 경관의 완성성을 추구한다. 북한 측 백두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고, 한편으로는 백두산이 중

국과 공동으로 초국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도록 힘써야 한다. 백두산은 북한과의 경계를 넘어, 중국과의 국경을 넘어 공동 번영의 매개인 평화의 공간이다.

주제어: 백두산, 장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백두산 내러티브, 창바이산무형문화유산, 동북지역 메디컬 밸리, 통화시(通化市), 인삼, 통화사범대학(通化師範學院)

ABSTRACT

Promotion of UNESCO World Heritage Listing and Sinicization of China's Mount Baekdusan Narrative

Mun Sangmyeong

The UNESCO Geopark Committee is expected to officially announce Mount Baekdusan as a UNESCO Global Geopark under the name 'Mount Changbaishan' in March 2024. North Korea also applied for registration under the name 'Mount Paektu' in 2019, but only Mount Baekdusan on the Chinese side was registered.

China has long ago designated Mount Baekdusan as a 'World Biosphere Reserve' in the process of registering it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is time, they did their best to have it listed as a UNESCO Global Geopark. Specificall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as expanded to attract tourists and by researching 'Changbaishan Cultural Theory', they developed the logic that Mount Baekdusan is a Chinese mountain historically and culturally.

Recently, the Northeast Regional Medical Valley has been formed in Tonghua City and the 'Changbaish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being developed centering on Tonghua College of Education. We must be wary of the Sinicization of our people's culture, which has historically shaped our living space on Mount Baekdusan. In order to jointly register Mount Baekdusan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t is urgent to raise public awareness, research and interest from academia, and government response.

Baekdu Mountain is a symbolic space of Korea as a sacred mountain and a spiritual mountain of the Korean people. However, China is trying to Chineseize half of Mt. Baekdu. We must be wary of this, and it is urgent to raise public awareness, research and interest from academia, and respond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jointly register Mt. Baekdu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Keywords: Mount Baekdusan, Mount Changbaishan, The UNESCO Geopark, Mount Baekdusan narrative, Changbaish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Northeast Regional Medical Valley , Tonghua Cit, Ginseng, Tonghua Colleg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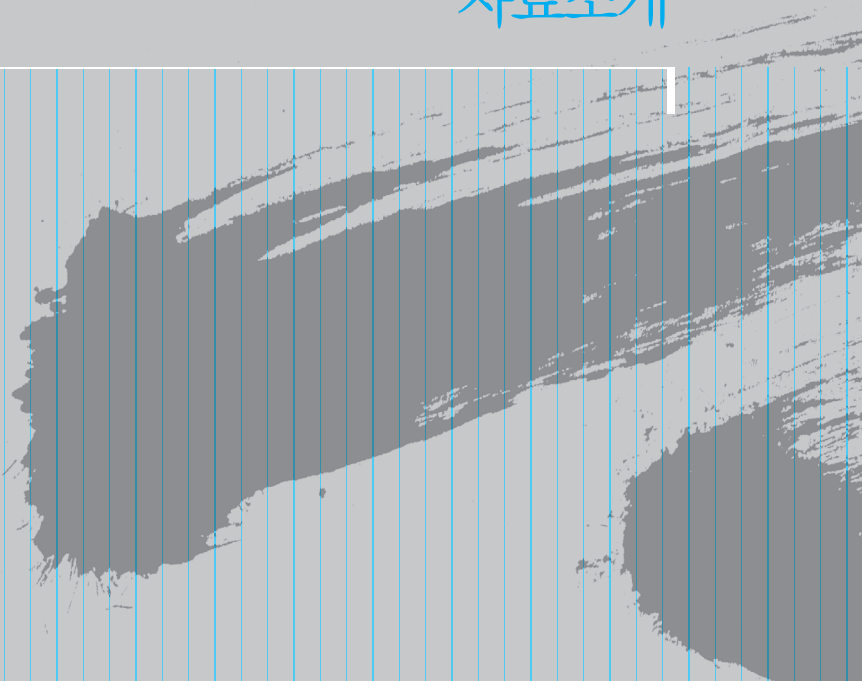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

위산광 | 중국 산둥대학 박사후

- I. 머리말
- II. 다케노우치 세이사쿠의 생애와 경력
- III. 『한지종정일기』의 형식과 특징
- IV. 『한지종정일기』의 내용 개관
- V. 맺음말



I. 머리말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라는 인물을 처음 만난 것은 박사학위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2019년 겨울이었다. 당시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의 병참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명치이십칠팔년일정전사(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¹를 재검토하던 중에 1894년 6월 선발대로 파병된 임시 혼성제9여단 병참감(兵站監), 이후에는 제5사단 병참감과 제1군 병참 참모장 등 병참의 요직을 역임했던 다케노우치가 눈에 띄었다. 그는 일본군이 인천, 부산, 원산에 상륙하여 한성으로 진군하는 작전과 성환전투와 평양전투의 병참을 총지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더욱이 그는 청일전쟁 시기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6권의 일기를 남겼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기는 가는 연필로 작성되었고 수첩의 크기는 균일했지만 표지의 색상은 달랐다. 그리고 각 권의 표지에는 하얀색 종이로 “한지종정일기 1호”부터 “한지종정일기 6호”까지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일기는 다케노우치의 증손자가 시즈오카(静岡)시에 있는 본가를 정리할 때 그의 서함과 함께 발견되었다. 유가족은 ‘다케노우치 세이사쿠 고문서연구회’에 탈초 작업을 의뢰했고 2017년 『한지종정일기』라는 단행본으로 소량 인쇄하여 비매품으로 주위에 배포했다.² 다행히 필자는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 활자화된 이 일기를 발견했다.

『한지종정일기』는 다케노우치가 히로시마의 우지나(宇品)항을 출항했던 1894년 6월 11일부터 평양전투 종료 후 제5사단 사령부와의 의견대립으로 귀

1 參謀本部 編纂, 1904~1907, 『明治二十七八年日清戰史』第1卷~第8卷, 東京印刷.

2 竹内正策, 2017, 『韓地從征日記』(非売品), 竹内正策古文書研究会 編集・発行.

「韓地從征日記」 原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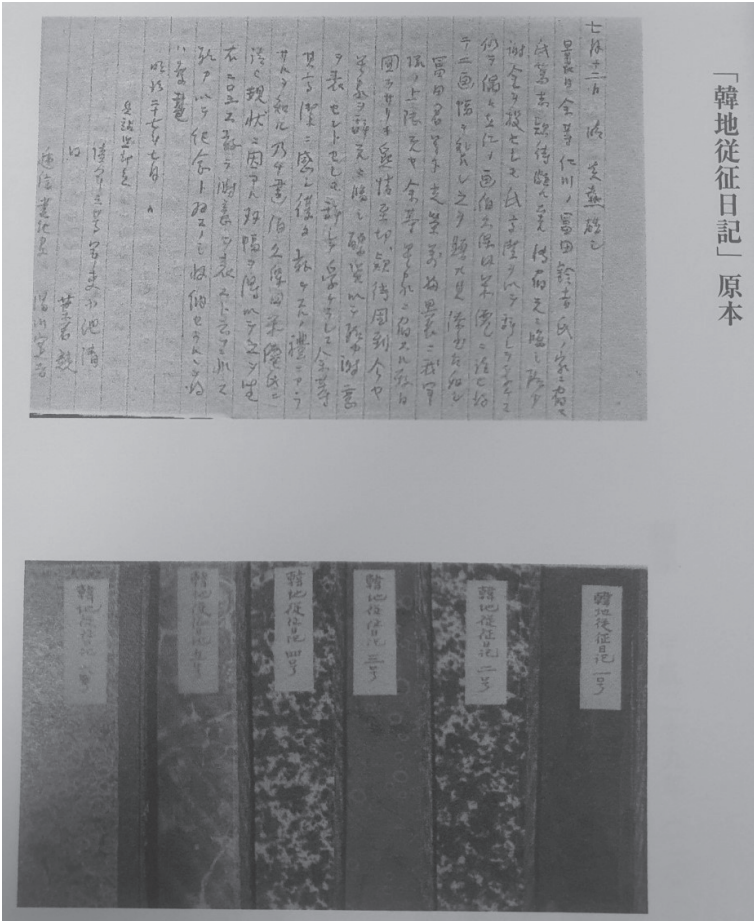


그림 1 『한지종정일기』에 수록된 원본 사진

비고: 제1호는 1894년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18일간), 제2호는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23일간), 제3호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10일간), 제4호는 7월 31일부터 8월 17일(18일간), 제5호는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15일간), 제6호는 9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30일간)에 해당한다.

국했던 11월 3일까지 146일 동안의 기록이다. 이 인쇄본은 일기의 원문과 다케노우치의 약력, 그의 후손이 작성한 후기, 일기의 원본 사진, 그리고 한반도 지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 |

451

도 한 장을 포함하여 전체 40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료는 병참 업무를 담당한 지휘관이 남긴 개인의 ‘중군일기(從軍日記)’³였기 때문에 참모본부가 편찬한 공간 전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사료는 전투 지휘관이 아닌 병참 관계자가 작성했다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작성자가 병참 지휘관으로서 야전군 지휘관, 조선 주재 공사 그리고 본국의 대본영 등 전쟁 지휘부와 끊임없이 명령과 정보를 교환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일기는, 일본 정부와 군 지도부의 내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병참 업무를 통괄하는 다케노우치는 ‘현지조달’ 원칙에 따라 식량뿐만 아니라 군수품을 운반하는 인부와 우마도 현지에서 직접 조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군이 조선 민중에게 입힌 피해의 실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셋째, 같은 일기라도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일기나 오야마 이와오(大山巖)의 일기는 간결하고 다소 건조한 반면에, 다케노우치의 일기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비교적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어 현장감과 생동감을 잘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국내외 학계에서 다케노우치라는 인물과 그의 행적에 관한 연구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 130주년을 기하여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군 병참 지휘관 다케노우치 세이사쿠가 남긴 『한지중정일기』라는 사료를 소개하고 청일전쟁 연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벌어진 초기 전투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한 현황을 고려할 때 이 일기의 사료적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이 글에서 먼저 다케노우치 세이사쿠의 경력을 추적하고 일기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사료적 가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延廣壽一, 2012, 「從軍日記とは」, 横山篤夫, 西川寿勝 編著, 『兵士たちがみた 日露戦争: 從軍日記の新資料が語る坂の上の雲』, 雄山閣, 28~40쪽.

II. 다케노우치 세이사쿠의 생애와 경력

다케노우치는 1851년 고치(高知)현에서 태어나 1874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⁴ 이후 그는 1875년 보병 소위, 1878년 중위, 1882년 대위로 순조롭게 진급한 후에 1885년 참모본부 제1국 과장에 임명되었다. 이때 참모본부는 기존의 관동국(管東局)과 관서국(管西局)을 폐지하는 대신에 제1국과 제2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대외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었다. 참모본부의 제1국은 출병계획을 담당하는 제1과, 부대의 편제 및 배치를 담당하는 제2과 그리고 군대 교육을 담당하는 제3과로 재편되었다.⁵ 다케노우치는 1886년 근위보병 제2연대 소속으로 옮기면서 이듬해 보병 소좌로 승진했다. 1889년 참모본부의 제1국의 요원으로 복귀했고 1891년에는 임시로 편찬과장의 업무도 겸임했다. 참고로 다케노우치가 참모본부에 재임할 당시 참모총장은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有栖川宮 熾仁親王)이었다.

1892년 다케노우치는 중좌로 진급하면서 11월 22일 육군성의 핵심 부처인 군무국의 제2군사과장을 맡게 되었다.⁶ 이때 육군대신은 오야마 이와오 대장, 군무국 국장은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소장이었다. 제2군사과의 주관사무는 ① 징병령, 의무병, 보충, 징집, 재역(再役), 소집, 복습, 점호(點呼), 면제, 귀휴(歸休), 해병(解兵), 예비역 및 후비역 군인에 관한 사항, ② 헌병, 보병, 둔전

4 다케노우치 세이사쿠의 생애와 경력에 관해 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조. 國民軍事教育會 編, 1916, 『現代陸軍名將列伝』, 國民軍事教育會, 130~131쪽; 大日本人名辭書刊行會 編, 1926, 『大日本人名辭書』(下卷), 大日本人名辭書刊行會 出版, 1541쪽; 外山操 編, 1981, 『陸海軍將官人事總覽·陸軍篇』, 芙蓉書房出版, 34쪽; 福川秀樹, 2001, 『日本陸軍將官辭典』, 芙蓉書房出版, 292~293쪽; 다케노우치의 약력, 竹内正策, 2017, 앞의 책.

5 大江志乃夫, 2018, 『日本の參謀本部』, 吉川弘文館, 58~59쪽.

6 秦郁彦 編, 2005, 『日本陸海軍總合事典』(第2版), 東京大学出版會, ‘육군성’ 항목 306~311쪽. 1894년 9월 1일까지 재임했다.

병(屯田兵), 경비대, 군악대의 인원과 경리, 하사관 이하의 보충 등이었다.⁷ 이처럼 청일전쟁 이전 다케노우치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보다 나이가 한 살 많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육군의 군령 기관인 참모본부와 군정 기관인 육군성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친 엘리트 장교였다.

청일전쟁 시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던 45세의 보병 중좌 다케노우치는 전투 병과의 지휘관이 아닌 혼성제9여단의 병참감으로서 한반도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그는 제5사단 병참감과 제1군 병참 참모장을 역임한 후 전쟁 중에 귀국했다. 1895년 1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군무국 제2군사과장에 있다가 제1군 사과장으로 옮겨 10월 말까지 재임했다.⁸ 이후 다케노우치가 동궁(東宮) 무관과 황태자의 무과(武科) 어용 교육을 거친 후 1898년 보병 34연대장, 1900년 소장 진급과 동시에 보병 12여단장, 1903년 대만 수비 혼성제1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러일전쟁 시기 다케노우치는 보병 제25여단장으로서 여순(旅順) 전투에 참전했고, 그 후 후비 보병 제4여단장으로서 사할린 점령 사령관에 임명되어 사할린 점령 작전에 참전했다. 그는 1907년 2월 28일에 육군 중장으로 진급된 동시에 예비역으로 편입되었고, 1915년 여름 56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유미일기(遊米日記)』를 남겼다.⁹ 1922년 5월 3일 72세의 다케노우치는 총으로 자결했는데, 그 이유는 오래된 폐렴에 절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⁰

7 「陸軍省官制」(明治二十三年三月二十七日敕令第五十一号), 陸軍省 編, 『陸軍成規類聚(明治23年刊上巻)』 및 『陸軍成規類聚(明治24年刊附録第1)』; 田辺元二郎·荒川銜次郎, 1909, 『帝國陸軍史』 帝國軍友會發行.

8 秦郁彦 編, 2005, 앞의 책, 306~311쪽.

9 竹内正策, 2014, 『遊米日記』(非売品), 竹内正策古文書研究会 編集·發行.

10 宮武外骨 編, 1931, 『近世自殺者列伝』, 宮武外骨出版, 41쪽.

Ⅲ. 『한지종정일기』의 형식과 특징

『한지종정일기』는 당일의 날씨와 날씨를 먼저 기재한 후에 사건을 기록하는 일기의 일반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간혹 날씨가 생략된 날도 있었다. 대개 날씨를 ‘음’과 ‘청’으로 간략하게 표기했지만, 8월 1일 ‘더위. 매우 심함’이나 8월 2일 ‘폭염. 매우 강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날도 있었다. 청일전쟁이 발생한 1894년 여름이 유난히 더웠다는 사실은 다케노우치의 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케노우치는 1894년 6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의 매일 일기를 작성했고, 그가 기록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병참 업무에 관한 기록이다. 이것은 병참감의 주요 소관이고 병참 업무 자체도 번잡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기사가 일기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육군 운송선의 도착 및 귀항 시간, 군인과 군수품의 양륙, 한강을 왕래하는 소형 증기선의 관리, 육지 운반에 필요한 인부와 우마의 모집, 병참계획의 수립, 병참선의 설치, 전장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전염병에 대한 조치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청일전쟁 시기 한반도에서 전투의 상황과 병참체제의 운영 실태를 엿볼 수 있다.

둘째, 청국 군대의 움직임과 조선 조정의 동정 그리고 동학농민군에 관한 정보들이다. 다케노우치는 주로 병참감부(兵站監部)가 설치된 인천과 용산에 머물면서 본국의 대본영, 청나라 및 조선의 일본 공사관, 인천과 용산의 일본인 거류민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입수 방식은 주로 전보였고 나머지 직접 들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다케노우치가 받은 장문의 전보들을 그대로 일기에 옮겨놓았다는 것인데, 심지어 같은 날 받은 여러 통의 전보를 모두 일기에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경황이 없는 전시 상황에서 장문의 전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그의 일기가 기록된 시점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던 일본 귀국 후 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 |

455



셋째, 임무 수행 중 만났던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케노우치가 주로 접촉한 인물은 혼성제9여단장 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 제5사단장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제1군 병참감 시오야 가타쿠니(塙屋方国), 병참총감 가와가미 소로쿠(川上操六), 그리고 그 밑에 두 명의 병참사령관 포병 소좌 가토 야스히사(加藤泰久)와 오시아게 모리조(押上森藏) 등이었다. 그리고 인천과 부산 주재 일본 영사와 한성 공사관의 무관 등도 자주 언급되었다.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에서 다케노우치의 개인적인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급된 상대방의 성격과 특성 또한 엿볼 수 있다.

『한지중정일기』는 1894년 6월 최초로 한반도에 파견된 혼성여단의 병참 지휘관이 작성한 기록으로서 청일전쟁 시기 한반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공간 전사, 각 부대의 공적 기록인 ‘진중일지(陣中日誌)’ 그리고 이 시기 다른 개인의 일기와 관계문서 등 관련 사료들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사료에서 인명과 지명을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어서 사료로 활용할 때 주의를 요한다. 인명과 지명의 오기는 탈초 작업을 할 때 이미 일기장이 심하게 풍화되어 있었고 연필로 써서 지워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이 사료의 작성 경위와 공개 과정이다. 일본 병사의 종군일기는 전쟁이 끝나면 작성자가 신속하게 정리하여 출판하거나 아니면 작성자가 세상을 떠나고 유가족이 보관하다가 공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보인다. 청일전쟁 시기의 종군일기 중에도 전시의 메모를 바탕으로 전후 재정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의 정보가 추가로 삽입된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심지어 다른 전우의 메모까지 끌어와 혼재된 상태로 출판한 것도 있다.¹¹

『한지중정일기』의 경우 작성자 본인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후 백여

11 新井勝紘, 2000, 「從軍日記に見る兵士像と戦争の記憶」, 藤井忠俊·新井勝紘編著, 『(人類にとって戦いととは, 第3巻)戦いと民衆』, 東洋書林, 123~146쪽.

년이 지난 후에 유가족에 의해 공개되었다. 하지만 『한지중정일기』는 다케노우치가 전시에 작성한 기록을 전후에 정서(淨書)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제시한 원본 사진처럼 6권이 똑같은 수첩을 사용했는데 전시에 이러한 필기도구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데라우치나 오야마의 일기가 서로 다른 여러 권의 수첩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일기에 굳이 장문의 전보를 정성스럽게 베껴 쓴 점도 전후에 정서했을 사실에 무게감을 더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한지중정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일기는 당시 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청일전쟁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IV. 『한지중정일기』의 내용 개관

1894년 6월 2일, 제2차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제국의회의 해산과 조선 출병을 결정하고 한반도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히로시마의 제5사단 제9여단을 중심으로 임시 혼성제9여단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단 규모에 가까운 혼성제9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병참부가 편성되었고 지휘관인 병참감 자리에 당시 43세의 보병 중좌 다케노우치가 임명되었다.¹² 6월 7일, 다케노우치는 도쿄의 신바시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음 날 저녁 히로시마에 도착했다.¹³ 10일 저녁 다케노우치는 병참감부와 2개의 병참사령부 중 하나를 인솔하여 효고호(兵庫丸)에 승선한 후 우

12 1894년 6월 5일 제1호 「混成旅団戰鬪序列」[「第21号~第30号」JACAR Ref. C13110351300、臨時事變に關する書類綴(乙)明治27年6月(防衛省防衛研究所)]; 「第1号~第10号」JACAR Ref. C13110351100, 臨時事變に關する書類綴(乙)明治27年6月(防衛省防衛研究所).

13 1894년 6월 8~9일 기사, 広島県庁 編, 1899, 『広島臨戰地日誌』, 日新舎.

지나향을 출항했다.¹⁴ 대본영은 운송선의 부족으로 혼성여단을 두 차례로 나누어 수송했는데, 다케노우치 일행은 혼성여단 사령부와 핵심 전투병력과 함께 제1차에 배정되었다. 『한지중정일기』는 다케노우치가 출항한 다음 날인 6월 11일부터 시작된다.

다케노우치는 『한지중정일기』를 작성한 시기에 몇 차례의 보직 변경을 거쳤는데, 6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73일 동안은 혼성제9여단 병참감,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 동안은 제5사단 병참감,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1일 동안은 제1군 병참감 밑의 병참 참모장을 역임했다. 그 후 10월 4일부터 일기의 마지막 날인 11월 3일까지의 31일간은 다케노우치가 제5사단 사령부와 의견대립으로 병참 참모장을 사임하고 귀국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다케노우치는 혼성제9여단 병참감을 재임한 시기가 가장 길었다. 이 시기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과 성환전투 등 주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사 분량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지중정일기』를 시기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1. 혼성제9여단 병참감 재임 기간(1894.6.11.~8.22.)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운송선은 안개와 비바람으로 인해 수차례 정박을 반복하며 인천을 향했다. 다케노우치 병참감은 16일 아침부터 이틀에 걸쳐 운송선의 인천 양륙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병참감부를 인천에 설치하고 병참사령부를 용산에 설치하여 “인천, 용산 간의 병참선을 편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17일 일기). 그리고 “인천, 용산 간에 증기선 경리호(慶利丸)로 정기운항”을 개시했다(22일 일기).

6월 23일부터 대략 2주일 동안 다케노우치의 병참부는 인천에서 용산으로

14 齋藤聖二, 2003, 『日清戰爭の軍事戰略』, 芙蓉書房出版, 116~117쪽; 仁川府編, 1933, 『仁川府史』, 京城, 404쪽.

진군한 혼성제9여단을 위해 군수품 운송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다케노우치는 군용 텐트, 식량, 탄약의 절반은 한강의 수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탄약은 현지에서 160명의 조선인 인부를 모집하여 운반하는 계획을 세웠는데(23, 24일 일기), 이 과정에서 어렵게 모집한 인부들이 도주하는 사건이 속출했다. 한강을 이용한 수운도 소형 증기선의 고장과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장을 지휘하던 다케노우치 병참감은 일본에서 인부를 조달하는 문제를 놓고 대본영의 병참총감부와 격한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26일 일기).

성환전투가 벌어진 7월에는 일기의 기사가 폭증했다. 우선 심각한 인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 온 무로타 요시아야(室田義文) 총영사와 인천의 일본상업회회의소 소장 니시와키 조타로(西脇長太郎)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3, 5일 일기). 한편, 전염병 이질(적리, 赤痢) 환자가 계속 나와 격리 조치를 하고 예방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7, 8, 10, 15일 일기). 20일 다케노우치가 오시마 혼성여단장의 명령을 받고 병참감부를 인천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22일 경북공 점령에 앞서서 다케노우치는 오후 9시 50분 여단장으로부터 “여단은 내일 오전 4시 왕성(王城)을 포위할 예정”이라는 전보를 받았다.

경북공 점령 당일인 23일 “때때로 폭우와 번개가 쳤다”고 날씨를 기록하면서 다케노우치는 오전 6시 병참수비대장으로부터 “북쪽에서 소총 소리가 들렸다”는 보고에 이어서, 오시마 여단장으로부터도 “경성 내에서 소규모 전투를 시작했다”는 전보를 받았다. 다케노우치는 “즉시 (병참)감부의 주요 요원을 모아 대체 상황을 알리고 또 병참지 내외의 경계에 주의할 것”을 지시하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오전 7시 50분 정찰 장교를 보냈다. 그리고 “오후 10시 반 경성에 있는 구라쓰지(倉辻) 공병 대위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가 왔다.

오늘 아침 왕성 부근에서 한병(韓兵)의 사격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응전했다. 소리를 질러서(吶喊) 왕성에 진입했다. 한병이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다(四散). 대포 15문, 소총 500여 정을 포획했다(分捕). 시간 불과 40분 정도에 끝났다. 지금은 무사하다.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 |

459



24일부터 월말까지의 주요 내용은 병참부가 혼성여단의 남하와 성환전투를 위한 병참 지원이었다. 24일 다케노우치가 식량과 인마 모집을 위해 직접 입국하여 안경수와 김가진을 통해서 조선 정부가 일본군에게 편의를 제공하라는 공문을 발급해줄 것과 조선 관원을 보내 일본군과 함께 진군하면서 연도에서 협조하도록 지시해줄 것 등 두 가지를 강요했다(27~29, 30일 일기에는 동원된 조선 장교와 포도청 관리의 명단이 언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혼성여단은 용산을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짐말의 부족으로 인해 예정 시간을 지킬 수 없었고, 이후 아산을 향해 진군하는 과정에서도 짐말과 인부의 도주가 빈발하여 작전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인부와 우마의 현지조달은 병참의 운영을 좌우하는 관건이었다. 29일 다케노우치는 풍도해전과 성환전투의 승전보를 듣고 회군하는 혼성여단의 환영식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동안 “매우 바빴다”. 8월 5일 일기에서 ‘성대함’ 환영식의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다.

8월 6일 이후 다케노우치는 평양을 향한 혼성여단의 북진을 위해 병참선을 설치했다. 여기서 다케노우치는 식량과 짐말의 모집뿐만 아니라 “경성부터 임진진(臨津鎭)에 이르는 도로를 폭 2미터”로 수선해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조선 정부는 관리 3명과 인부 150명을 파견했다(8~9, 10일 일기). 한편, 다케노우치는 부산과 원산에 상륙하여 육로로 한성으로 진군하는 제5사단의 일부를 위한 병참 지원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다케노우치는 제5사단 사령부가 부산에서 육로로 상경하는 사안을 사전에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13일 일기).

이 시기 제5사단의 병참감 후루카와 노부요시(古川宣譽)가 이미 부산에 병참감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2개의 병참감부가 병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9일 제5사단 사령부가 한성에 도착했고 다케노우치는 제5사단의 우에다(上田) 참모장으로부터 본인과 휘하의 혼성여단 병참부가 제5사단의 전투서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안한 다케노우치는 두 번에 걸쳐 가와가미 병참총감에게 문의 전보를 보냈다(19, 21일 일기). 이러한 혼선은 결국 다케노우치가 제5사단 병참감에 임명됨으로써 정리되었다(23일 기사). 대본영은 한

강을 기준으로 병참선을 나누어 부산부터 송파까지의 병참선을 ‘중로병참선’으로 칭하고 후루카와를 병참감에 임명함으로써 한반도의 2개의 병참감을 두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했다.

2. 제5사단 병참감 재임 시기(1894.8.23.~9.12.)

8월 하순의 일기는 다케노우치가 제5사단 병참감으로서 평양을 향해 진군하는 제5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병참계획을 수립하고 병참선을 설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23일 다케노우치는 남천점(南川店)과 신계현(新溪縣) 간의 병참선 계획안을 작성하고 휘하의 두 병참사령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어서 그는 25일에 제5사단이 남천점에서 복상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해주에서부터 대동강에 이르는 새로운 병참계획”을 제5사단의 우에다 참모장에게 제출했고 다음 날 동의하는 통지도 받았다. 28일 다케노우치는 노즈 제5사단장으로부터 9월 1일 사단의 선두 부대가 “황주, 삼등(三登)의 선까지 진진”하는 작전계획을 통보 받았고, 동시에 “대본영으로부터 병참부원의 추가 지원과 관계없이 지금부터 양말(糧秣)의 운송에 최선을 다하여” 병참으로 인해 군대의 행진이 지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29일 다케노우치 병참감은 새로운 병참계획안을 기안했고 30일부터 신속하게 실행에 들어갔지만, 이 계획안의 약점이 “인마의 지방 징발(徵發)”에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30일 일기).

다케노우치는 이 계획안을 작성했을 때부터 “아산 진군 때의 경험에 비추어도저히 인마의 징발이 소요의 십 분의 일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먼저 “사단 참모장 우에다 대좌”와 “사단 감독부장 요시다(吉田) 감독”에게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다케노우치는 다시 노즈 사단장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단호하게 “단행하라”는 엄명만 받고 더 이상 “상세한 의논은 꺼내지도 못했다”(31일 기사). 한편, 다케노우치 병참감 휘하의 오시아게 병참사령관은 입원 중이었고 대본영이 보내준 병참사령관 7명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케노우치는 심각한 병참 인력의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31일 기사). 이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 |

461



러한 다케노우치와 제5사단 사령부와의 의견대립은 야전군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9월 1일 다케노우치는 “해주 특별병참선로에 소요 인원과 수비병”을 인천으로 보내는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가와가미 병참총감에게 “양말 운송에 필요한 인마”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충분히 모집할 수 없다는 전보를 보냈다. 이 때문에 초래될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단은 전진을 멈추어야 하고 심지어 “15, 16일경 예정대로 평양을 공격하더라도” 북쪽으로 적을 추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동강을 이용하여 식량을 평양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호위 군함의 파견까지 요청했다. 2일 다케노우치는 제5사단장으로부터 가토 병참사령관을 평산으로 파견하라는 월권에 가까운 ‘이상한 전보’를 받아 이 명령안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을 데라우치 참모본부 제1국장에게 타진했다. 다시 4일에는 노즈 사단장으로부터 다케노우치 본인이나 휘하의 이마자와(今澤) 감독이 ‘신속하게’ 평산으로 오라는 재촉 전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다케노우치는 군리(軍吏) 한 명을 평산으로 보내는 동시에 가와가미 병참총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 가와가미 병참총감으로부터 제1군의 병참감이 도착한 후에 협의하고 “그때까지는 주의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제로 다케노우치가 예상한 대로 인부와 우마의 부족을 호소하는 전보가 계속 올라왔고 심지어 식량 운반을 위해 부상자를 수송하는 인력까지 투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5, 8, 9, 13일 일기). 다급해진 다케노우치는 대동강 수로를 이용하자고 제5사단 사령부, 대본영 그리고 제1군 병참감에게 재차 요청했으나 군함의 대동강 파견은 허락되지 않았다(10일 일기). 9일 제1군 병참감 시오야 소장이 인천에 도착했고 11일 아침 소형 증기선을 타고 용산에 와서 와병 중인 다케노우치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다케노우치가 대동강의 건에 관해 시오야 병참감을 설득하여 제1군 병참감의 이름으로 다시 식량 호위 군함을 요청했다. 12일 오후 4시경 인천에 상륙하여 대불(大佛) 호텔에 머물던 제1군 사령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대장이 다케노우치에게 현재 상황을 물었다. 다케노우치는 “상세하게 현재 제5사단이 복진하면서 식량 수송에 큰 어

러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5사단의 절반이 인천에 상륙할 때 생길 문제점을 진술했다. 하지만 다케노우치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대들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천에 상륙했다.

3. 제1군 병참 참모장 재임 시기(1894.9.13.~10.3.)

9월 13일 다케노우치는 먼저 대불 호텔에서 아마가타 사령관으로부터 제1군 병참 참모장으로 구두 임명을 받았고, 이어서 시오야 병참감으로부터 제5사단 병참감부의 요원들이 모두 군병참감부의 요원으로 보직 변경되는 명령을 받았다. 업무 정리를 위해 다케노우치는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서 제1군 병참감부가 인천에 설치되고 기존의 제5사단 병참부가 폐지된 사실을 한성의 오토리 공사와 우치다 영사에게 통지했다(14일 일기). 평양전투가 벌어진 15일 당일 다케노우치 병참 참모장은 아침 8시부터 한성의 군사령부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했고 여기서 결정된 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 제3사단의 절반은 먼저 평산까지 전진할 것. 단 평산 이북은 의주가도(義州街道)를 따라, 가능한 시기에 제3사단의 나머지 절반과 합친다.
2. 마초(馬糧) 부족에 대해서는 되도록 병참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쌀이 부족할 경우 보리로 대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 신계-삼동의 노선에는 이후 가능한 시기에 병참지를 설치하고 여기에 상당한 식량을 저장한다.

16일 오후 3시 서해함대의 호위를 받은 두 척의 운송선이 인천에서 식량, 탄약, 1개의 병참사령부, 호위병 1소대, 인부 300명을 태우고 대동강으로 출항했다. 결국 다케노우치가 강조한 대동강 해로의 수송은 평양전투가 종료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저녁 7시 45분 다케노우치는 평양의 노즈 사단장으로부터 “어제 사단은 평양을 포위하고 격전을 치른 후에 크게 승리했다. 오늘 아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 |

46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침 미명에 평양을 탈취했다. 적의 사상자와 포로가 매우 많았다”는 승전보를 받았다.

평양전투 이후 다케노우치는 용산의 병참 업무를 정리하고 새로 부임해온 병참사령관에게 인계했다. 용산은 병참감부의 소재지로서 병참 관련 인력과 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다케노우치는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규정을 작성하고 용산 병참사령부의 직원 명단도 첨부했다(17일 일기). 19일 용산에서 출발한 다케노우치 일행은 한강의 수로 대신에 힘든 육로로 인천 병참감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16일 오후에 치러진 해전의 승전보를 들었다. 다케노우치 일행이 굳이 육로를 선택하여 인천으로 이동한 이유는 언제가 부설할지도 모를 경인 간의 경편 철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9월 말 다케노우치는 병참감부의 평양 이전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다케노우치는 우에다 제5사단 참모장의 명령을 받고 오후 1시 반에 운송선을 타고 대동강을 향했다. 그의 임무는 병참감부의 평양 이전 준비 작업과 대동강 입구에서 창고 위치의 선정 등이었다. 26일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운송선의 항해가 지연되었고 27일 오후 3시 반에 대동강 입구의 해군 임시근거지 어은동(漁隱洞)에 도착했다. 28일 해군의 도움으로 병참 창고를 설치할 위치를 정찰한 후에 29일 오전 11시경 평양에 상륙하여 병참사령부가 설치된 대동관(大同館)에 갔다. 30일 다케노우치는 이마자와 감독과 함께 자신의 상관이었던 노즈 제5사단장한테 인사하러 갔지만 의외로 그로부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다케노우치는 8월 하순 이래 노즈 사단장이 내렸던 병참에 관한 무리한 명령과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 일기에 기록해놓았다.

10월 1일 다케노우치는 제5사단장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 야마가타 사령관에게 은밀히 말했다고 들었고, 새로 작성한 병참계획을 갖고 제1군 사령부에 갔을 때 야마가타 대장과 오가와(小川) 참모장의 태도가 평소와 매우 다르다고 느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을 정리한 다케노우치는 이날부터 병을 핑계로 업무 처리를 포기했다. 2일 오후 시오야 병참감이 평양에 도착했다. 3일의 일기에는 노세 인천 영사로부터 황해도에서 군수품 운반에 동원된 인천 지역의 일본인 거류

민 50여 명을 해고해야 하고 추후에 필요할 경우 다시 모집하라는 서한을 받았다(26명 일본인 거류민의 이름과 직업 기재).

4. 병참 참모장 사임과 조기 귀국(1894.10.4.~11.3.)

10월 상순 다케노우치는 제1군 병참 참모장을 사임하는 동시에 가토 병참사령관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고 인천으로 돌아갔다(4~11일 일기). 13일 아침 다케노우치는 새로 부임해온 남부 병참감을 통해 육군대신과 병참총감의 귀국 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히로시마로 출항했다. 히로시마에 도착한 당일 다케노우치는 가와가미 병참총감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변명하는 기회를 가졌고, 다음 날 임시의회에 참석하러 온 고다마 육군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일단 육군성으로 복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21~22일 일기). 히로시마에 머무는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케노우치가 대본영과 천황 어전에서 “한지(韓地)에서 병참의 상황”에 대해 장시간 강연한 사실이다(24, 27일 일기).¹⁵ 31일 오전 6시 40분, 다케노우치는 기차를 타고 도쿄로 향했다. 도중에 다케노우치는 오사카에서 『오사카 아사히 신문(大阪朝日新聞)』의 기자를 만나 신문 기사용으로 “한지의 상황”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고, 가이코샤(偕行社)에서 한반도의 병참 업무에 대해 4시간에 걸친 연설을 하기도 했다(11월 1일 일기). 그는 11월 2일 아침 7시 오사카에서 기차를 탔고 3일 오전 11시 신바시역에 도착했다.

15 1894년 10월 24일자 일기에서 방청자의 이름과 직책을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육군대신 대리(西郷從道)를 “西江陸軍大臣代理”로, 이 시기 참모차장을 역임한 가와가미를 “川上參謀總長”으로 표기한 것이 그것이다.

V. 맺음말

청일전쟁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료는 전후 참모본부가 편찬한 8권짜리의 공간 전사 『명치이십칠팔년일청전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간 전사는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 따라서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지휘관과 병사들이 남긴 서한이나 일기 등 개인의 기록은 보완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학계에서 청일전쟁 시기의 종군일기와 군사우편 등 사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한편 이러한 사적인 기록을 활용하여 ‘전쟁과 민중’이라는 시각에서 청일전쟁을 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한지중정일기』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군 병참 장교 다케노우치 세이사쿠가 남긴 개인 기록이다. 이 일기는 비록 청일전쟁 전 시기를 커버하지 못하지만 혼성제9여단의 파견부터 평양전투까지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청일전쟁 시기 한반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료이다. 그러나 『한지중정일기』를 활용할 때 엄밀한 사료 비판과 다른 사료와의 교차검증이 필수적이다. 이 사료의 소개를 계기로 한국 학계에서 청일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사료

아시아 역사자료센터

「第1号~第10号」JACAR Ref.C13110351100, 臨時事變に関する書類綴(乙)明治27年
6月(防衛省防衛研究所).

「混成旅団戦鬪序列」(「第21号~第30号」JACAR Ref.C13110351300, 臨時事變に関する
書類綴(乙)明治27年6月(防衛省防衛研究所).

広島県庁 編, 1899, 『広島臨戦地日誌』, 日新舎.

國民軍事教育會 編, 1916, 『現代陸軍名將列伝』, 國民軍事教育會.

宮武外骨 編, 1931, 『近世自殺者列伝』, 宮武外骨出版.

大日本人名辭書刊行會編, 1926, 『大日本人名辭書』(下卷), 大日本人名辭書刊行會
出版.

福川秀樹 編, 2001, 『本陸軍將官辭典』, 芙蓉書房出版.

外操 編, 1981, 『陸海軍將官事總覽·陸軍篇』, 芙蓉書房出版.

陸軍省 編, 1890, 『陸軍成規類聚(明治23年刊上卷)』.

_____, 1891, 『陸軍成規類聚(明治24年刊附録第1)』.

仁川府 編, 1933, 『仁川府史』, 京城.

田辺元二郎·荒川銜次郎 著, 1909, 『帝國陸軍史』, 帝國軍友會發行.

竹内正策, 2014, 『遊米日記』(非売品), 竹内正策古文書研究会 編集·發行.

秦郁彦 編, 2005, 『本陸海軍總合事典』(第2版), 東京學出版會.

參謀本部 編纂, 1904~1907, 『明治七年清戰史』第1卷~第8卷, 東京印刷.

단행본

大江志乃夫, 2018, 『日本の參謀本部』, 吉川弘文館.

藤井忠俊·新井勝紘 編著, 2000, 『(人類にとって戦いととは, 第3卷)戦いと民衆』, 東
洋書林.

일본군 병참 지휘관이 기록한 청일전쟁과 조선:

다케노우치 세이사쿠(竹内正策)의 『한지종정일기(韓地從征日記)』 |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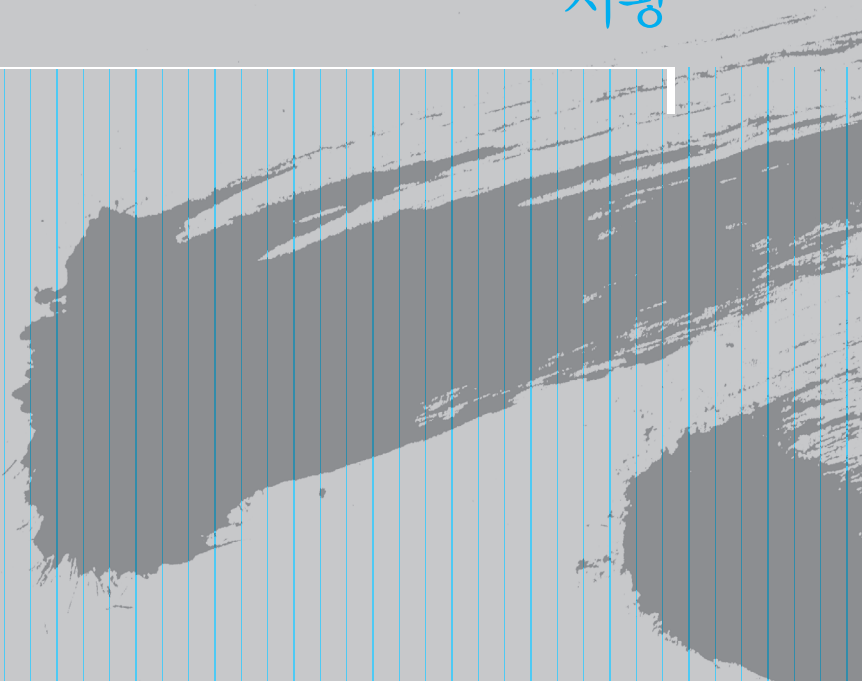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齋藤聖二, 2003, 『日清戦争の軍事戦略』, 芙蓉書房出版.

横山篤夫・西川寿勝 編著, 2012, 『兵士たちがみた日露戦争: 従軍日記の新資料が語る坂の上の雲』, 雄山閣.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근세 시기 질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 『明末清初中國と東アジア近世』(岸本美緒, 岩波書店,
2021)

홍성화 |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I. 머리말
-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 III. 맺음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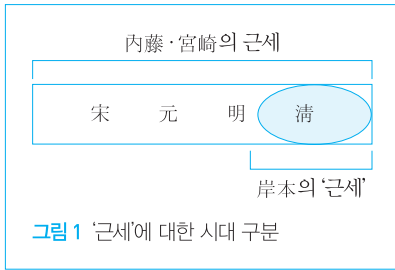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근대(modern)’라든가 ‘중세’라는 말은 자주 쓰이지만, 근세(the early modern)라는 용어는 그보다는 비교적 덜 친숙한 듯하다. 근세는 보통 중세와 근대 사이 시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표 1 참조). 일본의 중국사 학계에서 근세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잘 알려져 있듯이 나 이토 고난(内藤湖南, 1866~1934)과 그의 제자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1901~1995)의 연구를 통해서였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사에서 근세란 송대부터 아편전쟁 이전 시기까지 폭넓은 시기를 가리킨다.¹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대륙 학계에서는 아편전쟁 이전 시기의 중국사 영역을 일괄적으로 고대사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당연히 근세라는 용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저자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는 도쿄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오차노미즈 대학 명예교수로서, 일본 명청사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자 가운데 한 명이다.² 그는 명말청초 물가사부터 시작하여, 명청교체 문제, 국제무역, 토지계약 문제, 신분 질서, 국가체제, 동아시아 국제질서 등까지 활발하게 연구 영역을 확장하

〈표 1〉 기존 일본학계의 중국사 시대구분론

학설	진한 이전 시기	위진남북조-수당	송·원·명·청	아편전쟁 이후
内藤·宮崎의 설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역사학연구회 설	고대		중세	근대

- 1 미야자키 이치사다 저, 조병한 역, 2016, 『중국통사』, 서커스 참조. 内藤, 宮崎, 岸本 등의 근세론에 대한 중국학계의 이해에 대해서는 李華瑞 2018, 「唐宋史研究應當翻過這一頁-從多角試看‘宋代近世說’(唐宋變革論)」, 『古代文明』 12-1, 참조.
- 2 저자의 저서 가운데 한글로 번역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기시모토 미오·미야자마 히로시 공저, 김현영 외 역, 2014, 『현재를 보는 역사, 조선과 명청』, 너머북스(구 판,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역사비평사, 2003), ② 기시모토 미오 저,



었고, 「근세」라는 관점을 새롭게 제창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明末淸初中國と東アジア近世』(岩波書店, 2021)(이하, 『명말청초 중국과 동아시아 근세』 혹은 본서)에서 「근세」라는 새로운 관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리 밝혀두자

면, 기시모토 미오가 제시하는 근세는 나이토 코난과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근세와는 달리, 명대 중기인 16세기 중반부터 아편전쟁 이전 시기까지만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따라서 그는 이 시기를 자신만의 용법으로 「근세」(혹은 ‘근세’)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괄호를 씌운 ‘근세’ 혹은 「근세」라는 단어는 기시모토 미오(이하 저자로 약칭)의 고유한 용법이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을 ‘근세화(近世化)’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관한 저자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중국사를 거시적으로 조감해보면, 전국시대에 형성되어 진대(秦代) 이후 정착한 중국의 ‘제정(帝政)’이라는 틀 안에서, 청대의 체제는 민간경제의 자유도와 유동성이 가장 높아졌고, 황제로 일원적인 권력집중이 가장 추후된 시기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봉건’과 대비된 ‘군현’적 요소가 극한까지 확대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명말부터 청초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는 혈연적·지연적 집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형성되었지만, 이는 개인 간의 퍼스널한 결합에 그쳤고, 사회편

노영구 역, 2018, 『동아시아의 「근세」』, 와이즈플랜, ③ 기시모토 미오·하마구치 노부코 외 저, 정혜중 역, 2015, 『동아시아사 속의 중국사』, 해안 ④ 키시모토 미오 저, 권용철 역, 2022, 『중국의 역사』 온샘, 저자의 논문 가운데 한글로 번역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키시모토 미오 저, 정지호 역, 1999, 「모탈 에코노미론과 중국사회 연구」, 『중국사연구』 6, ② 기시모토 미오 저, 김현영 역, 2006, 「근세 동아시아의 신분과 토지소유」, 한국고문서학회, 『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신분·촌락·토지소유관계』, ③ 기시모토 미오 저, 홍성화 역, 2014, 「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 『역사와 세계』 45, ④ 기시모토 미오 저, 정민정 역, 2021, 「아내를 팔아도 되는가? 명청시대 매처·전처 관행」, 『역사와 세계』 59.

성의 기초가 되는 단체, 예를 들면 프랑스 절대왕정기의 '사단(社團)'이나 도쿠가와 시대 일본의 '이에(家)' 등과 같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명말부터 청대를 '근세'라고 부르는 것은 신분집단적 편성에 의해 특징지어진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나 일본의 도쿠가와 사회와 명청 시기 중국 사회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체제들의 사회를 '근세'라고 부르는 것은 (윌러스턴의 -인용자) 세계체제론의 사례처럼, 서로 다른 체제가 하나의 분업 시스템 속에서 확실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여러 체제가 이른바 같은 세계사적인 충격을 공통적인 배경으로 하여 생겨났던 체제라는 점, 그리고 이들 충격이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서로 그 대답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 이러한 인식에서 나는 '근세'라는 말을 명말부터 청대까지 사용하고자 한다.³ (강조는 인용자)

위의 글 '근세'에 관한 저자의 견해를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근세(近世)'란 시기적으로 명중기부터 청대까지(16~18세기)를 지칭하며,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황제 지배하에서 군현제가 시행되었으며, 한편 경제·사회적으로는 인적·물적 이동이 보장되고 신분이동이 자유로워지는 사회적 유동성이 높은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말부터 청대까지 중국 사회의 변화는 단순히 중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 세계사에 공통된 변화의 일부로서 파악하려고 하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라

3 岸本美緒, 1998, 「時代區分論」『岩波講座 世界歴史』卷1, 岩波書店, 34~35쪽. 한편, 저자는 송대와 청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근세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청조 시스템은 방임적인 시장경제나 일원적인 통치체제라는 점에서는 송대와 유사점을 가지며, 그 연장선에서 파악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민족적·종교적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는 '다민족 국가' 청조의 성격은 오히려 송대와는 대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청조체제는 송대 이래의 단순한 연장이라기보다는 (동시대-인용자) 일본 막번체제나 유럽의 이른바 '절대왕정'과 같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서 선택된 체제"였다고 한다. 岸本美緒, 2015, 「「近世化」論における中國の位置づけ」, 清水光名 編, 『「近世化」論と日本』, 勉誠出版, 60쪽.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새로운 시도는 일본 학계에 호응을 불러 일으켜서 ‘근세’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 잡지 가운데 하나인 『역사학연구(歴史學研究)』에서는 「근세화(近世化)」 특집호가 마련되어서, 중국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일본 에도시대, 이집트 등 각 국가에 대해서 ‘근세’의 의미를 조선시대 연구자인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가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⁴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논의를 대폭 대중화하여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저작이 바로 요나하 준의 『중국화하는 일본』⁵이 아닐까 한다.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이하에서는 본 서평의 대상인 『명말청초 중국과 동아시아 근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책의 다양하고 복잡한 논의를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하여 도표 등을 활용하였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자의 이

4 『歴史學研究』 821호(2006년 11월호), 822호(2006년 12월호). 이 가운데 미야지마 히로시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미야지마 히로시, 2013, 「평화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일본 ‘근세화’: 탈아적 역사이해 비판」,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비.

5 요나하 준 저, 최종길 역, 2013, 『중국화하는 일본』, 페이퍼로드. 요나하 준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중국 사회는 유동적 사회이며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전제정권이 지배하나 경제 사회적으로는 광범위한 자유와 인적·물적 이동이 보장되고 사회적 유동성이 높으며 신분제는 약하고 계층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체제라고 한다. 반면 에도시대의 일본은 고정적인 사회며, 농촌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강한 결속, 신분에 의한 고정성, 개인은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속박을 받는 대신 생계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제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각각 ‘중국화’와 ‘에도시대화’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메이지 유신은 ‘중국화’의 시도였으나 실패했고, 다시 쇼와 시기에 ‘에도시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다시 ‘중국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에 기초한 것이며, 편의를 위한 것으로 저자의 본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이 책의 장절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부 동아시아 속의 중국 ‘근세’

제1장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

제2장 황제와 관료·신사-명에서 청으로

제3장 중국사에서 「근세」의 관념

부론(付論): 「근세화」와 「동아시아화」

제2부 전통사회의 형성-국가·시장·사회관

제4장 「중국」과 「외이(外夷)」-명대부터 청중기까지 국가호칭의 문제

제5장 덕치(德治)의 구조-관용의 비교사를 단서로

제6장 청초 상해 지방인사의 국가관-『역년기』를 중심으로

제7장 명말청초의 시장구조-모델과 실태

제8장 쌀, 비단 그리고 환락가-17~18세기의 소주(蘇州)

제1장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형성」⁶이라는 장문의 논문에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근세화’를 포괄적으로 논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1985년 조셉 플레처의 논문을 인용하여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전 세계 각 지역에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① 인구의 증가, ② 역사적 템포의 가속화,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의 ‘지방’도시의 성장, ④ 도시 상업계층의 발흥, ⑤ 종교의 부흥과 선교 활동, ⑥ 농촌의 소요, ⑦ 유목민의 몰락이라는 움직임이다. 저자는 이러한 ‘통합(integration)’을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가 신대륙의 은(銀)을 기반한 전 세계적인 교역 있다고 하였다(그림 2 참조).

6 이 부분은 평자의 줄역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기시모토 미오(岸本美緒) 저, 홍성화 역, 2014, 앞의 글 참조.

이처럼 저자의 ‘근세’론이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근세’의 특징이 중국 명청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동아시아 국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16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조선 후기 시기를 ‘근세’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는 “근현대 한국사회의 기반이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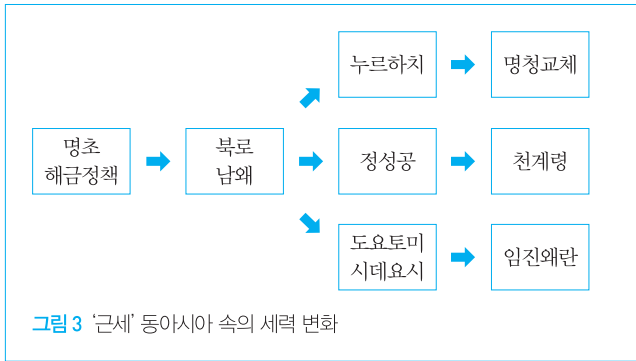
그림 2 명말 중국의 은 유입 경로

있는 사회구조·의식구조 등이 이른바 조선시대 후기, 특히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에 걸쳐 성립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근세’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화이관념에 근거한 국제질서인 조공시스템이었고, 교역도 조공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명조 민간 상인의 해상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해금정책을 취하였다. 조공무역의 경우, 명조와 동남아시아 사이에는 활발했지만, 명조와 북방 유목민족 사이에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고 부진하였다고 한다.

명조와 북방 민족 사이의 갈등으로 만리장성 주변에 대량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방으로 은납(銀納)이 시행되어, 국가 재정 역시 은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북방으로 세은(稅銀)이 흡수됨에 따라 남방 지역에서는 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중국산 생사와의 교역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여기에 포르투갈이 참여하여 점차 명의 해금정책은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명조의 해금정책에 도전하는 북로남왜(北虜南倭)가 출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명조 역시 부분적으로 해금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적 해금 완화를 통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새로운 상업세력이 출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누르하치 등의 만주 세력, 센고



쿠(戰國)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중국의 해양세력인 정성공(鄭成功) 세력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반면, 한반도에서는 교역 붐에 편승하여 왕조 지배를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상업=군사적 신흥세력의 발흥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교역에서 중요 상품인 생사와 은, 후추 등 특산품이 없었던 것도 있어서 국제 교역 붐에 대한 참여는 일본과 중국에 비하면 수동적이면서 간접적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상업세력자 군사세력인 누르하치, 정성공,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사집단이며, 상업적인 마인드로 뭉친 현실적인 판단력을 갖추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민족성을 포용한 유연한 집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모피 등의 교역을 통하여 성장한 만주족이 1644년 명청교체를 통하여 중국의 지배자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타이완의 항청(抗淸) 세력인 정씨(鄭氏) 세력과 대결하였는데, 정씨 세력 대 청조의 싸움은 '명나라' 대 '청나라'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명조의 지배를 잠식하며 성장해온 이들 상업세력들 사이에 벌어졌던 최종적 단계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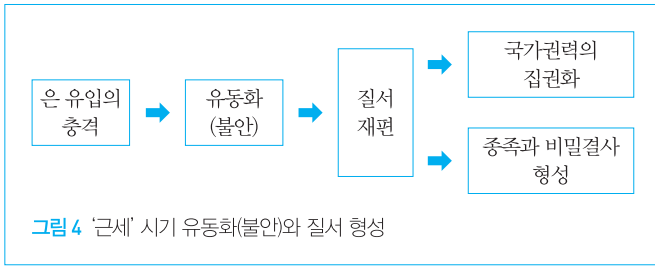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한 청조는 무역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였던

명초(明初)와 비교하면 청조는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의 무역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명초 해금정책과 비교하면 이는 극도로 ‘자유로운’ 체제였다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다. 반면, 동시대 일본의 에도 막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해외무역을 독점하였다. 17세기 전반까지의 대(大) 무역시대에 비하면 17세기 후반 이후의 일본은 해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16세기 중반의 은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교역은 새로운 상업 세력을 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상업세력이 명청교체와 임진왜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전 지배 세력들 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고,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들 새로운 지배세력이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화이변태(華夷變態)]도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이념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특히 두드러진 것이 화이관의 ‘다원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례로 조선의 경우, 명말부터 ‘중화의 문명성’을 한족 자체로부터 분리하여 추상적인 중화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중국을 비판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이고 혈통적인 중화 관념(‘실체 개념으로서의 화이관’)이 아니라 추상적인 ‘예의’를 기준으로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움직임(‘기능 개념으로서의 화이관’)은 같은 시기 청에서도 나타났다. 18세기 초 옹정제의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중화(=한족)를 대신하여 예의의 기준을 극한으로 추상화한 특징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화이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① 종족적 차이를 중시하는 ‘실체 개념으로서의 화이관’, ② 문명화의 정도에 따라 중화와 이민족을 구분하는 ‘기능으로서의 화이관’이 있다고 하였다. 저자는 기능론적 화이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① 옹정제의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 ② 조선의 소중화외식, ③ 에도시대 일본의 신국사상을 들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 중심주의는 오히려 옛날부터 외국에 굴복한 적이 없는 ‘신국(神國)’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 청조나 조선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근세’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① 16~17세기의 팽창·유동화의 움직임을 보인 시기, ② 18세기에는 정지하고 일종의 단단한 구성을 가지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작은 사회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적 팽창이야말로 18세기 중국에서 ‘전통’ 생성의 기반이었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냈다고 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중국, 조선, 일본 모두 소농경영이 자립적인 시기이며, 18세기 중국은 인구의 급속한 증가, 농산물 가격의 앙등, 토지 붐이란 특색을 띠었다고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토지제도가 만들어졌다. 일례로 센고쿠(戰國)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시행된 태합검지(太閤檢地)의 목표가 지주·토호 등 중간층의 착취를 배제하고 직접 생산자인 농민을 토지의 보유자=경작자로서 확정하려고 한 것임에 비해서, 오히려 장거정이 실시한 토지 조사사업인 장량(丈量)의 경우는 지주적 토지 소유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던 상황에 대응하여 지주, 즉 토지 소유자=조세·요역부담자를 확정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었다고 한다.

반면, 16세기 중국의 장거정이 목표로 삼았던 재정 재건과 집권화는 지주적 토지 소유의 자생적인 전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와 인간의 유동화에 대응하여 그것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려는 유연한 재정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토지의 빈번한 매매, 대토지 소유의 형성이라고 하는 당시의 동향에 따라서 징세 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한 개혁이다. 이러한 유연한 시스템을 통하여 유동화하고 있던 사회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안정된 궤

도 위에 올리려는 장거정의 노선을 청나라 역
시 계승하여 중국 ‘전통’ 사회의 특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집권적이면서 ‘부드러운’ 체제의 한
가지 측면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도 17세기부터 18세기는 세
제개혁의 시대였다. 16세기까지의 조선의 세
제는 전세(田稅)·부역·공납이란 세 가지를 축
으로 하고 있었다. 18세기에는 균역 부담의 균
등화와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균역법(均役法)

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선의 세제개혁은 중국의 일조편법과 지정은제(地丁銀
制)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조선의 대동법
에서는 중국처럼 세금이 은납화되지는 않지만, 역역(力役)도 포함한 각종 현물
부담이 쌀·면포라는 기본적 물자로 환산되어 징수되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대동법에서는 점차 소유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
함으로써, 그 부과대상이 단순화되어가는 경향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① 세계적인 은 경제의 성립, ② 새로운 상업·군사세력의 출
현, ③ 정치적 변동 발생에 따른 새로운 집권체제 출현, ④ 화이관의 다양화,
⑤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으로 각각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2장 「황제와 관료·신사-명에서 청으로」에서 저자는 중국 황제권력과 관
료·신사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중국 황제권력이
‘전제적’, ‘독재적’이라는 것은 자명한 듯하지만, ‘전제’, ‘독재’는 과연 무엇을 말
하는 것인가. 전제군주는 그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만약 그
렇다고 한다면 ‘제도’가 군주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면 우월해지고 모든 법이나
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제군주’ ‘독재군주’라고 할 수 없을 것이 아닌
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모순을 저자는 ‘전제권력의 패러독스’라고 하
였다. 다음으로는 중국사를 통하여 황제권력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를 고찰하
고 있다.

중국: 일조편법·지정은제

조선: 대동법 실시

일본: 태합검지의 시행

그림 5 ‘근세’ 시기 동아시아
토지제도의 변화

특히 명대(1368~1644)와 청대(1644~1912)의 황제권력 사이에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특히 명대 후반은 몽골과 왜구 등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서 명정부는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집권적 개혁을 행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명정부의 움직임에 관료나 향신들이 크게 반발하여 정치적 대립이 심화된 시기였으며, 지방에서는 향신(鄉紳) 세력⁷이 크게 강화된 시기였다.

청조 황제의 ‘독재적’ 권력은 단순히 중국식 황제 정치의 연장이라기보다는 중국식 황제 정치의 집권성과 북방 간의 리더십을 융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다민족 국가 특유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18세기 유럽의 계몽사상가가 중국에서 발견한 ‘전제정치’는 이러한 청조의 황제 권력이 황제 개인의 자질에 기반하여 그 강력함을 최대한 발휘한 시기였다고 하고 있다. 청초는 향신(鄉紳) 권력을 대신하여 지방관과 서리, 군대의 힘이 지방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향신세력은 상대적으로 몰락했던 시기라고 하고 있다. 청말 태평천국 이후, 지방사회의 ‘군사화(militarization)’가 진행되고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정치 중심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청말의 개혁파 지식인들은 서양의 의회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청초 고염무(顧炎武)의 ‘봉건론’을 다시 환기시켰다. 저자에 따르면 근대 내셔널리즘 시기, 일본은 ‘봉건제에서 군현제’라는 슬로건이 나타났지만, 중국의 슬로건은 이와는 반대로 ‘군현제에서 봉건제로’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다.

제3장 「중국사에서 「근세」의 관념」과 부론(付論) 「근세화」와 「동아시아화」

7 명청시대 과거 시험 합격을 통한 지배계급을 한국학계에서는 주로 신사(紳士)로 호칭하지만, 일본학계에서는 향신으로 호칭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만의 향신론을 제시하면서 重田德 등의 기존 학설과 달리 향신층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향신층 배후에 있던 국가권력이나 경제적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명말 시기, 분산된 개인들이 향신들에게 보호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岸本美緒, 『明清交替と江南社會』(東京大學出版會, 1999) 제2장 「明清時代の鄉紳」 참조.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평을 참조. 차혜원, 2001, 「서평: 岸本美緒, 『明清交替と江南社會-十七世紀中國の秩序問題』」, 『중국사연구』 14.

에서 저자는 과거의 문헌 속에서 근세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문헌적으로 밝히는 한편, 「근세」라는 개념이 최근 주목된 이유는 유럽사에서도 ‘근세(초기 근대), 즉 15세기 말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300년간, 중세로부터 후기근대로 향하는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고유한 구조와 사이클을 갖는’ 독자적인 시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제3장의 부론(付論)에서는 저자 자신의 「근세화」 개념과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나 후카야 가쓰미(深谷克己)의 연구를 비교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저자에 따르면 「근세화」론은 16세기의 동시대적(共時的) 획기를 강조하지만, 「동아시아화」론은 오히려 시대구분적 함의는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중국·조선 및 일본에서의 질서 형성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저자는 자신의 「근세화」론과 「동아시아화」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동아시아화」론을 비판하였다.

「근세화」론은 16세기부터 18세기라는 시기를 하나의 독자적인 사이클로서 19세기 이후의 「근대화」의 사이클과 구별함으로써, 「근세」기의 다양한 질서 형성의 모습을 현대적 견지의 ‘선진-후진’이라는 가치판단적 평가와는 단절하여 중립적으로 고찰하려고 하지만, 「동아시아」론은 오히려 현대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내걸고 논쟁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본서 150~151쪽)

더 나아가 저자는 미야지마와 후카야 두 연구자의 논의를 독자들에게 소개했는데, 이를 간략히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하지만 미야지마와 후카야의 논

<표 2> 미야지마와 후카야의 ‘동아시아화’론

	유교에서의 강조 측면	유교적 근대화론	중국, 조선, 일본 체제 비교
미야지마 히로시 (宮嶋博史)	주자학	공통	차이점 강조 (일본사회의 ‘근세화’ 결여)
후카야 가쓰미 (深谷克己)	민중 사이에 도착화한 유교적 담론		공통점 강조 (동아시아 공통적인 ‘법문화’)

근세일본: 무위(武威)에 의한 위로부터의 평화화

중국·조선: 주자학적 향촌질서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평화화

그림 6 미야지마 히로시, '근세 동아시아 평화화의 두 가지 길'

의는 상당히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야지마는 '근세' 시기 동아시아 질서 형성에는 '위로부터의 길(근세 일본)'과 '아래로부터의 길(중국과 조선)'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고 한다(그림 6 참조).

이러한 미야지마의 주장에 대해서 저자는 센고쿠(戰國) 시기 이래의 자립적인 무라(村) 형성의 연장선에 근세사회의 질서화를 파악하려는 일본 근세사 연구자인 이나바 쓰구하루(稻葉繼陽)의 비판⁸을 인용하고 있다. 한편, 청조에 의한 평화화·질서화가 반드시 미야지마가 말하는 주자학적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신흥군사정권'인 도쿠가와 정권과 청조의 만주 정권의 국가건설의 공통성을 지적하는 견해⁹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조는 지역적으로 동아시아 이외에도 북아시아와 내륙아시아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고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소재는 '팔기제(八旗制)'일 것이다. 최

근 연구에서 주목을 받는 테마로서 팔기제를 근간으로 하는 청조의 지배체제 특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한다. 팔기제는 몽골제국 등의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중앙 유라시아'적

〈표 3〉 팔기제에 관한 스기야마와 다니이의 논의 비교

	강조점
스기야마 기요히코 (杉山清彦)	중앙 유라시아적 기원
다니이 요코 (谷井陽子)	청조적 집권적·관료적 성격 강조

8 稻葉繼陽, 『日本近世社會形成史論 - 戰國時代論の射程』(校倉書房, 2009) 序章 「近世社会形成史研究の課題」 참조.

9 일례로 杉山清彦는 만주족 청조정권과 도쿠가와 막부를 비교하면서 신흥군사정권으로서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杉山清彦, 2015, 「二つの新興軍事政權: 大清帝國と徳川幕府」, 清水光名 編, 『「近世化」論と日本』, 勉誠出版 참조.

성격을 중시하는 입장과 몽골적 전통과 분리된 집권적 성격을 발견하고자 하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표 3 참조).

제4장 「중국」과 「외이(外夷)」-명대부터 청중기까지 국가호칭의 문제」에서는 명실록(明實錄)이나 청실록(淸實錄) 등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천조(天朝)’나 ‘성조(聖朝)’ 또는 ‘중국’을 각각 어느 시기에 각각 얼마나 사용하였는가를 분석하여 각각의 시대에서 이들 단어가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천조나 성조라는 중국을 찬양하는 용어와 중국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면, 명실록의 경우 대체적으로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데, 청실록의 경우 황제 재위 시기마다 큰 변화가 있었다. 명대부터 청말까지 중국과 외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는 <표 5>로 요약하였다. 이를 통해서 보면 확실히 명대에는 중국 대 외적이나 외이를 사용하였지만, 건륭연간부터 아편전쟁까지는 천조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1850년 이후에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점차 용어 선택이 바뀌었다고 한다.

제5장은 「덕치(德治)의 구조-관용의 비교사를 단서로」에서는 ‘덕치’나 ‘관용’과 같은 용어를 중심으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근세’ 시기 서구와 중국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우선 저자는 ‘정의’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념을 갖고 있는 사

<표 4> ‘천조’와 ‘중국’의 사용빈도

청초	건륭중기부터 제1차 아편전쟁 시기까지	1850년대부터 1903년까지
천조나 중국 자체가 별로 사용되지 않은 시기	천조가 중국보다 더 많이 사용된 시기	중국이 천조보다 더 많이 사용된 시기

<표 5> 중국과 외국과의 대비

명대	건륭중기부터 제1차 아편전쟁 시기까지	1850년대부터 1903년까지
중국 대 「이적(夷狄)」 「외이(外夷)」	천조(天朝) 대 외이(外夷)	중국 대 외국

〈표 6〉 도덕형과 규칙형의 비교

도덕형	규칙형
강제적 균질화	특정집단에 대한 특권부여
단계성의 승인	개인의 인권 보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방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한 강력한 사회통합

람들이 공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문제를 ‘공존 문제’라고 하고, 이러한 자세를 ‘도덕형’과 ‘규칙형(rule)’이라고 각각 분류하고, 〈표 6〉과 같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근세 서구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같은 시기 중국에서는 화(華)와 이(夷) 사이에 어떻게 공존을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럽인이 종교대립에 대한 반성에서 ‘규칙형(rule)’의 대응을 만들어냈던 것에 비하여, 청초 시기 지식인들 사이에는 명말에 격심한 정치 분쟁과 논의에 대한 반성이 크게 일어났고, 황제들의 학정(虐政)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도덕형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제6장 「청초 상해 지방인사의 국가관-『역년기』를 중심으로」는 명말청초 시기 상해 부근에 살았던 무명 지식인인 요정린(姚廷遴)이 남긴 회상인 『역년기(歷年記)』를 분석한 사료이다. 저자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사료를 매우 중시하여 논문을 남기기도 하였는데,¹⁰ 저자로서는 매우 보기 드물게 같은 사료에 대한 두 번째 연구논문이다. 저자는 이 『역년기』의 분석을 통하여 명말 이래 강남에서 이루어졌던 지방관의 인물 평가에서 일반적인 학자와 지식인과는 달리, 요정린의 평가에는 한인이나 만주인 등의 구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한인인가 만주인인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10 이 논문은 岸本美緒, 『明清交替と江南社會』(東京大學出版會, 1999) 제7장 「『歷年記』に見る清初地方社会の生活」로 수록되어 있다.

〈표 7〉 명말청초 중국의 시장구조 모델들과 그 내용

시장구조 모델	해외 은의 영향	다른 지역과의 상호 연관	논의의 내용과 주요 연구자
통합형	부정		중국 경제에 해외 은의 영향은 거의 없음
병립형	긍정	부정	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에 영향이 거의 없음 W. 스키너
연쇄형	긍정	긍정	중국 경제에 은의 영향이 있고, 특정 지역의 은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줌. 기시모토 미오
순환형	긍정	부정	단한 체제. 수요와 공급이 서로 균형을 이룬 각각의 완결된 체제. 林滿紅, 폰 글란

까지나 인민을 보호하는 좋은 관리인가 아니면 인민을 착취하는 탐관인가에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제7장 「명말청초의 시장구조-모델과 실태」에서는 은 유입이 명청시대 중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명말부터 대량의 은이 해외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은이 중국 경제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견해부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정리하고, 각각의 견해를 모델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서로 다른 모델로는 ‘연쇄형(기시모토)’과 ‘순환형’의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순환형과 연쇄형의 차이점은 해외 은이 중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국 내 지역시장에 관한 관점에서는 차이를 드러낸다. 순환형은 지역 내 시장들(예: 성(省) 단위)이 서로 닫혀 있고 지역 내 시장들 내부에서 수요와 공급이 완결되어 다른 지역과의 관련이 낮다고 파악하는데 비해 연쇄형 모델(기시모토)의 경우, 지역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완결되지 않는 열린 구조로 파악하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시장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만일 ‘연쇄형’ 모델을 채용한 경우, 명말부터 청대에 걸친 경제

변동을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표 8〉 명말청초 경기변화에 관한 기시모토의 시기 구분과 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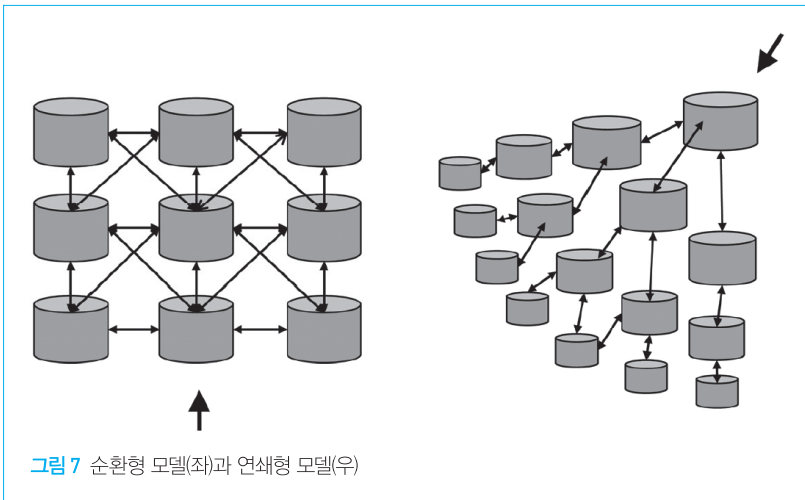
	시기	경기 변동
제1기	16세기 후반~1630년대	활황
제2기	1640년대~1680년대 전반	축소
제3기	1680년대 후반~18세기 중반	회복
제4기	18세기 후반	신장

① 활황기: 16세기 후반~1630년대: 명대 후기는 수공업 제품 수출의 대가로서 대량의 은이 유입된 시기였다. 화폐로서 은이 갖는 연관 효과가 강력했기 때문에, 각 지역경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은에 의존하는 형태로 강하게 연결되어

‘연쇄형’ 모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② 축소기: 1640년대~1680년대 전반. 청조는 반청세력인 해외 무역에 의존하는 정씨의 재원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1656년 해금령을 강화하고, 나아가 1661년 천계령을 반포하였다. 이로 인해 대외교역이 급속하게 축소되면서 중국 경제는 불황에 신음하게 되었다[‘곡천(穀賤)’].

③ 회복기: 1680년대 후반 ~ 18세기 중반. 1683년 정씨세력이 항복하면



서, 그다음 해인 1684년 천계령은 해제되었다. 이와 아울러서 민간의 해외무역 재개를 허락하여, 다시 해외로부터 은이 유입되었다.

④ 신장기: 18세기 후반.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중국의 수출 및 해외 은의 유입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인 ‘확장기’의 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외 무역이 다시 현저하게 확대된 것은 18세기 중반부터였다고 한다.

저자는 명말과 청말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명말의 ‘확장기’와 청대 중기의 ‘신장기’는 같은 대외무역의 확대기였지만, 국가 통합에 준 영향은 대조적이었다고 한다. ① 명말: 여러 개의 창구. 관리 정도 낮음 → 반(半)자립적 세력 출현 → 정치적 불안, 농촌과 도시의 격차, ② 청대: 중앙 관리하의 단일한 창구. 반자립적 세력이 없음 → 정치적 안정. 이처럼 네 시기를 정리해보면, 명말에 형성된 ‘연쇄형’의 시장구조는 청대 중기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¹¹

이어서 저자는 ‘강희불황(Kangxi Depression)’에 대한 폰 글란의 설¹²을 정리하고(표 9 참조),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강희불황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가격 저하는 천계령이 반포된 1660년부터라는 점, 즉 천계령 → 해외 교역 두절에 따른 은 유입 대폭 감소 → 유효수요 감소라는 설이 옳다고 제시하

11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평자는 청초의 지역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청대 중후기부터는 지역시장의 자립화 현상, 사주전 유통 확대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 수요와 공급이 점차 완결되기 시작하였다고 서술한 바 있다. 홍성화, 2022, 『청대 중국의 경기변동과 시장-전제국가의 협치와 경제성장』, 성균관대출판부, 204~207쪽. 이러한 청대 지역시장의 자립화 경향은 청말 독무권력(督撫權力)의 경제적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 폰 글란의 다음과 같은 서술을 참조. “국제 무역 환경에 따른 은 부족이 중국 경기 침체의 원인이었다는 가설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자료와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 중국에서 금과 은의 가격은 국제 시시에 비해 낮았는데, 이 또한 극심한 은 부족 현상이었다는 가설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히려 무역의 흐름, 가격 동향, 환율 등 모든 요소가 가리키는 지점은 극심한 흉년과 거듭되는 민중 반란으로 비롯된 식량 위기 상황이었다.” 폰 글란 저, 류형식 역, 2019, 『폰 글란의 중국경제사』, 소와당, 550쪽 참조.

〈표 9〉 강희불황에 대한 폰 글란과 기시모토의 견해

	폰 글란	기시모토 미오
위기 원인	전란으로 인한 민중반란, 식량부족.	해외로부터의 은 유입 감소
이론적 배경	화폐보유를 중시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설	케인즈의 유효수요설 小林昇
디플레이션의 원인	전란 → 생산에 투자 유보 → 소비 수요 부족 → 디플레이션 → 화폐 퇴장 촉진	은 유입 감소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 → 디플레이션
소작료	매우 낮아서 토지에 대한 수요 부족	소작료가 내려갔다는 폰 글란의 설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찾기 힘들다고 비판

였다. 나아가 저자는 명말과 청초 천계령 시기의 경제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명말에는 향신이나 상인들이 대량으로 화폐를 보유하던 시기였다. 축적된 화폐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도시 부동산에 투자되어 토지 가격이 급속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때는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한 시기였다. 반면 청초 천계령 시기에는 부자들 사이에도 은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소주(蘇州) 변화가에서도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남아돌던 시기였다고 한다. 폰 글란의 설명으로는 이러한 차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한편, 청초 천계령 시기 ‘곡천(穀賤)’과 같은 가격 폭락 현상은 해외 은 유입의 감소와 당시 향신층에 대한 청조의 탄압 사건인 주소안(奏銷案)의 영향이 서로 맞물린 것이라는 저자의 지적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제8장 「쌀, 비단 그리고 환락가-17~18세기의 소주(蘇州)」에서는 근세 시기, 가장 번영하였던 상업도시 가운데 하나인 강소성 소주의 사회경제적 변영상을 묘사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인구가 100만 명까지 증가했다고 하면서, 서양(徐揚)이 남긴 「고소변화도(姑蘇繁華圖)」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소주에는 다양한 상점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소주의 화려함은 이 지역이 대운하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

자는 미곡 집산지인 소주 인근 풍교진(楓橋鎮)의 기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소주성(蘇州城) 주변 지역의 농민들은 견직물 등 농촌수공업에 영위하였는데, 이러한 농촌수공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농민들의 수익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소작료나 세금으로 징수되어 도시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부(富)의 흐름으로 인해 농촌은 가난해지고, 향신을 비롯한 도시 상류계급은 더욱 부유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농촌에서 도시로 집적된 소주의 사회적 부(富)를 통하여 도시민들은 향락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도시부와 농촌수공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7장의 ‘연쇄형’ 모델을 떠오르게 하며, 또한 농촌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이 도리어 도시와 농촌의 사회적 격차를 벌여놓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촌부의 농민들이 향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 저자가 그리는 명청시대의 또 다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 저자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고정적인 집단이나 국가의 성격(예: 전제국가 등)을 통해서 역사를 파악한다기보다는, 개개인의 하나하나 행동과 선택이 누적되어서 끝내 역사가 움직이고 사회가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을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¹³

기존의 시대구분론 등은 특정 사회의 성격을 여러 가지 방법을 추출하여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미야자키 이치사다를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

13 저자의 이러한 방법론은 특히 岸本美緒, 『明清交替と江南社會』(東京大學出版社, 1999) 「序」에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저자의 논지는 차해원의 서평에서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차해원, 2001, 앞의 글 참조.

의 아다치 게이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사를 어떤 고정적인 개념으로 위에서 조감하듯 파악하려는 것이 다른 연구자들의 방법이라면, 기시모토 사학의 특징은 아래로부터, 여러 개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대한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파악하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명말, 은 유입을 통해서 사회적 변동이 격심해졌고(유동성 증가), 사람들은 커다란 ‘불안’과 분열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합집산을 통해서 분산적인 퍼스널한 조직들을 만들어냈고, 이 상황에서 중국을 정복한 군사집단인 청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세력들을 해체하자, 민중들은 앞다투어 청초지배하에 모여들었고, 이를 통하여 ‘일군만민(一君萬民)’ 지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어찌 보면 기시모토 사학의 캐치프레이즈를 ‘불안에서 질서로’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그림 4 참조). 그리고 그런 불안이 16세기 은경제(銀經濟) 시기에 특히 극대화되어 도리어 집권화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자의 ‘근세’론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다른 책에서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인상 깊게 읽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평자로서는 원자화된 개인들의 ‘외로움’이 전체주의를 만들었다는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맥이 닿아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다만, 거듭 밝히지만, 저자는 청초정권의 성격을 ‘집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폭압적인 전체주의로 이해하기보다는 방임적이고 유연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6세기 세계적인 은경제에 편입되고 물가의 변동이 극심해지며, 여기에 명말청초라는 정치적 대변동까지 중첩된 이 시기 중국 사람들이 겪었던 ‘불

14 한대(漢代)가 되면서 춘추전국시대까지의 씨족적 집단이 해체하고, 부동적(浮動的)인 ‘사(士)’ 집단이 출현하고, 그들 사이에 ‘임협적’인 사회집단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였던 중국고대사가인 마스부치의 연구((增淵龍夫, 『中國古代の社會と國家』 弘文堂, 1960)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저자는 여러 번 밝혔다.

안'¹⁵이 어떻게 청조라는 집권적 사회로 연결되었는가가 중국사를 바라보는 저자의 즐거운 물음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유동적 개인들이라는 현상은 중국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사에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내리는 저자만의 독창적인 결론이 아닐까 생각된다.

15 명말청초 당시 지식인들이 겪었던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는 자오위안(趙園) 저, 홍상훈 역, 2017b, 『증오의 시대』, 글항아리; 자오위안 저, 홍상훈 역, 2017a, 『생존의 시대』, 글항아리 참조.

참고문헌

자료

岸本美緒, 1999, 『明清交替と江南社會』, 東京大學出版會.
_____, 2021, 『明末清初中國と東アジア近世』, 岩波書店.

岸本美緒, 1998, 「時代區分論」『岩波講座 世界歴史』卷1, 岩波書店.
_____, 2015, 「『近世化』論における中國の位置づけ」清水光名 編, 『『近世化』論と日本』, 勉誠出版.

단행본

기시모토 미오 저, 노영구 역, 2018, 『동아시아의 「근세」』, 와이즈플랜.
리처드 폰 글란 저, 류형식 역, 2019, 『폰 글란의 중국경제사』, 소와당.
미야자키 이치사다 저, 조병한 역, 2016, 『중국통사』, 서커스.
미야지마 히로시, 2013,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창비.
요나하 준 저, 최종길 역, 2013, 『중국화하는 일본』, 페이퍼로드.
자오위안(趙園) 저, 홍상훈 역, 2017a, 『생존의 시대』, 글항아리.
_____, 2017b, 『증오의 시대』, 글항아리.
차혜원, 2001, 「서평: 岸本美緒, 『明清交替と江南社會-十七世紀中國の秩序問題』」, 『중국사연구』 14.
홍성화, 2022, 『청대 중국의 경기변동과 시장-전제국가의 협치와 경제성장』, 성균관대출판부.
후카야 가쓰미 저, 박경수 역, 2016, 『동아시아 법문명권 속의 일본사』, 한울.
후카야 가쓰미 저, 배항섭 외 역, 2017, 『백성성립』, 성균관대출판부.
稻葉繼陽, 2009, 『日本近世社會形成史論-戰國時代論の射程』, 校倉書房.

논문

李華瑞, 2018, 「唐宋史研究應當翻過這一頁-從多角試看‘宋代近世說’(唐宋變革論)」, 『古代文明』 12-1.

杉山清彦, 2015, 「二つの新興軍事政權: 大清帝國と徳川幕府」, 清水光名 編, 『「近世化」論と日本』, 勉誠出版.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종수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3호(2024. 3)

초판 1쇄 발행 2024년 3월 31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